



예수님과 함께 Walking with Jesus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Maplewood, New Jersey, USA

100년을 향해 더 깊게, 더 넓게 뿌리 내리자

이경 바오로 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 찬미 예수님

형제자매 여러분

반세기 전 미 동부지역 한인 성당으로 처음 태어났던 우리 본당,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St. Andrew Kim Church)의 선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낯선 이국땅에서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반백 년 동안 곳곳이 신앙을 유지해 온 것은 여러분의 강한 믿음과 하느님의 보살핌 덕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설령 폭풍우가 불어닥치더라도 심하게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St. Andrew Kim Church 역시 지난 반세기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지만, 한인 성당으로서 그 뿌리를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는 모두 주님 말씀대로 바위와 같은 든든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신앙 활동을 해 온 여러분의 강한 믿음과 인내심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 뿌리가 되어 주셨던 대전교구와 여러 가지 도움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서울대교구 신부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신부님께서 먼 길을 오셔서 좋은 강론과 특강 피정을 해주신 덕분에 우리 교우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당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국 공동체를 인정해 주고 후원해 주신 뉴욕 대교구장 Joseph W. Tobin 추기경님과 Bishop Manuel A. Cruz를 비롯한 많은 신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의 어려움과 기쁨을 기억하며 축하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터전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잘 물려줘서 그들이 또 다음 50주년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향후 50년을 계획하는 것은 신앙의 지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전통, 언어를 지키면서 이를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줘, 우리가 그랬듯이 후대가 이를 잘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문화와 다른 세대 간의 융화이며 발전적인 교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문화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해서 또 다른 50년이 지나, 백 년의 역사를 지닌 한인 성당으로서 감격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St. Andrew Kim Church, 메이플우드 한인 성당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하느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Archdiocese of Newark
OFFICE OF THE ARCHBISHOP

November 5, 2021

Dear brothers and sisters of St. Andrew Kim Church,

I am delighted to extend my congratulations to you all, who have shown what God can do if we put our trust in Him.

In 50 short years, the Korean community in New Jersey has achieved so much for the church of Newark. Not only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the faithful, but the fervor of faith I have seen is a great model for all immigrant churches. Every year, I am touched to see so many Korean catechumens at the Rite of Election, and to hear the stories how each of the Korean parishes are striving to live our faith in society. In this environment, it is not surprising to know that St. Andrew Kim Church has been the source of so many vocations for priesthood and for religious life.

As your bishop, I encourage you to make the next 50 years even more fruitful for the Lord's vineyard. Pray and plan for the future, so that not only St. Andrew Kim Church but the entire Korean community – and all of the Archdiocese - will grow deeper in faith, and act more boldly to bring the Good News to those who have not yet met Jesus in person within and outside of the church. Also, I pray that your beautiful culture will be honored among your coming generations as it has been. We are not a melting pot but a mosaic in harmony with each other, brilliant with its own beauty.

I thank all the priests who have toiled day and night to lead and to walk with Korean Catholics for the past 50 years and I thank those who are doing that at present. I also thank all the religious and the faithful who have built this wonderful community of Korean Catholics in New Jersey.

May God bless St. Andrew Kim Church, the mother church of all Korean parishes here in our Archdiocese, with abundant faith, love and wisdom so that vocations will continue to grow, and the new generations will become more faithful and vibrant in following the teaching of the faith

Sincerely yours in Christ,

Cardinal Joseph W. Tobin, C.Ss.R.
Archbishop of Newark

Archdiocesan Center

171 CLIFTON AVENUE POST OFFICE BOX 9500 NEWARK, NEW JERSEY 07104-0500 (973) 497-4004 • FAX (973) 497-4018





Archdiocese of Newark
OFFICE OF THE ARCHBISHOP

December 14, 2021

Feast of St. John of the Cruz

Dear brothers and sisters,

It is with joy and gratitude that I write this letter to congratulate the Korean community of St. Andrew Kim Parish as you are about to celebrate 50 years since its beginning here in the Archdiocese of Newark. As a young priest I was welcomed by our beloved Father Augustin Park, and I have seen the goodness of the Lord in so many faithful people like him and like yourselves in this community.



To begin to understand the Korean community one must return to its roots. In the wisdom of Msgr. Park he invited me to go to Korea to see and touch those roots. I was able to walk the soil of Korea where the faith in Christ was planted by St. Andrew Kim and his fellow martyrs. I see that same faith witnessed in the Korean community here in New Jersey. On that trip I was embraced and welcomed by parents of members of this community, and they gave me the gift of a Korean heart.

What I have witnessed in the Korean community, the faithfulness, the trust, and the commitment to the Lord, has allowed this community to thrive in the United States. In an environment of such cultural diversity as we have in America, the Korean community has not only been faithful to its culture but has been so well integrated into the life of the church. It has been an inspiration for many, both of immigrant church, and of the church of this Archdiocese as a whole. One needs only to see the participation of this community in the Marriage Encounter, the Antioch program for youth, the Charismatic Community, the number of vocations to the priesthood and religious life, and indeed the numbers responding to the call annually to Baptism and conversion to the faith, to know that this is a community alive in the faith in Jesus Christ.

The great doctor of the church St. Theresa of Avila said that humility is 'to speak and live in the truth,' and the truth is, the church needs you. It needs your continued commitment to prayer and worship, your witness as a community of faith, and your incredible support to Christ's church in America.

Your Devoted Son,

+Manuel A. Cruz.

Most Rev. Manuel A. Cruz, D.D.

Auxiliary Bishop of the Newark Archdiocese

Archdiocesan Center

171 CLIFTON AVENUE POST OFFICE BOX 9500 NEWARK, NEW JERSEY 07104-0500 (973) 497-4004 • FAX (973) 497-4018



목 차 | CONTENTS

발간사	100년을 향해 더 깊게, 더 넓게 뿌리 내리자	이경 바오로 신부 / 002
축사	A Great Model for all immigrant churches	Cardinal Joseph W. Tobin / 004
축사	A Community Alive in the Faith in Jesus Christ	Bishop Manuel A. Cruz / 005
축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용일 타대오 신부 / 012
축사	박문시놀 삶은 이민 교회 삶과 역사	조민현 요셉 신부 / 013
축사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게 하소서	조후연 아고보 신부 / 015
축사	하느님은 여러분 삶 안에 계십니다	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017
축사	복음 전하는데 더 큰 몫을	한덕수 아벤티노 신부 / 019
기념사	내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집이오	김영민 미카엘 신부 / 020
기념사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정경 실바노 신부 / 022
기념사	앞으로의 반세기를 더욱 힘차게	이승한 발렌티노 / 024
기념사	고통, 기쁨 함께 넘어 새 믿음의 전당을	지영덕 어거스틴 / 025



1장 내 마음 의고향

우리 본당 셋방살이 시절 얘기	이정자 카타리나 / 030
우리 성당 마련 기쁨과 10주년 행사	이회영 베드로 / 033
위로 위로 올라가 기어 들어가던 영성체반 교실	정현숙 심포로사 / 035
겨자씨 점점 자라 큰 나무 되듯이	윤주병 베드로 신부 / 037
좋은 체험, 많이 배운 시간들	박재만 타대오 신부 / 039
신자 모두 나서 성전을 가톨릭으로 개종시켜	김건 요한 / 042
본당신부님 앞치마 입고 고기 굽다니	김경승 아오스딩 / 045
St. Andrew Society (안드레아회)	Clara Hyun / 048
그리운 고향 같은 옛 본당	노의열 프란치스코 부제 / 050
신앙의 열정과 활기 넘쳐	박종우 안드레아 신부 / 054
"Whose turn it is to ring the bell?"	Bernie Hahn / 055
박창득 몬시뇰 은경축에 헌곡	한덕정 버나드 / 059
Community of Faith	Amy Won / 060
Fun and Growth as a Youth Group Counselor	Irene Won / 062
포도나무의 그 풍성한 가지들	최승웅 미카엘 부제 / 065
Thank you all for your friendship	Msgr. Robert J. Fuhrman / 067
남-북한 가톨릭 신자들의 만남	강창홍 바오로 / 068
좋고 나쁜 추억 모두 성소에 큰 몫	김정수 디다코 신부 / 071
친정 가는 신부	조홍래 베드로 신부 / 073
What the Parish Means to Me	Leo Hwang / 075
Safe Space to Exist to the Truest Extent of My Identity	Richard Kim / 078
메이플우드 성당 있어 행복!	김유경 아이린 / 080



2 장 주님안의 만남은 축복

Bishop Cruz, a true people priest

조민현 신부님과 여정

“이사돌이” 24시간 돌아다니며 신자 찾는 사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촌테레’ 이경 신부님

숨사탕같은 미소의 주인공

냉철한 지성과 올곧은 성품

"만췌" 모세 수녀님

‘작은 고추’ 베로니카 수녀님을 그리며

‘빨간 마후라’ 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 갖든 친정

‘자체 성전’, ‘아들 신부’ 꿈 이루신 “큰 신부님”

‘홍남부두 피난민’이 교구 150주년 기념 메달 받다

“이리로 오십시오!”

라루 수사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희년(禧年)의 기쁨 은총 가득하기를

시절인연 - 서로 더 사랑합시다

Eun-Sook Lucy Cho / 086

이승한 발렌티노 / 090

조종진 알베르토 / 096

한유숙 유스티나 / 099

이윤하 미카엘라 / 103

송희선 알로이시아 / 105

박 데보라 / 108

이해영 스테파니아 / 111

지영덕 어거스틴 / 113

정영희 아우구스티나 / 115

홍익섭 아길로 / 117

채수호 알베르토 / 119

정구홍 안드레아 / 122

김동권 사무엘 신부 / 127

김상균 다니엘 신부 / 129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 / 130



3 장 아낌없이 주는 나무 / 박문시놀

Life of Msgr. Augustin Park

Biography of Msgr. Augustin C. Park/박문시놀 약력

신자들을 위해서는 신부가 져야지 다른 길이 있어?

“똑똑한 부부 아니라 너희 부부 필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사목자

“기도 하자,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니까...”

믿음 원칙 사랑 조화 이루신 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하느님 사업 몰두

가슴으로 지은 (새)집

박문시놀님,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신부님, 당신께선 영원한 사제이십니다

큰 사제가 남긴 반백 년 발자취

50주년에 바치는 기도

Jung-Min Park / 134

편집위원회 / 137

이회영 베드로 - 루시아 부부 / 140

채덕규 미카엘 - 라파엘라 부부 / 143

백운택 아오스팅 신부 / 147

남홍익 그레고리오 / 149

강창홍 바오로 - 데레사 부부 / 152

오세완 바오로 신부 / 155

이태성 마이클 / 157

김학선 요한 / 160

이회영 베드로 / 164

김용식 요셉 / 166

채수호 알베르토 / 170

이재영 토마스 - 소피아 부부 / 172



4장 믿음의 칠층산을 오르며

Giving Everything from Our Hearts	이 총우 Michael 신부 / 176
Congratulations on your Golden Jubilee!	Sr. Theresa Lee / 178
Looking forward to continuing this honeymoon	Kenny Chan / 180
My Faith Journey	John Kauh / 183
Wisdom from the experiences of angels and demons	Sophie Kim / 186
The church as Place	Mie-Yun Lee / 188
Serving is Belonging to a COMMUNITY	Andre and Debra Park / 191
Home Away From Home: A Community Worth The Long Drive	Matthew Park / 193
“아직도 부제직 할 생각이 있느냐”	김성규 요셉 부제 / 195
탕자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김영호 요한 부제 / 198
힘과 용기 내어라, 내가 함께 있다	강옥주 안젤라 / 202
‘신앙의 외톨이’ 75세에 세례받다	강호연 다니엘 / 207
메이플우드 성당을 방문하고	구한솔 마리아 / 209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들	김기송 베드로 / 213
새들은 강풍이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민청미 데레사 / 215
받은 은총을 모두 다시 주님께 봉헌 -	박인현 금구요한 / 218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박재규 즈가리아 / 221
이 뒷날 임이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송의용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223
삶의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이종원 글라라 / 226
“하느님을 아세요?”	이태성 마이클 / 230
오묘하신 그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느님	조종완 카타리나 / 235
자비의 회년 피정과 ‘자비의 문’ 순례	편집 위원회 / 237
우리 본당에 뿌리내린 말씀의 역사	조남근 모이세 / 239



5 장 감사는 축복을 낳고

한집안 식구들, 주님 품 안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성당, 말씀대로 이루어진 ‘공동체’
 싱그러운 교차점: 돌아보고, 내다보며
 ‘마음의 고향’ - 메이플우드 성당
 ‘참 좋은 하느님 자녀들’ 공동체
 주님, 골롬바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는 없습니다
 “기적” 또 “기적”...매일, 매일이 “기적”
 오렌지 성당은 참 큰 은혜의 샘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느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의 공동체
 하느님은 공짜를 모르십니다.
 내 고향 우리집, 메이플우드 성당
 다시 오는 50년 준비하는 신앙의 산실
 내 마음의 성지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 / 244
 조홍래 베드로 신부 / 246
 김용식 요셉 / 251
 김금실 세실리아 / 254
 문정숙 데레사 / 262
 윤성진 요셉 / 264
 이기명 아오스딩 / 265
 이해영 스테파니아 / 270
 임문수 마커스 / 275
 장수림 에피파니 / 278
 정정자 아네스 / 280
 조은숙 루시아 / 281
 지광오 바오로 - 세실리아 부부 / 285
 하상구 바오로 / 287
 한성신 도미나 / 289



6 장 살며 생각하며

“Thou shall not kill”
 “Human Life from Conception”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재산
 겨울 산행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
 아들을 따라 이 교회 저 교회로
 해바라기에게서 웃음과 겸손을 배운다
 “세상 살다 보니” 지혜의 길도 보이더라
 ‘그리스도인의 가을 축제’
 52주간 매일 성경 읽기를 마치며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Jonathan Chong / 294
 Lucy Cho / 296
 김기송 베드로 / 298
 김영수 토마스 무어 / 300
 김태호 시몬 / 302
 문상민 안나 / 307
 송의용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309
 장흥수 노아 / 312
 조남근 모이세 / 315
 한성신 도미나 / 320
 한영국 율리아나 / 323



7장 풍성한 포도가지/단체 소개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전직 평협회장들의 좌담회

성모회 - 50년 봉사... 그 은총을 봉헌합니다

봉사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부엌

전례위원회 -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성가대 - 하느님 찬양

주일학교 - 교회의 새싹

"Jesus is good!"

직책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은총을 낳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학생회 - 내일의 주역

Thanks to all the Parents!

The Giving Tree

대철학교 - 한인 정체성 심기

RCIA - 예비신자 교리교육

오히려 지혜, 젊음을 전도 받는 RCIA 봉사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소서"

"저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 잘 조직된 성모님의 군대

은총의 모후 뿌레시디움 1,131차 주회

꾸르실료 - 하느님에게로 온전한 회귀

성령기도회 - 하느님 사랑 영원토록 노래

WWME -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이회영 베드로 - 루시아, 문경신 요셉 - 데레사 / 403

7년이나 피했는데... 손해보았습니다

김재훈 루카 - 이지원 아가다 부부 / 413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조옥경 데레사 / 415

혼인 성사 해에 받은 은총과 사랑

최영옥 모니카 / 417

연령회: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

조영종 율리오 / 419

성소후원회 - 사제 10명의 못자리

정근호 크리스토퍼 / 421

루가회 - 모두 더 건강하고 즐겁게

강창홍 바오로 / 426

크리스토퍼 회 - 성당 출입 안전을 지킨다

지영덕 어거스틴 / 429

아삶모 - 아름다운 삶의 모임

이춘리 다니엘 - 이정자 카타리나 부부 / 431

지아모 - 지구를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

이승자 글라라 / 433

보니파 - 단합된 아름다움

조옥경 데레사 / 437

편집위원회 / 328

정소영 요안나 / 337

염지영 호노리타 / 340

문정숙 데레사 / 341

송희선 알로이시아 / 343

이태성 마이클 / 348

편집위원회 / 352

오영숙 수산나 / 358

이영주 소피아 / 360

조경숙 로사 / 362

편집위원회 / 364

Bryant Lee / 375

Jessica Kim / 377

편집위원회 / 379

조은숙 루시아 / 382

김혜인 베로니카 / 387

이태용 토마스 / 389

박두선 요셉 / 390

이인덕 안드레아 / 392

김경애 요안나 / 395

조재웅 버나드 / 397

김영숙 베레나 / 401



8 장 50년의 발자취 / 역사, 부록

본당 후보 성인 안내	편집위원회 / 442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St. Andrew Kim Church) 50년사 제1부(1972년~2000년)	편집위원회 / 444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St. Andrew Kim Church) 50년사 제2부(2000년~2022년)	편집위원회 / 465
A Brief History of St. Andrew Kim Korean Church	편집위원회 / 480
The Korean Migration: Bias and Prejudice, Japanese Occupation, War and Welcome	Msgr. Robert J. Wister / 485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연혁	편집위원회 / 501
역대 사제, 부제 및 수도자	편집위원회 / 514
본당 출신 사제, 부제 및 수도자	편집위원회 / 517
평신도 협의회 역대 회장 명단	편집위원회 / 518
역대 성모회장 명단	편집위원회 / 519
Church of Saint Andrew Kim, Maplewood NJ	Msgr. Robert J. Wister / 520



9 장 사진으로 보는 50년

사진으로 보는 50년	편집위원회 / 526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보고	지영덕 어거스틴 / 560
가족사진 기도문	편집위원회 / 569
첫 영성체 가족들 기도문	편집위원회 / 578
편집후기	편집위원회 / 581

성 안드레아 화랑

강종숙 아그네스 / 439
강태웅 라파엘 / 146,173,185
박연순 에스더 / 325
이창분 / 83,187,288
조광재 세바스티안 / 032
조재웅 버나드 / 131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본당의 노래
본당 설립 50주년 기도문
Walking with Jesus

/ 면지
/ 면지
뒷 표지 날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박용일 타대오 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제2대 주임신부



사랑하고 존경하는 뉴저지 한인 교우 여러분 !

본당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 교회에서의 추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천국으로 가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김택구 신부님, 그리고 그 본당 출신 사제님들, 한 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당 교우 여러분 !

일일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두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세요. 기도합니다.

많은 기억을 글로 다 쓸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마음으로는 항상 간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박용일 타대오 신부 올림

박 몬시뇰의 삶은 이민 교회 삶과 역사

조민현 요셉 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제3대 주임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흔히 뉴저지 오렌지 성당, 지금은 메이플우드라고 불리는 뉴저지 많은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마더처치(Mother Church), 즉 많은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를 낳은 SAK Maplewood 한인 성당이 이제 설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1972년 한인 이민자를 위해 세워지고 이룩되어 한인 이민자들의 희로애락이 얹힌 삶과 이민의 역사에 함께해 온 우리 자랑스러운 교회의 50주년 기념일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뜻을 기립니다.

이 축하의 말씀은 성 김안드레아 교회, 이 50주년, 이 반백 년의 흔적은 참으로 수많은 한인 이민자의 삶과 함께 살아온 은총의 역사이기에 그렇습니다. 고국을 떠난 우리 이민자들의 삶의 기쁨과 슬픔에 하느님의 성사인 은총으로서 함께 했습니다. 이민자들과 함께해 온 성 김안드레아 교회의 역사는 바로 우리 이민자들의 삶, 바로 우리 자신의 역사에 한 숨결이었기에 그렇습니다. 숨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생명과 은총의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개인으로도 한국에서 이리저리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영혼을 이끌고 낯선 미국 땅에 새로운 희망과 아메리칸드림을 안고 왔습니다. 나를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숨 쉬게 해준 곳이 바로 뉴저지 오렌지 성당이었습니다. 성당 청년회로 재밌고 신나게 활동했고 청년 Youth 미사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사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도움으로 모텔에서 일하며 돈도 벌고 학교도 다녔습니다. 결국 박창득 몬시뇰님의 추천으로 뉴악교구 신학교에 들어가 신부까지 되었으니 저에겐 감사와 축복과 은총의 교회였습니다. 뉴저지 오렌지 성당 감사합니다.

뉴저지 오렌지 성당을 되돌아보며 창설자이시며 목자이셨던 박창득 몬시뇰님을 항상 기리고 감사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민 역사, 그 한 세대를 역동적으로 그리고 놀라운 은총으로 살아오신 박창득 몬시뇰의 삶이 없이 우리 교회를 되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창득 몬시뇰의 삶은 미 동북부 한인 이민 교회의 삶과 역사의 증거입니다. 박 몬시뇰을 통해 뉴저지에 한인 성당이 하나하나 들어서기 시작했고, 그분의 손을 거치지 않은 신심 단체, 교회 단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목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꼭 실천해야만 하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손에 이끌려 신학교로 향했던 것이 어제 같은데, 이제 사제직 23년을 넘어서서, 그분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박창득 몬시뇰의 삶과 흔적이 가득한 뉴저지 성 김안드레아 성당, 오렌지 성당, 지금의 메이플우드 성당은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은총과 축복 생명 넘친 신앙의 현장이었고 또 우리 이민자들의 삶과 애환 기쁨 슬픔이 담겨 있는 우리 미 동북부 교회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또한 박창득 몬시뇰의 삶과 사목은 우리 신자들과 많은 사제가 되돌아보고 배우고 성찰해야 할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나의 아버지 박창득 몬시뇰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50주년 기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하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성모님의 로사리오 축일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게 하소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마태오 19,21)

조후연 야고보 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제4대 주임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 찬미 예수님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설립 50주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뉴악교구에서는 물론이고, 뉴저지에서 제일 오래된 한인 성당입니다. 그러한 성당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저도 담겨 있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 대한 다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신학생으로서의 기억, 보좌신부로서의 기억, 그리고 본당신부로서의 기억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께서 계셨습니다. 지금 그 기억을 떠올려 본다면, 마치 이 세상 최고 화가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머물렀던 살레시오 수도회를 떠나 1998년 부모님이 사시는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뉴저지 뉴악대교구에 속한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지요. 제가 신학생 때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뉴저지 오렌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던 저는 밤이 늦어도 소성당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뵈러 가곤 하였습니다. 소성당에 들어가면, 하루의 공부와 일로 피곤하지만 언제라도 찾아올 아들을 위해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소성당은 밖에 신을 벗고 들어가야만 했는데, 허울을 벗고 있는 저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듯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마음 한구석에 약간씩 쌓여가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실 앞에서 예수님께 맡겨 드리고 다음 날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성당에 머물고는 사제관으로 향합니다. 사제관 주방에는 늦은 밤이라도 한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의 밥과 반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미국 생활에 익숙지 않았던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항상 챙겨 주셨던 박창득 몬시뇰의 배려였습니다.

신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사제 수품 후에 미국 성당으로 첫 소임지를 임명받았습니다. 한국 성당으로 바로 올 수도 있었지만, 미국 성당을 먼저 배우고 오려는 마음이 주교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몇 년간 미국 성당의 사목을 마치고, 2009년 2월에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에 보좌신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년들, 유스그룹 학생들, 그리고 선데이스쿨 어린이들의 지도신부로서 주로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기억에 남는 일은 환자 방문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레지오 팀과 함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분들께 병자성사를 드렸고, 그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2012년도 7월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의 본당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본당의 돌아가는 모든 사정은 알고 있었지만, 신자분들과의 관계는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사뭇 달랐습니다. 성당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 신부로서 신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본당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제의 소명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본당에 처음 오신 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성당에 다니는 분,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상처받고 어렵게 성당을 찾아오시는 분, 그 모든 분이 하느님 아버지의 집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려는 것을 사목의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은 뉴악대교구의 첫 한인 사제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 신부들을 배출하기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신부 중 하나여서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께 대한 기억과 감사의 마음이 큼니다. 2013년 박창득 몬시뇰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한동안 혼수상태에 계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앉아 있기도 힘드시던 상태에서도 매주 미사에 오셔서 저와 함께 공동 집전을 하셨습니다. 그럴 적마다 저는 그분의 사제로서의 의지를 볼 수 있었고, 저 또한 사제의 열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50년 역사가 그려진 화폭 안에 담긴 저의 모습을 되새기며 하느님의 성스러운 작품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미주 전역에서, 특별히 미 동북부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앞으로로도 지속적으로 커나갈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마태오 19,21)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완전한 성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이 성당과 모든 교우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하느님은 여러분 삶 안에 계십니다

최대제 로베르토 S.J. 신부
북미주 한인 사목 사제협의회 전 회장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

하느님은 ‘있는 나’이십니다. ‘있는 나’이신 하느님께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신자들의 가정과, 각자가 보내는 시간과 일과 모든 상황은 ‘있는 나’이신 하느님께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있는 나’

이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은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느님의 밭입니다. ‘있는 나’이신 하느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비가 와도 내 탓이고, 바람이 불어도 내 탓이며, 나와 무관한 사건이나 사고가 나도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탓’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탓’, ‘세상의 탓’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하느님 밖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의 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탓’이라고 할 때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오는 비를 못 오게 할 수 없고, 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것을 하느님 뜻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르지만 받아들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말씀 한마디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의로움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로마 5.1)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어야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 누구도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나’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할 때 사실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느님 탓’이 됩니다. 하느님이 아니면 ‘내 탓’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내 탓’이 ‘하느님의 탓’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느님 안에 살게 됩니다.

‘있는 나’이신 하느님께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설립 50주년이 ‘있게’ 하셨습니다. ‘있는 나’이신 하느님께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신자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함께 살아가십니다. 성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빕니다.

복음 전하는데 더 큰 몫을

한덕수 아벤티노 신부
북미주 한인 사목 사제협의회 회장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본당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세기 동안 뉴악대교구 한인 성당의 어머니 본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오셨다고 압니다. 특히 우리는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미 세상을 떠나신 박창득 어거스틴몬시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그분이 본당과 미주 한인 공동체에서 하였던 일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미주 교포 사목의 기틀을 놓아주셨으며, 많은 한인 공동체 설립에도 관여하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낯설고 물선 이곳에서 한인 신자들뿐 아니라 동포들, 더 나아가서는 북한에 있는 동포에게까지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널리 펴시고자 했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박 몬시놀은 성소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한인 사제 양성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 역할의 한가운데에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우뚝 서 있습니다. 감히 성소의 못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민 1세대 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남은 분들과 2세, 3세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당이 더욱 활성화되고 아울러 지역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큰 몫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본당 공동체가 형제애로 하나됨으로써 진정한 나눔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축복이 풍성히 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집이오

김영민 미카엘 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보좌신부



본당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부가 50년을 같이 살면, 같이 살아온 그 시간이 참 고맙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참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을 주축으로 우리 성당을 이끌어오신 회장단, 사목회 임원들, 레지오 마리에, 꾸르실료, 성령기도회, ME 등 모든 단체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미 동북부에 예수님의 복음 말씀(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50년 전에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처음 시작되었고, 많은 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의학의 도움으로 백세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 또한 제2의 인생, 새로운 변화를 위해 준비하고 훌륭한 가톨릭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 세대로 전수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한스 쿡은 “교회의 본질은 부동성(immobilismo)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응성(aggiornamento)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날마다 ‘새로운 날(giorno)’ - ‘하느님의 은총의 때(kairos)’에 참여해야 하고, 항상 새롭게 쇄신돼야 하는 것입니다. (한스 쿡, 《교회란 무엇인가》 중에서)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구원 활동이 우리 가정에, 우리 본당 공동체에 실현되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말의 어원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모여(assemble)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자주 모여야 합니다.

50년 전, 우리 본당에 주춧돌을 놓으신 어르신 세대는 함께 기도하였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고, 함께 교회 직무에 봉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본당의 젊은 세대들 또한 예수님의 식탁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도 하느님과 예수님, 성모님을 사랑하여, 레지오 마리에, 꾸르실료, 성령기도회, ME, 본당의 기타 신심단체에 참여하여 세상에 봉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누구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마음이 설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2의 인생의 서막을 여는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모든 신자에게 감사드리면서, 본당의 사제와 수도자는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리고 세상 구원을 위해 봉사합시다. 아멘.

“당신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좋았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의 집이오.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일이 이름을 묻지 않고, 다만 괴로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볼 뿐이오.”

(마리엘 주교, ‘레 미제라블’ 중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김정경 실바노 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보좌신부



✙ 찬미 예수님

우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는 1972년 미국 뉴저지주 최초로 설립된 한인 성당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민 사회의 고단함과 외로움을 달래주고 영혼의 안식을 갈구하던 신자들에게 하느님 구원의 한 줄기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당이 고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탄생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마태오 1,23)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서는 지난 50년 동안 본당 신자들과 함께 하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본당 공동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목했던 2년여의 짧은 세월 동안 깊은 신앙심으로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교우분 덕분에 은총과 축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신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50년이란 세월은 강산이 5번이나 변하고도 남을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성 김대건 안드레아 교회 신앙 공동체는 미국 안에서 소수민족으로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않도록 곳곳이 우리들만의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올해는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사목했던 저에게도 이번 50주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사목하셨던 많은 본당신부님들께서 지금까지 일궈놓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신자분과 함께 더욱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당은 Jersey City, NJ에서 Maplewood, NJ까지 성전을 여러 번 옮기면서 세월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삶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 5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50년이 더해져 100주년을 향해가는 시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맞이할 60주년, 70주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칩니다.

50년의 연륜을 ‘지천명(知天命)’이라 합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러한 연륜에 발맞추어 앞으로의 50년은 우리 모두 하늘의 뜻을 아는, 곧 진리에 봉사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50년 전의 첫 마음 그대로 열정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갑시다”(마태 26,46)라는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민 생활의 애환 속에서도 주님의 집인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경 바오로 주임신부님과 함께 격변하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의연하게 버티고 서 있는 한 그루의 튼튼한 나무처럼 쓰러지지 않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당 50년사를 발간하며 소중한 본당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경 바오로 주임신부님과 편찬위원 그리고 본당 모든 교우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든 신자분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앞으로의 반세기를 더욱 힘차게!

사랑과 겸손, 희생으로 새로운 50년

이승한 발렌티노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저희 본당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반세기의 세월을 거치면서 이민 초창기의 어려움을 견디어 내며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랑을 나누는 미동북부 최초, 최대의 한인 성당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50년은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꽃피워 온 신앙이었으며 반세기를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다시 되돌아보며 기억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기억을 돌아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지표를 다지기 위해서 중요한 시점이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교우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이 지면을 통해 정중히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져 온 것이기에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룩하게 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과거의 역사를 보완 하면서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다가올 미래를 지혜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어야 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있어야 밝은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인 사랑과 겸손, 희생을 실천하며 모든 교우분이 주님 아래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에게는 지난 반세기의 빛나는 역사를 만들었듯이 앞으로 올 반세기를 더욱 빛나게 주님과 성모님의 은총 아래 맞이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 본당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의 말씀 아래 모두 모여 앞으로의 반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지난 반세기의 역사 안에서 함께 하셨듯이, 미래의 반세기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와 함께해 주시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념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통과 기쁨 함께 넘어 새 믿음의 전당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후세들 발걸음에 힘이 되기를

지영덕 어거스틴
본당설립 50주년 기념행사위원장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들고 말았다. 그러나 격리 생활을 해야했던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준 계기가 되고,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의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본당의 창립 멤버로서 처음부터 지켜본 50년의 본당 역사는 바로 내 생애의 알파요 오메가, 곧 내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5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서 우리 본당의 정체성과 역사를 조명해 앞으로 갈 길을 모색해 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된 까닭이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본당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알아내고 힘찬 재 출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50년 동안도 미주 이민 가톨릭 교회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가면서, 이웃 성당들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싶었다.

본당을 통해 만났던 형제자매들에게 오랜만에 기념행사 관계로 안부를 전하면서, 믿음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값진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기념집에 게재할 글을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기꺼이 협조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은 하느님의 깊은 뜻과 자상하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드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를 하나로 묶어 준 공동체를 되돌아보면서, 고통을 분담하며 서로에게 의지해 왔던 우리의 모습을 본다. 바로 이런 모습이 앞으로 맞이할 50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한다. 믿음 안에서 함께 고통과 사랑을 나누며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공동체. 이 생각은 이스라엘의 시나고그에 대해 들었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친밀한 만남과 더불어 바른 예절과 가치관을 배우고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는 곳’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한 가를 보시는 분이셨다. 그분은 나름의 독특한 방법으로, 많은 경우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장벽을 허물고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가정공동체안의 관계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아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많은 교우들의 글에서 다양한 신심단체가 우리 본당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큰 동력으로 작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기뻐다. ME를 비롯한 많은 신심단체 활동이 강조해 왔듯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성전인 가정이 먼저 성화 되어야 원만한 공동체가 이뤄지고 발전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우들의 글은 가정은 믿음의 모범 시험장이며, 거룩한 성가정을 이뤄야 꾸준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본당이 준비할 앞으로의 50년은 가정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구역회를 포함한 작은 공동체 모임에서 실행했던 ‘성서 묵상’을 통해 구성원들의 내적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신자간의 관계가 좀더 깊이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 우리 본당을 옳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다는 체험을 쓴 글도 여럿이 있다.

또 교우들이 보내 준 글들은, 젊은 구성원들을 위한 우리들의 정성과 노력이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 새로운 주님의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일에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본당은 성소 후원회를 처음으로 발족시켜 1.5세, 2세 성소자를 발굴하여 사제로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현재 뉴악대교구내 모든 한인 본당의 주임신부와 보좌신부는 현지 출신 사제들이다.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의 오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신자들이 성령의 힘으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따르도록 이끌므로써, 고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처럼 우리 본당을 “살아 있는 성당”으로 만들었다.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우리 본당이 이처럼 자랑스러운 본당이라는 것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우리 본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를 멈춘 적이 없었다. 항상 성장

하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내다 보고 찾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이다.

50주년 기념행사 준비과정에서 또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참으로 많이 받은 교회라는 것이다. 이런 많은 축복의 역사적인 증거들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후세들에게 남기고 싶다고 목표를 가지고 이 행사를 준비하려 한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이다.

1



내 마음의 고향

우리 본당 셋방살이 시절 얘기

이정자 카타리나 / 030

“우리 성당” 마련 기쁨과 10주년 행사”

이회영 베드로 / 033

위로 위로 올라가 기어 들어가던 영성체반 교실

정현숙 심포로사 / 035

겨자씨 점점 자라 큰 나무 되듯이

윤주병 베드로 신부 / 037

좋은 체험, 많이 배운 시간들

박재만 타데오 신부 / 039

신자 모두 나서 성전을 가톨릭으로 개종시켜

김건 요한 / 042

본당신부님 앞치마 입고 고기 굽다니

김경승 아오스딩 / 045

St. Andrew Society (안드레아회)

Clara Hyun / 048

그리운 고향 같은 옛 본당

노의열 프란치스코 부제 / 050

신앙의 열정과 활기 넘쳐

박종우 안드레아 신부 / 054

“Whose turn it is to ring the bell?”

Bernie Hahn / 055

박창득 몬시뇰 은경축에 헌곡

한덕정 버나드 / 059

Community of Faith

Amy Won / 060

Fun and Growth as a Youth Group Counselor

Irene Won / 062

포도나무의 풍성한 가지들

최승웅 미카엘 부제 / 065

Thank you all for your friendship

Msgr. Robert J. Fuhrman / 067

‘남-북한 가톨릭 신자들의 만남’

강창홍 바오로 / 068

좋고 나쁜 추억 모두 성소에 큰 몫

김정수 디다코 신부 / 071

친정 가는 신부

조홍래 베드로 신부 / 073

“What the Parish Means to Me”

Leo Hwang / 075

‘Safe Space to Exist to the Truest Extent of My Identity

Richard Kim / 078

메이플우드 성당 있어 행복!

김유경 아이린 / 080

우리 본당 셋방살이 시절 얘기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정자 카타리나



주님!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이날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몽클레어에 있는 St. Peter Claver 성당을 빌려서 주일 오후에 미사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1973~74년) 이민 온 사람들이 대개 Jersey City에서 집을 풀고 먼저 이민 오신 분들의 도움으로 아파트를 구하고 연줄연줄 아는 이들을 통해 직장을 구하고 했습니다. 우리 본당도 그런 연유로 Jersey city에서 몇 가정이 신부님을 모시고 미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식구가 늘면서 몽클레어로 이사 온 직후에 우리가 성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우리의 영어 발음이 신통치 않고 문화와 환경이 다른 곳에 적응하려고 무진 노력하여도 힘든 것이 초기 이민자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서 한국에서 살면 좋는데 왜 여기로 이사 왔느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가슴속으로 울며 지낸 날이 많던 시절, 성당은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성당에 가서 한국분들을 만나서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들어주고 서로 감싸 안아주는 이민자들의 쉼터였습니다. 아이들은 비슷한 얼굴의 또래들을 만나 한국어로 떠들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빌려 쓰던 성당의 미국인 교우들의 텃세가 심했습니다. 부엌을 사용하는 일, 성가대 자리를 쓰는 일 등등. 화장실은 왜 그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지……. 우리 때문에 친교실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 모두 한국 신자의 탓으로 돌아와서 박창득 신부님께서 여러 번 곤욕을 당하시고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성탄, 부활 등 축일에도 부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



여 몇몇 부녀회원들이 우리 집에서 밤을 꼬박 새워가며 음식을 만들고 그릇 하나하나에 음식과 축하의 글을 담아 나눈 기억도 납니다.

교우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것을 안타까워하신 박창득 신부님께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성당에 모여 성경공부를 하도록 그 성당 본당신부님께 허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첫 수요일 저녁에 10명 내외의 교우들이 모였는데 성당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라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처했던 처지인데 우리가 마침 Kearny에 작은 집을 장만하여 이사했던 터라 성경공부를 우리집에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모였던 10명의 신자가 매주 금요일 저녁 우리 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신부님의 해설을 들었습니다. 그 성경공부의 시간이 실천하는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초대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몽클레어 성당 교우들의 반대로 열쇠가 바뀌고 결국 성당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마련하셨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몇 년 후에 박창득 신부님께서 성령세미나를 도입하셨습니다. 1979년에 성령세미나를 체험한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기뻐했습니다. 봉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자진해서 일을 찾고, 그들의 놀라운 변화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체험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점점 회원들이 늘어났습니다. 성경공부반이 금요일 성령 기도회로 탈바꿈을 하였고 전 성당이 활기찬 젊은이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중에 몇 년째 준비해오던 ‘성전 건립 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고 온 신자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우연한 연결로 시중 가격의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Cleveland St에 있던 Christian Science 개신교 교회의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미사 후 그 소식을 들은 신자들이 우그르르 그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300석이 넘는 곳에 모여 앉은 70명 정도의 신자들에게 박 신부님께서 이런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성전을 비워 놓으라고 주셨을 리가 없습니다. 곧 이 성전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Cleveland St.로 이전한 후 교우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그해 1980년 성탄 미사에는 앉을 자리가 부족해 문밖까지 서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해 성탄은 다행히 춥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우리 집에서 매주 금요일이면 기도회를 하였는데 한국에서 방문차 오신 경갑룡 요

셉 주교님께서 기도회를 함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우리 집에 앉을 자리도 없어서 바짝바짝 붙어 서고도 부족해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됩니다. 이때 기도회는 우리 집만 아니고 남쪽과 북쪽에도 더 있었고, 성당의 분위기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이 눈에 보이는 듯싶었습니다. 초창기 기도회원 중에 많은 분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멀리 우리 본당까지 오시기 어려워 지금은 저희 부부 말고는 몇 분 밖에 우리 본당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의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하느님 곁으로 돌아갈 곳이 우리 본당이기에 우리는 우리 본당에서 드리는 한 번 한 번의 미사가 소중하고 뜻이 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미사만은 우리 본당에서 참례하리라는 결심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아름답고 편안한 성당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우리의 본당입니다.



조광재 세바스티안 작

우리 성당 마련 기쁨과 10주년 행사

이회영 베드로



나는 1975년 7월에 뉴저지로 이사온 뒤 정착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삼 남매를 데리고 내 집을 사서 이사 오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나와 아내 루시아도 우리가 원하던 꿈이 이뤄진 것 같아 펍 기뻐했다. 그때 내 나이 40세였다. 가톨릭 신자인 루시아와 관면혼배를 했지만, 성당에 나가지 못했었다. 이사 후에 수소문해서 찾은 곳이 Montclair에 있는 한인 성당이였다. 미국 성당을 빌려 미사를 드렸는데 박창득 신부님이 사목하던 뉴저지에 하나뿐인 한인 천주교회였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다녔으며 교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좋았다. 그해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고 신자가 된 것이 펍 기뻐했다.

박 신부님은 한국에서 성령세미나를 받고 오셔서 성령세미나를 시작하셨다. 1979년 Marian Shrine에서 있었던 두 번째 3박 4일의 피정에 갔다. 세미나 동안 성가를 즐겁게 불렀고 신부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많은 눈물을 흘렸고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느끼면서 기쁨에 찼던 순간들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집에 돌아와서 사랑의 송가를 부르면서 루시아와 아이들을 안아주니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의아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기쁨에 찬 생활이 계속되었고 1년 만에 신, 구약 성경을 통독하였다. 자주 내던 화가 사라지니 루시아의 얼굴이 피어났다. 많은 교우에게 성령세미나 참여를 권했고 루시아도 다녀와서 아주 많이 기뻐했다. 그 직후 박 신부님의 지도하에 홍익섭 씨, 신영식 씨와 나,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염수호 씨와 유홍준 씨, 이렇게 다섯 사람이 교육받고 신부님과 함께 우리 성당 신자들을 위해 세미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고 주님께 감사드린다.

미국 성당을 빌려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을 마련하는 것이 교우들의 염원이었다. 1977년에 성당건립 기성회가 구성되면서 김도영 씨가 회장을 맡았고 내가 부회장이 되어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그 직후 시작된 성령운동으로 온 신자들이 불

붙게 되면서 자체 성전 마련을 위해 모두 하나 되어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민 초기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금 파티도 하면서 힘을 합쳤다. 그래도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었는데, 묘한 우연의 연결로 1980년 아름다운 성전 구입이 가능했던 것은 하느님의 안배하심이었다. 게다가 돈이 남아 사제관까지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10주년 기념집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사하고 성전 앞에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라는 간판을 세웠다. 성당을 드나들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이건 “우리 성전”이라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뻘뻘했다.

내가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1982년이 우리 성당의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때 모든 신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전을 ‘개종’시켜 성당 모습으로 만들어 가던 일, 10



≡ Cleveland St 성당과 사제관 (Orange City)

아랫거나 둘러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던 장면을 되살려 보면서 언뜻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씀을 들었을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 생각이 난다. 그날 추기경님께서 출다고 하셔서 내 스웨터를 드려 입으셨었는데 나는 그것을 오랫동안 보물처럼 아꼈다.

10주년 기념집을 만드느라 밤을 꼬박 새우던 날들... 지금 생각만 해도 신난다. 김수환 추기경님을 모시고 기념 미사를 성대히 지냈던 기쁨, 전야제의 들뜬 기분, 미사 후 YWCA에서 있었던 경축 파티... 그날 파티 끝에 50여 명이 추기경님을 따라 우리 집으로 몰려왔다. 그분을 중심으로 끼어

본당 봉사를 하면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수많은 손님 신부님들을 모시는 영광을 가졌다. 마침 우리 집이 성당에서 그리 멀지 않고, 그때는 아직 손님을 모실 만한 집을 가진 신자들이 많지 않은 때였기에 더욱 그랬다. “내 사람이라 하여 물 한 잔을 주어도 그가 받을 축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가정에 내려 주신 넘치는 축복이 우리를 찾아 주신 그분들 덕이라는 생각에 새삼 감사하게 된다.



위로 위로 올라가 기어 들어가던 영성체반 교실

Cleveland St 성당 주일학교 초기의 이야기

정현숙 심포로사

4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려니까 잘 기억되는 것들도 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여 그만 잊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우리 성당이 처음으로 자체 성당을 마련하고 오렌지 Cleveland St. 로 이사 왔을 때 신자 모두가 의욕에 차 있었고 한 식구처럼 기쁘게 무엇인가 봉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더구나 그전 해부터 시작된 성령세미나의 열기로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성당을 위해 무엇이든 돕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일학교와 연결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주일학교를 만들고 교사진을 구성했던 조 루시아 교장 선생님의 권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열성적인 진두지휘로 경험이 없는 교사들이 모인 주일학교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신부님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신앙은 가장 잘 알아듣는 언어로 전해야 한다는 박창득 본당 신부님의 지침에 따라 영어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사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젊은 사람들이거나 사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때 제가 갓 스물로 제일 어렸다고 기억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도 저의 교사 직무를 격려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교사들은 의욕에 차 있었지만, 성당의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성당에는 교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쓸 수 있는 공간은 모두 교실로 쓰였습니다. 지하실 창고, 사제관 부엌은 물론 지하실 구석에 있는 보일러실까지 어디든 벽 네 개가 있고 문이 있으면 교실로 썼습니다. 교실은 사정상 자주 바뀌었는데 첫영성체반이었던 우리 반은 다락방을 배정받고 어디론지 위로 위로 올라가 허리를 굽혀 들어간 조그만 방은 알고 보니 성당 제단 위쪽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교리반을 진행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어린 미사 중에 우리 소리가 들릴까 봐 조마조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눈이 초롱초롱한 어린이들은 말을 잘 들어 주



≡ 1983년 CLEVELAND STREET 성당 주일 학교 미사

었습니다.

처음 조직하는 주일학교라 교재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교장 선생님이 마련해 오시는 교재로 한 주 한 주 넘기고 있었지요.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교사 회의를 매달이 아닌 매주 주일학교를 끝내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더 살아있는 신앙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더욱 잘 만들어 갈까를 고민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나도 매주 교재 준비를 잘하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서 배운 교리를 아이들에게 전해 주는 순발력으로 때운 때도 있어서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첫영성체를 하는 미사에서 나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간절히 기도한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제가 부족해서 못다 한 부분을 보지 마시고 이 아름다운 어린이들이 당신을 모시니 이끌어 주세요.”라고.

어느 날 교리 시간에 “이제 우리가 모실 성체가 온전한 예수님의 몸”임을 설명하는데 한 톨 톨한 사내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되어요.” 그래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 John.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하는 것이란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여행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고 그 시작을 내가 아이들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아도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은 내가 젊은 날에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때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이 뿌듯해지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거자씨 점점 자라 큰 나무 되듯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던 본당

윤주병 베드로 신부
천주교 대전교구 원로신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사랑으로, 큰 공동체로 성장 발전하여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하느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더욱더 성숙한 교회 모습을 구현하는 열린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와의 인연은 서울 가톨릭대학교 신학부(서울 대신학교) 교수로 봉직하고 있을 때 1년간 연구년 휴가(1983년 9월~1984년 8월)를 얻어, 영국 런던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고인이 되신 박창득 몬시뇰님의 요청으로 당시 오렌지 본당에서 6개월 정도 박 몬시뇰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저의 사제 생활에서 좋은 사목적 체험, 특별히 이민 사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뉴저지주 전체에 오렌지 본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뉴저지주 전체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는 저녁에 구역회, 주말에는 각종 신심 단체 지도, 교리 강의 등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따라(사도행전 4,32 이하 참조) 구역원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구역회에 열심히 참가하여 함께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며 하느님을 찬양하고 서로 협력하였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숨 쉬는, 활기찬 기쁨으로 충만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당시 신자 중에는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타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들, 지금까지도 그곳에 머무시는 분들, 특히 그 당시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에 있던 분들이 40~50세 어른이 되셨을 것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말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교회와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촌이 팬데믹 현상을 가져와 앞날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직시하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사목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이 50세를 가리켜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든다는 것입니다. 더한층 모든 이가 성령께 귀를 기울여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섬김, 나눔, 배려, 도움을 주며 협력과 일치를 이루는 열린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창립 50주년은 신앙쇄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제2의 도약의 시기입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이 공동체의 초석을 놓고 굳게 다져 놓으신 박문시놀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작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듯이”(마태 13,31~32 참조) 지금 뉴저지주에 한인 천주교회가 12여 개 본당으로 분가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기만 합니다. 박 문시놀께서는 뉴저지주 한인 천주교회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서술한 자료집을 발간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안타깝게도 하느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올해 한국 천주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1821년 8월 21일생) 200주년 되는 뜻깊은 은혜로운 성년의 해입니다. 공교롭게도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주보 성인이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이기에 더욱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자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어떤 역경과 난관이 있더라도, 죽음의 문턱에서 “나는 천주교인이요”라고 소리 높여 떳떳하게 고백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면서 외치신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의 굳은 신앙심을 본받아 앞으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신앙 공동체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 체험, 많이 배운 시간들

박재만 타대오 신부
대전 성모병원 원장신부(은퇴)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박창득 아우구스티노 몬시뇰을 일꾼으로 삼아 오묘한 섭리로 역사하시어 반세기 동안 본당 공동체가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주임신부님과 모든 교우 여러분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얼마 전 지영덕 회장님으로부터 뉴저지 본당 50주년 기념집 발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새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하던 중 방학 기간에 뉴저지 성당에서 박 몬시뇰님의 사도직 활동을 도와드렸는데, 그때 본당 설립 10주년을 맞아 기념집을 발간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 후 몇 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 말입니다.

제가 뉴저지 본당에서 사도직 활동을 도와드리던 때를 뒤돌아보면, 그 기간은 짧은 학생 사제였던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것을 체험한 은혜롭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 몬시뇰님과 회장님들 그리고 교우분들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다 함께 일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부족한 저에게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시며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꼈던 감사의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뉴저지 본당에 있었을 때를 회고하며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것 중의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박 몬시뇰님의 열정적 사도직 활동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것입니다. 박 몬시뇰님은 큰형님같이 넉넉한 마음과 배려로 저를 늘 편안하게 대해 주시는 한편, 새롭게 변화하며 쇄신되고 있던 당시의 신학 동향이나 영성의 흐름에 대해 후배인 저에게 물으시면서

사목 활동을 위해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음과 사도적 열성을 보여주셔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박 몬시뇰님은 본당 공동체의 발전과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회쇄신 운동에도 직접 참여하며 이를 활성화하셨습니다. 특히 성령쇄신운동과 가정 성화를 위한 ME 활동에 적극적이셨는데, 본당 차원을 넘어 전 미국 지역의 한인 교회 공동체로까지 이 쇄신운동을 확장하여 활발히 전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언어와 문화, 정서와 사고가 다른 외국에서 적응하며 생활하던 신자들의 실제 상황을 보고 들으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이민 생활에 잘 적응하여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요 분야의 전문가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의 위상도 높이며 미국 사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자녀들이 좋은 가정교육과 전문교육을 받고 훌륭히 성장하여 당당히 미국 시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볼 때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반면에 적지 않은 분들이 이국땅에서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한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직장의 근로자나 다양한 직종의 소상공인 그리고 노동자로서 겪게 되는 고초와 소외감 등 많은 애로사항을 보고 들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소상공인들이 때때로 괴한들로부터 겪는 위협과 실제 위험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고뇌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방식이나 문화가 한국과는 많이 다른 미국 사회에서 많은 부모가 자녀의 인성교육이나 신앙교육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자녀와의 언어소통이나 감성의 전달이 원활치 않아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뉴저지 본당에 머무는 동안 미국 사회의 여러 가지 고유한 환경과 문화를 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견문과 상식이 넓어지는 유익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관람, ‘갯츠’나 ‘돈키호테’ 등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람,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맨해튼의 다양한 볼거리와 흥미로운 희귀 문화의 접촉 등을 포함하여 유명 대학 도서관을 방문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던 것, 골프를 처음 접하고 배우기 시작한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통해 무시무시한 암흑가로만 상상했었던 카지노가 저의 선입견과는 달리 일반인들의 즐거운 오락장이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뉴저지 성당에서 박 몬시뇰님을 도와 여러 사도직 활동을 하며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 것입니다. 그 당시 신자들은 하느님 말씀과 영적인 것을 갈구하였고, 영적으로 쇄신되고자 평일 미사, 꾸르실료, 성령세미나, ME, 성경 강좌와 말씀 나누기, 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예비신자 교리반에 많은 이들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상황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80년대 한국 교회는 선교 200주년과 서울 세계성체대회를 개최하면서 교황님이 두 차례나 방문하셨고,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님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103위 순교자를 성인품에 올리는 시성 미사를 주례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복음화 활동이 가장 열성적이었고 성령께서 놀라운 결실을 이루어주시던 때였습니다. 각 본당은 몰려드는 예비 신자들을 교리반에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기쁜 비명을 올렸고 심지어 속성 교리반까지 만들어 조기 세례성사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자들은 성령쇄신운동, 꾸르실료, M.B.W. 레지오 마리에, 성경 강좌, 거룩한 독서, 성지순례, 다양한 피정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앙 선조들의 영성을 본받고자 하는 영적 쇄신과 신앙 성숙을 위해 활발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복음화 운동이 활성화되던 한국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뉴저지 본당뿐 아니라 미국에 있던 많은 한인 천주교 공동체들도 함께 유대를 이루며 은총의 때를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뉴저지 본당에 머물며 박 몬시뇰님을 도와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때 정성어린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성원해 주셨던 회장님들, 사목 위원님들과 모든 형제자매님께 기도와 감사의 마음을 모아 전할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의 일생을 뉴저지 본당에서 헌신적으로 사목하시던 박창득 몬시뇰님이 지금은 주님 곁에서 50주년을 맞이한 본당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은총을 간절히 청하실 것으로 믿어 마음 든든합니다.

다시 한번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주님께서 본당 공동체에 더욱 풍성한 사랑의 은총으로 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자 모두 나서 성전을 가톨릭으로 개종시켜

김건 요한



우리가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몽클레어의 미국 성당 셋방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다.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안젤리카가 바로 부녀회 회장을 맡았는데 지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넛과 커피를 대접하는 것도 큰일이었다. 더구나 큰 축일이나 명절에 음식을 대접할 때는 셋집 주인의 눈치를 봐야 해서 힘들었다. 잔치가 끝나고 친교실 바닥까지 다 닦고 쓰레기를 모두 밖에 버리고 왔는데도 냄새가 난다는 불평을 듣기 일쑤였다. 하긴 김치 냄새가 빨리 빠질 리가 없으니 그들의 코를 나무랄 수도 없지만 참 서러웠다.

이렇듯 남의 성당을 빌려 쓰는 셋방살이는 서러움이 참 많았다. 마침 realtor로 일했던 원 크리스티나씨의 소개로 Cleveland St.에 자체 성당을 마련하고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때 네댓 분이 큰 금액을 봉헌해 주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신자가 힘닿는 대로 도와서 구입금의 반 정도만 내고 계약한 것이 반년 만에 넘치도록 모여졌다. 덕분에 성전 구입 후에 매물로 나온 성전 옆 사제관 건물의 구입도 가능해졌다. 원 크리스티나씨가 realtor 면허를 받은 직후에 이 건물 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 두 달 후에 realtor 일을 그만두었으니 꼭 이 건물을 살 수 있도록 그녀를 거기에 두신 것 같다고 얘기들 했다. 그게 하느님의 손길이라 느껴졌다.

박 신부님의 말처럼 “개신교 건물을 천주교로 개종”시키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그 공사를 위해 신자들이 가게를 남에게 맡기거나, 아예 닫고 와서 봉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듯싶었다. 특히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몇 달 동안은 매일 저녁 출근하듯 성당으로 와서는 신부님과 함께 밤늦도록 일하곤 하였다. 여자들은 라면을 끓이거나 떡국을 끓여 밤참을

대접하느라 밤늦게까지 성당은 북적북적거렸다. 그때 10주년 기념집을 준비하는 과정은 완전 원시적이었다. 지금처럼 컴퓨터로 교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은 글자를 찾아서 오려 붙여야 했다. 사제관 식당 테이블에 둘러앉아 몇 날 며칠 그 작업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편집을 맡아 진두지휘한 분은 한덕정 버나드로, 아내 도미나 씨와 함께 우리 본당을 위해 참 많이 봉사했는데 지금은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가 자체 성당을 갖게 되면서 이름을 Blessed Andrew Kim Mission이라 하고 큰 간판을 만들어 건물 앞에 세웠다. (그때는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이 시성되기 전 복자이셨고, 우리 성당은 정식 본당이 아니고 Mission이었다.) 그것을 보는 우리 마음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이렇게 자체 성당이 생기면서 바로 교회법에 따른 Bylaws(정관과 내규)를 만들었다. 자리가 잡히면서 주일학교가 설립되고, 성령 운동, ME, 레지오, 꾸르실료 등 여러 가지 신심 운동이 활발해졌다. 또 신용조합, 의사들의 봉사 모임인 루가회 등이 결성된 것도 이때이다. 그때 로마에서 공부하시던 신부님들이 여름휴가 동안에 오셔서 도와주셨다. 덕분에 우리는 참 좋은 신부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서울 대신학교 교수이셨던 윤주병 신부님은 6개월쯤 우리 성당에서 안식년을 보내셨고, 조병기 신부님, 변갑철 신부님은 긴 시간을 보좌신부로 계셨다. 귀국하셔서 서울 대신학교와 대전 대신학교 교수가 되신 박재만 신부님도 여러 해 여름마다 와서 주일학교를 도와주셨다. 그 외에도 여러 박사 신부님들의 좋은 강론과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자주 있었다.



≡ 1980년 Cleveland 성당 매입 직후: 여기 보이는 개신교의 높은 강단을 신자들이 모여 헤어내고 낮은 가톨릭제단으로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때 성가대 지휘자는 현종건 선생님께서 나는 성가대 대장으로 봉사했던 것이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전후해서 기억에 남은 일들로 1984년에 100여명의 신자와 함께 로마에서 있었던 103위 한국 성인의 시성식에 참석했던 것, 1985년에 St. Patrick 대성당에서 있었던 한국 천주교

교구 설정 150주년 합동 미사 등이 있다.

Cleveland St. 성전으로 이전 후 신자의 수가 부쩍부쩍 늘고 그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해결해야 하는 큰 문제였다. 그래서 주위 주택을 매입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사제관을 헐고 그 자리에 교육관을 세울 계획을 세웠다. 그 사정을 안 교구에서 같은 Orange 시 Central Ave.에 있는 St. Venantius 성당으로 이사 가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곳으로 이사하면서 우리 성당은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박 신부님께서도 정식으로 주임신부로 임명되었다.

Central Ave.로 이사를 하는 즈음해서 있었던 큰 일은 학생들의 안티옥 주말 피정이었다.



1987년 제1차 안티옥 피정에서 부모들의 점심 봉사 활동

아직 Cleveland 성전이 팔리기 전이라 거기서 피정이 있었는데 거의 80명이 참석한 피정의 모든 치다꺼리를 부모들이 맡아 했다. 본당에서 피정하는 것의 장점은 좋은 체험을 한 본당을 신앙의 뿌리로 여기게 되고, 부모들이 기쁘게 도와주는 모습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와 일치된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말 동안 모든 식사와 간식을 부모들이 직접 만들어 주었고 잠도 성당 가까이 사는 신자들이 한 그룹씩 맡아서 데려다 재우고 아침에 데려다주도록 준비된 피정이었다. 몇 달 전부터 전 신자가 기도에 동참하면서 준비한 이 피정을 통해 학생들이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여러 명의 성소자가 배출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보람 있고 감사한 일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는 고귀한 것이고 절대 헛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새삼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위해 애쓰는 봉사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앞으로도 우리 본당이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당으로 더욱 발전하고, 좋은 성소자가 많이 배출되는 못자리의 역할을 계속하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립니다.



본당신부님이 앞치마 입고 고기 굽다니

김경승 아오스딩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벌써 50주년이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와 우리 가족이 미국에 온 지도 4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네요.

처음 뉴저지에 와서 동서남북을 못 가리던 때에 미국 성당을 몇 달 다니다가 지인을 통해 오렌지라는 동네에 한인 성당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 길을 몇 번이고 물어서 Orange의 Cleveland Street에 있는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은 물론 없던 시절이었고 저도 초보운전자였기 때문에 무척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한국어로 미사를 보고 한국어 강론을 들어서 좋았는데, 마침 그날이 본당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성당 마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본당신부님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고기를 구우시며 맥주를 건네주시던 일이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본당신부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과 같이 권위 있고 근엄하셔야 하는 본당신부님이 앞치마라니.... 게다가 술까지 권해 주시다니, 많은 것들이 제게는 생소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척 기쁘고 행복한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클리블랜드 성당에 매주 미사를 드리러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제게 마수(?)를 뺐쳐 왔습니다. 일단, 노래를 부를 수 있냐고 성가대에서 물어보길래 평소에 음악을 좋아하던 저는 “노래는 좋아하지만, 아기가 어려서” (당시에 한 살이 채 안 되었습니다.)라고 했더니 자매님들이 아기를 함께 돌봐 주시겠다는 감언이설(?)에 넘어가 성가대에 덜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마수(?)를 뺐쳐 오시는데 (아마도 조 루시아 자매님이라고



≡ 1981 앞치마를 두르고 케이크를 자르시는 박문시놀. 박정일 주교님과 변갑철 신부님

워야 하나까 영어권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더 빨리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감언이설을 하시기에 그럴렀다 싶어서 덜컥(!) Sunday School 봉사를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첫 실패작이었습니다. ‘성가대에서 미사 시간에 노래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미사가 끝나면 다시 모여서 연습을 해야 했고, Sunday School은 마침 연극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미사가 끝나면 저를 기다리며 감독을 맡아달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했습니다. 결국, 같은 시간을 양쪽으로 쪼개야 하는 일이 벌어져서 참으로 곤란한 경우를 맞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성가대 지휘자 현종건 선생님이 성가대 연습을 빼 줄 테니 자매님들 기타 강습을 하라고 ‘신의 한 수’를 권해 주셔서 미사 후에 성가대 연습도 빠지고, 연극감독은 다른 청년에게 부탁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평온한 날들을 보내다가 구역 대항 ‘성가경연대회’가 열렸고, 그 당시 저의 소속 구역인 Passaic 구역의 지휘자가 되어서 함께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우리 구역이 1등을 해야 한다고 눈에 불을 켜고 매주 2회 이상 모여서 연습하였는데, 연습 중에 터져나오는 터무니 없고 귀여운(?) 실수들(특히 형제분들)때문에 웃음바다가 되고, 연습 이후에 함께 나누는 한 잔의 술을 곁들인 아가페가 만남의 백미였습니다. 마침내 ‘성가경연대회’ 당일이 되어 본당신부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손님 신부님들과 전직 회장님들을 심사위원으로 소개하셨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본당신부님께서도 엄숙하게 말씀하시면서 끝에 위트를 섞어서 결국은 웃음을 선사하시는 재주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영종 형제님의 찬란한(?) 외국어 실력으로 일본,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축사는 일품이었습니다. 모두 1등을 하려고 불꽃 튀는 경쟁 속에서 가끔 튀어나오는 엉뚱한 실수 속에 웃음을 터뜨리는 하나

기억합니다.) “젊으시니까 (그 당시에 꽃 같은 25세!) Sunday School에 봉사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Sunday School은 자기들끼리 영어로 대화하던데, 당시 미국에 갓 데뷔한 저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님께서 “유학생이라



의 축제였습니다. 경연이 끝나고 발표했는데, 저희 Passaic 구역이 영예의 1등을 차지하여 상품으로 ‘국보’ 쌀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2등은 Bergen 구역으로 상품은 ‘이찌방’ 라면, 이런 식이었는데, 얼마나 함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 매년 열리는 구역 대항 성가경연대회는 항상 구역원들을 뭉치게 하고 자주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당의 날’ 행사와 야외미사 및 야유회는 항상 기다림 속에 찾아오는 즐거운 행사들이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적당히 자주 찾아오시는 손님 신부님들의 주옥같은 강론과 가끔 미사 후에 특별히 강의나 피정을 해 주시는 친절함이 매주 미사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손님 신부님 중에 많은 분이 한국 천주교에서 유명하신 분들이고 든든한 버팀목이셨습니다. 한때는 일곱 분이 함께 미사를 집전하시는 정말로 은혜로운 미사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저의 신앙생활에 영양분이 되었던 다양한 피정과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던 일들입니다. 제게 신앙의 눈을 뜨게 했던 ‘성령세미나’,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꾸르실료’, 기도와 묵상의 방법을 알려준 ‘영성 수련’ 등등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성령세미나에서의 기타 반주와 성가대 참여를 통한 음악 봉사, 힘들면서 재미있었던 구역장 시절, 아이들 돌보려고 Youth Group을 돕다가 얼떨결에 사목회 봉사까지...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다가 올해로 37년 된 신용조합은 일종의 숙명(?)으로 여기는 저의 봉사 활동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나름 어려움과 혼동의 시간이 있었지만, 기도 중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답을 찾으려 노력했던 것은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오렌지 성당 시절 청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어느덧 노년으로 접어들었고, 그때 갓난아기였던 아이들은 이미 청년기를 넘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당당하게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저의 이민 생활에서 항상 위안과 용기를 주었던 것은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신앙심을 키워준 오렌지 성당과 본당신부님, 그리고 주님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오렌지 성당 교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렌지 성당 원조 본당신부 박 몬시뇰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St. Andrew Society(안드레아회): a scholarship fund for seminarians in Korea

Remembering St. Andrew Kim's Church

Clara Hyun
St. Philomena Church



Back in 1973, I was a junior in high school. We had just moved to Denville, New Jersey. I remember all five of us would get in the car on Sundays and my father would drive us to the new Korean Church in Montclair. Highway 280 was not completed just yet, so we would take the back roads to the location where the church was. Our parish was not quite recognized as a church and it was called "Blessed Andrew Kim Catholic

Mission."

I have very fond memories of those days. The Parish was small and we all knew each other. There were some Korean-American teenagers of similar age and we looked forward to seeing one another every week. My father, John Hyun started playing organ during mass and he formed a choir. Many of the parishioners joined in and practiced which made us even closer. I always looked forward to the major holiday events as we would practice a little bit more to make the occasions more joyful. I don't exactly remember what year but during those humble beginning days is when my parents and other Ajumma and Ajussi's formed a scholarship fund for the seminary students in Korea. There were about seven or eight couples who would get together every month. They would meet in each other's homes or at a restaurant and always had a great time. I believe my parents were involved for at least 30 years until they became ill and eventually passed away. It truly is amazing



that the “Andrew meeting (안드레아회)”lasted that long and helped those seminary students in Korea.

When the church moved to the location on Cleveland Street in Orange, New Jersey, one of those years, my mother Juliana Hyun became a woman’s group leader and spent many hours at the church. One time, my mother was invited to a wedding at the church and I drove her and waited outside. As I waited, one of my friends, Suzanne Kang, was waiting outside with a couple of her friends. I was introduced to them, who were cousins of my husband, Terrance Lee. To make a long story short, that’s how I met my husband. It was fate... It was St. Andrew Kim Church which brought us together!

After the church moved once again to St. Venantius on Central Avenue, I became involved with the Sunday School and my sister Christine Hyun became one of the youth group leaders. Every Sunday we would get together for a Catechism class or a shared discussion among the youth group. We also had other fun events such as picnics and weekend retreats. In addition, there were so many wonderful memories as my children grew older. It was in those early years of the new millennium when my mother became ill and eventually I lost my mother and father subsequently. Monsignor Park was always there for my parents when they became ill and Monsignor Fuhrman was also another grateful priest and a friend.

Today, I belong to St. Philomena church in Livingston, New Jersey where Monsignor Fuhrman is the pastor at my parish. I am so fortunate and grateful to St. Andrew Kim church because my life has been molded by the wonderful people who were affiliated with the church. It has brought me down the memory lane of many wonderful days at St. Andrew Kim Church. It also reminded me of how grateful I am for being a part of now a magnanimous Korean Catholic Church of New Jersey. I am hopeful that St. Andrew Kim will continue to prosper in the years ahead and that the young parishioners will participate more in this endeavor. Congratulations to all the parish members for the 50th year commemoration.

그리운 고향 같은 옛 본당

노의열 프란치스코 부제
성 백삼위 성당



세월(歲月)이라는 것은 시간이 모인 것이다. 세(歲)는 ‘해’세이므로 ‘한 해’ ‘두 해’와 같이 일 년을 의미하고, 월(月)은 ‘달’을 말하므로 역시 ‘한 달’ ‘두 달’과 같은 시간의 단위가 된다. 이처럼 세월이라는 것은, ‘해와 달’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달과 해가 지나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50년 세월’이라는 것은 육백 개의 달과 오십 개의 해로 이루어지는 것임으로 이 숫자들만 해도 그 시간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월에는 무게라는 것도 있다. 한 해 두 해보다는 십 년이 더 무겁게 보인다. 이런 세월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성상(星霜)이 아닌가 한다. 이 말은 ‘별’ 성자와 ‘서리’ 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은 일 년에 한 바퀴를 돌고, 서리는 매해 추우면 내린다는 뜻으로 한 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50주년을 맞게 되는 ‘뉴저지 한인 천주교 메이플우드 성당’은 50개의 성상을 오롯이 쌓아 올린 만큼, 이제는 누가 보아도 측량이 나가는 성당이 된 셈이다. 50개의 성상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낸 처지다 보니, 이 숫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약간의 인생 체험도 있어서 그런지 그 세월의 무게가 더 각별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더 말할 것도 없지만, 50년에 걸친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연, 그리고 그 우여곡절들을 별을 헤아리던 밤들과 무서리가 내린 날들을 생각해 보면 그 세월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 경축 50주년!

내게는 지금의 성당 공식 명칭보다 ‘오렌지 성당’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했다. 1980년대 우리는 모두 오렌지에 있는 성당으로 미사를 보러 갔다. Fort Lee에 살고 있던 우리들은 Cleveland Street에 있는 ‘오렌지’까지 고속도로(I-95와 I-280)를 약 30분 이상을 달려가야



하는 곳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오렌지 성당의 모습은 아주 많은 신자로 붐비는 곳이었다. 물어 물어 찾아간 오렌지 성당의 첫날. 우리 부부와 아이들은 친교실에서 선 채로 여러 교우와 인사했다. 그리고 고백성사도 교우들이 웅성거리는 성당의 한 귀퉁이에서 선 채로 보았던 적도 있다.

그 시절에 성당 외벽에 성당의 이름을 새긴 글자를 매달아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때만 해도 대체로 우리끼리, 우리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상이었다. 그 때는 몽클레어에서 옮겨온 뒤였는데, 우리 본당이 생겼다고 다소 들뜬 분위기였다고 기억한다. 성당 외벽이 꽤 높아 그 벽에 간판을 단다는 것은 아득한 일이기도 했는데, 어느 교우 한 분이 등산을 전문가처럼 하는 분이 계셨다. 이분이 등산용 자일(Seil)을 걸고 성당 높은 벽에 간판을 달았다. 그 후에 성당 설립 기념집에 성당 벽에 자일을 타고 계신 이분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물론 단순한 하나의 에피소드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나로서는 공동체 전체가 아주 역동적이고, 무엇이랄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 일이다. 그분이 바로 나의 견진성사 대부가 되어 주신 한덕정 버나드 형제님이신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 이런 일뿐만 아니고, 구역회라든가 레지오 등의 신심 단체의 모임이나 활동에서도 아주 밝고 활달한 교우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미사 후 친교실에서 종이컵을 든 채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그때 성당에는 'Max'라고 하는 셰퍼드 종의 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개에 얽힌 기억도 재미있다. 이 Max는 신기하게도 한국어를 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짓지를 않는다는 것이었다. 성당에서 기거하시던 분이 들려주신 말인데, 실제로 사제관에 자주 들락거리던 나를 보고 짓었던 기억은 없다. 그런데 이 Max는 영어만 하면 짓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근에서 배회하던 다른 외국인들은 성당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다. 용하게도 한국어를 알아듣는 영특한 개라고 교우들이 알고 있는 개였다. 그러다가 이제 Cleveland Street의 오렌지 성당에서 280번 고속도로를 건너 성Vernantius 성당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그래서 Max의 집도 성Vernantius 성당으로 옮겨졌는데, 하루는 이 Max가 없어졌다. 모두 찾았지만 인근에서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날 저녁 사제관이 있던 Cleveland 성당의 옛날 자기 집에 Max가 와 있었다고 한다.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알 수 없지만, 고속도로 위 고가도로를 지나 옛집을 찾아온 것이다.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사는 새로 들어온 개를 쫓아내고, 자기가 딱 들어앉아 있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박장대소할 일이 있다.

개 이야기가 나와 하나 더 소개하자면, 박 몬시뇰께서 한국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새끼를 낳아 대여섯 마리로 늘어났다. 그런데다가 중국의 ‘차우차우’ 종의 개도 같이 키웠는데, 이 차우차우는 주인에게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개로 알려졌고 생김새도 사자 같고 덩치도 몹시 커 진돗개의 한 배 반 정도는 되었다. Vernantius 성당으로 옮겨와 사제관 옆뜰에 울타리를 크게 두르고 진돗개와 차우차우 종 모두를 그 울안에서 키웠다. (개가 많다 보니 어느 신부님께서 성당을 방문하셨다가 “어 거기는 개판이여”라고 하시기도 했다.) 그 울안에는 가운데가 산봉우리처럼 되도록 했다. 이사를 하고 며칠 후, 교우들은 그 높은 곳에 차우차우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진돗개가 계속해서 이 차우차우에게 도전했다고 한다. 덩치도 작고하여 도전할 때마다 힘에 부쳐 얻어맞고 물리고 하며 쫓겨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 진돗개는 계속 도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 진돗개가 그 높은 곳을 차지하고 떠억 앉아 있었다고 한다. 내가 직접 목격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즐겁게 Max와 함께 기억하는 일이다. 포트리 공소가 설립되어 마돈나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면서 주일에는 오렌지까지 갈 일이 없어졌다. 하지만 박 몬시뇰을 도와드리는 일에 자원하게 되어, 오렌지 성당의 사제관에 자주 들리게 되면서 들은 이야기 아주 즐거운 기억들이다. 개도 한국어를 알아듣는 곳, 진돗개처럼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는 기개가 있는 곳, 내게는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포트리 공소의 일을 보게 되면서 오렌지 본당의 여러 신자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이 곳에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신 우리의 선배들이시다. 형제자매라고 부르기에 송구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주 크게 돋보이신 어르신들이셨다. 이 50주년 기념 원고를 부탁하신 지역덕 회장님을 위시하여 아주 많은 분을 만났고 그분들은 내게 소중한 귀감을 보여주셨다. 지금도 그분들의 함자와 세례명, 그 모습과 목소리를 되새길 수 있다. 많은 분의 성함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오르신 분들도 계시다. 박창득 몬시뇰이 그러하고…. 그리고 박 몬시뇰께서 심혈을 기울였던 부부 주말 (ME) ‘라마다 인’에서 입소 첫날, 자지 않고 모두 모여 라면을 끓여 먹는 일로 임원들을 놀라게 한 일이며, 골프채를 가져가라는 말을 믿고 웃었던 일 등은 내게 아주 귀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또 성당의 선배들은 우리 공소에 들어 구역회, 레지오, 성령기도회 등등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을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일도 헌신적으로 하셔서, 우리 공소 사람들은 늘 감사하게 여겼다. 지금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이따금 본당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분들을 먼발치에서 지켜볼 때마다 그분들의 모범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이것이 내가 우리 신앙의 본향, 뉴저지 오렌지 성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다. 그런 일이 있었던 그곳이 이제 50년을 맞은 것이다. 태평양 건너의 내 조국과 고향을 잊지 못하듯, 내게는 항상 그리운 고향과 같은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다.

이것이 지나간 50년이라면 이제 또 다른 50년인 100주년의 모습은 어떠할까? 그것은 하느님의 일일 뿐일까? 하느님의 일이 당연하지만 좀 더 쉽게 우리끼리의 말로 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범으로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그 모범의 절정이요, 말이 필요 없는 가르침이시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들이 보여 주는 신앙생활이 바로 백 년 후의 우리를 위한 일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50주년을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다시 펼쳐질 또 다른 50년을 위하여 옷깃을 여미는, 내 신앙의 고향, 메이플우드 성당(내게는 아직도 오렌지 성당이라는 이름이 더 정겹다)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 글을 쓰는 동안 고향에 돌아와 누운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다. 그 푸근한 마음을 메이플우드 성당(이 이름에는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라는 큰 테두리가 있는 것 같아 내 본향이라는 느낌이 있어 더 좋다.) 교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다.

백 년을 바라보며, 50주년을 경축합니다!

신앙의 열정과 활기 넘쳐

박종우 안드레아 신부
에우상담소 소장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86년 대전교구장 경 요셉 주교님의 박창득 신부님 은 경축 축하 인사를 듣고 찾아간 1년 5개월은 참으로 은 총의 시간이었습니다. 늘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신 박창득 신부님의 따뜻한 배려 속에 보낸 시간이 지금도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부님의 열

정과 공동체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활동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큰 감동과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창득 신부님의 은경축과 교구 이전 그리고 본당 이전과 본당신부 취임식, 견진 성사 등등 여러 변화 속에서도 한국 순교자들의 후손답게 신앙의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자들과 함께했던 주일미사, 어린이미사, 구역 모임,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달려 오는 신자들의 밝은 미소, 레지오, 꾸르실료, ME 그리고 여러 모임의 활기찬 모습이 그림 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여름 캠프, 겨울 스키캠프와 청년 주말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박창득 신부님과 조 임마누엘 수녀님, 사무장님 그리고 함께했던 신자들,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리며 마음 속 깊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그 후 필리핀에서 연수를 마치고 교구에 돌아와 여러 일을 하다가 지금은 원로 사목자로 에우상담소를 열어 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50년의 긴 세월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자라온 뉴저지 본당 공동체에 축하를 드리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ose turn is it to ring the bell?”

Bernie Hahn



One of my earliest childhood memories growing up in the familial community of St. Andrew Kim was of asking this question, “Whose turn is it to ring the bell?”, every Sunday in our preparations before Mass. As boys of elementary school age, ringing the bell during the Liturgy of the Eucharist was the highlight of Mass, and it was a rotating privilege we all looked forward to. It’s not hard to imagine just how fidgety altar boys of our age could be while trying to sit respectfully still throughout homilies in Korean, but this privilege definitely made it easier.

Our parish began using altar servers when I was in the 4th grade, after returning from Summer trip to Korea. On a Sunday at my grandmother’s neighborhood parish in Seoul, I had noticed young Korean altar servers wearing red cassocks and I became enamored with the idea of becoming one. I promptly called my parents in America and suggested adopting the use of altar boys during Mass. My grandmother obtained 4 altar server cassocks and packed them with me to take back to New Jersey while the idea was pitched to Monsignor Park (then Fr. Park) who, to my excitement, agreed to give it a shot. Before I knew it, I was an altar server at St. Andrew Kim along with my friend Brian Lee, and the older twin brothers Rich and Henry Song. Despite being barely able to see over the altar, I recall the awe I felt in experiencing the participative nature of the Holy Mass up close. It is probably more accurate to say that I recalled the feeling many years after, but the understanding of that experience has been a lifelong journey that has

defined me as a Catholic.

It is impossible to separate St. Andrew Kim parish from my childhood and coming of as a 2nd generation Korean-American in the 1980s and 1990s. When I tell my wife stories from my childhood memories, an overwhelming majority are inevitably from the days of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from hiking trips that the entire parish family(considerably fewer in those days) went on together to playing football in the parking lot when we moved from the smaller church building on Cleveland Street to the larger one on Central Avenue in Orange. Although our own family lives and distances among friends have made our get-togethers less frequent, the friends I made through my childhood at St. Andrew Kim remain among my dearest. When we do get together, we often spend some of those precious hours reminiscing about our Sunday school and youth group years.

Even more defining of how I came to understand the Catholic faith was witnessing my parents serve the Catholic community at St. Andrew Kim parish and beyond. Their busy schedules were made even busier with their involvement in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WWME), holding Korean language Pre-Cana courses at our home, and various other roles of service. Rather than resent the time they committed to all these faith-based activities, I experienced excitement through their joy at serving. There were always people coming over, or someone else's home to visit. I had a blast playing with the other children around my age. We hosted priests at our home from time to time when they would visit from overseas on sabbatical. My parents' friends that they met through their service became like my family, and the visiting priests became like my uncles. When I was young, being part of the parish felt like being in a constant party.

Having seen service as an integral part of my parents' lives, I volunteered to serve as a youth group counselor after I finished college. It was then that I began to experience another side to being a part of a parish community. If I had experienced the enriching communal aspects of the parish community in my earlier years, I was

now struggling with my own weaknesses and my feelings of entitlement. However, I was blessed to have parents who understood my struggles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serving God. When I complained that the Holy Mass wasn't as engaging without contemporary worship music, my mother would ask, "What does God owe you that you would make such demands?" She always challenged me to search for truth through humility, but I did not realize this until I read Pope Benedict XVI's meditation on the Lord's Prayer.

In the book *Jesus of Nazareth*, Benedict XVI references the Rule of St. Benedict with *Mens nostra concordet voci nostrae* which means "our mind must be in accord with our voice." Pope Benedict explains that, "normally, thought precedes word: it seeks and formulates the word. But praying the Psalms and liturgical prayer in general is exactly the other way around: The word, the voice, goes ahead of us, and our mind must adapt to it. For on our own we human beings do not 'know how to pray as we ought' (Rom 8:26) - we are too far removed from God, he is too mysterious and too great for us." Reading this piece of reflection opened my eyes as I recognized how my parents' faith journey through service was also a manifestation of the spirit and flesh pursuing adaptation to God's voice and will - in the revelation of God's love. I also appreciated and was so thankful that my parents understood my struggles with arrogance and entitlement, and continuously challenged me to pray and search for truth.

In 2005, my mother was diagnosed with metastatic breast cancer. I remember very clearly the day she came home after finding out her diagnosis. She had gone to the hospital after a full day of work and had called my father and me as soon as she found out. When my mom entered through the door, she saw the looks of concern on our faces. She smiled and said, "Don't be sad, God has given me a beautiful life." I was deeply moved by these words and in the years since my mom's death, I've thought back to them every day. I often reflect on the meaning of such faith-based life in my moments of recollection. My father passed away suddenly in 2008 from cardiac arrest, and my mom followed him 3 years later after the cancer relapsed.

I had watched my mother suffer yet again but she bore it in such a way that I was reminded of the anecdote that the angels envy humans because of our capacity to offer up our physical suffering to God. I grieved and mourned after she left, yet I also found hope and solace as I thanked God for allowing me to share in suffering and offer it up – even if in insignificantly small part. Sorrowful, yet rejoicing – as St. Paul once wrote.

The blessing of witnessing my parents' faith journey as part of the St. Andrew Kim parish community for so many decades is something I took for granted most of my life. It was not until some years later that the thought came to my mind that witnessing their journey was a gift that I was thankful for beyond words. It was in the days and months after my mother passed away, when I truly came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at gift as I reflected on the Latin origin of the word "compassion". Com pati – literally translated, "to suffer with". I realized she was able to say to us with gratitude, "Don't be sad, God gave me a beautiful life", because she was rejoicing in the most compassionate heart of our Divine Lord who was walking beside her.

From the time I was baptized as a baby by Monsignor Park, the St. Andrew Kim parish community has been inseparable from my faith journey. It has been where I have contemplated the mystery of the Holy Trinity, and reflected in wonder how God's love spreads from within the family to the greater community through humility, compassion, and the communion brought about whenever we surrender ourselves to pray together "Our Father".

As I was looking through boxes of my parents' assorted mementos in an attempt at home organization, I came across a Mass booklet from the 25th Anniversary of Monsignor Park's ordination in 1986. I was surprised to see my mother was listed as the rector, and even more so when I saw that the last page contained a hymn with lyrics my father had written. The Song Is Being Shared again with the St. Andrew Kim community on this special occasion.

Community of Faith

Amy Won



Growing up at St Andrew Kim Church, I felt most comfortable attending the children's mass, which was conducted in English. This was helpful to me because I felt lost in the adult mass; following what adults were doing without understanding the meaning behind the gestures. As I grew older, I became a lector, gaining comfort in reading at the mass of the Sunday school and of the youth group. I became so familiar with the format that I knew what was happening. Consequently, I began to enjoy adult mass despite not understanding the words and found the collective singing very moving. As an adult, I have never witnessed another mass that sang as much as in the adult mass at St Andrew Kim.

The friendships I forged in youth group remain some of the closest friendships of my childhood. I miss the closeness and camaraderie I felt with my church friends, especially during weekend retreats. To this day, that closeness and feelings are unmatched.

My parents were devoted and committed church members. Their lives were enriched and supported by the St Andrew Kim community in many ways. I know my father (Min-Hee Won) found solace in his engagement at church. He was able to forge connections through the community and found environments where he could share his feelings. His faith never wavered despite the past traumas of his life and the angst of raising four daughters.



≡ 원민희 씨 부부. Amy Won's parents

I remember my mom (Christine Won) deciding to Conduct the choir group for a real competition. I could tell she was very nervous, but she pulled it off with such joy and dedication. I

remember the big smiles she would have while talking to her own church friends, laughing, her eyes crinkling with happiness. Throughout her illness and death in 1998, we witnessed first-hand the power of her faith in God and the critical support role of the church community. She faced suffering with a level of grace and peace that was clearly drawn from her trust in God.

The values that my sisters and I hold are rooted in our experiences growing up within the St. Andrew Kim community. We are committed to living each day guided by compassion and love, with an unwavering appreciation for each day that God has given us. We know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connection to our loved ones and honoring our parents' love by caring for those most dear to us. Though we have faltered and will continue to make mistakes, we will always get back up, re-committed to the values that guide us. We now try to instill these values in our own children, hoping to impart an awareness of infusing one's own everyday choices and actions with compassion and an understanding for all. Remember, the community of faith is waiting for you, always there for inspiration and guidance.

Fun and Growth as a Youth Group Counselor

Irene Won

It was 1985 and I had graduated college; not sure what I was going to do, my mom probably thought I was floundering. Around that time, the Youth Group of St. Andrew Kim grew in number exponentially after its first Antioch Retreat in 1987. The church was looking for additional counselors to reorganize the youth group with two counselors per grade for ninth through twelfth grade. Eight young adults in our twenties were recruited as counselors. I look back at those times and realize that it is where my spiritual growth began. I have forever friendships with people I can count on even though we do not communicate as often now.

I could tell that my youth group students looked forward to class. They would always ask if they could look in my large pocketbook; those days, I carried all sorts of things. They were curious and asked questions. I believe my openness to allow the students to view the contents of my personal pocketbook provided the opportunity to gain their trust. I was an open book with nothing to hide. With this camaraderie, lessons were taught and discussed, openly and honestly.

With eight counselors and a large youth group community, we were tasked with conducting weekly classes, an annual overnight retreat of the class we were in charge and the annual Antioch weekend retreat for 10th to 12th graders. There was another group of counselors who were responsible for managing many fun social youth group activities, such as ski trips, canoe trips, monthly outings, and summer camp.

The counselors were organized under the director and supported by spiritual leaders, pastor Fr.Park(later Msgr.) and Fr.Cruz(now bishop). The youth group truly was a wonderful fun group for high school kids who needed the security of the group was such, that initially we had one classroom for youth group mass, then two rooms were made into chapel, then, I heard, one more classroom had to be opened to the chapel, so that it could accommodate all students and ever-growing number of counselors. Since there was no separate group for recent college graduates, they were happy to serve in the youth group as counselors.



≡ Meeting of Youth counselors, 1993

My hope is that those of you reading this essay and who participated in the Antioch weekend retreat will reflect on what it brought for you. Were you changed as I was? I belonged to a group of people who believed in God and Jesus Christ. We could

share and support one another with our struggles and questions about faith. I was overwhelmed with emotions at my first Antioch retreat. I remember the night my mom, an adult advisor, walked us around the church going over the stations of the cross. I was overcome with tears at what Jesus went through for us. The retreat showed us how to be connected with God and each other. However, the Antioch retreat did a lot more than that. We learned how to write our talks, how to be presenters, how to organize and put together a weekend retreat. All these tools have helped me in my daily life. One of the tips as a presenter was to read 1 Corinthians 12: 12-26. One Body, Many Parts.

All this was possible not just because of the counselors but because of the willing

support of the parents. The adult advisors and parents were an integral part of all our activities. They worked very hard to provide snacks, meals, and housing for the retreatants. They worked especially hard for fund raising. They wanted to make sure that any student who wanted to attend World Youth Day could experience the wonderful oneness of Catholic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parents not only worked for the youngsters but also wanted to grow and had their own annual workshops of “Good parenting” for different age groups.

My memory of St. Andrew Kim is full of wonderful moments, some of them I share with my mom. During the period of remission of her cancer my mom rejoined her group of Legio Mariae and planted flowers in the church plaza. When my mom’s cancer recurred and was struggling at home, Msgr. Park came over to bring her a picture of the pansies planted at the church. He said to her that they were waiting for her. We still have that picture.

The community of faith is always waiting for you.

For even as the body is one and yet has many members, and all the members of the body, though they are many, are one body, so also is Christ.(1 Corinthians 12,12)



포도나무의 그 풍성한 가지들

최승웅 미카엘 부제
에디슨 한인 성당



메이플우드 성당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저에게 축하의 인사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심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박창득 몬시뇰께서는 1972년 뉴저지 저지시티의 한 가톨릭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한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뉴저지 한인 성당의 모태가 된 이 작은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대여섯 가구 몇 분을 모시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신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300가정이 넘으면 멀리 사는 가정들을 중심으로 공소를 설립하곤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 공소가 설립되었습니다.

- 1978년 스테튼아일랜드 공동체 설립.
- 1983년 애틀랜틱 시티 한인 공동체 설립.
- 1984년 포트 디씨 공소 설립.
- 1986년 포트리 공소(현 새들브룩 103위 성당) 설립.
- 1989년 데마레스트 공소 설립.

제가 다니고 있는 에디슨 한인 성당은 1991년 6월 설립된 뉴 브런스윅 공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 박 몬시뇰께서는 뉴 브런스윅 공소의 설립기금을 제공하셨으며 1992년 부산교구 최경용 베드로 신부의 부임으로 마침내 한인 성당으로 승격하였습니다. 한 때 신자들이 양분되어 우드브릿지 성당으로 분리되었으나 메타첸 교구장의 결단으로 다

시 통합된 후 김홍철 베다 신부의 사목 아래 에디슨 한인 성당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의 지도로 South Bound Brook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 윤석로 이나시오와 2007년 제가 종신 부제로 서품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 2년간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상철 빈센트 회장이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채희백 바오로 회장 봉사로 베푸는 이웃 사랑을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고 박창득 몬시뇰께서는 사제 양성에도 진력하셨고 그를 이어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에서는 꾸준히 여러 명의 젊은이를 사제로 배출하여 그분들이 뉴욕대교구 한인 본당 뿐 아니라 미국의 여러 본당에서 사목하고 계십니다.

메이플우드 성당을 방문할 때마다 친정집에 온 기분이며 저 최 미카엘은 1984년 3월 18일 세례받을 때 6개월간 그 당시 사목회장이시던 홍익섭 아길로님, 박창득 신부님, 윤주병 신부님께서 예비신자들에게 성모회를 통해 점심을 제공하시면서 열심히 교리를 가르치시던 기억이 늘 새롭습니다. 박 몬시뇰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사랑의 샘 뿌레시디움(단장 이승한)의 이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닥터 최, 오늘 오후에 꼭 방문하세요. 몬시뇰께서 오늘밤을 못 넘기실 것 같아요.” 하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강용수 부제님과 같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몬시뇰께서 지으신 마지막 미소가 늘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 세상 끝나고 하느님 아버지께로 갈 때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이플우드 성당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나무가 든든히 뿌리 박고 있으면 가지들도 성성합니다.

메이플우드 성당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Thank you all for your friendship over the many years!

Msgr. Robert J. Fuhrman



It is my honor to wish the clergy and every parishioner and friend of Saint Andrew Kim a very happy anniversary! The half-Century, like a Rosary of fifty years, has been a great blessing to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and to the Archdiocese of Newark. One of the great joys of my priestly life has been my association with Saint Andrew Kim Church, from the days when I served in Orange with the

Children's Mass and the Youth Mass.

I was assigned as a priest to the Seminary at Seton Hall University in 1990. I needed a Sunday assignment and I heard that Father Augustin Park might be interested. I called him and he immediately accepted me and made me feel like part of the family. Tha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learn more about Korean life, culture, faith and traditions. I will always be thankful! Monsignor Park was a wonderful priest and a gifted leader!

At this beautiful anniversary I ask God's blessings, His grace and peace for Saint Andrew Kim Parish and all who have it as your spiritual home! I ask the holy martyrs of the Korean Church and above all, I ask the most Blessed Virgin Mary, to seek the Lord's joy, protection and love for each of you.

I thank you all for your friendship over the many years! I promise to remember you in my holy Masses! May God bless this great Parish of Saint Andrew Kim for many generations to come!

남-북한 가톨릭 신자들의 만남

강창홍 바오로

제가 오렌지 성당 사도회장을 맡은 해는 1995년입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행사가 박창득 신부님의 환갑잔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신자가 한국에서 이민 온 지 10년 정도였기에 환갑잔치는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는데 극구 사양하시는 문시놀을 설득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사도회, 부녀회, 반석회 등을 중심으로 모든 신자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95년 2월 10일 West Orange에 있는 Atrium이라는 작은 연회장에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회에서는 신부님에게 한복을 해드려 입으시도록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해 여름이 되면서 가졌던 큰 행사는 제1차 미 동북부 성령대회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두봉 주교님과 한국과 미국에 계신 여러 신부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뉴저지 Washington Township에 있는 가톨릭 학교를 빌려서 성대하게 성령대회를 치렀습니다. 성령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는 매년 개최되어 미 동북부에 있는 여러 본당에서 많은 신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가톨릭 행사입니다.

1995년 가을에는 미 동북부 지역의 한인 아동 입양 미국인 가정을 모두 초대해서 한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또 한국 문화를 보여주는 잔치를 했습니다. 한국인의 역사와 긍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미 동북부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입양아 가정 환영 대회였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한국에서 이민도 많이 왔지만, 한국 어린이들의 미국인 가정 입양도 많아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입양아들에게도 한국인의 긍지를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100명 이상의 입양 가족이 초대에 응해 왔고, 우리의 전통의상, 노래와 춤, 태권도 시범을 보면서 입양 가족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많은 한국인의 꿈인 ‘남-북한 통일을 위한 가톨릭 신자들의 만남’이 미국



≡ 1995년 북한 카톨릭 신자들을 초청 세미나 -박창득신부, 남해근신부 옆에 있는 장재언씨신자 대표

에서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에 관심이 많으셨던 박 몬시뇰의 주선으로, 회담이 뉴저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주교님을 비롯하여, 신자 대표들, 정부 관료들, 북한에서는 공산당 종교 지도자, 천주교 신자 대표, 평양 성당 대표

분들이 참석했는데, 역시 감시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항상 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영접한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렌지 성당에서 환영미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 신자분들이 나눈 이야기는 “북한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네!” 하는 놀라운 감탄들이었습니다. ‘북한’ 하면 무엇인가 다를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자연스럽게 먹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잠깐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북한 교우 방문과 환영식은 1995년 10월 27일에 뉴저지 Cliffside Park에 있는 ‘대원 연회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동부지역 사제회와 사도회장단에서 주최하게 되어, 우리는 뉴욕 퀸즈 성당 회장단과 한 달 전부터 만나서 환영식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원 연회장에 들어가는 인원도 채워야 하고, 환영 음식과 인사도 준비해야 하고, 그에 따른 경비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종교와 정부 지도자들에게 미주 한인 가톨릭교회를 보여주며 그분들을 환영하는 자리인 만큼 소홀히 할 수 없는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행사 전에 프로그램을 짜 놓고, 미 동부에서 가장 큰 퀸즈 성당과 뉴저지 오렌지 성당 사도회는 참가 인원을 2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준비하였습니다. 한가지 에피소드는 행사 당일 오전에 퀸즈 성당 사도회장님이 전화오기를 “퀸즈 성당 신부님은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시다, 그러면 신자들도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같이 행사를 준비하고,

참석인원의 반을 퀸즈 성당에서 채우리라고 예상하던 우리에게는 큰 낭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북한 신자들간의 회담에 열중하시던 신부님에게 이런 소식을 알릴 수도 없어서, 간단히 여쭙어만 보았습니다. “신부님, 오늘 환영 행사는 예정대로 되는 것이죠?” 여쭙었더니, “당연하지”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마음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와 함께 행사를 준비해 주신 홍종욱 부회장, 오인호 총무 권 요안나 부녀회장, 모든 사도회 임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후에 다행스럽게도 퀸즈 성당도 참여한다는 연락을 다시 받게 되어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행사도 많았지만, 뜻있는 봉사의 기간이었고,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한 점이 있다면, 주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몬시놀께서 건강이 악화되어 잘 걷지도 못하시면서도 북한 선교를 걱정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포부가 크셨던 박 몬시놀님을 회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까이에서 신부님을 도와드렸다거나 본당을 위해서 봉사했다기보다는, 내가 좀 더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그것은 성당 공동체가 몬시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고, 품에 안으시려고 노력하셨던 몬시놀님, 인자하시면서도, 엄격하시기도 하셨던 몬시놀님,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기원합니다.



좋고 나쁜 추억 모두 성소에 큰 몫

지난 50년을 토대로 더 큰 열매를 맺는
50년을 기원합니다.

김정수 디다코 신부
마돈나 성당 주임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50년 역사가 있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Jersey City부터 여기저기 장소를 옮기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 왔던 예전 성당 건물들도 생각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신자들과 함께해 주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을 비롯해 다녀가신 많은 사제와 수녀님들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동안은 “시끄러운 성당”이라고 알려졌을 때도 있었고 사제들도 신자들도 비판받을 때가 있었지요. 또 어떤 분들은 뉴저지 지역 모든 한인 공동체의 시작이라고도 생각하시고, 많은 사제, 수녀님들이 성소를 찾은 본당이라고도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본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추억과 신앙을 쌓아온 본당입니다. 저의 견진성사도, 제 아버지의 세례와 장례도, 누나의 결혼식도, 저의 첫 감사미사도 모두 Orange에 있던 성 김대건 성당에서 이뤄졌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울고 많은 우정을 신앙 속에서 나누었던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어떤 가족이나 소공동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추억이 좋은 추억만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왜 어른들은 성당에서까지 싸워야 할까 하던 날들도 있었고,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만을 챙기는 모습도 보았고, 심지어 사제가 제대 위에서 먹살을 잡히는 일까지도 목격하며 충격을 받은 날도 있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되돌아보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성 김대건 성당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좋은 기억, 좋지 않았던 기억을 모두 되돌아보는 이유는 이 모든 역사가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고 저의 사제 성소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도, 사도들의 부족함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인간들의 나약함을 통해서도 이루시는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신자분들께 50주년 축하 인사를 드리며 부탁드립니다.

50년의 역사가 헛된 역사가 되지 않고 앞으로 이 모든 역사의 열매를 맺는 50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의 성장을 통하여 사제, 수녀 그리고 모든 신자도 이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본당 공동체도 이제는 깊은 뿌리를 심어가며 우리 후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1테살 5,23)





친정 가는 신부

조홍래 베드로 신부
뉴악대교구 St. Andrew 소신학교 학장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2011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니, 올해로 신부가 된 지 10년이 되었다.

많은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사제로서의 삶이 주는 큰 숙제이자 축복 중의 하나다. 독신으로 진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제들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많은 신자들과 함께하며, 섭섭한 남편도 되었다가, 속상한 아내도 된다. 답답한 부모의 마음도 되었다가, 죄송한 자식의 마음도 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메이플우드 성당을 떠올릴 때마다 드는 나의 마음은 “열심히 시대에서 살다가 잠깐 쉬러 친정 가는 며느리” 마음이다. 언제나 나를 반가이 맞이해 주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봐주고, 밥 먹었는지 살피주고, 쉬러 온 줄 아는지 부담되는 이야기는 피하고, 어디서 들었는지 나의 대소사는 이미 다 아는, 그리고 맛있는 점심은 기본인 그런 친정 말이다.

1992년 6월 미국에 도착한 날이 수요일 밤이다. 그 첫 주일 오렌지에 있었던 성당에 갔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식구를 맞이하듯 반갑게 나를 안아주신 박창득 몬시뇰, 그리고 이야기 들었다며 잘 왔다고 반겨주신 많은 신자분. 그때 처음 만났던 대부분의 신자분이 지금까지도 메이플우드 성당의 빼놓을 수 없는 주축들이시다. 나는 이게 바로 우리 성당의 저력이라 믿는다. 다른 어떤 본당도 따라올 수 없는 역사의 저력, 사람의 저력. 그리고 사랑의 저력. 그 저력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다르다” 친정이 잘 나가니, 나도 기분이 좋다!

우리 본당이 창립 50주년을 기념한다고 하니, 참 마음이 벅차다. 옆에서 지켜만 보았는데, 마음이 벅차다.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많은 업적 때문만은 아니다. 그 긴 50년의 세월 동안, 이 본당이 얼마나 많은,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정이 되어줘 왔을까. 가면 마음이 편한 곳, 내 맘 알아주고 챙김을 받는 곳, 한국에 있는 가족들 보다 이제는 더 가족 같은 본당 식구들, 부족하지만, 다투기도 하지만 사랑 안에서 한 아버지 섬기는 곳. 그런 따뜻한 곳,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본당 창립 50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50년을 기쁜 마음으로 설계하시기 바란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항상 이끄시고, 항상 변화하는 곳이 우리 교회이니 말이다. 이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자녀, 또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지금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함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서로서로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 주려고 노력할 때, 그 몫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더 따뜻하게 채워질 것이다.

좋으신 분이 위에서 한마디 하신다.

“베드로 신부, 글 쓰느라 수고했어. 친정에 가서 점심 먹고 가”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요한 14,2)

What the Parish Means to Me

Boomerang: Just as I had a rich church experience as a teen, I hope to provide the same for our youth

Leo Hwang



My relationship with the parish started when my family immigrated to America in the early 1980's. I was five or six years old when we started coming to the Church and I have been a continual member of this parish with the exception of a couple of years due to education and work. When I look back at my experiences in being a member of the community at St. Andrew Kim, I realize how much the parish has provided support for me in every stage of my

life. From the religious education I was taught, to the sacraments I received, to the opportunities to volunteer, to the faith formation I participated in, to the religious education of my own children, the Church has been there providing a place for my spiritual and interpersonal needs.

When my family immigrated to America, they found a community in this parish. I attended Sunday school and participated in many events as a child. I also made friends with many children my age, some of whom I am still very close to even to this day. Sometimes I will see a picture in the parish during that time period and I will notice my face sticking out of a group of smiling, awkwardly dressed kids. I still have memories of when I was seven or eight years old playing outside the Church building in the snow, and teasing the parish guard dog named Max. The memories that I have of the parish from that time are happy ones.

As I grew up, the parish moved to a different location in Orange and even though

the building changed, the sense of belonging and community remained as steadfast as ever. My old friendships were maintained and new friendships were made. As I grew into my teenage years, the Church provided a place where I could meet others who looked like me and shared similar experiences as Korean-American Catholic youths. Having the parish in my life at that critical moment of self-development helped me to define my identity. The parish also provided faith formation during these years and it was during the Antioch retreats where I experienced my faith in a new and deep way. The Antioch Retreat program also gave me an opportunity to serve others as a team member. I can never forget the struggles in preparing for the retreat, the joy in running and completing it successfully as part of a team. I have lots of impactful memories from when I was part of the Youth Group. I learned how to ski and experienced camping through the Youth Group. I believe the experiences I had the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forming the person I am now.

Entering college and being a young adult, the parish provided a familiar and welcoming place for me to come back. It also provided me with an opportunity to continue my work volunteering during the summer months. I was so naive then, but the struggles and successes I experienced during some difficult moments taught me many life lessons and helped me mature. Into adulthood, the parish continued to provide a sense of welcome and community. It was a familiar place where you could meet friends weekly and perhaps even run into someone you haven't seen in years. I continue to volunteer my time to the parish as the Youth Ministry Director. The position requires a lot of time and energy, but it is worthwhile for me to be able to assist in providing a place of faith, fellowship, and worship for the youth of our parish. Just as I had a rich church experience as a teen, I hope to provide the same for our youth. I also hope to walk with them as they start their faith journey and encourage them to listen to the Word so they may have life abundantly.

Once I became a father, the Church provided a place for my children to receive their religious education and their Sacraments. Every time I see them at church, I am reminded of my own experiences and I see the workings of the parish mission in them. It is my hope that the parish provides for them and for all youth at every



≡ YG 학생들과 기타치는 Leo Hwang - 2022년 스키 trip

stage in their lives as it has provided for mine. I hope the youth will make life-long friends, build solid faith, and find community in this parish. It is my hope that the parish continues to live on and evolve to be able to provide parishioners with the support they need in all stages of their lives as Korean-American Catholics.

-Leo Hwang

Boomerang: Just as I had a rich church experience as a teen, I hope to provide the same for our youth

Safe Space to Exist to the Truest Extent of My Identity

Richard Kim



My first memories at church were those spent stubbornly clutching my mom's arm to avoid attending the Sunday School kindergarten class. As a shy, anxious child entering a completely unfamiliar community, I was terrified of what Sundays at 280 Parker Avenue would look like. It wasn't until I was approached by Joseph Kang's earnest smile telling me I would be okay that I attended my first Sunday School class and began my journey as a member of the parish.

I recall spending class time learning how to participate in mass, reading parables from the Bible, reciting prayers, and learning about my faith as a Catholic. Though there were plenty of moments during Sunday School spent staring at a ticking clock, the moment that I most vividly remember from my early church experience was the feeling of pride after receiving my First Communion. My religious growth at St. Andrew Kim Church (SAK) only grew from there. Every year, my class moved a pew further from the altar at mass until we sat at the pew marked with the number "8" and graduated from Sunday School. I remember then moving to the small chapel for Youth Group mass. Over the following few years, I attended Confirmation classes and served in the Youth Group mass. I participated at the annual Antioch retreat as a leader and spoke openly with my peers about my journey with faith. I graduated from Youth Group feeling content with my religious growth through my experiences at SAK.

Though attending church offered a place to practice and grow my faith, it also



became an important community in my life. Whether I was volunteering as a Co-Director of the Giving Tree or raising money at the Youth Group Tea House by singing with my friends in front of the church (perhaps a few too many times), SAK offered a space for me to actively engage with the individuals in the church community and grow personally. I attended Midnight Runs to support those in need, summer camps, and ski trips, all the while making lifelong friends over the years. Being a part of the SAK community offered a safe space where I could exist to the truest extent of my identity and do so in the judgment-free presence of other Korean-Catholics growing up just like me. Following mass, I would scarf down deliciously prepared Korean food, mumble some quick “안녕하세요!”s to the adults nearby before hustling outside to play with my friends on the fields.

For nearly my entire life, attending church has been a staple of my weekly agenda. It is a place where I have learned about Catholicism, struggled with my faith, and sought answers to my questions, over and over again. It is also a place I have given a lot of my time and energy towards, and in turn, it has become a special place to me. I am grateful for this church and feel blessed to have been a part of its first 50 years.



메이플우드 성당 있어 행복!

김유경 아이린



+ 찬미 예수님

우리 아들이 세 살이던 해였던가? 2008년이나 2009년 쯤이었던 것 같다. 뉴저지로 이사와 동네 미국 성당에 다녔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한인 커뮤니티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어서 한인 성당을 찾게 되었다.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메이플우드의 한인 성당을 찾았고 그렇게 남편과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미사에 참례하게 되었다. 그날따라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성당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유아방에서 미사 참례하다가 밖으로 나가려는 아이를 쫓아 성모상을 모신 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미사를 정신없이 보았는데, 알고 보니 박창득 몬시뇰님의 퇴임미사라 그렇게 많은 신자분께서 함께 하신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 가족과 메이플우드 성당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고, 그 후로 주일미사에 가끔 나오다가 미사 후 체육관에서 점심이 제공되자 교우들과 점심도 함께하게 되었다. 어느 날 미사 후에 앞쪽에 앉으셨던 홍지연 세실리아 자매님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자매님께서 섬머셋 A 구역 소속이니 그 구역으로 등록하라고 권하셨다. 그렇게 자매님 손에 이끌려 영접결에 우리 가족은 섬머셋 A 구역원이 되었고, 같은 구역원이셨던 남편의 대학 동창인 박미리 로즈마리 자매님도 졸업 후 다시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따뜻하고 친절하신 구역원들과의 친교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메이플우드 성당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남편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어가 서툴지만, 본당에 영어미사가 있었고, 또 같은 구역원 중에 영어권이거나 이중 언어를 사용하시는 형제님들 덕분에 걱정했던 언어 문제도 자연



스럽게 해결되어 남편 역시 메이플우드 성당의 일원이 되어 갔다. 그 후에 메이플우드 성당의 전신이 오렌지 성당임을 알게 되었고, 결혼 전에 맨해튼 성 프란치스코의 아씨시 성당에 다닐 때 청년 성령대회에 참석하러 오렌지 성당에 다녀간 일도 생각이 났다. 생각보다 이 본당과 나와 의 인연이 조금은 더 오래된 것 같았다.

구역원들의 사랑 속에 메이플우드 성당에 잘 적응해 나갈 무렵, 큰아이 또래 친구인 그레이스, 콜린의 엄마인 한유숙 유스티나, 양혜원 안나 자매님들과 두 자매님의 오랜 성당 지인이신 강혜선 요세피나, 김유인 아네스 자매님 등과 점심 후 친교를 나누게 되었다. 대화 중에 우연히 레지오 연차 총친목회를 함께 지켜보게 되었고, 네 자매님과 “우리도 그럼 레지오 하나 만들어 볼까요?”라고 웃으면서 나눈 말이 현실이 되어 모세 수녀님의 지도로 성모님의 애칭이신 ‘상아탑’이란 이름의 레지오 브레시디움이 결성되었다. 그렇게 매주 레지오 회합을 하며 성모님의 품 안에서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강 요세피나 자매님은 유방암으로 투병하시다 2012년 12월에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고, 8년 후인 2020년 11월에는 부군이신 강 요셉 형제님 또한 하늘나라로 가시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다.

메이플우드 성당에 처음 나올 때부터 10시 영어미사에 참례하였다. 얼마 후 조민현 주임신부님의 권유로 어른 영어 성가대가 결성되어 신정원 안누시아파 자매님을 초대 지휘자로 모시게 되었다. 나와 남편도 함께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며 영어 성가를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귀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초창기 멤버로는 Decon Tom Bulgia의 부인이신 메리앤 자매님과 김하성 엘리자벳 자매님, 임성원 모니카 자매님, 강 요셉 형제님, 백선미 프란체스카 자매님 등 어른 단원들을 비롯해 주일학교나 유스그룹 학생들의 악기 연주도 함께하여 풍성한 하모니와 세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성가대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었고, 2011년 조홍래 베드로 신부님의 사제 서품 후 첫미사를 본당에서 봉헌하실 때 음악으로 전례에 참여하는 영광도 누렸다.

어른 영어 성가대와 더불어 어린이 성가대가 서로 격주로 영어미사 전례봉사를 하기도 했고, 어린이 성가대의 지휘자이신 지용철 형제님과 반주자셨던 오정선 헬렌 자매님도 오랜 세월 어린이 성가대를 위해 매주 아이들을 지도하시며 성가 연습과 봉사를 하셨다. 이제는 영어미사를 주일학교 어린이와 유스그룹 청소년들 중심으로 진행하기 위해 어른들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였지만, 세대를 아울러 함께 전례를 했던 그 시절도 이젠 무척 소중한 추억이다. 매 주일 영어미사가 끝나고 구역원들이나 성가대 대원들, 레지오 단원들과 체



≡ 2012년 1월 어린이 성가대 단체사진

육관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친교와 사랑을 나누었고 때론 서로 가정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 속의 친구들을 듬뿍 보내주신 은혜로운 공동체였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는 2013년 둘째 엘라까지 귀한 선물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

고, 유아 세례에 이어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첫영성체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많은 것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선한 이웃들을 보내주신 점이다. 친정이 한국에 있어서 가족의 사랑이 그리울 때 곁에서 함께해 주셨고 격려와 사랑을 보내준 본당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본당에서의 모든 날이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篤심 있는 모습으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던 본당의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세 살이던 큰아이는 이제 11학년이 되고, 2013년에 태어난 작은 아이는 4학년이 된다. 본당에서 함께하셨던 신부님들, 성령강림 수도회의 수녀님들도 돌아보니 함께한 날들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매주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어렵게 이어가던 레지오 회합, 매년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 오월의 봄밤에 만났던 성모님의 밤, 흥겨웠던 본당의 날 바자회, 할 때마다 힘들지만, 마치고 나면 뿌듯했던 구역회 점심 봉사 준비, 본당 야유회, 영어 성가대, 주일학교 여름캠프, 유스그룹 봉쇄 피정(Lock-in Retreat), 한바탕 배꼽 잡게 하던 어느 연말의 송년회, 첫영성체 날 천사같던 아이들의 모습, 사랑하는 친구들과 어른신들을 떠나보내던 장례미사와 함께 드린 기도와 연도들... 이 모든 것이 메이플우드 성당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사랑이 아닐까 한다.

반세기 역사의 '뉴저지한인성당'의 발자취를 정리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본당 주임신부님이신 이경 바오로 신부님과 김영민 미카엘 신부님, 그리고 김정경 실



바노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6.25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성모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제가 되시어 훗날 미국 뉴저지에서 한인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 메이플우드 공동체를 함께하신 모든 성직자, 수도자분과 교우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도 훗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 이창분 화가

2





주님 안의 만남은 축복

Bishop Cruz, a true people priest

Eun-Sook Lucy Cho / 086

조민현 신부님과 여정

이승한 발렌티노 / 090

“이사돌이” 24시간 돌아다니며 신자 찾는 사제

조종진 알베르토 / 096

신부님, 신부님, 우리 ‘츄테레’ 이경 신부님

한유숙 유스티나 / 099

숨사탕같은 미소의 주인공

이윤하 미카엘라 / 103

냉철한 지성과 올곧은 성품

송희선 알로이시아 / 105

"만쫂" 모세 수녀님

박 데보라 / 108

‘작은 고추’ 베로니카 수녀님을 그리며

이해영 스테파니아 / 111

‘빨간 마후라’ 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지영덕 어거스틴 / 113

아버님 어머니 사랑 깃든 친정

정영희 아우구스티나 / 115

‘자책 성전’, ‘아들 신부’ 꿈 이루신 “큰 신부님”

홍익섭 아길로 / 117

‘홍남부두 피난민’ 이 교구 150주년 기념 메달 받다

채수호 알베르토 / 119

“이리로 오십시오!”

정구홍 안드레아 / 122

라루 수사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김동권 사무엘 신부 / 127

희년(禧年)의 기쁨 은총 가득하기를

김상곤 다니엘 신부 / 129

시절인연 - 서로 더 사랑합시다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 / 130

Bishop Cruz, a true people priest

A Great friend of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Eun-Sook Lucy Cho

Thirty-six years ago, in 1986, while teaching a medical school class, I noticed a young man who looked like the priest from Sacred Heart Cathedral. After the lecture I approached him. “Do you have a twin brother, a priest?” Before I finished my sentence, he pulled out a Roman collar from his shirt and said, “I am the one.” A medical student, one of his parishioners brought him to the lecture, knowing how curious this young priest was about medicine. This is how I met Bishop Cruz, then a 5-year ordained young priest.

I asked him to come to my office, so that I could introduce him to the course director. Fr. Cruz later told me that he thought I was going to call a security guard for “sneaking into a lecture hall”. That is how his official connection, with the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 began. In less than a year he was known to many at the school; every 100 feet someone greeted him “Hey! Padre Cruz” or stopped to chat.

Fr. Cruz quickly became engrained at the school and served many roles including lab instructor, spiritual leader, and member of the Ethics Committee. One memory that makes me chuckle, even now, occurred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eurological Institute. Fr. Cruz was invited for invocation and as he began to sprinkle holy water, Dr. Cook (President of the University) and Dr. Carmel (head of the institute, later the president of Am. Med. Assoc.), both devout Jews, were eagerly guiding Fr. Cruz to every room; God certainly works mysteriously. Eventually Fr. Cruz was appointed as an adjunct assistant professor of Pathology, then promoted to an adjunct associate professor when Fr. Cruz became bishop.

Fr. Cruz's involvement with St. Andrew Kim (SAK) Church began with the second youth group Antioch Retreat of our parish. The most difficult part of organizing the first Antioch retreat in 1987 was securing English-speaking priests to hear confessions. (Note: at that time there was no English speaking Korean priests in New Jersey other than Fr. Park, the pastor) After calling over 10 nearby American parishes for help, I received "Yes" from 4, and unfortunately only 1 of the 4 priests was able to attend confession. The priest, however, had another engagement and left after an hour. Fr. Park was the only priest at the confessional and endured hearing confessions from over 70 retreatants until 3 o'clock in the morning.

With this disheartening experience, I was reluctant to organize another retreat, so, there was no Antioch in the following year. However, skipping another year meant that all experienced students would be graduating. For this reason, the Antioch retreat had to be organized but I did not know how I could secure confessors. One day Fr. Cruz asked me "What is on your mind, Dr. Cho? Could you tell me what's bothering you?" I shared my concerns and expressed my sadness with no solution in sight. Fr. Cruz listened intently, then said "What about me?" Initially, I did not understand what he meant, perhaps because I knew how busy he was. Only after he explained that he would help me in whatever function we needed, I began to understand; I felt so overwhelmed that I was at the verge of tears.



≡ Bishop Cruz with Msgr. Park and Dr. Lucy Cho during the Antioch 1989

As the work began, the second Antioch team was formed. Fr. Cruz attended most of the team meetings and retreats then and for the ensuing 10 years. He has the ability

to make people of all ages feel comfortable around him. I still vividly remember the first team meeting he attended. During an ice-breaking game which involved crawling on the floor, Fr. Cruz was the first to crawl around the room laughing and enjoying himself, instantly forming bonds among the people. He not only attended the team meetings but made surprise visits and suggestions that students loved. Beyond serving as a spiritual director, he cooked paella for the team retreats, took students to the Cathedral, where he was the vicar and had a midnight mass at the Marian Chapel, and on a few occasions, he brought his nuns to share their stories. As the Antioch date approached, he told me not to worry about confessors. He



≡ 1991년 Antioch 학생 피정의 파견미사를 집전하시는 Bishop (당시에는 Fr) Manuel Cruz. 공동집전하시는 박창득 몬시뇰

invited enough priests (7-9 every year) among his friends, “the best confessors for the youth”. His priest friends were great. The students at the retreat had great experiences of “good confession” and the confessors also expressed their gratitude of the wonderful experiences of hearing sincere confessions of youngsters. With each passing year more and more students from other Korean parishes attended; some parishes wanted to have Antioch retreat at their own parish. Fr. Cruz, with



SAK team members willingly helped the Antioch retreats at those churches as well. The news of “the wonderful Korean youth retreat and its marvelous supporting SAK parish” began to be spread in the archdiocese including the archdiocesan leadership. (Note: most of the frequent confessors were or have been honored as monsignors since then and three of them are currently bishops.)

Over the years, Fr. Cruz (later Bishop Cruz) continued to visit our parish to meet Fr. Park (later Msgr. Park), not only to discuss Antioch but to have personal conversations and to seek his wisdom. Soon, Fr. Cruz began to say, “I hope to have a pastor like Fr. Park.” As he himself matured, he changed to say, “I hope to become a pastor as wise as Msgr. Park.” Bishop Cruz truly respected Msgr. Park and loved him dearly. During a bitterly cold evening in 2013, Bishop Cruz and I were dining at a Korean restaurant in Manhattan after a medical meeting when we received news of Msgr. Park’s fall. He immediately put his bowl of Gal Bi Tang aside and told me “Let’s go”. Since then to the day of Msgr. Park’s passing, Bishop Cruz faithfully visited Msgr. Park to chat and to bless him. As he claims, Bishop Cruz is “one of the faithful sons of Msgr. Augustin Park”.

Even after Msgr. Park’s passing, Bishop Cruz remains a wonderful friend and a great advocate of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archdiocese. He loves everything about Korea, including Korean food and his visit to Korea. He wants to bring to fruition Msgr. Park’s vision for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 praise and thank the Lord for sending Bishop Cruz to help build our youth group and to be a model for all of us, of truly a people person.

조민현 신부님과의 여정

이승한 발렌티노

너무 바쁜 이민 생활 때문일까? 아니면 나의 게으름 탓일까?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며 추억 속의 과거와 현재로 가고 오기란 그리 쉽지는 않았다. 본당 50주년을 맞이하여 고민 끝에 컴퓨터 앞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며 나의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려 조 신부님과 함께했던 긴 여행을 다시 떠나고자 한다.

■ 청소년 봉사활동

하루는 신부님께서 본당 이사도 마무리되었으니 청소년 사목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과테말라 ‘천사의 집’에 사전 답사를 가자는 의사를 피력하셨다. 부랴부랴 짐을 꾸려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국을 떠나 과테말라 공항에 도착하니 흥 신부님께서 반가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기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시내에 있는 한국식당으로 갔다. 입구에 도착하니 경비원들이 총을 들고 맞이하는데 조금은 겁이 나기도 하고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식사 시간에 흥 신부님께서 여기는 치안이 불안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천사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조차 상점 앞이나 은행 앞으로 총을 든 경비원들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도로 주변에는 병, 휴지 쓰레기가 텅굴고 우리나라 60년대 풍경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천사의 집’에 도착하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 처음 보는 우리를 따뜻한 미소로 반기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반기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부모와 같은 손길로 그들을 보듬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안아주자는 생각이 들었다.

2010년 여름에 22명의 봉사팀이 ‘천사의 집’에서 낮에는 근로봉사, 저녁에는 피정의 시간을 가지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신부님께서는 인생의 목표를 일찍 세우고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길이 바른길이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 하시며 학생들을 독려해 주셨다. 또한 명예와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고 노력하여 성취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해주셨다.

현지인들이 참석한 미사를 집전하시면서 유창한 스페인어로 미사를 드리시는 신부님의 언어 실력에 깜짝 놀랐다.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시어 남미 신자들의 사목을 성 마이클 성당에서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한번은 핸드폰으로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을 보고 매우 놀라 통화 후 여쭙어보니 일본어 선생하고 공부하는 중이었다고 하시며 멋진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보면서 또 한번 놀랐다. 신부님께서서는 공항이나 비행기 안에서도 책을 보시며 무언가를 계속 탐구하신다.

2011년에는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 7명으로 구성된 의료 봉사팀 및 청소년 봉사팀이 그리고 2012년에는 청소년 봉사팀이 과테말라 ‘천사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그 후 2013년 파나마 선교, 2014년 멕시코 캄페체, 2015년 볼리비아, 남미 4개국에 7차례 선교 봉사활동을 다녀와 학생들이 봉사를 통하여 삶을 체험하고 사랑을 배우는 체험의 사목을 하셨다. 아직도 파나마 파인애플 농장에서 먹은 파인애플 맛이 잊히지 않는다.

■ SMC(Service Mission Community)

“사랑은 봉사입니다.”

2010년 어느 날 늦은 오후,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 보니 신부님께서 Newark에 가자고 하셨다. 그곳은 노숙자들에게 점심 봉사하는 수녀원이었다. 우리 본당 신자들도 이런 봉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물음에 얼른 “당연히 도와야죠” 하는 답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단체가 SMC이다. 봉사 시작 전,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몰라서 혼자 2주 동안 노숙자들을 대하여 실전 경험을 한 후 전 성모 회원들을 주축으로 열두 명의 봉사자를 모집하고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주위에 있는 상점이나 식당에서 야채, 고기, 빵, 통조림 등을 기증받아 하루 점심을 준비하여 노숙자들에게 제공하는 봉사였다. 음식 제공 30분쯤 전부터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남·여 노숙자들을 보았을 때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고 느끼며 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생 문제가 제일 마음에 걸렸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한 후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하기로 하고 2년여 동안 신자들께서 조금씩 모아준 정성 어린 기금으로 뜻깊은 기부를 했다. 신부님께서는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며,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봉사를 통하여 느끼고 배우라고 하셨다.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격려해 주시고 이 의미를 잊지 말라고 하시며 본당 학교 입구 바닥에 벽돌로 이 문구를 새겨 놔다. 매주 학교를 오고 갈 때면 신부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 성지순례

캐나다 성지순례를 시작으로 루르드, 파티마, 이탈리아, 이스라엘, 스페인, 한국 등으로 10차례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성지에서 기도하며 자기 성찰을 통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성모님께 오로지 자기 자신을 봉헌할 때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시며 자주 성지에 오셔서 성인들이 살아온 삶과 생각을 본받으라는 강론의 말씀이 기억난다. 이탈리아 아씨시 순례를 하고 있을 때 성당 앞에 엄마가 아이를 안고 동냥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신자는 성당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심코 그냥 지나갔다. 갑자기 신부님께서 앞에 걸어가시다 슬그머니 뒤로 오시며 그 아이 엄마한테 가서 무언가를 손에 쥐여주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에 모른 척하면서 순례를 계속했다.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순례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 교황청 방문

본당 구역별로 성서 필사를하기로 하여 일 년의 시간을 부여하면서 가장 빨리 완성하는 구역에는 ‘캐나다 성지순례 비용 지원’이라는 상품을 내걸었다. 모든 신자가 하나로 뭉쳐 필사하기 시작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한 달 만에 완성한 구역이 나와 신자들을 놀라게 했던 기억이 난다. 모두 17권의 성서 필사본을 만들어 교구에 한 부, 교황청에 한 부를 기증했다. 필사본을 교황청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일 년여 만에 교황청으로부터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필사본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누가 대표로 교황청에 갈지 선정하는 문제가 생겼다. 교황님을 알현한다고 하니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교우가 어디 있겠나. 그래서 신자 대표를 뽑기 위해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제비뽑기를 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그렇게 신부님과 수녀님을 비롯하여 교우 세 사람이 교황님을 알현하러 로마로 향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설레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며, 교황님을 뵈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곰곰



이 생각하는 동안 비행기는 로마공항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다음 날 교황청 정문에 초청장을 들고 가 보니 이른 새벽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어서 의아했다. 이 많은 사람이 다 교황님을 알현하려고 온 것인지 궁금해하면서 우리 일행도 줄을 서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교황청 경비원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찍을까 했는데 잘 응해 주지를 않았다. 경비병들은 엄격한 출생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고 한다. 서서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들어가는데 강당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같은 신자나 단체를 위해 특별히 교황님께서 단체 알현을 하는 것이었다. 모든 상상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서 아쉬웠지만, 이탈리아 현지에서 공부하고 계시던 조홍래 신부님 덕에 맨 앞쪽에 앉아 교황님을 뵈고 강복을 받고 나니 기분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다.

■스페인 산티아고 자전거 순례

우연히 저녁 식사를 같이하면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이야기로 한참 꽃을 피우고 있을 때 신부님께서 우리도 한번 도전해보자는 의견을 내셨다. 우리는 모두 동의하고 준비를 시작



스

하였다. 다음날부터 비행기 예약, 순례 경로를 연구하고 준비물도 구입하고 열흘 동안 사용할 자전거도 포르투갈에 있는 대여점에 이메일로 주문을 마쳤다. 추운 2월 어느 날 설레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공항에 도착하여 버스를 타고 순례 출발지로 4시간여 달려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 열흘간 우리의 발이 되어 줄 주문한 예쁜 자전거가 반겨주고 있었다. 자전거 조립을 마치고 시험 운행을 한 후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맥주로 축배를 든 다음 일찍 잠을 청했다. 다음날 새벽 6

시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전날에 조립한 자전거 페달을 알베르게를 향해 힘차게 밟았다. 겨울 새벽 공기라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포근하고 순례 완주에 불타는 집념으로 한발 한발 열심히 페달을 밟아 나아갔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문제가 발생했다. 신부님 자전거 페달이 부러진 것이다. 할 수 없이 10여 마일 떨어진 수리점까지 자전거를 끌고 걷기 시작했다.

아침에 본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있어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슬비가 오기 시작했다. 우비로 완전 무장을 하고 산으로 산으로 걸어가는데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적지까지는 가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걸었는데 정상에 도착할 때쯤 눈폭풍이 오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려고 시도했으나 강풍과 눈보라 때문에 자전거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 무거운 몸으로 자전거까지 끌고서 눈보라를 헤치며 걷고 또 걸어



≡ 산티아고 순례를 마치고 데쿰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한 조민현 신부님. 2016년 2월 알베르게에 겨우 도착했다. 숙소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보았는데 눈썹이 하얗게 눈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 밖에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보기 좋았다. 설경을 감상하고 있으려니 경찰이 왔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순례를 할 수 없다며 순례객들을 숙소에서 머물게 하라는 순례 금지령이 내린 것이다. 숙소에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스페인, 한국 사람 등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순례를 오게 된 동기, 고생한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방 친해져서 즐거운 하루를 숙소에서 보냈다. 각기 다른 모습과 풍습,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다



음 날 아침 금지령이 해제되어 밖으로 나가니 정말 눈이 많이 와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다. 또 자전거를 끌고 순례길을 떠나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여 자전거를 반납하니 성취감과 자신감으로 하늘을 날아갈 것같이 기뻐했다. 성 야고보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마친 후 순례 성공을 자축하며 마드리드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피곤한 몸을 맡겼다.

■ 하늘을 날다

어느 화창한 봄날 신부님에게서 어디론가 동행하자는 제안을 받아 서슴지 않고 따라나서니 우리가 탄 차가 경비행장에 도착하였다. 처음으로 조종사 옆에 앉아 하늘을 날아보니 내 마음도 함께 날아갈 듯 기뻐했다. 또 반면, 작은 비행기라 내심 걱정스럽기도 했다. 신부님께서 급유하고 비행기를 360도 도시며 외부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 관제탑과 교신하시더니 활주로로 진입하여 속도를 높이며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제트비행기는 타면 금방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끼는데 비행기가 작아서 그런지 한참 만에 정해진 고도에 도착하였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환상적인 풍경이 불안한 마음을 날려 보냈다. 기수를 뉴욕 북쪽으로 돌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있을 때, 우리 비행기 뒤에 공군 수송기가 오고 있으니 기수를 바꾸라는 관제탑의 교신이 들어왔다. 할 수 없이 기수를 남으로 돌려 공항 활주로에 안착하니 안도의 한숨과 신부님의 조종 실력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도착 후 비행기를 제자리에 놓기 위해 신부님이 비행기 꼬리를 잡고 한 바퀴 도시니, 비행기가 자리를 잡는 광경을 보면서 저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갔다 왔다니 믿기지 않았다. 지금 신부님은 조종교관 라이선스까지 취득하신 상태다.

이처럼 열정적인 사목과 취미 생활 및 꾸준한 탐구를 통하여 내면의 세계를 발전시키시는 신부님의 모습이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으로 내 마음에 다가온다. 이제 비행기도 무사히 착륙했으니 나도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 속에서 신부님과의 여정을 여기 활주로에 안착시키려 한다.

‘이사돌이’ 24시간 돌아다니며 신자 찾는 사제

조중진 알베르토



조후연 야고보 신부님을 본당신부님으로 모시고 사도회에서 봉사했던 때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함께 했던 희로애락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5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저희 본당을 통해 허락하셨던 하느님의 축복을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새삼 감사드립니다.

야고보 신부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가장 크게 남은 그분의 인상은 교우들과 함께하시는 사제, 더 많은 교우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사제이십니다. 신부님 곁에는 늘 어르신들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미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신자들, 저녁 모임

을 마치고 떠나는 마지막 교우들을 배웅하기 위하여 추운 겨울밤에도 성당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는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구역회에 가시면 구역원들이 다 헤어질 때까지 함께 하였고, 그런 신부님의 편안한 동참 덕분에 구역회는 활성화되었고, 구역수도 늘어났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 있었던 일로 잊을 수 없는 것은 2013년 9월에 있었던 2박 3일의 전 교우 가족 캠핑입니다.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가족의 일치에도 공동체의 일치에도 중요하다고 믿으셨던 신부님은, 긴가민가(?)하는 여론도 없진 않았으나 가족 캠핑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고, 그 계획은 성공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연 인원 무려 400여 명이 동참했던 그 가족 캠핑은 정말 즐거운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낮에는 여러 가지 게임으로 흥겨웠고, 저녁에는 여기저기 그룹이 되어 떠들썩거리며 어울리는 신자들의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화해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행복해하며 즐거워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특히 야외 강당에서 가졌던 파견미사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살레시오 수도회에 계셨던 야고보 신부님은 어린이 사목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즐겁고 자유로운 체험으로 기억되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조민현 신부님께서



≡ 조후연 야고보 신부님 . 본당 교우들과

서 2011년 말에 선포한 ‘어린이의 해’를 보좌신부로 맡아 진행하시다가, 다음 해에 본당신부가 되시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진행하셨던 것도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매달 1일 나들이를 마련하여 성지순례도 가고 박물관에도 데려가곤 했습니다. 어린이를 둔

젊은 부모가 일부러 멀리서 우리 성당을 찾아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체육관을 열어 신자들이 편하게 탁구, 농구 등을 하도록 허락하셨고, 신자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보니따’ line dance 동호회도 허락하셨습니다. 야외 피크닉 장소와 족구장도 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야고보 신부님이 해내신 일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자들이 교회에 편하게 다가오도록 해야 한다는 신부님의 사목 정신에 기인한 결정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님께서는 전례력에 따른 여러 신자교육에도 열심이셨지만 매년 한두 번씩 1박 2일의 봉사자 피정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봉사자 간에 친교도 이루어지지만 일 년을 살아가는 힘을 받는 시간이었다는 말들을 합니다. 제 아내 데레사는 하느님 체험의 설렘과 기쁨으로 파견미사를 마치면서 벌써 다음 피정을 기다리는 마음이 되곤 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중에 여러 가지 만남이 제한되었던 긴 시간으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덕분에 만남을 더욱 아쉬워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았던 만남의 시간을, 은혜로웠던 피정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억을 더듬으면서 사제의 길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욕기의 욕을 떠올리게 됩니다. 욕

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외로운 고난의 사람이기도 했지요. 하느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이 곁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었지요. 이처럼, 하느님을 향한 사제들은 그 믿음의 빛과 그림자로 우리 삶의 여정에 빛이 되어 이끌어 주고 뒤에서 묵묵히 따라가는 그림자 되어 하느님 닮은 사제로서 우리 곁에 계셔 주셨음을 새삼 감사드립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Footprints in the sand) 시를 떠올립니다.

“For each scene,
I noticed two sets of footprints in the sand,
One belonged to me, and the other to the Lord.”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촌데레’ 이경 신부님

무심한 듯하면서, 살뜰

한유숙 유스티나



1994년, 미국에 오자마자 첫 번째 일요일에 남편인 한경식 이나시오가 데려간 곳이 오렌지에 있는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렌지 성당에서 세례와 견진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당의 모든 주임 신부님들을 모

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많은 주임신부님 중 제가 지금 평신도협의회에서 모시고 일하는 이경 신부님과의 첫 만남이 생각이 납니다. 1998년, 이경 학사님이실 때입니다. 그 당시 보좌신부님 이셨던 이원순 신부님께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신약 성경공부를 진행하셨습니다. 나는 한 살과 세 살짜리 두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사실, 성경공부보다는 아이들 없이 뒹뒹하게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건수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한주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경 학사님을 뵈었고, 또 주일마다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만나 뵈곤 했었지요. 아마도 그 몇 개월 동안에 들은 신부님의 사투리는 내 생애에 들었던 모든 지방 사투리를 합친 양보다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3분의 1은 알아듣고 나머지는 이해를 못해, 그저 맞장구만 쳤던 것 같네요.

그 후 거의 20년 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2017년 우리 메이플우드 성당으로 부임해 오시게 되어 재회를 한거죠. 그때서야 안 사실이지만,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모르셨더라고요. 내가 미혼인지 아셨다고... 물론 지금과는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겠지만 이경 신부

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변하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외모도, 말씀하시는 스타일도(젊은 버전으로는 배우 K군과 비슷하십니다. 지금은 그 K군 가족이 뉴저지에 집을 장만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나이 있는 버전으로는 S씨. 저희가 가끔 K군 언급을 하면서 비슷하다고 하면, 상당히 속으로 좋아하시는 게 보입니다. ㅎㅎㅎ) 거침이 없으시고, 추진력이 무섭고, 그러면서도 정도 많으시고, 인심도 후하셔서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으셨죠. 보좌신부님, 부제님, 평협회장님 이하 신자들이 신부님의 보조에 다이나믹하게 맞추기가 때로는 힘겹기도 합니다만, 항상 새로운 일을 밀어 부치셔서 신나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도하게 되는 일들을 두려움없이 “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라기 보다는 이경 신부님의 영향이 매우 큼니다. 절대로, 혼자서 힘들게 두려움을 느낄 틈을 주지 않으십니다. 적극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며, 더불어 같이 해결할 동반자들을 신부님께서 직접 포섭해 주시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색다른 일을 맡는다고 해도 전혀 겁이 나거나 하기 싫다는 생각이 나지 않게 해 주십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더불어 같이 하게 되므로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 신부님께서 메이플우드 성당으로 오시자마자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성전과 소성당 리모델링을 하시고, 고 박창득 몬시뇰님의 이름을 딴 어거스틴 성당을 만드신 것입니다.



장기자랑 직후 이회영회장님과 땀을 식히고 있는 이경 신부님. 2019

을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마음으로 염려하던 신자들도 환하고 아름답게 된 성전을 보면서 이경 신부님의 안목과 추진력에 감탄들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신자들도 더욱 화합하여 하나가 되



어갔고, 적극적으로 성당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연말 장기자랑 때에는 오후 5시가 지나도록 4시간이 넘도록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사장인 친교실에는 시작할 때와 다름없이 뻘뻘히 자리한 신자들이 와그르르 웃고 박수치면서 끝까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날 신부님들과 나이 든 회장님들이 빨강 산타 모자에 어깨 벨트를 매고 동요에 따라 무용을 하는데 얼마나 제 각각이던지... 배꼽을 잡고 웃은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신자 모두가 신부님과 의기투합해서 으샤으샤 신나하고 있는데, 3개월 뒤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성당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꿈쩍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배달되는 주보를 보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신자들이 교부금을 보내주어 매주 그 지면이 꽉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자들 모두가 성당을 무척 아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정위기를 넘기려고 여러 가지로 솔선수범하신 이경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을 존경하고 믿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감사했습니다.

신부님은 메이플우드성당으로 부임해 오신 후에 변변한 휴가를 보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안 가시느냐고 여쭙어 보면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손수 두 보좌신부님들과, 부제님 그리고 사무장님과 함께 성당 가꾸기에 힘쓰셨습니다. 지붕공사, 친교실 바닥 페인트(갑자기 NBA체육관 바닥이 되었습니다.), 잔디관리, 주차장바닥 풀 뽑고 시멘트붓기... 신부님께서 특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Sunday school 과 학생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놀이터를 family park 으로 새롭게 확장하시고 (이 family park 에 들어간 모든 경비는 한국에서 오신 이경신부님 가족께서 헌금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도록 최고급 하얀 모래를 직접 사다가 바닥에 뿌리시고, 타일은 East Hanover Yard 에 버려진 것을 트럭에 실어다가 까셨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모르는 많은 일들을 조용히 손수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그리셨던 또 하나의 큰 그림은, 멀리서 오는 신자들에게 미사만 보고 보내는 것이 안쓰러워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기 시작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성당에만 계시면서 “무얼, 어떻게 하는 게 신자들을 위한 것일까?” 라는 생각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신부님께서 생각을 좀 안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 2019년 첫 영성체. 정성스레 성체를 주시는 이경 신부님.

정은 또 얼마나 많으신지... 저희가 지어드린 별명이 있습니다. ‘츄데레’라고. (일본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이지만, 뜻은 한국인 정서에 맞게 바뀐-) 무심한 듯하면서도 살뜰하게 챙겨

주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부끄러워 감정 표현에 능숙하진 않지만, 엄청 속정이 깊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신부님. 예를 들면 “오는 길에서 주웠어. 필요하면 가져!” 하시듯. 특히 자매님들한테 인기가 많으신 이유는 자매님들의 외모의 변화를 금방 알아 차리셔서 칭찬을 잘 해 주십니다. 보기와는 틀리게 엄청 센스가 많으신 우리 신부님.

2022년 4월 24일에 진행되었던 또 하나의 신부님 작품인 성경 퀴즈 대회 골든벨. 어린이들부터 아홉모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모두 참여한 행사로 끝나는 시간까지 승부를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였고, 또한 팀들의 단합과 화기에애한 모습까지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성당에서 진행되는 행사 하나하나에 점점 더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당의 희망적인 미래를 봅니다. 휴가도 반납 하시며 본당 사목에만 열심이신 신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관 되고 빨래줄처럼 직진이신 우리 이경 신부님. 다음은 또 무슨 프로젝트를 고민중이신지 살짝 기대가 됩니다. 술, 담배를 좀 많이 하셔서 건강이 걱정되지만, 우리 신자들 모두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응원합니다!!!



숨사탕 같은 미소의 주인공

사랑으로 열성을 다하는 김영민 신부님

이윤하 미카엘라

+ 찬미 예수님

김영민 미카엘 신부님, 안녕하세요?



≡ 찬양미사에서 기타치시는 김영민 신부님

기념집에 신부님에 대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성당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신부님의 사랑어린 관심을 참 여러 가지로 보고 느끼며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말씀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 메이플우드 성당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보면, 새로 온 저희 가족에게 밝은 미소와 따뜻한 인사를 건네 주시던 신자분들의 생각납니다. 그 분들의 친절한 관심이, 모든 것이 어색했던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안심이 되었던지요. 덕분에 성당에 마음을 붙이기 시작할 무렵,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다

가오신 신부님을 뵈었어요. 성당에 오게 된 이유와 아이들의 이름을 물어봐 주시면서 반갑게 맞아 주셨지요. 그 뒤로 만날 때마다 늘 반갑게 대해 주시고 평일미사에 아이들과 함께 참례하면, 강론 시간에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즐거워 평일미사에 더 자주 갈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있었던 2박 3일의 주일학교 캠프 때가 생각납니다. 신부님께서는 땀별 아래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동참하셨지요. 그리고 축구, 수영 등 야외활동도 모두 함께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쓰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신부님께서 그렇게 내내 함께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에게도 더욱 즐거웠던 캠프로 오래오래 기억된

것 같습니다.

첫영성체를 며칠 앞둔 아이들을 위한 피정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첫영성체의 순간이 더욱 값지고 기쁠 수 있도록 얼마나 정성을 다해 주셨는지 기억합니다. 신부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그때의 가르침을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주일학교미사를 집전하실 때면 아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이것저것 준비하시어 더 재미있는 강론을 하려 애쓰시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로 인사를 건네 주시고, 새로 오신 신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반갑게 맞아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게 해 주시던 모습들이 한 장면, 한 장면 떠오릅니다.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려면 성경을 심도있게 공부해다 한다면, 성경구절의 뜻과 의미를 알려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고민해 주시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신 모습도 떠오릅니다. 신부님께 감사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그런 미카엘 신부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당은 행복합니다.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사제의 길을 걸으시는 신부님께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셔서 늘 힘내실 수 있기를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친절을 포도 순처럼 티우니 나의 꽃은 영광스럽고 풍성한 열매가 된다.

나는 아름다운 사랑과 경외심의 어머니요 지식과 거룩한 희망의 어머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께 말씀을 받은 이들에게 영원한 것들을 준다.

나에게 오너라, 나를 원하는 이들아. 와서 내 열매를 배불리 먹어라. (집회 24,17~19)



냉철한 지성과 올곧은 성품

김정경 실바노 신부님과 여정

송희선 알로이시아



세상에 유명한 사람은 많지만 진실로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드문 이 세대에, 뛰어난 지성과 따뜻한 인품을 함께 소유한 균형 잡힌 지성인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끼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옆에 있고 싶은 우리 신부님, 김정경 실바노 신부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실바노 신부님께서 저희 본당 보좌신부님으로 부임하시고, 바로 전례부 지도신부님이 되시면서 신부님과 본당 전례부의 일을 돕고 있는 저의 인연은 불가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실바노 신부님께서 예전에 우리 본당을 방문하셨을 때 평일미사 강론을 듣고, 인상 깊었던 기억 외에는 신부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신부님과 본당 전례부 일을 함께 시작했던 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본당 사정이 많이 안 좋을 때였고, 주일미사에 참석하는 신자 수가 100명이 안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례부도 봉사자 수가 터무니없이 줄어들어 미사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부님께서 정통 전례(Authentic Liturgy)를 고집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신부님의 이상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올곧아서 무조건 따라야겠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전례에 관한 한 무엇이든 신부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심정은 그때 우리 본당 전례부의 사정과 전례부 책임을 맡은 저는 그런 신부님의 가치 있고 고귀한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마치 뱀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듯이, 신부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씩 하자고 하셨던 일들은 저에게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듯한 벅찬 일이었고, 고통과 두려움



≡ 2023년 신자들을 위해 삼계탕을 끓이는 김정경 신부님 (본당 구내 가족 picnic 장)

이었습니다. 국악
미사도 그 중 하
나였고, 미사 예
식서 작업도 미사
경문 한 줄 한 줄,
기도문 하나하나
까지 살피고 고쳐
나가느라 일은 늘
어만 가고, 한 가
지 실수도 그냥 넘
어가는 법이 없으
셔서 저의 미숙을
인정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지치고 짜증이 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해내고 난 후 조금
씩 조금씩 뱃새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당당해지는, 그래서 조금은 성장해 있는 제 모습
을 보며 다시금 신부님의 존재가 제게는 한없이 크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다
른 한편으로는 신부님의 명석한 두뇌, 철저하고 빈틈없는 일 처리 능력, 심장을 꿰뚫는
거침없는 강론과 올곧은 성품이 너무 빛이 나서, 그 뒤에 숨겨진 순수한 가슴, 사람을 좋
아하고 아끼는 따뜻함, 본당 교우들을 한술밥 먹는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인정어린 마음
씨는 가까워서 오래도록 보고 있어야 느낄 수 있는 귀한 보물과 같았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신부님의 이런 숨겨진 보물 같은 성품을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
습니다. 오래오래 가까워서 만나고 한술밥을 먹는 식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신부님, 사제가 되기까지 길고 긴 고뇌의 시간, 철층산을 오르며 사제로 살아가는 끝없
는 고된 여정, 그 안에서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시고 그렇게 받으신 사랑을 신부
님이 늘 말씀하시는 식구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보물 같은 순수함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
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부님, 왜 이렇게 일을 대충대충 하냐고 짜증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하니, 하시면서 잘잘못을 따지셔도 괜찮습니다. 신자들이 내 맘도 몰라준다고, 내
편이 안 되어 준다고 속상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빈틈없이 완벽하고 성실한 사제



로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신부님인 그대로, 신부님 안에 들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끔은 좀 느슨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의 본모습을 바라보며 편안해지는 은총의 시간이 허락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실바노 신부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영화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 뺏뺏한 잿빛 머리카락 위에 러시아제 모피 모자를 쓰고 턱수염을 기른 키 큰 남자. 매일 오후 다크초콜릿바 하나를 고르고 나서 대화에 얹이고 싶지 않다는 듯 항상 정확한 금액을 치르고 가버리는 지바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 숨겨진 이야기에는 따뜻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신부님과 함께 한 지난 2년여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신부님과 함께 할 남은 여정에도 감사드립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요한 10,14~15)

‘만찢’ 모세 수녀님

만화를 찢고 튀어나온 듯싶은 멋있는 주인공

박 데보라



나이 들면서부터 웬지 모르지만 “만약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면, 나는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지니고 있었다. 종교에 관심도 없었고 불교 신자였던 엄마로 인하여 절에 따라다녔던 유년 시절, 자라를 물에 풀어주는 방생의식을 보며 자란 나였지만, 만약 하느님을 만나려면 개신교의 교회가 아닌 가톨릭 교회인 성당을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진다.

그런 나는 운명이었는지는 몰라도 모태신앙을 가진 남편을 만났고 성당에서 결혼하기 위해 속성으로 교리를 배우게 되었다. 혼배성사를 받고 미국으로 와서 뉴욕 퀸즈 성당에서 견진성사를 받았다. 뉴저지로 이사와 어느 성당을 찾아가야 할지 쉽게 결정을 못하고 이 성당 저 성당을 기웃거리던 중 우연히 마리안 슈라인에 있었던 오렌지 성당의 야외 미사에 가게 되었다. 마침 자모회장을 정하는 과정이었는데 어느 분이 못한다고 달아나니까, 옆에 있던 나에게 하라는 거다. 처음 ‘구경’하러 간 나에게 자모회장을 하라는 게 어이가 없어서 넉넉한 수도복을 입으신 예로니모 수녀님께 “저를 아세요?”라고 물었다. 내심으로는 “나 이 성당 신자가 아니에요”라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수녀님은 다짜고짜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합시다” 이 한마디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성당에서 얼떨결에 주일학교 자모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고, 오렌지 성당의 신자가 되어 20년 넘게 머무르고 있다.

서론이 길었지만 2000년 그해 여름 약간의 경상도 사투리가 매력인 모세 수녀님을 만나게 되었다. 첫 만남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아는 사람도 별반 없는 성당에서 자모회장을 맡고



≡ 이정희 마리 모세 수녀님(오른쪽), 임인분 베드로 수녀님(가운데), 조혜진 필립보 수녀님 (왼쪽) 2004년 경.

어찌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여름캠프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성당에 가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도대체 다음 자모회장 데보라가 누구길래 코빼기도 안 보이냐?” 특유의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수녀님과의 첫 만남이 이렇듯 조금 껄끄러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누가 하고 싶어 됐나? 또 ‘무슨 수녀님 목소리가 전쟁에서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어조야’ 하며 속으로 심히 공손치 못한 심정이 되어 있던 나를 지금 돌이켜보면 웃음이 지어진다. 이렇게 수녀님과 나 사이에 많은 에피소드와 추억을 쌓기 시작하게 되었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첫 번째 수녀님이 되었다.

다음 해 주일학교 여름캠프에서 우리의 추억은 절정을 이루었다. 낮에는 순수하게 만화를 찢고 튀어나온 듯한 쾌활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 뛰어다니시던 우리의 수녀님! 풀밭에 누워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며 긴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면서도 성서 공부를 하지 않는 나에게 “무식이 자랑이냐?”라고 일침도 놓으시고 성서를 통독하게 만드신 수녀님, 한국어가 서툴러서 미사가 끝날 때까지 차에서 나오지 않고 신문을 보며 기다리던 남편 안드레아를 차 밖으로 나오게 하고 훗날 유스그룹까지 맡게 하신 수녀님! 이렇듯 친근하시면서도 근엄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

수많은 일을 하시던 모세 수녀님이 포코노 평화의 마을로 가시게 되었다. 어느 날 수녀님이 보고 싶어 평화의 마을로 달려갔다. 그 길로 모시고 밤길을 달려 바다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하고 간 그곳에서 수녀님은 우리를 꼼짝없이 철야기도에 합세하게 만드셨다. 참으로 철없던 시절이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속세의 미련한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운 우리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래도 너무도 같이하고픈 우리의 마음은 알아주셨으리라 믿는다. 몸뻔바지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광활한 평화의 마을에서 잔디를 깎으시던 강하고 멋진 수녀님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한국으로 떠나시며 수도자는 떠날 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거라 말씀하시던 수녀님을 보며 너무도 가슴이 먹먹했다. 오직 하느님 한 분을 위해 그 소명을 다하시며 수도자의 여정을 묵묵히 걸으시는 수녀님 앞에 한없이 송구하고 고개가 숙여졌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화책을 찢고 금방이라도 나오실 것 같은 우리 수녀님!

모세 수녀님! 부족하지만 항상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마르 1,16~18)



‘작은 고추’ 베로니카 수녀님을 그리며~

이해영 스테파니아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발바닥 신자로 지내던 내가 2018년 어느 주일에 엉겁결에 성모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렇게 큰 임무를 맡고 우왕좌왕하며 바쁘게 활동할 무렵 내게 중책을 맡기신 모세 수녀님께서 다른 임지로 떠나시고 후임으로 조 베로니카 수녀님께서 부임하셨다.

베로니카 수녀님은 얼굴이 귀엽게 생겼으며 키가 작았으나 다부지게 보였고 행동거지에 카리스마가 넘쳤다. 함께 지내 보니 역시 작은 고추는 매웠다. 수녀님께서서는 부임하신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제법 많은 신자의 얼굴을 보면 이름을 기억하셨고, 시간이 좀 더 지나자 거의 모든 신자의 이름을 외우셔서 신자들은 수녀님의 노력과 열정에 감탄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조베로니카 수녀님의 영명축일(가운데), 박세례자요한 수녀님(맨 오른쪽), 글쓴이(수녀님 바로 뒤 오른쪽) . 2019?

늘 바쁘게 일하시면서도 신자 한분 한분, 어린아이 하나하나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며 친근하게 대하시던 수녀님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성모회원들 그리고 봉사하던 신자들과 함께 웃고, 고민하며 바자회, 점심 봉사, 그리고 대림초 만들기 등 많은 일을 진두지휘하시던 모습도 잊을 수 없다. 수녀님이 계시면 어떤 모임이라도 활기가 넘쳐흘렀는데. 특히 2018년 크리스마스와 성모회 연말 파티에서 정말 환하고 밝게 웃으시며 회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시던 모습도 잊히지 않는다.

봉사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수녀님이 끓여 주시던 따뜻한 차 한 잔이면 피로가 풀렸다. 정작 수녀님 자신은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시느라 무릎이 닳을까 걱정될 만큼 꽃가꾸기에 매달리시면서도 봉사자에게는 햇살처럼 밝게 웃으시며 대하셨다. 그러시면서도 우리가 신앙인답지 않게 행동할 때는 정색하여 야단치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안타까워하셨다.

세계적 재난이라는 코로나 팬데믹이 2019년에 오고 직장 폐쇄와 사회적 봉쇄가 시작되자마자 하필이면 내가 코비드에 감염되어 닷새 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녀님의 기도 덕분에 인지 생각보다 빨리 완쾌할 수 있었다. 차로 마시면 기침 치료에 좋으면서 직접 민들레를 말려서 주시고, 한참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퇴원 1주년 기념 선물이라며 직접 만드신 빵을 건네주시기도 했다.

적지 않은 신자들은 성모회원을 “부엌데기”라고 비하하며 성모회에 가입하여 봉사하기를 꺼렸다. 수녀님은 그렇게 인식되던 성모회를 ‘우술라회’라고 개명하여 신앙에 근거하여 살림을 도맡아 하는 성모님의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로 개혁시키고자 노력하셨다. 그러한 수녀님의 열정과 부지런하심 그리고 신자들을 사랑하시던 마음은 우리의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가끔 어린이 놀이터 옆에 있는 텅 빈 수녀원을 바라보면 이제는 떠나셔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 수녀님이 그립고 마음이 허전해진다.

수녀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빨간 마후라’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올 김도영 프란치스코 회장님

지영덕 어거스틴



≡ 김도영 회장님 내외분

존경하고 사랑하올 김도영 프란치스코 회장님!

연로하신 회장님께서 그 무서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고 또 놀랐습니다. 찾아 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리아 자매님께서 극진하게 보살피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진하게 간호하시던 마리아 자매님마저 코로나19 확진자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님께서 믿음이 깊으신 개신교 권사이셨기에 회장님께서는 결혼 전에 가톨릭에서 영세하지 않으셨지만, 마리아 자매님과 결혼 후 세례 받겠다는 조건으로 관면혼배를 하셨습니다. 얼마 뒤 서약하신 대로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철저한 믿음을 실천하시면서 많은 믿는 이에게 믿음의 표상이 된 회장님을 저는 항상 존경해 왔습니다. 더구나 공군 비행단 조종사로 근무하시며 바쁘게 지내시던 분께서 교리 공부에 철저하게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님의 권고로 그 완고하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데레사’라는 세례명으로 신부님에게 임종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과 마리아 자매님 두 분께서 이루신 성가정을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인정하신 것입니다.

항상 웃으시면서 얇은 미소로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드시는 회장님의 그 따뜻한 표정이 제 마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자매님께서 언젠가 자랑삼아 말씀하시던, “회장님과 평생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라는 말을 어느 모임에서 듣고 의아했으면서도, 수

궁한 것은 항상 회장님은 모든 일을 그 잔잔한 웃음으로 해결하는 마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본당 사도회장을 맡으신 바로 다음 해, 1977년 10월 10일, 본당 ‘성당 건립 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통이 크신 회장님은 그 당시로는 무척 큰돈인 10,000달러를 성당 건립기금으로 쾌척하는 모범을 보이시고 다른 형제·자매님들에게 자극을 주시는 용단을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성당 모임에서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필요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군대에서 쌓아온 통솔력이 엿보여서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대령 출신답게 모임에서 거나해지면 한번도 빠짐 없이 ‘빨간 마후라’를 18번 곡으로 주먹을 휘두르시면서 열창하시던 그 모습은 아마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쇠약해진 모습으로 회장님을 돌보시다가 본인 마저 확진 판정을 받으신 대 뉴욕지구 여성 꾸르실료 간사장을 지내신 마리아 자매님을 회장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니 감동적입니다. 회장님과 마리아 자매님은 언제나 신앙을 숭선수범하여 실천하신 주님의 일꾼이었던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두 분을 항상 돌보실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회장님께서서는 지금까지 본당에서 사도회장을 지낸 분 중에서 본당 창립 이래 가장 연로하신 어르신입니다. 아무쪼록 오래 오래 사시어 우리 본당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시는 ‘빨간 마후라’를 다시 열창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건강을 하느님께 간절히 두 손 모아 빕니다.



아버님 어머니님 사랑 깃든 친정

정(김)영희 어거스티나
프린스턴 성당



1970년 그림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언니가 사시는 미국 뉴저지에 도착했다. 그로부터 3년 후 나는 박창득 신부님의 주례로 오렌지 성당에서 관면혼배를 받았고 남편을 따라 Kansas로 가서 유학생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나는 해마다 여름 방학이면 Kansas에서 부모님께서 사시는 이곳 뉴저지(Orange, NJ)로 오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휴가이며

친정 나들이가 되었다. 늘 뉴저지만 찾는 나에게 어린 딸들은 “왜 우리는 뉴저지만 가냐?”고 불평도 했지만 상관하지 않고 해마다 오곤 했다. 이곳은 부모님이 계시고 혼배미사를 집전해 주신 박창득 어거스틴 신부님이 계신 오렌지 성당(지금은 메이플우드 성당)이 있는 나의 신앙의 보금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내가 Kansas에 사는 동안 나의 친정 아버지(김종인 어거스틴)께서 1985년 9월, 76세에 이곳 오렌지 성당에서 하느님 품으로 가셨다. 의학박사였던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한창 일하시던 연세에 모든 것을 접으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 뉴저지로 오셨다. 대학에서는 교수로서의 명성도 높으셨고 사회활동도 많으셨기에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이곳에 오셔서 상자 속에 갇힌 새처럼 발도 묶이시고 답답한 삶을 사셨지만 그래도 박창득 몬시뇰과의 만남을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로 생각하시고 뉴저지 본당의 사목활동을 묵묵히 도우셨다. 아버님은 성당의 행사 진행과 예비자 교리반도 맡으시고 신부님을 도와 환자 방문도 함께 하시는 등 사목 일을 도우셨다. 어머니(엘리자벳)께서도 성모회와 구역장 등 임무를 맡으셨으니 어려웠던 초창기 시기 본당에서는 두 분께서 초석이 되셨던 것으로 안다.

Orange 성당 (메이플우드 성당)은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겸손되이 하느님께 의탁하는



≡ 박창득 문시놀과 김종인 어거스틴 글쓴이의 친정 아버님

새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이었고
고 고마운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성당 일에만 전
념하시면서 하느님과 함께하
는 삶을 이곳 미국에 오셔서
배우신 것이다. 아버님의 신
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우
리 딸들과 손녀들에게도 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꿈에 편찮으신 몸으로 벽에 걸린 십자가를 떼어서 나의 남편 정 안드레아에게 건네주시며 “구흥아 이것 받아라” 하셨다. 그 꿈속의 모습은 돌아가신 지 36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 후 남편은 아버님의 유언이라도 받은 듯 메이플우드 성당 사도회장직도 맡아 하고 가톨릭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

박창득 신부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마다 “이곳으로 오세요” 하시던 말씀이 실현되어서 1994년 우리 가족은 중부 Kansas에서 동부 뉴저지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Kansas에 살던 나는 뉴저지에 와서 Orange 성당에 가는 것이 그렇게도 좋았다. 그 후 딸 아이는 Orange 성당의 Youth 모임, 안티옥 피정, 메이플우드 성당 주최로 하는 모든 청소년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순교자인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전해졌듯이 교회의 가르침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인 것 같다.

이제는 박창득 문시놀도 또 우리 아버님도 저세상으로 가셨지만, 메이플우드 성당은 나에게 여전히 친정, 내가 늘 그리워하는 곳이다.



‘자체 성전’, ‘아들 신부’ 꿈 이루신 “큰 신부님”

홍익섭 아길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무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벌써 내 나이가 90이 넘다 보니 모든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72년

Jersey City에서 몇몇 교우들과 박창득 몬시뇰(이하 큰 신부님으로 칭하겠습니다)께서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하신 날이 창립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973년에 미국으로 왔기에 그때의 일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본당 미사에 참례한 것은 Cleveland Street에 있는 오렌지 성당(개신교 건물을 구입하여 처음 본당을 가지게 된)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면 서부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큰 신부님께서 사목상의 필요로 평신도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3년에 제가 부족하나마 회장으로 선택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큰 신부님께서 나란 사람을 알아보기도 할 겸 미사가 끝난 후 그 근처 장소는 기억나지 않지만 9홀 골프장을 단 둘이 한동안 다니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 저는 큰 신부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사목상의 도구가 되기로 자처하며 큰 신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큰 신부님과 저는 다섯 살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연상인 저는 이후 그분을 모시며 나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을 만큼 존경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분을 통해 너무나 큰 은총을 받아 예나 지금이나 감사하며 지금도 매일 저녁 큰 신부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당신께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다 하시며 그것은 ‘아들 신부’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목하셨기에 그 후 제가 이곳 LA로 옮긴 후에 많은 ‘아들 신부’를 양성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

었습니다.

이 글을 몇 날 며칠 고민만 하다가 막내아들 내외가 다니러 온 참에 적으려고 책상에 앉아 있으니 집사람 오딜라가 옆에서 그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그때 그 시간이, 함께한 여러분들과 돌아가신 큰 신부님이 매우 그립습니다. 그 시절 모두 힘들게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의 신앙을 타국에서 지키기 위해 함께 궁리하고, 더 큰 자체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 음식 등을 만들어 팔고…. 그땐 힘든지도 모르고 내 본당을 가지기 위해 참으로 애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Dr. Lee와 Dr. Cho 내외분, Dr. 김건 내외분, Dr. 조성준 내외분, 돌아가신 원민희 회장 내외분 그 외에도 많은 분이 계시지만 특히 많은 교우분이 기금을 마련하느라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많은 단체장님을 비롯해서 성전을 꾸미기 위해 맨해튼에서 자비로 꽃을 사서 제대를 장식한 강 루시아 자매님… 보고픈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분들께서 LA를 방문하신다면 정말 시원한 냉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 집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저희 부부는 1991년에 이곳 LA로 와서 바실 성당을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90이 넘어가는지라 저희에겐 6시간여의 비행거리도 감히 엄두를 내기가 힘듭니다. 저희 마음의 본당인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큰 신부님처럼 큰집으로 후손들에게도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본당 창립 후 50년 동안 본당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교우분들과 수 많은 회장님 그리고 큰 신부님의 아들 신부님들 모두에게 하느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홍남부두 피난민’이 교구 150주년 기념 메달 받다

세계 곳곳의 건설 현장 누빈 김기송 베드로 형제

채수호 알베르토

2004년 10월 17일은 우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에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 뉴왁대교구 교구장 존 마이어 대주교는 우리 성당 신자인 김기송 베드로 형제에게 메달을 수여하였다. 뉴왁대교구 설립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구 내 200여 개 본당의 130만 평신도 가운데서 엄선된 186명에게 기념 메달이 수여되었는데 수상자 중에서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본당의 김기송 베드로 형제가 포함된 것이다.



≡ 뉴왁대교구 150주년 기념 메달과 상장

김기송 베드로 형제는 1939년 12월 5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인천상륙작전으로 승기를 잡은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에 북진을 거듭하여 통일이 목전에 다가온 듯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국군에 불리하게 급변하였다. 유엔군사령부는 부득이 해상을 통한 철수 명령을 내렸다. 김기송 형제가 열두 살 때인 1950년 12월, 북한의 홍남부

두는 철수하는 국군과 유엔군을 따라 남으로 가려는 20여만 명의 민간인 피난민들로 아비 규환을 이루고 있었다. 그 혼란스러운 인파 속에는 김기송 형제의 일가족이 섞여 있었다. 김기송 형제의 조부님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은 어린 남매만이라도 마지막 수송선에 태워 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김기송, 김기숙 두 남매를 미 해군함(LST)에 떠밀어 올려 태웠다. 이렇게 해서 김기송 소년과 누나 김기숙은 천신만고 끝에 북한을 탈출하기는 했으나 한겨울 일가친척 하나 없는 남한 땅에 달랑 떨어진 어린 두 남매가 겪어야 했을 고초가 어땠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함경도 출신답게 야무지고 생활력이 강한 두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곳곳하게 어려움을 헤쳐 나갔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김기송 소년은 거제 일운국민

학교 5학년에 입학하였다. 국민학교 졸업 후에는 용산중학교에 입학했다. 학교가 서울로 이전한 후에는 보육원과 2년 후배 집을 전전하며 용산고등학교에 다녔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김기송 소년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밴드부에 들어가 트럼펫을 불며 봉사과 과외활동을 하였다.

용산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기송은 통역 장교 10기생으로 군에 입대하였다. 어학에 소질이 있던 그는 통역 장교로 두각을 나타내어 서부 21사단 공병대와 미1군단 공병대대(Engineer Battalion) 간의 한미 동맹 합동작전 시 통역을 맡았으며 미1군단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그는 낮에는 영천 육군 부관학교 영어 교관으로 근무하고 밤에는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토목과에서 공부하였다.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경부고



≡ 용산고등학교 밴드부에서 트럼펫을 불었다

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 엔지니어로 투입되었으며 그 후 각종 교량과 댐 공사, 지하철 건설 공사 등 국토 건설 현장에서 토목기사로 밤낮없이 일하였다. 실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은 김기송은 건설회사의 고위 간부로 승진하여 해외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하였다.

때마침 불어온 해외 건설공사 붐에 편승하여 그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공사를 수주하였다.

김기송이 천주교에 입문한 것은 그가 한창 해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1981년의 일이었다. 인도네시아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김기송은 바쁜 와중에도 짬을 내어 교리 공부를 한 후 인도네시아의 한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김기송 베드로’가 되었다.

한국의 산업역군으로 일하며 젊음을 불태우던 김기송 베드로 형제의 인생에 일대 전환이 일어난 것은 1984년의 일이었다. 인도네시아 건설공사를 끝내고 귀국하는 길에 부인과 아



들 삼형제 등 가족을 거느리고 미국 땅으로 이민을 온 것이다. 김기송 베드로는 도미 후 3년간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았으나 1987년 뉴저지로 이주하였다. 뉴저지 정착 후에도 미국 회사에 다니면서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으며 Lowe에서의 17년(2003~2020) 근무를 끝으로 80세 되던 해에 은퇴하였다.

김기송 베드로 형제는 뉴저지로 이주한 직후부터 우리 성당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전형적인 호남형에다 과묵한 편인 그는 전공인 토목공학 노하우를 살려 본당의 건물 개보수 공사라든가 시설관리 업무 등을 맡아 묵묵히 봉사했으며 그밖에 펜실베이니아 평화의 마을, 수녀원, 뉴턴 수도원 등 외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였다.

형제님은 1972년 결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삼형제를 두고 있으며 그 밑으로 5명의 손주까지 보셨으니 어렸을 때 눈보라 치는 흥남부두에서 가족과 생 이별한 후 누님과 단둘이 외롭게 자란 이산의 한을 미국 땅에서 풀 셈이다.

김기송 베드로 형제의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는 역경을 딛고 일어나 어둠을 빛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인생 승리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불꽃처럼 치열했던 그의 삶은 가톨릭 신앙으로 승화되어 우리들 신앙생활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리로 오십시오!”

대대로 이어갈 ‘한인 성당’ 위해 기도하며

정구홍 안드레아



“이리로 오십시오!”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오랜 지 본당 신부님을 뵙고 헤어질 때 신부님께서 내게 하시던 말씀이었다. 이쪽 지역으로 오면 모든 것이 해결 될 것이라는 희망적이고 힘찬 신부님의 권고와 한인 천주교 교우들의 바쁜 이민 생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곳에 와서 살면 무엇인가 이루어지겠지’하고 생각 하던 그때가 1996년 늦가을 무렵이었다.

당시 내가 FMC(Princeton, NJ)란 식품 원료 회사에 다니던 시절(1991~1996년), 일본 회사와 합작(Joint Venture)하던 그 회사에 극동 시장을 관리하는 ‘소지 아까보’란 중역이 일본 측 대표로 새로 부임해 왔다. 그는 내가 회사에서 맡고 있던 직책이 너무 중요한 자리인 데다가 한국인인 내가 제품 기술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못마땅해 했다. 그는 나를 항상 시기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며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시비를 걸었다. 결국 나는 그의 횡포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가 부임한 지 1년 만에 회사를 떠나야 했다. 반향 한번 못하고 억울하게 쫓겨난 후 한동안 심한 좌절감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갈 곳 없던 나는 집사람을 따라 장모와 장인이 사시던 뉴저지 West Orange를 자주 찾게 되었다. 당시 직장을 다시 찾아야 할지 아니면 남들이 다 한다는 개인 사업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한국 성당에 한인들이 많이 있으니 찾아가 보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고도 있고 해서 찾아간 곳이 Central Ave에 있던 오렌지 성당이며 그곳에서 박창득 본당신부님과 여러 교우분을 만나게 되었다.

개인 사업도 고려해 보았으나 연구직으로 일하다 직장을 잃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상태



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게 느껴졌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진정 내 어려움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의기소침해서 불안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을 때 나를 받아주는 곳은 집사람이 열어 놓은 조그마한 신앙의 문뿐이었다.

집사람은 자신의 절실한 모습을 숨김없이 주님께 드러내며 나를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었으니 이 역시 직장을 잃은 실망 속에서 얻은 하느님의 특별한 인도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안하게 지내던 어느 날 제과회사 Nabisco에서 연구원을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알고 보니 나이 55세 이상인 직원 수십 명을 퇴직시키고 연구진을 개편해서 새로 고급 연구원 1~2명을 뽑는다는 이야기였다. 나도 나이가 들고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더라도 오래 버틸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마음을 다잡고 이력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몇 주가 지나서 회사에서 면접을 보자는 연락을 받고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다. 열심히 준비하여 8월 경에 면접을 잘 끝냈으니 그달 내로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혼자 믿고 있었다. 그런데 10월이 다 지나도록 면접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불안 속에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마음 속으로 포기를 하며 우울한 하루 하루를 보내던 중 11월이 넘어서 회사로부터 기다리던 연락이 왔다. 후보자들이 많아서 면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곧 결정하겠다는 소식이었다.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묵묵히 버티어 나간다는 것이 과연 믿음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하느님의 손길은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이끄시며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었던가? 드디어 최종 연락이 FedEx 편으로 왔다. Nabisco에서 새해(1997년) 1월부터 근무하라는 통지였다.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다. 무엇보다 East Hanover에 좋은 연구직을 갖게 되었고 성당도 나가게 되면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이 얼마나 고맙고 행복한 일이었는지 느끼게 되었다.

이제껏 나를 돌봐주신 하느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하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었는데도 내 능력만 믿고 스스로 도취하여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하느님의 사랑에 답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그것으로 보람을 찾고 싶었다. 또한 불안한 생활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을 느껴본 나로서는 성당 교우분들

의 어려운 사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 생활에서 만났지만, 언어와 풍습이 그리고 신앙이 같은 동포로서 여러 고초를 겪으며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이들이 나의 이웃이고 내 식구가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동시에 내 정체성도 분명해졌다.

다행히 회사 일은 재미있는 연구 과제로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지내게 되었고 나에 대한 회사의 기대 또한 커지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은 계속 사고 팔리는(기업 합병) 변화 속에서 돌아가므로 입사 3년 만인 2000년에 Nabisco 회사가 Kraft Foods에 팔리게 되어 연구진이 개편되고 인원이 감축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인 이민자들의 삶은 내 관심사가 되었고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나의 회사 연구에 관한 과제는 점점 멀어져 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중 2001년에 오렌지 성당의 사목회 장직을 맡게 되었다. 봉사활동에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성당 관리와 사목에 관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활동을 해야 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에게 성소자를 위한 모임은 흥미로운 관심사였다. 성소자 개발과 교육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는 매주 뉴욕에 가서 두부와 콩나물을 받아 성당 교우들께 판매하는 일을 맡기로 했다. 생각하면 어떻게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용기와 힘이 내게 생기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내가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주님께 서 이제는 평화의 모습으로 나를 이끄시고 불러주시니 그분과 함께하는 생활에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주셨던 것이 아닌가 하고 기쁘게 느꼈다. 반면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신학생들이 부제품을 거쳐 사제직으로 서품받는 것을 보고, 또 이들이 주는 첫 강복을 받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신성한 하느님 축복이며 사랑의 첫 열매라고 느꼈다. 신품 성사를 통해 변화되는 사제들이야말로 매일같이 하느님의 참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니 거룩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4년에 25년간의 연구 경력을 접고 은퇴해서 집에서 쉬기로 했을 때 본당신부님께서 성당 일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나는 서슴지 않고 2005년에 다시 성당에 나가 Lay Minister로 도와드리기로 하였다. 조민현 요셉 신부님이 2004년에 오렌지 성당 본당신부님으로 오시어 박창득 몬시뇰님을 원로 사제로 모시게 되었다. 교구의 New Energy Project(2004~2005년)에 의해 본당이 오렌지에서 메이플우드로 이전하는 일을 맡아 실수 없는 임무 수행을 위해 본당 교우들과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던 시간이 생각난다. 새로 이전한 한인 성당 발전을 위해 교구와의 원활한 관계 수립을 위해 성당 체

제를 강화하고 참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한인 사목을 위해 크게 발전시킨 사제라고 하겠다. 또 2012년에 이임하는 조민현 요셉 신부님의 후임으로 조후연 야고보 신부님께서 본당신부님으로 오시어 계속 발전을 도모하셨고, 2017년에는 이경 바오로 신부님께서 본당신부님으로 오시어 새로운 발전을 꾀하고 계신다.

뉴악 교구청의 New Energy Project(2004-2005) 이후 소수 민족의 분포 상황을 점검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취하여 교구 내 다문화 사목을 위한 소수 민족의 참여를 목적으로, William Reilly(The Most Holy Name Church) 신부님께서 2008년에 준비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 한인 성당은 본당신부님의 지도하에 교구청 모임에 참여하며 뉴악 교구 내 다문화권의 한인 사목을 대표하게 되었다.

본당 신부님의 뜻에 따라 성당 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Summer Camp와 Winter Camp(2010~2011)를 마련하여 뉴악대교구 내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 자연을 즐기며 신앙을 기울 기회들을 마련해 보기도 하였다. 본당 내에 많은 교우의 성원과 교육 및 재정 분야의 기술적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여름 Camp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젊은 학생들을 대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갖는 모임을 준비하였지만, 장래를 위한 한인 2세의 가르침은 훈련된 인적 및 재정적 지원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며 성당 내 연장자들을 위한 사목(Senior Mission)에도 힘쓰게 되면서 성당 시니어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2012~2016)이 생각한다. 아삶모(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룸도 좋고 내용도 좋은 아삶모 여름, 가을 피크닉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지나간다. 신앙적으로 또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 모임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항상 즐겁고 유익한 모임이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고국을 떠난 향수에 젖어 지나간 청춘을 노래하며 지내는 것이 전부였다. 미국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세미나를 통한 노력(재정과 건강)도 했지만, 서양과 동양의 차이에서 오는 언어 문제로 효과가 제한적임을 느꼈다. 마침 미국 성당에서 마련한 Corner Stone 모임(조흥래 베드로 신부님의 지도, 2012)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영성생활과 그리고 복음 말씀도 영어로 공부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서 이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성당 봉사(2005~2016)를 끝내면서 ‘내게 봉사는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하고 스스로

문게 되었다. 영원하지 않은 삶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아 왔다. 교구가 2004년에 실시한 Heritage Tour를 통해서 우리 교구 내의 주요 성당들을 방문하면서 과거 19~20세기에 이 교구에서 살던 이민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돈독했는지 그리고 그 큰 뜻과 열정으로 세워진 성당들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를 보았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당들이 폐쇄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이념적으로 이 지역에서 쌓아 올린 믿음과 가치관이 잘 계승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Sitz im Leben) 것에 허무함을 느꼈다. 우리가 옮겨온 Maplewood 성당 (Immaculate Heart of Mary, Maplewood, 1954에 설립됨) 역시 독일 민족이 세워놓은 성당이건만 한두 세대를 못 견디고 우리 한인들에게 넘겨져 온 것을 보면서 이민 역사가 짧은 우리가 이 낯선 곳에서 살다가 말없이 세상 떠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떠나 살다 보면 Heritage Tour에서 본 현상이 될 것이 아닌가?

후배 사제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던 자랑스러운 한인 가톨릭 공동체의 아버지 신부님, 박창득 몬시뇰께서도 선종하시고, 대를 이어 본당을 지켜 주시던 아들 신부님들도 하나둘 다른 곳으로 떠나신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지나가는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 민족, 아니 인간의 미래도 모른 채 우리는 떠난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근면과 기도의 삶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새삼 우리들 모두의 존재는 하느님의 크나큰 사랑과 자비하심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주님께서 내려주신 은총 속에서 50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주신 신부님, 수녀님들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은 교우분들께 사랑을 느낀다. 오늘도 하루를 일기 쓰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정리하고 또 계획을 세우면서 다음 한 세기의 한인 성당을 그려 본다.



‘라루’ 수사님도 기뻐하실 것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감사합니다

김동권 사무엘 신부
뉴튼 성 베네딕도회
성 바오로 수도원 원장신부



우리 가톨릭 한인교회 공동체는 북미주 전역에 걸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늘나라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도 많은 한인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 모든 공동체의 어머니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드립니다.

다른 한인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뉴튼 수도원도 메이플우드 성당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 김구인 보스코 신부님과 5명의 수도자가 뉴튼 수도원에 파견되어 왔을 때, 박창득 몬시뇰, 김택구 신부님, 박용일 신부님 그리고 많은 신자분이 찾아주시고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우리 한인 수도자들이 오기 직전인 2001년 10월 14일 한국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에서 14,000명의 피난민을 구조한 마리누스 라루 수사님의 장례식에 그 당시 본당 신부님이셨던 박용일 신부님과 김택구 신부님 그리고 많은 신자분이 참석하여 라루 수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드렸습니다. 그 전날에는 한국 가톨릭 장례 예절에 따라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수사님을 위해 연도를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장례미사에서는 성가대원들이 그레고리안 성가와 한국 성가로 전례를 아름답게 하였으며, 고별식에서는 한인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사님의 관을 운구하며, 수사님을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수도원장이었던 죠엘 아빠스는 그때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적시기까지 할 정도로



≡ 1950년 흥남철수의 영웅 라루 수사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 메이플우드성당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현재 미국 해양 사목부에서 라루 수사님의 시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주교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과 라루 수사님의 전구로 메이플우드 성당이 더욱 발전하고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아

울러 모든 신자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 평화와 기쁨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1950년 라루 선장의 결단으로 무기를 바다에 버리고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운 SS Meredith Victory호와 몰려든 피난민.

희년(禧年) 기쁨 은총 가득하기를

김상균 다니엘 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전 보좌신부
한국외방선교회 신부



먼저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50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2년간 메이플우드 성당에 재직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많은 숨은 이야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인간적 서운함이 혹시 있다면 하느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50의 의미는 희년(禧年, jubilee, יובל, yobel)입니다. 정확하게는 49입니다. 이 희년에 놀라운 즐거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신 주님께서, 또한 앞으로의 50년도 그러하시리라 믿고 청합니다. 이 희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요? 메이플우드 성당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이 희년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롭게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과 교회를 등졌던 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희년의 주인은 우리가 됩니다. 우리가 주인 된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다시금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절인연 - 서로 더 사랑합시다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
Our Lady of the Blessed Sacrament 성당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교회(敎會)’라는 말은 라틴말 ‘에클레시아(Ecclesia)’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에클레시아’는 원래 ‘불러 모음’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는데, 일반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의 집회’를 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느님 백성의 모임’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백성들은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 진리들을 받아들이며 세례를 통해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이며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의 몸(신비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아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신자들은 성체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신비스럽게 한 몸을 이룹니다. 사제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하느님의 백성들과 함께 미사 안에서 나눌 때입니다. 비슷함이란 것이 별로 없는 하느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攝理]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에서 지난 50년간 짧지 않은 시간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해 왔습니다. 50년 동안 많은 기쁨을 나누며 늘 그 배의 기쁨을 누렸고 슬픔을 나누어 서로에게 위로하는 가족과 같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난 50년간 살아온 ‘시절인연(時節因緣)’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는 자비로우신 예수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믿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우리 신앙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지난 50년간 미사 성제(루카 22,19)를 통해 모셔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절인연(時節因緣)’으로 한 가족처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였듯이 앞으로도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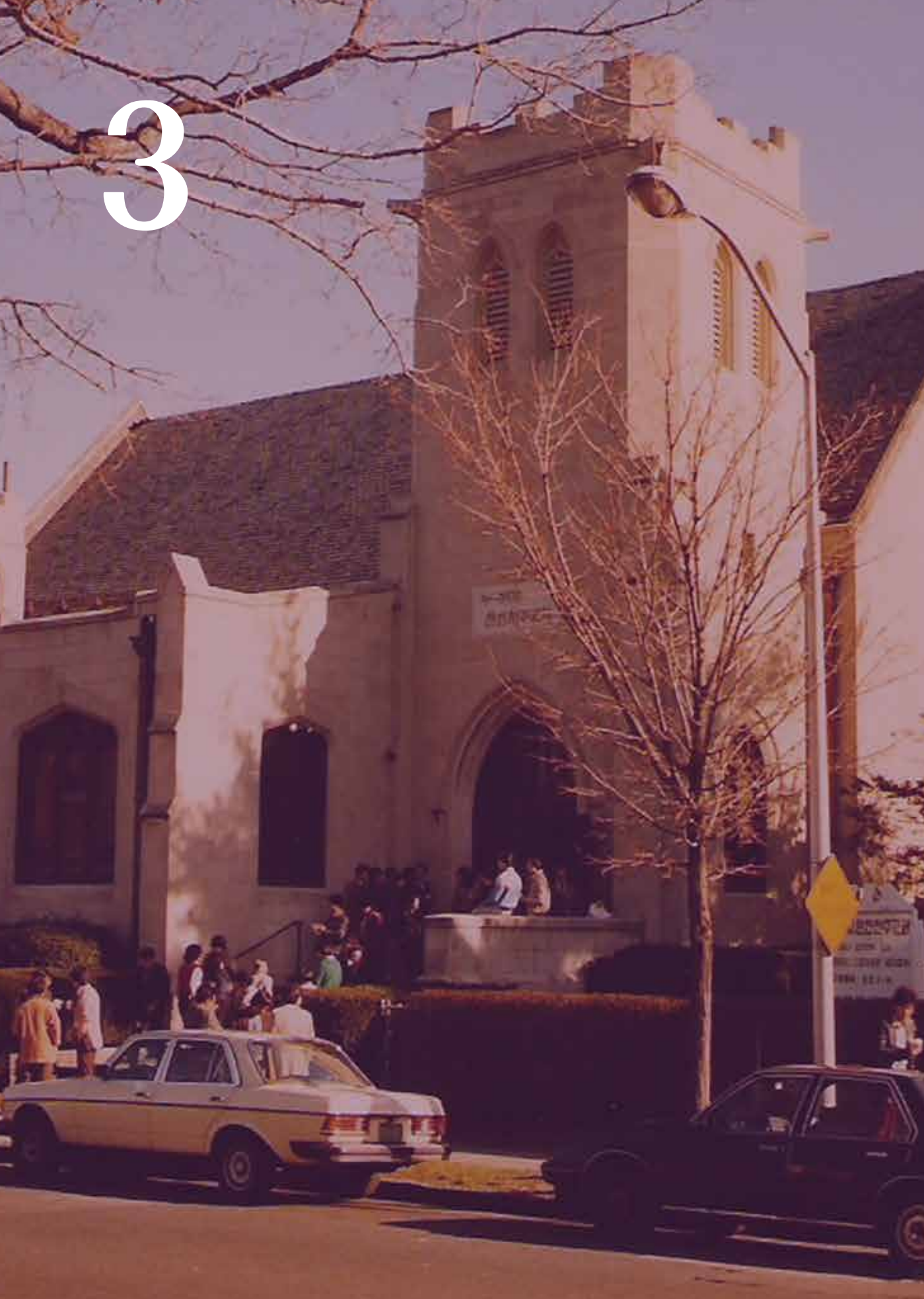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축하를 건네고 본당의 주보성인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삶과 정신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도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조재웅 버나드 화가

3





아낌없이 주는 나무 / 박 몬시뇰

Life of Msgr. Augustin Park	Jung-Min Park / 134
Biography of Msgr. Augustin C. Park/박몬시뇰 약력	편집위원회 / 137
신자들을 위해서는 신부가 저야지 다른 길이 있어?	이회영 베드로 - 루시아 부부 / 140
“똑똑한 부부 아니라 너희 부부 필요”	채덕규 미카엘 - 라파엘라 부부 / 143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사목자	백운택 아오스팅 신부 / 147
“기도 하자,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니까...”	남홍익 그레고리오 / 149
믿음 원칙 사랑 조화 이루신 분	강창홍 바오로 - 데레사 부부 / 152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오세완 바오로 신부 / 155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하느님 사업 몰두	이태성 마이클 / 157
가슴으로 지은 (새)집	김학선 요한 / 160
박몬시뇰님,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이회영 베드로 / 164
신부님, 당신께선 영원한 사제이십니다	김용식 요셉 / 166
큰 사제가 남긴 반백 년 발자취	채수호 알베르토 / 170
50주년에 바치는 기도	이재영 토마스 - 소피아 부부 / 172

Life of Msgr. Augustin Park

Jung-Min Kim (김정민 요안나)



Monsignor ChangDuk Augustin Park was born in ChungJu City of South Korea on February 15, 1935 to HeeNam Park and OhBul Chun. He was baptized on March 28, 1948 with his mother and sister and was given the baptismal name Augustin. In 1950, when he was just 15 years old, he was severely beaten during the Korean War by the communist army just for being a Catholic and spent many days

in hiding to avoid execution. While in hiding, he spent much of his time reading and meditating the only book he brought with him, “The Imitation of Christ” by Thomas a Kempis. The bible verse “He that followeth me shall not walk in darkness” gave him much comfort and purpose during his dark days of hiding. He decided that, if he were able to survive, he would devote his life to follow Christ by becoming a priest.

Father Park attended Seoul Seminary in Seoul, South Korea and was ordained to priesthood March 20, 1961 in the Diocese of Daejeon in South Korea. While he was working as parochial vicar, he sold his motorcycle to initiate and fund a radio program called “5 minute meditation” in his effort to spread the gospel using mass media. In 1966, Father Park traveled to Paris, France to study and went on to complete his master’s degree in Sociology from the Angelicum University in Rome, Italy.

In 1970 he mov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as assigned to St. Mary’s



Parish in the Poconos, then to Our Lady of Victory in Jersey City. Realizing a desperate need for faith among Korean immigrants around the area who did not speak English, he celebrated mass in Korean for the first time on December 3, 1972 and began his pastoral mission among Korean immigrants in New Jersey. This group, which started in the small library, was able to purchase a church in Orange in 1980 and named it St. Andrew Kim Church. (St. Andrew Taegon Kim is the first Korean-born Catholic priest and is the patron saint of Korea). This was the first Korean Catholic Church in New Jersey. St. Andrew Kim Church continued to flourish and in just 5 years it needed a bigger church to accommodate the growing number of parishioners. The Archdiocese of Newark recognized the Korean-Catholic community's need and provided it with St. Venantius Church in Orange. Father Park was installed as the official pastor of St. Andrew Kim-St. Venantius church in 1986. He was named a Prelate of Honor in 2000 and received the title of Monsignor by Pope John Paul II. Archbishop McCarrick appointed him as the Apostolate for the Korean American Catholic Church of New Jersey in the same year and Archbishop Myers renamed him to the same position in 2003.

Some of his immigrant ministry works include introducing the Charismatic Renewal Movement in 1979,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in 1983, and Antioch Student retreat program in 1987. In 1986 he started publishing a monthly magazine called "Korean-American Catholic Digest" and monthly Korean-English Daily Mass Readings as well as introducing a Korean Catholic weekly newspaper called "Peace Weekly" for the Korean Catholics living in the US. At the wake of 9/11, he supervised and published a Korean translation of "Conversations in Heaven".

One of Msgr. Park's priorities was to create a culture of vocation in his parish. Under his guidance 8 priests, 2 deacons, and 2 sisters accepted God's calling. Msgr. Park also saw a need to connect Korean priests working in the US and founded the Korean American Priests Association and served as the President from 1984 to 1996. He believed that the church should be easily accessible to parishioners and continued to build Korean American Catholic parishes in Maplewood, Saddle Brook,



≡ Msgr. Augustin Park

Demarest, Eatontown, Atlantic City, Cherry Hill, Fort Lee, Palisades Park and New Brunswick.

Msgr. Park had long recognized the desperate need for food for both the body and the soul in North Korea and began his mission to help North

Korean brothers and sisters. In 1989 he celebrated mass in ChangChung Church in Pyongyang and in 1996, he built and opened a noodle factory for the poor in PyongYang. He has visited North Korea more than 30 times. His last visit, in June of 2015, when he was wheelchair bound, was to visit the DongMyung Daycare Center. It was built and is supported by his mission where 350 children are fed and taught.

Msgr. Augustin Park died on September 18, 2015 in the rectory of his beloved St. Andrew Kim Church in Maplewood.

Originally compiled by Eun-Sook (Lucy) Cho, translated and edited by Jung-Min Kim in October of 2015

NOTE: Youtube. <https://youtu.be/iI93nDSywJk> The Life of Msgr. Augustin Park, produced for his first memorial service.



Biography of Msgr. Augustin C. Park

박창득 몬시뇰 약력

편집위원회

출생, 세례, 사제 수품 (Birth, baptism, ordination to priesthood)

Msgr. Park was born in 1935 and grew up in Korea. He was ordained to priesthood in Korea and obtained a master degree degree in Rome.

1935.2.15.: 충북 청주시에서 출생.

1948.3.28.: 가톨릭교회로 개종.

1961.3.20.: 서울 대신학교 졸업/대전교구 사제로 서품됨.

1967.: 이탈리아 로마 안젤리쿰 대학 종교 사회학 석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와 미주 한인 교회 (St. Andrew Kim Korean Church and Korean American Catholic Community)

Msgr. Park celebrated the first Korean mass in New Jersey in 1972. The Korean community grew and purchased a church in Orange, NJ in 1980. Msgr. Park was named pastor in 1986. He established many Korean missions and churches in NJ, and began the North American Conference of Priests for Korean Ministry in 1983.

1972.12.3.: 뉴저지 Jersey City 소재 Our Lady of Victory 성당에서 첫 한국어 미사.

1980.11.16.: 뉴저지 Orange의 Cleveland St 소재 건물을 구입하고 첫 미사.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Mission으로 명명.

1983-1991.: 뉴저지 여러 곳에 공소와 성당을 신설.

1983-1996.: ‘북미주 한인 사제협의회’를 설립하고 회장 역임.

1986. 12. 7.: 뉴저지 Orange의 Central Ave로 이전,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rish 로 승격, 본당신부로 임명됨.

200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몬시뇰 칭호를 내리심.

2000.: Coordinator of Korean Apostolate of Newark Archdiocese로 임명됨.

2005. : 본당/교구 사목에서 은퇴.

미주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신심운동(Faith movements for Koreans in America)

Msgr. Park introduced and was the spiritual leader of several important faith movements including Life in Holy Spirit,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Antioch Retreat for high school students, and Lectio Divina.

1979. : 성령운동

1979. : 성령운동 도입 - 성령세미나 시작.

1992~95, 98. : 가톨릭 성령쇄신 미주 한인 봉사협의회 회장 역임.

1994. : 청년 성령운동을 청년 성령운동(CUNAE)를 시작.

1983. : WWME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도입.

1983~2012. : WWME 대표사제 등으로 활동.

2000~2007. : WWME USA Region 19 대표 사제.

1987. : ‘안티옥’ 학생 피정 도입.

1988. : ‘성서묵상을 통한 성서의 생활화 운동’ 시작.

대중 매체를 통한 선교(Evangelization via Media)

Msgr. Park was interested in the evangelization via media and began daily meditation over radio in Korea soon after his ordination. In America, he published monthly Korean American Catholic Digest and Missalettes in Korean and English. He also published translation of ‘Conversation in Heaven I’ by Eileen George.

1965. : 대전방송국 ‘5분 명상’ 시작.

1981. : 가톨릭 서적 보급소 시작.

1983. : 통신 교리 시작.

1986.11~2012.4. :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 출판.

1986~2007. : ‘매일 미사’ 출판 (북미주 한인 사목 사제협의회에 인계).

2003. : 아일린 조지의 ‘천국에서 나눈 대화’ 출판

복지 활동(Korean Community Support)

Msgr. Park was deeply interested in social service. He established St. Luke’s Society of NJ for medical service and St. Andrew Kim Credit Union. In 2004 he purchased a building for Korean Catholic Center (Currently ‘Msgr. Park Center’) on 110 W. Palisades Blvd,



Palisades Park, NJ.

1983. : 뉴저지 루가회 발족(의사들의 모임).

1984. : St. Andrew Kim 신용조합 시작.

2004. : 가톨릭회관 구입(현 박문시놀 카톨릭 회관)

북한 선교(North Korean Mission)

Beginning in 1989, Msgr. Park visited North Korea on more than 30 occasions. He celebrated mass in Pyongyang and brought humanitarian aid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established a Kindergarten in Rajin-Seonbong

1980, 1984. : 중국을 방문하여 신앙 선조의 발자취를 추적.

1989. 2월. : 평양 장충성당에서 미사 봉헌.

1989~2015. : 북한을 30여 차례 방문, 북한 식량문제 지원, 민족 화해와 선교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

2010. : 북한 나진선봉에 동명유치원 설립

성소 육성 (Priestly and Religious Vocations)

Under Msgr. Park's guidance 5 priests, 2 deacons, and 3 nuns accepted God's calling.

조민현 신부(Fr. Minhyun Cho), 박홍식 신부(Fr. DonBosco Park), 김정수 신부(Fr. Jung-Soo Kim), 이경 신부(Fr. Paul Lee), 조후연 신부(Fr. James Cho), 김 소피아 수녀(Sr. Kim, Parish Visitors of Mary Immaculate), 이 데레사 수녀(Sr. Lee: Salesian), 박 세례자 요한 수녀(Sr. Park, 성령강림사도 수녀회), 김성규 부제(Deacon Joseph Kim), 황 어거스틴 부제(Deacon Augustine Hwang).

선종(Entered into Eternal Life)

Msgr. Park died on September 18th, 2015 in the rectory of St. Andrew Kim Korean Church in Maplewood, NJ.

2015년 9월 18일 오후 4시 40분, 뉴저지 메이플우드 소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사제관에서 영면.

신자들을 위해서는 신부가 져야지 다른 길이 있어?

우리의 아버지 박 몬시뇰님, 그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회영 베드로 - 루시아 부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가 2년 반이 되어오는데도,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찡~ 하고 그리움과 아쉬움, 무엇보다도 고마움으로 마음이 젖어 옵니다.

1982년 여름, 박 신부님께서 LA에서 열리는 첫 ME 주말에 가도록 본당 신자들에게 권하셨습니다. 세 부부를 받아달라고 미리 양해까지 받아놓고 권하시는데 아무도 나서는 부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시간도 돈도 마음도 여유가 없어서 LA가 딴 나라처럼 멀리만 느껴지던 때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부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서였을 겁니다. 신부님께서서는 그 몇 년 전에 성령운동을 미주에 도입하시고 미 전역에서 성령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민가정의 잦은 부부 갈등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찾아 한국에 나가 ME 주말을 체험하시고 바로 이게 해답이라고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신부님의 이런 깊은 뜻을 알 리 없는 부부들이 꿈쩍도 않는 데 너무 실망하셔서 “그만둬. 다 취소해 버렸어” 하고 화를 내셨던 것이 신자들에게 화를 내는 신부님을 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결국은 6개월 후에 LA 발표팀을 초청해서 동부 최초의 주말을 준비하시면서 “신자들을 위해서는 신부가 져야지 다른 길이 있어?” 하시던 장난기 섞인 사랑의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열정으로 시작하신 ME 운동은 몬시뇰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분의 사랑이었고 또 애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많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해 내셨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일린 죠지 여사가 “He is a genuine priest. Daddy-God loves him so much” 자주 감탄하듯 하던 말이 생각날 뿐입니다. 새로 이사하고 부쩍부쩍 성장해가는 본당의 여러 ministry들, 성령운동, 안티옥 학생 피정, 그리고 한미주교회의 liaison 사제, 게



다가 미주 사제협의회 창립과 회장직,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와 매일미사 발간 등등... 그런 와중에도 ME 주말을 위한 발표팀 양성에 힘을 기울이시고 새로운 ME 사도직 프로그램들을 도입해 개발하시면서 20년이 넘도록 동부 ME를 거의 혼자 돌보시며 키워 가셨습니다. 일년에 2~3회씩 있던 ME주말 발표도 대부분이 박 신부님의 몫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 중에 ME발표사제가 계시면 모시기도 했지만, 아직은 미국에 머무시는 신부님들이 몇 분 안 되시는 때라 ME주말 발표사제가 되려는 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신부님 주위에서 경쟁하고 견제하고 은근히 시기도 하면서 쉽게 지쳐



≡ 2006년 미주 한인 ME팀 연례 총회에서 이회영·조은숙 부부와 박 몬시뇰.

달아나고 싶어 하던, 마냥 어리기만 했던 봉사팀들을 어르고 달래고 가르치시기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같으면 “집어쳐, 내가 미쳤다고 너희들하고 지지고 볶아?” 했을 법한 데 말입니다. 그렇게 지내신 해수가 거의 20년, 서부 ME 그룹의 사정으로 동부

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2001년에 미주 한인 ME가 하나로 통합되어 미국 ME 협의체 열아홉번째 section으로(지금은 region이라 함) 받아들여졌습니다. 통합된 미주 한인 ME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튼튼히 자리 잡을 때 까지 7년동안 section 대표 사제로 봉사하시면서 ME 사제 양성을 위해서 정말 큰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2004년 초 LA에서 있었던 section 발표팀 총회에서 ME 조직에 대한 이해와 각 pillar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진지한 brain storming/sharing 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주말 대요의 개정으로 한국에서 오신 ME 사제가 주말 발표를 하실 수 없게 되었지만 미국 교구 소속 한인 신부님들의 수가 제법 많아졌으니 그분들을 ME 사제로 영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신부님의 귀뜸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모금하고, 그 기금으로 관심이 있을 만한 신부님들을 전국에서 초대했습니다. 초대에 응한 열한 분의

신부님을 모시고 몬시뇰께서 mini-priests weekend를 하셨습니다. 장소는 Dominican Republic. 아직 발표팀은 아니셨지만 이미 ME 주말을 다녀오셨던 오세완 신부님께서 동행하셔서 도우셨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신부님들의 대부분이 지금 ME 발표 사제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미주 한인 ME의 기반을 든든히 하시고 Section 대표 사제직을 그만두신 몇달 후에 간암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긴 투병생활을 마치고 2015년 9월 18일에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몬시뇰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모두를 내어주시면서 부부의 일치와 가정의 참 행복을 위하여 ME 운동의 기반을 굳게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깊은 바람을 너무 쉽게 잊고 지낸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고통이 심하셨던 마지막 순간에도 “ME 속에서 행복했어” 하시면서 힘들어 지쳐가는 발표팀들을 걱정하시는가 하면 “사제들을 위해서도 ME가 참 필요한데...” 하시면서 격려와 희망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박몬시뇰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많이 그립습니다.

신부님, 우리 ME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이회영 베드로-조은숙 루시아

2018년 2월 27일



“똑똑한 부부 아니라 너희 부부 필요”

몬시놀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채덕규 미카엘 - 라파엘라 부부



≡ 박몬시놀의 60세 잔치에서 몬시놀과 함께 글쓴이 부부. 1995

저희 부부는 1970년 8월에 결혼하고 곧 바로 Vineland, 남부 New Jersey로 이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1972년 5월 큰딸 Clara를 낳았고, 제가 New York에 직장을 잡기 위해 8월에 Elizabeth, NJ로 이사했습니다. 그해 여름, 어느 날 박창득 어거스틴 신부님

께서 저희 집에 전화하셨습니다. Jersey City에 있는 성당 도서관에서 한국어 미사가 있으니 나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알고 전화하셨는지 저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때 여쭙어 보았지만 아무 말씀도 없으셨으니깐요. Jersey City에 있는 성당 소속 학교 도서관에서 10여 분도 안 되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미사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조 엠마뉴엘 수녀님 부모님과 두 아드님 등 가족이 참석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73년 5월 신부님께 저희 큰딸 돌잔치에 참석하실 수 있으신지 여쭙었는데 흔쾌히 승낙하시고 오셨습니다. 그 당시는 한인 성직자, 수도자도 몇 분 안 되고 한국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상을 차리기에 바빴고, 미카엘은 우리 큰딸이 출생 한 달 후에 세례받을 수 있도록 New York에 계신 장혼 코르넬리오 신부님과 연결해 주셨던 수녀님을 모시러 갔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신부님은 “오늘 혼배미사가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듣지 못했고, 미카엘은 안 오고, 시간은 자꾸 가고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일어서시더니 “나, 이제 가 봐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10여 년 후, 어느 날, “신부님,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겠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나, 그 집에 식사하러 오라고 하면 겁나더라. 내가 옛날에 그 집에 갔다가 밥을 주지 않아 얼마나 배가 고팠었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거든” 저는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신부님께서 그때 상황을 너무나 잘 기억하시며 말씀해 주시어 저는 무척 당황스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납작 엎드려 “신부님, 죄송했어요, 용서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며 큰절을 올렸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철도 없었던 저는 먼저 신부님께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젊으셨을텐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잊지 못하셨을까 생각하니 지금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1972, 1973년에 저지시티 성당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어 미사에 참여하던 시기 미카엘이 허리가 아프게 되고, 주일에도 일할 정도로 생활이 바빠져 동네에 있는 미국 성당에 주일만 지키는 ‘발 신자’ 생활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 Patrick을 낳고 2년 후쯤 1977년 겨울, 한국어 미사 강론이 듣고 싶고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져서 몽클레어에 있던 성당에 나갔습니다. 그날 박 신부님은 곧바로 저희를 알아보셨습니다. “미카엘이 그동안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나와서 반갑다”고 교우들에게 저희 부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4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기억해 주시고 반겨 주셔서 감격스러웠고 다시 친정에 온 듯 흐뭇했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 후, 1979년 셋째 딸 Kristina를 낳고 우리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NY City에 있는 병원에서 밤 당번일을 했고, 미카엘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낮에 일하며 아이들을 Baby Sitter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둘이 번갈아가며 돌보고 키웠습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쁘고 힘겨운 생활이 계속될 즈음 주위의 많은 분의 권유로 1985년 1월 Marriage Encounter 부부주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는 해, 2박 3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고 피정의 집을 나와 집에 오니 마치 신혼여행을 하고 온 듯,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1985년 9월 ME Deeper 주말(봉사 부부를 위한 주말)에 초대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끝날 무렵, 박 신부님께서 파견장을 나누어 주시는데, “우리 부부는 말 주변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ME 봉사자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아닙니다”라고 거절하려 할 때, 주님은 “나는 똑똑한 부부가 아니라 너희 부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을 펄펄 흘리며 박 신부님으로부터 ME 봉사자로서의 파견장을 받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 이후 30여 년 동안 정말로 많은 ME 주말에 봉사 부부로 참석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다른 부부를 위해 봉사했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부부가 더 많은 은총을 받고, 하느님을 체험하는 주말이 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발만 성당에 다니는 ‘발 신자’가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 1979년 채덕규, 김채련 부부의 막내 크리스티나 유아 영세 기념.

고, 그 하느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고 싶어 성당에 다니고 싶어졌습니다. 성당에 다니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1986년부터 여러 번 성령세미나에 다녀오게 되었고,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신부님께서 가끔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세미나로 개인적인 성화를 하고, ME를 통해 부부가 같이 성화되어야 한다.”

박 신부님께서서는 저희 본당 신자들을 위해 참으로 많은 신부님과 강사님을 모셔와, 피정과 특강을 주선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런 피정과 특강에 열심히 참석하여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더 배우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 신부님 덕분입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박 신부님, 아니 박 몬시뇰께서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신 후 몇몇 부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식사하고, 바뇌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묵주의 기도를 바치기도 하며 즐거워하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말년에 넘어지시고, 병원으로 재활원으로 꽃동네로 왔다 갔다 하실 때 좀 더 자주 찾아 뵙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박 몬시뇰님,

저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50년 생일잔치를 하게 되었어요. 신부님께서 시작하신 지 50년이 되었어요. 큰 일을 시작하신 것 감사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천국에서 저희 St. Andrew Kim Church를 돌보아주세요.

박 몬시뇰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강태웅 라파엘 화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 사목자

(고) 백운택 아오스팅 신부
살레시오 수도회 신부



1. Maplewood 성당과 저는 참 긴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982년 가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1984년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했습니다. 수도회에 입회 후 Newton, NJ에 있는 Don Bosco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 박창득 몬시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께서는 당시에 Orange에 있었던 St. Andrew Kim 성당의 주임신부님이셨습니다. 현재 Maplewood 에 있는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전신이 되는 것이죠. 몬시뇰께서는 매

년 성당 야유회 행사를 제가 공부하고 있었던 Don Bosco 대학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박창득 몬시뇰을 만나게 되었고, Maplewood 성당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은 제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면 힘과 용기를 주셨고, 외로워하고 있을 때는 따뜻이 위로해 주셨으며, 기도가 필요할 때는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1994년 제가 부제품을 받을 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저는 수도회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신학교는 Columbus, Ohio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제품은 Paterson 교구의 주교좌 성당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몬시뇰님을 번거롭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연락을 드리지 않았는데, 몬시뇰님께서 저의 부제품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으셨는지, 신자분들과 함께 주교좌 성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드리지 않은 저를 가볍게 나무라시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때 고인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제님은 꼭 수도회의 부제님만이 아닙니다. 저희 모든 한인 공동체의 부제님이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당연히 축하해 드리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몬시뇰님은 이렇게나 마음이 크신 분이셨고, 넉넉하신 분이셨습니다.

2.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적인 사목자의 모습에서 저뿐만 아니

라 많은 분이 사제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중에서도 몬시뇰께서 이룩해 놓으신 ‘북미주 한인 사제협의회’라는 금자탑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몬시뇰께서는 1983년 8월 9일 북미주 한인 사제협의회를 결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젊은 사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합니다. 사제들이 자주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며 공동으로 사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사제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개인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폐쇄주의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렇게 북미주 한인 사목의 거점인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이제 또 새로운 반세기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50년 전에 한인 성당을 가지려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던 바로 그 순수했고 간절했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길이 막혔다면 원점으로 돌아가라”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빨리 숨가쁘게 변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Maplewood 공동체는 수많은 사람의 정성과 마음 그리고 기도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둘째는 사목적 열정을 다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삶의 반을 잃어버린 것이지만, 희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서는 열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Maplewood 공동체는 건강하며 희망에 차 있는 긍정적인 공동체입니다. Maplewood 공동체의 사목적 열정이 북미주 한인 교회의 재건에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늘 사랑의 공동체로 남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느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기 6,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 사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Mission이며 의무이고 미래입니다.

Maplewood 공동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기도 하자, 우린 그분 자녀들이니까...”

남홍익 그레고리오



글쓴이 남홍익과 아들 크리스

박창득 몬시뇰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81년 겨울, 오렌지에 소재한 뉴저지 한인 성당의 성령기도회에서다. 1975년, 서울에 있을 때 연로하신 외할머니를 모셔다 드리러 우연히 참석하게 된 돈암동 성당 성령세미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그 성령세미나는 나에게 성경 읽기에 몰두하게 하였고 그 안에서 살아 계시는 예수님 말씀에 감동되어 평화와 기쁨으로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되었다.

몇 년 후 미국으로 이민해온 후에도 성령기도회에 대한 영적 갈증 속에 있었는데 마침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에서 성령기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 당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뉴욕시의 브루클린에 살고 있던 우리에게서는 처음 가는 낯선 밤길이었지만 성령기도회에 가고픈 마음에 무작정 성당을 찾아 열심히 달려갔다. 복음 성가와 심령기도 소리가 가득한 성당은 우리에게서는 마치 천국 그 자체였다. 뒤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심령기도를 하시던 박창득 신부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그날 아내 미카엘라와 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에 취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가슴이 터지도록 심령기도를 했다. 그날부터 박창득 몬시뇰님은 우리 부부에게 든든한 영혼의 아버지가 되셨고 ME 부부 피정과 성령기도회로 이끌어 주시며 고단한 이민 생활에서 언제나 기대고 설 수 있는 따뜻한 언덕이 되어 주셨다.

그러던 중 아내는 넷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으며 태중 3개월 때 장애 진단을 받고 태어난 우리 크리스를 위해서 박창득 몬시뇰께서는 한 가족과 같이 늘 기도해 주셨고, 크리

스를 보면 세상 걱정이 다 쓸데없어진다고 하시며 ‘Peaceful Boy’라고 부르시며 무척 귀여워해 주셨다.

박 몬시뇰께서는 우리가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설립하였을 때는 마치 ‘맨땅에 헤딩’을 하는 격이라고 염려하시면서도 많은 조언과 도움으로 늘 함께해 주셨다. 박 몬시뇰께서는 그 당시 당신께서 갓 창간하신 ‘평화의 모후’라는 한국어판 신문을 보여주시며 성모님 발현과 메시지를 전하려고 오래 전부터 하승호 씨와 같이 준비해 오며 첫 호를 발간하였지만, “이 일은 성모님께서 그레고리오 씨 부부에게 주신 사명인 것 같다”라고 하시며 모든 자료를 우리에게 인계하여 주셨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은 대단히 고단하고 힘든 길이 되겠지만, 그런데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기에 힘을 내라”고 하시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 선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을 때도 박 몬시뇰께서는 “고통은 올바른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니 잘 견디어 내자. 우리가 기도를 늘 하고는 있지만 더욱더 기도를 강화하자. 우리는 성모님을 따르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며 격려해 주셨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무쇠 같은 강한 체력과 의지의 몬시뇰께서도 이런저런



≡ wheel chair를 타신 박창득 몬시뇰과 메주고리에 순례. 2014



여러 가지 병환을 앓게 되셨고 결국은 지병이 깊어져서 휠체어를 타야 했다. 자존심이 강하시고 매사에 열정적이신 분이셨는데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셨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애처로웠다. 그 언제인가 당신의 영명축일날 그분을 뵈었을 때 몬시뇰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참 많이 힘들고 괴롭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사제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몬시뇰님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지키려고 곁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듯했는데 말을 못하시니까 입술만 움직이시며 웃어 주시던 다정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잠시 집에 왔을 때 몬시뇰님이 임종하셔서 장의사에서 모시고 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미카엘라와 나는 주님 곁으로 가시는 몬시뇰님께 이승에서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의사를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주변이 어두워질 때 차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더니 큰 비닐백을 내려냈다. 우리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비닐백의 지퍼를 열어 줘서 몬시뇰님 얼굴을 뵈고 미카엘라와 나는 옆드려서 마지막 큰절을 올렸다.

몬시뇰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 부부의 영원한 영적 아버지이십니다. 그토록 염려해 주시던 ‘어머니 마을’의 일도 몬시뇰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기도해 주시는 힘으로 관할 교구장 주교님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성모님의 지향에 따라 하느님의 섭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몬시뇰님, 사랑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서 꼭 몬시뇰님 곁으로 가서 다시 뵈겠습니다!

믿음 원칙 사랑 조화 이루신 분

잘 알려지지 않은 몬시놀의 인간적 면모

강창홍 바오로 - 데레사 부부

박창득 몬시놀을 회상하면 많은 추억과 느낌이 교차합니다. 아마도 신부님과 30년 이상의 추억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신 신부님을 회상하며 저희 부부가 본당 신자만이 아니고, ME 부부로서, 부부 주말 피정, 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느껴본 신부님의 모습에 대해 써 봅니다. 박 몬시놀께서 돌아가신 지가 벌써 7년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특히 신부님이 시작하신 뉴저지의 여러 성당을 방문할 때마다 몬시놀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은 그분의 업적만이 아니고, 그분의 성품이 그리워지기 때문입니다.

박창득 어거스틴 신부님을 처음으로 뵈는 것은 1980년으로 기억됩니다. 뉴저지에 막 이사 와서 한인 성당을 찾던 중 이 에디다 자매님의 안내로 제 아내 데레사와 함께 오렌지에 있는 한인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 뉴저지에 한국인 사제가 한국어 미사를 드리는 성당이 박창득 신부님이 계신 곳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부님과 처음 대화를 나눈 것은 아마 1982년 가을이었을 것입니다. 아내 데레사와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 고향을 물으셔서 충청남도라고 하니 “충치이군” 하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충청도에서 온 바보”라는 뜻이었으니, 기뻐할 수도, 기분 나빠할 수도 없었지요. 아마도 충청도 출신이신 박 몬시놀께서 충청도 고향 사람을 금방 알아보신 듯하였고, 우리를 편하게 해 주려는 마음으로 “충치”라고 하셨던가 봅니다. 초면에 어색해하는 우리 부부에게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솔직하고 소탈하게 다가오신 신부님의 성격이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박 몬시놀의 성격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아는 몬시놀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섬기며, 굳건하게 원칙과 교리를 중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필요하다면 소매를 걷어부치고 신자들과 같이 힘든 일도 하시며, 교우와 이웃을 염려해 운전도 해 주시던 인정과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사제 생활 초기,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거지들의 움막도 방문하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었고, 노동자 사목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 방면의 공부를 위하여 로마 유학을 하였고 미국에도 사회학을 공부를 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몬시놀은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Jersey City에 와 보니 (로마에서 석사를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러 오셨던 중),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일요일에 미사 드리러 갈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 미사에 참례하고 싶은데 미국 성당을 가자니 영어가 서툴고 어려워서, 심지어는 개신교 교회에 가는 것도 흔히 볼 수가 있었지. 이렇게 한인 교우들이 안정을 못 찾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며 한국어로 미사를 드리고, 동포들끼리 같이 모일 수 있게 해 주었지… 그러다 보니 운전할 차가 없어 이동이 불편한 사람, 영어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동포들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고 고민도 하였지. 그러다가 가기 전에 동포들을 위해 성령세미나를 해 주고 간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 신앙에 굶주린 신자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



≡ 2000년 몬시놀 서임축하 파티에서 강창홍 부부와 박창득 몬시놀

부님이셨습니다. 더구나 뉴저지에 하나 뿐인 한인 성당의 유일한 한인 신부님이셨으니까요.

우리가 ME 주말에 참여하고 봉사하게 되면서, 사제 관에도 들어가보게 되고 신부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50전후이셨으니, 건강하시고 노래도 잘 하시고, 참으로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말 수가 적으시고 품위있는 언행으로 신자들의 존경을 받는 신

박 몬시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인간적인 면을 소개해 본다면, 한번은 ME 식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내가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 하시기에, “신부님, ME를 하시면서 느낌이 많아져서 그러신 거죠?” 하고 물으니, “그래, 요즘에는 겨울연가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왔어”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특히 신부님께서 좋아하시고, 열정을 갖고 계셨던 ME를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기억이 있지만, 가장 큰 추억은 브라질에서 있었던 ‘디퍼 주말’입니다. 봉사부부 양성을 위한 이 디퍼 주말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 놓으시고 눈물을 보이시기까지 진솔하게 자신을 열어 보여 주시는 신부님의 사랑과 겸손에 참가 부부 모두가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신부님의 모습이 주말 참석 부부들에게는 마음을 열어보이는 산 교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부님과도 거리감을 없게 해 주었습니다. 주말 피정 중에는 새벽 1시가 넘도록 고해성사를 주시었고, 봉사자들과는 농담도 잘하시는 형님, 자상한 아버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신부님이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으로 보이기도 하였지만, 특히 하느님과 신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황소와 같이 밀고 나가시는 신념의 사제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건강하시던 신부님이 지난 수년간 점점 쇠약해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걷기도 불편하시고, 몇 년 전 야유회에서 “내가 차라리 빨리 갔어야 하는데”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 싶은 일이 많으셨던 신부님에게는 병상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편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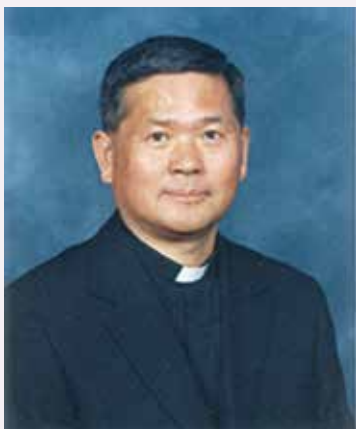
신부님, 신부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사제의 길이고, 모든 사람과 타협할 수는 없었지만,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두려움이 없었던 통 크신 대사제이셨습니다. 이제 신부님을 회상하면서, 신부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몫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부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오세완 바오로 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전 보좌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려니까 내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생각은 박 몬시뇰입니다.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께서 1972년에 뉴저지에 가서서 12월 3일 Jersey City에 위치한 Our Lady of Victories 본당 초등학교의 도서관에서 몇몇 교우들과 한국어 미사를 드리신 것이 지금의 메이플우드 성당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박 몬시뇰께서는 그 후 2015년 9월 18일 선종하시기까지 43년 동안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본당을 위해, 성교회를 위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장례미사에 참석하였을 때 제의를 입고 제대 앞에 누워 계신 그분의 시신을 보면서 세상의 온갖 풍상을 다 넘기시고 이제는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오직 하느님 얼굴만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실 것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한 본당을 설립하시고 생애 끝까지 그 곁에 계시다가 모든 걸 본당에 다 내어놓고 떠나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박 몬시뇰을 알게 된 것은 1982년 8월 로마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뜻밖에도 오렌지 성당에 놀러 오라는 엽서 한 장을 박 몬시뇰한테서 받았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되어 1999년 9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약 6년 반 정도 오렌지 성당에서 보좌신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렌지 본당 사제관에는 박 몬시뇰의 배려로 신부들의 여인숙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부님이 항상 머물렀습니다. 나는 본당에서 일하는 것은 생전 처음이라 모든 게 신기하고 흥미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유스그룹과 여름 캠프를 가고, 겨울에 스키 트립 간 것이 추억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드리는

유스그룹 미사는 내 몫이었습니다. 영어를 그리 사용해 보지 않다가 오렌지에 와서 매주 영어 강론을 한 것이 나의 오마하 본당신부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몬시뇰을 도와 ME 활동을 시작하여 약 15년간 몸담고 일한 것이 지금도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네브라스카 오마하 한인 성당에서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4년 동안 주임신부로 일하다가 지난해 은퇴하였습니다. 공소이던 오마하 본당에 오고 나서 2007년 준 본당으로 승격이 되었고 최초 주임신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본당신부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오렌지 성당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성당에서 익힌 미사 전례라든가 각 성당 단체 지도라든가 하는 본당 운영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몬시뇰께서는 두 번이나 오마하 본당에 오셔서 성령세미나와 은혜의 밤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마하 본당 신자들 앞에서 강론 시간에 오 신부는 내 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 몬시뇰은 아들 신부를 많이 두신 것으로 유명하지만, 나를 당신 아우로 인정해 주신 것이 내 생애의 큰 명예이기도 합니다.

나는 박 몬시뇰께서 특히 팰리세이즈 파크에 가톨릭회관을 세우시어 많은 교우가 그 건물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분의 큰 업적으로 생각하고 나도 혹시 그런 일을 오마하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본당 신자들 곁에 있다가 마지막 숨을 그들 앞에서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박 몬시뇰이라는 큰 분을 오렌지 성당에서 잠시나마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하느님 생각에 가슴이 뵈다”라는 그분의 말씀이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열정이 있으셨기에 그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분의 열정을 닮은 젊은 본당신부들이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하느님 사업 몰두

이태성 미카엘

몬시뇰님! 편히 쉬십시오.

몬시뇰께서 저희를 두고 분명 하늘로 가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 저는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잠이 깨어있던 중 글라라로부터 5분 전에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하늘이 까맣게 보였습니다. 몬시뇰이 계시지 않는 저의 신앙생활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슬픔이 밀려와 몸이 떨릴만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하필 이럴 때 서울에 나와 있어서 신부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부님 천상에서 편히 쉬십시오.

저희와의 인연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아들 둘과 아내 글라라와 함께 Boston에 유학을 왔고 처음에 저지시티에 정착하였지요. 창문이 없고 햇볕이 들지 않는 골방 같은 Studio 단칸방에 동지를 틀고 유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어 공부를 위해서 Boston에 있는 Harvard 대학 Language School에서 6개월 동안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다 6개월 만에 가족과 합류하게 되면서 저지시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공이 음악인 관계로 포트리에 있는 개신교에서 성가대를 맡아 지휘자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돈을 벌어 생활비도 마련하려고 시작하였으나, 제가 성가대를 지휘하는 동안 ‘골수 가톨릭’인 글라라는 개신교 예배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근처 밖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얼마 후 포트리 한일 장로교회에서 저에게 영주권 신청을 해 준다는 말을 듣고 좋아하였지요 그러나 글라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영주권을 만들어 준다고 하여도 가톨릭 집안에서 자란 글라라는 개신교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지요. 글라라는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몽클레어 성당으로 가서 미사에 참례하였습니다.



≡ 김수환 추기경님, 박 몬시놀과 함께 글쓴이 부부

글라라가 어떻게 연락해서 몬시놀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사정을 알고 오셔서 저희 가정을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그 때가 몬시놀이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 납니다. “개신교에서 할 수 있다면 천주교에서도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글라라를 위로하셨습니다. 개신교는 전 가족이 교회에 출석해야 좋아하는데 지휘자인 저는 입지가 점점 좁아져서 눈치가 보여 성가대 일을 원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개신교에서 1년 동안 성가대 지휘 생활을 하다 그만 두었습니다.

우리 성당은 성당 건물을 사서 오렌지로 이사하였고, 저는 81년 여름에 꾸르실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꾸르실료를 다녀온 후 많은 생각이 가톨릭으로 향하였고 본격적으로 신부님 옆에서 성당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음악가로 인정받아 6개월 만에 영주권을 얻게 되었고, 글라라는 수녀님이 없던 당시에 신부님을 도와 미사 준비와 제대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2년에 근무하던 사무장이 그만두게 되어 글라라가 대신 사무장을 맡게 된 이후 수녀님이 오실 때까지 미사와 제대 준비를 하면서 2015년 9월 몬시놀께서 소천하실 때까지 30년 이상을 몬시놀과 함께 울고 웃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마음을 깊이 잘 알고 계셨고 평생 하느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 Workaholic이셨습니다. 은퇴 후에 신부님께서서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던 Cleveland St.의



사제관에 돌아오시게 되어 몇 십 년 동안 비워 두었던 집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루를 깔고 책장을 짜다가 완성 마지막 날 순간적인 실수로 바이올린을 하던 왼손 검지를 잘리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전공인 바이올린 연주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실수가 가슴아픈 일로 남아 있습니다.

몬시놀께서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하느님 사업에 몰두 하셨고, 일 욕심이 많으셨기에 일이 줄어 들었을 때는 불안해 하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금을 모아 가톨릭 회관을 구입하신 후 회관 운영에 너무 힘이 많이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가 신부님의 인생에서 제일 힘드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신부님을 돕지 못한 것에 후회가 됩니다.

몬시놀께서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저희 부부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라라에게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를 믿어주시고 많은 일을 맡겨주셨다 싶어서 새삼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이제 모든 일 걱정은 내려 놓으시고 하늘 나라에서 평안히 저희 모습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가슴으로 지은 (새)집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님을 추모합니다

김학선 요한
데마레스트 성당 신자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선 것이 오후 두 시쯤이었을 것이다. 아침부터 제법 짙은 회색빛이 도는 구름이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면 달을 것 같은 곳까지 내려와 낮게 드리우고 있었다. “여보 점심 식사해요” 주일 오전 내내 음악 속에 폭 빠져 있다가 아내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된 것이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 포만의 시

간을 빠져나와야 하는 안타까움을. 묵은 김치를 송송 썰어 넣고 밀가루 반죽을 푹푹 투박하게 떼어 끓인 열큰한 수제비는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자칫 기분마저 푹 가라앉기 십상인 일요일 점심 메뉴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목덜미에 땀이 송송 돋을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수제비 한 그릇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비웠다. 음악이 주는 포만감보다도 더 큰 만족감이 몰려왔다. 창밖의 흐린 하늘도 환히 밝아지는 듯했다.

아내가 말했다. “점심 먹고 박 신부님 뵈러 가요” 그러고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다. 얼마 전 박 신부님께서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냥 껌전으로 흘렸었다. 막연하게 ‘시간이 나면 찾아뵈어야지’ 하는, 의지가 결여된 생각만이 박 신부님의 부상 소식에 대한 내 반응의 전부였다. 아내의 제안은 그렇게 깊고 어두운 곳으로 묻고 잊으려던 내 무성의에 대한 질책처럼 들렸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눈발이 곧 흩날릴 것 같은 날씨였다. 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키 큰 나무들 곳곳에 새집들이 을씨년스런 모습으로 깃들어 있었다.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차를 달려 한 시간이 좀 못 걸려 도착



한 곳은 뉴저지의 West Orange에 있는 한 재활요양원이었는데, 길 맞은편의 골프장만큼이나 넓은 대지 위에 여유로운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3층에 있는 박 신부님의 병실로 오르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왼쪽으로 도니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는 넓은 홀이 있었고, 그 뒤로는 밖이 흰하게 보이는 통유리를 통해 주차장이며 그 뒤의 나무들, 그리고 더 먼 곳의 경치도 시야에 들어왔다. 박 신부님의 병실을 찾는 노력을 할 새도 없이, 테이블 한 켠에 모여 있던 십여 분의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손짓해 불렀다. “여기에요” 그분들은 우리가 차에서 내리는 것부터 걸어오는 모습까지 유리창을 통해 흰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박 신부님이 앉아 계신 휠체어의 방향을 틀어 우리를 향하게 해 주었다. 두 팔에 깁스를 하고 계셔서 신부님은 손을 쓰실 수 없었다. 그런 신부님의 손을 본 것은 시간이 조금 흘러 박 신부님의 손을 잡을 때였다. 손을 잡으며 신부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두 눈 주변에 푸른 멍이 들어 있어서 마치 판다 꿈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얼굴 한쪽은 넘어지 시면서 굵힌 상처에 새살이 돋았는데 아직 아물지 않아 여린 분홍빛을 띄고 있었다. 그 분홍빛이 내 감각기관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이 찌릿한 아픔을 전달해 주었다. 앞으로 분홍빛을 볼 때면 가슴이 아릴 것 같다. 표정도 별 변화가 없으셨다. 우리 부부를 보시면 늘 사람 좋은 웃음을 넉넉히 주셨었는데...

내가 오전에 누리던 나이 들어감의 여유와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음을 신부님을 뵈면서 아프게 깨달았다. 두 팔은 깁스를 하셨는데 겨우 손가락 두 마디만 밖으로 나와 아주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깁스 위에는 먼저 다녀간 사람들이 신부님의 회복을 비는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 놓았다. (사람들의 희망처럼 회복하실 수만 있다면...) 그러나 희망이란 것이 현실에서는 드라마와는 달라서 사람들의 염원과 너무 먼 곳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후에 알게 되었다. 머리를 다치신 신부님이 예전과는 너무 달라지셨음을, 당신 한 몸 제대로 건사할 수도 없는 늙은 사제의 손. 아마 신부님은 당신의 아픔보다는 그 손으로 나누어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더 아파하고 계실지도 모를 일이었다.

신부님께서 이 미국 땅에서 40년 동안 한인들을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되는지 나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다. 내가 알고 들은 것이야 커다란 모자이크의 한 조각일 뿐이기 때문이다. 박 신부님은 내게는 영적인 아버지이시다. 내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신비하고도 오묘한 경험이 든 보따리의 매듭을 언젠가는 풀 기회가 올 것이다. 박 신부님의 손은 두꺼비 손이다. 크고 두껍다. 내 손은 늘 그분의 손 안에 잠길 뿐이다. 그분의 손을 잡을 때면 나를 감싸 쥐는 하느님의 손을 느끼곤 했다. ME(MarriageEncounter) 발표 부부로서 첫 주말을 할 때 신부님과 함께 발표했던 기억은 지금도 꺼내 보면 늘 따스하고 행복한 시간이 술술 배어 나오는, 오래된 사진첩과도 같다. 보고 또 보아도 질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신부님을 뵈는 지 5분이 채 되질 않아서 먼저 오셨던 분들이 창밖을 보면서 “어, 꽃동네 수녀님들 오시네” 하고 나지막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뒤에 수녀님 두 분이 할머니 두 분과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오셨다. 그분들에게도 박 신부님은 특별한 존재였을



재활원에서 조후연 신부님의 도움으로 미사를 봉헌하신 박문시놀과 함께. 2013년

것이다. 그분들은 내가 갖지 못한 모자이크의 다른 한 조각을 가지고 계실 것임에 틀림 없었다. 특히 세 노인에게 박 신부님은 집 같은 존재일 것이다. 갈 곳이 없는 그분들, 그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데 박 신부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신부님께서 한평생 하나씩 만들어 벽에 붙인, 내가 알지도 못하는 모자이크 조각의 수는 얼마나 되며, 그 크기는 또 얼마만할까?

우리는 모르고 갔지만 조 야고보 신부님께서 박 신부님을 위한 미사를 드리신다는 소리를 그분들이 오실 때 들을 수 있었다. 우연히 신부님을 뵈러 가긴 했지만, 신부님을 위한 미사까지 드릴 수 있음은 아팠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미사가 시작되면서 창밖엔 희끗 희끗 새치처럼 눈이 흩날리기 시작하더니 미사가 끝났을 땐 흰 빛이 제법 누리를 덮을 정도가 되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흰 빛의 위로, 혹은 축복. 그 눈이 신부님께도 위로가 되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아내는 집을 나서기 전에 밥을 해서 일부러 누룽지를 만들었다. 언젠가 신부님께서 누룽지 끓인 것을 맛나게 잡수셨던 기억을 되살려 누룽지와 함께 뜨거운 물을 담아 가지고 갔다. 신부님은 기도가 막힐까 봐 물도 조심해서 마신다는 주변 분의 말을 듣고서, 들고 갔던 누룽지를 하릴없이 가지고 돌아왔다. 신부님을 위한 누룽지는 기약 없이 뒤로 미루어 놓아야 했다. 살아 계시는 동안 누룽지를 대접할 날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눈길을 거슬러 집에 돌아왔다. 우리 동네엔 눈이 그다지 많이 내리지 않았다.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낮에 보았던 새집들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다. 신부님께서 사제의 삶을 사시는 동안 큰 집을 여러 채 지으셨을 것이다. 많은 영혼이 깃들어 사는, 나뭇잎에 가려진 새집들처럼 사람들 눈에 띄지는 않아도 그 위로와 희망의 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크게 크게 증축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신부님 삶의 겨울이 깊어 육신의 잎들을 벗는 순간, 집들의 모습이 비로소 나타날 것이다. 어느 시인의 시에서처럼 신부님은 새들처럼, 가슴으로 집을 지으셨을 것이다. 가지에 찢리며 여기저기 피도 나고 술한 상처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묘사가 얻으신 심각한 상처도, 따지고 보면 필요한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 여기 저기 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팔십 육신을 힘겹게 끌고 다니시다 얻은 것들이다.

집으로 들어가며 우리 집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떠나고 난 빈집. 나는 과연 어떤 집을 지으며 살고 있는지. 누군가가 살고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어도 누군가가 살았던 적은 있는 것인지. 내 삶의 겨울이 되어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오면 내가 평생 지었던 집의 모습도 현히 드러나겠지. 난 다시 한번 어둠에 싸인 새집들을 아주 천천히 올려다 보았다. 새들이 가슴으로 지은 그 아픈 집들을.

* 김정선 시인의 시 '새는 가슴으로 집을 짓는다'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박 몬시뇰님,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몬시뇰님 연도 때 드린 고별사

이회영 베드로

몬시뇰님, 제가 몬시뇰님을 처음 뵈는 것은 1975년, 40년 전 Montclair 성당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성당에 간 거라 서먹서먹했는데, 키가 크고 멋있는 신부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 해 성탄 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몬시뇰과의 인연을 통해 저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가정이 주님 평화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몬시뇰님, 감사합니다.

1979년 몬시뇰께서 성령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세미나에 간다고 등록까지 했다가 웬지 겁이 나서 마지막에 안 가고 말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리고는 몇 달 후에 몬시뇰의 권고로 두번째 세미나에 갔는데 제 생전에 그렇게 울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을 포옹하고 루시아에게 뽀뽀를 하니깐 아이들이 아빠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이 쳐다보던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하느님 덕분에 발바닥 신자였던 제가 변할 수 있었고 우리 가족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몬시뇰님 덕이지요. 몬시뇰님, 감사합니다. 몬시뇰께서는 우리 가족의 영원한 은인이십니다.

신자들이 성장해야 교회가 튼튼해진다고 몇몇 신자들을 불러 성령세미나 준비를 시키셨지요. 6개월간 매주 신부님과 만나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보냈던 그때가 제게 얼마나 큰 은총의 시간이었던지요.

1980년, 교우들이 힘을 모아서 Orange의 Cleveland Street에 있던 건물을 구입하고 첫 미사를 드리면서 하느님께서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고 기뻐하며 감사와 찬미를 드렸던 것이 었지요. 신부님, 기억하시지요? 신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성가를 맘껏 부르고 또 부르고 새벽까지 헤어지기 서운해했던 것,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며 감사하셨지요. 1983년 WWME를 동부에 처음 도입하신 직후, 한국 ME 대표 부부를 모셔와서는 일주일



≡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한 박 문시놀과 글쓴이 (1984년)

동안 매일 밤을 꼬박 새워가며 공부하고 대화하시면서도 피곤한 줄을 모르셨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야 교회가 활기찬 사랑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고 역설하시던 신부님의 환한 미소가 눈에 선합니다. 신자들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전해 주려는 문시놀의 열정이 이제는 뜨거운 눈물로 다가옵니다.

문시놀님, 1984년에 중국에 갔을 때 우리는 만주를 거쳐 백두산에 올랐었지요. 천지 건너편 북한 땅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면서, “저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데” 하시며 북한 선교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던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후 30여 차 북한을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끝내 나진 선봉에 동명유치원을 세워 350명의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교육을 시키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성무를 다 은퇴하신 후에도 휠체어를 탄 몸으로 북한을 한 번 더 방문하신다고 할 때 문시놀의 건강으로 무리라 싶어 반대했었지요. 그런데 조후연 신부님의 도움으로 끝내 바라시던 그곳을 다녀오신 것이 불과 석달 전. 그런 무리가 문시놀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라 싶어 화가 나면서도 신부님께서 그렇게도 바라시던 그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떠나실 수 있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신부님, 당신께선 영원한 사제이십니다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놀 1주기에

김용식 요셉



10년 전 어느 날 아침, 박창득 신부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시 개인 사정으로 6개월이 넘도록 오렌지 성당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않던 시기라, 아침 식사나 함께하자고 하시는 신부님의 전화에 ‘우리를 벗어난 양 한 마리’를 불러들이려는 의도가 있으심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 한 통의 전화 덕분에 그동안 몬시놀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은퇴하신 능력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신부님’이라는 이미지에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신부님, 나를 걱정해 주시는 아버지 같은 사제’라는 생각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신부님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3년 전 몬시놀께서 뉴저지 꽃동네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실 무렵 ‘간병인 봉사자 팀’의 한 사람으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병원에서 퇴원하신 후 꽃동네에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신부님은 누운 자세에서 스스로 몸을 옆으로 돌리시는 것조차 못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조차 알아보시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척 더디기는 했어도 신부님의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나아져서 몇 달 뒤부터는 휠체어에 앉아 식사하시거나 찾아오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많이 회복되면서 당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주 보게 되는 어두운 표정이나, 가까운 신부님들과의 통화 중에 들리는 비관적인 말씀 등에서 신부님의 우울한 마음 상태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병간호 봉사자들이 공들여서 하고자 했던 재활운동을 무반응으로 대하기 시작하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부님께 운동하 시기를 몇 번 권하다가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재활운동 포기로 단순히 현상 유지



만 한다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던 어느 날, 꽃동네로 들어서다가 앞 시간에 봉사하던 자매님이 신부님께 인사를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신부님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그 자매는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의자에 앉아 계셨던 신부님은 그 자매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어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사제와 신자 사이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은 무척이나 특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투병 생활 이전의 신부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화롭고 진지한 표정으로 자매를 위해 기도하시는 얼굴엔 조금도 어둡거나 우울한 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신부님의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신부님을 제 가족 같은 환자로 대했을 뿐, 그 환자가 사제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로지 입으로만 “신부님”이라고 불렀을 뿐, 제 앞에 있는 환자가 ‘사제’이며 사제로서의 하루를 살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환자가 아니라 사제로 대해 주길 바란다는 것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제 태도와 달리, 기도해 달라며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린 그 자매의 행동은, 누가 본다고 해도 “신부님, 당신은 저의 사제이십니다”라는 뜻을 전하는 강력한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그 순간 당신을 덮고 있던 우울증에서 잠시나마 벗어나실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몇 분들과 상의를 한 다음, 며칠 뒤에 신부님께 여쭙게 됩니다. “신부님, 저희가 이곳에 미사 준비를 하면 신부님께서는 매일 미사 책과 미사 경본을 보시면서 미사 봉헌이 가능하시겠어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미리 그린 신부님의 예상 답변은 십중팔구,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미사 봉헌을 하겠어요. 요셉 씨가 이곳에서 매일 미사를 하고 싶으면 다른 신부님들한테 부탁하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으시자마자 곧바로 하신 신부님의 대답은, “할 수 있어요”였습니다. 하고 싶다는 신부님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꽃동네에서 투병을 시작하신 후 첫 번째 미사가 2주 후쯤에 시작됩니다. 이 글라라 자매가 미사 준비를 하고 제가 신부님을 돕는 복사 역할을 하면서 신부님과 셋이서 거실에서 미사 봉헌을 했습니다. 분명 신부님 일생에 가장 실수가 많은 서투른 미사였고, 옆에서 돕는 제겐 ‘너무 일찍 시작한 게 아닌가?’하는 후회와 조바심을 느끼게 하는 미사였습니다. 동시에, 머리를 다치셔서 잘 나오지 않는 작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시는 신부님 모습에 가슴이 멎해지는 미사이기도 했습니다. 미사 봉헌 중 실

수와 혼돈은 두 번째 미사까지 계속되었지만, 세 번째 미사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사 경문에는 미사 도중 페이지를 건너뛰게 되는 곳들이 있는데, 처음 두 번의 미사 때에는 제가 페이지를 넘기고 다음 차례를 손으로 짚어 드리는 일이 자주 있었지만, 세 번째 미사 때부터 신부님 스스로 페이지를 넘기시며, 다음 문구를 찾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신부님은 재활운동을 안 하시고 계셨고, 휠체어에 10분 이상 앉으시면 힘이 없으신 관계로 휠체어 등받이에 당신의 머리가 닿게 될 정도로 몸이 앞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신부님 자세를 고쳐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2013년 Kessler 재활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조후연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드리시는 박창득 몬시뇰.

"신부님, 이 휠체어에서 한 시간 동안 똑바로 앉아 계실 힘이 생기시면 메이플우드 성당 주일 미사에 참례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운동하시지요, 신부님" '메이플우드 성당 주일미사 참례'라는 말씀을 들으시자, 순간 울컥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일단 미사 봉헌에 문제가 없으신 것을 스스로 확인하셨으니 체력만 보강하면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시게 되었고 봉사자들의 끈질긴 재활운동 권유와 신부님의 노력으로 얼마 후 성당 주일미사에 휠체어를 타신 채 미사 봉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많은 신자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신부님과 봉사자들의 노력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남은 부활절을 다음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부님, 부활절에는 휠체어는 밖에 두시고 지팡이만 가지고 제단에 오르시도록 합시다" 신부님은 그것도 이루어 내십니다. 부활절 대미사에서 지팡이를 앞에 두고 두 발로 서서 양손을 드신 모습으로 기도문과 미사 경문을 읽으셨습니다.



끝으로 신부님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남을 회상해 봅니다. 신부님께서 병원에서 성당 사제관으로 퇴원하시던 날 아침 10시쯤 병실로 찾아뵈었습니다. 당시 신부님은 병원 침대에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벌써 몇 주 동안 식사도 못 하였고, 그 기간 내내 말씀도 거의 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안부가 알고 싶어 찾아뵈었습니다. 병실을 지키던 이 글라라 자매로부터 그날 퇴원하시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밖에서 차를 기다리는 면회자가 있다는 소리에 신부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부님, 저 가겠습니다. 또 뵈게요 신부님” 하고 인사를 드리자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금방 세면을 시켜드린 것 같이 말끔하고 환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는 것인지 열린 미소가 얼굴에 배어 있는 것인지 모를 편안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얼굴 혈색이 좋으시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병실을 나오는데 문득 성서에 나오는 ‘불로 온갖 찌꺼기를 모두 태워 제련된 순수한 금이나 은같이’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1주기 추모미사 전에 바친 연도가 제겐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연도에 나오는 ‘연옥 영혼’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 뵈신 신부님의 모습에서 저는 신부님은 이미 천국에 계시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박 신부님과 첫 번째 만남인 영세 전 면담이 떠오릅니다. 교리 교육 소감을 물으시는 신부님께 “믿음이라는 단어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신부님은 즉시 그 말에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은총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을 가지겠다고 노력해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25년. 한때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기도 했고 지금은 스스로 ‘꼴찌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간신히 유지하는 신앙생활이지만, 그나마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박신부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득 몬시뇰은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셨고 은총이셨습니다.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1주기 에

큰 사제가 남긴 반백 년 발자취

채수호 알베르토



우체국 뒤 철조망 너머로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하루 두 번은 꼭 보게 되는 이 작은 묘지에는 100여 기 남짓 되는 무덤들이 있다. 묘비석의 표면은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부식되어 우툴두툴해졌고 그 위를 이끼가 덮고 있어 묘비명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회색빛 묘비석들은 비바람을 견디다 못해 비스듬히 옆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제는 자손들의 발길도 모두 끊겼는지 꽃이 놓여있는 무덤이 한 곳도 없다.

시청과 법원, 경찰서, 우체국 등 관공서가 있는 시내 한가운데에 묘지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아 먼 옛날 이 도시를 이끌어가던 지도급 인사들이 이곳에 묻히지 않았나 생각된다. 도회지의 번잡함과 소음, 어김없이 순환되는 밤과 낮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이곳만은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듯 사각의 철조망에 둘러싸인 채 도시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나는 철조망 너머 묘지에 누워있는 죽은 이들의 묘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나도 머지않아 누군가가 바라보는 하나의 묘비석 밑에 누이게 될 것이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은 덧없는 바람이 되어 흩어지고 세월은 무심하게 나의 묘비석을 스치고 지나가겠지.

뉴저지 한인 천주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묘비명이 하나 새겨져 있다. 1972년 저지시티의 한 도서관에서 몇몇 신자들을 모아놓고 사목의 첫발을 내디딘 박창득 몬시뇰 큰 사제의 발자취는 반백 년이 지난 지금 뉴저지는 물론 미 전역과 멀리 분단된 조국의 북녘땅까지 찍혀져 있다.

박창득 몬시뇰이 배출한 여러 사제는 메이플우드 성 김대건 한인 성당을 비롯한 포트리 마



돈나 성당과 새들브룩의 103위 한인 성당, 데마레스트 한인 성당 등 뉴저지 각지에서 한인과 타 민족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

한인 성당은 이민 생활을 하는 한인 교우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다. 삶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할 때 마음껏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 교우들의 따뜻한 체온으로 시린 가슴을 녹일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인 성당이다.

험난한 길을 개척하며 오늘의 한인 성당들이 있게 한 박창득 몬시뇰의 열정과 신념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또한 그를 큰 사제로 세워 우리 한인들에게 신앙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한인 천주교인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샅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요한 4,34~36)

50주년에 바치는 기도

이재영 토마스 - 소피아 부부

본당 50주년을 맞아 그 누구보다 공동체를 성장할 수 있게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외삼촌되시는 고 박창득 문시놀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형제자매님에게,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박창득 신부 사제수품 30주년 경축잔치에서. 옥색 치마저고리 입으신 분이 박창득 신부의 모친 전 모니카. 오른쪽이 여동생 젼마. 그옆이 조카 이재영 씨. 왼쪽 네사람은 조카 며느리 가족



강태웅 라파엘 화가

4



믿음의 칠층산을 오르며

Giving Everything from Our Hearts	이 충우 Michael 신부 / 176
Congratulations on your Golden Jubilee!	Sr. Theresa Lee / 178
Looking forward to continuing this honeymoon	Kenny Chan / 180
My Faith Journey	John Kauh / 183
Wisdom from the experiences of angels and demons	Sophie Kim / 186
The church as Place	Mie-Yun Lee / 188
Serving is Belonging to a COMMUNITY	Andre and Debra Park / 191
"Home Away From Home: A Community Worth The Long Drive"	Matthew Park / 193
"아직도 부제직 할 생각이 있느냐"	김성규 요셉 부제 / 195
탕자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김영호 요한 부제 / 198
힘과 용기 내어라, 내가 함께 있다	강옥주 안젤라 / 202
'신앙의 외톨이' 75세에 세례받다	강호연 다니엘 / 207
메이플우드 성당을 방문하고	구한솔 마리아 / 209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들	김기승 베드로 / 213
새들은 강풍이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민청미 데레사 / 215
받은 은총을 모두 다시 주님께 봉헌 -	박인현 금구요한 / 218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박재규 조가리아 / 221
이 뒷날 임이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송의용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223
삶의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이종원 글라라 / 226
"하느님을 아세요?"	이태성 마이클 / 230
"오묘하신 그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느님"	조종원 카타리나 / 235
자비의 희년 피정과 '자비의 문' 순례	조광재 세바스티안 / 237
우리 본당에 뿌리내린 말씀의 역사	편집 위원회 / 239

Giving Everything from Our Hearts

Fr. Michael Lee (이충우 신부)
St. Michael Church, Netcong, NJ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 이충우 신부님. 조카 딸과 함께

One Sunday morning, during my high school years at the Church in Orange, my pocket was full with a big roll of money from my various small jobs. I had a big plan to go to Essex Mall after Mass, a shopping mall that was open on Sundays. So there I was at Mass and it was time for the collection. I walked towards the basket, pulled out my roll of cash and flipped through the twenties, the tens, and the fives until I found a one-dollar bill; the

standard for church collections. I then put the rest back in my pocket. As I got closer, I had a thought, “Nothing says I love you more than cold hard cash. Show the love. One-dollar! Is that it? Just once in your life, do something great.”

I stood there and heard the choir singing and was inspired. When I reached the collection basket at the sanctuary, I reached into my pocket and dropped the entire roll of cash into the basket. The roll of money unraveled. Tens and twenties filled the basket. The usher holding the basket took one look at all that money and pulled the basket away from me quickly in case I changed my mind. Needless to say, I did not get anything at the mall that day. I got something better. A new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Saint Andrew Kim Parish Community.

It was then that I started to learn about giving everything from our hearts. God did not need my money but He needed me to start giving everything from my heart. It was from the witness of the Saint Andrew Kim Community that if I am committed



to excellence, I will never have to worry about the future. It was in the tensions and the arguments in the parish family that, in the end I witnessed the commitment to forgiveness. It was in the vanity of the parish family that, in the end I witnessed the commitment to humility and generosity. It was in the struggle for authority in the parish family that I witnessed, in the end the commitment to compassion and empathy.

So, it is with great gratitude for witnessing the commitment, with all of the beauty and ugliness, of a parish family that gave everything.



Congratulations on your Golden Jubilee!

Sr. Theresa Lee (이윤나 수녀)

Salesian Sisters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Remember the marvels He has done, His wonders... He remembers His covenant forever...”

(Ps. 125)

May God continue to bless your fidelity, your sacrifices, and especially your genuine love for one another. It is by our witness as the Family of God – where there is understanding, humility, and forgiveness in each family – that others may come to believe in Jesus and in His goodness.

I thank Jesus and Mary and my family for this gift of faith. I also thank the parish for the gift of my Salesian vocation! It was through the prayers of your Vocation Prayer Group (unknown to me), participation in the life of the parish since my childhood, and volunteer-serving as a Youth Minister as a young adult that my vocation was discovered and then grew. Remembering with great affection and deep gratitude, Msgr. Augustin Park, a wise priest of vision and action for the whole Korean-American community, especially the youth, let us continue the mission!

Please continue to pray for me and the many priests and Sisters who have come from this parish family through your prayers and support! Continue to pray for new vocations – whether to married life, religious life and priesthood, or consecrated single life. Each vocation is a means of living the holiness to which



we are called, yes, in the hardships and blessings. God loves you and desires your happiness, and God is always present!

Young people, please do feel free to contact me with any questions about faith, vocation, or life. Know that you will find a listening ear, no pressure, and perhaps a few answers along the way that may help you in your search. Be not afraid.

JOY and PEACE to each one!

Sr. Theresa Lee, FMA

happynun@gmail.com

Salesian Sisters.org

Celebrating 150 years in 2022

Founded in Italy 1872

Today: 11,500 Salesian Sisters

13,000 Salesian priests and Brothers

Serving young people in 130+ countries

Looking forward to continuing this honeymoon

Kenny Chan



After finding God at a Protestant Church, the least likely place I thought I would deepen my faith was in a Catholic Church. I started attending Saint Andrew Kim (“SAK”) ten years ago with my wife and oldest daughter. Originally, we wanted to continue going to my prior Protestant Church; however, when we informed my mother-in-law, she stopped us dead in our tracks. “Just try out my church for a little while and see how you like it,” she

said. At that moment I knew a little while would turn into a long while. God tells us to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that you may have a long life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I had just started my honeymoon stage with Christ and wanted to obey him. Also, I wanted to have a long life and didn’t want to die at the hands of my mother-in-law.

When we told my old Pastor that we were leaving his church to go to a Catholic church he said that our faith would diminish over time; I still think back to what he said and how wrong he was. Sometimes we put God into a box and think there are things he can do and things he can’t. It’s not that God is limited but our understanding of God is limited by our thoughts and experiences. God can do miraculous things for those who faithfully seek him. Now, I see how God is always



working around us and how he works differently with different people. If people play 2D chess, then God plays multi-dimensional chess. He sets pieces in motion even before the game has started. During our first attendance at SAK, I noticed how different it was from my prior church. People stood up, sat down, kneeled, and recited verses together in sync. The homily was short compared to a Protestant Sunday sermon and the music was more akin to traditional hymns than familiar contemporary praise. Initially we were relegated (by our own choice) to the cry room because Abby was only 11 months old. We were happily greeted by our fellow cry room parishioners. Two other families also had girls the same age as us, so we started to socialize and have play dates together. A year later, one of the families announced they were pregnant. A few months later my wife was pregnant. Then a few weeks later the third family was pregnant. So, each family would have two kids each all in the same grade. I thought to myself, “what a coincidence.”

While at SAK, I was looking for an opportunity to serve. I trust in God’s promise that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receive” (Acts 20:30). God’s ways were at many times counterintuitive to my ways. Things like giving out of poverty (Mark 12:41-44), loving your enemy (Matthew 5:44), and forgiveness (Matthew 6:14-15) were precepts that did not make sense to me. Why would I give when I am poor and when I am in need? Why would I love my enemy when they’re my enemy? Why would I forgive someone who has not apologized? After trying to live these precepts I was able to understand why God wants us to live like this. You give when you are poor because the state of feeling poor is a matter of the heart. We think we are worse off than we are because we compare ourselves to others. We give out of our poverty because we trust in God as the provider. If we are rich, then we give until it hurts to remind us that we do not put our trust in earthly treasures but instead heavenly treasures. We love our enemies and forgive because every person is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deserves dignity. When we see someone as our enemy, we are only able to see from our perspective and unable to see from the other’s. Loving and praying for our enemies removes the chains that fixates us on thoughts and prevents us from being in a state of grace and love. Once freed from this bondage, not only are we

able to start loving our enemies, but it also helps us to love our neighbors including friends, family, and God.

One day during announcements, Sister John went to the ambo to announce how the church needed help with the Youth Group. She said to look for opportunities to say “Yes to God”. This struck a chord in me because I’ve heard the stories of St. Therese of Lisieux. She lived by a philosophy called the Little Way where you try to do good in any deeds whether big or small. That you were to be the change instead of waiting for a “leader” to come and make the change. The Little Way reminds me of the parable of the talents in Matthew 25:14-30. In this parable the manager gives talents (or money) to his servants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The one who received ten talents was able to produce ten more talents, the one with five talents was able to produce five more talents, however, the person with one talent buried it in the ground because he was afraid to lose it. When the master returned, he commended the servants who had ten and five talents on how they were profitable and gave them more to manage. The one who didn’t do anything with his talent was reprimanded and even the little talent he had was taken from him and given to the one with ten talents. Serve faithfully no matter how little or many talents God gives you. Trusting that God will give you more responsibilities, more joy, and more hope the more faithfully you serve.

I have been so blessed during my five years of church service. Through service and serving with others I have met amazing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have helped deepen my faith. It is amazing to see how God works so differently with different people, how God loves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how he is present in our personal lives. I started my faith journey with Christ with a honeymoon.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is honeymoon with Christ through the remainder of this life and into eternity.

My Faith Journey

John Kauh



Apprehension - That is the first reaction I felt when I was asked to write about my faith journey; after all, I only recently became Catholic, so my faith journey was really short. Upon researching the

term, one definition of faith journey resonated with me, “the process to understand how God related to me, to the world, and to others.” With this new information in hand, I realized that I have always been on a faith journey, but it is only recently that I have come to comprehend.

Growing up in an agnostic household, religion was never a big component of my life but in retrospect, I did sense that something was missing. My parents were always busy running their small business 7 days a week, and Sundays held no special meaning other than the day before the school week started. On occasion, I would accompany family friends to Churches of various denominations, but the experiences were rarely positive; many times, I felt awkward, lost, and out of place. These feelings continued throughout my teenage and early adulthood years.

I vividly remember times during college when acquaintances would try to introduce me to Christianity and coaxed me to join campus ministries. My initial reaction

was always to withdraw from the situation given my skepticism. In my 20's, I was consumed with school, friends, and work. Religion was probably the furthest thing in my mind, but my views began to slowly change with maturity. In retrospect, three major experiences guided me to this point in my faith journey.

During training to become a medical oncologist, I had the honor of caring for patients from all walks of life; unfortunately, many had terminal diseases. While all patients were saddened by the news of their illness, I was amazed to meet patients who were at peace with their diagnosis. It left me perplexed. How can these people be so accepting of their situation, knowing that their lives were coming to an end. Over time, I came to realize that these patients were secure in their faith and relationship with God.

Secondly, when I first met my wife Mariane I knew she was Catholic, and I had concerns about how the relationship would work. Would she and her family accept me as a non-Catholic? Fortunately, both Mariane and her family accepted me without pre-conditions; no one pressured me to convert and granted me latitude to come to my own conclusions about religion. In contrast to my prior experiences, this was an enlightening experience since I was welcomed with all my imperfections. Prior to our marriage, as part of the pre-Cana course, I made commitments to the Church to raise our future offspring in the Catholic Church.

Once our daughter was born, I followed through by supporting my wife to the best of my ability. Over the years, watching my daughter grow up in the church, I began to feel a sense of wanting to be a part of her spiritual life but realized that without having a relationship with God myself, I could never fully comprehend nor participate.

One fateful day, while sitting in the gym of St. Andrew Kim eating lunch, Sister Veronica approached me and “inquired” about joining the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RCIA). I am still not quite sure what happened that day, but I said “yes”



in the process shocking my wife and subsequently, every single person I knew; countless people have tried and failed to convince me to join a Church. Perhaps Sr. Veronica caught me at the right time. Perhaps it was divine intervention. Regardless, I have no regrets. Now that I have completed my initiation into the Catholic Church,

I realize everyone has unique faith journeys and upon retrospection, I have been on my faith journey throughout my life without recognizing it. Now that I am more aware, my faith will continue to grow and despite the inevitable highs and lows of life, I will be able to take comfort in knowing that I am not alone and will always be accompanied by God. No one knows what the future holds, but I pray that God continues to rain blessings upon the St. Andrew Kim Church community.



강태웅 라파엘 화가



Wisdom from the experiences of angels and demons

Sophie Kim



Before the existence of technology, when people used their hands to advance society, they looked to God for explanations of the seemingly supernatural. How did millions of tiny droplets of water fall from the sky? It must have been God's wrath, of course! Over time as science has become more prevalent in modern society people have tended to stray from their faith in favor of the explained. However, some

have stayed close to God, even though many have never seen him with their own eyes.

Why is that? The answer is simple: guidance. God is the beacon of light and Hope, whom we can always connect to through prayer. Arguably, he will never have to manifest himself, even if he wanted to, it's not the "scientific evidence" that keeps him alive to the billions of Catholics, it is the reassurance he provides his followers. I am not exempt, as I often ask God to guide my life. Ever since I entered the St. Andrew Kim (SAK) parish in my first grade, I have come close to God and became extremely familiar with him. I served him in the church for the last 6 years. Through my life experiences, I have created a unique bond with God, and it has allowed me to develop into a mature figure that uses the love from the Holy Spirit.

There were times when adults told me, "You'll get it when you're older." I never fully grasped the meaning; time couldn't possibly change my mind, right? As I grew, I realized that everyone's life is completely different. Still, there were things that

matched up perfectly: annoying teachers, terrible school food, teenage rebellion, and most importantly, sinning. Through the Holy Spirit, the third person of God, we learn how to accept ourselves and how to accept the truth that we will make mistakes and that we will sin. In his infinite mercy, God lets us make mistakes. He wants us to grow and learn through our mistakes, so that we can be the best version of ourselves. Of course I've made mistakes. I remember when I thought a bad grade was going to be the end of my goals, or when I got into fights with my friends. However, instead of focusing on the past, I have learned to accept that these experiences granted me a stronger will. What I have learned most is that experience and time will always triumph over naivete.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understand that one cannot truly gain wisdom until one has experienced the angels and demons of this world.



≡ 이창분 화가

The Church as Place

Mie-Yun Lee
St. John the Evangelist church, Wellseley, MA

“Medium raw...Medium raw...” (믿음으로 믿음으로)



My brothers and I used to joke that “Medium raw... Medium raw...” is what people sang during mass. The mass was said in Korean before there was a separate English mass at St. Andrew Kim Church. For years, the church meant for us being bored for an hour and then being rewarded with donuts and the occasional lunch outing to McDonald’s on the way home.

During my high school years, I loved going to church because of the youth group. We did fun things such as creating and selling high-priced Easter baskets, and holding car washes (ruining one car along the way – I still feel bad about that) to raise money, so that we could do fun things like going bowling, hanging out at diners and going camping. It was definitely more social than religious. But upon reflection, I realize that it was absolutely what I needed to have a sense of identity growing up in the era when being Korean in the United States was very unusual and “other.”

During college or in my 20s, I had no need for community since I finally found my Place. At that time I didn’t see church as a way to offer more than community. Therefore, I didn’t go to church except as an obligation, with my parents. Life was too busy and I was too tired from Saturday night parties to even think about hauling myself out of bed to go to church. Yes, even a noon mass was too early sometimes!

But I did increasingly feel an emptiness in my life, especially after college. Is that what life is all about - working, having a fun social life, finding a partner and having a family, and getting paid so I can in turn pay others? I enjoyed it most of the time, but I had moments where it just felt so unfulfilling.

While I had the fleeting thought that maybe going to church would help ease the emptiness, I felt the guilt of not having attended church for years. I felt the shame of choices I had made and choices I failed to make. It made me think that I was not worthy of going to church. I certainly didn't want to go if it involved me having to "wipe my shoes" at the door by going to confession first. For this and many other reasons, church was not a place for me for many many years.

It wasn't until I got divorced - when I was desperately aching to find peace in my heart - that I set out on an intentional journey to find out how to fill the hole and church was one of the first places I went to find the answer.

And so I went to church: Lutheran Church, Episcopalian church, and even Congregational church. How was it? Very Uncomfortable. I went to those services not knowing anyone, not knowing what to wear, or not knowing what to expect. And so every service I attended was one where there was no chance I could find peace as I felt incredibly self-conscious.

Despite my awkwardness, I did notice that all those churches had their own practices, that they tried to do good things for other people, and that they were all made up of people who wanted to do good and be good. And the best services shared inspiring reflections and soul-soothing music that resonated with me.

I realized, why not Catholic Church? I had decided that Catholic Church was not for me because I was convinced that it was a bad institution and I was not welcome as a divorced person, but when I realized that I love many who are part of the institution and realized there were varieties of Catholic Church that welcomed all and were more progressive, I decided to give it another try.

I then sampled multiple Catholic churches in my area, knowledgeable about what to expect at mass so I could more fully concentrate on the message. I found I was much less judgmental of the mass itself and all the rituals having realized that every service has them. I finally settled on a church and now I attend it as a member who is still on the edge but does not feel like I am on the outside.

Today, I am in my 50s and find church as a place to nourish my relationship with God. I now go by myself weekly-ish and see church as a peaceful oasis where messages of love and peace are spoken and sung aloud and remind me of God's love for me. It is a place where I can try to quiet my mind and be with God and listen to His whispers. Now, 45 years later, just one hour a week feels like a very small investment of time to spend with God.

I am grateful that the seeds of love were planted in me from my days as a child, thanks to the St. Andrew Kim Church community. I hope that the church continues for another 50 years to share its love and care for our diverse Korean community and that you who are nearby can muster the courage or make the time to partake in what it or other churches have to offer.

With love and peace to all and with true gratitude for the journey...



Serving is Belonging to a COMMUNITY

Andre and Debra Park



My earliest recollection of Mass was when I was about 8 years old. Mom told me that I had been baptized already, but that never meant much at such an early age. It did mean my mother would drag me to Mass every Sunday morning, and I hated it. She would even drag me to Chinatown by train. There is a Church on Mott street: Transfiguration Church. They would have Korean

Mass in the basement, for newly arrived Korean immigrants. Later on, we attended Rego Park Church in Queens.

During this period, I was enrolled in a Catholic Middle School and was required to serve as an altar boy. I was not happy doing that either.

A curious thing happened one day. I was scheduled to serve during a Midnight Mass. It was going to be my first time to serve at a Midnight Mass for Christmas. It was a big deal! The Mass was very long and intricate and required one week of practice to prepare. During that Mass, with the lights low and candles lit, our procession marked by incense, my heart and eyes were opened for the first time to greet my Lord. The ceremony was solemn with the choir singing like angels. The Holy Spirit was upon me, I felt, and my heart was opening widely and growing bigger.

After becoming a father of 2 (Michele and Matthew), I had recently moved to New Jersey. Knowing very few people, I wanted to find a place where my children could attend Church every Sunday. A dear friend took us to Orange, where there was

a large Korean congregation. It has been over 20 years since then. I was never a serious Catholic. My faith was lacking and my desire to serve non-existent. Then, how did I become so entwined with St. Andrew Kim Church? I met many people who were beyond kind to us. We knew no one, yet every one would greet us with a warm smile. Friendships were built and bonds were made with people I would never have thought of as friends when I was younger.

Somehow, I was called to serve, and I did so willingly and with great humility. I came to realize that it is what belonging to a COMMUNITY feels like. You feel you belong and you care for everyone, not just because we were Korean, but as Catholics. The Lord set a place for me at His banquet table. A broken sinner such as me, a nobody. Through His will and with His love, He pushed me beyond my comfort zone to volunteer at St. Andrew Kim Church.

Now, I am more certain of my Faith than ever before: that the Catholic Faith is the ONE TRUE FAITH, that Jesus did in fact told Peter to be his ROCK on which HIS Church shall stand, That the Eucharist, the Trinity and all the prayers that go with the solemn Mass are what build up our Faith.

I find no burden to attend MY Church, St. Andrew Kim. God willing, I will continue to attend here, where I belong.

Home Away From Home: A Community Worth The Long Drive

Matthew Park



I am a SAK (St.Andrew Kim Church) lifer - my earliest memories are of wandering around the upstairs hallway at the old Orange location, when I was in first grade of Sunday school. Since then, this parish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my life - that is why I had to take a step back to put everything into perspective.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ind was the fact that I've had many people react with praise, lament, or downright confusion when they found out how far my church was for me (about an hour drive). It was always amusing to me because I never thought anything of it, perhaps because the commute to SAK had become just as normal as a commute to work or anywhere else. It was just a normal part of my routine. But I began to think about this a little more. After all, there are plenty of local churches around - many that I have gone to on occasion and really enjoyed. So why do I drive an hour to church on Sunday morning when I'm usually very tired and occasionally even hungover? Simply put, it's because of the people there.

Our community at SAK is full of people who have changed my life for the better. Some have come and gone. When I look back on everyone whom I've met and developed relationships, I begin to realize how much of an impact each of them had on me. Also I begin to wonder where I would be if I hadn't met them. I have a profound love and respect for so many of them, but in particular for my fellow

Youth Group counselors and the students. I have been serving in the youth ministry on a regular basis, for about seven years. Outside of having a lot of fun, this experience has shaped my faith and, in general, made me a better person. Our program consists of a variety of different activities (retreats, camping, ski trips, etc.). However, one consistent surprise for me through all these activities has been the selfless counselors who serve and the enthusiastic Youth Group who respond with great efforts.

First, the Youth Group. When I signed up, I never thought I'd have any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high school kids. I had recently finished college and my assumption was that the youth group would just be a bunch of punks who didn't care about church. Probably because that's what I was when I was in my Youth Group. But as I wrote earlier, they have surprised me over and over again. The effort they have put into preparing events, their curiosity of their faith, and the love they show one another has been humbling and inspiring. Many of them I still consider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SAK has always been known to have a great Youth Group, and this has been validated by members of other parishes.

Lastly, my fellow counselors. This parish would not be the beautiful community that it is without a group of people who serve selflessly. I see this first-hand every week in our Youth Group counselors. It's never about them. They serve and give. They really don't ask for anything in return. It's simply about serving and executing God's will, and doing what is best for our youth. This may seem cliché and obvious, but after reflecting, I realize that it is very rare in this world. Fortunately, it's not rare at SAK. This community sets a great example, and makes me want to be a better person, while sharing many laughs and good memories with each other. That's why I call this parish home. I can fulfill my weekly mass obligation at a church five minutes away, but I come to SAK for the people. For many, a "church" is simply a weirdly shaped building, but it's really all about the people in it.



"아직도 부제직 할 생각이 있느냐"

(고) 김성규 요셉 부제
Our Lady of Mount Carmel Church, Lyndhurst, NJ.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봉사하였습니다.

제가 오렌지 성당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4년 5월 LG그룹 회장실의 미주지역 뉴저지 본부에 부임한 이후부터입니다. 사실 오렌지 성당과 인연을 맺기 전까지는 소신학교 준비기간과 소신학교 시절을 제외하고는 주일만 겨우 지키는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식구들 먹여 살리고 회사에서의 출세를 위한 승진 문제에만 목숨을 걸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렌지 본당으로 온 이후로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당시 뉴저지의 유일한 한인 성당의 사목을 맡고 계셨던 고 박창득 몬시뇰(당시 주임사제)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나와 함께 교회 봉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쁜 생활 중이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 무엇이든지 시키시는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 편집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성가대원, 성가 지휘자, 골프동우회장 등 신심단체와 활동단체에서 수년간

이렇게 봉사하는 과정에서 저는 몬시뇰로부터 하느님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은 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숨 쉴 겨를조차 없이 매일 짝 짜인 일

상생활과 본당 내의 여러 잡음 등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피로와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라는 불굴의 의지와 희망으로 버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헌신의 사목을 하시는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봉사를 하던 중, 1994년 5월경 저는 하느님의 성소를 느꼈습니다. 몬시뇰께서 당연히 허락해 주시고 추천해 주실 것이라고 굳똑같이 믿고는 몬시뇰께 “종신부제직”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뜻하지 않게 그분의 얼굴이 돌변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다년간 교회 봉사를 해왔었기에 당연히 추천해 주시고 밀어주실 거라고 믿었던 저는 “내가 하느님의 성소라고 믿었던 그 생각이 과연 하느님께로 온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피스럽고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서 그때부터 오렌지 성당과는 인연을 끊고 미국인 본당에서 미사 참례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제가 겪은 번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마음 한쪽에서 “이런 정도의 고통도 못 참으면서 무슨 성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와서 그나마 다른 성당에서 신자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렌지 본당과 인연을 끊고 신자 생활을 한 지 4년이 거의 지나갈 무렵 1998년 5월 중순 어느 날 뜻하지 않게 몬시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부제직을 위해 신학교에 다시 갈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아직 변함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개강한다고 하니 내일 본당에 와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교구청에 제출하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저의 기분은 하늘로 날아갈 듯이 기뻛습니다. 다음에 확인해 보니, 몬시뇰께서는 저의 성소에 대한 생각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신 것을 깨닫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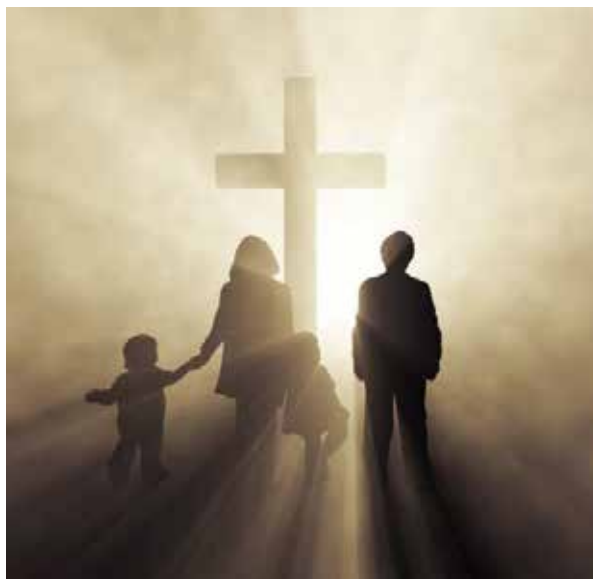
신청서를 교구청에 제출한 후, 저는 LG그룹이라는 좋은 직장에 사표를 제출할 당시를 회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다년간의 주재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본국으로 발령이 났을 때입니다. 이삿짐들을 한국으로 운송하도록 준비를 끝냈을 무렵, 저의 마음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들려 왔었습니다. “이제 이 직장을 그만둘 때가 왔다”라는 청천벽



력의 소리가 울려 온 것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Oh, my God!!”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의 마음은 나 자신 억누를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 작용함을 느꼈고 집 식구들이나 직장에도 알리지 못한 채 매일 코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결국, 혹시 사직 취소의 설득을 당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가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비서에게 전달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식구들에게 이야길 했는데 “그렇게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의 부제직 수품일인 2002년 6월 1일은 지난 10년간 본당 신자들과 다른 본당 신자들을 중심으로 낙태 종식 100만단의 목주기도 운동이 시작된 후 목표가 달성된 날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동안 저의 미국 땅에서의 지속적인 신앙의 삶과 성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오렌지 성당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 뉴저지에서 선교와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도록 불림을 받으신 고 박창득 몬시뇰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해 전구해 주시고 돌보아주신 성모님과 요셉 성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뉴저지 땅에서 한인 신자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널리 펼치게 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탕자의 길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김영호 세례자 요한 부제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먼저 저희에게 50주년을 맞이하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 그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50년이란 시간은 저희 인생에 견주어 보면 반평생을 산 삶입니다. 공자는 논어 <위정> 편에서 “50이 지천명(知天命)”이라고 했습니다. 50이면 천명을 안다. 여기서 천명이라고 하는 뜻은 천은 자연이고 자연형성에 부여된 생명의 이치를 통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천명’이란 사물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이치 혹은 하늘이 부여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지천명은 그 자연스러운 이치 혹은 하늘이 부여한 사명을 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늘이 부여한 사명’이 저희에게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 건설”입니다. 물론 저희 신앙인들은 하느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종종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역시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당 공동체가 50주년을 맞은 해에 우리 공동체에서 실질적인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100주년 기념을 향해 나아가면서 많은 신자들이 “메이플우드 성당에만 가면 하느님 나라를 느낄 수 있어”라며 얘기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 주님의 현존과 사랑을 알려주신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1981년 8월 뉴욕 브롱스로 이민 와서 세인트 필립 네리 한인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스그룹과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청년회에 있는 친구들과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1988년 오렌지 센트럴 애비뉴에 있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역시 성가대에서 몇 년 봉사하고, 한국에서부터 저의 안식처인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하느님에 대해 얘기하며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 신앙생활에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약 7년 정도 냉담하게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앙이 깨지고 그러면 다시 추슬러 성당에 가길 여러 번, 그러다가 결국은 신앙이 완전히 무너짐을 느낌과 동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신앙심 없이 가르치는 것이 옳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자 그날부터 저의 기나긴 냉담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느님과 가톨릭을 부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불교에 입문하여 1년 동안 공부 후 수계와 법명도 받았습니다. 불교라는 종교 차원에서 신심 생활을 하기보다는, 철학적인 면에 몰입하여 논리적인 면에 많이 이끌렸던 것 같았습니다. 108배를 하며 깨달음을 얻고 배움에 대한 희열도 느꼈지만, 저로서는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족함이 항상 제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 사고방식으로는 사랑이 있어야 자비도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웬지 자비를 위한 자비라는 것을 느꼈고 사랑이 약간 부족한 것을 느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계를 받고 법명도 받았지만,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대로 놓아두었다가 영영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으셨던지 주위 분을 통해 마지



≡ 2021년 뉴욕주교좌 대성전. 김영호 세례자 요한 부제 서품식.

막 카드를 써서 저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제 경험이 루카 복음 15장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와 흡사해 저 자신을 작은아들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

인 고통은 작은아들보다 훨씬 덜 했지만요. 약 7년 냉담을 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자마자 주님은 밀렸던 봉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유스그룹에 합류시키셨습니다.

그 유스그룹을 통해 주님의 현존하심과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봉사는 단지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그리고 항상 함께하심을 강하게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에서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께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하곤 정말로 관계가 별로 없는 분으로부터 주님의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냉담, 유스그룹 봉사, 주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을 통해 조금씩 준비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현존과 주님의 풍성한 은총은 부제 공부를 하던 때 역시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평소에는 책을 읽으면 그전 페이지가 잘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는 A4 용지 10장 정도의 엄청난 내용이 외워져 2시간 정도에 걸리는 답안을 쉬지도 않고 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4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은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기에는 진정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봉사하는 여정이라는 뚜렷한 목적지가 있었고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삶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신앙인들의 목적지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한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느끼면 그 길이 많이 수월하고 기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오 복음 18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에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가 50살이 되어 생각이 많이 견고해졌지만, 마음만은 어린이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대 공동체 때 나누었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항상 느낄 수 있는 하느님 나라를 말입니다.



≡ 김영호 요한 부제의 첫 미사 봉사

서는 아니 되겠지요.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하느님 나라가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회개하고 어린이처럼 되어 함께 하느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더불어 앞으로 100주년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역시 저희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견고해진 100주년을 맞이 위해 초석을 깔아야 하고 또한 신자 모두가 주님을 머리로 손과 발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소외된 혹은 아픈 지체 역시 한 지체라는 것을 뺏속 깊숙이 느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는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먼저 초석을 깔기 위해서는 주일학교와 유스그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세대가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기 위해서는 머리(주님)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손과 발이 잘 받아들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각기 맡은 일이 다르다고 한 지체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

힘과 용기 내어라, 내가 함께 있다

강옥주 안젤라



20년 전, 큰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나에게 2살 반이던 아들의 자폐 판정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다. 짜놓았던 평생의 계획을 모두 접었지만, 아들의 자폐증은 고칠 수 있을 거

라는 생각, 아니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새벽 4시까지 밤마다 자폐아 심리 분석 논문 등을 훑어가며 정보 수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긴 터널을 아들과 나는 열심히 걸어가야만 했는데도 가족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위로라고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러나 아파할 시간조차 없었다.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사춘기를 지나며 난폭한 행동을 보이면 부모가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느니 어쩌니 하며 나의 속사정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은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다. 그런 말을 듣고서 나는 그저 헛웃음을 지었다. 왜? 나도 분명 자폐아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여유 있게 하하 호호하며 커피를 마시며 농담하는 것도 참 부러웠다. 난 그럴 시간도 없었다. 생계유지와 집안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했던 시절이라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려면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했기에 누구와 대화해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몇 분 내로, 짧은 시간에 말도 빨리, 급히 하다 보니 정작 핵심을 잃기도 한다.

도대체 난, 어떤 세상에 사는 걸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 자신이 지친 것도 있고 미친 듯이 순간순간 살아내려 노력하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깊고 어두운 구렁텅이로 계속 빨려 들어

가고만 있었다. 우울증이란 건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무척 바쁘게 지내는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것도 모르고 지나가다 전봇대만 보면 자식들을 까맣게 잊은 채 순간적으로 자살 충동에 휩싸이곤 했다. 생계유지와 가족 간의 갈등 또한 힘든 과제였다. 정말 눈물 흘릴 힘도 없었고, 아픈 아이를 낳은 죄책감에 잠 한번 편히 자지 못했다.

어느 날 밤, 간절히 묵주알을 돌리며 기도드리고 있었는데 나의 몸이 갑자기 따뜻한 무언가에 감싸여서 참 포근했다. 이 포근함에 계속 나의 심신을 묻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빨갛고 잘 익은 사과 하나가 내 눈앞에 보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사과가 절반 넘게 새까맣게 썩어 있었다. 어찌나 끔찍하던지 나도 몰래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그게 바로 나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곧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후론 이상하게도 성당에서 이분 저분으로부터 똑같은 성서 말씀이 적힌 메시지와 선물을 받았다. 그 성서 말씀은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 1,9)라는 말씀이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2001년 4월 오렌지 성당에서 내가 첫영성체를 한 기억이 났다. 첫영성체를 하기 전날인, 일일 피정 때 묵상이 끝난 다음 진행하는 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 바로 뒤편에서 어떤 자매님께서 몸을 떠나며 가느다랗게 어떤 말씀을 읊어주시더니 갑자기 앞에 계신 자매님께 예수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했다. 그럼 난데? 그러더니 그때 모든 분이 나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거였다. 난, 그때 사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깨가 우쭐거릴 만큼 기분이 참 좋았다. 피정이 끝나고 몇 시간 후 그 자매님께서 오시더니 어딜 급히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시며, 내 앞에서 이 내용을 다 적으시더니, 홀연히 사라지셨다. 이것은 20년 전, 의심이 많은 나에게 영광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 내용이다. 이 편지를 펼칠 때마다 그 시절의 마음, 향기, 그때의 거룩한 시간이 느껴진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로 변한다. 그러니, 딸아, 너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다오. 너의 고통이 클수록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더욱더 각별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나와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묵상 내용이고 가장 아랫부분에 이 메시지를 써 주신 자매님 본명이 쓰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묵상 내용은 나하고 예수님 밖

에 모르는데 어떻게 이 자매님이 이 종이 한 장에 뽁뽁하게 적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몇 시간이 흐른 뒤에도 어떻게 이 내용을 다 기억하고 계셨을까?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고 놀람과 동시에 실망도 컸다. 지금까지도 매우 힘들었는데 또 고난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니 기쁘기는커녕 정말 두려웠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이제야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 같다. 가톨릭 생활 성가에 나오는 이런 가사가 떠오른다.

“죄 많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오 주여!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자폐 아들과 실랑이를 할 때마다 ‘내가 무슨 죄가 많나? 연거푸 되뇌기만 했던 나의 삶에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 ‘말한다’도 아니고 ‘명령한다’라고 하셨다. 그럼, ‘난, 무작정 실행해야 한다!’ 힘과 용기를 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용감한 전사였다고 하셨던 어느 신부님의 말씀처럼. 돌아보면 15년 동안 아들을 끌고 성당을 다닌 것도 하느님의 큰 자비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고, 신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많은 갈등도 있었다.

제일 앞 좌석에서 미사를 평화로이 드리는 분들이 몹시 부러웠고, ‘하느님 보시기에 나는 도 대체 미사를 편히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없나? 하는 생각에 한숨만 내쉬었다. 그런데, 아들의 첫영성체 때 배너를 만들면서 포도 줄기와 포도 알맹이를 하나하나 붙이는데, 갑자기 “그래. 하느님은 포도나무, 나는 포도 열매.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가끔 나를 지켜봐 주시는 천사, 친언니 같은 분들이 묻는다. 어디에서 그런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가 자꾸 생기냐고? 그건 성모님과 함께한 하느님께 바치는 묵주기도 덕분인 것 같다. 또한 12년 동안 성모님 치맛자락을 간신히 부여잡고 이리저리 힘들게 다녔던 레지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의 짧은 인생의 여정에서 아들 때문에 힘들었던 비참한 상황들, 끝이 있다면 이대로 지금 끝내고 싶다는 유혹이 정말 많았지만, 간절한 마음과 함께 묵주기도의 힘으로 지금껏 살아오고 있고, 또한 성공만을 추구해 왔던 내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 큰 행복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야 한다. 지금 나의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하루하루, 한 시간, 일 분까지도 노력해야 한다. 밝은 색깔의 옷 입기, 거울 보고 미소 짓기, 딸 아들과 함께 노래 부르기, 춤추기 등등, ‘누구 때문에’가 ‘누구 덕분에’, ‘왜 나지?’가 ‘그래 나일 수도 있구나!’, ‘왜 그렇지?’가 ‘그럴 수도 있지’로 생각이 바뀌어 가고 있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렸다. 그래도, 순간순간 아들에 대한 자괴감에 좌절하는 나 자신을 보며 이 아픔과 괴로움을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을 위해 봉헌해 드렸다. 그런데, 이 봉헌 기도는 신기하게도 내가 아픔에서 빨리 치유가 되게 하는 것 같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의 편지를 나에게만 보내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에 그 특권과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경외하며, 행복하고 품격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넘어서 좌절할 때도 많지만, 다시 일어설 힘과, 매 순간순간 감사드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힘을 주신 것도 또 하나의 큰 기적이라 생각한다.

자폐아와 같이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말과 자기 감정표현이 힘들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해지면 모든 것이 극단적이다. 문제가 되는 행동을 긴 세월 끝에 힘겹게 고치면 또 다른 행동이 나오고, 또 그 행동을 수정하면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 또 튀어나오고…. 끝이 없다. 특히, 아프거나 다치면 회복하는 동안 거의 초주검이 된다. 주사, 혈액검사, 혈압검사, 봉대 감기, 깍스하기 등등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작년에 아들이 2층에서 떨어져 척추가 으스러져서 10개의 나사를 박아 척추를 연결하였다. 걸을 수 있네, 없네 했었는데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되어서 걸을 수 있었다. 그런데 회복되는 6개월 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아이가 허리를 굽히면 나사가 다시 빠질 수도 있고 나사들이 제자리에 자리 잡지 못하면 평생 걸을 수 없다고 하니, 죽기 살기로 허리를 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거였다. 그런데 아들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감정이 폭발할 때마다 나의 머리를 때렸다. 그래도 아들이 허리를 굽히면 안 되니까 옆에서 지켜보아야 하겠고, 내가 머리를 맞으면 크게 다칠 것 같았다. 그 당시에 아들의 체중이 259파운드 키가 거의 6피트였기에 이러한 행동을 조절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이 방법저 방법을 시도해 보고 기도 끝에 모터사이클 탈 때 쓰는 헬멧에다 분무기에 물을 넣은 물총을 양손에 들고 카우보이처럼 아들 방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 나를 때리지 않았다.

감사하게도 아들은 회복이 잘 되어서 지금은 잘 걸어다니고 있다. 그때 거울에 비친 헬멧 쓰고 분무기 2개를 양손에다 든 나의 모습이 어찌나 우습던지! ㅎㅎ 나는 아들 덕분에 마치 어릴 때 남자아이들과 머리에 바가지 쓰고 총싸움했던 기억이 나서 좋았다.

아들과의 하루는 TV에 나오는 시트콤을 찍는 것 같다. 가끔은 아들의 행동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다. 하루에도 지옥과 천국을 수십 번 오가고,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에 항상 대처해야 하고, 어떤 간단한 것도 가르치기에 거의 최소 6개월에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는 평생 걸릴 수도 있다지만, 어느 신부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가 중요한 것 같다. 시간이 많다면 여유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라도 가지려고 노력하는 마음의 여유는 더 값지고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사실 쉽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는 중이다.

눈을 감고 지금 내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아들 덕분에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들 덕분에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 기쁠 때가 많았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오묘하고 소중한 선물인 것 같다. 나는 지금 약 부작용과 아들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또 하나의 산을 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지켜 주시리라 믿는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 메이플우드 성당 교우들과 신부님, 수녀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아시는 모든 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인 것 같다.

빛이 강하면 어둠도 강하다고 한다. 우리 아들이 나의 불행인 줄 알았는데 강한 빛이었다. 마지막으로 단지 바라는 건,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에서 내 눈물과 고통의 기쁨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봉헌하며,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

다시 한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느님! 하느님께서 계셔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신앙의 외톨이’ 75세에 세례받다

강호연 다니엘



우리 집은 4대로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이지만 할아버님은 동양 철학을 전공 하셔서 유교만 고집하시고 출생하실 때 받으신 천주교 세례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본명과 형제들 본명을 적어 넣으신 메모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보관하고 계셨다.

아버님은 술을 드시면 우리 집은 천주교 치명자 집안이라 죽으면 무조건 천당에 간다고 농담 삼아 말씀하시면서도 교회를 멀리하셨다. 그러시던 아버님께서 내가 군대 간 사이 어머님과 동생과 같이 서울 동작구 대방동 천주교회에서 영세하셨다. 누님 두 분은 할머니 따라 어릴 적에 영세하셔서 나만이 무신론자로 지내왔다. 가끔 부모님 모시고 미사에 참여하긴 하였지만, 나에게는 부모님의 교회였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무신론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신앙에 대한 갈망이 없지는 않았다. 미국 이민 생활에 지치고 좌절하고 적응하는 동안 마음속에 숨어있는 신앙에 대한 갈망을 억누르고 부인하면서 살아왔을 뿐이다.

그러던 나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부모님의 죽음이었다. 멀게만 느껴지던 죽음이 부모님의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가 어떠한 죽음을 택하여야 하

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가슴 속에 숨어있던 신앙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마음이 더욱 절실해져서 세례받을 준비를 굳건히 하게 되었다. 함께 공부하면서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 등 많은 것에 감명받았다.

“함께하는 여정”을 공부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김요한 부제님과 조광재 세바스티안 형제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영세는 나에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일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결혼하였을 때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올 때 나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영세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라고 믿는다.





메이플우드 성당을 방문하고

이민, 가족, 신앙의 여정, 그리고 메이플우드 성당

구한솔 마리아

편집자주 : 이 글을 쓴 구한솔 마리아 자매는 미주한인천주교회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이다. 구한솔 자매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러 뉴저지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메이플우드 본당을 찾아 우리 본당의 역사와 역할을 연구했다. '성김대건 안드레아 뉴저지 성당'은 하느님의 작품임을 느꼈단다. 그 놀라움과 감격으로 이 글을 남겼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먼저 5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발자취를 회고하며 후세대에게도 그 소명과 신앙을 물려주고자, 뜻깊은 기념집을 발간하게 된 메이플우드 성당 공동체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8월,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학술연구 목적으로 뉴저지를 방문하게 되면서 맺어진 메이플우드 성당과의 인연은 저에게도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타 주에서 온 저를 한 식구처럼

환영해 주셨고 차세대의 신앙 여정에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수시로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 주시고, 도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제 연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던 형제님, 자매님 어르신들께, 그분들이 삶을 통해 만난 하느님을 향한 신앙 여정을 들으며 받은 벅찬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써 다시 한번 전달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12살에 부모님을 따라 오빠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밴쿠버에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밴쿠버 성 김대건 안드레아 한인 성당이 저의 본당이었는데 사춘기를 보내면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픽디자이너로서 시카고에서 4년, 프랑스 파리에서 2년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앙에 다시 눈을 뜨게 되어 대학 시절 때부터 시작된 12년이라는 오랜 냉담 끝에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8살에 집을 떠나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성당에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일 년에 한두 번 캐나다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대화가 종교, 성당, 하느님에 대한 주

제로 돌아갈 때마다 저는 늘 민감해지고 냉소적으로 되었습니다. 심지어 몇 번은 언성까지 높여가며 부정적이고 비난 섞인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신앙과 전혀 무관한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얻은 얇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세속적으로 깊게 물들어져 있던 저는 부모님과 오빠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예민하게 적대 반응을 보였고 멀리 떨어져 사는 저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미사에 나가라고 권유하시는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의 제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철없는 저를 인내로 받아주신 가족들과 하느님께 무한히 감사하기만 합니다.

파리에서 저는 유럽문화와 정서에 동경과 애정을 갖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늘 방황하며 불안정했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기치 못한 돌변 상황으로 인해 밴쿠버로 갑자기 돌아와야만 했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할 일 없는 백수가 되었습니다. 앞일이 불확실한 채로 막막한 신세에 직면하면서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비로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앞에 당황하고 불안에 휩싸여 있는 내게 하느님의 소리가 멀리서부터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밴쿠버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매일 할 일이 없이 배회하던 저에게 가족들의 피정 참여 권유가 있었습니다. 반 강제적으로 마지못해 참여하게 된 쇼이스 피정(19세 이상 청년들을 위한 3박 4일 피정)은 또 다른 삶의 반등과 같은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잊고 있었던 청소년 시절을 회고하며 흘렸던 감격과 눈물의 피정은 저를 크나큰 기쁨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도록 이끌었습니다. 피정 마지막 날 파견미사에 저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어머니, 아버지와 얼마 전 서품을 받고 부제님이 된 오빠는 불과 3일 만에 놀랍게 변화된 저의 모습을 보시며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하느님께서 는 불투명한 어둠 속에 헤매는 저에게 빛으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신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하느님을 알고 신앙을 갖게 되기를 얼마나 애타게 바라셨을까?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소중한 딸이 혼자서 방황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며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셨을까? 그렇게 오랜 시간 인내로 지켜만 보시다가 제가 신앙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때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대감, “혹시?” 하는 설렘..., 신앙을 다시 찾고 기쁨에 찬 생활을 하는 자식의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기특해 보이셨을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이런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힘겹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느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시

고, 당신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우주 대자연의 신비와 그 아름다움에 찬미와 흠숭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할 때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품 안으로 감싸주십니다. 저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항상 당신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시고, 저희 마음이 항상 하느님을 향해 있기를 바라시고, 어떠한 잘못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자비로 다시 우리를 당신 품 안으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며 형제자매입니다. 나약한 인간인 우리의 삶은 오해, 갈등, 시기, 다툼으로 상처투성이지만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느님께 용서를 청원하고, 또 성사와 전례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과 한 몸으로 결합합니다. ‘사람이란 한낱 숨결과도 같은 것’(시편 144,4)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체를 통해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매주 일요일 전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며, 세례를 통해 하나가 된 이웃,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써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는 우리는 모두 한 식구입니다.

사실 이 신앙의 진리를 가장 근접하게 경험하는 것이 이민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나라에서 경제 문화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고통을 나누고, 아끼없는 희생 속에 이웃 간의 어려움을 돕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삶 안에서 저는 우리가 신앙으로서 이해하는 공동체적인 형제애가 실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본토와 떨어져서 소수민족으로서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므로 같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이웃사랑과 형제애를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저지에 방문해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지난 10주년, 25주년에 출판된 기념 책자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만나 뵈었던 신자분들 이민의 삶 속에 공통으로 담겨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이웃 간에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신자분의 기억 속에는 이민자로서 겪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발견하고 또 이웃과 형제애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진한 향수처럼 담겨 있었습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헤쳐 나온 수 많은 어려움들, 이들의 삶을 바탕으로 다져진 이민자들의 문화와 정체성들을 후세들에게 계승하고, 후세들이 한국계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미국인으로서 지역사회에 흡수되어 신앙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의 교회를 감성적인 향수로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공감하는 한국인의 정, 형제애를 한인 후세들에게 계승하고 더 나아가 미국 사회에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Fratelli Tutti* [한:모든 형제들]에서 교황님은 이민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네 가지, 즉 ‘환영’, ‘보호’, ‘육성’, ‘통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Fratelli Tutti*, 129) 교황님의 이민자

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은 바로 삶 안에서 이민자들이 직접 경험하는 깊은 형제애를 바탕으로 삼습니다. 이 형제애는 단순한 유토피아의 이상이 아닌 성사로서 이루어지는 소명입니다. 형제애는 우리가 성체를 통해, 전례를 통해 하느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신자로서 주어진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 2022년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에 방문하여 이경 신부님과 기념 촬영.

우리 이민교회는 이민이라는 특유한 경험을 통해 보통 사람들이 지니지 않는 삶에 대한 지혜와 저항력, 이웃에 대한 포용력, 또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도전 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고통과 수난을 통해 얻은 이 소중한 인생 경험을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또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이민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의 연장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 공동체의 고유한 성격을 살려야 하고 한인으로서 물려받은 한국 역사와 한인만의 특유한 정신을 이어 나가며 이민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 고유한 무엇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 뉴저지를 방문하면서 만났던 어르신들과 신앙인이면서 이민자로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께 저는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고 한인 이민자의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처럼 저에게 하느님 사랑, 신앙의 빛을 보여주신 메이플우드 공동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회 창설 50주년 기념을 축하드리며 교회의 발전과 후세들의 동지가 되는 곳, 그리하여 하느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필자 구한솔씨가 쓴 학술 논문 “로스앤젤러스와 뉴저지의 한국 교회 공동체”
Korean Parishes in Los Angeles and New Jersey”
<https://crossworks.holycross.edu/jgc/vol7/iss2/4>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들

김기송 베드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만남이 세 번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세 번째가 영원한 동반자이신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재능을 내 이웃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당연히 지켜야 할 사명으로, 우리 신자 각자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자신도 살고 나의 공동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수도원 등지에서 미약한 재능이나마 시간이 허용하는 한 봉사하면서 느낀 것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함으로써 나 자신이 더욱 행복해지고 기쁜 삶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느님과의 만남을 실제 체험한 것은 1988년 9월 2일 일요일, 뉴저지 오렌지에 위치한 성 안드레아 김대건 성당에서 아일린 조지 여사의 치유 예절 중이었습니다. 그 때 나는 최근에 큰 재해가 일어난 지진 해일의 진앙지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끝내고 귀국길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와 보니 이곳에 정착하고 싶었지만, 당장 생활 자체가 어려웠고 비자 기간도 임박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일린 조지 여사의 치유 예절 소식을 듣고 길을 물어 찾아간 곳이 바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였습니다.

미사가 끝나자 바로 치유 예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병자를 위한 치유 예절로 20여명 정도 치유를 받은 후였습니다. 갑자기 아일린 조지 여사가 앞쪽에 앉아 있는 나에게 눈길을 돌리시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의 두 눈으로부터 하느님과의 만남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3, 4초간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느님의 메시지가 그분을 통해 나의 뇌리를 휩쓸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나는 너를 위해 곧 치유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일린 조지 여사는 다시 자세를 전 신자를 향해 정면으로 돌리더니 다음과 같

이 치유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남자 한 분이 가족과 함께 앉아 있는데, 미국 체류를 위한 서류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자세를 나에게로 향하시더니 오른팔을 들어 나를 가리키는 순간 많은 신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나 그분께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의 치유과정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치유 말씀 그대로 짧은 시일 내에 직장 문제, 영주권 취득, 경제난 등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될 때 이번에는 주님께서 또 무슨 더 좋은 일을 내게 주시려나 하고 지나다 보면 분명 적절한 시기에 예기치 않은 좋은 일을 안겨 주시곤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며,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순간순간 기쁨과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새들은 강풍이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민청미 데레사



우리 본당이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50년 가까이 우리 본당과 함께해 온 세월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과 명상 속에서 예수님께 수없이 여쭙어봅니다. 어느덧 60년을 바라보는 미국 생활을 나는 잘 살았냐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삶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 소리 없이 울리는 음성 하나 ‘소화 데레사’ 바로 제 본명입니다.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저이지만 이름대로 살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1960년대 초 서울에서 미국 유학 수속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공과 대학생 민태방 씨와 저는 운명의 연으로 맺어져 미국에 와서도 계속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둘은 미국 신부님의 혼배성사로 Salt Lake City 유니버시티 뉴만 홀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우리 두 사람이 가진 돈은 8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국비로 유학 온 학생들은 공부를 못해서 낙오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못 이겨 정신병자가 된 학생도 있었지요. 저의 남편 친구 한 분은 한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가 되어 운전하다 남의 차를 들이박고 경찰서에 붙들려 간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엔 유학생 가운데 차 있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으므로 여러 명이 저희 차로 운전면허를 따러 타주에 갔고, 갈 때는 면허증이 한 사람밖에 없다가 올 때는 다섯 명이 면허증을 따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온 군 장교와 대학 교수 등 나이 많은 사람들이 20대 청년들 틈에 끼어 같이 공부했는데 이분들은 쉬는 날이면 바람을 잡아 젊은 학생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는 호수가 있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용케도 호수에서

송어를 잡아서 즉석요리를 해 주기도 했지요. 여자들은 지천으로 널려있는 고사리를 캐다가 처음으로 비빔밥을 해 먹기도 하고요.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그분들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고위 관리나 카이스트 연구원, 국방 연구원, 재벌 등 나라의 재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남편은 방학 때에는 레이크 타호 카지노에서 3개월씩 투잡(two jobs)을 뛰며 열심히 공부했고 저도 귀고리 만드는 회사에 공원으로 취직해서 주급 45달러를 받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의 남편은 마침내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사학위증을 들고 뉴저지 럿거스 대학으로 향하는 저희의 가슴은 개신장군이라도 된 듯이 가벼웠고 장래의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뉴저지에 와서 맨 먼저 찾아간 성당이 몽클레어 성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성당과 함께하는 반백 년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지요. 당시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던 한국 정부는 해외에 나가 있는 학자들을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닥터 민에 관한 소식이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알려져서 한국 정부 기관 사람들이 여러 번 집에 찾아와서 귀국을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집과 차를 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다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끝내 뿌리치고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Dr. Min은 아메리칸 싸이나마이드 수석연구원으로 논문을 발표하며 유명해졌고, 한인들이 ‘게브랄티’라고 부르는 종합비타민제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이 붙지 않는 유아용품도 개발하는 등 연구원으로서 국내외에 명성을 쌓아 갔습니다.

저에게도 우연한 계기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하며 한때는 신문에 날 정도로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 측에 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잘 나가던 비즈니스를 정상에서 접고 갈멜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저로서는 내리기 힘든 결단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것은 분명 성령의 부르심이자 은총이었다고 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놓은 후 급작스러운 생활의 변화로 한때 어려웠지만, 심안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자 태풍이 몰아쳐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닥터 민이 먼저 돌아가신 후 채울 길 없는 빈자리가 행하니 남겨졌습디만, 다행히 닥터 민을 닮은 아들 존과 딸 케티가 유능한 전문인으로 올곧게 장성해 주어 그 빈 자리를 채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50주년을 맞은 우리 한인 성당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가난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지니 Dr. Min을 먼저 떠나 보내고, 내가 뒷수습을 하게 된 것이 오히려 천행으로 느껴집니다.

오뚜기 같은 삶을 살아온 나에게 언제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하느님을 볼 줄 아는 심안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통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게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도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고, 회개하며 맑고 청정하게 살다 오라는 주님의 뜻으로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닥 미련이 남았다면 3살 때 잃어버린 딸을 아빠와 함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 작은 소망도 욕심일까요? 세상을 살아 보니 이만큼 나이를 먹고도 살아온 날만큼이나 후회되는 일들도 머릿속에서 맴도니 얼마나 더 살아야 당신 앞에 뗏목이 설 수 있을까요?

받은 은총 모두 다시 주님께 봉헌

박인현 금구요한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집에 신게 될 글을 지영덕 회장님으로부터 부탁받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이며 주저하였는데 오히려 그동안 지나온 나의 신앙 여정을 돌아다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40년 전의 일이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첫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고상이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올라왔던 것은 감사함이었지만 가슴 떨리는 두려움이 더 컸던 것 같다. 마치 이번에도 나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주님을 외면하면 안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다. 곧바로 교회의 문턱을 넘어 예비자로서 1982년에 교리공부를 하게 되고 1983년에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함께 받고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 본당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 당시 본당신부님이셨던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께서는 많은 손님 신부님들을 초대하시고, 방문하시는 신부님들을 본당에 머물게 하시어 신자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영적 지식과 그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교회는 이중 문화권 안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지친 이민 생활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신부님들의 말씀은 영적 자양분이 되어 각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고 본당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 당시 많은 단체가 조직되면서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각 단체장님께서 본당의 주인의식을 갖고 받은 은총을 다시 주님께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신념과 긍지를 갖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이 오늘날 우리 본당의 단단한 뿌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신자로서 평범하게 주일미사에만 참례하던 중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례부의 독서직에 초대되어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주어졌다. 오랜 시간 동안 교육과 피정을 통하여 그 역할을 체험하고 ‘미사성제’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깊게 느끼며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투신하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본당 전례부에서의 봉사는 삶을 지탱하는 원천이 되었고 투신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주신 Gift(선물)임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 선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공동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미사 전례 안에서의 생생한 기억이 있다. 결혼기념일 아침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 에스터와 동네에 있는 미국 성당의 미사에 참례하게 되었다. 주례 사제 혼자 집전하시는데 본 기도 후 누구 독서할 사람 없느냐고 물어보시자 나를 비롯하여 모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일어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무런 두려움과 망설임, 떨림이 없이... 그것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더욱더 나 자신을 놀라게 한 것은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를 노래로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것이다. 그것도 마치 Cantor가 된 것처럼 주저 없이 신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알렐루야를 함께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가? 마치 내 주위에 천사가 둘러싸여 도와주는 것 같았다.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닌... 어디서 그런 용기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지? 온몸에서 잔잔하게 올라오는 전율과 충만함은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날 일어난 사건의 순간순간을 돌이켜 회상해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나?

이후, 그날 사건을 통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많은 복음 말씀들이 내 머리를 스쳐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러한 순간을 무심코 지나쳤을까! 하느님이 늘 부르시고 함께하시는데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온 나를 성찰하며, “늘 깨어 기도하여라(루카 21,36)”는 말씀으로 다가왔다. 일상 삶의 여정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참 기쁨인가!

자비의 희년이 선포되는 2016년에 본당의 평협회장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구역원 간의 정서적 친밀을 통해 구역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었고 구역회를 중심으로 본

당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함께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기도 안에서 성찰하고자 했던 초심이, 많은 일과 행사 준비를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바쁘게 일 중심으로 해왔던 것은 아니었는가(?) 더듬어 생각해 본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지금까지 나의 40년 신앙을 회상하면서 성찰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When I stand before God at the end of my life, I would hope that I would not have a SINGLE bit of talent left and I would say I used everything You gave me”.

본당 공동체 안에서 지내온 시간을 회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주님께서 지난 50년을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50년도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리라 굳게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본다. 임마누엘 하느님….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성경필사에서 평화를 찾으며

박재규 즈가리야



저는 당뇨합병증으로 오랫동안 다리와 발가락 부위에 날카로운 칼을 꽂아 놓은 것처럼 극심한 통증으로 독한 처방약을 복용하여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절단’이라는 진단을 내릴 때 불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현실에 많은 고민을 하고 울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장 결정하면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다른 부위까지 더 나빠지지 않는다 하여 절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나쁜 생활 습관으로 내 몸을 헌신짝 처럼 방치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 증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때늦은 후회만 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도 하지 못하고 평생 불구로 지내며 겪게 될 모든 생활의 부자연스러움과 좌절감, 우울증 때문에 심적 스트레스에 휩싸이게 되더군요. 저에게 왜 이런 시련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주님께 불평불만도 많이 하며 불구가 된 절망감과 슬픔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좌절감으로 낙심하며 살지 말고 성서 필사를 하면 마음에 평화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권유로 시작하게 되어 하루 두세 시간씩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필사 중에는 아무 잡념도 생각나지 않고 많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치유가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필사와 묵상을 하다 보니 주님이 겪으셨을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생과 봉사는 나의 슬픔과 아픔은 비교도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서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우분들, 신부님, 수녀님들의 병문안과 기도, 생미사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위안과 사랑을 주었는지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사랑하는 가족과 특히 깊은 사랑으로 항상 마음의 위안을 주면서 헌신적인 희생을 오랫동안 변함없이 하고 있는 저의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렌지에서 메이플우드로 이사 온 우리 본당에 나온 지도 40년이 가까워지는군요. 한인 성당이 없는 지방에 있다가 우리 본당에 와서 한인 신부님의 강론에 눈시울을 붉힌 지가 엿그제 같은데 세월이 빨리도 흘러 저도 70이 넘었군요. 본당 50주년을 축하드리며 본당을 위하여 주님과 성모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대로 명심하여라. 그분께 희망을 두는 이는 아무도 약해지지 않는다. (1마카 2,61)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시편 71,5)



이 뒷날 임이 보시고 임 닦았다 하소서

송의용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그림 : 박순철 <부전자전>, 1999

무슨 책을 읽다가 한 그림을 보고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 흔한 말로 배꼽이 빠졌을 것이다. 아무리 부전자전(父傳子傳)이기로서니 이렇게 닦을 수가 있을까? 한여름 낮잠 자는 자태가 비스듬한 어깨며 다리를 포갠 것까지, 그야말로 ‘카피’, ‘국화빵’이다. 이 그림의 극치는 다만 손이 아빠는 위를, 아들은 아래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마치 라파엘의 그림 ‘아테네 학당’ 속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손 방향과 같다.

웃음이 터진 이유는 그림 속의 아들이 꼭 우리집 막내 같았기 때문이다. 막내 늦둥이를 낳아 이 놈을 안고 성당엘 가면 교우들이 “너는 왜 네 사진액자를 안고 다니냐”고 부러워하던 그 ‘샘 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내 막내는 정말 아빠를 쏙 빼 닮았다. 생김새는 물론 발에 열이 많아 아무데서나 양말을 벗어야 하는 그 못된 버릇이나 성질머리까지….

사람이 사람을 닮는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나, 후천적인 노력으로 가능할 것이다.

‘닮음’을 생각하며 이 그림을 보노라니 박정희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님의 일화가 떠오른다. 전라북도 전주에 ‘전주 콩나물국밥집’이 있다. 뚝배기에 밥과 콩나물을 넣고 갖은 양념을 곁들여 새우젓으로 간을 맞춘 담백하고 시원한 맛은 성가가 높다. 그러나 이 집이 유명한 것은 음식 맛과 함께 주인 할머니의 시원스런 ‘욕’ 또한 일품이기 때문이다. 그 욕쟁이 할머니가 개발하여 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전주 콩나물국밥집은 예나 지금이나 애주가들이 즐겨 찾는 전주의 명물이다.

‘욕쟁이 할머니집’으로 더 유명한 이 밥집에 얹힌 박정희 대통령의 일화는 아직까지도 세인의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1970년대 지방 시찰 차 전주에 머물렀던 저녁에 대통령은 술을 마셨다. 다음날 아침 수행원이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 가서 콩나물국밥을 배달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욕쟁이 할머니는 “와서 처먹든지 말든지 해!” 소리를 질렀단다. 수행원은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대통령에게 알렸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대통령은 껄껄 웃으며 손수 국밥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생각지 못한 욕쟁이 할머니는 평소대로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어, 이 놈 봐라. 니놈은 어쩌든 박정희를 그리도 닮았나. 누가 보면 영락없이 박정희로 알겠다. 이놈아. 그런 의미에서 이 계란 하나 더 처먹어라.” 인정 많은 욕쟁이 할머니와 서민풍이 물씬한 대통령의 거짓말같은 이 실화는 지금까지도 전주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인터넷에서 퍼온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서는 등산을 즐기셨다. 등산을 하다보면 이내 많은 사람들이 추기경님을 알아보고 합류하기 때문에 큰 ‘군단’이 되곤 했다. 그것을 피하고자 추기경님께서서는 구겨진 면바지에 점퍼 하나 걸치고 소탈하고 편한 복장 속에 당신을 감추고 몇몇 신부님들과 함께 산에 오르곤 하셨다. 하루는 산을 내려오는 중 올라오는 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추기경은 얼른 등산모를 푹 눌러썼다. “가만, 추기경님 아니신가요?” 추기경님은 짐짓 시치미를 떼며, “실은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고 했다. “그러세요? 너무 닮으셨네요” 할머니는 연신 뒤를 되돌아보며 산을 올라갔다.

[고수유 지음 김수환 추기경의 62가지 인생이야기-‘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에서 발췌]



그러나 뭐라뭐라 해도 누가 누구를 닮는다는 것의 극치는 하한주 신부님의 시 ‘임이 쓰신 가시관’이다.

임은 전 생애가 너무 슬펐기에
 임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리라
 임은 전 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임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리라
 이 뒷날 임이 보시고 날 닮았다 하소서
 이 뒷날 임이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나도, 뒷날 임이 보실 때 “날 닮았다” 해 주시길 바라며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고 싶다. “이 뒷날 임이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가 내 신앙의 주제가이다.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뒷날 임과 일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 늦둥이 이놈도 그림에서 처럼 아빠를 닮지 말고 임을 닮는 삶을 산다면, 임과 나와 아들은 삼위일체를 이룰 것이다. 임이 보시기에 참 좋은 ‘아름다움’일 것이다. 내 하루하루를 그 아름다움을 만들며 살고 싶다.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당신만 따르리라
 이 뒷날 임이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삶의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이종원 글라라



유학하러 오는 남편을 따라 1980년에 뉴욕에 도착했다. 남편의 대학 동창이며 가장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Jersey City Duncan Ave.에 있는 원 베드룸짜리 아파트를 얻게 된 것이 New Jersey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파트는 온종일 해가 들지 않아서 아들 둘이 다 몸에 곰팡이가 피어서 파란 색깔의 약을 발라준 기억이 아프게 남아있다.

한국어 미사를 드리려고 Montclair에 있는 성당에 두 번 갔었다. 하지만 음악이 전공이었던 남편은 친구의 권유로 Fort Lee의 개신교에서 성가대를 지휘하게 됨으로써 집안에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개신교에서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좋지만 개신교에 가야 한다는 게 내게는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 매주 일요일 같이 가기를 원하는 남편을 따라 개신교회까지 따라가기는 했으나 교회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애들과 함께 뜰에 앉아서 기다렸다. 한 번은 목사님 부부와 신도 몇 분이 심방차 저희 아파트에 오셨다. 개신교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나는 방문 오신 분들에게 “저는 절대로 개신교에 안 나갑니다.”라고 선언(?)했다. 너무 당돌하게 강력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도 약간은 죄송하다. 아마 그때 목사님은 내가 개신교 신자가 되는 것은 포기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계속 개신교에 가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플러싱에 살고 계신 외삼촌에게 의논하였고 외삼촌은 이곳저곳 한인 성당으로 연락하셨다. 박 어거스틴 신부님께도 전화를 했는데 “개신교에서 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이라면 나도 해줄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하셨다. 외삼촌의 전화 한 통에 저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던 분이시다. 참 놀라운 분이시다. 참고로 우리 집은 부모님 모두 대대로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으로 친척 모두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은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개신교회에



나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때가 자체 성당을 구입하여 Montclair에서 Orange의 Cleveland St.로 막 이사했을 때였다. 신부님의 도움으로 개신교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다. 오렌지 성당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미사 준비와 성당의 사무장 일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 아침에 출근하려면 문 앞에서 매달리는 애들에게 늘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는 살림만 하고 싶었지만, 주변의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성당 사무장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만 해도 수동식 타자기를 쳐서 주보를 만들었다.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타자기를 배워가며 더듬거리며 타이핑하니 느렸고 실수도 잦았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감싸주신 신부님의 넓은 아량이 다시 생각난다. 신부님께서는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무심한 듯하셔서 오해도 받으시지만 섬세하시다. 본인의 일은 완전하게 하려고 하시나 타인의 실수에는 너그러우시다. 그리고 따지지 않으신다. 일부러 권위를 세우지 않으시나 가까이만 가도 어렵다. 하느님에게서 온 권위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마음을 터놓으실 때는 농담을 잘하신다. 넓고 깊은 마음이시고, ‘왜?’라고 따지지 않으시니 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Cleveland St.의 성당에 손님 신부님들이 많이 오셔서 사제관에 머무르셨으며 Central Ave.의 성당으로 이사 온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오시는 분들을 잘 대접하시는 마음이 넓으시고 깊이 있으신 신부님 덕분에 많은 신부님을 대할 기회가 있었고 그분들을 지켜보면서 사무실 일을 할 수 있어 영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달리 여러 피정에 참석할 기회가 많아져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며 지속될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신부님들을 대하며 지내던 가운데, 내 생의 최종의 목표를 정하고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Cleveland St.의 성당 옆 건물인 선교회관에 사무실이 있었을 때였다. 손님신부 최봉도 신부님께서 오셔서 “뭐 들을 만한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그 당시 김영희 카타리나 자매님께서 피정을 해 주신 무렵이라 열심히 듣고 있던 그분의 테이프 몇 개를 드렸더니, 다음 날 테이프를 돌려주시면서 한국에 가시면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 ‘천상의 책’ 36권 중 번역된 20권의 첫 5권을 이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삶’을 소개하는 책이었다. 내용이 너무 좋아 읽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으나, 집안일과 사무실 일을 하느라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간절한 아쉬움만 품고 있었다.

책을 받은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 직장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지는 못하였으나 조금씩 책들을 읽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수난의 시간, 동정 마리아, 영적 순례, 천상의 책 등 더욱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삶의 영성에 빠져들게 되었다. 자연스레 ‘하느님 뜻 안의 삶’을 내 생의 마지막 목표로 가지게 된 것이다. 그 당시 내 마음은 다음 성서 구절과 같았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사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마태 13.45,46)

그러던 중 대녀들의 소개로 이범주 신부님의 온라인 ‘불모임 성화학교’에 2021년 4월 가입하였고 지난 9월 말로 1단계 과정을 수료하였다. 1단계는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 변화, 성경 완독, 가톨릭교회 교리서, 내세에 대한 확신, 순교자들의 신앙 알기,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알기, 교회사 알기, 선교에 관한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보는 것이다. 모두 12단계까지 있으니 12년이 걸린다. 하느님 뜻 안에 사는 삶으로 가는 것이 ‘불모임 성화학교’의 목표이다.

그 목표를 향하여 하느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열심히 하려 한다. 하루에 몇 시간을 내야 하므로 하느님 사무실의 part time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이 시간이 너무 기쁘고 보람 있다. 지금의 내 목표는 full time으로 가는 것이다. 아니, 시간의 십일조(1/10)보다 더 많은 십구조(9/10)를 바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이다. 시간 뿐만 아니라 수입의 십구조(9/10)를 바치는 것 또한 간절한 바람이며 목표이다.

또 하나의 바램은 다음 성서 구절이다.

“야훼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도 기뻐다.” (시편 122,1)

‘몹시도’를 목표로 정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목표를 향해 가는 중이다.



바로 사도의 다음 성서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필리피 3.12,14)

다음의 기도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하느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느님만이 모든 것이옵나이다.

하느님, 당신의 흠숭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의 사랑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의 감사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의 찬미와 찬양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의 영광과 영예를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의 위로와 위안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의 보속과 보상과 배상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의 축복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느님을 아세요?”

이태성 미카엘

“하느님을 아세요?” 나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내 글라라가 내게 건넨 첫 대화이자 질문이었다.

군대에 갔다가 6개월 만에 의병제대를 하고 다시 KBS 교향악단에 복직하고 보니 우선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어머니 같은 누님 집 옆에 살 집을 구했다. 끼니때마다 누님에게 신세를 졌는데 누님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박종원이라는 선생이 학교에서 예쁘고 인기가 있다는 말을 종종 했다. 그 학교 교장이나 동료 교사들이 며느리로 삼거나 동생을 소개하려고 욕심들을 낸다면 동생인 나와 관련지어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았다.

4월 중순 봄별이 따스하게 비치는 어느 일요일이었다. 나는 누님 집에서 아침을 먹고 여성잡지가 눈에 띄길래 사진 구경 겸 잡지를 뒤적이고 있는데 누님이 언젠가 몇 번 말한 그 여선생님이 집에 들른 것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 동생이 미사 후 성당에서 만나 누님 집에 놀러 간다고 했더니 인사를 하러 따라온 것이었다. 누님 가족은 가까운 독점 유원지로 운동 겸 배드민턴을 치러 갈 계획이었는데, 잘 왔다면서 같이 가자고 하니 선뜻 응해서 같이 가게 되었다. 나는 매형과 동생과 배드민턴을 치면서 강쪽을 보니 한강에서 뱃놀이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박 선생에게 보트를 타겠느냐고 물었더니, 의외로 스스럼없이 응해 주었다. 나는 기분이 좋아서 보트를 빌려서 노를 젓고 그녀는 내 앞에 앉았다

서로 처음 만난 처지라 할 말도 없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어야 할 것 같아서 “음악 좋아하세요?” 하고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아니요”였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대개는 “좋아하는 하는데 잘 알지 못해요” 라던가 남자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네 아주 좋아해요.”라고 대답하는데 뜻밖이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박 선생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하느님을 아세요?”였다. 첫 만남에서 한 첫 질문이 너무 생뚱맞고 놀라웠다. “나는 하느님을 모르지만, 관심은 있다”고 하였다. 그날 상쾌한 날씨와 더불어 한 시간 이상 즐겁게 보트를 즐기고 헤어졌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참으로 예정에 없던 기분 좋은 하루였다. 누나가 이야기 한 대로 인상도 좋거니와 별

말도 없으며 생글생글 웃기만 하다가 겨우 한 말이 “하느님을 아세요”가 전부였다. 그 이후 나는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하여 온갖 구실을 찾아 만나게 되었다. 한 번은 그녀가 집안 어른들이 원하는 다른 사람을 만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지막지하게 막아서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중에 들으니 그러한 내 박력에 끌려 나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해 좌중을 웃게 하였다.

1972년 봄에 만나서 6개월 사귀는 동안 혼배성사를 위해 예수회 소속 진성만 신부님에게 개인적으로 교리 교육을 받고 그해 10월 명동성당에서 혼배성사를 하였다. 글라라와의 결혼으로 평생 하느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는데 우리 성당 창립 50주년과 우연의 일치로 올해가 우리의 결혼 50년이 되는 금혼의 해이기도 하다.

글라라는 5남매의 장녀로 임오군란 이후 대대로 가톨릭 신앙을 간직해 온 집안에서 자랐으며 친척 중에 신부님, 수녀님도 여러 분이 계시는 전통적인 가톨릭 집안이었다. 반대로 우리 집안은 종교가 없는 집안이었으며 나는 8남매 중 다섯째였다. 글라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영세를 한 내가 우리 집안의 첫 번째 가톨릭 신자였다. 우리 집안에 시집온 이후 글라라의 입에서 한 번도 성당에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집은 서서히 가톨릭화 되어갔다. 제일 먼저 우리 아버



지는 요한으로 어머니는 세실리아라는 영세명으로 세례를 받으시게 되었고 돌아가실 때도 종부성사를 받으시고, 하늘 나라에 가셨다. 그다음 큰누님 내외분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후 동생, 작은 누님, 마지막으로 큰형님 내외분도 세례를 받으셨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8남매 중 6남매가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평생토록 한이 되는 조카가 하나 있었다.

6.25 전쟁 중에 부자라는 이유로 부모가 학살당해서 고아가 되었는데, 게다가 가는 귀가 먹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천덕꾸러기였다. 우리 집에 맡겨져서 얹혀살게 된 그 친정 조카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평생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사셨다. 그 조카가 나이가 들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을 애타하시는 어머니의 속 사정을 눈치챈 글라라는 수녀님이 운영하는 “사랑의 집”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주선했다. 결국 그곳에 맡겨져 평화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말없이 애써 평생의 한을 해결해 준 며느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았다.



는 것이다. 나로서는 이해하기는 커녕 어이가 없었다.

결혼하고 보니 글라라의 생각과 행동은 보통 사람인 나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게 한 둘이 아니었다. 글라라가 두 아들의 엄마가 되고 우리 생활도 안정되었다고 생각해서 학교 교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거의 10년이 되는 교사 퇴직금은 큰돈이었다. 글라라가 ‘그 퇴직금은 자기가 만질 수 있는 마지막 큰 돈’이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100% 동의 하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상관하지 않았다. 그 얼마 후에 알고보니 퇴직금의 1/3은 시집에, 1/3은 친정에, 1/3은 성당에 봉헌했을 뿐이 아니고 글라라가 가지고 있던 결혼 반지를 포함한 모든 패물을 성당 “애궁함”에 넣었다

미국으로 유학길을 떠나왔던 1980년, 당시 한국의 사정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광주 민주화운동 등 암담한 사회나 정치 현실이 나를 혼란하게 하였다. 그래서 연주 생활을 그만두고 대학교수가 되려는 마음으로 가족 모두를 데리고 미국에 왔다. 마침 개신교에서 이민 비자를 내어주는 조건으로 성가대 지휘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글라라는 개신교에 가기를 거부하고, 집으로 방문하러 온 목사님에게 “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개신교에는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서 나를 참 난처하게 하였다. 그런 사정을 안 글라라 외삼촌이 박 신부님을 소개 해주었고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개신교 성가대 지휘를 그만두고 오렌지 성당으로 나가게 되어 지금까지 메이플우드 성당의 오랜 신자가 되었다.

그런 연유로 글라라가 오렌지 성당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그 인연은 문시놀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어졌다. 사무장으로, 전례 준비 도우미로, 손님신부님 기사로…. 그러다가 문시놀의 개인 비서 겸 식복사로, 마지막에는 간병인으로 30여 년을 하루같이 교회 주변에서 살았다. 나는 글라라의 이런 정성이 참 못마땅했다. 글라라의 세계 속에 하느님을 빼고는 아무도 없는 듯싶고 남편으로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배려를 빼앗긴 듯싶어 서운하고 속이 상했다. 글라라에 대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문시놀의 칭찬도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시선으로만 느껴졌다. 또 내게 큰 불만은 내가 아침에 잠에서 깨



≡ 35년간 보좌한 박 문시놀과 글쓴이의 아내 이 글라라

어나 보면 글라라는 이미 미사 간 후였다는 점이였다. 내가 필요할 때 글라라가 집에 없는 게 참으로 짜증스럽고 불편해서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다. 글라라는 운전을 못하는 할머니를 꼭 모시고 다니면서 하루라도 아침 미사를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았다. 한번은 서울에서 오신 부모님을 모시고 나이가가라 폭포에 가는 길에 어느 산속에서 모텔을 찾아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글라라가 보이지 않아 온 가족이 걱정하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얼마 후에 나타났다. 알고 보니 모텔 주인에게 물어서 그날도 산골 동네 성당으로 새벽 미사를 다녀

왔다고 했다.

60대에 들어서면서 단체 여행이 아닌 개인 자유 여행으로 매년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별로 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글라라가 억지로 따라와서는 자기는 성당에 앉아 있을 테니 나보고 혼자 보고 싶은 데가 있으면 다녀오라고 하니 참으로 재미없는 여행이 되기가 일쑤였다. 글라라는 결혼생활보다는 수녀님이 되어 수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살았다. 하느님에 대한 글라라의 사랑은 평생 지속되었으며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이런 연유로 나는 하느님을 향한 삶으로 인해 글라라를 빼앗긴 듯싶어 성에 안 차고 속이 상했다. 글라라에게 사랑의 ¾을 하느님, 성당, 신부님께 뺏기고 ¼ 정도만 가족에게 할애한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하느님을 아세요?”라는 글라라의 질문이 내포하는 깊은 뜻을 내가 알아들었더라면 이런 글라라의 삶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텐데, 나는 그럴만한 이해도 믿음도 없었다.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무엇인가 상상하기 어려운 철학이었을 뿐이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그 질문의 의미를 알기까지에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코로나가 시작할 무렵 나는 전립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오진으로 방광암이라고 해서 크나큰 절망을 갖게 되었는데 병원을 옮겨 자세한 진단 결과 전립선암으로 판단되어 한 걱정을 덜면서 뉴욕대학병원에서 치료받게 되었다. 내가 암을 진단받은 일로 평생을 불평불만으로 살아온 내 신앙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2년 동안 맨해튼에 있는 뉴욕대학병원에 갈 때마다 글라라가 정성스럽게 동행을 해 주었다. 암에 걸려 치료받는 동안 글라라에게서 받은 많은 위로와 위안

은 내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열심히 동행하며 나의 고통을 함께 저주는 글라라를 보면서 글라라의 마음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나는 반감과 불평 대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내가 병을 얻은 것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힘든 치료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드디어 이번 달로 이제 모든 약을 끊고 치료를 끝내게 되었다. 참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2월 초 글라라는 여느 주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당 8시 미사 전례를 안내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우들이 고개를 가우뚱할 정도로 말이 어눌하고 이상하게 말이 연결되지 않는 것이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교우 의사들에게 연락했고 그들의 조언대로 다음 날 St. Barnabas 병원 응급실로 가서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신장암이 뇌와 폐에 전이되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는 하늘이 까맣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다리에 힘이 빠져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다. 다음다음 날 뇌수술에 들어갔고 방사선치료를 하게 되었다. 뇌수술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신장암 치료에 들어갔다. 나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글라라는 주님께서 주신 병이 행복하고 영광스럽다고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나에게 위로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걱정된다”면서 내 걱정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어떻게든 치료해서 살려야 한다는 일념이 생기면서 내 생전 누구에게 부탁해 본 적 없는 기도를 모든 분께 간절하게 부탁드렸다. 기도는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많은 교우가 기도해 주셨다. 그리고 글라라를 아끼고 좋아하는 주위 분들이 몇 달이 지난 요즘에도 음식을 만들어 주고 염려하고 기도해 주고 있음을 보면서, 평생 남을 배려하고 살아온 글라라의 삶이 참으로 잘 살아온 삶이구나 느끼게 되었다. 글라라는 지금 병중에도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체조배를 하고 하느님의 영성을 공부하고 있다.

우리 부부에게 내려준 암 선고는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 주었기에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고 확신한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임을 알게 해 주었고 주위 모든 분의 관심과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질병과 죽음까지도 감사함으로 승화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

이 새로운 깨달음을 간직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오묘하신 그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느님

조종완 카타리나



우선 2022년 저희 메이플우드 성당의 5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성당의 초대 본당신부님이셨고, 미 동부 지역 여러 곳에 한인 성당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을 생각하게 됩니다. 1970년도 초기부터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시며, 저희가 ‘50주년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께 깊이깊이 감사드리우고, 하늘나라에서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 줄 믿으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하느님 곁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시우고, 평화롭고, 행복하세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옛날 어른들의 말씀을 실감하면서 언제 내 나이가 벌써 80세가 되었지? 내 마음은 아직도 이팔청춘 같은데... 참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하면서, 8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1966년 남편 어거스틴씨와 결혼한 후 5년 후인 1971년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나도 모르게 미국에 직장까지 결정해 놓고, 이민하러 올 것을 나에게 통보했을 때 황당하고 당황했던 순간... 김포공항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이별했던 그날 이후의 기억들...

벌써 50년을 미국 시민으로 살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수없이 더 많다고 생각하며 고통을 이겨내는 능력을 키워왔고, 1979년 남편이 다니던 화학 계통의 직장에서 3도 화상의 사고를 당하여, 생사를 넘나들었고 의사들도 살리기 힘들다고 하여, 나 홀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이국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매일 눈물을 흘리며 고심하며 살아가던 저에게 기적적으로 남편을 살려주신 오묘하신 하느님! 그분이 아니었으면 과연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후 1988년 4월. 제가 먼저 하느님의 부르심에 세례를 받게 되었고 2년 후인 1990년 4월에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부부가 함께 견진성사를 받은 후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화상 후 회복 기간이 길었기에 저는 그동안 생계를 위하여, 많은 힘든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몸을 돌보지 않고 혹사했던 탓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지금도 힘들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나의 아버지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그분께서 나의 아픔에 함께하시며, 위로해 주고 계심을 확신하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분께 의지하며 나의 아픔에 함께하시며 끝까지 내 곁에 함께 계실 나의 아버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에서 말하여라. 너희가 껌속말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여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마태오 10,26~27,32)



자비의 희년 피정과 '자비의 문' 순례

거룩한 문을 지나 자비의 얼굴 만나다

편집 위원회



≡ 한인 천주교회 메이플우드 본당 신자들이 뉴악대교구 주교좌 성당 '자비의 문' 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2016년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희년(禧年)'이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는 평신도 사도회 주관으로 200여 명의 신자가 참가한 가운데 2월 21일(주일) 오후 1시부터 '자비의 얼굴' 피정과 뉴악대교구 주교좌 성당(Cathedral Basilica of the Sacred Heart)을 순례하였다. 활짝 열려 있는 '거룩한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와 묵상을 하며, '하느님 자비의 얼굴'을 직면하려는 시간을 가졌다.

김 미셀 수녀님은 강의를 통해 '자비는 하느님이 거저 베푸는 은총과 도움'이라고 정의하며, "하느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한 것과 같이 현재도 우리들 삶 속에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우리들이 이 자비를 입으려면 끊임없이 회개하고 평화와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며 신앙적 행동과 실천을 강조했다.

강의를 들은 신자들은 6명씩 35개조를 이루어 소그룹 토의에 들어가 ① 화해와 용서를 위해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② 삶의 방향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고 있는가? ③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자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피정을 마친 신자들은 모두 40대의 차량을 동원해 뉴악대주교좌 대성당으로 순례를 떠났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감싸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활짝 열린 ‘거룩한 문’을 통과해 성당 안으로 들어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자비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려 노력했다.

순례를 마치고 다시 본당으로 돌아와 전대사를 받기 위해 참회,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을 위한 기도, 선행 등을 바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 온 신자들은 오늘 피정과 순례를 통해 결심한 자신의 실천과 계획을 발표하며 진정한 회개, 용서, 사랑, 봉사의 삶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루카 4,16~19)

우리 본당에 뿌리내린 말씀의 역사

조남근 모이세

성경 말씀과 함께 자라온 우리 성당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자는 취지로 몇 분 선배님들의 증언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기록을 하며,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이 떠올라 지면을 빌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쁨은 복음이 선포되고 열매 맺고 있다는 표징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에는 언제나, 출발하여 복음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떠나 좋은 #맛을 뿌리며 끊임없이 나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21항)

하느님의 말씀에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는 #맛이 뿌려지면 농부가 잠을 잘 때에도 저절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마르 4, 26~29) 교회는 가늠할 수 없는 말씀의 자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셈과 생각을 뛰어넘어 그 뜻을 이룹니다. (22항)

신앙인은 ‘복음 선포’라는 사명을 수행할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갑니다. 복음화 사명은 세상의 관점에서 특히 이민자로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 2019년 1월 김영민 신부님 '성경 아카데미' 강의(50주간) 종강 기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기쁨임을 체험으로 압니다. 복음 선포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 이뤄집니다.

1990년대 우리 성당의 단체모임 회합이 3~4시간씩 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성경 말씀 묵상과 나눔을 회의에 도입한 이후부터는, 묵상 나눔을 깊게 하고 회의를 마치고도 시간이 남아 ‘아가페’를 가졌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의 힘과 성령의 도움을 증언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에 뿌리 내린 복음공부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 1973년 몽클레어 성당에 있을 때 몬시뇰께서 신자 10명과 함께 이춘리 형제 댁에 매주 모여 성경 공부를 함. 이 그룹이 첫 성령세미나에 참여하여 기도회의 기초가 되었다.
- 1986년 가톨릭 다이제스트 발간과 함께 편집 위원회 회의 때마다 성경 묵상.
- 1988년 ‘매일미사’ 한영판 출판과 더불어 ‘엠마오 성서 묵상’으로 확장 발전. 2000년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엠마오’라 이름 지은 목적은 복음에서 멀어져가는 신자들을 말씀으로 되돌리고 싶은 몬시뇰의 사목적 열망이었다는 증언.)
- 1990년대 초반부터 평협 모임을 성서 묵상으로 시작. (시간이 너무 걸릴 거라는 우려를 표명한 분도 있었으나 결과는 오히려 회의에서의 논의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되어 회의가 끝난 후의 아가페 시간이 넉넉해졌다는 증언.)
- 1990년도 중반부터 구역회를 포함한 모든 회의는 성서 묵상으로 시작. (1991~1994년 Nutley 구역에서 이 전에 자체적으로 성서 통독과 묵상 나눔을 진행했는데 거의 매주 만나 함께 묵상 나눔을 하면서 ‘천국’과 같은 기쁨을 나누는 구역 공동체로 활성화되었다. 6가정 12명 참여, 4가정 8명 완독, 2가정 4명 탈락.)
- 2002년 10월 본당 창립 30주년 기념 구역별 성경 필사. 대형 필사 성경 17권을 완성. ‘성경을 모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성 예로니모를 슬로건으로 하였음. (완성본 중 한 권은 2007년에 교황청으로 원정 가서 강복 받음. 한 권은 지금까지도 뉴악교구 주교관에 전시되어 있음.)
- 2008년 5월 25일 이정희 모세 수녀님 주관으로 성경 읽기 52주간 시작.
- 2009년 5월 17일 성경 읽기 52주간 1차 완독자 축하 행사. (85명)
- 2010년 5월 16일 성경 읽기 52주간 2차 완독자 시상. (89명)
- 2010년 11월(3회) 영어 성경 신약 통독.
- 2011년 5월 15일 성경 읽기 52주간 3차 완독자 축하 행사.



- 2011년 ‘평화의 마을’ 피정의 집에서 7박 8일간 성경 완독 피정. (2012년 2차 진행: 조민현 신부님, 조후연 신부 동행.)
- 2012년 6월 24일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
- 2013년 3월 1일부터 미주 ‘중앙일보’에 성경 구절을 매일 연재하고 (Catholic Talk: CaTalk) 그 말씀을 읽은 후에 나눔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 구축. (매스미디어를 통한 복음화 시도. 문시놀의 병환이 악화하면서 6개월 후에 중지.)
- 2013년 7월 5~7일 정태현 신부(성서위원회 번역 전담) 초빙 ‘거룩한 독서’ 강의.
- 2013년 9월 15일 ‘거룩한 독서’ 팀 시작.
- 2016년 김선미 아가다 수녀님(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초청, 성서 40주간 1, 2학기 강의.
- 2018년 김영민 신부 ‘성경 아카데미’ 강의. (50주간)
- 2019년 김혜윤 수녀님(미리내 성모성심 수녀회 총원장) 초청 강의. ‘성경 스케치’
- 2020년 8월 영어 성서 묵상그룹 시작. (조은숙 루시아 자매가 새 신자 교육을 위해 시작했는데 확장, 현재까지 계속됨.)
- 2021년 6월부터 김영민 신부 ‘거룩한 독서’
- 2022년 현재 김정경 신부 ‘렉시오 디비나’
- 2022년 본당 50주년 기념 ‘성경 퀴즈 골든 벨’ 행사.

세상에 나아가 모든 이에게, 모든 장소에서, 온갖 기회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쁨 제23항)

본당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선배들께서 증언하였듯이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기도합니다.

5



감사는 축복을 낳고

한집안 식구들, 주님 품 안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 성당, 말씀대로 이루어진 ‘공동체’

싱그러운 교차점: 돌아보고, 내다보며

‘마음의 고향’ - 메이플우드 성당

‘참 좋은 하느님 자녀들’ 공동체

주님, 골롬바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는 없습니다

“기적” 또 “기적”...매일, 매일이 “기적”

오렌지 성당은 참 큰 은혜의 샘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느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의 공동체

하느님은 공짜를 모르십니다.

내 고향 우리집, 메이플우드 성당

다시 오는 50년 준비하는 신앙의 산실

내 마음의 성지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 / 244

조흥래 베드로 신부 / 246

김용식 요셉 / 251

김금실 세실리아 / 254

문정숙 데레사 / 262

윤성진 요셉 / 264

이기명 아오스딩 / 265

이해영 스테파니아 / 270

임문수 마커스 / 275

장수림 에피파니 / 278

정정자 아네스 / 280

조은숙 루시아 / 281

지광오 바오로 - 세실리아 부부 / 285

하상구 바오로 / 287

한성신 도미나 / 289

두 팔을 활짝 열고 가슴으로 당신 아들 딸들을 맞으시는
Maplewppd 성당 마당의 예수성심 상

한집안 식구들, 주님 품 안에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지사장

+ 찬미 예수님!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와 교우 여러분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자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메이플우드 성당(Saint Andrew Kim Church)은 1972년 박창득 몬시뇰이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첫 미사 집전을 갖고 시작된 한인 천주교 공동체입니다. 이후 몽클레어 성당을 거쳐 1986년 오렌지 성당으로 이전했으며 2005년 현재 위치의 메이플우드 성당으로 이전했습니다.

박창득 몬시뇰께서는 뉴저지 성당의 노래를 작사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새로 난 우리들은/ 서로서로 사랑하는 한 울안 형제들/
한 아버지 섬기는 한집안 식구들/ 우리는 한마음 주님 품 안에"

하느님을 아버지로 한 공동체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며 50년을 지냈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입니다. 키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베로니카는 예수님 얼굴에 흐르는 피와 땀을 닦아 드렸습니다.

메이플우드 성당이 50주년을 축하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고 함께하셨던 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미사 후에 음식을 준비하던 분도 있었습니다. 성당의 의자를 정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야외행사가 있으면 물품을 준비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두 키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메이플우드 성당이 50주년을 축하할 수 있었던 것



은 예수님 얼굴에 흐르는 땀과 눈물을 닦아드린 베로니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창득 목사님을 도와서 본당 공동체를 함께하셨던 모든 분이 바로 베로니카였습니다. 50주년 준비위원회를 맡아서 봉사하는 모든 분이 베로니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고마운 시간입니다.

메이플우드 성당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편 84장을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만군의 주님 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살아 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제 마음과 제 몸이 환성을 지릅니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 새끼들을 칩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늘 당신을 찬양하리니. 행복합니다, 마음 속으로 순례의 길을 생각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 시온의 하느님 앞에 나섭니다. 정녕 당신 앞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저의 하느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습니다. 정녕 주 하느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이시며 주님께서는 은총과 영광을 베푸십니다. 만군의 주님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설립 5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사제 수품 10주년 미사 강론

조홍래 베드로 신부
뉴왁대교구 St. Andrew 소신학교 학장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 출신



오늘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성탄을 준비하며, 또 많은 일이 있었던 2021년을 떠나보내며, 또 믿음과 희망 안에서 새해를 준비하며, 결코 우연이 아닌 우리와 하느님의 만남, 우연이 아닌 성자의 사람이 되심과 그의 탄생과 우리에게 오심,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코 우연이 아닌 많은 만남, 또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계획하심에 있

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바로 이 만남(Encounter)에 있습니다. 제삼자이신, 완벽한 타인이신 예수님과 나와 특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만남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은 매 순간순간 이어지는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바라고 찾고, 또 그 만남이 시간이 지나며 더 성숙하게, 더 따뜻하게 더 사랑의 모습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듯이, 그 만남을 항상 깨어서 항상 기억하고 살면 좋겠지만, 설령 깨어 있지 못했을 때,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지 못할 때라도 그것을 아는 순간, 바로 돌아서는 신앙 안에서의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은 완주를 의미하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세상이라면,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왜 구태여 사람이 되셨겠어요? 신앙의 여정이 절대로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성자께서 왜 사람이 되신지는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 않나요?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 간음하다 죽임을 당하게 된 여인을 위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청하는 소경을 위하여, 굶주린 오천 명을 먹이기 위하여, 매일 매일 뜻대로 되는 일보다는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은, 자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어 외로움과 공허함에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 교만함과 부족함과 죄의 어둠에 자주 갇혀 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느님의 아드님 성자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시려고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의 약속을 위해 사람이 되어 태어나시는 하느님의, 이 우리를 위한 ‘사랑 계획’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시는 구세주의 등장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준비되고 계획된 그분의 역사하심입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하나, 우리의 삶, 어떤 하늘에 떠다니는 연기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제가 오늘 살고 있는 저의 삶, 여러분이 오늘 당장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주 구체적인 삶이 하느님의 손끝 발끝에서 하나도 벗어난 것이 없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행복한 삶 혹은 아주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까지도 우리에게 결국은 좋게 쓰시는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가져오신 하느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지 이제 31년이 되었습니다. 1990년, 만 19살 때 다쳤으니까, 올해 11월로 만 31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내가 운이 없어서 우연히 다쳐서 다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억울해서 지난 30년, 또 앞으로 삶을 이렇게 웃으며 기쁘게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다치던 그날 아침, 아마 예수님께서 많이 우시며 많이 마음 아파하시며, 그 버스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저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우연이 아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저의 삶은 준비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만남의 여정’ 그 만남 안에서 경험한 하느님의 큰 사랑, 또 그 안에 있는, 그분의 큰 계획 안에 있는 이 사제의 삶,

바로 이 믿음이, 지금의 저를 지탱해 주고 또 내일을 기다리게 해 주는 원동력입니다.

사제직은 하느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 일이 큰 축복인 이유는,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주 작은 그릇을 그분의 큰 사랑으로 꽉꽉 채워주시어 그분의 일이 저의 사제직을 통해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의 삶을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제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망설임 없이 다시 신학교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삶이 편안한 삶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의 사제로서의 삶은 햇빛 뽀뽀 날씨 좋은 날이 평균 잡아 일주일에 4~5일 정도, 하루는 흐리고 하루 정도는 비가 옵니다. 구름 한 점 없던 맑은 하늘에 갑자기 바람이 불며 예보에 없던 소나기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그분의 큰 사랑과 큰 계획 안에 항상 머물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작은 틀은 때때로 고생일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큰 틀을 알기에, 마음속 평화를 청하며 그분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의지하려 합니다.

부족함에 힘들어하며 때로는 주어진 사제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해도,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그분의 백성들을 온전히 받아주지 못해도, 때로는 깊숙이 느껴지는 외로움과 허전함에 힘들어하며 다른 곳을 바라보며 그분께 온전한 마음을 봉헌하지 못해도,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사목에 마음이 찢기고 너덜너덜해져도, 또 한번 일어나 솔직하게 다 드러내어, 그분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 주신 저의 몫을 다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청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시고 따뜻하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저와 그분의 우연이 아닌 만남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모습에 얼마만큼 하느님을 초대하고 기억하고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하느님의 계획하심에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주신 만큼, 정성스럽게 몫을 다하는 것입니다.

2021년 다시 한번 대림과 성탄이 찾아옵니다. 올해는 무언가 다르게 만들어 봅시다.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랑의 계획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경배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만난 사람들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이고, 성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의 축복, 성탄의 은총입니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그 평화를 위하여, 오늘 선택하고, 결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본받아,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하게 대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입니다. 처음 신부가 될 때는 몰랐지만, 제가 지난 10년 동안 배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하게 챙겨야 합니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 온, 하느님이 보내주신 내 앞으로 온 우리 자녀들,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배우자의 말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며, 더 공감하려고 마음 단단히 고쳐먹고 한 발짝만 더 앞으로 갑니다. 본당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일을 하면서 서로 실망하고 실망하게 한 일들, 이제 성탄을 준비하며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하얀 눈과 같은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이 모든 결심과 노력이 하느님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어 우리 곁에 오시는 하느님의 성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2독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와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는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됩니다. 바보 같은 눈물은 이제 그만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어쨌든 내일이 온다는 것은 진정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 축복에 응답하며, 서로를 사랑한다, 공동체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기쁘게 마음 벅차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와 하느님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와의 만남, 우연이 아닙니다. 자녀들과의 만남,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50년 역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사랑이신 하느님의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약속하신 희망이 있고, 그분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돌아보지 말아 후회하지 말아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말아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좋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계획 안에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당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당신과의 만남을 오늘 축복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021년 대림절>

“우리 성당”, 말씀대로 이루어진 공동체

김용식 요셉

우리 성당과 함께했던 지난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릅니다. 오렌지 클리블랜드 성당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묘한 낯센도 되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대영광송을 부르자 3살 된 딸애가 할머니에게 배운 애국가를 불러대기 시작하던 순간부터 그 뒤로 많은 일들이 영화 속 장면들처럼 지나갑니다.



이민자들인 우리에게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는 (이후 우리 성당) 어떤 곳이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당을 통해서 만난 이웃들과 하

느님께서 이민자인 우리들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새겨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이민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목마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40년간 무리를 지어 유랑하면서 광야에서 느꼈을 갈증이 물이 부족한 사막의 목마름이었다면, 미국 이민자들인 우리의 목마름은 적어도 90년대 말까지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회생활의 갈증이 가장 큰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성당은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목마름을 해소해 준 커다란 우물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유대인들의 불평으로 만들어진 무리바의 샘물은 하느님의 진노로 이어졌지만, 우리 성당은 이민자들의 호소로 만들어지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 은총의 우물이

었습니다.

물을 길으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청하신 것처럼 우리 본당신부 박 몬시뇰께서는 이민자들의 목마름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늘 봉사와 참여를 청했습니다. 우리 성당의 남다른 점은 무엇보다 이 ‘봉사와 참여’의 폭과 깊이 그리고 그 규모에 있었다고 믿어집니다. 근처 어떤 성당이나 개신교 교회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친교를 강조한 구역회의 활성화는 언어와 정보 부족 문제로 고립된 삶을 살던 사람들을 서로에게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긴장 속에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삶을 이어오던 사람들이 서로 돕고 친교를 나누는 사람다운 삶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신심활동과 봉사활동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세미나, 피정 등은 7 성사와 함께 사람들의 신심을 조금씩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성당은 늘 수많은 봉사자가 필요했고,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 교회 활동 참여는 이민자들의 풍요로운 삶과 신앙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성전 마련은 사람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도록 했으며, 성전 마련 이후부터 본당신부님의 사목활동은 그 규모와 범위가 더욱 커졌습니다. 본당 내의 신심활동들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의 다른 한인 성당들과 함께하는 활동들도 생겨났습니다. 성령기도회, ME, 유스그룹 안티옥 피정 같은 것들이 그러한 활동들입니다.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서 선교활동도 우리 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미주 현지판을 포함하는 평화신문 발행, 신앙 월간지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 발간과 매일미사 보급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사목활동의 확대는 더 많은 봉사자와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필요했습니다.

1995년 캐나다부터 남미까지 2,000명이 넘는 미주 한인 가톨릭 신자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제1회 성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대회는 참석자들은 물론 준비했던 봉사자들조차 스스로 놀랄 만큼 큰 규모였습니다. 아직 인터넷과 휴대폰이 채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한국 강사들 초빙부터 장소 섭외, 안내문 발송과 예약 접수, 호텔과 교통편 안내, 현장 진행 장비 설치, 음악과 율동 준비, 신앙 체험 발표 준비 그리고 2,000명분 음식 준비 등 많은 인력이 있어야 하는 일들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던 평신도 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시간의 준비 미팅을 위해 일주일에 몇 번씩 자동차로 3시간 거리를 왕복하는 교우도 있었고 매일 진통제를 먹어가며 밤새도록 진행 준비를 하던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있을 때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ME 등 다른 활동 등에도 많이 있었고 그러한 교회 활동에는 언제나 신자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커다란 열정을 불러일으켰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이 같은 엄청난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하니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어느 봉사자의 말 외에는 답이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들은 비단 봉사자뿐 아니라 활동에 참여하고 목격한 많은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갔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일미사도 거르던 사람들이 평일미사까지 참여하고, 주님의 기도도 못 하던 사람이 손에 늘 묵주를 쥐고 있고, 자신과 가족의 복을 빌던 사람들이 병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남은 생을 바쳐 목마른 그분께 마실 물을 드리겠다는 성소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2 현재 사제 10명, 수도자 3명, 종신부제 2명)

우리는 겨자씨 만큼 작은 뉴저지 변방의 한 성당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교회 활동은 뉴저지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뉴욕을 거쳐 미국 전역 그리고 급기야는 북한선교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커다란 나무로 자라난 성당이고 이민 사목의 중심이 되었던 성당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큰 나무 위에서 이민 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던 새들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나뭇가지들을 자라게 한 것 또한 주임신부님의 인도 하에, 주님을 모시고 온 정성을 다해 봉사했던 우리 선배들이고 형제자매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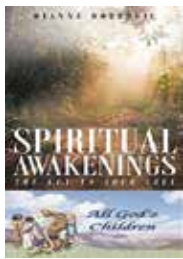
기술 개발과 한인사회의 성장으로 더 이상 이민 초기에 겪었던 만큼의 목마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당이 가진 이민자들의 목마름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당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목마름입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지 원인을 알아내고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령이 되어 거동이 불편해진 우리 선배들입니다. 만남의 목마름을 풀고 우리 모두 함께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헌신했던, 그래서 우리 성당을 세우고 키웠던 그분들입니다. 그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또 다시 이민 초기와 같은 목마름 가운데 생을 마치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다른 세대, 다른 처지에 있는 이웃들의 목마름을 더 세심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의 지난 50년은 하느님께서 함께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셨던 하느님께 그리고 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을 비롯해 우리 성당에서 사목하셨던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함께했던 많은 선배 그리고 교형 자매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싱그러운 교차점: 돌아보고, 내다보며

김금실 세실리아

제가 40세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했는데, 11살 딸이 “Mom, you are over the hill!”이라고 해서 좀 움찔했지만, ‘50살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Saint Andrew Kim Church가 50주년을 맞게 되는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42세에 쓰기 시작하여 61세에 출간된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작가 Victor Hugo는 나이 40과 50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세는 청춘 노년이고, 50세는 노년 청춘이다.(Quarante ans, c'est la vieillesse de la jeunesse, mais cinquante ans, c'est la jeunesse de la vieillesse.) Hugo의 말을 저의 신앙생활 맥락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영상들이 머리에 스쳐 가며, Saint Andrew Kim Church(이하 SAKC로 표기)가 저의 마음에 신비스럽게 부각되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40대는 “영적 깨달음 시기”이고, 50대는 “새로운 깨달음 시기”가 아니었을까? 감사한 마음으로 40대와 50대 때 주님께서 내려 주신 은총의 시절로 잠시 돌아가 보았습니다.



영적 깨달음 시기

✚ 이민 2세 엄마

저는 SAKC에 교적을 올리기 전 15년간 동네에 있는 미국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몇 년 후면 대학을 향해 집 떠나갈 딸을 위해 꼭 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잠기고는 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온 주위 환경(Non-Korean environment)에 한국적인 면을 가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적당한 방법이 본당을 한인 성당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SAKC에 다니시는 지인에게 딸이 동네 성당에서 견진성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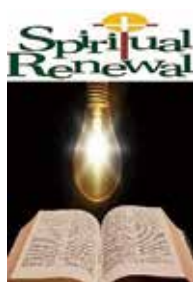
준비하는데, 딸의 대모가 되어 주실 수 있는지 여쭙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부탁을 기쁘게 들어주셨고, 따라서 본당을 SAKC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무렵 매년 SAKC에서 주관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안티옥”이라 불리는 피정이 매우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던 차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팀 학생 발표문을 위해 학생과 일주일에 한 번씩 5~6개월간 만나 나누던 이야기들, 카운슬러들과 체험 나눔, 특히 60여 명이 참석한 2박 3일 피정은 세월이 많이 흘렀건만, 지금도 그때의 순간순간들이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중 문화, 세대 차이, 감성에 예민한 학생들이 뜨거운 몸살 앓고 진한 꽃명을 떨구어 얼룩져 있었던 그 여린 가슴에 되살아나는 야들야들한 금·은빛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었습니다. 따갑게 엉겨 시린 심정의 덩어리를 누군가의 지향의 불로 녹여 부수어 하나의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게 하는 신비스러운 빛, 널따란 하늘 목장의 별꽃을 따내듯 까르르 퍼지는 웃음, 촉촉한 흙밭에 숨어있는 진주알을 찾아내는 듯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출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안티옥(안티오키아)이 ‘그리스도교의 요람’이라고 불리듯, SAKC가 이민 2세들에게 ‘영성의 요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세상 때가 묻지 않은 청소년들, 그들의 생각, 논리, 그들이 갖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제 마음에 와닿아 소용돌이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깊숙이 숨겨진 저의 미숙한 모습에 아련한 빛을 비취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들은 한국인, 혹은 한국계 미국인이기 전에, 한 개인이요, 누구누구의 아들딸들이기 전에 하느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저의 40대는 이민 2세 엄마로서 미세하게나마 ‘영적 깨달음의 시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아련한 빛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자녀의 기도’(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를 자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포함한 모든 이웃의 아이들은 주님의 은총으로 보호받아 서로 서로에게 영적 동반자가 되어 주어 창조를 이어가는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 시기

✦ 말씀

어느 날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이론 강의를 잘 끝내고 흡족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는 데, 누군가 제 머리를 ‘탁’ 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사, 교수랍시고 존경받는 지식인으로 살아가지만, 성경도 제대로 읽지 못한 김금실, 하느님 앞에서는 무식한 인간!” 무식이란 어휘에 정신이 번쩍 들어, 그날부터 지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성경을 역사책처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들이 즐비하게 나올 때는 지루한 감도 있었지만, 구약에 흥미가 생겨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늦은 밤 느긋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이봐요, 지식을 쌓기 위해 성경 읽고 있다는 자신이 좀 한심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수긍한다는 듯, 그 이후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제법 지났습니다. 결혼 19년 만에, 관면혼배로 결혼한 남편이 SAKC에서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었던 반면 걱정 하나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도로 논리적인 남편이 50세 가까이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황을 고려하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 대모님께서 ‘엠마오 성서 묵상 나눔’이라는 모임에 나가기를 권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불현듯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 속으로 “아~하”하고 조용히 외쳤습니다.

남편이 세례성사 받기 전이었습니다. 가족 신앙에 대해 SAKC 본당신부님께 의논드리고 싶었습니다. 몹시 어렵게 느껴졌던 신부님이셨기에 용기를 내어 찾아뵈었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종이 한 장을 주시며 “이런 방법으로 성경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묵상 방법을 가르쳐 주십사하고 찾아뵈는 것이 아니었던 저는 제 마음을 읽지 못하시고 미소 한번 띠지 않는 신부님이 더욱 어렵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어느 folder에 넣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아~하! 라는 마음 속의 외침은 신부님께서 주신 그 종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는가 알아차리는 ‘지혜의 은총’이었습니다. 신부님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정해진 성경 부문 읽고,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쓰고 남과 나누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눈에는 전문분야 책과 논문에 묻혀 사는 엄마가 성경 묵상을 한다는 것에 이해되지 않는지 고개를 가우뚱하곤 하였습니다. 남편 해외 출장이 많은데... 저녁에 혼자 나가는 것 위험한데... 등등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주님께서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이란 너 전부를 겸손되이 의탁하는 유일한 무기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선명하지 않지만, 겸손이란 어휘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끌어안는 듯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눈으로 읽는 당신 말씀, 영의 눈을 맑게 해주시고,
입으로 낭송하는 당신 말씀, 선한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귀로 듣는 당신 말씀, 들을 귀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의 여정에서,
진리의 내적 의미를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며,
헛된 것을 청하지 않는 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 불면 날아갈 먼지 한 톨에 불과한 저
겸손되이 당신께 의탁하옵나이다.*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성서 묵상(그리고 나눔)을 통해 제가 겸손해졌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성적인 mannerism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겸손해졌다고 착각하고 싶을 때, 변하지 않는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실망할 때마다, 약해지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주님과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씀은 나를 위해, 나를 향하여 계시고, 묵상은 그분께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묵상 나눔은 여러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그분의 현존이요, 겸손으로 함께 가꿔 나갈 작은 텃밭이다.]

이렇게 저의 50대에 새로운 깨달음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 구역: 은총의 텃밭

동네 성당에 다닐 때 ‘구역’이란 개념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SAKC에 와서야 교회에서 구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역이란 ‘말씀’이 살아있는 세포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는 근간임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을 되살려 봅니다.

인사를 나누고 빈자리에 살며시 앉는 멤버들
 복음 구절에 눈길이 멈춰 있는 그들의 모습
 국민학생처럼 청순해 보입니다.
 때로는 알아듣고 때로는 아리송한 구절들
 마음에 닿은 구절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사뭇 궁금해지는 표정들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마음 속에 새겨 보았던 각자의 묵상
 수줍은 듯 슬며시 꺼내어 보이자
 잠시 흐르는 신비의 침묵은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인 듯합니다.
 어디선가 풍겨와 본성을 자극하는 먹거리
 다소곳이 숙이고 있었던 몸 안으로 스며들자
 영적 환기는 배려 깊은 담소에 흡수되어
 삶의 묘미를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진솔한 묵상 나눔으로 시작하여 다정다감하게 오가는 대화로 이어지는 구역 모임은 예수님의 향기가 흠뻑 스며드는 푸근한 자리처럼 느껴왔습니다. 종교적인 어휘를 조심스럽게 빌리자면 향주삼덕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은총이 가득한 텃밭이었습니다.

SAKC 설립 50주년: 소망

40대, 50대를 거쳐 25년 다녔던 SAKC는 저에게 영적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많은 시냇물 같은 성전이었습니다. 상큼한 물과 공기를 마시는 듯 생생히 살아있는 추억-선물을 꺼내 볼 때마다 거기에 머물고는 합니다. 추억이란 현재를 지탱해 주고 미래의 활력을 보여 주기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포용과 일치의 희망을 품어봅니다.



✦ 급변하는 사회

비교적 최근 Pew Research Center에서 발표된 인구 통계가 생각납니다. 2019년 미국에 사는 한국계 인구의 41% US-born이고, 59%가 Foreign-born입니다. 이 통계를 한인 교회 전망에서 볼 때 한가지 예측해봅니다. 한인 교회에는, 1세 이민자 숫자가 계속 늘지 않는 한, 한국어 미사보다, 영어 미사에 참석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인 성당에 등록된 신자들도 편의상 동네 Non-Korean church에 나가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질 듯합니다

또 한 가지 통계가 눈길을 끄니다. 2015년에 결혼한 아시아계의 신혼부부 중 타민족 배우자와 결혼한 부부가 29%입니다. 그리고 Intermarriage 그룹 중 46%가 US-born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계 신혼부부에 대한 세분된 통계는 발표 안 되었지만, 이 비율과 많이 차이 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US-born 한국계 신자들처럼, Intermarriage Family들은 (한인 성당에 친구나 연고자가 없는 한) 동네 Non-Korean church에 가는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발표된 통계는 없고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에 불과합니다.

가톨릭교회는 보편된 교회이기에 어느 성당에 나가든지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더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다문화 안에서 40여 년을 살아온 한인 1세로서 세속적인 듯한 바람이 슬그머니 생깁니다. 20세기 말부터 한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세계 무대에 더 부각되면서, 비한국계 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 집니다. 이와 발맞추어 '후세들의 신앙생활이 한국 문화를 포함한 다문화의 진가를 이해하

여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 다문화 영적 일치

SAKC 25주년 기념집(1997)에 고 박문시놀님께서 Internet Generation인 젊은이들의 선교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Internet을 통한 통일된 세계, 세계 단합, 종국적으로는 세계 교회가 한 집안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신비체를 이룬다는 꿈은 꾸어 볼 만한 것이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일이라 믿는다.” (121)

문시놀님께서 꾸어 보신 꿈의 맥락에서 저의 소망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좋게 혹은 나쁘게도 받게 되는 다문화의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2020년의 미국 인구 조사에 나온 인종 및 민족의 비율을 보면, White이 58.7%이고, Non-White는 42.2%입니다. Non-White에는 Asian을 포함하여 일곱 인종과 민족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국 사회에서 한국 유산 문화를 포함한 다른 여러 문화를 포용하는 영성 프로그램이 한인 성당뿐 아니라 비한인 성당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영성’ 분야에 아주 문외한 저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의 유무가 머리에 스쳐갑니다.

- (1) 첨단 기술을 정교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성경과 가톨릭 가르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방법.
- (2) 한인 성당뿐 아니라 비한인 성당에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 한국계와 비한국계 신자들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
- (3) 유산 연속성(Heritage Continuity)을 위해 다세대(1, 2, 3세대)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 (4)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는 지역협의회.



꿈에 불과한 현실성이 없는 소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지적, 물적 등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실천에 옮길지 Logistics, Training 등등 수 없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Advanced Internet Technology를 사용하여 ‘어디서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능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지난 50년간 한인 교회의 성장은 여러모로 놀랍고, 더 나아가 우리 2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1세들의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기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1950년대 타 국가들이 개입된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의 경제 성장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생겼듯, 그러한 열을 받은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Korean Americans)이 추구하는 ‘다문화 영적 일치’를 기대해 봅니다. 25년 전 고 박문시놀님께서 꾸어 볼 만하다고 하신 꿈, “세계 교회가 한 집안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신비체를 이룬다.” 이 꿈을 되새겨보며 순례자의 마음으로 시편 (121, 1-2)을 읊어봅니다.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드네
내 도움은 어디서 오리오?
내 도움은 주님께에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
아멘.

‘마음의 고향’ - 메이플우드 성당

문정숙 데레사



한국에서 대가족 속에서 북적거리며 살던 우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아무 친척도 없는 미국 뉴저지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아들은 한인 커뮤니티가 무척 그리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되면 Rt. 17 북쪽에 있는 절에도 가 보고 동네 아는 분을 따라 교회에도 가 보았지만 어쩐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아들 친구이며 비슷한 이민 동기인 젊은 부부가 우리 가족을 오렌지 성당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기품이 있으신 본당신부님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께서는 우리 가족을 오렌지 성당의 가족으로 따뜻하게 받아 주셨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 모두는 오렌지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고, 서울에서 다니러 오신 어머님께서도 이곳에서 영세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제 또래의 유스그룹에서 다양한 활동 속에 잘 성장할 수 있었음을 지금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 요셉과 저는 미사 봉헌후 영세 동기분들과 어울려 커피를 마시고 이집 저집, 이곳저곳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수녀님의 권유로 부부 레지오에 들어가면서 신부님, 수녀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진정으로 오렌지 성당의 가족이 되었음을 느끼며 묵주기도로 주님과 성모님께 대한 사랑이 점차 싹틔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가게가 일요일에도 문을 열어야 하는 직종으로 바뀌면서 그나마 싹트고 있던 신앙의 싹이 말라 버리고 차츰 주일미사로 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역회가 있는 날이면 구역 교우분들이 보고 싶어 늦은 시간에 가게 문을 닫고 구역회에 달려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모세 수녀님이 왜? 주일미사는 안오냐며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한편에서는 신부님께서 다독이시면서 “잘 왔어. 이렇게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면 다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 하시는 말씀에 요셉과 저는 10여 년을 포도나무 가



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서는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시어 아이들 결혼식을 성당에서 올릴 수 있었고 손주들의 유아세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자마자 곧장 메이플우드 성당부터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신앙의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지 견진성사 교리반에 들어가 견진성사도 그해에 받았습다. 그리고 이리저리 미루어 왔던, 우리 부부를 좀 더 성숙하고 참된 관계로 맺어 주는 ME 주말에도 갔습니다. 성모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은총을 내려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레지오에도 입단하였습니다.

미셀 수녀님과 함께 제대 꽃장식을 하며, 제 신앙의 꽃도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은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꽃 도매상에 가고 토요일 하루를 성당 제대 꽃장식 준비로 보내는 것에 한 번도 싫은 내색 없이 “우리가 주님 은총을 이렇게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조금이나마 주님과 성모님께 봉사할 수 있어야지” 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미셀 수녀님은 어디서 힘이 나시는지 작은 체구임에도 구유 장식에 놓을 큰 돌을 번쩍번쩍 드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에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따끈한 모과차에 과자를 드시는 미셀 수녀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순명과 봉사, 절제의 삶을 보면서 성모님의 삶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남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왔다갔다만 하던 우리 부부였건만, 성모회장과 ME 대표 부부를 맡으면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을 주님께서 ‘요셉, 데레사야 두려워 말아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힘껏 일할 수 있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 ME 부부님들, 기꺼이 도와주신 언니 자매님들 덕분에 모든 일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형제님들은 가스불 앞에서 국수를 삶고 고기를 볶고 자매님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성당의 큰 잔치를 치른 후 둥그런 식탁에 둘러앉아 먹던 밥맛이 왜 그리도 좋았던지요! 주님의 성전에서 모든 교우분과 함께 기쁨도 나누고 힘든 짐도 함께 지는 정겨운 모습이 바로 우리 메이플우드 성당의 모습입니다. 주말에 평화의 인사를 하며 우리 부부의 사랑을 다시 일깨우는 ‘메이플우드 성당’, 우리 가족의 영원한 보금자리이며 마음의 고향입니다.

‘참 좋은 하느님 자녀들’ 공동체

윤성진 요셉



50주년을 감사하며 주님께 찬미와 영광!

어느덧 이 성당을 다닌 지 4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4년을 따지자면 저는 걸음마를 떼고 ‘엄마 아빠’를 겨우 말하면서 꼬마 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위 분들이 말도 걸어주시고 사탕도 주시고 안아도 주시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비유는 네 살짜리에게 했지만 그 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저이기에 이런 관심과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을 체험하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비록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으나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자로서의 그동안 보지 못한 기본과 자세를 알게 해 주신 분, 본인의 삶은 힘들지만 주님께 받는 사랑을 저와 가족들에게 듬뿍 나누어주시는 분, 말보다는 행동으로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안의 선을 실천해 나가시는 분,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도맡아 기쁘게 정진하시는 분, 신앙의 여정에서 단단하고 보다 더 큰 그릇이 되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과오도 사랑과 칭찬으로 덮어주시는 분, 등등 저에게는 많은 귀감이 되는 분들을 느끼고 만날 수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살짜리 꼬마인 제가 다니고 있는 이곳은 저의 실제 나이보다도 더 많은 50살의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꼬마에게도 이렇게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 이곳에서 하느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셨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고, 아픔을 치료해 주셨고, 이 세상에 좋은 씨앗이 되도록 가다듬어 주심에 큰 감사와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또 다른 50년의 세월 속에서도 저와 같은 네 살짜리 꼬마가 계속 자라날 곳이며, 그 자녀들을 바른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이에게 사랑을 넘치게 주실 것이며, 이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실 것임에 하느님께 큰 감사를 미리 드립니다.

겸손과 기도 속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골롬바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는 없습니다

이기명 아오스딩

“.....”

묵묵부답이라 민망했습니다.

“여기 읽을 차례야” 내가 조용히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다시 가리켰지만,

“.....”

골롬바는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 외손녀 세례식 끝나고, 사진 오른쪽이 글쓴이 부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조금 의아해하며 발표를 지체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골롬바의 구절을 대신 읽어 내려갔습니다. “혹시 ME주말 첫 발표하면서 감정이 북받쳐 그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골롬바의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또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가 옆을 쳐다보니 얼굴

이 창백했습니다. 섬뜩한 생각이 들었고, ‘정신이 나도록 찬물을 마시게 해야겠다’ 속으로 중얼거리며 내가 찬물을 가지러 자리를 뜨는 순간, “떼구루루 쿵쿵”, 골롬바는 오른쪽 마룻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모든 ME 주말 참석 부부들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몇몇 부부들의 도움으로 옆방으로 옮기고, “911 앰블런스를 빨리 불러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축 늘어져 누워있는 골롬바를 바라보니 초조함과 다급함에 기다리는 시간이 천 년 같았습니다. 다행히 주말 참석자 중에 간호사가 계셔서 도움을 받는 중에 오래지 않아 앰블런스가 왔습니다. 골롬바는 들것에 실려 차에 타고, 내가 운전석 옆에 앉아서 잉글루

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적 아주 오래전에 응급실에 와 보고 처음이라 병원이 낯선 데다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뚜렷하게 병명을 말해 주지 않아서 목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발을 동동 구르는데 의사나 직원들은 너무 태연하고 사무적이라 전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안타까웠습니다.

드디어 한참 후 자그마한 여의사 한 분이 나오더니 뇌출혈이 심해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이 병원에서 할 수 없어서 뇌 수술 시설이 좋은 Overlook 병원으로 다시 옮겨야 하며 그사이에 출혈을 막는 응급조치와 정밀 MRI를 더 찍는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What?”하고 소리를 지르며 머릿속이 멍멍하며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뇌 수술할 의사를 찾아야 하는데 오늘이 Memorial Day 주말이라 휴가를 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도 찾아보겠노라고 하며 수많은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경향이 없는 터에 Dr. 조 루시아께서 전화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곳으로 오신다고 하기에 Overlook 병원으로 옮기니 그쪽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두시간이 더 지나고 앰블런스에 다시 실려 뇌 수술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Stroke 환자는 분초와의 다투인데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밀려오며, 우리 앞에 느리게 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왜? 앰블런스가 지나갈 때 일반 차들이 빨리 비켜줘야 하는지를 실감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골롬바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병원에 도착하니 조 루시아 선생님 부부를 비롯하여 ME 가족 몇 분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천만다행히 이 병원 가까이 사시는 유명한 뇌 수술 전문의께서 집에 계시다가 이곳에서 수술 준비를 하고 계셔서, 도착하자마자 수술실로 직행했습니다. 이제 골롬바가 살아오느냐 마느냐는 오직 주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골롬바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된 것이 많아 용서도 받아야 하고요. 빛도 갇을 게 많고요, 또 골롬바 나이가 저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데려가시려거든 제가 먼저입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서너 시간쯤 지났을 때 마취과 의사가 나와서 진행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의학용어로 설명해서 답답한 터에, 소식을 받고 메릴랜드에서 급히 올라온 딸과 다행히 같은 의료업종에 종사하는 사위의 통역 도움으로 골롬바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수술 경과가 아주 좋다는 소식을 듣고 큰 안도감과 함께 지켜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도 잠깐 뿐, 수술실에서 중환자실로 실려 나온 환자는,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보기에 참혹하다 못해 살아있는 건지 죽은 사람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얀 붕대로 싸맨 머리 사이로 피멍과 수많은 플라스틱 호스가 꽂혀 있고 양팔에 뻑뻑이 꼬여진 주사바늘들, 입에 물린 산소 호흡기, 그렇지 않아도 비위가 약한 나로서는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 골롬바가 맞나요?” 도저히 현실이 믿기지 않아 병실을 뛰쳐 나왔습니다.

“아, 주님도 정말 무심하십니다.”, “으으으!!???” 마취가 깨기 시작하는지 골롬바가 연거푸 괴로운 신음을 냈지만, 말도 못 하고 거의 전신마비가 된 환자와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른손과 발은 전혀 감각이 없이 따로 놓고, 안면마비와 경련 현상도 경험하면서 차도가 좋아지기는 커녕 악화되는 듯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많은 ME 부부님들과 성당 교우분들이 기도차 들르셨는데, 병원 측에서 환자를 위해서 더 이상 방문객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하필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이 병자성사를 위해 그날 오셨으나 병실에 들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중환자실의 훈련된 간호사와 간호보조사의 경륜과 솜씨 덕에 많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들이 숨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 덕분인가요? 며칠 후 골롬바가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표정으로 미소 짓는 얼굴도 돌아오고, 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여태껏 몰랐습니다. 혀의 마비가 계속되면 음식은 고사하고 물도 못 마시고 말도 못하는것은 물론 배에 호스를 넣어 음식을 투입해야 한다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 참 좋으신 하느님, 저와 ME 부부, 성당 교우분들의 절실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이제 잠시 거뒀었던, 말하는 능력도 돌려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비가 된 손과 발도 풀어 주시는 거죠?”

이제 물 마시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병원 음식은 넘기기 쉬운 젤로와 apple sauce가 주로 나왔습니다. 입맛이 없는지 한두 숟가락 정도 받아먹고선 입을 막습니다. “기운을 차리고 회복하려면 잘 먹어야 할 텐데, 죽이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염치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꽃이나 과일 대신 죽 종류의 유동식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밤이 되면 딸이 교대로 와서 엄마와 또 아빠를 위해 밤샘을 자청했습니다. 저는 그사이 집으로 잠을 청하러 갑니다. 아무도 없는 집, 쓸쓸한 집, 설거지할 것이 없고, 바깥에 내놓을 쓰레기가 없다는 사실이 나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며 더욱 고적하게 만들었습니다. “밤사이

에 별일은 없어야 할 텐데”, “내일이면 혹시 차도가 있겠지” 하며 새우잠을 청합니다.

마비를 풀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재활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며 일반 병실에 가는 대신 중환자실(ICU)에서 바로 오렌지에 있는 Kessler 재활병원으로 갔습니다. 아직 말도 못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지만,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자체에 안도와 의미를 두었습니다. 재활치료실은 참으로 아픈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 골롬바도 physic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speech therapy 세 치료실로 나뉘서 바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웰인인지 이곳 병원 음식은 골롬바가 더욱 못 먹고 손도 안 댔습니다. 원래 병원 음식이 맛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세끼 식사를 차려주는 일이 큰 일과며 걱정거리였습니다. “한끼 먹고 나면 바로 다음 끼니 준비할 걱정이다” 했던 어머니의 옛말을 생각게 하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아내의 수고에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너무 많은 고마운 분들이 기도와 함께 골롬바를 위하여 음식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본당 레지오 단원들, 그리고 동북부 대표 부부, 신성호 세바스찬 - 신 세라피나 부부는 뉴욕 Long Island에서 뉴저지까지 몇 번이나 음식을 싣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에 다행히도 골롬바는 병원 음식 외에 모든 가져다준 음식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잘 먹으며, 물리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골롬바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갔습니다. 몸이 마비되어 침대에만 누워있을 때, 복도에 휠체어를 탄 환자가 지나가면 “골롬바가 휠체어만 탈 수 있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그만큼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실의 답답함을 벗어나 휠체어에 태우고 산책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병원 측에서는 나를 따로 불러 퇴원 후 거동을 생각하여 우리 집에 “휠체어 출입문과 샤워장을 개조해야 한다”라고 하며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믿기지 않았지만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집을 고쳐야 하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하나?” 큰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느 날 아침 골롬바가 일어나더니 밤에 성모님이 병실에, 자기한테 나타나신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문 유리창에 커다랗게 계시다가…” 그래서일까요? 다음날부터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나의 고민이 부질없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하려는 듯, 골롬바는 나날이 정말 눈에 띄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화장실 갈 때도 간호사 두 명과 휠체어에 의존했었는데, 조금씩 지팡이를 짚고 몇 발짝씩 걷기를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걸어 갈 수 있게 좋아졌습니다. “아기 첫걸음마를 보는 부모 마음 같다고 할까요?” 기적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 위에서 걸어야만 기적이 아니다”라는 박 몬시뇰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담당 의사께서도 보시더니 골롬바의 회복이 전체 환자의 상위 5% 안에 든다며 그 의지와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 감사하신 주님! 그리고 성모님!” “다시 한번 저희 식구와 ME 부부님들 그리고 성당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군요.”

얼마 후, 하루가 멀다고 차도가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말을 하는 회복은 느렸지만, 조금씩 걸을 수 있으니 입원 치료에서 통원 치료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바깥으로 나오니 화창한 햇살이 우리를 반기는 듯 얼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앰블런스 대신 우리 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기쁨에 또 감사드렸습니다. 통원 치료와 더불어 물리 치료를 5~6개월 받으면서 걸으로는 뇌 수술받은 환자가 아닌 듯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오른팔에 통증이 있고 말하는 것도 아직 어눌하지만, 천천히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돌려주시리라 믿으며 기도합니다. 골롬바가 쓰러진 직후부터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골롬바가 쓰러진 날부터 한 달 후쯤이 마침 우리 부부의 결혼 3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답답한 병원 침실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것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골롬바는 “빨래를 두 손으로 접을 수 있고 혼자서 샤워를 할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집에 설거지할 것이 생기고, 바깥에 내놓을 쓰레기가 있는 삶으로 돌아왔으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이제 우리 집도 드디어 사람 사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그 뜻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섭리인지 부부 사이의 사랑과 서로를 존경하며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셨으며, 가족의 중요성과 친밀함을 확인시켜 주셨고, 또 뜻밖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간호를 도왔던 작은딸을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의과 대학생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 모든 은총이 제가 결혼하면서 가톨릭으로 입교하고, 성당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주님의 가장 작은 포도가지나마 놓지 않고 생활했기에 가능하며, 그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힘겨운 투병 생활이었지만, 너무 많은 ME 부부님들과 여러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격려로 골롬바가 새 삶을 찾고, 더불어 우리 부부에게 용기를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꾸벅)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 생사를 오가는 고통과 싸우고 힘차게 이겨낸 골롬바에게 사랑과 격려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17년 5월 29일 제73차 동북부 ME 부부 주말 봉사자로 참가했던 그날의 놀람을 되새기며.-

“기적” 또 “기적”...매일매일이 “기적”

이해영 스테파니아

미국에 온 지 벌써 28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할 감사의 순간들이 있다.

결혼생활 6년 만에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져서 힘들어하던 중에 미국에 있는 사촌의 권유로 오게 된 미국 뉴저지. 관광비자로 JFK 공항에 1993년 1월 토요일 저녁 도착해서 다음 날 하루 쉬고 바로 시작한 나의 Nail 인생! 남편은 삼성 모니터 계통의 회사에 다니다 그곳에서 영주권 스폰서 해준다고 해서 영주권 신청 중 우리 일을 봐주던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영주권 신청이 중단되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몇 년을 살다가 남편이 다른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영주권 신청을 다시 시작했다. 노동 허가증을 매년 갱신하며 살아가던 중 느닷없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몇 주 후 ‘청천벽력!’ 추방통지서가 날아왔다.

며칠 고민하다가 찾아간 박동규 이민 전문 변호사의 소개로 추방 관련 전문 변호사인 김광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추방 면제 신청을 다시 시작했다. 추방 면제 조건은 미국에 입국한 지 7년이 지나야 하고 가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야 하고, 당사자가 추방되면 시민권

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예외적이면서도 극심한 고통의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작은딸을 미국에 온 후 낳아서 시민권자의 직계 부모에 해당하므로 추방 면제 재판을 청원할 수 있었다.



이민 판사는 해당 추방 면제 케이스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저울질해서 긍정적 요소가 많을 때 ‘추방 면제’ 재량권을 행사한다. 긍

정적 요소에는 첫째, 미국에 산 기간, 둘째는 신청자의 비즈니스 크기, 납세 기록, 교육 의무 수행, 커뮤니티 기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민 판사에게서 추방 면제 승인을 받으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우리 가족은 추방을 면하기 위해 살얼음판 건듯 무척 조심, 조심하며 살았다. 법에 저촉되는 일은 일절 안 했으며 남편은 심지어 술 한 방울이라도 먹을 가능성이 있는 날이라도 있으면 운전을 아예 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녔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불안은 하느님을 향하게 됐다. 매달릴 수 있는 곳은 ‘하느님’뿐이었다. ‘무조건’ 성당을 찾아가 예비자 교리 교육을 끝내고 2000년 오렌지 성당에서 당시 주임 신부님이셨던 박창득 몬시뇰님으로부터 성세성사를 받았다. 큰딸은 대학 4년을 론(loan)도 받지 못하고 현금으로 등록금을 내면서(그때 학비가 1년에 2만 7천 달러) 열심히 공부하여 무사히 졸업했다. 지금 생각해도 큰딸이 장하고 고맙고 또 미안하다.

남편은 추방 재판을 앞둔 불안 때문인지, 순수한 신심 때문인지 치열하게, 뜨겁게, 하느님께 매달리며 성당에 더욱더 열심이었다. 미사와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복사로 봉사도 하고 기도회에도 빠짐없이 나갔다. 나도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2012년 운명의 추방 면제 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날. 박창득 몬시뇰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박창득 몬시뇰님, 당시 막 본당신부님으로 부임하신 조후연 야고보 신부님, 모세 수녀님 그리고 몇 분의 레지오 단원이 법정에 동행해 주셨다. 두 신부님과 수녀님, 레지오 단원들의 동행은 불안 속에서도 든든하고 감사했다.

우리 가정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불안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하게 관통했다. ‘하느님, 구해 주세요’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며 눈을 감았다. 그런데 어둡지 않고 밝은 기분이 들었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 “수많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가정은 선량한 도덕적 인격의 소유자들로 미국 거주 자격에 위배된 적이 없고, 납세 기록, 교육의 의무, 커뮤니티 기여도 등...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추방 면제” 판사의 최종 결정을 듣는 순간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눈물이 쏟아졌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우

리가 영주권자라고!!!” 그 순간 첫마디 “하느님 감사합니다”와 함께 터진 눈물과 함성과 박수. 우리 가족에게 첫 번째 기적이 생긴 것이다. 몬시뇰님도 레지오 단원들도 모두 한마음으로 기뻐해 주셨다. 우리 가족은 추방 면제와 동시에 영주권을 받았다. 당시는 한강물 터지듯 우느라고 정신을 못차려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조후연 본당신부님은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 ‘좋은 사람들’이라고 증언하셨단다. 지금 생각해도 하늘만큼 고마운 일이다. 성당 교우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케이스는 ‘기적’이라고 한다. 큰딸은 이미 성년이 되어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데 부모와 동시에 받은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그 후 ‘영주권자’로 살면서 크고 작게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을 더욱 믿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시 이겨내야 할 과제였다. 주 7일 오픈하는 네일 가게를 운영하는 탓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당시에는 남편하고 둘째 딸만 성당을 다니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 상황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생겼다. 내 마음의 변화! 주일에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한 것이다. 남편과 같이 성당을 다니기로 하던 중 성당에서 작은 봉사라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나가던 메이플우드 성당은 여전히 낯설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가까운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의 마이클 성당 주일 오전 9시 미사 시간을 놓치는 바람에 메이플우드 성당엘 가게 됐다. 미사에 참례하는데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미사가 참 편했고 내 집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사 중에 옆에 있는 남편을 톡톡 치며 “우리 그냥 여기(메이플우드성당) 다니자. 오늘 처음 미사가 좋네”하며 얘기했다.

미사가 끝나고 친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오랜만에 뵙는 모세 수녀님께 인사를 했더니 “아! 잘됐다. 성모회장 하면 되겠다.” 하시며 싫다 좋다 할 틈도 주시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저기 “새 성모회장”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얼떨결에 성모회장이 되어 버렸다.

주님의 부르심과 나의 마음이 일치된 순간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 하느님께서 “또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성모회장직을 받아들이고 힘들었지만 나를



으로 열심히 일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교우분들에게 성모회 일을 같이하자고 했더니 모두들 흔쾌히 도와주셨다. 모두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2년을 보냈다.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게 감사할 뿐이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힘이 되고 같이 선을 이뤄준 모든 성모회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함을 전한다.

그런 나에게 또 하나의 ‘청천벽력 환난’과 ‘기적!’이 일어났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그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났다. 팬데믹으로 비 필수 업종인 모든 업소가 2020년 3월 18일부터 Shut Down! 그날부터 ‘집콕’이 시작됐다.

그런데 원인불명으로 감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열도 없고 코로나19의 흔한 증상들이 보이지 않아서 감기려니 하고 비대면 화상으로 내과 의사한테 진료 두 번을 받고 처방약을 먹고 있었는데 거의 2주 가까이 차도가 없었다.

은근히 불안해하던 중 4월 9일 한국으로부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청천벽력이 나를 내리쳤다. 연세는 많으셨지만(91세) 건강하셨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옆친 데 덮치는… 충격 속에서 팬데믹으로 한국 어머니 장례식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따른 죄책감과 상실감으로 내 증세가 더 심해졌는지 갑자기 음식 냄새를 못 맡고 기침은 계속 나오고 조금씩 숨이 차기 시작하고 영락없는 코로나 증상인 것이 아닌가! 딸의 성화로 Urgent Care에 가서 진료받으니 코로나 감염이 되었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한다. ‘오, 하느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청천벽력이 자주 일어나나요?’ 또 앞이 캄캄했다.

엄마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안고 헤켄섹 병원에 4월 13일 오후 3시쯤 입원했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겨진 나는 1인실 병동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각종 검사를 받았다. 방호복으로 완전무장한 채 바빠 움직이는 의료진들을 보며 두려움이 배가 되었다. 병실 문을 두꺼운 비닐로 가려놓고 들어올 때 나갈 때 가운데 마스크, 장갑 등등 다 벗어서 쓰레기통에 넣고 나가고 완전무장하고 들어오고, 벗어서 버리고 나가고를 반복하며 열을 재고 피를 뽑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몇 시간을 그곳에 방치해 놓은 다음…. (그 시간이 가장 두려웠다.) 새벽 3시쯤 6인실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

그곳엔 6명의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이 있었다. 여기 저기서 기침하고 가래 뱉고 신음하고… 밤새 앓는 소리에 잠은 커녕 정신은 더 말짱해지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다시 하느님만 찾았다. 그때 나에겐 하느님만이 위안이었다. 무조건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 잘못했다는 참회와 함께… 죽으면 어찌지?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도, 내 삶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막무가내로 “하느님 저 좀 살려주세요”만 외쳤다.

그런 악순환 속에서 밤낮이 지났다. 열은 없고 산소호흡기도 약하게 끼고 계속 피 뽑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오들오들 떨고, 참회, 또 참회하고….

그런 환난 속의 나는 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성당 교우분들, 이웃 친구, 가족의 관심과 사랑 기도 덕분에 또 한 번의 기적이 나를 찾아왔다. 5박 6일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3주간의 방 안 격리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

3주간 남편과 딸들의 정성 어린 간호와 교구, 동네 친구들의 음식 제공에 감사하며 이렇게 많은 기적 같은 사랑을 주신 하느님께 무한, 무한, 무한 감사를 드린다.

요즘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있음에 감사기도를 드린다. 모든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감사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겠다.

내게 주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 때때로 주님을 의심하던 제게 보여주신 주님의 기적 같은 은총을 늘 기억하고, 살면서 매일매일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오렌지 성당은 참 큰 은혜의 샘

임문수 마커스



무엇보다 우선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을 더욱더 성장하고 하느님의 참된 교회로 발전되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지영덕 회장님께서 메이플우드성당 창립 50주년 기념집을 만드는데 회고하는 글을 부탁하셔서 영겁결에 “예”하고 대답을 드렸습시다만 막상 생각하여 보니 세월이 많이 흘러 옛일들이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차’

했답니다. 그래도 약속했으니 어찌하오리까!

모태신앙 가톨릭 신자인 제가 St. Andrew Kim Church(구 오렌지 한인 천주교회)에 다니게 된 것은 저의 신앙생활에 전환점이었으며, 새롭고 은혜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미국 땅에 살기 위하여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 1987년 2월 4일이었으니, 어언 3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고, 한 주 후 오렌지 성당 미사에 참례하였으니, 이 또한 34년의 긴 시간이 된 것이지요. “오렌지 성당” 그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지금도 저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돌아가신 박창득 신부님께서 본당신부님이셨지요. 성당을 바라보며 성당 오른쪽에 서 있던 큰 나무는 정말 정겨운 한국의 정자나무를 연상케 하며,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는 한국 어느 시골 성당에 들어간 다정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마도 모셔져 있던 여러 성상들로부터 그런 느낌을 받은 듯하네요. 제가 어릴 적 다녔던 한국 시골 성당에 성상들이 주옥 모셔져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저를 오렌지 성당에 데리고 가주신 최 헬레나 자매님은 그 후 지금까지 에디슨 한인 성당에서 같은 구역 멤버로 계속 친교 가운데 지내고 있으니 어찌면 참 짙한 관계에 가족 같은 느낌이 들만하지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것들이 기억에서 사라져 희미하게 보입니다만, 1988년 초에 ME를 처음 받는 기회를 가졌지요. 사실 아내 스텔라와 결혼하고 1년 반 이후부터 내리 8년 동안 중등

의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가 미국에 오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중동 건설 경기 때문에 회사는 해외 경력사원들이 계속 해외에서 일해 주기를 바라는데, 개인 사정(가정 사정)은 그에 반해 점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계획을 세워 제가 먼저 미국으로 들어오고 9개월 후에 가족과 합류한 후 처음으로 ME라는 피정을 아내와 함께 받은 것이지요. 이어서 그 해 초, 겨울에 오렌지 성당에서 실시했던 8주간 성령세미나에 아내와 함께 또 참석하였었는데, 그 세미나가 저의 신앙생활의 근본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아픈 방법으로, 그러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 올바른 변화의 시작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어렵풋이나마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태중 교우 구교 신자인 저는 성령세미나를 받으며 영적 오만함에 가득 차 있었는데, 완전 날라리 신자라고 치부했던 아내가 오히려 큰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실망을 넘어 절망에 사로잡혀 “왜 이렇습니까?”라고 절규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왜?”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사랑이고 사려 깊은 처방이셨던가를 몇 년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나서 정말 감사를 드렸던 성령세미나였습니다.

하느님은 좋은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그 방법으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적 오만함은 철저한 영적 자존심의 파괴로만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을 하느님은 아셨기에 그 방법을 쓰셨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그 잘난 영적 자존심은 고개를 꺾고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저의 영적 여정의 Turning Point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성당은 바로 이렇게 저에게 큰 선물을 전해준 성당이 되었지요. 또 바로 이즈음에 하느님께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영적 체험을 하였지요. 저는 미국에 오기 위하여 오랫동안 자세하게 잘 알아보고 잘 결정해서 미국에 왔다고 확신했었는데, 즉 제가 잘나고 잘 준비해서 미국에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제 생각이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영적 체험이었습니다.

오렌지 성당에서 성령세미나를 통하여 제 안에서 시작된 영적 목마름(실망과 좌절로부터 나온)을 채우기 위하여 Demarest에 있는 아주 작은 개신교의 금요일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약 1시간 20분 이상 올라가야 하는 제법 먼 길이었었는데 매주 금요일 집회를 통하여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던 중, 저에게 알려주신 하느님의 가르침, 즉 저를 미국에 데려오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오랜 시간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뜻이셨다는 기도 응답을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었던지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온전히 믿어지는 순간이었고 그 믿음이 제 안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지요. 하느님의 현존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새로운 영적 여정은 박창득 신부님과 끈끈한 관계 안에서 성령쇄신운동으로 계속되었습니다. 박창득 신부님과 상담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오랜지 성당 사무장을 시작으로 KSC (미주 한인 성령쇄신 전국봉사자 협의회) 사무국장으로 5년간 일했던 시간. 그리고 계속하여 성령기도회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저의 영적 여정은 느리지만 그래도 조금씩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동북부 성령봉사회 창립 요원, 또 미 동북부 첫 성령대회 조직원, 그리고 미 동북부 성령봉사회 회장으로 봉사했던 시간, 본당 성령기도회 회원으로 지금도 오직 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주님의 영이 저를 그만큼 강하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오렌지 성당’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 오렌지 성당은 저에게 참 큰 은혜의 샘이 되었습니다.

오렌지 성당 시절, 대건회 활동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즐겁고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개 40대에 속했던 그때, 본당 활동의 주축이었던 대건회원들의 단합대회는 정말 재미있고 끈끈한 정을 나누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Catskill, NY 그리고 Pocono, PA에서 가졌던 피정검 단합대회가 기억에 남아 있네요. Catskill에서는 짹짹했던 밤, 당시 사목회장님이셨던 임종학 회장님과 지영덕 회장님이 오셔서 Saxophone을 연주해 주셨던 멋진 밤으로 기억에 남아 있고, Pocono 단합대회에서는 당시 Roma에서 제1호 레지오 마리에 박사가 되신 최경룡 신부님께서 한국으로의 귀국 길이셨는데 밤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스스럼없이 놀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성삼일을 거쳐 장엄했던 부활절미사, 기다림의 간절함 속에서 주님 탄생의 기쁨을 나누었던 성탄미사, 박창득 몬시뇰 서임미사, 많은 피정, 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의 Antioch Retreat를 통한 우리 아이들의 성장 등... 성령쇄신운동과 함께 본당의 다양했던 활동들 안에서 부딪히고 함께하고 흘러갔던 시간이 이제는 저의 가슴 속에서 점점 아련하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부르심을 더욱 실감나게 기다리며 한 곳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갑니다. 언젠가는 하느님 나라에서 다시 모여 지상에서 특히 오렌지 성당에서의 일들을 얘기하며 마음껏 웃으며 행복을 나눌 시간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함께하였던 모든 분과 성당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면서 주님 안에서 옛정을 나누어 봅니다. 다시 한번 St. Andrew Kim Church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 사회의 등불이 되어 밝게 빛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느님

장수림 에피파니



천주교 신자가 아닌 개신교 신자와 결혼을 약속한 저는 관면혼배를 해 주실 신부님을 찾아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맨해튼 St. Francis of Assisi 성당에서 오랫동안 청년활동을 해 왔던 저에게 결혼과 동시에 다른 성당으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발렌티노는 6개월간의 교리 공부를 하던 중에 맨해튼 성당 신부님께서 뉴욕시 주례 라이선스가 없는 관계로 관면혼배를 앞두고 교적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2013년도 청년 레지오 마니피캇 봉사자였던 저는, 지도 신부님이셨던 김영민 미카엘 신부님과의 인연으로 메이플우드 성당으로 왔습니다. 많은 신자분께서 예비자 입교예식에 동참하시어 저와 예비자인 남편을 인도해 주시고, RCIA(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의 동반 봉사자들께서 교리와 삶의 나눔을 통해 발렌티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2022년 4월 19일 부활대축일, 발렌티노는 세례를 받았고 예비자에서 본당 공동체의 신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꽃인 새 신자로 주님의 초대를 받은 저희에게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개신교 신자였던 남편이 천주교로 개종한, 의미 깊고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부활대축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 도와주신 메이플우드 성당 신부님들 그리고 봉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고 기쁜 모습을 보여주는 성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홀로 31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제가 한 결정에 책임을 다하고자 혼신을 다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한 맨해튼 성당에서 청년레지오, 성령기도회, 꾸르실료, 청년회, 찬양팀 등등 여러 단체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며 희생정신으로 9년을 달려왔습니다. 되돌아보면 고단한 미국 생활은 저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체, 세상의 원리로



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외롭게 투쟁하였던 전쟁 같은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고되고 늘 저만 일하는 것 같고, 저만 봉사하고, 저만 열심히 한다는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민 생활에 대한 자괴감으로 때로는, 나보다 남들 시선에 맞춰진, 눈치 보는 미국의 삶에 회의감과 허무함이 난무했던 지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속절없이 흘러보내고 나니 결혼은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여유가 없던 저에게 하느님께서 반려자를 선물로 주셨고,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관면혼배, 남편의 세례로 축복하시며 교회의 50주년 역사와 함께 나아가는 시작을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총과 축복 안에서, 100주년을 바라보는 씨앗으로 하느님 구원 사업에 저희 부부를 도구로 쓰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성당 청년회를 도와 복음화 사업에 주력하고,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며 주님께 봉헌하는 삶과 미사 전례 및 이웃 사랑을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28일 Marriage Encounter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ME 여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우자를 향한 작은 노력들을 실천하고 가정 공동체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부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정을 이룬 요즘 더욱더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과 역사 안에서 함께 숨쉴 수 있도록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는 메이플우드 성당 신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 더 많은 체험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더욱 단단하고 하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느님 사랑에 응답하겠습니다. 선을 위한 우리 각자의 몫을 믿음으로써, 걱정과 염려를 하느님께 모두 맡기고 내 직분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이웃사랑을 나누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마다, 주님 사랑을 실천하던 천주교인들의 역사가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더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축복의 공동체

정정자 아네스



† 찬미 예수님 !

이 멋진 성전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으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기쁨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교우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이끌어주신 신앙의 선배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성전과 교우들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 가르침, 봉사를 해온 수많은 분이 계십니다. 계절 따라 꽃을 심고 잡초를 뽑으며 구석 구석 쓸고 닦은 손길들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눈이 즐겁고 마음이 행복할 수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안에서 신자인 우리는 성경공부, 성지순례, 피정 등 여러 가지 행사와 훈련과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차근차근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신앙의 세월 속에서 어느덧 내 나이가 칠십을 훌쩍 넘어 ‘아삶모’ 회원이 되었습니다. 아삶모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 안에서 봉사하면서 큰 보람과 감사함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하듯이 우리의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 더 그렇게 합시다.”(히브 10,24-25) 이 귀한 메시지를 되뇌이면서 감히 나누고 싶은 내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주축이 되시는 아삶모 어르신들의 신앙과 봉사와 사랑의 삶을 본받아서, 어린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 선한 삶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감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느님은 공짜를 모르십니다

봉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조은숙 루시아



뉴저지로 이사 오면서 7년간의 냉담생활을 벗어나 찾은 곳이 Montclair에 있던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였다. 그것이 1975년의 우리 본당의 이름이었다. 그 몇 달 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성체대회에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나였다. 그러다가 성령세미나를 다녀와서 너무 다른 사람이 된 남편의 모습에 감동하여 다음 해인 1980년 봄에 나도 다녀왔다.

비로소 나도 뭔가 교회에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창득 신부님께 전화를 드렸다. 그것이 박 신부님과 우리 인연의 첫 단추였다. 물론 그때는 그 만남이 나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될 지를 몰랐다. 꽃이 있는 곳에 오래 머물면 향이 배듯이 사람도 함께 있으면 그 향기가 배어드는 것인가 보다. 그분의 크심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새롭게 가슴을 친다. 그날 전화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라고 여쭙니까 주일학교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셨다. 교육자료를 찾고 교사들을 모아 시작한 주일학교의 자리를 잡아가는 일이 참 힘이 들었다. 잘 해내야 하는 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렇게 6년이 지난 1985년에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에서 수녀님들이 오셨다. 너무 힘들던 처지라 그 몇 달 후 수녀님께 떠말기 듯 손을 놓았다. 말으신 김 세바스찬 수녀님이 왜 종교생이 주일학교에 있느냐고 따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바로 같은 해 1986년에 Youth Group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일은 늘 쉽지 않다. 김정민, 정인석 등 몇몇 젊은이들이 학생회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어떻게 해야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감감했다. 묘한 상황들의 연결로 New Antioch이라는 학생 피정 얘기를 듣게 되었고 박 신부님의 적극적 지원으로 1987년에 첫 피정을 했다. 뭘 모르고 시작한 것이라 6개월을 애를 썼건만

준비가 너무 미비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때 홍해를 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홍해도 갈라주셨다. 피정을 2주 앞둔 우리에게 그 프로그램을 만든 Mandry 부부를 보내주셨다. Mandry 부부와 일했던 팀들이 와서 마지막 준비를 돕고 몇몇은 피정에도 함께해 주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그 첫 Antioch 피정에서 봉사했던 학생들 중 둘이 사제가 되었는데 바로 김정수 신부님과 이 마이클 신부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성당에 계셨던 평화의 마을 박 켄마 수녀님도, 살레시오 수녀회의 정 크리스티나 수녀님도 우리 본당 안티옥 출신이다. 살레시오회의 이데레사 수녀님을 비롯해서, 현 동북부 사제와 수도자 중의 많은 분이 학생으로 안티옥에 참석했거나 봉사자로 일했던 분들임을 생각할 때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느끼면서 가슴이 뭉클해진다.



≡ 1987 제1차 Antioch 학생 피정을 마치고

첫 Antioch 피정 진행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영어로 고백성사를 줄 수 있는 분이 박 신부님 한 분 뿐이었던 것이다. 주위 여러 미국 성당에 도움을 청했건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해에 엄두를 못 내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묘한 인연으로 Fr. Manuel Cruz (지금은 Essex County 담당 Bishop Cruz) 를 보내주셔서 거의 10년 동안 spiritual director로 도와주셨다. 덕분에 고백성사를 위해 오셨던 그분의 친구 신부님들을 통해 우리 본당의 활동이 교구 내에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실상 Youth Group을 맡아서, 매년 Antioch 피정 준비를 포함한 여러 행사를 운영하는 일이 주일학교의 일보다 훨씬 힘들었다. 오죽하면 우리 뒷집에 살던 원민희 씨가 박 신부님께 루시아에게 일 좀 그만 맡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와는 달리 일로만 생각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축복의 길이라는 감사의 마음이 컸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1992년에 내가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계



≡ 1993년 Seton Hall University에서 명예박사 수여식 후 (가운데 왼쪽이 글쓴이)

확하게 되어서 학생회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 말을 후임자를 어렵게 찾고 신부님께도 허락을 받은 며칠 후였다. 신부님이 부르시더니 그 후임자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연락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철렁하면서 눈앞이 하얘지는 듯했다.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의 계획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런 일이 있고 일년 후 내게 너무 의외의 전화가 걸려 왔다. Seton Hall University 총장의 전화였는데 내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는 전화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언뜻 깨달았다. 내가 직장에서 포기한 것 대신 넘치게 큰 명예로 갚으시는 하느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하느님께서서는 공짜를 모르시는 분, 정말 “되로 담아 드리면 말로 넘치게 흔들어 담아 주시는 분” 내 일생을 되돌아보면 하나 하나가 모두 하느님의 눈먼 사랑의 축복이었음이 이제는 환히 보인다.

Worldwide Marriage Encounter(ME) 일도 예외가 아니다. 1983년 뉴저지의 첫 ME 주말에 참석한 후 발표 신부님의 권유에 밀려 할 수 없이 발표팀으로 봉사하기로 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크나큰 선물의 통로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동분서주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는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밀린 병원 일로 마음이 조급했다. 그런데 오히려 일이 더 좋은 성과를 내면서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다. ME가 아니었다라면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관계로 남아 있었을 거고, 아이들과의 관계는 경직상태로 지금의 행복한 가족의 만남이 가능하지 못했을 거다.

교회에서 미사 참례하고, 여러 성사와 전례를 통해 받는 은총이 크다. 하지만 봉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그 어려움 속에 함께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몰랐을 거다. 그래서 나는 교회공동체가 마련해 주는 봉사의 기회가 크나큰 은총의 통로이고 참 행복의 길임을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의 젊은이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계속 회전하는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자신을 조용히 바라볼 여유가 없고,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된다는 강박관념으로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낼 엄두를 못 내는 것이 너무 딱하다. 실은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내면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몇 배로 갚아주시는데…。 바로 그 기쁨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신앙의 길을 앞서 걸은 우리들의 몫이고, 젊은이들을 위한 신앙과 봉사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라 믿는다.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라” 이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닌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깨달음에 마음이 조급해진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됐든 힘껏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살고 싶다. 내가 하느님께 불림을 받는 날 “루시아씨 덕분에 예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라고 말해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내 고향 우리집, 메이플우드 성당

지광오 바오로 - 세실리아 부부



1990년 오렌지 성당을 나가기 시작하여 2017년 애틀랜타로 이사와 지내고 있습니다. 오렌지 성당으로부터 메이플우드 성당까지 저희에게는 참으로 많은 은총을 받은 곳입니다.

교리 교사로서 15년간 매 주일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남보다 두 시간 먼저 커피를 준비해 집을 나섰습니다. 차편이 필요한 신자분을 모시고 성당을 향해 출발해서 예비신자 교리반 강의 준비를 하고 정리하는 일과 교리교육을 하며 예비신자들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일은 제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였습니다. 또 본당신부님의 배려로 가지고 있는 탠런트(talent)를 이용해 성당 이곳저곳을 손보면서 정말로 기쁨의 생활을 했습니다. 오렌지 성당에서는 기록사진을 수년간 찍었고, ME 가족들의 부부 사진을 찍으며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한다는 생각에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메이플우드로 이사 와서는 성당 내 오디오 시설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전문가가 좋은 장비를 설치했음에도 한 달 정도 지나면 잘 안 들린다고 교우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제점을 찾아 수정해 놓으면 한두 달 후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정말 수 없는 수정..., 심지어는 자리에 헤드폰까지 설치했었지요, 그 후론 컴플레인은 줄었지만, 여전히 불만은 있었습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즐겁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당 천장은 왜 그렇게 높은지, 성당의 제일 높은 등의 높이는 40ft가 넘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전구를 교체할 방법을 찾다가 신부님이 전구 교체 공구를 구입해 주셔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장비는 흔들거리고 성당 바닥은 약간의 경사가 있어 무

척 불안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나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을 잘 꾸며 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성당 일을 할 때 우리 집을 손 본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칭찬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모두 나를 위한 말이라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전구를 교체하고, 몇년 후 부터 전등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LED 등으로 교체하면서 40ft 위의 전등은 12ft 사다리를 놓고 그 위에 앉아 긴 장대로 정말 서커스를 하듯이 교체했습니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 힘이 들어 잠시 쉴 때면 도와주던 형제님들이 쉽게 할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시도해 보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일의 어려움을 인정했습니다.

메이플우드 성당에서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내가 봉사한 것보다 주님의 이끄심과 내게 주신 은총이 충만하였음을 느낍니다.

애틀랜타로 이사 올 때는 집을 구하는 일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오퍼를 여러번 했지만 안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마음에 쏙 드는 현재의 집을 마련하느라 그리 고생시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 성당에서는 일을 조금만 하면서 지금은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며 지냅니다. 하지만 주위의 이웃들이 저를 많이 필요로 하시어 핸디맨으로 일하며 교회 밖에서도 활동합니다.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게 천주교인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마음은 언제나 미국에서의 내 고향 메이플우드 성당을 그리며 지냅니다.



다시 오는 50년 준비하는 신앙의 산실

하상구 바오로



본당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회고하면 우리 본당과 그 신앙 공동체는 참으로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이는 주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믿지 않을 수가 없다. 50주년을 맞아 우리 모두의 가슴은 기쁨으로 뛰고 있으며, 이 기쁨을 주님께 바쳐드려야 마땅하지 않은가?

반백 년 전 박 몬시뇰께서는 소수의 평신도와 함께 작은 교회를 세우시고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사목활동을 시작하셨다. 그로부터 50년, 이방인의 변두리 교회였던 우리 성당이 주류사회의 한가운데 우뚝 서기까지는 어찌 인고의 세월이 없었겠는가? 박 몬시뇰께서는 미주 동포사목은 물론 북한 선교에도 열정을 쏟으셨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 땅의 끝은 북한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굶주리는 북한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셨다. 박 몬시뇰께서는 또한 동포사회는 물론 주류사회의 사제 부족 현실에 대비하시어 사제 배출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셨으며 ‘양업회’를 설립하여 독려한 결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많은 사제를 길러내셨다.

이 자랑스러운 본당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음은 주님의 은총이라 확신한다. 또한 살아 숨 쉬는 사랑의 코이노니아(koinonia)는 여러 단체 및 형제 자매들 삶의 공동체로 결속시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다.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교회의 미사까지도 정상적으로 올릴 수 없게 하였으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내고 다소 느슨해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이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모신 주님의 놀라운 이끄심이었으리라.

지난 반세기 동안 많은 신부님, 수도자, 역대 평협회장단을 포함한 평신도 여러분의 노고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으며 그분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이제 메이플우드 성당은 다시 오는 50년을 준비하는 신앙의 산실로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모든 고난과 시련은 하느님께 맡기고 힘차게 나아가자. “우리는 현재 속에서 믿기 때문에 미래를 희망할 수 있으며, 희망하기 때문에 현재 속에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한 ‘한스 쿽’의 말을 음미해 본다.

본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 이창분 화가

내 마음의 성지

(고) 한성신 도미나



1995년 7월 보스턴에서의 일이다. 그곳에 가게 된 연유는 여름캠프에 가 있던 내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치료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안절부절 걱정하시는 친정어머니도 그렇고 하여 주말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막상 도착하여 보니 그동안에 차도가 있어 아이는 기숙사로 돌아와 있었다. 어차피 주말을 함께 보내려고 작정했으니 하룻밤 아이의 외출 허가를 얻어 데리고 나와

우리과 함께 묵기로 했다.

다음날은 마침 주일이었다. 아침 식사는 호텔 뷔페에서 모두 맛있게 먹었다. 주일미사에 참례하려고 호텔에서 가까운 성당을 알아보았더니 바로 두 블록만 가면 된다는 얘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로 하였다. 화씨 96도, 유난히도 더운 날이었다. 그런데 반 블록도 채 못 가서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왔다. 아마 급체인가, 늘 아침을 거르던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보다 생각하며 천천히 걸어가는데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마침내 성당에 들어가 보니 그곳 역시 숨 막히게 더웠다. 에어컨이 고장이란다. 신부님께서는 연신 흐르는 땀을 닦아내시며 미사를 드리셨다. 미사가 끝날 즈음 내 가슴은 점점 더 쥐어짜는 듯 조여오고 어깨까지 아파져 왔다.

오후 세 시까지 아이를 다시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겨우 오전 열한 시였기 때문에 운동화를 사러 가기로 했다. 집에서 가져간 운동화가 너무 작아서 발이 아프다고 했기에... 생소한 곳에서 특정한 가게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 동네에 사는 듯한 노인에게 물었더니 친절하게 알려 주셨다. 보스턴 시내의 뉴베리 스트리트에 가면 상가들이 있다는 것과 자동차 주차가 힘들 것이니 바로 이곳에서 전철역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타고 가서 전철을 갈아타면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때쯤 너무 고통스러워진 나는 시내에 가면 우선 소화제라도 사 먹고 운동화를 사 주겠다고 마음먹으며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주일이라 그런지 승객도 별로 많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이는 앞자리에 그리고 남편과 나는 그 뒷자리에 앉았다. 버스 기사의 ‘전철역입니다’라는 안내 방송을 어렵듯이 들은 듯하다. 나는 마침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앰블런스 안이다. 나에게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는 가족의 놀란 얼굴과 구급대원들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다. 앰블런스는 경적을 울리며 달렸다. 평소에 자주 듣던 그 경적이 아주 멀고 생소하기만 했다. 그날 나는 그렇게 심장마비로 맥없이 쓰러졌다. 남편은 응급실에서 나의 소생을 확인하고 나서 아이를 안심시켜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그 밤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뉴저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텔레비전 같은 모니터가 열 개도 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제 동지를 떠나 외지의 병원에서 보낸 그 여드레 동안 나의 육신은 지치고 힘들었으며, 내 영혼은 고독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축복의 시간이기도 했다. 내 몸 속의 온갖 움직임과 상태가 숨김없이 계기의 그래프와 수치로 나타나는 모니터들 가운데서 마치 그 계기들이 나의 오만을, 독선을, 게으름을, 편견을, 건방짐을 그리고 나의 욕심을 내보이는 듯 느껴져서 나는 발가벗겨진 처녀처럼 부끄러움에 떨었다.

हे움을 칠 수 없을 땐 바닥을 쳐야 떠오를 수 있는 것처럼 삶의 벼랑 끝에 홀로 서게 되어서야 무언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다. 나를 알아주고 또 친절히 기다려준 많은 사람을 하나하나 떠올려보며 그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에 비해 나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또 한번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느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었다. 늘 안 들린다고 불평하며 내 말만 했었다. 언젠가 읽은 책(추락에서 날개로)에 이런 이야기가 있던 걸로 기억한다. ‘주님은 앞의 창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다른 쪽 창문을 열어 놓으신다’ 왜? 그걸 잊고 있었을까? 나는 왜 어려움에 당면할 때마다 그분이 열어두신 다른 창문을 찾으려 하지 않고 어둠 속에서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허우적대기만 하였을까? 특히,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처럼 생각하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일 때문에, 또 오해 때문에 소원해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가...

침묵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보잘것없이 약해지고, 작아지고 겸허해지니 주님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분의 부드러운 어루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그곳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다. 운이 역세게 좋았다고 말들 했지만,



나는 안다. 만약 내가 우리 차에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버스 기사의 무전기가 아니었다면 어찌 그렇게 금방 긴급 구조대가 올 수 있었을까? 왜? 하필 병원 가까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점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렇다,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것만이 나를 깨우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기에 말이다.

병원에서 돌아와 첫 출근을 하던 날 아침 나는 내 오피스가 있는 빌딩의 1층에 자리 잡은 ‘성 바오로 미디어 센터’에 들렀다. 주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곳은 바오로회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성물과 각종 카드, 성음악, 서적들을 판매하는 곳이다. 가게 뒤편에 약 열 명 정도 들어가 앉으면 꼭 찰만한 작은 채플이 있다. 그곳에는 감실이 모서져 있고 수녀님들이나 혹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잠깐씩 들어가 조배를 하는 곳이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내 마음은 뜨거워지고 마치 오랜 여행길에서 돌아와 앉은 나의 거실처럼 편안했다. 주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나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다. 내 오피스가 있는 6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만 타면 3분 안에 갈 수 있는 이곳을 나는 카드나 선물을 사러 갈 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추기경님께서 미사를 집전하러 오시는 날에만 겨우 들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날 이후 출근하는 날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곳에 들러 주님을 뵈는 다. 나의 일상사를 고자질하기도 하고 어떤 날엔 신세 한탄도 한다.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멍하니 앉아 바라만 보고 있다가 오기도 한다. 주님은 친절히 대답해 주시는 날도 있고 어떤 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도 나는 이제 그곳이 내 친정집의 어머니 방처럼 아주 익숙하고 편하다. 어려운 일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열쇠를 얻어내는 내 요술 오두막이기도 하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나는 의사의 지시대로 열심히 걸었다. 그리고 걷는 것이 수월해지자 열심히 뛰었다. 최고의 건강을 되찾은 나는 1999년부터 마라톤을 포함한 짧고 긴 경주를 매년 열댓 번쯤 하고 있다. 공원을 달리면서 자연과 함께 숨 쉬고, 그 아름다움에 감사하며, 거기에 계신 주님과 이야기한다. 내가 홀로 달릴 때, 침묵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더욱 잘 들린다. 성모송을, 주님의 기도를 수없이 드리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말이다. 내게는 병원도 공원도 작은 채플도 성지가 된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들을 수 있으니 말이다.

오 나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6



살며 생각하며

“Thou shall not kill”	Jonathan Chong / 294
“Human Life from Conception”	Lucy Cho / 296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재산	김기송 베드로 / 298
겨울 산행	김영수 토마스 무어 / 300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를 따라	김태호 시몬 / 302
아들을 따라 이 교회 저 교회로	문상민 안나 / 307
해바라기에게서 웃음과 겸손을 배운다	송의용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309
“세상 살다 보니” 지혜의 길도 보이더라	장홍수 노아 / 312
‘그리스도인의 가을 축제’	조남근 모이세 / 315
52주간 매일 성경 읽기를 마치며	한성신 도미나 / 320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한영국 올리아나 / 323

“Thou shall not kill”

A Letter to God

Jonathan Chong

Dear God,

“Thou shall not kill” ----- words straight from Your commandments. Yet why does my world refuses to listen to your words? I realize that I live in a society that values life so little. Nevertheless, I will refuse to accept their ways and I will strive to live out our prayer for life.

I must accept Your sacred words as Moses did when he descended from Mt. Sinai and I must cherish life as Your most precious gift ----- a gift we have no right taking. But I am confused, especially when so many tell me that the taking of a human life is okay. They try to cover their crimes with confusing names like euthanasia or abortion ... synonyms for murder. They try to tell me that human life is at times worthless as they execute criminals without questioning if they themselves are not free from sin. They try to tell me that killing my mother and father is okay when they are old and sick, even though they stood by me for so many years when I needed them. They try to tell me that innocent babies are fair game for this cruelty. Abortion is often exalted as a progressive movement in society.

Such headlines mock Mary, the symbol of women and the mother of the living, who nurtures all life. I pray to Mary, the mother of the living that watches over me from the womb until the day I die, to do the same for children abandoned by their mothers through abortions. Regardless of the sad news of society that proclaim that sex is something recreational and worth little, I must respect myself. I am intent



on maintaining celibacy before I am married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a life that I know I cannot yet handle, and whose solution is not murder. I will refuse to seek immoral support, but I will find You. No matter what troubles the future holds for me, I will respect the holy sanctity of life and never take my own.

I pray that you will guide me and lead me in my journey to eternal life in heaven. I cannot just accept the collapse of society. I must strive to change it. I live in a country whose founding principles were based on the inalienable rights of all to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yet, it allows the first to be continuously denied. I myself must become a leader and endeavor to change the minds of the others by becoming an active advocate in the pro-life movement----- a movement whose mere necessity is a tragedy itself.

Love,

Jonathan

February 12, 1996

NOTE: This essay won the first-place award in the Pro-Life Essay Contest for high school students. This contest was administered by the Respect Life Office of the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Newark in 1996.

Human Life from Conception

Lucy Cho

When I heard the arguments around the Roe vs. Wade case, I was curious about how the case developed. In the wake of the passing of Norma McCorvey, the plaintiff in the trial I came across an article in the Washington Post.

Norma McCorvey, grew up in an unfortunate environment, not being loved and in poverty, she had a troubled adolescence involved with drugs, alcohol, promiscuous sexual encounters, and expulsion from school in 9th grade. When she found herself pregnant, she went to a young female lawyer seeking a way to obtain an abortion. The lawyer, who had experienced abortion herself, decided to use Norma's situation (using the pseudonym Jane Roe) to advance her idea to the supreme court.

"Abortion is a free choice of a woman for her own body, so that abortion is not against the constitution" was the ruling of the court. Since that ruling in 1973, it has estimated about 50 million abortions have taken place in the United States. By the time the supreme court ruled on "Roe vs. Wade", Norma's child was born, adopted and two and a half years old. Even though Norma was used as the icon of "pro-choice", she changed her mind later and became a target of pro-choice women groups. She lived a lonely life and died alone in a nursing home.

Even after the overturning of "Roe vs. Wad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in June of 2022, there are many who insist that abortion is OK at least until the fetus reaches viability outside the uterus. Their reasoning is simple; there is no heartbeat or kicking. Therefore, the fetus is not a person. Does this argument have an acceptable basis?



A cell has 46 pairs of chromosomes but a sperm or an ovum has only one chromosome from each of 46 pairs. When coupling occurs, the fertilized cell has 46 pairs and ready to grow into a person, in the likeness of the parents. The embryo/fetus only needs a mother's womb that protects, and supplies oxygen and nutrients. A tadpole, even though different in the form from a frog, we agree that it has a full life of a frog. Likewise, from conception, a human embryo, even though not yet in a fully human form, is a human life. If a mother knowingly fails to protect, or intentionally deprives nutrients or oxygen to her child, it is a punishable crime. But pro-abortion advocates call the actual destruction, not only the deprivation, of her own baby in her womb 'a choice,' and claim it is a mother's right to destroy her own baby.

As any mother would do for her child, the only right that a pregnant mother has is to protect her baby in the womb. If we hear news that a mom killed her child, we would be enraged, "She is not even a human being!!". Just because one cannot see her own baby in the womb, can she claim "It is my choice to abort my own baby!"? In other words, "It is my right to kill my own child for my own convenience!"

Life belongs to God, only to God.

Translated and modified from an article written for Hankook Ilbo in 2017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재산

김기송 베드로



나의 아버지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장남인 나도 이곳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해마나 차례는 거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어느 해인가 바쁘다는 이유로 성의 없이 맥주 캔을 차례상에 올려놓았던 기억은 있지만... 하이라이트(Highlight)는 차례를 마친 후 음식을 나누며 조상님들의 추억담을 들려주는 일이다. 무엇보다 나는 아버지의 삶과 그 생활신조를 나의 세 아들 머릿속 깊숙이 심어주고 싶었던 것이 바람이었다.

나의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사실 손꼽을 정도이다. 별로 말이 없으신 아버지는 나만 쳐다보시면 늘 웃으셨다. 어려서부터 외지에 나가 공부하며 자란 아버지는 서울에서 경성제일고보(현, 경기고등학교 23회 졸)를 거쳐 도쿄의 릿쿄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영어 교사로 교편을 잡으셨다. 집에 돌아오시면 정원 가꾸시고 틈나는데로 음악을 듣고 계셨다. 특히 브람스 음악을 좋아하셨던 것 같다. 어렸을 때 별 생각 없이 들었던 것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 마치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자동 저장해 놓은 것처럼, 내가 성인이 되었어도 곡명을 쉽게 알 수 있었다.

8·15 해방이 되고 몇 년 후, 우리 고장 함흥 일대에는 이름 모를 전염병(장티푸스, 호열자?)이 만연되어 매일 수많은 이웃이 죽어 나갔다. 이 병에는 예방 주사나 적절한 약도 없었으며 환자들은 도회지 멀리 외딴곳에 격리 수용되었고 그곳 시설과 보급품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어느 추운 겨울, 이른 새벽으로 기억한다. 잠결에 추위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덮고 자던 두꺼운 솜이불이 없어짐을 알게 되었고, 밖에서는 아버지가 조그마한 트럭에 짐을 싣고 계셨다. 나는 시골에 있는 우리 과수원에 아버지를 따라 차를 타고 몇 번 갔



던 희미한 기억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같이 가자고 졸라댔으나, 결국 아버지는 트럭을 타고 떠나셨다. 트럭이 멀리 보일 때까지 울면서 서 있었던 기억이 선하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작별이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돌아오시면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의류, 이불 등 일상 생필품을 얻어 모아 두었다가 격리 수용소에 있는 전염병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바로 이날도 과수원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격리 수용소에 가셨으며, 우리가 덮고 자던 솜이불 마저 들고 가셨다. 이렇게 자진 봉사하며 수용소를 드나 들면서 전염병에 걸려 얼마 후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 집 뒷마당에서 아버지의 소지품, 옷 등을 불에 태워 버릴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음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환자에게 접근을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일곱 살 배기 어린애였던 나는 그 당시 아버지의 죽음을 전혀 실감할 수가 없었다. 그때 아버지 나이 39세, 한창 젊고 꿈이 많았던 시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는 자신과 가족을 뒷전에 두고 어려운 이웃을 먼저 택하신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의 희생정신을 사랑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나의 아버지 죽음의 참된 의미를 진정 이해할 수가 있었다. 말없이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 주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 존경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가슴이 뻗뻗함을 느낀다.

그 후 6·25사변이 일어나자 엔지니어셨던 작은 아버지(윤호 삼촌)도 서울 라디오 방송을 몰래 들었다는 이유로 공산당원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 마침 서울에서 서울대 졸업반 재학 중이던 막내 삼촌만이 혼자 살아남게 되셨다. (현재 North Carolina 대학교수)

이렇게 그 당시는 여러모로 매우 어려웠고 어두웠던 시절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얼마 동안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렸고 아버지의 삶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인지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르 12,31)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다시 묵상하며 언젠가는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갈 때, 그곳에서 나의 아버지를 꼭 상봉할 수 있기를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리고 있다.

겨울 산행

(고) 김영수 토마스 무어



가을산을 오르면서
아내는 고향간다 한다.

흰눈 덮고 누운
처녀적 오랜 메아리

뾰드득
발자국 소리에
적막하듯 깨어나는

사교춤을 같이 배우자 해도 손사래 치고, 심신 건강에 좋다는 골프를 배우자 해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미루기만 하더니 ‘등산’ 이야기가 나오니 금새 상기된 목소리로 “이번 일요일은 고향 간다” 한다. 타관살이를 많이 해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고향간다’는 말만큼 기쁨에 들뜬 말이 있을까? 하물며 외지 생활 20년이 넘도록 조국땅을 한번도 밟아 본일이 없는 사람이고 보니 그 고향은 예사 고향이 아닐 것이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리운 곳. 마음 속 깊은 곳에 소중히 간수하는 향수 같은 것인데, 얼마나 아련하게 향수적이길래 ‘등산간다’는 말 대신 대뜸 ‘고향간다’는 말이 튀어 나왔을까? 그것은 어쩌면 나 몰래 다락방 같은 곳을 만들어 두곤 그곳에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사진첩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그러나 이곳 생활의 부부란 그야말로 바늘 가는데 실 가는 사이라 몰래카메라에 들키고 자시고할 사연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 고향 같은 것은 무엇일까? 몸살 감기 기운으로 동행하지 못하고 집에 혼자 앉아 심심풀이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 본 것이다.

연애시절에도 고독한 철인을 좋아하던 아기씨가 산의 침묵은 얼마나 좋아할까? 산행 중에



서도 겨울 산행이 제일 좋다는 말에는 저런 산의 깊은 침묵과 쓸쓸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이지 청빈의 빛인 겨울하늘을 양팔 들어 받치듯 기도하는 나무들의 텅빈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마음 다하여 지향하고픈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사는 겨울산을 오르는 저 지극한 청복, 그러나 이 말을 잠시 우스갯소리로 바꿔보자면, 늘그막에 새 애인이 생겨 얼마나 신날까? 자연히 활기찰 수 밖에 없는 집사람의 발걸음을 보면서 질투는 무슨 질투, 나도 덩달아 흐뭇할 뿐이다.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 따라

김태호 시몬

2006년 9월 20일, 뉴턴 수도원장 김구인 신부님과 이관우 부제님과 함께 22명의 성지순례단이 케네디공항에서 터키 이스탄불로 출발하였다. 이스탄불공항에 도착하니 라파엘 형제가 마중 나와 있었다. 라파엘 형제의 안내로 우리는 ‘톱카프’ 궁전으로 갔다. 오스만튀루키예의 술탄이 400여 년을 살았다는 곳이다. 길 건너편에는 이스탄불에서 제일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과 이슬람의 ‘블르모스크’가 보였다. 성 소피아 성당은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서 깊은 비잔틴 시대 건물이며 1,500여 년 동안 지진에도 살아남은 건축물이다.

항공편으로 이스탄불에서 아다나로 이동하여 다음날 아침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로 향하였다.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도로를 따라가다 ‘타우르스’산맥으로 접어들었다. 이 산맥은 사도 바오로께서 예루살렘에 오갈 때,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넘으셨던 험준한 산맥이다. 안티오키아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막료가 세운 셀레우코스왕조의 수도로 기원전 2세기에는 인구 50만 명의 큰 도시로 중동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사도 바오로의 해외 선교 여행의 거점 역할을 했고 ‘그리스도인’이란 명칭이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스테파노의 순교 이후 그리스 유다계 그리스도인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후대 2~7세기에는 신학의 양대 산맥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시리아 안티오키아 학파의 중심도시이기도 하다.

우리는 바오로의 고향인 ‘타르수스’로 갔다. 바오로는 회심 후 3년이 지난 36년 경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약 8년 동안 지냈다고 한다. 44년 경 바르나바의 초빙으로 안티오키아로 떠나기 전까지 살았다고 추정되는 곳에 이르니 바오로에 대한 환상이 현실로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카파도키아’, 이곳은 지질학적으로 2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3,916m의 ‘에르지에르’산이 형성되었으며 흘러내린 용암이 수백 km를 덮었던 곳이라고 한다.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버섯 모양의 커다란 기둥들이 기기묘묘한 형상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는 선사시대부터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았다고 한다. 특히 로마 시대 박해가 심해지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은신처가 되었으며 이 지역에 300여 개의 동굴 교회가 있고 아직도 여러 교회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 순례지는 ‘피시디아 안티오키아’이다. 바르나바와 바오로가 떠난 제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다녀온 시리아의 안티오키아를 떠나 키프로스섬을 거쳐 지중해 연안 페르게, 그리고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이른다. 페르게에서 안티오키아까지는 199km터인데 험난한 타우루스산맥을 넘어야 한다. 바오로는 이때 상황을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늘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에게서 오는 위험, 이민족에게서 오는 위험…. 위험이 뒤따랐습니다.”(2코린 11,26)

우리 순례단은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 도착하였다. 매표소에서 올려다보이는 유적은 돌로 포장된 로마식 대로, 즉 까르도였고 옛 안티오키아의 중심도로이며 바오로 사도께서 지나다니셨을 길이다. 그 유서 깊은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니 왼편으로 유대인 회당자리가 있었다.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율법과 예언서 봉독이 끝나자 회당장의 초대로 강단에 선 바오로는 탈출기로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이신 구원자 예수를 증언하셨다. 그다음 안식일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전한다.(사도 13,14-52)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된 후 325년 처음 지어졌다는 바오로 기념 성당 터도 보였다. 고원지대의 거친 풀밭을 헤치고 돌을 주워 모아 제대를 만들고 들꽃 몇 송이를 꺾어 그 위에 올려놓고, 이곳에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격의 미사를 드렸다.

다음은 휴양 도시인 이탈리아를 지나 ‘미라’로 출발하였다. 우리가 탄 버스는 아름다운 지중해, 투명한 청록색의 은빛 반짝이는 잔잔한 바다를 내려다보며 한 시간여 만에 미라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사목하신 니콜라스 성인에 의하여 산타클로스의 역사가 탄생한 곳이다. 이곳 미라는 사도 바오로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잠깐 머물렀던 곳이다. 미라를 떠나 ‘파묵칼레’란 곳에서 묵었다. 소아시아 7대 교회 중 하나인 히에라폴리스인 이곳은 온천수가 지금도 유명한 곳으로 눈과 피부, 관절염, 피부병, 천식 등에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로마 시대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병 치료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한다.

히에라폴리스(파묵칼레)부터 시작하여 ‘에페소’에 이르기까지 묵시록에 나오는 일곱교회 순례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라오디케이아’ 교회는 묵시록에서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묵시 3,16)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히에라폴리스로부터 흘러온 온천수가 식어 뜨뜻미지근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라오디케이아’, ‘콜로새’, ‘히에라폴리스’ 교회는 서로 20km미터 거리 안에 있으며 바오로의 제자인 ‘에파프라스’가 창립한 교회

들이다. 이어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로 갔다. “너는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묵시 3,7-13)라고 일곱 교회 중 가장 큰 칭찬을 받은 곳이다. 지금 남아 있는 유적은 6세기에 세워진 성 요한 기념 성당으로 사방 4미터 높이 10여 미터의 커다란 벽돌 기둥 두 개만 남아 있다. 다음에는 ‘사르디스’ 교회로 갔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름뿐 너는 죽어 있다”(묵시 3,1-6)고 질책받은 교회이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계곡으로 들어가니 왼쪽으로 커다란 신전이 보였다. 이 신전은 BC 550년경 건설을 시작했지만, 이오니아인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복구하였다. 지금은 땅 위에 기초석과 앞쪽으로 돌벽이 몇 줄 남아 있을 뿐이다.

다음은 ‘티아티라’ 교회로 갔다. 칭찬과 질책을 동시에 받은 티아티라 교회는 지금은 폐허가 된 자리에 교회 역사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필립보에서 바오로를 만난 후 사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자색 옷감 장수 리디아의 고향이기도 하다. 다음 도착지 ‘페르가몬’은 로마제국의 아시아 지방 수도였던 중요한 도시였으며 여신 ‘세라피스’를 모시는 거대한 신전을 개조하여 성 요한에게 봉헌한 대성당 유적을 비롯하여 아크로폴리스에는 로마식 극장, 주랑이 이어진 스토아, 도서관 유적이 있었다. 제우스 신전 유적은 베를린 박물관으로 옮겨 복원되었다고 한다.

다음 순례지는 아시아의 꽃이라 불린 항구도시 ‘스미르나’이다. 순례단은 성 폴리카르포 주교 기념 성당으로 갔다. ‘폴리카르포’ 성인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스미르나의 주교 시절이던 서기 155년 90세의 나이로 순교하실 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를 경쟁적으로 하였는데 황제 숭배를 강요받은 성인께서는 “그분을 섬긴 지가 90년이오, 그분이 저에게 잘못하신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소. 그러니 저를 구원하신 제 임금님을 어떻게 배신 할 수가 있겠소”(순교록 9,3)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기둥에 묶여 화형을 당해 순교하셨다.

터키에서 마지막 여행지인 ‘에페소’에 이르렀다. 이곳은 사도 바오로가 2차 선교 여행(50~52년경) 때 교회를 설립하였고, 3차 선교 여행(53~58년경) 때에는 무려 27개월 가까이 머물며 선교하였다.(사도 19,8-10) 에페소에서는 “큰 문이 나에게 열려 있습니다”(1코린 16,9)라고 바오로 자신이 말할 만큼 선교가 잘 되었다. 바오로는 에페소에서 여러 곳의 신자들에게 사목 서간을 썼다. 갈라티아 서간과 코린토에는 세 통의 편지를 썼는데 첫째 편지는 분실되었고, 둘째 편지는 전체가 고스란히 전해지며, 셋째 편지(일명 눈물 편지)는 일부



≡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캔크레아 항구

만 전해진다. 바오로는 로마군 부대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필리피 교우들에게 그리고 콜로세 교우 필레몬에게 옥중서한을 써 보냈다. 에페소는 바오로의 가장 활발한 선교의 무대였으며 90~150년경에는 요한계 교회들의 주 활동

무대였다는 것을 요한묵시록(묵시 2-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해 알려진 바로는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에페소로 100년경 돌아와 운명하시고 묻힌 무덤 위에 요한 성당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431년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 시절에는 공의회가 이곳 에페소 성모마리아 성당에서 개최되어 성모님께 ‘하느님을 낳으신 분(Theotokos)’이라는 존칭을 드리기로 하였다.

터키 순례를 마치고 ‘쿠사다시’ 항구에서 출국 수속을 하고 배편으로 ‘파트모스’섬으로 출발하였다. 투명한 청록색의 반짝이는 잔잔한 바다,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온화한 바닷바람, 점점이 떠 있는 섬들, 4시간여의 바닷길에 아무도 배멀미하지 않고 파트모스섬 스칼라 항구에 도착하였다. 언덕에 웅기종기 자리 잡고 있는 하얀 집들과 그 정상에 우뚝 솟아있는 성 요한 수도원, 오늘 우리가 방문할 곳이다. 이 섬의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젖어 어느새 이곳에 이르렀는지 모르게 정상에 서 있었다. 12km미터 길이의 좁고 기다란 섬은 바다에 떠 있는 한 폭의 그림이었다. 수도원을 돌아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층계를 따라가면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는 동굴이 있다. 동굴 앞에는 요한과 제자 ‘프로코로스’가 묵시록을 받아쓰는 모자이크 그림이 있다. 성스러운 이 섬은 신비스럽고 온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명상과 영적 쇄신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우리 일행은 에게해를 건너는 밤 배를 타고 ‘아테네’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아레오파고스

로 갔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오로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있는 작은 바위 언덕인 아레오파고스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였더니 문화 시민이라는 아테네 사람들은 비웃기만 하였고 단지 몇몇 사람이 바오로 편이 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 그중에는 ‘아레오파고스’ 의회 의원인 ‘디오니시오’를 비롯하여 ‘다마리스’라는 여자와 그 밖에 몇 사람이 더 있었다.(사도 17,16-34) 사도 바오로도 우리 일행이 걸은 이 길을 따라 아크로폴리스를 둘러보았으리라. 우리 순례단은 아테네를 떠나 코린토에 왔다.

코린토에서 사도 바오로가 58년경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사도 20,3) 자신의 신앙관을 총 정리하는 글을 썼다. 그것이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다. 지진으로 무너진 돌들이 넓은 지역에 널려있고 옥타비아 신전과 아폴로 신전의 돌기둥이 몇 개씩 남아 있다. 유대인들이 바오로를 끌고 가 ‘갈리오’ 총독에게 고발한 장소도 이 신전들 건너편에 있다. 아득히 먼 2000년 전 사도 바오로의 흔적을 찾아 떠난 순례의 마지막 목적지인 ‘켄크레아’ 항구에서 교우들의 전송을 받으며 예루살렘과 로마로 마지막 선교의 길을 떠나시는, 지평선 저 멀리 멀어지는 사도 바오로의 모습을 몇 번이고 그려보며 뒤돌아보던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 브라이스 캐년 - 미국 유타주



아들을 따라 이 교회 저 교회로

문상민 안내

우리 아들 에릭(Eric)은 유아원(Nursery)에 다닐 때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폐증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가 매우 부족했습니다. 에릭이 어릴 적부터 거의 20년을 오렌지 성당에 다녔는데, 자폐증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아들이 무척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당의 청소년 단체인 유스그룹에서 캠핑하러 갈 때는 신부님을 통해서 에릭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카운셀러에게 부탁도 해보았지만, 내게는 늘 혼자인 듯 싶은 아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내내 특수반(special education class)이라는 보호받는 환경에서 공부했던 에릭에게 대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기란 무척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순진한 에릭에게 고의로 접근해서 이용하는 나쁜 친구들에게서 여러 번 상처를 받은 후로는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맨해튼으로 이사해서 그곳 성당에 다니다가 한국으로 가서 8년을 지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브루클린에 자리 잡았습니다. 가톨릭 신앙이 몸에 밴 우리 부부는 어른이 된 에릭을 데리고 여러 성당을 방황했습니다. 한국 성당뿐만 아니고 미국 성당도 여러 곳을 찾아 갔지만, 에릭을 반갑게 맞아주는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을 찾아 의논드리면 하나같이 부담스러워하시며 기도하겠다는 말로 대신하셨습니다. 도울 길이 없어서 부담스러우신 거라고 이해하는 마음에 앞서 거절당한다는 서운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툰 곳에서 어색해하는 우리를 본 듯 만 듯 냉랭하게 대하는 신자들에게도 실망했고, 그런 성당을 이리저리 방황해야 하는 우리 상황에 대해 몰려오는 좌절감과 싸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개신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따로 있는데 기타도 치면서 신명나게 성가를 부르는 것이 에릭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사에 참례했을 때와는 달리 편짚하거나 아예 잠들어버리지 않는 에릭이 고마웠습니다. 또한 에릭에게 그

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교회가 있다는 게 다행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아져요”라고 위로해 주는 목사님의 말씀이 반가웠고 에릭을 아는 척 대해 주는 신자들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집 근처에 있던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곳의 목사님(David Westcott)께서 가장 좋은 영성책은 가톨릭 교회에서 책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면서, 저보고 묵주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셨던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에릭이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대화하며 상담해 주신 것은 잊을 수없는 감사한 일입니다.

개신교에 와서 보니 이 신자들은 무척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신자를 영입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쏟는 것이 놀랍고, 신자들이 십일조의 헌금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놀라면서 옛날 우리가 성당에 몸담고 있을 때의 자세를 부끄러운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개신교에서 가톨릭교회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을 따라서 가톨릭교회를 떠나 개신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친정을 찾아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 마음에는 서운함과 아쉬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른들과 어울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에릭을 위해 젊은 이들 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같은 사랑으로 감싸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손길이 항상 함께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친정에 돌아가 환영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날 밤에 박창득 어거스틴 문시놀께서 꿈에 찾아 주신 것도 무슨 뜻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 문시놀께서 일부러 연락을 주시고 에릭을 위하여 명륜동 서울대신학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주시던 생각이 납니다.

해바라기에게 웃음, 경손 배우다

송의용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저는 사교성, 인사성이 퍽 없는 편입니다. 잘 웃지도 않습니다(못합니다). 아마도 6·25 때 어린 나이(5세)에 대전에서 대구로 피난 가서 이재민촌 생활에 이어 낮설고 말설은 타향살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동안 학교를 여섯 번이나 옮기는 불안정과 긴장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굳은’ 체질이 되었으리라 짐작합니다. 말부터 충청도 ‘양반’의 느릿한 말투는, 경상도 ‘문디’들에게는 재미있는 놀림감이었을 것

입니다. 그러니 말도 적어지고 늘 긴장하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에 웃을 일이 없어 웃음을 배우지 못했으니 커서도 웃음에 퍽 인색합니다. 아주 가끔씩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사진 찍을 때조차 인상을 쓰는 표정입니다. 가족들이 하도 나무라서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정말 잘 되질 않습니다. 어쩌다 웃는 사진은 정말 어색합니다. 눈이 증발해버려 눈사람 마냥 찢어진 자욱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웃음을 잊고 삽니다.

저는 출퇴근 때 ‘의사의 지시로’ 일부러 차를 멀리 주차 해놓고 좀 먼 거리를 걸어갑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줄 알면서도 운동을 ‘죽어라고’ 하질 않으니 의사가 하도 기가차서 출퇴근 때 ‘10분 걷기 운동’이라도 하라고 그런 처방을 했나 봅니다. 출근길에 걷다보면 길 옆 가정집들 앞뜰에 서 계시는 자그마한 예수님상이나 성모자상, 성모님상을 자연스레 만납니다. 일부러 걸음을 멈추고 성호경을 긋고 주모경을 바칩니다. 저는 그때도 웃질 않습니다.

그런 제가 요즘은 혼자서 활짝 웃을 때가 있습니다. 출근길 어느 집 성모자상이 있는 앞뜰에 해바라기가 화~~~안하게 웃고 인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감정이 메마르고 표정이 없는 저도 이 해바라기가 먼저 저를 보고는 360도로 활짝 웃는 웃음에는 웃음으로 화답하



≡ 출근길 어느 집 성모자상이 있는 앞뜰에 해바라기가 360도로 입을 벌여 화안하게 웃으며 깊게깊게 허리 굽혀 공손히 인사하고 있다. 나도 따라 웃으며 고개 숙여 인사한다.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이 해바라기는 꽃이 커서 그런지 거의 150도 정도로 허리를 깊게깊게 굽혀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저도 따라서 허리를 깊게 굽혀 절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그 때는 저도 웃습니다.

저는 이 ‘기쁜’ 해바라기 앞에서 주모경을 바치며 성모님과 주님께 저도 이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을 수 있는 기운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해바라기는 부끄러운 듯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입을 가리고 더 크게 웃습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할아버지, 웃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지어내는 거랍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햇님과 빗님, 땅을 통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찡그리며 살아가든, 웃으며 살아가든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그래,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찡그려라, 웃어라 하는 것까지 정해 주시지는 않으시겠지. 웃고 찡그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니 웃을 일

도 이유도 별로 없는 것처럼, 반대로 찡그릴 일도 이유도 별로 심각하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바라기를 보며 그저 마음이 밝아져 웃으며 감사를 보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웃어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번 주일 복음[루카 14장10~11절] “너는 초대를 받거든 오히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를 묵상합니다. 이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은 겸손, 겸허를 뜻하는 듯합니다. 저의 본



명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입니다. 본명이 좀 길어 누가 부를 때나 무슨 서류에 적어 넣을 때 자리가 부족한 불편이 있으나 저는 저의 본명에 대해 부끄러움 속에서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17세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성인들 중 한분으로 ‘교회학자, 주교’입니다. 성인께서는 특히 ‘겸손하라’고 가르치시며, 인간이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덕 중에서 가장 어려운 최종 관문이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기독교 저술가 Tim Challies는 《겸손한 사람의 10가지 특징》이라는 저서에서 “자만이란 최악의 죄악이고, 겸손은 최선의 미덕이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자만을 죽이고 겸손의 아름다움을 삶에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근거하여 겸손의 성품이 자라고 있다는 10가지 확실한 표지로

- ①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여긴다
- ②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여긴다
- ③ 자신의 영적훈련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린다
- ④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불평한다
- ⑤ 역경이 왔을 때 주님을 찬송한다
- ⑥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
- ⑦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들인다
- ⑧ 타인에게 자신이 가려져도 만족한다
- ⑨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보신다는 상황을 받아들인다
- ⑩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고 가장 낮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리지드(Jerry Bridges)는 “겸손이란 최고의 영성에 추가로 붙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는 ‘실천’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저는 오늘의 복음을 묵상하며 위대한 저술가가 가르쳐준 10가지 표지를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 행동으로 길옆의 해바라기가 낮모르는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허리 숙여 인사하듯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먼저 고개 숙여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하루 만드십시오”라고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깨우침과 웃음을 주신 해바라기님, 감사, 감사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 지혜의 길도 보이더라

장홍수 노아



‘세월은 쏘아 놓은 화살 같다’고 하기도 하고, ‘무정하다’ 고 도하고,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다’ 고 하기도 한다. 그런데 세상을 힘들게 살았던, 즐겁게 살았던, 상관없이 지나고 보면 누구에게나 세월은 참으로 빨리도 흘러간다.

70세가 넘어도 흰머리가 나오지 않고 검은 머리를 유지하셔서 오래오래 사실 것으로 생각되었던 정정하신 아버님이 70대 초반에 위암으로 6개월 만에 돌아가셔서 두 살 아래 어머니께 아버지 뵙까지 당부드렸는데, 16년을 더 사시고 몇 해 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지나고 보니 역시 16년 세월도 금방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20년 남짓 남아 있는 세월도 금방 지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요즘은 요령을 피워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최대한 하루 시간을 많이 늘려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지나고 보면 역시 금방 지나간 세월이 될 것이다.

그동안 주님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발바닥 신자로서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나 자신이지만 나름 그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느낀 짧은 생각들을 두서없이 주섬주섬 나열하면서 나 자신을 반성해 보고자 한다. 우리 주위의 보통 사람들은 참 신의가 없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잇값을 해야 하는데 약속도 쉽게 어기고 본인 편한 대로 살아가니 이제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았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나잇값을 해야 한다는 말이 어렴풋이 이해가 간다.

그래서 나 자신은 사람을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해 보았다.

Baby : 신의가 없고 생각과 행동이 짧다고 여겨지는 부류.

Hi! : Baby 정도는 아닌 보통 사람들 부류.

Sir/ Madam : 행동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부류.



5년 전에 구분해 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럴듯하다. 학벌, 나이, 경력에 상관없이 잘난 사람은 부지런한 자, 참을성 있는 자, 겸손한 자, 용기있는 자가 아닌가 싶다.

모든 순간이 귀하다. 따라서 매사에 감사하다. 그런데 솔직히 악연을 만날 때는 만사가 즐겁더라도 감사하지는 않다. 살아 보니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소인배들이다. 넓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는 신속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생각과 행동에 짧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음식을 가려 먹고 비 올 때는 진흙탕물을 피해 가듯이 사람도 가릴 필요가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미 마음에서 보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이 항상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리더는 비빔밥을 잘 만드는 사람이다. 비빔밥, 여러 가지 나물에 야채도 넣고 고소한 참기름과 매운 고추장을 함께 넣고 밥과 함께 맛있게 착착 비벼 나간다. 이 얼마나 맛있는 비빔밥인가? 그래서 리더는 일용할 양식인 밥(VAP)을 주는 사람이다. 밥(VAP)이란 무엇인가? Vision을 제시하고, Attractive하게 도덕적이며 인간적인 멋도 있고, Problem solving하는 능력도 있어 존경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매일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먹는 밥이든 영적인 밥이든... 밥을 만들어 주는 리더가 되자. 행복한 자가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사는 자가 행복하다고 한다. 행복을 이루는 최고의 경지는 나 자신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남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고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자유스럽고 거칠 것이 없는 상태이기에 남을 미워하거나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다. 남을 축복해 주고 나 자신도 스스로 축복하는 평화와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고 혹시 걸쳐지는 장애물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고 앞을 나아간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역사가 창조된다는 의미다. 내가 만들어 나가면 그것이 역사가 된다. 세상사가 생물과 같아서 살아서 움직이고 계속 변하고 있으니 현재만이 아닌 미래를 잘 예측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사는 독불장군이 없고 항상 대항마가 있으니 겸손하게 관망하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제갈공명에겐 사마의, 항우에게는 유방이 있는 것처럼. Incomplete Completion! 미완성 속의 완성이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다. 완벽하게만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완성이라는 의미이다. 최선을 다한 미완성! 하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면

이것도 ‘완성’으로 처리하고 싶다. As an incomplete completion으로! 정상을 향해 준비하고 다가가는 과정! 그런데 정상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 산꼭대기가 하나만 있나? 낮은 산, 높은 산 각각 정상이 있고 각기 독특한 멋과 매력이 있다. 가수도 각기 다른 가창력을 가지고 매력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은가? 작은 정상에 오름도 항상 감사하다.

내 마음에 평화를 유지하며 평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자신이 대견스럽다. 그렇다! 나 자신이 서럽고 외롭고 힘들다고 느끼면 그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뿐이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다. 내가 힘이 있고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우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어찌 외롭고 힘들겠는가? 따라서 나 자신을 강하고 부드럽고 형평을 잃지 않고 두루두루 넓고 깊이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겠다.

말만 무성하게 잔치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는 징과 같네. 그 사람의 참 모습 가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힘이라네. 사랑은 주는 것!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이 연민이든 가식이든 주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하는 행동은 아니라네. 크든 작든 베풀어주는 행동은 사랑을 실천하는 고귀한 행동이라는 것이 세월을 지내면서 더욱 느껴지네! 좀 더 성숙하고 깊이 나가는 삶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가치인 것을.

행복은 두 가지로 느껴진다. 하나는 상대적이지요 또 하나는 주관적이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더 큰 불편함을 만나면 그때가 행복했었구나 하는 상대적인 평가다. 그런데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 정도는 주관적인 개인의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이나 불편함도 나에게서는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받아들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갈라진다. 상대적이지요 주관적인 행복 평가를 행복한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자 반성하고 매일매일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역부족을 느끼며 살아오고 있으며 힘이 들 때마다 주님! 성모님!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며 살아오고 있다. 감히 주님 성모님을 찾기에 가당치도 않지만.

하지만 주님! 성모님! 저희의 잘못을 헤아리신다면 끝이 없겠으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과 성모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을 축제

구원의 속죄 기간과 초막절에 선포하신 ‘생수의 강’

조남근 모이세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창립일과 한가위가 함께 찾아오는 9월의 미국 달력을 보면 Rosh-Hashanah와 열흘 뒤에는 Yom-Kippur라고 매년 적혀 있다. 두 날은 유대력으로 신년과 속죄일이다. 히브리어를 영어로 표기한 것이라서 유대인만을 위한 기념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신앙인에게는 예수께서 직접 당신의 신원을 ‘그리스도’(메시아)로 선언하신 특별한 ‘때’이다.

2022년 경우 9월 26일이 Rosh-Hashanah(‘한 해의 머리’라는 의미)인데 그날로부터 시작되는 가을 축제는 오랜 건기 동안 따가운 햇빛 아래 잘 익은 포도, 대추야자, 무화과 수확을 감사드리는 동시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짧은 우기 동안 하늘이 열려 이른 비로부터 늦은 비까지 넉넉하게 비를 내려 주시기를 하느님께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때’이다.

신년과 초막절로 대표되는 가을 축제는 구약의 3대 순례 축제인 과월절(해방절, Passover), 오순절(Shavuot), 초막절(Sukkot)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성전 순례를 하던 축제이며 레위기에서는 초막절을 ‘주님의 축제’라고 한다.

주님의 축제인 초막절 8일 동안 주교받는 인사말은 하그 싸메아(Hag-sha-meah)인데, 직역하면 ‘축제를 만나다.’ 즉 ‘축제를 실천하다.’이다. 구약에서 축제를 실천한다는 것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의미이다. 신명기 저자는 백성이 성전에서 할 일은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신명 12,18,16,11,27,7)이라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강조한다. 곧 전례의 본질은 잔치이며 백성은 그 잔치에서 기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솔로몬 임금의 첫 성전 봉헌식 광경을 묘사한 열왕기 상권 8장을 보면 일곱째 달의 축제 곧 초막절에 주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백성의 큰 회중을 모아 기도하며 재물을 넉넉히 봉헌하고 성대한 ‘학을 하였다’(축제를 지냈다)고 전하는데, 본문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축제는 조용히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많은 백성이 참여하여 크고 떠들썩한 분위기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잔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막성 지중해 기후로 건기, 우기가 교차하는 시기인 봄과 가을 축제를 비교해 보면 가을 축제 때만 드리던 특별한 성전 전례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희생제물을 드린 숫자도 봄 축제보다 가을 축제가 훨씬 풍성하였다. 또 축제 기간이 신년제로부터 속죄일을 거쳐 초막절까지 3주일 동안 길게 이어졌다.

신년제는 성전에서 뿔나팔(Shofar) 부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팔제라고도 한다. 유대인은 초막(Sukah)을 짓고 탈출기의 광야에서 하느님의 보호를 되새기고, 느헤미야 8장 말씀대로 사과를 달콤한 꿀에 찍어 먹으며 하느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뿔나팔 소리를 신호 삼아 하느님과의 계약을 기억하고, 죄의 잠에서 깨어 회개하는 열흘간의 속죄 기간이 시작된다. 속죄 기간 열흘째를 속죄일(Yom-Kippur)이라 하는데 그날은 온종일 단식과 기도를 드리며 성전에서 대사제 주관으로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예식과 희생 염소 예식을 한다. 희생 염소 예식을 설명하면 예식에 두 마리의 흠 없는 숫 염소가 필요하며 대사제가 주사위를 던져 하느님을 위한 염소와 아자젤을 위한 염소를 정하고 아자젤을 위한 염소의 뿔에는 빨간색 천을 묶어 놓는다. 하느님을 위한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성소 앞 번제단에 바쳐지고 아자젤 염소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희생 염소의 머리에 씌우는 예식을 한 다음 예루살렘 동편 유다광야로 끌고 가 아자젤 귀신을 비롯한 악마들이 사는 곳이라고 믿었던 광야로 내보낸다. 칠십인역과 예로니모는 불가타 성경에서 이 말을 ‘희생 염소’로 이해하였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듣는 ‘희생양’이 유래한다. 이러한 희생 염소 예식을 우리는 ‘구약성서의 성금요일’이라고 부른다. 이사야 예언서는 ‘주님의 종’이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리라고 예언한다.’(이사 53,6.11-12)

속죄 기간에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두 가지이다.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원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다 회개를 통해 죄를 씻고 하느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때이다. 통회와 금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슬픈 시간만은 아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가득 찬 기쁨이 더 중요하



다. 속죄 기간이 지나면 초막절을 닷새 동안 준비하는데 미국에서도 유대인 집마다 마당이나 테라스에 세워놓은 텐트 같은 것이 바로 초막(Sukah)을 상징한다.

초막절은 일반인 특히 여자들에게 평소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폐쇄적 차별 때문에 결코 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전례에 참여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성전 번제단에서 거행되는 예식인데, 평소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던 사제의 뜰 옆까지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 바로, 사제의 뜰에서 하였던 ‘호사נות(Hoshanot)’인데 ‘헌수(獻水) 예식’으로 번역한다. 헌수 예식에 꼭 필요한 것은 실로암 연못에서 매일 아침 길어온 물과 버드나무가 필요했다. 물가에서만 자라는 버드나무를 베어와 번제단에 기대 놓고 예루살렘의 유일한 생명수인 실로암 연못에서 길어온 물과 포도주를 제단의 뿔에 붓는 동안 제단 둘레를 돌며 시편 낭송 기도를 한다. 특히 시편 118편을 꼭 읽었는데 내용이 인상적이다.

“아,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아, 주님 번영을 베푸소서”(시편 118,25) 한국어로 들으면 밋밋하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느낌이 달라진다.

아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안나 아도나이 호쉬아나]

아 주님 번영을 베푸소서 [안나 아도나이 하즈레하나]

히브리어 ‘호쉬아나’ 곧 ‘호산나(Hosanna)’이다. 우리 모두 익숙한 말이다. 호사נות이라 부르던 예식은 바로 이 ‘호쉬아나(hosha-na)’에서 유래한다. 하느님께서 다가오는 우기에 이른 비로 시작하여 풍족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온 백성이 참여하여 매일 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예식이다. 초막절 마지막 날은 한 바퀴가 아니라 일곱 바퀴를 돌며, 더 간절하게 시편을 낭송하며 기도한다.

아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안나 아도나이 호쉬아나]

아 주님 번영을 베푸소서 [안나 아도나이 하즈레하나]

평소에 갈 수 없던 곳에서 사제와 온 백성이 함께 드리는 특별한 전례 모습과 사제들의 시편 낭송 소리가 그려진다.

초막절 축제의 절정인 마지막 날, 간절히 드리던 호사נות 예식은 요한복음 7장과 연결이 된다. 초막절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성전이라는 공간적 배경으로 예수께서 깊숙하게 들어와

계신다. 축제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일어서시어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 7,37-38)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옆까지 들어와 계셨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 전례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관심과 눈이 성전에서 거행되는 호샤넛(헌수 예식)에 쏠려 있는 상황의 바로 그곳에서 대담한 언행을 하신다. 눈에 띄게, 일어서는 행동과 동시에 큰 소리로 선포하신다! 육화한 말씀의 장엄한 선포이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 7,38)

마태오복음 말씀이 생각난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마태 5,17)

윌리엄 홀먼 헌트는 명작 ‘속죄 염소(The Scape Goat)’를 남겼다. 번제물로 내몰린 염소는 십자가 상의 예수님을 닮았다. 미술사가 이수정 씨의 해설을 빌려 윌리엄 홀먼 헌트의 ‘속죄 염소’에 대해 알아본다.

‘속죄 염소’(The Scapegoat, 1854~1856, Lady Lever Art Gallery, Port Sunlight)는 독특한 제목만큼이나 흥미로운 작품이다. 헌트는 사실주의적 제작기법에 따라, 뾰족한 뿔이며 길쭉한 귀, 그리고 갈라진 발굽은 물론 몸통의 섬세한 털까지도 정성껏 그렸다. 그런데 세밀하고 정교한 기법에 감탄하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염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일까. 뒷다리로 간신히 버티고는 있지만, 비틀거리다가 이내 앞으로 쓰러질 것만 같다. 게다가 죽은 동물의 앙상한 뼈가 뒹구는 황량한 공간에 이 염소만 홀로 남겨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 비록 동물이지만 외로움과 절망의 감정이 느껴진다. 제목 역시 심상치 않다. ‘속죄 염소’라니? ‘희생양’이라는 말은 가끔 들어봤어도 ‘속죄 염소’라는 말은 무척이나 생소하게 들린다. 작가는 무엇을 표현하려 한 것일까?

헌트는 신앙심을 승화시킨 작품을 진지하게 제작하려는 의도로, 1854년에 팔레스티나 성지를 방

문하는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는 땅의 생김새와 사람들의 옷차림 등을 자세히 관찰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실감나는 그림을 그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가르침을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는데, 이때 그린 그림 중 하나가 바로 ‘속죄 염소’이다.

이 그림의 의미는 유대교의 속죄일과 관련하여 드러난다. ‘욥 키푸르’라고 부르는 속죄의 날이 되면 대사제는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내모는데, 이유는 그 염소가 백성의 모든 잘못과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유다 공동체가 정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레위 16,20-22) 헛트는 이 작품에서, 속죄일에 사람들을 위해 죽음으로 내몰린 염소를 보여주는데, 그림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 윌리엄 홀먼 헛트, 속죄 염소(The Scapegoat), 1856. 맨체스터 미술관, 영국.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 실제 장소인 에돔(Edom)을 배경으로 삼았다.

헛트가 그린 「속죄 염소」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사 52,53)의 모습이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를 반증하듯, 작가는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붉은 리본을 염소의 뿔에 그려 넣었다.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52주간 매일 성경 읽기를 마치며

“성전을 허물어라”

(고) 한성신 도미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5-38)



어떻게 이런 응답을 할 수 있었을까? 믿음의 은총을 이미 받으신 마리아께서는 참으로 복되신 분이라 생각된다. 온 동네에 퍼져나갈 소문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은 또 무어라 하실 건가? 등등... 전 통과 체면, 그리고 당면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망설임과 혼란에 빠질 법도 한

데..., 마리아께서는 한마디 군소리도 없이 “예”라고 말씀하셨다. 이미 성령이 그녀에게 오신 것은 아닐까. 진정 믿음이 깊었던 한 처녀에게서 세상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할까 말까 주저하며 따져보고 하고 싶은 일, 자신 있는 일만 하려 하지 않는가. 주님에 대한 순종~.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꼭 지녀야 할 첫째 덕목이 바로 순종, 완전한 행복이다.

결심: 큰 형님께 전화 걸기

3월 20일(금)

“이 성전을 허물어라” (요한 3,19)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린 성전을 보고 마음이 아프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시겠다 하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시려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가르치신 진리를 직접 몸으로, 불같은 열정과 투명한 영혼으로 투신하셨던 언행일



치의 삶은 아닐까? 비록 화려하거나 웅장한 성전은 아니지만, 용서의 삶, 겸손한 삶, 기도 의 삶, 절대 넘치지 않았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영혼이 쉬어가는 성전이였을까 생각해 본다. 그런 사랑이 그림다. 그런 용서에 배고프다. 그런 진실한 성냄을 보고 싶다. 내 모습은 어떠한가. 돈, 명예, 힘, 미움, 분노, 이기심, 오만 등으로 피폐해진 성전을 허물 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결심: 병문안 다녀올 것(T)

3월 31일(화)

우리 본당에서 '52주간 매일 성경 읽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신록이 푸른 봄이었다. 3월 19일과 5월 15일,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남편과 시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직후 였다. 전혀 예비하지 못한 이별로 인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생각하는 기능마저도 멈추어 버린 듯 그냥 멍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끝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이기도 했다.

홀로 투병 생활을 해야 할 나 자신이 별판에 던져진 들풀처럼 더없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나를 짓눌렀다. 밖으로는 의연하게 처신하려 노력했지만, 지난날에 겪었던 고통의 시간까지 속속 떠올라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영적 혼란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는지만 안다면 당장 달려가 따져보고 싶었다. Why me? 그래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

비극의 벼랑 끝에 서면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는 건지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점점 평온을 찾기 시작했고 나와 마주 앉아 친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가까움이 느껴졌다. 시편을 읽을 즈음에는 마치 내가 드리는 노래처럼 빠져버리는 날도 많았다.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묵상하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위안이 되었고 하루를 시작할 새로운 힘이 생겨나곤 했다.

전에도 여러 번 읽은 똑같은 성경 말씀이 다른 의미로 새롭게 내 마음에 와닿았고 어떤 날 은 기쁜 소식에 대한 희망으로 봄 소풍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마구 뛰었다. 맘에 와닿는 짙막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한 내용을 간단히 일기처럼 적었다. 그리고 끝에 그 날의 결심을 적었는데 내가 꼭 해야 할 쉬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결심을 매일 실천하면서 나는 내 생활이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성경 구절 암송이 안 된다고 말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되었다. 어떤 날은 노랫말처럼 나도 모르게 종일 성구를 흥얼거리기도 한다. 성경에 등장하는 쉽지 않은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가깝게 느껴진 것도 이번 성경 읽기의 수확이라 하겠다. 특히 사도들의 서간을 읽을 때 성경 뒷장에 있는 지도를 보고 그 거리와 위치를 나름대로 가늠해 보면서 읽었더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도 여행 중에 병고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들의 확고한 믿음은 감동이었다. 나도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다.

요즘 나는 생각한다. 고통스러운 것들, 잃은 것들에 대하여 연연해하기 보다 아직 내게 남겨진 것들, 그리고 변함없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마음의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니 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 같다. 힘든 여건에서도 평온하고 행복한 건 아마 하느님과의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일 게다. 건강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 겸손해질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교우들의 수많은 기도에 힘입어 그만큼 회복되었고 활동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내 영혼을 고통으로 담금질하여 더욱 힘차고 씩씩한 모습으로 일으켜 주심에 감사한다. 또 아직 내게 사랑해야 할 많은 사람이 있음에 감사한다.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삶의 여정이 끝나 하느님을 뵈는 그날까지 주님께 나의 희망을 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싶다. 많이 사랑하고 싶다. 끝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바오로 사도의 편지 한 구절을 나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 2,20)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한영국 율리어나



어려서 성경을 들을 때 매우 이상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며 스승을 애타게 찾았으면서도 막상 스승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가 정원사인 줄 아는 대목이다. 매일이다시피 대면했을 스승을 그리도 못 알아본단 말인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같이 걸으며 구약의 가르침까지 새삼 들으면서도 그들은 스승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함께 길을 걷는, 최신 뉴스를 전혀 모르는, 길가는 나그네로 인식했을 뿐이다. “어휴, 이 바보들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랬다.

스승이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면 그들이 못 알아봤을 리가 없다. 또는 육신이 없는 영혼의 사람이라 영화에서처럼 살짝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성광이라도 은은히 두르고 계셨다면 그들도 담박 알아봤을 터다. (그러고보니 스승은 정원사나 나그네 옷차림새 그대로였고, 생전과 같은 익숙한 언어를 썼으며, 가르침도 예전 그대로 익히 알고 있는 구약을 인용하셨다. 이게 팬스레 안심이 되면서도,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로 다가온다.) 같은 시대 같은 공간을 살던 그들도 예수를 못 알아봤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떻게 나의 예수를 만나 그를 따를 수 있을까?

위의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그 모습에서 결코 알아볼 수 없다. 선하거나 정의롭게 보인다고 해서 그가 거기 있지는 않다. 많은 화가들이 예수의 초상화(?)를 그렸지만, 그 대상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모델의 모습일 뿐이다. 내 머리 속에 담긴 특정 이미지가 너무 강하면 도리어 명상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미지 시대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일이고,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 이미지 사용을 적극 금지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언어에도 예수는 온전히 있지 않다. 음성은 물론이거니와 선하고 아름다운 내용이나 가르침의 말씀에도 안 계실 수 있다. 모국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고 방언에도 없을 수 있다. 나같이 남의 말을

일단 믿고보는 나쁜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교회 내 사람들의 감언이설로 생긴다. 성경 속에도 예수는 온전히 있지 않은 것 같다. 기독교가 세상 구석구석 다 전파돼 성경을 전 인류가 함께 탐독한다 해도, 어쩌면 78억의 사람들은 같은 성경을 읽으며 78억 가지의 해석을 내놓을 것이다. 그것은 78억 가지의 종교가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마리아나 제자들이 예수를 예수로 알아본 것은 언제였던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마리아야!”하고 부르셨을 때 담박 알아차렸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가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을 때 즉시 알아보았다. 이 대목을 읽을 때는 참 감동적이다.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으면, 기도를 하고 빵을 나누었으면, 그들이 즉시 알아보았을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믿음은 없는데,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험한 가엾은 인생들….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득 담아 간절하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그득한 염려와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그들은 즉시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시는 분을 알아보지 않았을까?

성령이 무엇인지, 누구신지, 솔직히 나는 모른다. 신학적인 설명이야 많겠지만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혼자 가만히 가늠해 보면,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 그 움직임과 흐름과 교감이 성령이 아닐까 싶다.



≡ 박연순 에스터

위로(Consolation)

장터 같은 일상을 벗어나 찾아간
Morristown 의 Loyola House.

정원 가운데 있는 작은 연못
아름다운 연꽃에 끌려 발길을 멈춘다.

비록 몸은 진흙탕 물 속에 잠겨 있어도
청정함을 잃지 않는 연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도 하늘을 향하여 희망의 숨을 쉰다.

7



풍성한 포도가지 / 단체 소개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전직 회장들의 좌담회

성모회 - 50년 봉사... 그 은총을 봉헌합니다

봉사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부엌

전례위원회 -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성가대 - 하느님 찬양

주일학교 - 교회의 새싹

“Jesus is good!”

직책은 기도를 낳고, 기도는 은총을 낳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학생회 - 내일의 주역

Thanks to all the Parents!

The Giving Tree

대철학교 - 한인 정체성 심기

RCIA - 예비신자 교리교육

오히려 지혜, 젊음을 전도 받는 RCIA 봉사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소서”

“저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레지오 마리아 - 잘 조직된 성모님의 군대

은총의 모후 브레시디움 1,131차 주회

꾸르실료 - 하느님에게로 온전한 회귀

성령기도회 - 하느님 사랑 영원토록 노래

WWME -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이희영 베드로 - 루시아, 문경신 요셉 - 데레사 / 403

7년이나 피했는데... 손해보았습니다

김재훈 루카 - 이지원 아가다 부부 / 413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조옥경 데레사 / 415

혼인 성사 해에 받은 은총과 사랑

최영옥 모니카 / 417

연령회: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

조영종 율리오 / 419

성소후원회 - 사제 10명의 못자리

정근호 크리스토퍼 / 421

루가회 - 모두 더 건강하고 즐겁게

강창홍 바오로 / 426

크리스토퍼 회 - 성당 출입 안전을 지키다

지영덕 어거스틴 / 429

아살모 - 아름다운 삶의 모임

이춘리 다니엘 - 이정자 카타리나 부부 / 431

지아모 - 지구를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

이승자 글라라 / 433

보니파 - 단합된 아름다움

조옥경 데레사 / 437

편집위원회 / 328

정소영 요안나 / 337

염지영 호노리타 / 340

문정숙 데레사 / 341

송희선 알로이시아 / 343

이태성 마이클 / 348

편집위원회 / 352

오영숙 수산나 / 358

이영주 소피아 / 360

조경숙 로사 / 362

편집위원회 / 364

Bryant Lee / 375

Jessica Kim / 377

편집위원회 / 379

조은숙 루시아 / 382

김헤인 베로니카 / 387

이태용 토마스 / 389

박두선 요셉 / 390

이인덕 안드레아 / 392

김경애 요안나 / 395

조재웅 버나드 / 397

김영숙 베레나 / 401

“주님의 목자와 양떼들이 하나되어 만들어낸 공동체”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전직 평협 회장들의 좌담회

이 좌담회는 ‘만남의 방’에서 대면 대화를 계획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질의한 내용을 대담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참가자:	이회영 베드로,	지영덕 어거스틴,
	강창홍 바오로,	홍종욱 토마스,
	정근호 크리스토퍼,	채덕규 미카엘,
	하상구 바오로,	정구홍 어거스틴,
	이용재 프란치스코,	손철웅 요셉

✚ **사회:** 회장님께서 평협 회장을 맡으시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회영 베드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염수호 회장님(1980~1981)께서 재임 중일 때 우리 성당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이라 할 만한 일이 있었지요. 바로 Orange시 Cleveland St에 있는 성전을 사서 이사한 일입니다. 그때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성전 구입을 위해서는 그전 회장님이셨고 성전 건립 위원회 회장이셨던 김도영 프란치스코 회장님께서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그 직후인 1982년에 제가 회장직을 맡았는데 그해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1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Christian Science 개신교회 건물을 가톨릭 성전으로 “개종시키는 작업”(박 신부님의 표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느라고, 그때는 주로 작은 자영업업을 하던 신자들이 낮에는 힘들게 일하고는 저녁에 성당 개조를 위해 몸으로 때우는 것이 일상이 된 그런 날들의 연속이



었습니다. 자매님들은 저녁을 준비해 오고 밤참을 준비하고 그야말로 모두가 한 몸이 되어 기쁘게 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이 1979년에 시작된 성령세미나의 힘이었습니다. 그때는 기도회원이 많아 매주 세 군데에서 만나 박 신부님을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0주년 기념행사가 전 신자들의 일치의 시간이 되도록 100일간 묵주고리기도를 했던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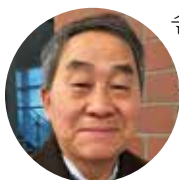
신청하신 분들을 15단씩 기도 팀으로 묶어 예쁜 기도 카드를 만들어 가정마다 집에 걸어 놓고 기도했지요. 10주년을 축복해 주러 오셨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임을 실감한다”시면서 “무슨 힘이 그 원동력이나?”고 진심으로 물으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다르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던 추기경님도,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박 몬시뇰께서도 이미 고인이 되셨네요.

또 잊을 수 없는 것이 기념집 출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없던 시대라 타이핑된 원고에 오타가 있으면 같은 글자를 찾아 잘라 덮어씌우는 식이었으니 그 고충이 어떠했을지는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함께 모여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 없이 밤마다 모여 몇 주를 계속해서 한덕정 버나드 씨가 주관하여 기여이 책을 제 시간에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계실 그분이 그립습니다.

† **이용재 프란치스코**: 2005년 사도회장일 때 Orange 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를 거행했고, Maplewood 성당에서 초대 사도회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조민현 신부님을 중심으로 모든 신자분의 협조로 Orange 성당에서 Maplewood 성당으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강창홍 바오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박창득 몬시뇰의 환갑 잔치입니다. 이민 교회의 어려움 중에서도 신앙심으로 하나가 되어 반석회, 사도회, 부녀회, 모든 단체, 주일학교까지 모든 신자가 하나가 되어 진심으로 축하해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정구흥 어거스틴**: 성당 활동을 알리기 위하여 행사 일시, 장소 등을 후보에 광고하면 한국 분들은 마감 하루 전에 연락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종종 문제를 일으킨 일들이 있었



습니다. Summer Camp를 준비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참가하겠다는 신자들 때문에 힘들었고, 특히 박 몬시뇰 사제 수품 50주년 금경축 행사를 준비하면서는 그 고충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막상 당일에 소리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여간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오실 손님들을 생각해서 미리 잡아놓은 자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바람에 신자석은 아수라장이 되고 내 자리는 물론이고 내가 모신 손님 자리도 사라지는 난감한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 정근호 크리스토퍼: 1997년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당시 보좌신부님이셨던 양윤성 다윗 신부님과 함께 뉴욕대교구의 사목지침서를 교우 여섯 분과 함께 번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7~8주 정도 번역했습니다. 이 책에는 본당과 교구와의 관계, 본당신부님의 역할, 재정 운용, 심지어 미사 예물 등 모든 사목지침에 관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목지침서는,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우리 가톨릭에서는 본당신부님이 전권을 가지고 본당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영세한 지 오래된 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본당신부님이 전적으로 본당 사목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책임감이 무척 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번역을 통해 우리가 본당 사목에 대해 먼저 알고, 이를 알고 싶어하는 교우들에게 알릴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지영덕 어거스틴: 1988년 6월에 20명에 가까운 한국 입양아 그리고 양부모님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태권도를 춤사위와 같이 시범하는 것을 보고 무척 좋아하던 입양아들의 표정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습니다. 입양아 잔치는 신용조합 창립 당시 조연을 많이 주셨던 Mr. Peter Schmidt 부부가 도와줘 이루어진 행사였습니다. 한국 전통 예물을 복주머니에 넣어준 선물을 받아보고 입양아들이나 부모님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홍종욱 토마스: 1995년에 북한 교우들이 우리 성당을 방문했던 일과 이듬해인 1996년에 박 몬시뇰께서 북한에 가셔서 북한 장충성당에서, 그리고 서울의 성당과 미국의 우



리 본당에서 동시에 부활미사를 봉헌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감격스러운 일로 기억됩니다.

✦ **채덕규 미카엘:** 박창득 본당신부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모임에 다녔던 일입니다. 박 신부



님은 별로 말씀은 없으셨지만, 차에 타시면 곧바로 2~3분 이내에 잠이 드시고 해서, 제가 운전하면 편안해하시는 것 같이 생각되어 저도 흐뭇했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을 Queens 성당에서 모셔와 성령대회에서 강의하신 후 다시 모셔다드릴 기회가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또 장익 주교님을 제 차로 모실 기회도 있었습니다. 마침 두 분이 모두 저의 처형이신 마리 로사 수녀님과 잘 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장 주교님 말씀이 “아, 그 말 잘하는 수녀님이 처형이야? 내가 잘 알지. 그 수녀님 말에 내가 감동한 일이 있어!” 하셨습니다. 주교님과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렌지에 본당이 있었던 1997년 7월 날씨가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본당신부님께서 일부 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였습니다. 본당 잔치를 하는 날, 맑은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는데 곡선이 아닌 직선이어서 우리 성당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신자들이 모두 기뻐하며 너무나 흐뭇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손철웅 요셉:**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기념미사는 새로운 주임신부 조후연 신부님의 첫 미사 집전이어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 **하상구 바오로:** 1999년 8월 봄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Newton에 있는 천주교 재단이 운



영하는 The Great Divide Campground에서 전 신자 가족과 처음으로 Camping을 했습니다. 캠프파이어, 텐트에서의 야영 등 주말을 지내던 교우 가족들이 즐거워하던 모습이 지금도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수영장장에서 떠들썩하던, 그리고 건너편에 자리 잡은 호수에서 어린이들이 고기를 잡으면서 좋아하던 모습이 선합니다. 마지막 날 주일, 언덕받이에 우뚝 서 있는 성당에서 찾아온 가족들과 미사를 집전하시던 박 몬시뇰님의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 **사회**: 만약 회장님께서 다시 평협회장직을 맡아야 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신부님께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 **이회영 베드로**: 글썽요. 어떤 구체적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향한 교회?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지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멀리 선교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하는 일이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자 한 분 한 분이 조금 더 전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성당을 떠난 신자들에게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지속해서 다가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보다도 본당의 분위기가 전교에 힘쓰는 분위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그런 전교, 아니 이웃 사랑이 우리의 소명임을 깊이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가는 것은 사목의 일환이 되겠지요.

† **지영덕 어거스틴**: 이번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기념집 축사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웃 본당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본당은 더 바랄 수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정근호 크리스토퍼**: 거의 20년간 멀리 떨어져 살면서, 메이플우드 성당을 경조사가 있을 때만 가끔 들러서 현 실정을 잘 알지 못하여 그저 일반적인 추천을 할까 합니다. 우선 성당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성당 안팎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어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역시 본당신부님의 지도로 미 동부지역 본산지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성당도 못 나와 많은 교우가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찾아 신부님의 따뜻한 한마디로 다시 주일미사에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하시는 교우 중에 팬데믹으로 타격을 많이 받으신 교우들을 방문하여 위로하시는 일도 중요하겠지요. 또 침체하였던 신심 단체 활성화, 특히 성소후원회를 활성화해 월례미사나 기도회, 성체 조배를 권장하고 전 신자에게 성소후원회 가입을 권장하는 일도 중요할 것입니다.





† **강창홍 바오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변해가는 이민 교회의 구성에 따라 그때그때, 그 구성원들에게 알맞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가고, 글로벌 시대에 맞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하상구 바오로**: 본당신부님의 탁월한 지도력, 수녀님들의 섬세하신 사랑과 돌봄, 주님께 서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평신도들의 땀과 열정, 각 신심 단체가 고유한 활동과 숨은 기도 그리고 다양한 피정과 영적 교육이 우리 본당 공동체의 성숙한 믿음의 버팀목으로 완성되어 지난 50년을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욕심을 내어 바란다면, 끊임없는 본당 가족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홍종욱 토마스**: 한인 가톨릭 성당들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으로는 희미해질까 우려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이민자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가톨릭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곳에서 교육받은 1.5세나 2세가 학교를 마친 후 한인 성당을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모두 느끼고 있고, 각 성당 차원에서 성소 개발 및 여러 단체 행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같은 피부색과 같은 언어 그리고 같은 문화에서 서로 동질감을 찾고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이 있었으면 합니다. 만나면 즐겁고, 편안하고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가족 같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 **이용재 프란치스코**: 향후 우리 본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어권(주일학교, Youth Group, Young Adult, 영어권 학부모 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채덕규 미카엘**: 지금 본당신부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젊은이들을 위한, 미래를 위한 사목 방침에 전적으로 지원합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당에 열심히 다니며 봉사하시던 분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잘 나오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을 다시 나오시도록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노력 중이라 생각하지 만요.

† 손철웅 요셉: 앞으로 본당 50년을 어떻게 또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든 단체나, 개인이 아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 정구홍 어거스틴: 건강에 문제가 있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Soft Yoga Center를 열고 싶습니다.

*사회: 봉사하시는 동안 특히 생각이 나는 분이 있으시면, 왜? 누구신가요?

† 정구홍 어거스틴: 많은 사람이 생각나지만 근래 지영덕 형제님이 생각납니다. 이유는 그분의 웃는 모습에 매혹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웃는 모습은 항상 구수해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세상에 관심 없다는 소의 웃음 같기도 하고, 순진한 양 같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채덕규 미카엘: 저희 부부는 같이 성가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했고, 저는 성가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본당이 오렌지 클리블랜드에 있을 때와 센트럴 애비뉴에 있을 때 성가대 지휘자로 계셨던 현종건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현 선생님은 부활대축일과 성탄대축일이면 단원들에게 그레고리안 성가를 열심히 연습시키셔서 대축일미사를 더욱 성대히 봉헌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박창득 신부님께서 작사하신 '본당의 노래'를 현 선생님이 작곡하셨고, 뉴욕, 뉴저지 한인 성당들이 본당의 날 같은 행사 때에는 이 노래를 불렀는데 요즈음 잊혀 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이용재 프란치스코: 1993년 평신사도회 총무를 맡고 있을 때 LA를 다녀와서 박 문시놀께 건의하였습니다. LA 체류 시 그곳의 한인 성당에 미사 참례하였습니다. 미사 도중에 주기도문 노래를 부르는데 모든 신자분이 손을 잡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이라서 서먹하였지만, 생각해 보니 참 좋았습니다. 93년 3월 초에 박 문시놀께 우리 성당에서도 주기도문 합창 시 모든 신자가 손을 잡고 노래 부르자고 건의했더니 3월 셋째 주부터 그렇게 하여 지금까지 모든 신자가 주기도문 합창 때 손을 잡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 주기도문을 바칠 때면 지금도 문시놀이 생각납니다.





† **이회영 베드로**: 물론 내 신앙생활 전체를 통하여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놀입니다. 그분의 권고로 성령세미나를 다녀왔고, 그분의 신뢰로 봉사직을 맡게 되어서 공동체의 기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끄심으로 WWME 주말을 체험하고 그 속에서 봉사함으로써, 우리 가정이 주님의 크신 축복 속에 성장하여 지금의 감사한 삶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박 몬시놀은 말수가 적으시고, 속마음을 가볍게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늘 모든 신자를 뒤에서 배려해 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 말이 아닌 몇 마디의 말로 일의 갈피를 잡아주시고, 지나가는 말처럼 지혜로운 말로 권고해 주셨습니다. 몹시 신중하고 지혜로우면서도,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시는 일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으시고 조용히 밀고 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검소하심, (맛있는 음식은 좋아하셨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변명이나 해명하지 않으시고 무섭게 참아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 **정근호 스테파노**: 박 어거스틴 몬시놀이 생각납니다. 특히 제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핑계로 병상에 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분의 통 크신 배려로 오늘날 뉴저지의 여러 한인 성당이 태어났고 발전하게끔 하신 일. 성령기도회, 레지오, ME, ‘안티옥’ 등의 프로그램으로 본당을 활성화하고 교구의 모범 성당으로서 우뚝 서게 하신 분, 항상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이라며 어떠한 오해에 대해 변명을 하지 않으셨던 대범한 분, 오늘날 가톨릭의 위기를 맞이하여 그분의 리더십이 더욱 아쉽습니다.

† **지영덕 어거스틴**: 초창기에는 홍익섭 아길로 회장님의 깊이 있는 믿음과 이를 생활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중반부터는 Dr. 조 루시아 자매님의 놀라운 열정과 투철한 믿음이 바탕이 된 봉사 정신에 감탄했고 그분의 많은 경험에서 우려난 판단과 식별이 출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종 율리오 형제의 조용하고 잔잔한 봉사와 그치지 않는 꾸준한 열심에 존경을 드리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나 책임을 다하시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곳에 꼭 있어야 할 필요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창홍 바오로: 어떤 한 사람이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생각나서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홍종욱 토마스: 사목회를 맡아 일하면서 늦은 시간에도 함께 애써준 우리 임원들이 매우 고마웠습니다. 또한 우리 성당에서 몇 해 동안 매년 입양아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Peter Schmidt 씨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은 두 명의 한국 어린아이를 입양했는데 지금은 그 입양되었던 자제들이 모두 명문대학을 마치고 결혼하여 훌륭한 사회인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손철웅 요셉: 지광오 형제님이 생각납니다. 성당 천정에 있는 백열등이 오래되어 교체할 때가 되면 기다란 사다리를 갖다 놓고 사다리 맨 위에 위태롭게 서서 긴 장대로 힘들게 전구를 떼어 내고 새로 교체하시던 모습, 그분이 타주로 이사하시면서 ‘내 다음엔 이 일을 누가 하게 될는지’ 걱정하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하상구 바오로: 엄격하시면서 항상 자상하시고 열심히 교우들을 돌보시던 모세 수녀님이 생각납니다.

정리: 지영덕 어거스틴



(사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승한 발렌티노, 김기용 요셉, 채덕규 미카엘, 채채련 라파엘라, 장상조 스테파노, 조은숙 루시아, 이경 바오로 신부님, 이회영 베드로, 지영덕 어거스틴, 정근호 크리스토퍼, 송의용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정순옥 켈마, 정영희 어거스티나, 정구홍 안드레아, 조광재 세바스티안



성모회 - 50년 봉사, 그 은총을 봉헌합니다

정소영 요안나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성모회(구 부녀회, 현 우슬라회)는 성모님의 겸손과 덕행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화하여 본당 공동체의 각종 행사에 헌신하며 본당 발전에 기여하는 봉사 단체입니다. 특히 항상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성모님의 헌신적인 정신을 본받아 공동체의 어머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성모회의 활동은 1972년 저지시티에서 시작된 본당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자체 본당이 아닌 미국 성당에서 미사를 드려야 했던 관계로 부역을 쓸 수 없었기에 미사 후 간단히 커피와 도넛으로 나눔의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973년 몽클레어 성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부역 시설을 쓸 수 없었지만, 성탄절에 성탄 축하를 위해 신부님, 신자 분들과 정성 가득한 홈메이드 김밥을 나누며, 주님 탄생을 축하드릴 수 있었습니다.

1980년 Orange시 Cleveland St 성당으로 이전하면서 부터 성모회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하실이었지만, 그 곳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신자 분들과 함께 나누며 본당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기념할 수 있어 감사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국 땅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각종 성물을 한국에서 들여와 신자 분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소를 제공하였으며, 그 수익금으로 본당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1986년 본당을 같은 오렌지시 센트럴 애비뉴 성당으로 이전하면서 성모회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창득 몬시뇰 신부님 사제 수품 25주년과 30주년 기념식, 회갑 잔치에 정성 가득한 음식들을 성대하게 준비하여 한국에서 오신 신부님들, 본당 신자들께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뉴악대교구청에 의해 정식으로 '본당'으로 승격된 후 주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절

쉽게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없었던 신자들을 위해 매주 뉴저지 오렌지에서, 뉴욕 퀸즈에 있는 만미당 떡집을 오가며 떡과 김밥을 실어 나르며 판매했습니다. 힘이 들기는 했지만 김치, 깍두기를 직접 담가 팔면서 신자들의 식탁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본당의 날에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맛난 양념에 갈비를 재워 맛



갈난 걸절이와 함께 전 신자들에게 대접해 드렸던 보람된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모회 수익금은 장학금이나 본당 발전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또한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모 본당으로서 본당에서 분가한 포트리 성당 성모회와 에디슨 성당 성모회 설립 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자부심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새해 미사 후, 신자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위로 했던 따뜻한 떡국 봉사도 생각납니다. 성모 회원들이 곱게 한복을 차려 입고 신부님들과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며, 덕담을 주고 받았던 즐거운 시간도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돌이켜 보면 늘 함께해 주셨던 성모회 회원은 물론 가족과도 화목을 다졌던 순간순간이 큰 행복이었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2005년 9월 오렌지 성당에서 현재 메이플우드 성당으로 이전하기 위해 몇 날 며칠 성모회와 많은 신자님이 힘든지도 모른채 으쌰으쌰 이삿짐을 열심히 싸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그 이삿짐들을 각각 개인 승용차에 가득 싣고 한 줄로 'Bumper to Bumper' 행렬을 했던 장관도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장보기가 불편한 신자들을 위해 뉴저지 도시락 집에서 김밥과 각종 밑반찬을 트렁크 가득 실어 나르며 신자들이 식탁을 풍성하게 해 드렸던 봉사도 감사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동동거리며 만들었던 향기 좋은 커피를 신자들이 함께 마시며 웃음으로 감사의 응원을 해 주실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성모회 회원들이 성당 행사에 필요한 1,000여 명의 장터국수를 힘든지도 모르게, 국수를 삶고 고명을 만들어 신자들에게 대접하며, 흘렸던 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획기적으로 실시한 점심 봉사도 성모회의 큰 발자취입니다. 적지 않은 저항에도 신자들이 마음을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조민현 신부님의 숙원 사업이었던 점심 봉사가 드디어 성사되면서 성모회 부역은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구역회와 함께 하는 점심 봉사와

커피 봉사, 밀반찬 판매 등등 여러 일들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신 부님과 수녀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은 든든한 지원과 힘이 되었습니다. 매주 구역회에서 준비 하는 정성이 가득 담긴 점심 한 그릇은 봉사하는 구역회와 각 단체의 단합과 화목을 다져 주는 시간이기도 했으며, 성모회와 함께하는 회원과의 소중한 추억과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성모회를 돕고 회장님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본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안나회가 결성 되었습니다. 안나회는 2018, 2019년 행복한 요리 교실을 열어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음식들 을 함께 만들며 본당 발전에 기여하는 노력을 했으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본당 행사인 설 날, 추석에 조상님에게 드리는 제사 상차림을 담당하며, 협조했습니다. 안나회 회장님들이 십시 일반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 음식은 조상님의 은혜와 저희가 하나가 되는 소중한 감사의 시간 이었습니다. 현재 안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회원 간의 친목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성모회의 점심 봉사. 김마리 미셀 수녀님과 함께

성모회는 현재 우슬 라회로 명칭이 변경 되어 봉사를 이어 오 고 있습니다. 항상 본당 각종 행사에 협 조하고 새해 떡국, 부활절 음식, 성탄절 음식 등등 각종 본당 행사 음식을 최선을 다해 장만하여 교우 분들께 대접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봉사와 희생은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하는 저희 감사의 마 음이며, 큰 선물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0년 성모회 역사에 동참하고, 협조해 주 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모회 회장들과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모회 50년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고 이쁘셨을까? 성모회의 모든 봉사와 헌신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봉사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

염지영 호노리타



1982년 오렌지 클리블랜드 스트리트에 있는 뉴저지 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모시고 본당 설립 10주년을 축하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50주년을 맞게 되었으니 세월이 참 빠르군요.

성모회장으로 일하던 때를 추억해 봅니다.

2002년 박용일 신부님과 윤 마리아 자매님의 권유로 부족한 제가 성모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사양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였지만 ‘성모님! 당신께 의지하오니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과 기도로써 성모회장을 하게 되었지요.

2년 6개월 동안 성모회장으로 일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치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성가정 대잔치’, ‘입양아들을 위한 행사’, ‘박용일 신부님 송별연’, ‘조민현 신부님 부임 축하연’, ‘박창득 몬시뇰님 칠순잔치’, ‘박용일 신부님 회갑연’ 등이었습니다. 특히 박창득 몬시뇰님 고회연과 박용일 신부님 회갑연은 여러 날 밤을 꼬박 새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서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큰 행사를 앞에 놓고는 늘 어찌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전임 회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여러 교우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며칠씩 밤늦게까지 음식 준비와 상차림을 도와주셔서 외부 손님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큰 행사를 무난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와 함께 애써주신 여러 성모회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지요. 그때 함께했던 성모회원들은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며, 성당에서 봉사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성모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했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본당 설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웃고 음식 나누는 사랑의 부엌 성모님이 이끄시는 성모회

문정숙 데레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본당과 함께한 30여 년이 우리 가족에게는 크나큰 축복이며 은총이었습니다. 10여 년 이상의 공백을 넘어 2014년 메이플우드 성당 주일미사에 처음 참례했을 때 고향에 돌아온 듯한 푸근함과 정겨움은 아직도 제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본당수녀님의 권유로 2016년도 성모회장직을 맡았을 때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성모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어 성모회장 책무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본당신부님, 수녀님, 사도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함께 행사를 의논하고 준비함으로써 화합 속에서 크고 작은 성당 행사를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 2016년 성모회: 조후연 신부님 오른쪽이 글쓴이. 남편 문경신 씨는 조리대 건너편에

성모회는 자체 수익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모든 구역회 점심 봉사에 필요한 자재(컵, 종이 접시, 밀폐용기 등)들과 기본 양념(고추장, 된장, 참기름)들을 일괄 구입하여 공급함으로써 구역회에서는 음식 재료만 준비하면 되어 경비도 절약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월 본당 바자회에서는 구역회에서 필요한 자재들도 일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팔던 반찬과 만두, 곡물 외에 제과점에서 아침 일찍 갓 구운 따끈따끈한 빵을 팔면서 교우분들이 신선하고 맛있는 빵을 드실 수 있게 한 것도 즐거움이었습니다.

2016년 1월의 라우뎀 수녀님 송별회를 시작으로 2월의 사제협의회, 설날, 부활절, 조후연 야고보 본당신부님 수품 10주년,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1주기, 추석 등의 행사를 치르면서 되도록이면 성모회 회원들의 손맛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보름날에는 여러 나물을 회원 자매님들이 나누어 가지고 각자 집에서 돌아가서 나물을 정성껏 볶고 무쳐서 판매하였고, 행사 때마다 나오는 도토리묵, 청포묵도 집에서 썰어 온 사랑의 묵이었습니다.

행사 때 회원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모두 모여 함께 준비할 때면 힘든 것도 모를 정도로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은 형제님들의 몫이었으며 뜨거운 불 앞에서 있는 것도 형제님 차지였습니다. 물론 설거지도 쓱쓱, 부부가 함께 웃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랑의 성당 부엌에 신부님께서 들어오셔서 강복을 주시면 가슴 속에 확 퍼지는 성모님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우리로구나’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든 메이플우드 성당 교우분의 봉사가 있었기에 더욱 뜻깊고 소중한 나눔이었습니다.

시간과 정열을 함께 나누어 주신 성모회원님들, 사랑스러운 언니 자매님, 레지오 단원, ME 부부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성모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메이플우드 성당



전례위원회 -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

송희선 알로이시아



✦ 전례위원회의 중요성

전례(Liturgia)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세주께서 천상 성부께 드리는 공적인 경신예배인 동시에 또한 교회가 그의 창시자와 그를 통하여 영원하신 성부께 드리는 공적예배이다. (회칙, 하느님의 중재자 중에서)

전례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를 묶고 하느님의 구속을 통해 당신 안에서 가장 거룩하신 성삼께 존

경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교황 비오 12세)

교회는 전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이어 나간다. 전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인 미사와, 우리를 초자연적 생명에 참여케 하는 성사와 교회가 매일 드리는 성무일도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교회 안에 특히 전례 안에 항상 현존하신다. 그리스도는 미사성제, 특히 성체 안에 현존하신다. 즉 십자가상에서 당신 자신을 제헌하신 바로 그분께서 지금도 사제의 봉사를 통하여 제사를 봉헌하고 계시는 것이다. (미사경본 총 지침, 7항)

성사는 교회가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을 주는 거룩한 표지이고 수단인 성사들을 집행할 때 그리스도는 그 성사 안에 능력으로써 현존하신다. 따라서 성사 집행자를 통하여 그리스도 친히 성사를 베푸시는 것이다. (전례헌장, 7항)

그리스도는 당신 말씀 안에도 현존하신다. 교회에서 성서를 읽을 때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요(미사경본 총 지침, 9항), 교회가 기도할 때에도 그리스도는 거기 현존하신다.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사도직 활동의 목적이 신앙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

든 이가 한데 모여, 교회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받아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례헌장, 10항)

그러므로 신자들은 천상은총을 풍부히 받도록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전례에 참여해야 하며, 사목자들은 신자들이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전례 중에 봉독되는 성서와 강론은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 해설로서 전례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모든 이가 올바르게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며, 신자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40-41조) 우리 본당 전례위원회는 사제를 도와 성스러운 미사전례를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게 진행하기 위해 미사해설, 복사, 성가, 독서, 신자들의 기도, 미사 예물 봉헌, 성체분배 등을 맡는다.

✦전례부 연혁

우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연혁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무척 힘들다. 기록이 남아 있는게 없고 초반기 신자들이 흠여지거나 선종했고, 그나마 남아 있는 초반기 교우들도 대부분 세월과 함께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이다.

우리 본당의 초창기 미사 때는 본당신부의 미사 진행을 돕는 전례부가 공식적으로 없었다. ‘1975년 전례위원회 구성’이라는 기록이 있고 1979년에 이항백 씨가 회장, 염수호 씨가 부회장이라는 기록이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

1980년 오렌지 클리브랜드 스트리트 성전으로 옮긴 뒤 본당이 차츰 자리를 잡아갈 때에도 제대로 된 전례위원회가 없이 복사단 위주의 위원회였다. 홍종태 요셉, 민태방 필립보, 민청미 데레사 교우들이 그때그때 미사 해설을 맡았다. 부활대축일, 성탄대축일 등 대미사 때는 본당 사도회 임원들이나 구신자들이 복사를 했다. 그러나 복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던 탓에 효과적으로 미사 진행을 돕지 못했다. 1986년 오렌지 센트럴 애브뉴 성전으로 옮긴 뒤에도 제대로 된 전례부나 전례위원회 조직이 없이 미사 준비는 수녀님들이 담당했고, 복사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맡아했던 것을 어른들이 맡아 하기 시작했다. 조영종 율리오 교우가 주로 미사 해설을 담당 했고, 독서와 봉헌은 각 구역이 맡아 번갈아 가며 한 달씩 맡았다. 당시 독서나 봉헌자로 지정된 교우들은 외적으로는 정장을 갖추어 입고 내적으로는 가정에서 기도와 독서 연습을 하는 등 엄숙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전례에 참여

했다. 구역장은 독서자나 봉헌자를 지정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그러다 박인현 금구 요한, 김용식 요셉 교우가 미사 해설을 봉사했다. 대미사나 큰 행사 때는 한성신 도미나, 박연순 에스터 교우가 맡기도 했다.

2005년 메이플우드 성전으로 옮긴 후 제대로 된 전례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 제대 준비는 수녀들의 몫이었고 제대 꽃꽂이는 홍지연 세실리아 교우 등이 오래 봉사했다.

박인현 금구 요한 교우가 전례위원장으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근 10년 동안 많은 수고를 했다. 당시 복사단은 신용철 다니엘, 최영갑 요셉 형제 등이 복사 단장직을 맡았다.

학생부 미사에도 복사단 위주로 전례부를 만들어 교육도 하고, 캠핑도 가고, 부모님 모임을 갖기도 했다. 당시 김지원 아가다 자매의 노고가 컸다.

주일학교 미사에는 주일학교 성가대를 별도로 조직하여 성가를 담당했다. 주일학교 성가대는 지용철 요한 형제가 지도하며 지휘자로 수고했다.

본당 교중미사 때 성가 담당을 본당 성가대를 주축으로, 주일학교 성가대 월 1회. 아살모 성가대가 월 1회씩 번갈아 가며 맡아 봉사하기도 했다.



≡ 팬데믹 중에도 마스크를 하고 계속 봉사하는 전례 위원들 (2020년)

특히, 교우들 중 이승한 발렌티노, 이인덕 안드레아, 박희준 브르노, 오문일 분도, 채수호 알베르토 형제 등 세탁업에 종사하는 교우들은 스스로 제대보는 물론 사제용 장백의 등 미사에 사용되는 성구들의 세탁을 맡아 미사를 더욱 정결하고 빛나게 봉사했다.

2006년 2월 전례위원회에 성체분배자 4명을 임명했다. 성체분배자는 처음엔 교구청의 소정의 교육을 마친 전직 사도회장들이 참여했으나 점차 희망하는 평신도들도 참여를 허용했다.

2007년 4월에는 본당에 영상 시스템을 갖추고, 미사 전례 때 말씀의 전례에 활용했다.

2014년 2월 전례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팀을 구성하여 미사를 돕기 시작했다. 미디어팀의 수고와 봉사로 양질의 음향시설을 갖추었다. 이때 별도의 사도직 단체였던 성가대가 전례위원회 소속으로 합쳐졌다.

2015년까지 박인현 금구 요한 교우가 전례위원장을 맡아 오래동안 헌신하다, 2016년 김선린 여호수아 형제가 전례위원장을 맡았다. 김선린 위원장은 임기 중인 2017년 중반 그만두게 되어 박인현 전 위원장이 다시 전례위원장을 맡아 2018년까지 봉사했다.

당시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구역별로 돌아가며 맡는 것을 지양하고 전담 독서팀을 구성하여 전담하게 됐다.

2019년부터 송희선 알로이시아 자매가 전례위원장, 정영국 사도 요한 형제가 복사단장을 맡아 2022년 말까지 봉사했다. 그동안 토요일 특전 미사 안내는 계정택 도미니코 형제, 반주는 김영숙 베레나 자매가 오랫동안 봉사하고 있다. 주일 오전 8시 미사 때는 이종원 글라라 자매가 미사 해설을 맡아 수년 동안 봉사하다 2022년 여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 두고 그 후 고혜경 아가다, 최재희 라파엘라 자매가 수고하고 있다.

이경 바오로 본당신부는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 안내부, 미디어팀, 제대회를 전례위원회에 소속시켜 전례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현재 전례위원회는 복사단, 성가대, 독서부, 성체성혈 분배팀, 안내부, 미디어팀, 제대회, 청소년 전례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당은 김정경 실바노 신부에게 전례담당을 맡겨 정통적이고 엄격한 전례를 봉헌하고 있다. 김정경 신부의 주제 아래 본당 전례 예식서의 전반적인 형식이 완성되었고, PDF 파일 보관 작업이 완료되었다. 본당은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사단, 성가대 등 모든 전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전례위원회 피정을 실시하고 있다. 전례는 제사이며, 전례 중에 봉독되는 성서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므로 독서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모든 신자들이 올바르게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도와 속달이 절실하여 모든 부서원들이 피정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성체분배팀도 점차 늘어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 30명이 봉사했다. 성체분배자는 강창홍, 김덕근, 김데레사, 김태호, 문상일, 민태방, 박동화, 박인현, 백용숙, 신은영, 신영식, 염동호, 염지영, 오문일, 윤명훈, 이광녕, 이승자, 이승한, 이용재, 이인덕, 이재천, 이회영, 전종관, 조광재, 조영종, 지영덕, 채덕규, 채선옥, 최재희, 하상구, 하영순, 홍종욱, 황레오 교우 등이다. 그러나 이 교우들 중 병가, 타주 이주, 선종한 교우들이 있어 2022년 말 현재 25명 정도가 봉사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는 본당에 파견됐던 수녀들의 본당 철수로 수녀원이 폐쇄돼, 수녀들이 맡았던 제대 차리기 등 미사 준비를 전례위원회가 맡게 되어 업무가 많아지고 그 역할의 중요성도 커졌다.

전례위원장으로는 박인현 금구 요한 교우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임기를 걸쳐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그 기간 중 전례위원장으로 봉사한 다른 교우들은 전종관 베드로, 이재천 미카엘, 임영희 미카엘, 김선린 여호수아 형제들이 있다.

♪♪♪ 하느님 찬양하는 안드레아 성가대

이태성 미카엘



≡ 성가대 단체 사진 2013

성가는 최상의 기도입니다. 성가대의 역할은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이 함께 영적으로 하느님과의 일치를 돕는 데 있습니다. 성가는 미사 전례 중에 한 장식 요소나 전례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미사의 한 부분이며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성음악은 전례 행위와 결합하면 할수록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성가대는 미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성가와 전례를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미사에 없어서는 안 될 단체입니다. 성가대의 목적은 미사성제와 일치되는 기도며 미사에서 교우들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가대는 오직 미사를 위해서 교우들이 올바른 성가를 부르도록 리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복음 말씀에 적합한 성가를 부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성가대원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봉사자들이기에 육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봉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송자나 복사들처럼 미사 전례와 연중 축제 정신을 깨닫도록 전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좌석은 전례 직무 수행을 간편하게 하고 성가대원들이 영성체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성가는 독서의 경우와 거의 정반대입니다. 전문적인 지휘자의 성가곡 해석과 작곡자가 지시한 속도를 지킴으로써 곡의 영성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당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지휘자에 의해 성가가 불려지고 있는데 곡의 가사와 성격을 이해하지 않고 성가를 부르면 일반 대중의 성가 속도가 고무줄 처럼 늘어지기 십상이고, 특히 성가대 없이



성가를 부를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성가가 근본적으로 찬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찬미라는 성격은 어느 정도의 빠른 속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성가곡마다 작곡자에 의해 정해진 속도가 있긴 하지만, 일반 신자들은 그 속도가 잘 지켜지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의 성가곡 속도와 해석이 중요하면서 성가의 가사에 맞는 속도로 노래할 때 일반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부르나?’ 할 정도의 속도로 성가를 부르도록 전례 대중을 연습시키는 일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가톨릭 성가대는 대부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가 지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성직자 설교에 준하여 음악을 비중 있게 다루기 때문에 음악 전공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공자들에 의해 음악 수준을 높여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에 반해 가톨릭 성가대는 전례가 우선이며 개창을 권장하기에 비전공자가 지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가대의 음악이 전례를 뛰어넘어 너무 음악적으로 아름다우면 경건한 미사가 음악회처럼 되어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전례와 성음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미사를 참례하는 신자들에게는 정말로 행복한 미사가 될 것입니다.

♬ 미사성제에 부르는 성가곡 ♬

1. 입당(Entrance song)
2. 자비송(Kyrie)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3. 대영광송(Gloria) →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4. 화답송(Responsorial Psalm)
5. 환호송(Alleluia)
6. 봉헌송(Offerings song)
7. 신앙고백(Credo) → 사도신경
8. 감사송(Santus) → 거룩하시도다
9. 영광송 (Great Amen) → 아멘
10.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11. 하느님의 어린 양(Agnus Dei)
12. 영성체송(Communion song)
13. 퇴장송(Closing song)

♪ 안드레아 성가대의 역사 ♪

우리 본당이 몽클레어 성당에서 오렌지시 클리브랜드 스트리트에 있는 성전을 사서 이사는 1980년까지는 성가대라고 불릴 만한 단체는 없었지만 몇 사람이 모여서 현종건 선생님의 리더에 따라 성가를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Cleveland St.로 이사 와서는 현종건



(요왕) 선생님께서 오르간 ≡ 설날 미사후 안드레아 성가대 단체사진. 2013

을 치면서 직접 성가를 부르기도 하였고 화답송을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현종건 선생님에 이어 후배인 이태성 미카엘이 지휘를 맡게 된 후로는 본격적으로 성가대원들 모집하여 성가대를 구성했습니다.

1985년 우리 본당에 김 세바스찬 수녀님이 부임한 후 특별히 성가대에 신경을 써 주신 결과 성가대원이 많이 늘어났고 성당이 성장함에 따라 행사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미사와 성탄미사 그리고 5월 성모의 밤 행사가 성가대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1986년 성전이 Central Avenue로 이사하여 신자가 늘어나면서 성가를 좋아하는 많은 신자가 성가대에 참여하여 성가대원이 30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때 성가대다운 어려운 미사곡을 소화하며 합창 할 수 있는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1986년 포트리 마돈나 공소를 시작하게 되고 1989년 데마레스트 성당이 분가하면서 중요한 성가대원 중에 몇 사람이 집 근처 공소로 옮기면서 조금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가를 사랑하는 열댓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있어서 성가대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한국 성인 순교자의 달을 맞이하여 뉴욕 뉴저지 연합성가대를 조직하여 뉴욕 St. Patrick 주교좌 성당에서 뉴욕 추기경님이 집전하신 대미사를 지휘해 한국 천주교회 위상을 올렸습니다.

메이플우드로 이전 후 영어미사에 신자가 늘자 새로운 성가대가 꾸려지고, 주일학교 성가대가 활발해지고, 아쌈모의 성가 연습을 계기로 마지막 주일 가족미사는 돌아가면서 성가를 불렀습니다.



♪ 역대 지휘자 ♪

- ▶ 1973년~1982년 현종건
- ▶ 1983년~1991년 이태성
- ▶ 1992년~1994년 김성규(부제)
- ▶ 1994년~1998년 최석암
- ▶ 1999년~2002년 전광룡
- ▶ 2003년~2004년 이만귀
- ▶ 2005년~2011년 송헬렌
- ▶ 2011년~2011년 홍지연
- ▶ 2012년~2014년 이태성
- ▶ 2015년~2017년 최석암
- ▶ 2017년 2018년 김영숙
- ▶ 2018년~2019년 유주희
- ▶ 2020년~현재 임금옥

♪ 역대 반주자 ♪

안영희, 김영숙, 방연희, 박연경, 최누리, 김영숙.

♪ 역대 성가대장 ♪

김건, 손영근, 이병열, 김보나, 채덕규, 김경승, 허열, 홍지연, 김진춘, 김스티븐,
김향구, 채선옥, 임금옥.

주일학교 - 교회의 새싹

편집위원회

Jersey City에 있던 본당 초기에는 민 데레사가 주동이 되어 아이들을 돌보다가 Montclair로 이사한 후에는 St. Claver Peter's church에서 봉사하던 Miss Meyer가 친구들과 아이들에게 예수님 얘기도 들려주고 기도도 가르치는 것이 주일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1977년 처음으로 첫 영성체가 있었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미사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못하였다.



≡ 1977년 첫 영성체: 김수환 추기경님이 집전

1980년 Cleveland St 성당으로 이전하면서 본당 신자 중심의 주일학교의 조직이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당시 주임사제였던 박창득 신부 (후에 몬시뇰 수품)는 조은숙 루시아에게 그 임무를 맡기고 교장으로 임명했다. 신앙의 전달은 아이들이 편한 언어로 해야 된다는 박신부의 지침에 따라, 교구의 도움을 받아 영어 교재를 구하여 교리교육을 시작한 것이 1981년 1월이었다. 10여 명의 교리교사는 매주 미사 후에 모임을 갖고 자주 피정도 하면서 교사 양성과 교재 준비를 병행해 갔다. 초기 교사 중 원 크리스틴, 신 애밀리, 정 켄마, 오 수산나는 여러 해 봉사하고 후에 교무로도 일했던 이들이다. 그 외에도

강 데레사, 심 포로사, 한 도미나, 한 시몬나 등도 초기에 교리교사로 봉사했다. 그 후에 조사라, 현 글라라, 현 마이클 등 여러 사람들이 봉사했다.

Cleveland St. 성당에서는 주일학교 (유치반에서 grade 12까지) 영어 미사는 친교실에 있었다. 미사가 끝나자마자 folding chair를 치워야 미사가 끝난 어른들이 커피와 도너츠를

먹는 친교실로 쓸 수가 있었다. 그 때는 주로 한국에서 오신 손님 신부님들이 주일학교 미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어로 강론을 하실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얘기지만, 주임신부님은 궁여지책으로 주일학교 교장이었던 조 루시아에게 강론 시간에 그날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였다.

주일학교의 교리 시간은 미사 후에 있었는데 교실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고 대여섯 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은 교실로 썼다.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보일러실이다. 첫 영성체반이 거기서 만났는데 어른 미사 중 성가를 부르면 올개를 위한 fan이 돌아가서 얘기를 중단하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래도 교리 교사들의 열성은 대단해서 교리 외에도 기도를 외우게 하고 성탄 때의 성극 등 매 계절에 따른 행사도 빠지지 않고 했다. 한 번은 사순절 가족 미사 중에 70명도 넘는 학생들이 자기가 만든 하얀 희생양을 한 명씩 나가 준비된 board에 붙이게 했으니 ... 어른들의 인내심에 새삼 감사한다.

1986년 봄에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에서 수녀들을 파견했고 그 가을 학기부터 김 세바스찬 수녀가 교장직을 맡고 원 크리스티나가 교무를 맡아 도왔다. 그 후로는 수녀가 교장, 신자가 교무를 맡아 운영하는 체제가 지속되었다. 김 수녀가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학생회분리를 제안했고, 박창득 주임신부는 조은숙 루시아에게 학생회(9-12학년)의 설립을 맡겼다.

자체 성당 건물을 갖게 된 후에 신자 가족이 급속히 늘었고 자연히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교육관의 필요가 거론되었다. 사제관을 헐고 그 자리에 교육관 건립을 준비하는 중 교



≡ 1990년경 주일학교 교사들의 피크닉

구에서 Central Ave 에 있는 St. Venatius 성전으로 이전할 것을 제의해 와서 문을 닫기로 되었던 그 성당으로 1986년 11월에 옮기게 되었다. 자연히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하실에 있던 친교실에서 주일학교를 위한 영어 미사가 있었는데

거의 200명이 참석하였다. 학생회 미사는 2층 교실에서 따로 있었다. Fr. Rice 가 여러 해 동안 주일학교 미사와 St. Venantius 신자들을 위한 영어 미사를 집전했다.

이때부터 주일학교 교재를 한국에서 가져오기도 하면서 강화하였다. 1990년도 초에는 오세완 신부가 2년에 걸친 교리교사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과정을 수료한 지광오, 김 미카엘라, 정 켜마, 허 마리안나, 오 수산나 등이 오랫동안 교리교사나 주일학교 교무로 봉사했다.

이 즈음해서 전례 계절에 따라 하던 본당 내 행사 외에도 주일학교summer camp 등 그 활동 범위를 넓혀 갔다. 학부모회의도 활발하게 돕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메이플우드로 성전을 이전하고 조민현 주임 신부 시절 교사와 부모들이 주동이 되어 넓은 풀밭 한편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성공적인 모금을 하였다. 이 놀이터가 저 학년 아이들이 성당에 오는 이유가 되었고, 성당이 친구들과 만남의 장소로 여기게 되었다.



≡ 2006년에 완공된 어린이 놀이터



≡ 2020년 성탄 파티에서 노래 부르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열성적인 학부모의 도움으로 조민현 주임신부의 제안에 따라 summer camp, 하기 학교들을 풍성하게 운영하였다. 이런 여름 방학동안의 특별 활동 외에도, 어른들과 함께 성탄 행사에 출연하는 것 등이 연례 행사가 되었다. 특히 2011년 11월부터 1년을 ‘어린이의 해’로 선포하고 당시 보좌신부였던 조후연 신부(2012년 7월에 주임신부로 임명됨)가 담당했다. 어린이들에게 성당이 재미있는 곳, 사랑받는 곳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생일 잔치를 풍성하게 해주고, 매달 한 번씩 일일나들이나 주말 순례도 준비했다. 가까이 있는 Met Cloisters 박물관, 멀리는 워싱턴의 National Shrine of Immaculate Conception,

몬트리올을 다녀 오고, 펜실바니아 Lancaster에 있는 Sight and Sound Theater에 성극 (musical)을 관람하기도 했다. 이 비용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쌓아주기 원했던 조민현 주임 신부의 초대로 이뤄



≡ 2019 성탄성극 공연관람 (Youth group 과 함께)

졌던 ‘모금의 저녁’을 통해 마련한 7만여 불로 충당했다. 한 달에 한 번씩 50~70명이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순례를 준비하고 함께 다니느라고 김 스콜라스티카 수녀의 수고가 많았다. 조후연 주임신부와 이 모세 수녀도 자주 동행하였다. 그때 주일학교 교무와 학부모회 회장이 누구인지 기록이 없지만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생각하며 고맙게 여겨진다.

주일학교의 학생 복사단을 창설하고 그들만을 위한 교육과 나들이등을 만들어 자부심을 길러주고 성소를 장려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지용철 씨가 어린이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인기가 좋아 주일학교 학생의 반 정도가 매주 모여 성가를 연습하며 찬양의 기쁨을 맛보게 한 것도 특별한 일이었다.



≡ 주일학교 summer camp.

이 후에도 수녀님들의 지도하에 주일학교의 교재를 더욱 충실하게 준비하고 교사진도 확충해 가면서 여름 캠프를 비롯한 연중 행사와 전례력에 따른 교육을 발전시켜 갔다. 성경암송대회도 하면서 성경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조후연 주임신부는 아동들의 신앙교육은 가



≡ 2023년 주일학교의 즐거운 개학

정에서부터라는 확신으로 학부모회의를 재편성하고, 영성체반의 부모들이 교리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시켰다. 이경신부가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주일학교를 위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 내에 어거스틴 성당을 마련하고 활성화를 꾀하는 중에 COVID 팬데믹(대유행)으로 주일학교도 문을 닫아야 했다. 이제는 팬데믹이 끝났건만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가정수가 아직도 그 전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본당에 나오는 젊은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 숫자도 늘 어날 전망이다.



≡ 2019년 주일학교 학부모

지난 50년 동안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고 발전해온 우리의 본당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학교 봉사 역시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봉사자들의 땀과 사랑

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그분들 하나하나의 숭고한 희생과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우리 각자는 과연 나의 노력과 열성이 예수님 보시기에 나의 최선이였을까 되돌아 보아야 할 때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누구든 이런 어린이들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지 못한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나는 과연 어린이들이 "예수님!" 하고 달려들어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한껏 전달해 주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앞으로 맞는 50년은 우리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가고 싶어서 성당에 가자고 조를 정도가



되도록 각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일학교의 소개를 마친다.

2000년 이후 주일학교 교무가 거의 매년 바뀌고 수녀들도 소임이 자주 바뀌어 떠나게 되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그간 교무를 맡았던 사람들 그리고 오랜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름이라도 남기고 싶은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아 답답하다. 위의 글에 거론되지 않은 사람들을 알아본 대로 적으면서 빠진 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 세라피나, Susie Cho, Jeanie Cho, 임 Danny (2008-9년), 김영호 요한 (후에 부제 수품), 김선린, 조경숙 로사 (2017-2022년), 박미리, 김 폴리나

자료 수집과 정리: 조은숙 루시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마르10,14~16)

“Jusus is good!”

오영숙 수산나
애틀랜타 한국 순교자 성당

+ 하느님 뜻 안에서 찬미 예수님!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먼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세례성사와 혼배성사 그리고 두 아들의 유아세례를 박창득 몬시뇰께 받고, 이종원 글라라 영세 대모님, 지정해 글라라 견진 대모님의 튼튼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세 후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봉사했는데 그중 인상 깊었던 것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무로 있을 때, 첫영성체반을 맡으신 분이 어떤 녀석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셔서 자주 그 애를 제 방에 데려와서 개인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 여자애는 공부 시간에 몰래 책상 밑으로 기어 다니면서 남자애들 운동화 끈을 풀어 놓고, 교실이 3층에 있었는데, 그 높은 유리창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하여 우리 교사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였습니다.

첫영성체 준비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과 부모들이 함께 모여 배너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머니들은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아주 곱게 재봉틀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모두 배너를 정성껏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이 애의 배너만은 손으로 누덕누덕 풀로 붙여서 너덜거렸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온 것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그것을 다시 뜯고 잘 만들어 성모님께 봉헌하고 어린애를 엄마께서 잘 돌봐 달라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드디어 첫영성체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친교실에서 예쁘게 차려입은 천사들을 돕고 있는



데, 처음 보는 분이 첫영성체날에 드레스와 신발을 주시면서 “누가 필요할지 몰라서 가져왔습니다” 하고는 갔습니다. 저는 ‘첫영성체날 누가 드레스를 안 입고 온담’ 하면서 그냥 옆에 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천사’들이 준비되어서 줄을 세우는데, 험레벌떡 계단에서 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고, 반바지에 구겨진 블라우스를 입은 꼬마는 천사 같은 친구들을 보자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그 순간만은 씩씩한 말쑥 꾸러기가 아니고 단지 초라하고 불쌍한 어린애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밀쳐 놓았던 드레스가 생각나서 열린 그 ‘짓궂은 천사’를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드레스와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옛 박스를 뒤져서 찾아낸 베일이 무늬와 색깔까지 드레스랑 꼭 맞아서 머리에 씌우고, 립스틱을 바르니 본인이 보기에든 예뻐던지 처음으로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었습니다. 예쁘다고 칭찬을 하면서 나가자 모두가 손뼉을 치며 맞아주었고, 우리는 예정대로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명씩 wedding 마치하는 것처럼 제대 앞으로 걸어 나가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성체가 다 끝나고 모두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리는데 누가 뒤에서 꺾꺾 찌르기에 돌아보니, 그 어린이가 감실에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Jesus is good!”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 이 예쁜 천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디서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감실을 지키는 수녀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행복한 희망을 꿈꾸어 봅니다.

한 가지 더 우스웠던 것은, 제 아들이 첫영성체 할 때 같은 반에 김 앤드루가 있었는데 제 아들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남편한테 아들 영성체 모실 때 사진 좀 잘 찍으라고 신신당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아들은 찍지 않고 다른 애만 계속 찍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서 “왜 마이클은 안 찍고 다른 애만 찍냐?”고 했더니 “어 저 애가 마이클이 아닌가?” 하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마음대로 뛰어놀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며, 갖은 격려와 사랑으로 품어 주신 박창득 몬시뇰 같은 아버지가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음을 새삼스레 깨달으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초창기부터 성당을 물심양면으로 봉사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책은 기도 낳고, 기도는 은총 낳고

이영주 소피아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하는 ‘무늬’만 천주교인으로 40대 초반까지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독실한 믿음 때문에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성당에 가야 했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줄여가며 성당에 왜 가야 하는

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은 그냥 좋으신 분으로 치부해 버렸고 기도와 성경은 저와 별개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눈과 귀가 닫힌 채로 어른이 되었고 점점 성당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세속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에 온 힘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겨우겨우 주일에 미사만 보는 생활이 지속되던 중 큰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 어머니의 권유로 큰아이를 SAK 주일학교로 보내기 시작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더 나은’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주일학교 자모회에 소속되었고 행사 때마다 봉사를 돕게 되면서 다른 부모님들과도 친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처음 주일학교 자모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성격이고 직장도 너무 바쁘게 다니고 있던 터라 자모회장직을 맡는다는 게 많이 부담스러워 몇 번 거절했지만 몇몇 분들의 진심 어린 설득으로 떠밀리다시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 큰아이가 정말 즐겁게 주일학교에 다니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공동체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처음 자모회장직을 맡고 모든 것들이 생소했지만, 전 자모회장님과 임원분들의 많은 도움과 응원으로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잦은 미팅과 행사, 점심 봉사, 이메일 등등 여러 일을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론 가정과 직장 일을 제쳐놓고 성당 일에 매달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직책을 맡은 것에 많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힘들었던 것은 봉사를 함께하면서 겪는 다른 학부모님들과의 의견 충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섭섭한 마음이 앞섰지만, 이왕에 맡은 직책이니 끝까지 책임을 저야 한다는 사명감에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러면서 좀처럼 하지 않던 기도를 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마음의 안정이 차츰 찾아왔습니다. 모든 고통, 슬픔, 불안함, 서러움을 혼자 끌어 안기 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바치니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응어리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니 세상을 보는 시각도 조금씩 바뀌게 되었고 상황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좋은 분들도 눈에 더 들어오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봉사하면서 받은 하느님의 크나크신 은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느님께서서는 하느님께 대한 저의 무관심 속에서도 저를 사랑하시어 늘 저와 함께 계셨고 인내를 가지고 저를 기다려 주셨고 포기하지 않고 바른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숙명으로 봉사하시는 다른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사는 하느님께 가는 지름길,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50주년 축하 카드

조경숙 목사



누구나 한 두개쯤은 좋아하는 단어나 문장들이 있을 것이다. 다른 봉사자들보다 어린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나 역시 몇 가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함께’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 이유는 머리를 맞대어 의논하고 함께하면 예상치 않았던 지혜와 힘이 생겨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기쁨과 보람이라는 선물까지 더해지는 경험을 종종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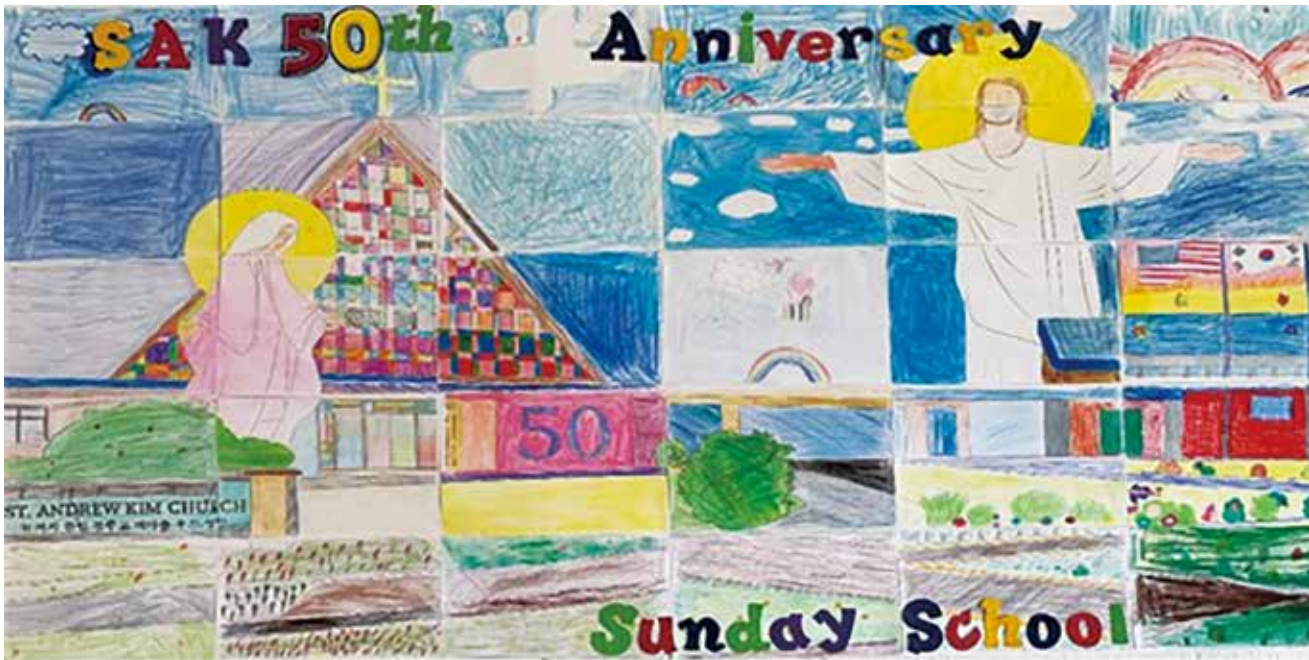
특히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과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다 같이, 우리 함께’하는 수업을 종종 하는데 그것은 교리 교육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결과에 교사, 학생들 모두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아래 작품 역시 우리 성당 50주년을 축하하는 그림 카드라는 의미 이외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다 같이’라는 뜻이 깊이 새겨져 있는 주일학교 식구들의 작품이다. 오랜 시간 고민하며 디자인하신 교사, 각 학년에 맞게 나누고 자르고 또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교사들 그리고 유치반부터 6학년 학생 하나하나가 각각 다른 모양의 종이를 받아 어떤 작품으로 탄생할지 모르는 호기심과 설레는 마음으로 원하는 색으로 꾸미고 색칠하여 완성된 우리 성당의 모습은 각자 작은 몫을 해내고 그것들이 모아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되는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다.

‘50살이 된 우리 성당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50살이 더 될 때까지의 우리 성당에 대한 소망을 그려낸 것이다. 내내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성모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요롭게 해줄 소중한 우리의 성당. 베풀어 주시고, 성모님께서 우



리의 기도를 더욱 풍요롭게 해 줄 소중한 우리의 성당. 그 소망을 어린이들이 표현한 그림 조각들…. 그 그림들 속에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미소가 더 밝고 환하게 빛나는 것은, 부족하고 서툴러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하는 그 마음이 예쁘고 기뻐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린 조각 카드를 모아서 만든 성 김대건 뉴저지 천주교회의 창립 50주년 축하 카드

학생회 - 내일의 주역

편집위원회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의 학생회, 고등학생들을 위한 활동은 오렌지시 Cleveland St에 자체 성전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1972년 본당 설립 이후 초창기인 1970년대에는 대부분 가정의 어린이들이 초급학년들이었다. 1980년 이후에는 중고등 학생들도 몇 명 있었지만 학생회가 따로 조직되지 않았고 주일학교의 일부로 주일 미사 후 고등학생만이 있었다. 그러던 중 청년들(조중극, 박형주, 홍원철 등)이 여름방학 캠핑을 시작하면서 고등학생들을 초대하고, 그 후에 세차 봉사, 볼링 대회, 피자집 나들이 등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학생회의 태동이라 할 수 있겠다.

1986년 5월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에서 수녀님들이 부임하고, 그해 가을 학기부터 김 세바스찬 수녀가 주일학교 교장직을 맡으면서 학생회를 독립시키도록 제안했다. 당시 본당주임 박창득 신부는 주일학교 창립 후 계속 교장직을 맡았던 조은숙 루시아에게 학생회 조직을 부탁했는데 이것이 학생회의 정식 출발점이 되었다. 그해 여름방학 캠핑은 당시 거주 사제였던 박종우 신부의 주관 하에 진행됐다. 가을학기 첫 학생회 모임에 거의 30명의 학생들이(9-12학년)이 모였고, 김정민, 정인석 교우가 봉사자로 동참했다.

이렇게 시작한 학생회의 주일 모임은 성서공부, 토의, outing 등을 마련해보았지만 영적 성장의 계기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구 신학교의 Zeni Fox 박사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묻더니, 외부에서 youth minister를 고용하기보다 자체 내에서 해결할 것을 권했다. ‘지금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와 봉사할 때 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권고였다. 그래서 조은숙 루시아가 청소년 사목과정에 등록하게 되고, 거기서 Antioch 피정의 효과를 체험한 어느 youth minister의 얘기를 들은 것이 학생회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박창득 본당 신부는 Youth Group director 조은숙과 학생들 몇 명과 함께 Antioch 피정의 소개 모임에 참석하고 그 피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 피정의 특징은 어른들이 아닌 11명



의 학생봉사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함으로써 참석한 학생들이 쉽게 공감하고 새로운 신앙의 자세를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본당의 부모들이 음식과 숙박 등 모든 후원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의 진정한 바람과 사랑을 맛보고, 또 본당이라는 울타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가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의 후원이 필요했다.

우선 발표하는 학생들의 신앙 여정을 돕고 신앙체험을 토대로 하는 발표문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팀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그 기간 동안 함께 걸어줄 workshopper가 필요했다. 또 거의 6개월에 걸친 준비 과정 중 발표팀을 위한 온갖 부모들의 후원도 만만치 않았고, 피정이 있는 주말에 70여 명의 참석자들을 위한 음식과 민박 준비 등등... 본당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엄청난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가능한 피정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피정 준비인데 막상 첫 번 시도하는 1987년도 피정을 3주일 남겨 놓고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학생들의 발표 준비 사항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미 우리 성당 학생들 뿐 아니라 다른 성당(Long Island, Philadelphia, Demarest, New Brunswick)의 학생들도 참여하기로 되어있는 상황이라 피정을 연기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인근 미국 성당에 도움을 청했지만 너무 급한 요청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답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연락을 한 Mandry 부부 (Antioch 피정을 시작한 ME



≡ 1987년 첫 안티옥 봉사자들. Dobbs Ferry 성당에서 지원받은 봉사자 6명. 박창득 목사님, 박종우 신부, 최승웅 (후에 부제 수품), 김정수 (후에 사제 수품), YG director 조은숙이 보인다.

부부)에게서 답이 왔다. 우리 팀 중에 준비가 안 된 발표를 대신해 줄 학생을 Dobbs Ferry 성당에서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Antioch 한 주 전에 와서 피정 rehearsal을 하면서 음악, skit, 오락, 부모들과 함께 하는 폐회식 등, Antioch 체험이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준비시켜 주고 피정이 있는 주말에도 함께 지내면서 진행을 도와주었다. 정말 하느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피정이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영어로 고백성사를 들어 줄 사제가 크게 부족한 것이었다. 주위 미국성당에 전화를 걸고 도움을 청했는데 그날 막상 온 신부는 2명뿐, 그나마 한 신부는 다른 약속이 있어 금방 떠나고 Morristown의 Assumption 성당에서 온 신부도 학생 몇 명과 고백성사에 대한 skit을 하고는 금방 떠나는 바람에 박창득 신부 혼자서 새벽 3시까지 성사를 주어야 했다. 그 후 피정에 참석했던 학생들의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다. 미사에 빠짐없이 참례하고 기도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도 기쁘게 자진 참여하면서 하나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전 신자가 함께 기도하고 수많은 부모들이 함께 후원한 피정은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 1992년 안티옥 폐막 미사에서 강론하는 Bishop. Cruz

이렇게 시작된 Antioch 피정은 1988년은 건너 뛰고, 1989년부터는 매년 30년간 진행되면서 우리 본당 youth group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뉴욕 주교좌 성당의 보좌신부였던 Fr. Manuel Cruz (2008년에 주교 수품)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학에 관심이

있었던 Cruz 신부를 의사인 조 루시아가 만난 것이 그 연결점이 되었던 것이다. Cruz 신부가 피정의 spiritual director로 발표팀의 준비 과정부터 도왔고,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고백성사를 위해 당신의 친구 신부들을 초대함으로써 해결하였다. 한국인 현지 사제들이 그 일을 도울 수 있게 되는 2000년도 초반까지 Bishop Cruz의 도움은 계속되었다.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성사를 맡아준 신부들로는 Bishop Cruz, Bishop Studerus, Msgr. Seymore, Msgr. Fuhrman, Fr. Denehy, Fr. Santoro, Bishop Flesey 등이 있다. 그 후 안티옥 피정에 학생을 보내고 싶어하는 성당이 많아 일년에 한 번은 본당에서 한 번은 다른 성당에서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Demarest 성당은 자체에서 매년 행하는 피정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주일 참석 학생수가 부쩍 늘고, 또 학생회에서 봉사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주일미사 전에 있었던 안티옥 후속기도회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교리교육을 할 수 있는 봉사자가 준비되었다. 본당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청년들과 대학생들 20여 명이 그들이다. 그들을 위한 피정, 캠핑 등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분담했다. 교리교육담당 counselor는 (김정민, 이 Cecilia, 원 Irene, 원 Audrey, 이순영 모니카, 조 Susie, 현 Kristine) Zinzag의 Shairng program을 교재로 학년별 모임을 맡고 일년에 한 번씩 1박 2일 class 피정을 진행했다. 이때 메리놀 수녀회 소속 Rose-Marie Franklyn 수녀와 송 요한 학사의 도움이 컸다.

전례부 담당을 정하고 (Danny Yi 가 오래 담당) 활동 담당 senior counselor들이 연례 행사 중 한 두 개를 분담 주관하도록 조직을 정립시켰다. 거의 매월 한 번씩 있었던 연례행사로 스키, 카누, 볼링, 여름캠프, 댄스파티, 부활계란 만들기,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산 등이 있었다. 이 중 여러 활동이 현재 까지도 전통으로 지켜오고 있고 또 새로운 행사, 봉사활동들이 더해지기도 했다. 연례 행사는 아니지만 성소를 위한 신학교 방문, 성소담당 신부초청, 이웃 양로원 돕기, meals on wheels에 cookie를 만들어 보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Maplewood 성전으로 이전한 후의 학생들의 활동은 다음에 다시 기록했다.)

학부모들을 위한 특강과 workshop을 마련했고, 특히 학생 피정이 있을 때면 피정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을 맞는 마음의 준비를 위하여 학부모 모임을 미리 하곤 했다. Youth group을 갓 졸업한 junior counselor까지 거의 30명이 되는 Counselor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명의 어른 봉사자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원 크리스틴, 최승웅(후에 부제 수품), 안호삼, 정구흥 등이 초기에 도왔고, 후에는 문 바오로, 김영철 등이 도왔다. 각반 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학부모 회의가 활발했는데 특히 초기의 김영기 부부, 박영호 부부, 1993년 World Youth Day를 위해 애쓴 이 막달레아(이충우 신부 모친), 그 후 이 세라피나, 김경승 부부 등의 공헌이 컸다. 그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없이는 학생들의 많은 활동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본당 youth group을 거친 젊은이들이 돌아와 봉사하기 시작한 것이 1990년도 중반부터였다. 김정수(2003년 사제수품)가 펜실베이니아에 직장을 정하고 여름 캠프를 돕기 시작했고, 뉴저지로 옮기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1996년이였다. 이때 이충우(2011년 사제수품), 채 글라라, Harold Han, Steve Jang, Sok Lee, Jo Han 등도 동참했다. 이 즈음해서 이데레사(1998년 살레시오 수녀회 입회)와 조홍래(2011년 사제 수품), Kristine Hyun, Susie Cho도 함께 하였다. 참 풍성한 시기였다. 1991년 Msgr. Fuhrman을 초대하여 Youth group 미사를 따로 봉헌하기 시작할 때는 교실 하나로 충분했는데 미사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계속 늘면서 교실 2개를 뺐고, counselor 숫자도 함께 늘어 미사참여 수가 100명이 넘게 되어 교실 3개를 합쳐 소성당으로 개조가 필요했던 기쁜 비명의 시기이기도 했다. Msgr. Fuhrman 외에도 Fr. Denehy, Bishop Flesey, Fr. Porter 등이 Youth Group 미사를 집전했다.

무엇보다 잊을 수 없는 것은 World Youth Day에 관한 것이다. 1993년도 Colorado Denver에 있었던 WYD 때 counselor장으로 youth group director의 보좌역할을 담당했던 이 세실리아가 대단한 열성으로 그 일을 잘 이뤄내었다. 그리고 학생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서 한 명이라도 더 보내려고 몇달을 두고 두부도 팔고 고기도 도매로 받아 파는 등 무진 애를 쓴 이 막달레나와 그를 도왔던 여러 교우의 노력으로 42명의 본당 학생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 4년 후인 1997년 파리 WYD의 준비를 위해 그 순례 여정을 답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던 안 마가렛다(다른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의 노력으로 로마 등 유럽 순례까지 함께 한 행사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다른 성당 학생들과 부모들까지 무려 142명이 함께 한 대그룹의 순례와 WYD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직접 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신앙체험을 남겨 주었다.

1997년 안인식부부가 youth group director 역할을 맡고 김 비오, 김 요한 등 새로운 counselor들도 영입했는데 이들이 사정이 생겨 본당을 떠나게 되면서 조은숙 루시아가 다시 1998~99년 director 역할을 맡았다. Youth group이 학생들 뿐 아니라 junior counselor 등을 포함한 본당의 많은 청년들을 포함한 큰 규모가 되어 좀더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학생대표부터 counselor(junior와 senior), 후원을 위한 어른 봉사자가 함께 하는 committee 체제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2년 임기로 맡았던 조은숙 루시아의 후임으로 젊은 세대가 director를 맡기 시작했다.



그 후의 학생회 활동은 기록이 없고, 관련되었던 사람들의 많은 수가 이사를 가고 또 다른 사정으로 우리 본당에 나오지 않아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2000년 후의 상황을 간단하게 기록해 본다.

2000년 후에도 안티옥 피정이 Youth group 일년 행사의 중심에 있고 이 피정을 통해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일치감을 이뤄갔다. 하지만 햇수가 더해 가면서 다른 한국 성당들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 본당 Antioch 피정에 보낼 필요성이 적어져서 참석 인원이 적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학생 수가 적어지면서 발표팀으로 선발할 학생들이 한정되었다.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한 SAT 준비와 과외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강해지면서 발표팀 부모들의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려워졌다. 그리고 피정을 위한 학부모들의 협조를 얻는 것도 점점 더 힘들어갔다. 2017년 부임한 이경 주임신부는 이런 상황에서는 안티옥 피정의 원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고 2018년부터 “Who am I?” 라는 피정으로 대체했다.

메이플우드로 성전으로 이전 후 본당이 여러 가지로 안정세에 들면서 Youth group의 활동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소성당에서 Youth group 미사를 봉헌하도록 마련하고, 그 옆방을 Youth group 방으로 지정해서 활동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본당 수녀들이나 보좌신부를 영적지도자로 정하고 정기적 신앙교육을 계획하는 한편 견진성사도 2년에 한 번씩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리고 중요하게 더해진 활동은 선교와 봉사활동이었다.

학생들이 해외 선교를 처음 간 것은 2010년 에콰도르였다. 그 후에도 계속, 2015년까지 총 7회에 걸쳐 4개국(과테말라, 파나마, 멕시코, 볼리비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



≡ 2022년 학생회 모습



≡ YG 학생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성경읽기를 즐겁게 진행하는 모습

면서 미국과 다른 환경을 체험하고 새롭게 신앙의 길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들을 위해 학부모들은 골프대회와 부녀회의 식사 때 모금 등으로 후원하였다. Youth group에서는 봉사정신을 길러 주기 위한 다른 활동을 자주 마련했다. 본당 내에서는 어른들의 활동을 돕는 봉사를 하고

(설거지, babysitting 등), 대외적으로는 midnight run을 계속하고, soup kitchen도 방문하고, Newton 분도수도회의 Christmas tree 판매를 돕기도 했다. 주일학교에서 시작된 활동으로 학생회에서 맡아하는 크리스마스 Giving tree도 여러 해 계속해 오고 있다. 이 행사는 성탄을 기해 전 신자 상대로 모금을 하여 고아원에 선물을 보내고 박창득 문시놀이 건립한 북한 유치원을 돕기도 했다. 과외 활동으로는 전통적으로 해오던 summer camp, ski trip 외에 ice skating, corn maze, 모금을 위한 bake sale과 tea party를 준비하고 어른들을 위해 재미있는 여흥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7년 7학년과 8학년생을 주일학교에서 Youth Group으로 편입시키고, 박 세례자 요한 수녀를 spiritual director로, Leo Hwang 교우를 Youth Ministry Director로 임명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한 Lock down 시기 동안에도 Zoom으로



≡ 2022년 분도 수도원에서 Christmas tree 판매를 돕은 학생회



≡ 2020년 Youth Group 피정

Youth group meeting과 성서 묵상을 지속적으로 했다. 뉴약대교구청은 이러한 수고를 인정하여 2021년 Leo Hwang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그 후 박 세례자 요한 수녀가 2021년 본원으로 귀환하게 되어 김정경 보좌 신부가 spiritual director를 맡았다. 김 신부는 교회의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사회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생회의 목적임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교리교재의 수정을 착수했다. 그에

따라 학생회에서는 매 주일 미사 후에 1시간씩 교리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경 주임신부의 지침에 따라 학생들이 집에 온 듯 따뜻하게 환영받는 성당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사랑을 강조하고 학부모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뤄가려고 노력중이다. 연례적으로 해오던 여러 활동들과 “Who am I ?” 피정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학생회(7~12학년)에 등록된 숫자가 30~40 정도이다.

2022년 부터 교회 내에 청소년사목부를 두어 Leo Hwang가 책임을 맡고 Matthew Park 이 Youth Group director로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Kenny Chan이 counselor로 봉사하고 있다.



≡ 2021 년Youth Group 캠핑 중 미사. 김정경 신부

이경 주임신부는 Youth group과 주일학교가 교중미사와 다른 시간에 따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세대 간 교류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학생회와 주일학교 미사가 교중미사와 같은 시간에 봉

현되도록 시간을 조정하고, 매달 마지막 주일은 가정미사로 전 신자가 함께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생회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에 대한 기대는 크다. 저출산율에다 교회 참석율이 저조해 가는 풍조에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공동체를 체험하고 신앙을 배우는 이들이 몇 년 후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본당과 부모들이 함께 고민하며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들 세대에 맞는 신앙 전수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제 까지 해오던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탈바꿈이 필요한 지 함께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생

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digital technology가 되던 AI 이용이 되던 그들과 소통하는 길을 찾아야 그들이 교회 내에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교회 내에 자리 잡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회에 대해 본당 사제들과 youth minister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전 신자들의 관심과 동참이 있을 때 그 사랑 속에서 학생들은 학생회를 넘어선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Christian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



≡ 2023년 가을 학기 첫 모임에 모인 학생회



≡ Youth group에서 오랜 동안 봉사해온 Youth ministers, 왼쪽부터 Kenny Chan, Leo Hwang, Matthew Park Nancy Duker



뽐을 배우게 된다. 학생회는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가는 교회 내 소 공동체임을 생각하면서 학생회 소개를 마칩니다.

2000년 이후의 Youth group에서 봉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 여러 명의 이름을 찾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거론된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봉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1986~2000년 간의 봉사자 이름은 이 글 중에 이미 나와 있다.)

*** 2000년 후 Director, senior coun selors로 여러 해 봉사한 교우들**

△김정수 (2003년 사제 수품) △이충우 마이클(2011년 사제 수품) △Paul Park (2018년? 부제 수품) △Andre Park △Andrew Choi △Susie Kim △Sarah?? △Yeni Kim △Mike Duborisk(spelling 이 틀렸을 수도) △Joan Ahn, △Yumi Pak △김요한(2020년 부제 수품) △김영호 요한 △Leo Hwang △Matthew Park △Kenny Chan

*** Spiritual director(주임신부 외에)**

△Tom Bulgia부제 △박 세례자 요한 수녀 △김정경신부

*** 어른 봉사자: 임연숙미카엘라**

학생회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대비책을 깊게 고민할 때이다.

학생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학생회의 앞 날에 대한 우려도 깊다. 이것은 비단 학생회 뿐만 아니고 주미 한인 가톨릭 교회의 공동 과제이다. 한국 경제의 신장과 저 출산율로 새로 미국으로 이민 오는 한인 숫자가 현격히 줄어가고 있고, 이민 후세들의 한인 교회 참석율이 저조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탈바꿈을 해야 하는 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할 때이다.

몇 년 후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학생들이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공동체를 체험하고 신앙을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성당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맛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끄는 길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더 정성을 기울이도록 독려하고, 본당 차원에서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과 청소년들을 성당 안으로 끌어들

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해온 취미, 스포츠 활동, 교황 주재 세계 청소년대회 참가 권유, 해외봉사활동을 더 심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예를 들면 대학진학을 돕는 활동, 장학제도, 멘토링 제도 등을 개발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필요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것이 digital technology가 되던 AI 이용이 되던 그들과 소통하는 길을 찾아야 그들이 교회 내에서 자리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교회 내에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당 사제 수도자들과 youth minister 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전신자들이 학생회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때, 학생들은 학생회를 넘어선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Christian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쁨을 배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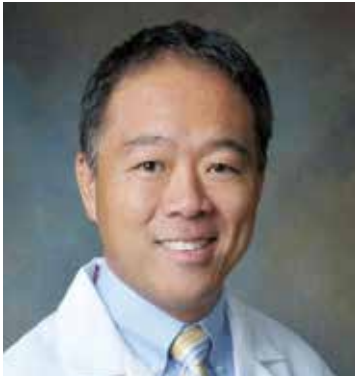
학생회는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커가는 교회 내 소공동체임을 생각하면서 학생회 소개와 학생회에 대한 바람을 써 보았다.

자료수집과 정리: 조은숙 루시아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요한 10,3~4)

St. Andrew Kim Church: Thanks to all the Parents!

Bryant Lee



St. Andrew Kim Church represents the ideal of Catholicism in my mind. The love, and support of the community have supported my family since we moved to New Jersey in 1975.

I recall the first day in the church in July, 1975. The congregation was located in a small church in Montclair. Not understanding the language, I sat during the Korean mass waiting for the final benediction and for the opportunity to run outside. However, before the mass was over mom told us to stand up. As we got up, a welcoming applause greeted us. Being only five years old, I had no idea what was going on but my parents were bowing over and over.

The support that my family received from this Korean Community may not be fully appreciated to the younger generations of today. Living in northern NJ in the 1970's, there was no other Korean child in my class. There were no local Korean restaurants or gigantic H-Mart stores. There were no Asian actors in TV shows or commercials. Although I was not fluent in Korean, seeing other children and families sharing my "face" and my culture was unconsciously reassuring. I recall the many hours of football that I played with my childhood friends, Day, Young, John... every Sunday in the school yard across the street from the church in Cleveland Street, Orange. St. Andrew Kim Church was a place where it was "safe" to be a Korean.

As I grew older in the church, SAK grew with me. The church not only grew in numbers and size as we relocated from one place to the other, but also grew spiritually to fill the needs of the parishioners. The one room Sunday school class with Miss Myers expanded into a school with teachers for every class. First Communion classes taught us the Catholic doctrine. During my high school years the Youth Group flourished. I looked forward to the weekly meetings and to the programs like summer camps and the Antioch Retreats. I learned that I could enjoy meeting other young people under the umbrella of Catholicism. My friends and I could lead retreats, prayer groups and learn how to be a good person by the examples set by our peers and parents.

However, all this growth and change did not happen spontaneously. I don't think I ever considered the energy and effort it must have taken to create all of these programs until writing this letter today. I want to thank all the parents, even though belated. Your efforts were worth it!! Your efforts helped shape the young children who grew up in the church for the past 50 years. S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gain belated, I must give praise and thanks to our deceased Msgr. Augustin Park. His love and grace shined throughout our community. He had a deep desire to help the younger ones in the parish and wholeheartedly supported the various youth programs. When I close my eyes, I still see his broad smile and can hear his joyous laughter. His eyes squeezing shut with his face lifting slightly to the sky and a boisterous laugh ringing out. I miss Msgr. Park and I miss his goodness.

These are my memories of St. Andrew Kim. I thank the SAK community for the support that it has given me and my family and wish the parish another 50 years of love and support.



The Giving Tree

Jessica Kim



The Giving Tree by Shel Silverstein is a children's picture book about a tree that continuously gives its resources to a boy throughout his life and teaches the importance of altruism. Our church's annual Giving Tree fundraising embodies this idea: practicing selflessness and giving to others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During my twelve years of being a part of the St. Andrew Kim Church family, many years were filled with giving to different communities during the Christmas season. What started as a small project to collect gifts for a local organization grew to be a church-wide fundraising effort for underprivileged North Korean children, then a mission in Ecuador that establishes schools for young children.

I remember helping my mom and older sister prepare tags for the Christmas tree and seeing them make announcements during mass. Not knowing I would be eventually doing the same things myself, I used to sit at the donation table smiling and saying, "Thank you, Merry Christmas!" to everyone, while my sister and mom handled the donations.

Once the Giving Tree was transitioned to the Youth Group to lead, more people became part of the fundraising process. The first year I was in charge of organizing the fundraising, I became more involved with preparations ranging from decorating the Christmas tree, to keeping track of donations and creating flyers. At first, I was nervous about having enough volunteers and reaching our donation goal; however,

after sharing the purpose of the Giving Tree to the Youth Group, I was surprised with how many people wanted to help and were willing to do even the smallest tasks to make everything go smoothly. With the support of the Youth Group students, counsellors, and generosity of the parish, we were able to continuously have successful Giving Tree seasons.

The reason why Giving Tree was able to keep going year after year was not our



≡ Giving Tree team at Christmas of 2018

friends and family telling us “good job” or the “thank you” we would receive from others, but the spirit of working together to help those in need and seeing how much something relatively simple and easy to

put together could impact other peoples’ lives in a positive way. Knowing that our efforts went towards a greater purpose to help people, who we did not know, was the best gift we could give to ourselves.

True altruism starts with selflessness and good intentions; throughout my time at St. Andrew Kim Church, I can say that my experience with the Giving Tree has reflected those values. As the church continues to grow and change, I hope we can continue to help those who need it most and spread our love and gratitude to one another as well as those around us.

와 전통, 역사 문화에 대해 공부하는 학교로 크게 발전했다.

메이플우드성당으로 이전하면서 조후연 학사(2006년 사제 수품), 이 사라, 임 미카엘라, 임 사비나, 강봉희 교우 등이 봉사했다. 이외에도 여러 교우들이 봉사했는데 그 이름을 다 알 수 없어 안타깝다. 여러 가지 여건이 토요일에 한국학교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잠시 휴교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성당 부속 건물을 임대해 쓰던 학교가 나가면서 조민현 주임신부는 대철한국학교를 다시 부활하기로 결정하고 문상일 마태오의 도움으로 2009년에 대철한국학교가 부활되었다. 그 때부터 관심있는 신자들 만이 아니고 정규 교사를 고용하여 교육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정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한국인 밀집지대가 아닌 메이플우드에 위치했

음에도 불구하고 개교 1년 후에는 등록 학생이 60명이 넘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1.5세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성인반을 운영하기도 했다. 꾸준한 발전을 계속하면서 한글과 한국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동화 구연대회, 시화 경연대회를 열기도 한다.



≡ 2019년 대철학교 시화대회 작품 은상



≡ 2019년 대철학교 학생들의 공작 작품

문상일 마태오가 대철학교의 재개교를 준비한 후 향후 3년간 (2009~2012)교무로 일했고, 그 다음 신명주 안드레아 (2012~2016)가 교무를 맡아 일하면서 뉴욕 총영사관 산하 한국문화원에서 학교 운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



여 좀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다음 (2016~2017) 교무였던 황선미 스텔라는 유아 전문가답게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야외수업 및 장기 자랑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학부모들에게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문학찬 바오로(2017)는 여러 가지 새로운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자료 축적 작업을 하였다. 그 뒤를 이은 신은영(2017) 제노베파를 거쳐 박경숙 로사(2018~2023)로 연결된다. 코로나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과 학생 수의 감소로 힘든 상황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한글과 신앙교육을 접목하려는 노력이다.

* 대철한국학교 연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본당 교우들의 가정은 물론 재미한인 가정과 사회의 가장 큰 숙제와 의무는 미국 속의 한인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성장시켜 미국의 존경과 박수를 받으면서 여러 인종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한인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2세와 후세들이 한국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어야 한다. 그 효율적인 방안이 주일학교와 한국학교 이다.

미국 곳곳의 한국학교는 한글과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전통 등 한국혼도 가르치고 익히게 한다. 그래서 학교이름을 ‘한글학교’라고 하지 않고 ‘한국학교’라고 한다.

우리 본당의 신자들은 자녀들을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앙인과 동시에 당당한 한국인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당연히 주일학교와 한국학교는 내일의 우리 본당과 한인사회를 지켜 나갈 일꾼들의 못자리이다.

우리 본당과 교우들은 내일을 위해 더 큰 정성을 기우려 주일학교와 한국학교를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 수집과 정리: 조은숙 루시아
도움을 주신 분: 문상일 마태오

RCIA - 예비신자 교리교육

새 삶의 출발

조은숙 루시아

1970년대와 1980년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많았던 때고 또 한인성당이 처음 생겼던 터라 새 입교자의 수가 매년 늘었다. 부활절과 성탄절에 일 년에 두 번씩 세례가 있었건만, 매년 이삼십 명의 세례자가 나왔다. 특히 Orange시 Cleveland St.에 자체 성당을 구입한 후에는 예비신자가 더욱 늘어 1989년에는 성인 세례자가 무려 133명이 되었고 그 해 유아 영세자도 45명이나 되었다. 주로 신부님들께서 예비신자 교리를 담당하셨다. 한때 연세가 높으신 김종인 박사께서 도우셨는데, 매년 교리 내용을 써 박창득 신부님께 확인받으시던 기억이 있다. 70도 넘으신 그분의 겸손한 자세에 깊이 감명을 받았다. 1985년 가을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님들이 오시며 예비신자 교리를 전담으로 맡으셨던 기억이 있다. 2001년 당시 보좌신부로 계시던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께서 이인옥 켈마 수녀님, 김성규 부제님, 이종덕 프란치스코 형제의 도움을 받으며 거의 2년에 걸쳐 평신도 교리교사를 양성하셨다. 그때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써 지광오 바오로 형제와 김 미카엘라 자매, 허영희 마리안나 자매와 정순옥 켈마 자매 등이 있었다.



≡ 1984년 세례성사를 마치고

지광오 형제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신자 교리반을 위해 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에, ME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했다. 그때 레지오 단원들이 예비신자들을 위해서 커피와 도넛 등을 매주 준비하곤 했다. 또 성당 버스로 일

씩 성당에 도착하는 아삼모 어르신들도 함께 교리 강의를 들었다. 김 미카엘라 자매는 주일반에 참석할 수 없는 예비신자가 있으면 주중 예비신자 교리반을 맡아서 운영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허 마리안나 자매와 정 켜마 자매는 그 봉사를 계속하였다.

2012년 조민현 주임신부님은 영어로 수업하는 교리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Youcat' 스터디 그룹을 만드셨다. 최진원 모이세 형제, 최재희 라파엘라 자매, 윤혁준 알베르토 형제, 윤현남 어거스틴 형제, 윤금실 세실리아 자매, 문상일 마태오 형제, 조은숙 루시아 자매가 함께하였다. 이 그룹이 다음 해 학생회 견진 교리를 준비하였고, 성당 부제로 봉사하던 Thomas Bulgaria 부제님과 윤현남 형제는 영어권 예비신자들을 위해 영어로 교리 교육을 하였다.

2017년 이경 신부님께서 본당신부로 부임하면서 RCIA(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를 조직하기로 하고 조은숙 루시아 자매에게 그 조직을 부탁하면서 director의 책임을 맡기셨다. 우선 교재 선택이 중요했는데 이 신부님이 마돈나 성당 재임시 썼던 '함께하는 여정' 교재 지침에 따라 적은 숫자의 예비 신자들과 한두 명의 봉사자가 소그룹이 되어 삶과 신앙 체험을 공유해야 하니 봉사자가 많이 필요했다. 14명의 봉사자가 참여, 교육을 받고, 소그룹에 투입되어 신앙 체험을 나누니 예비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이 생겨나 활동도 하였으며, 세례 후 주님의 아들, 딸로 열심히 살아갔다. 봉사자들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체험을 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함께하는 여정' 그룹도 비대면으로 만나야 했고, 교회 인원 제한 때문에 한두 명씩 나눠 네 번의 세례성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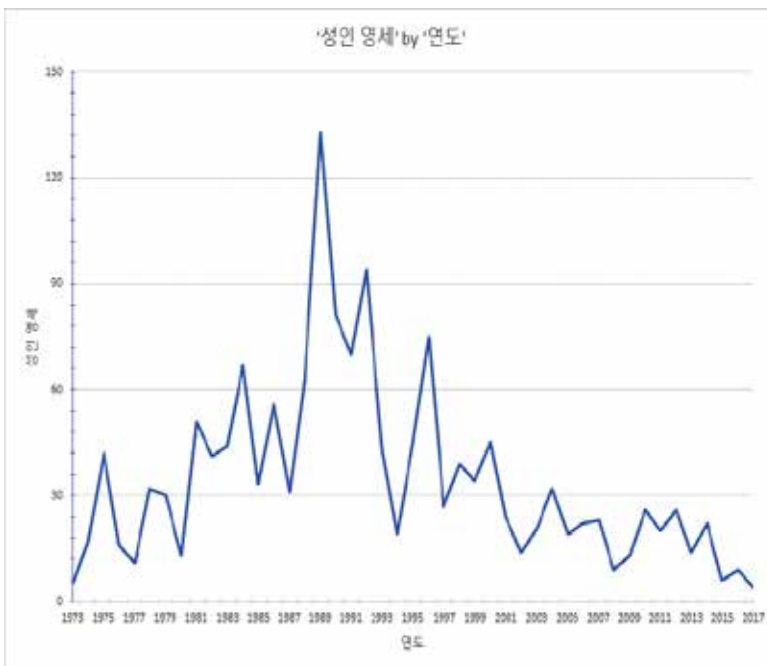
RCIA의 소그룹 교리반의 모습. 2019



≡ 2019년 영세 준비 피정 미사중 : 김영민 신부님 집전

거주지에 가까운 성당을 찾게 된 것도 큰 이유이다. 특히 우리 본당의 위치가 새로 형성되는 한인 밀집지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 여겨진다.

우리 본당에 새 세례/입교자들이 많았던 때는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1990년을 중심으로 한 10년 정도였다. 1989년에는 133명이었다. 그 후로는 많이 줄었다. 새 이민 숫자가 줄기도 했지만, 뉴욕대교구에 여러 개의 한인성당이 생기면서



김영호 요한 형제가 2020년 5월에 부제로 서품되면서 director의 임기를 마친 조은숙 루시아 자매를 이어 RCIA director를 맡았다. 대면 교리가 어렵고 새로운 예비신자 숫자도 적은 팬데믹 기간을 이용해서 봉사자를 교육하기로 하고 매주 교리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타주로 이사 간 동반자가 비대면으로 계속 봉사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삶을 나누는 소그룹에서 보게 되는 연대감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2019~2020년도에 영어권 예비신자가 있어서 조은숙 루시아 자매가 ‘함께하는 여정’의 교재를 영어로 번역해서 운영했으며, 그후 김요한 부제님이 director가 되면서 영어 교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례를 받은 새 신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적성에 맞는 교회 내 소공동체에 속하도록 인도하고 동참하면서 이끌어 주는 것이 그들이 교회 내에 뿌리를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역회, 레지오 마리아, WWME, 지아모(지구를 사랑하는 모임), 성서 묵상 그룹 등이 있다.

영어권 새 신자(John Kauh 베드로) 한 명을 위해 모인 성서 그룹에 동참자가 여럿이 되어 몇 년째 계속되는 젊은이 신앙모임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또 다른 예로는 교리교육 중에 봉사의 기회로 꽃동네와 연결되어, 아이티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기 시작하고 교리를 마치고 입교한 후에는 (박자영 카타리나) 본당의 환자 가족을 돕는 “도담도담 모임”을 이끌게 되기도 했다.



≡ 2021년 견진을 마치고 Bishop Cruz 와 함께 RCIA 봉사자들: 왼쪽부터 조광재, 김경애, 김혜인, 조미영, Bishop. 조은숙, 서남령, 서재훈

RCIA가 어른들의 입교를 돕는 기구이므로 어른 견진성사반의 행정을 돕고, 또 오래 냉담했던 신자들이나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입교하는 데 필요한 교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대개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예비신자 교리반에 동참하도록 권해서 교리의 재교육을 받도록 진행해 왔다.

RCIA 봉사자

Director:

2017.4 ~ 2020.6 : 조은숙 루시아

2020.7 ~ 현재: 김영호 요한 부제

여러 해 계속해서 봉사하는 동반자

김영호 요한 부제, 김경애 요안나, 김혜인 베로니카, 신은영 제노베파 (비대면 봉사),
조광재 세바스티안, 조미영 데레사, 조은숙 루시아,

2022년에 새로 동참한 동반자

권선옥 마리아, 서남령 비비안나, 서재훈 요한, 조성원 스테파노

봉사했던 동반자

김관섭 안나, 문상일 마태오, 조남근 모세, 송화임 크리스티나, 이해영 헬레나,
지영덕 어거스틴, 최재희 라파엘라, 최진원 모이세, 허영희 마리아나, 허정수 안나

오히려 지혜, 젊음 전도 받는 'RCIA 봉사'

김혜인 베로니카



이경 신부님께서 우리 본당에 주임신부로 부임하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예비신자를 위한 교육 체제를 새로 만드는 것이었다. 조은숙 루시아 씨에게 RCIA(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의 체제를 강화하도록 부탁하셨고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셨다.

루시아 선생님께서 RCIA 봉사팀을 구성하면서 저에게 함께 봉사하자고 청하셨지만, 으레 선생님처럼 가르쳐야 하는 줄로 알고 자격이 없다고 사양했다. 하지만 '함께하는 여정' 프로그램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한 것을 나누면 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부담 없이 동참하기로 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예비신자 교리반이라 긴장이 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 더불어 예비신자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고,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도 좋았다.

새로운 교재를 따라 신앙 나눔을 하다 보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특히 첫해 교리가 끝나고 예비신자들의 세례 준비로 본도 수도원에서 피정을 가졌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어떤 굴곡을 거쳐왔는지 묵상하고 나눠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순명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느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일은 잊혀지지 않는다. 영세자들을 위한 피정을 준비하면서 RCIA 동반 봉사자들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하는 동안 서로 주고 받는 활력을 체험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됐다.

여러 번의 초대에 마지 못해 '함께하는 여정' 시간에 한 번만 청강하겠노라고 왔던 분이 두

번 세 번 함께하면서 마음이 열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은 저에게 큰 기쁨을 안겨 주었다. 없는 시간을 쪼개어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한 예비신자가 피곤하고 지칠 듯 싶은 생활에도 불구하고 결석 한번 하지 않고 행복한 표정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더니 어머니를 세례를 받게 하고, 딸은 견진성사를 받고 성당에서 봉사하게 이끌고, 자신도 레지오 마리아에 입단해서 활동하고 있다. 주일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미사에 오는 모습을 보며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된다.

그리고 근래에는 젊은 사람과 여정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솔한 그들의 나눔을 들으며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젊은이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면서 그들의 에너지가 나 역시 젊게 만드는 그 느낌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다른 봉사자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느낀다고 한다.

요즘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피정도 못하고 모임도 인터넷으로 해서 매우 아쉽지만, 그 대신 매주 봉사자들이 교리 공부를 하며 삶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가까워지는 은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RCIA의 봉사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리게 된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세례를 받고 ‘지아모’에 들어와서 함께 했던 김공주 모니카 자매님의 갑작스러운 귀천과, 동반했던 이숙희 베로니카 자매님의 귀천이 저의 마음에 머물며 언젠가 우리도 거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열어주소서”

세례 받기까지

이태용 토마스



아내와 함께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된 지 벌써 해를 두 번이나 넘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라는 거창한 물음에 명쾌한 답이 없듯이 “왜 나의 종교로 천주교를 선택했나?”하는 물음 역시 같은 난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선 한 발을 문안에 디밀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채선옥 요세피나 자매님의 적극적이고도 ‘무서운’ 인도를 받아 Maplewood 성당을 찾게 된 때가 2017년 초봄이었습니다. 교리공부 일 년을 시작할

무렵에는 한갓 가을 낙엽 한 잎에 올라 앉아 부부가 서로를 격려하며 망망대해 거친 파도에 몸과 마음을 맡기는 심정이었는데 6개월 가량 지나면서 어렵풋이나마 천주교 교리에 대한 나름의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조금은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매주 주일미사 한 시간 전에 시작되는 교리 수업은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봉사하시는 강사님들의 진지하고 열성적인 지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적당주의가 애당초부터 배제되고 부드러운 분위기가 자연스레 이뤄지면서 매시간 공부가 끝날 때면 아쉬움이 들 정도로 알찬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늘 고마웠던 것은 비단 저희 부부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Chapter 30까지 빼곡히 짜인 스케줄(2017~2018년)에 따른 내용이 어렵다고 여겨진 과목은 별로 없었으나(여러 기도문 암송 이외에는) 일 년을 공들여 배워서 세례의 은총을 받는다 해도 하느님께는 고사하고 조만간 닥칠 마지막 날 자기 자신에게도 떳떳할 수 있겠는지, 즉, 실천 여부에 대한 회의를 떨쳐 버리기 어려웠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못함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일 년에 걸친 교리 교육을 정리 마무리하는 행사로 교회가 마련해 주신 (3월 3~4일, 분도 수도원에서) 피정에서 체험한 2박 3일은 아직도 감사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간혀있는 제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실 안에 들어가도록.

“저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영세받기 전 후 마음의 심경

박두선 요셉



나는 2019년 부활절에 영세했다. 세례를 받기 전 후의 심경을 글로 적어놓았다.

‘저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작년 초가을 우리 부부를 점심에 초대하신 분이 말하였다.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당장 성당을 다니게 되면 이것저것 나를 얹어매는 것이 많을 텐데, 자유라니. 더구나 마음속에 오랜 시간 형성된 나만의 종교관을 쓸어내리려 할 터인데. 난 잘

포장된 상품화된 종교를 믿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또 다른 종교이건. 고맙게도 나는 이 세상에 한 생명체로 태어나서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고 음미할 수 있는 기막힌 행운을 가졌다. 더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주의 진리도 맞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런 나에게 눈을 감고 무조건 하느님을 믿으라는 건 무리였다. 더구나 그건 내 생각을 구속할 것이 아닌가?

점심이 끝나갈 무렵 그분은 본색을 드러냈다. 최근 한 분을 위해 새 예비신자반이 생겼는데 나도 그 반에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다. 나는 늘 하던대로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그 후 계속 간간이 이어지는 권고에 그만 딱 한 번만 참관하기로 말씀을 드렸다. 사십 년이 넘게 쌓아온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딱 한 번의 참관은 참여로 이어졌다. 첫 참관 시간에 나는 봉사자 두 분의 따뜻함과 열정에 내 마음속 열음에 채워 잘 보관된 생각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종교를 떠나 나는 자신의 healing camp에 와 있었다. 새 신자반에서 나는 진리(원리)에서 불거져 터져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다.

부활절 몇 주 전 예비신자들은 뉴턴 수도원으로 피정하러 갔다. 프로그램 중 소그룹으로 지난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 보는 시간이 있었다. 신기하게도 내가 속한 그룹의 멤버들은 마치



내가 하나하나 직접 뽑은 듯 마음이 편했다. 지금까지 가슴 속에만 있던 생각을 모조리 토해 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리곤 마치 장마에 산사태가 나듯 그것이 밀려 나왔다. 그 후 내 가슴 속 한 구석에 공간이 하나 생긴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성령으로도 믿음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혹 내가 마음이 가난해진 것일까?

부활절이 오고 나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고맙게도 내 맘에 꼭 드는 대부를 소개받았다. 그간 나는 대부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최근에는 성지순례를 같이할 기회도 있었다.

한 형제분이 영세를 받은 후 달라진게 있느냐고 물었다. “글쎄요 주변 형제 자매님들이 귀하게 생각되네요”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하나가 더 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편하고 즐거워지고 있다. 머지않아 난 믿음 안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1코린 7,22)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한 4,23~24)

레지오 마리아 - 잘 조직된 성모님의 군대

이인덕 안드레아

레지오 마리아는 가톨릭교회가 공인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서 ‘마리아의 군단(The Legion of Mary)’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적 군대입니다. 1921년 9월 7일 설립자 프랭크 더프 등 15명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자비의 모후’란 이름으로 레지오 마리아의 첫 모임을 가졌고, 2021년 9월 7일 레지오 마리아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레지오 마리아의 목적은 단원들의 성화를 통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으며, 단원들은 교회의 지도에 따라 뱀의 머리를 부시고 그리스도 왕국을 세우는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기도와 활동으로 협력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합니다. 전 세계의 레지오 단원 수는 약 300만 명입니다. 그중에 한국 본토에 있는 레지오 단원은 55만 명입니다. 재외동포 레지오 단원을 합치면 근 60만 명으로 전세계 레지오 단원 5명 중 1명은 한국 사람입니다. 레지오 마리아는 성모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평신도 사도직 중에서 가장 크고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 레지오마리아에 아치에스 행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첫 번째 레지오 마리아 모임은 1982년 6월 26일, 김광한 안드레아 단장과 4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사랑하올 어머니’ 뿌레시디움 회합이



며 ‘평화의 모후(1986)’, ‘자비의 모후(1987)’ 뽀레시디움이 차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증거자의 모후(1990)’, ‘영원한 도움의 성모(1992)’, ‘길의 인도자이신 모후(1992)’ ‘병자의 구원이신 모후(1992)’, ‘순교자의 모후(1993)’, ‘은총의 모후(1995)’, ‘가난한 이의 동정녀(1996)’, ‘겸손하신 모후(1999)’, ‘성모 성심(1999)’, ‘천상의 모후(2000)’, ‘마니 피캣(2002)’, ‘상아탑(2009)’, ‘가정의 모후(2010)’, ‘사랑의 샘(2012)’, ‘티 없으신 어머니(2013)’, ‘구세주의 어머니(2016)’ 뽀레시디움이 설립되었고, 1987년 뽀레시디움의 상급 기관인 ‘하늘의 문’ 꾸리아도 설립되었습니다. 하늘의 문 꾸리아는 뉴욕, 뉴저지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들의 소망이었던 꼬미시움 창설의 기반이 되어 2012년 1월에 뉴약대교구 Myers 대주교님의 승인으로 뉴약 한인 꼬미시움으로 승격되어 뉴저지 꾸리아의 상급 평의회가 되어 뉴저지 레지오 단원들을 아우르게 되었고, 본당에는 희망의 모후 꾸리아가 설립되었습니다. 꼬미시움 설립에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고, 특히 이경 신부님, 조민현 신부님, 박홍식 신부님들과 조영종 단장께서 주역을 맡아 주셨습니다.

역대 꾸리아 단장님은 김광한 안드레아, 조영종 울리오, 허정수 안나, 지광오 바오로, 이인덕 안드레아, 이승한 발렌티노, 김경애 요안나, 허영희 마리안나 자매님이시고, 현재는 이인덕 안드레아가 희망의 모후 꾸리아 단장으로 있습니다. 한때 행동 단원수 18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었던 메이플우드 성당의 레지오 마리아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오랜 휴식기를 끝내고 다시 회합을 시작하기 위해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신 본당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본당 레지오 마리아를 지켜 주신 성모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희망의 모후 꾸리아 소속 각 뽀레시디움 (Pr.) 활동 상황 (2020년 팬데믹 전까지)

- 성모 성심 Pr. - 새신자 담당
- 사랑의 샘 Pr. - 새신자 담당
- 천상의 모후 Pr. - 병원 및 양로원 봉사, 병자 가정 방문, 주보 접기
- 병자의 구원이신 모후 Pr. - 헌금 정리
- 길의 인도자이신 모후 Pr. - 미사 준비, 제의방 정리, 제대 청소
- 은총의 모후 Pr. - 성당 화장실 청소, 어거스틴 성당 및 소성당 청소

하늘의 문 꾸리아 산하 1987년 6월 7일 설립			
꾸리아	성당	날자	비고
하늘의 문 꾸리아	메이플우드	1987.06.07	설립
겸손하신 모후 꾸리아	데마레스트	1992.11.08	하늘의 문 꾸리아 소속 후 설립
천주의 모친 꾸리아	성 백삼위	1996.03.21	하늘의 문 꾸리아 소속 후 설립
사랑의 어머니 꾸리아	마 돈 나	2007년 9월, 10월	하늘의 문 꾸리아 월례회 참석
희망의 모후 꾸리아	메이플우드	2012.02.03	하늘의 문 꾸리아에서 분가
희망의 모후 꾸리아 산하 2012년 2월 3일 설립			
사랑하올 어머니	메이플우드	1982.06.26	
상지의 좌	메이플우드	1983.04.10 ~ 1987.04	
평화의 모후	메이플우드	1986.06.01 ~ 현재	
자비의 모후	메이플우드	1987.03.01 ~ 현재	
증거자의 모후	메이플우드	1990.01.23	사랑하올 어머니에서 분단
영원한 도움의 성모	메이플우드	1992.06.29 ~ 현재	
길의 인도자이신 모후	메이플우드	1992.07.04 ~ 현재	
병자의 구원이신 모후	메이플우드	1992.09.01 ~ 현재	
순교자의 모후	메이플우드	1993.04.01	증거자의 모후에서 분단
은총의 모후	메이플우드	1995.06.08 ~ 현재	
가난한 이의 동정녀	메이플우드	1996.01.30	
겸손하신 모후	메이플우드	1999.03.02	
성모성심	메이플우드	1999.03.23~ 현재	
천상의 모후	메이플우드	2000.09.08~ 현재	
마니피캇의 모후	메이플우드	2002.09.01	소년 Pr.
천사들의 모후	메이플우드	2007.04.15~2015.05.31	
상아탑	메이플우드	2009.11.29	
가정의 모후	메이플우드	2010.01/31	
사랑의 샘	메이플우드	2012.05/03	성모성심에서 분단
티 없으신 어머니	메이플우드	2013.03/03	가정의 모후에서 분단
구세주의 어머니	메이플우드	2016.01.03	
하늘의 문 꾸리아		희망의 모후 꾸리아	
역대 단장	재임 기간	역대 단장	재임 기간
김광한 안드레아	1987.06 ~ 1993.05	김경애 요안나	2012.02 ~ 2015.01
조영중 율리오	1993.06 ~ 1999.05	허영희 마리아나	2015.02 ~ 2019.11
허정수 안나	1999. 06 ~ 2002.05	이인덕 안드레아	2019.12~ 현재
지광오 바오로	2002.06 ~ 2005.05		
이인덕 안드레아	2005.06 ~ 2011.05		
이승한 발렌티노	2011.06 ~ 2012.01		



은총의 모후 브레시디움 1,131차 주회

김경애 요안나



2022년 3월 27일, 레지오 마리아에 꼬미시움이 주관하는 아치에스 행사가 우리 메이플우드 본당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되는 레지오 행사여서 우리 은총의 모후 브레시디움(Pr) 단원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할 때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단원이 참석하여 그리웠던 얼굴을 마주 보고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청하였습니다.

매해 있는 행사지만 2022년 아치에스 행사는 특별한 날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당에도 못 가고 영상으로 미사에 참례하고, 레지오 주 회합을 집에서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서 2년을 보낸 후이니 말입니다. 아치에스 행사의 꽃인 봉헌식에서 거의 다 참석한 우리 단원들이 차례차례 “저의 모후, 저의 어머니시여 저는 오직 당신의 것이오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옵니다”라고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가슴이 벅차고 떨렸습니다. 성모님께 한 해 동안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축복을 청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 모일 수는 없었지만 꾸리아 단장님의 지시에 따라 월요일 10시 40분에 주회 기도를 다 함께 바치면서 우리 단원들은 더욱 한마음으로 단결했습니다. 아픈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본당과 구역을 위하여, 단원들 가정과 본당 어르신들과 신부님들과 이웃을 위해서 어느 때 보다 더욱 묵주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실하였습니다. 이제 3월의 아치에스 행사를 마치고 4월부터 대면 주 회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주회를 시작하니 20년이 넘도록 함께 지낸 단원들과의 온갖 추억이 새삼스럽습니다. 연차 총친목회에서 순교자 ‘손자선 토마스’의 생애를 연극으로 열연했더니 ‘앙코르’ 요청이 들어와서 그해 성탄절에 재공연까지 했던 일, 어느 해인가 연극 ‘간음한 여인’을 공연했는데 ‘간음한 여인’의 분장이 너무 이상해서 참관하던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트렸던 일..., 한편으로는 주회가 있는 월요일이면, 아침 미사 후 함께 성당 화장실과 소성당 청소를 하던 일, 성체포와 제의를 맡아 세탁하시던 분, 예비자 교리와 전례 봉사에도 함께 하고 계신 분, 공동체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사시는 단원들의 삶을 보면서 레지오 단원으로 합당하게 사는 길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매년 성모의 밤 행사 후에는 예수성심상과 성모상 주위에, 그리고 소성당 담에 땀을 흘리면서 꽃을 심었는데 그럴 때면 수녀님이 손수 만들어 주시던 음료수가 지금 생각만 해도 목이 시원해집니다.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고 활동하던 단원이 노환으로 레지오 활동을 못하게 되셨을 때 우리는 많이 아쉬워하고 그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은총의 모후 Pr이 있기까지 성모님의 겸손과 순명의 삶을 닮은 여러분의 노고가 참 컸습니다.

내가 특별히 고맙게 기억하고 감명을 받은 Pr. 단원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단원이 없어 우리 Pr.이 해산의 위기에 있을 때 본인의 Pr.에서 전출하여 함께해 주시면서 나와 함께 병자와 쉬고 있는 교우를 방문하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분, 본인의 비즈니스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 Pr.이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몇 달간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신 분들, 이 모든 것이 성모님의 돌보심과 이끄심이었음을 알기에, 우리의 최고 사령관이신 성모님께 충성을 다하고 꾸리아에 순명하며 기도와 활동을 성실히 할 수 있는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도록 성모님께 청하며 은총의 모후 Pr.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1,131차를 맞이하는 우리 단원 여러분 사랑합니다!!



꾸르실료 - 하느님에게로 온전한 회귀

조재웅 버나드

내가 꾸르실료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개신교 신자로서 가톨릭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을 때의 일이다. 결혼 전 한국 경상남도 고성에서 형과 과수원을 하던 때였다. 그곳에서 사귀 친구들은 주로 가톨릭 신자들이었고 몇몇 사람들은 가톨릭 농민회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모였는데, 그날은 그들이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중 한 사람이 나를 보고 반갑다는 듯이 큰 종이를 한 장 내밀며,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거절할 처지도 아니어서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꾸르실료란 말이 나와서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다. 그 뜻은 가톨릭 신자들이 봉사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는데 그때는 별생각 없이 그런 것이 있나 보다 하고 무심히 지나갔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다음 나는 결혼을 해 첫 아이를 낳고 아내와 함께 우리 세 식구는 도미하게 되었다. 미국에 와서 첫 번째 봉착한 문제가 개신교 신자였던 내가 천주교 신자였던 아내와 어떤 교회에 나가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의 의견과 견해가 엉켜 논의를 계속하다가 결국 천주교회에 나가기로 한 것이다. 마침 같은 단지에 살던 이복훈 요셉 형제의 안내를 받아 오렌지 성당에 등록하고 일 년간 예비 신자 교리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천주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내적 변화가 일어났고 은총 속에 살았다. 개신교 예배와는 확연히 다른 미사성제는 예배의 참뜻을 깨닫게 해 주었고, 날이 갈수록 그 맛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뒤 어느 날 느닷없이 대부님이신 고 한덕정 버나드님께서 꾸르실료에 다녀오면 어떨까? 제안을 하셔서 옛날 한국에서 들었던 ‘꾸르실료’란 말이 상기되어 흔쾌히 다녀오겠다고 대답했다. 당장 다니던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그 어렵다는 교육이 뭔지 한 번 받아보겠다는 각오로 꾸르실료에 참가 신청을 했다. 처음에는 생소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꾸르실료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고,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다.

천주교 신자가 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신심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에 지

금도 감사하며, 그 매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곤 한다. 또한 의외로 꾸르실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우가 많은 듯 해 꾸르실로 운동의 발생 배경과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의 경로를 더듬어 보기로 하겠다.

● 꾸르실로의 발생 배경

꾸르실로는 스페인어로 원형은 Curso인데 여기에 접미사 illo가 붙어서 Cursillo이고 영어의 Course와 같은 말인데 ‘짧은 시간에 갖는 회심으로의 여행’이라는 뜻을 갖는다. 이 Cursillo 운동이 발생한 스페인은 1930년대 좌우 진영 간의 내전과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격동기를 겪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로서 성 이냐시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십자가의 성 요한 등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곳 출신으로 이곳 종교 전통이 형성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도 그 이면에는 반 성직자 중심주의가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고, 20세기 초에는 결국 파쇼 군 독재를 일삼던 프랑코 장군의 군사독재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는 전쟁에 지친 이 나라에 평화와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한 빈곤과 도덕성 상실 등 혼란한 사회상이 만연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 가운데 외딴 작은 섬인 스페인의 ‘마르요카’에서 꾸르실로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 바로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 정신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신념을 그들은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지혜와 정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필요로 하는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믿었다. 여러 차례의 내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스페인의 국민성은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역경에도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을 가톨릭 정신에서 찾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들은 또 사도직이란 크리스천생활 가운데 덤으로 생기는 직분이 아니라 크리스천생활 자체의 요구이며, 크리스천생활이 바로 사도직생활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세상의 누룩으로 소금이 되려는 정수분자로서 그룹을 형성하여 행동적이고 활기있게 전투적인 크리스천 공동체로 생활하려는 신념이 있었다.

꾸르실로운동을 시작하였던 후안 에르바스(Juan Hervás) 주교, 보린(Borin) 형제와 여러 사람은 이와 같은 이념적 배경과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이런 사상적 배경을 가진 이들은 1939년에 내전 종식과



함께 젊은이들은 바로 조직을 정비하여 ‘산티아고’ 순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십만 명의 모든 젊은이는 산티아고로”라는 구호와 준비위원들의 주도 아래 모든 교구에서, “순례자들을 위한 상급반 꾸르실료”를 실시하였고, 모든 성당에서는 “순례자들을 위한 꾸르실료”를 실시했다. 그 중 마르요카 주교는 첫 번째로 자기 교구에 상급반 꾸르실료를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최초로 꾸르실료가 1941년 4월 ‘Nuestra Senora del Liuc’ 에서 열린 다음 전 세계 가톨릭교회로 전파되었고, 한국에도 들어왔다. 천주교회 전체에 꾸르실료가 자리 잡은 데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가 싹을 내미는 것과 같은 기적과도 같이 시작되었다. 1966년 Kevin O Donnell이라는 미국인이 그 당시 주한 평화봉사단 단장으로 서울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한국인의 신앙생활을 경험했던 그가 한국인의 토속 신앙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 무렵 필리핀에서는 우리 보다 앞서 꾸르실료운동이 매우 열성적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고 필리핀의 꾸르실료운동에 깊이 참여하고 있던 에드문도 카이모(Edmund F Kaimo) 씨가 서울에 사업차 여러 번 방문한 바 있었는데 그가 성령의 도움으로 케빈 오도넬 씨를 만나게 되었다. 이들이 한국에도 꾸르실료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양대학교 이해남 교수와 문창준 회장 등 몇 사람과 만나 꾸르실료운동의 참 뜻을 전하고 한국 교회도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필리핀 꾸르실료 임원들의 도움으로 1966년 9월 혜화동 유수철 주임신부, 청파동 김정수 신부와 몇 안 되는 분들이 주축이 되어 꾸르실료운동을 한국 천주교회에 접목해 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해남 교수와 유수철 신부님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 당시 서울 대교구장 서리였던 윤공희 주교의 승인을 받았고, 1967년 5월 4일, 한국 최초로 서울 성수동 본당에서 영어로 된 꾸르실료가 Edward Richardson 지도신부와 다른 12명의 필리핀 신자들이 봉사하고, 윤공희 주교와 다른 많은 소속 신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씨앗이 떨어진 한국의 꾸르실료는 한국어 꾸르실료를 실시하였고 다시 전국 본당으로 전파되어 뿌리를 내렸다.

[내용 중 많은 부분을 「한국 꾸르실료 30년사」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 우리 본당의 꾸르실료운동

19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꾸르실료가 해외 동포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1979년 9월, 미

국 시카고의 한인교회 본당 주임신부인 콜롬바회 소속 켈리(Mody Kelly) 신부가 내한하여 ‘시카고 신자들을 위해서 꾸르실료를 전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당시 문창준 회장은 사무국 임원들과 회의 끝에, “한번 해보자!”라는



≡ 미 동북부 올트레아에 참석한 본당 꾸르실리스타들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평소에도 임원들이 해외 교인들을 위한 꾸르실료 전파가 필요하다고 서로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당시 해외여행이 쉽지 않아 불가능해 보였지만, 보였지만, 김수환 추기경님과 경갑룡 주교님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드디어 해외 꾸르실료 준비팀이 파견되었다.

이렇게 미국 시카고에 뿌리 내린 꾸르실료는 들불처럼 미주 전체로 퍼져 나갔다. 그 불은 현재 우리 본당이 소속되어 있는 뉴욕지구에도 퍼져 첫 번째 꾸르실료가 브루클린에서 실시되었다. 한국 꾸르실료 협회 추천을 받아 1년간 준비한 수원교구 사무국 재미동포 꾸르실료 교육팀(한종훈 신부와 지도신부 4명, 박창동 회장 외 6명)은 1981년 7월 9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한인 남성 제1차 꾸르실료를 실시하였다. 이때 수료자는 38명으로 그 후 이들은 이후 꾸르실료를 뉴욕지구 한인 성당에 전파하였다.

그때 우리 본당 참가자는 이회영 베드로, 염수호 시몬, 이태성 미카엘, 김승길 형제 등 네 분이었고, 1982년 드디어 한인 사제로 처음 우리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신 처음 박창득 어거스틴 주임신부님이 본당 신자 7명과 2차 꾸르실료를 마쳤다. 83년에는 여성 1차로 김영자, 조민숙, 이종순, 조숙자, 한성신, 이정해, 박종원 자매가 참석하였다. 김영자 마리아 자매님은 간사로 여러 해 동안 봉사했다. 그 후에도 이 꾸르실리스타들은 평신도와 임원으로 꾸르실료운동을 전미 한인 가톨릭에 뿌리를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꾸르실료운동은 전 세계 한인들의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되었다.



성령기도회 - 하느님 사랑 영원토록 노래

본당 성령기도회의 역사

김영숙 베레나



우리 본당의 초대 사제이신 박창득 몬시뇰께서 1978년에 처음으로 성령세미나를 가셨습니다. 그 동기는 당시 머무시던 미국 성당의 신부님들이 마침 그때 산불 같이 번져가던 성령운동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안목으로 비평하는 얘기가 반복되어서였다고 합니다. 그중에 아무도 성령세미나에 다녀온 분이 없는 것을 알고는 직접 체험해 보고 싶어서 사제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거기 참석한 신부님들의 겸손한 사랑, 신뢰하는 기도의 자세에서 크

게 깨달은 바가 있으셔서 한국에 가서 성령운동을 도입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979년 부활 주일 저녁, 이춘리 씨 댁에서 성경공부를 해 오던 교우 10명의 인원으로 첫 성령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성령강림주일이 지난 첫 금요일에 드디어 본당의 첫 성령기도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세미나는 같은 해 7월 14일 Marian Shrine에서 4박 5일의 동북부 제1차 성령세미나로 이어졌으며 이렇게 시작된 성령운동은 미주 한인 신앙의 영성적 기반이 되어 전 미주로 퍼져 갔습니다.

세미나가 일 년에 여러 차례 실시됨에 따라 1, 2년 사이에 우리 본당 신자들의 절반 이상이 세미나를 참여하게 되었으며, 본당에서도 큰 변화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는 신자라면 으레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전에는 술과 농담으로 시간을 보내던 성당의 모임들이 성가와 기도로 시작하고 성가와 기도로 끝마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성전건립위원회가 설립되고 이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기도 회원을 중심으로 전 신자가 아주 절실하게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그동안 셋방살이하던 Montclair를 벗어나 우리 자체 성당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고 크게 감사하고 찬미드렸습니다.



≡ 동북부 성령대회 장면. 박 몬시뇰이 고안한 로고

클리블랜드 시트릿트에 있는 새 성전으로 이사한 후에 기도 회원이 늘면서 한 곳에서 성령 기도회를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 세 군데에서 열렸습니다. 각 기도회에는 이삼십 명의 기도 회원들이 모였고 매주 있는 기도회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행했지만 한 달에 한 번 모두 모여 성령미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열정과 기도가 우리 성당을 이끌어 가는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 신자들처럼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랑 속에서 행복했습니다. 본당 창립 10주년 행사에 오셨던 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 성당에서는 살아 꿈틀거리는 생동력이 넘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실 정도였습니다.

성령운동이 자리 잡아가면서 박 몬시뇰께서 꾸르실료, ME, 레지오 마리에 등 다른 신심운동을 도입하셨습니다.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성격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기도회 멤버들이 새로 도입된 신심운동에 참여하고 봉사하게 되면서 성령기도회 참석이 어려워졌고 본당에서 만나는 기도회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몬시뇰 지도 신부님이 성령운동 봉사회를 만드시며, 1995년 제1차 동북부 성령대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동북부의 각 성당 소속 기도회가 성령대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성당 간의 유대도 깊어지고, 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도회가 있더라도 서로 부추겨 일으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회를 하게 되면서 본당 차원에서 초청하기는 어려운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본당 자체에서 운영해 온 성령운동으로는 여러 차례의 성령세미나, 성체 신심세미나, 성모 신심세미나, 은혜의 밤 등이 있습니다.



WWME -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이회영 베드로 - 루시아, 문경신 요셉 - 테레사

✦ ME운동의 소개

우리가 쉽게 “ME운동”이라고 일컫는 Worldwide Marriage Encounter(WWME)는 스페인의 칼보 신부님에 의해 196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칼보 신부님은 당시 스페인의 사회 문제로 대두된 불량 청소년들의 문제가 바로 그들의 가정적 배경에 기인한다는 것을 깨닫고 몇몇 부부들과 함께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교황님의 인준을 받은 그 프로그램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Worldwide Marriage Encounter(WWME)의 비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입니다. 그리고 부부들이 혼인성사를 하느님 뜻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신품성사의 소명을 사는 사제들이 더욱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것이 그 mission입니다.

✦ 본당의 ME운동 초기

1967년에는 미국 예수회 소속 Chuck Gallagher 신부님을 중심으로 몇몇 부부들이 현재 진행되는 주말 방식으로 발전시켰고 미국 전역에 급속히 보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6년 2월 처음으로 주한 미군 부부들을 위한 주말 강습이 있었는데 그때 참석



≡ 1983년 동부에서 있었던 첫 ME주말 광경

했던 신부님과 한국인 부부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박창득 신부님께서는 1981년 한국에서 ME주말 강습을 체험하시고 부부갈등이 심할 수 있는 이민 교회에 필요한 운동이라는 확신으로 본당 식구들에게 그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던 중 1982년



1990년대 ME 봉사부부를 위한 주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봉사 부부들을 초대 첫 주말 강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본당 부부들을 보내려는 노력이 실패하자 박 신부님은 다음 해 2월 새로 형성된 LA 발표팀을 초대 뉴저지에서 첫 주말을 개최하였습니다. 그 주말에 신부님 두 분과 34쌍의 부부가 참석했는데 그중 15쌍 부부가 우리 본당 식구였습니다.

그 후 미국 ME 부부들의 도움을 받아 가며 박 신부님과 더불어 이회영 부부와 한덕정 부부가 팀 훈련을 마치고 1983년 9월에 자체 주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주말을 준비하면서 있었던 각종 시행착오의 에피소드, 미국 ME 부부들의 사랑, 따뜻한 후원 등은 ME의 골수를 보여주는 좋은 기억입니다. 후속 프로그램인 Bridge를 배우기 위하여 마침 한국에서 여행하러 온 김창석 토마스 레지나(한국 대표 부부 역임)와 매일 밤 새벽 서너 시까지 함께 공부했던 열성이 ME를 지속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85년에 있었던 미 동북부 ME 대회에 한복을 곁게 차려입은 60쌍의 한국 부부들이 불러일으킨 열기는 거의 3,000명이 모였던 그 대회를 특히 기억나게 했다고 미국 부부들이 두고두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주말 실시와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ME운동을 여러 지역에 소개하는 일이 우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카고, 애틀랜타, 보스턴, 버지니아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로마와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있는 한국 신자들을 위해서도 출장 주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 본당을 위한 ME 사도직 프로그램과 본당 내 활동

주말 횡수가 늘어나고, 채덕규 부부, 강창홍 부부, 정근호 부부가 발표팀이 되면서, 주말을



다녀온 부부들을 위한 bridge program과 sharing group만이 아니고 본당을 위한 사도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대림절 때 ‘사랑의 기적’을 진행했고 (이회영 부부, 한덕정 부부), 다음 해에는 ‘참부모가 되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호응이 아주 좋아 그 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또 약혼자들을 위한 Pre-Cana 프로그램을 여러 해 동안 ME 부부들(한덕정 부부, 이기명 부부)이 진행했습니다. 연관해서 자연 가족 계획법 강의(한덕정 부부, 강창홍 부부)도 했습니다.

우리 성당 학생회에서 30년째 운영되었던 안티옥 피정도 ME 부부들이 10년 가까이 기틀 마련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 ME 발표팀이 발표 학생의 워크숍을 도왔고 부모회를 조직 후원했습니다. 박 신부님과 안티옥 피정을 도입하고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학생회 director(조은숙 루시아)가 ME 부부였다는 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 2014 박 몬시뇰 영명축일 미사 후 바베큐

1992년 본당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본당은 우리’ 행사도 ME 사도직의 하나로 ME팀 부부들(한덕정 부부, 이회영 부부)이 준비와 진행을 맡았습니다.

✦ 2000년대의 본당 ME 활동

2000년 전후로 본당 내의 ME 활동이 저조한 때도 있었지만 Maplewood로 이전하면서 다시 활성화되어 본당을 위해 진행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는 되자 ‘성격형을 통해 알아보는 우리 부부’(이회영 부부)란 학부모를 위한 강좌와 젊은 부부들을 위한 sharing 모임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본당 대표 부부(명단 참조)를 중심으로 매년 계속되는 본당 행사는 2월 둘째 주일인 ‘세계 결혼의 날’ 행사로 부부들을 위한 미사와 결혼 갱신식을 하고 좋은 가정생활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말에 있는 ‘세계 사제의 날’에는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신부님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조출한 행사

를 합니다.

박창득 몬시뇰께서 선종
하시기 일 년 전인 2014년
영명축일에 아들 신부님들
과 또 다른 여러 신부님과
함께 본당 놀이터에서 축
하 파티를 해 드린 것은 참
좋은 추억이고 그럴 수 있
었던 것을 감사하고 있습
니다.



본당 신자들을 위한 점심 봉사 후 뒷풀이를 즐기는 ME 부부들

지정된 날의 행사가 아니고 지속되는 노력으로는 한 부부라도 더더욱 행복한 부부가 되는
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ME주말을 소개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E
주말을 다녀온 부부들을 따듯이 맞이하고 주말에서 체험한 것을 실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
도록 서로 돕는 작은 모임을 지속합니다. 그리고 본당 식구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길이 무
엇인지 모색하면서, 연례 바베큐를 준비하기도 하고, 주일 점심을 위한 커피를 담당하기도
하고, 주일 점심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친밀감을 기르는 건강 활동으로 산행을 주관해 오고 있습니
다. 2017년 당시 본당신부님이셨던 조후연 주임신부님 후원으로 자사모(자연을 사랑하는
모임) 하이킹팀이라는 이름으로 결성해 매월 셋째 주 주일미사 후에 성당 가까운 곳으로 산
행합니다.

ME주말에 다녀온 부부들이 굳이 ME활동이 아니더라도 더욱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는데, 부부간의 대화가 원활해지고 부부관계가 깊어질수록 봉사하는 일이 쉬워지
는 게 당연해서입니다.

◎ 혼인성사의 해

2011년에는 본당신부님이셨던 조민현 주임신부님의 뜻에 따라 ‘혼인성사의 해’로 보냈던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WWME의 대부이신 척 갤러거 신부님의 “교회는 열
정적으로 사랑하는 부부들의 힘으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감동하신 조 신부
님께서 부부들이 재밌고, 멋지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의하신 일이



≡ 2011년 11월 혼인기념일 미사

었습니다. 이회영 부부가 주관하고 40여 명의 봉사자들이 매 월 그 달에 결혼기념일이 있는 부부를 초대하여 함께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부부관계를 위한 짧은 프로그램을 가진 후 아름답게 장식한 친교실에서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여 맛있는 파티를 했습니다. 별명 ‘무

수리 그룹’이 맛있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신자 DJ가 음악을 준비해서 즐기는 댄스 파티였습니다. 중간중간 축하받는 부부들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대답으로 함께 웃고 눈물도 찔끔하면서 보냈던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되신 분들을 위한 파티까지 1년 동안에 70~80명을 위한 파티를 13번 했습니다. 무려 40여 명의 봉사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즐겁게 봉사했던 해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랑의 언어’(강창홍 부부)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 ME운동의 현재

1980년대의 열기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어졌는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주말 참석 부부의 숫자가 현저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보고 있는데 점점 더 바빠지는 삶의 현상, 핵가족이 되어가는 사회적 변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교육 방법의 변천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WWME 미국 협의회에서는 지금의 젊은 부부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주말의 형식과 내용 전달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좀 더 많은 부부가 쉽게 ME 주말에 응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인의 영구성을 인정하면 자신의 혼인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선택임이 확실해집니다. 바로 그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ME주말이고 ME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더 행복하기 위하여 한 주말의 시간은 아주 작은 투자에 불과합니다. 하느님께서 부부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성격 차이 등에서 오는 갈등을 넘어서서 행복해지는 것을 혼인한 모든 부부에게 바라시면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런 확신으로 ME주말에 참석을 권고하며 주말에 다녀온 부부들이 혼인성사 뜻에

따라 살도록, 그리고 사제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제의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을 ME 공동체의 핵심 소명으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본당에 계시면서 ME주말을 체험한 사제들

미주 한인 ME(미국 WWME 의 Regions 19) 대표 사제로 봉사하신 박 어거스틴 몬시뇰, 조민현, 오세완 신부님 외에도 본당에 계셨던 여러 신부님께서 ME주말에 참석하였고, 그중 대부분이 ME발표 사제가 되어 봉사하셨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변갑철 신부님(대전교구)과 구자륜 신부님(대전교구), 그리고 지금도 ME발표 사제로 봉사하시는 정준섭 신부님(대전교구)과 조후연 신부님, 김영민 신부님도 우리 본당에 계시면서 ME주말을 다녀오셨습니



≡ 2022년 주말 참여 부부 환영 바베큐

다. 박재만 신부님(대전교구)도 우리 본당과 연계되어 주말을 체험하시고, 주말 발표는 하지 않으셨지만 계속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외 우리 본당 출신 박홍식 신부님, 조홍래 신부님, 홍성계 신부님도 ME주말에 다녀오셨습니다. 홍성계 신부님은 발표팀 사제로 동북부 ME 대표사제를 역임하셨습니다.

◎ 본당에 계시면서 ME주말을 체험한 수녀님들

김종옥 파스칼 수녀님, 이정희 모세 수녀님, 김마리 미셸 수녀님

◎ 본당 신자로 ME주말에 참석한 부부

지난 50년 동안 우리 본당에 적을 두고 ME주말에 참석한 인원은 170쌍 부부입니다. 그중 타계하신 분들도 많고, 이사를 하시거나 연로하셔서 가까운 성당으로 적을 옮기신 부부님들이 많아 현재 본당에 적을 둔 ME 부부는 48쌍 부부입니다.

◎ ME본당 대표: (연대순)

이회영 베드로 - 조은숙 루시아



채덕규 미카엘 - 김채련 라파엘라
 강창홍 바오로 - 강귀순 데레사
 정근호 크리스토퍼 - 정순옥 켈마
 원암우 베드로 - 이상명 글라라
 최준혁 베드로 - 최영옥 모니카
 박재규 즈카리아 - 박신숙 엘리사벳
 백상헌 요셉 - 백용숙 카타리나
 이기명 아오스딩 - 이영순 골롬바
 이용규 유스티노 - 박영숙 올리아
 문경신 요셉 - 문정숙 데레사

소그룹 나눔 (주말 후속 sharing group: 과거와 현재)

- ❁ 청실홍실 (정근호 부부:대표, 김용식 부부, 신현선 부부, 윤현남 부부, 오인호 부부, 임영희 부부, 최성균 부부)
- ❁ 천생연분 (박재규 부부:대표, 김동형 부부, 송병문 부부, 신문식 부부, 허삼도 부부)
- ❁ 모닥불 (문경신 부부:대표, 이회영 부부, 임재홍 부부, 이기명 부부, 백형완 부부, 조순성 부부, 김재훈 부부)

◎ 중요 ME 행사 연혁

- * 1981년 : 박창득 신부님 한국에 ME주말 참석
- * 1982년 : 박창득 신부님 한국에서 Deeper주말 참석
- * 1983년 : 박창득 신부님 미국에서 Deeper주말 참석
- * 1983년 : 이회영 부부와 한덕정 부부 미국 Deeper 참석
- * 1983년 2월 18일 : 제1차 미 동북부 부부 주말
- * 1983년 9월 30일: 제2차 미 동북부 부부 주말 (NJ팀이 운영한 첫 주말)
 그 후로는 미주 동북부 한인 ME에서 주관하는 ME주말에 본당 신자들이 참석
- * 1984년 : 기적을 이루는 사랑
 (박창득 신부님, 한덕정 부부, 이회영 부부)
- * 1985년 11월 : 참 부모가 되는 길
 (박창득 신부님, 채덕규 부부, 한덕정 부부, 이회영 부부)
- * 1990년대에 한 번 (정근호 부부 주관)

- *2010년 (동북부 ME 발표팀이 진행)
- *2019년에는 약식으로 (임재홍 부부) 진행
- *1986년 : 본당 혼인의 날 행사와 파티
(이후로는 매년 미사 중 결혼 갱신식과 혼인성사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를 주관)
- *1992년 9월 13일 : ‘본당은 우리’
본당 20주년 준비의 일환으로 4주간에 걸쳐 진행
- *2002년 ‘성격형을 통해 알아보는 우리 부부’ (이회영 부부)
- *2010.9.19 ~ 2011.9.18 혼인성사의 해 매달 결혼기념일 축하미사와 부부파티
- *2011년 9월 : 혼인성사의 해 개막 미사
- *2011년 2월 : 행복한 생활을 위한 정신건강 세미나 사랑의 언어 찾기
- *2011년 5월 : 배우자 사별로 혼자 되신 분들 모임
- *2011년 9월 : 혼인성사의 해 폐막미사
- *2017년~현재 : 지사모 (지구를 사랑하는 모임) 하이킹 시작
- *2018년 : 본당 커피 봉사

◎ 매년 계속되는 행사

- *2월 둘째 주일: 세계 혼인의 날
- *10월 마지막 주일: 세계 사제의 날
- *주말 참석 부부를 위한 환영 파티

◎ 재미 한인 ME(USA WWME 의 Region 19)에 본당 ME사제, 부부의 공헌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께서는 “동부와 서부가 함께 일해야 한인 ME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남가주 ME의 김윤근 신부님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당시 동북부 대표였던 강창홍 부부와 함께 National Board에서 한인 ME를 Section19(지금은 Region19)으로 승격시키는 일을 성사시키신 것이 2000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 본당 ME 발표팀들이 주축이 되어 크고 작은 한인 ME 공동체가 Section19(현재는 region19 으로 명명)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ME 부부들은 본당을 넘어서 한인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는 젊은이들을 위한 ‘선택 프로그램’의 workshop을 도와주었고 (이회영 부부, 채덕규 부부, 김진 부부), ‘His-way retreat for Senior’(임재홍 부부), ‘아버지 학교’(강창홍 부부, 문경신 부부)의 주관과 운영 등을 도왔습니다.



≡ 1990년대 초반의 NJ 발표팀

✦ 본당 출신 Region 19(미주 한인 ME) 봉사자 명단

Region19 대표 팀사제와 부부	
2001- 2007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2008 -2013, 2017-2019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2014-2016, 2019-2022	조민현 요셉 신부님
2001-2003, 2017-2019	강창홍 바오로, 강귀순 데레사
2004-2005	이회영 베드로, 조은숙 루시아
2008-2010	정근호 크리스토퍼, 정순옥 켄마

Region19 동북부 대표팀 사제와 부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이회영 베드로, 조은숙 루시아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한덕정 버나드, 한성신 도미니카
조민현 요셉 신부님	채덕규 미카엘, 김채련 라파엘라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님	강창홍 바오로, 강귀순 데레사
	정근호 크리스토퍼, 정순옥 켄마
	임재홍 라파엘, 신영미 오티리아

ME제발표팀 사제와 부부 (팀봉사 시작 연대순)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이회영 베드로, 조은숙 루시아
변갑철 바오로 신부님 (대전교구)	한덕정 버나드, 한성신 도미나
구자륜 비오 신부님 (대전교구)	이한건 요셉, 전기순 세실리아
정준섭 요셉 신부님 (대전교구)	이종명 안토니오, 강홍자 카타리나
오세완 바오로 신부님	채덕규 미카엘, 김채련 라파엘라
조민현 요셉 신부님	강창홍 바오로, 강귀순 데레사
조후연 야고보 신부님	정근호 크리스토퍼, 정순옥 켄마
김영민 미카엘 신부님	원암우 베드로, 이상명 글라라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님	변춘식 안드레아, 변선형 마르파
	임재홍 라파엘, 신영미 오티리아
	이용규 유스티노, 박영숙 올리아
	이기명 아오스딩, 이영순 골롬바



7년이나 피했는데 ... 손해 봤습니다

김재훈 루카 - 이지원 아가다 부부

지난 5월 말에 76차 ME주말을 참 잘 다녀왔습니다. ME에 가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정말 꼭 한번 가 보시라고 진심으로 권고해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ME주말을 하는 동안 가장 먼저 든 마음은 좀 더 일찍 올 걸 그랬구나 하는 후회였습니다. 꽤 오래 전부터 ME 참석을 권유받았지만,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번 ME주말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본당 ME 선배 부부들 마다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여기 참석하는 것이 축하 받을 일인가? 하고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나 다녀오고 난 지금은 그 말씀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혼 후 20년 만에 가는 두 번째 신혼여행이라 생각하고, 거기서 쉬면서 그동안 못다한 대화를 좀 해야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ME주말이 열리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 본당 선배 부부들이 미리 오셔서 저희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어찌나 편안하게 해주시는지 긴장되었던 마음이 풀리며 얼굴에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본당에서 오신 총 아홉 쌍의 참가 부부들과 세 쌍의 자원봉사 부부들 그리고 현 ME 지도신부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자원봉사 부부들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신 일상을 토대로 솔직한 대화를 발표하여 주시고, 신부님은 사제로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도 전혀 없고 모르는 사람과 사교해야 하는 의무감도 없이 3일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부부란 참 알 수 없는 사이입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만, 어려운 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서로 가장 이해 못하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공감하며, 가슴 아파하기도 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부부간의 시간을 갖고 ME에서 가르쳐 주는 대화방식으로 서로의 느낌이나 마음 상태를 나누었습니다. 대화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보다 솔직해 졌고 세월에 지쳐 무뎠던 마음에 다시 밝은 온기가

불어 넣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나조차도 모르고 있던 나 자신의 진심뿐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누니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생활이란 게 행복한 나날들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크고 작은 아픔과 어



ME의 연말 파티: 세 부부 중 가운데가 김재훈 루카. 아가다 부부

려움으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은 어느새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는 방법을 몰라 힘들어 했습니다. 또한 그 작은 상처조차 똑바로 바라보기가 두렵고, 싫어서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괜찮은 척 무덤덤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부부에게 어디선가 한 줄기 환하고 따뜻한 빛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반쪽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ME주말이 부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지혜와 의로운 용기를 모든 부부에게 선물해 준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먼 훗날 그 아이들이 좋은 짝을 만나서 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염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말입니다. ME주말을 마치고 본당으로 돌아오는 날, 너무나 많은 우리 본당 ME선배님들과 두 분 신부님 그리고 수녀님들이 어찌나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지 참으로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다녀온 소감을 나누었고, 선배님들도 오래전 기억을 되살려 자신들이 ME에 참석했을 때 받았던 느낌과 경험. 이후에 부부관계가 어떻게 발전적이고 행복하게 변화해 왔는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도 이번 계기를 통해 내 가장 가까운 반려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넓히며 아이와 더불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아질수록 우리 성당 공동체, 더 나아가 지구 위의 더 많은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어 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혼인성사의 해’를 기억하면서

조옥경 데레사



2011년부터 2012년의 일을 기억해 봅니다. St Andrew Kim Maplewood Church 주방은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이 되면 둘째가라면 섭섭해 할 요리 대가(?)들의 제대로 된 손맛과 재잘대는 수다를 양념으로 재밌고, 맛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본당 주임신부님이신 조민현 신부님께서 부부들이 행복해야 혼인성사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산다는 확신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를 우리 본당의 ‘혼인성사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매달 그달 중에 결혼기념일이 있는 신자 부부들을 초대해서 혼인성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나고 즐거운 부부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참석하는 부부들은 아마도 일터에서 바쁘게 일하시다 허겁지겁 별 준비 없이 성당으로 오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이미 우리 부부들의 결혼서약은 그 빛이 바래가고 있었으니까요.

부부들은 하얀 덮개가 곱게 덮인 의자가 준비된 제단에서 본당 신부님께서 정성스레 드리는 혼인갱신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그리고는 혼인성사의 뜻대로 멋있게 사는 도움이 될 짧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부부들이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다가오는 가벼운 발소리가 친교실에 가까워지면 우리들도 덩달아 수줍음을 머금은 채 부역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곤 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아치를 통해 부부들이 들어올 때면 미리 와서 기다리던 친지들이 박수로 환영하고, 부부들의 수줍음은 환한 미소로 활짝 피어납니다.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더 행복해하는 우리 무수리들이 삶의 무게 아래서 서로를 조용히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을지도 모를 그 부부들에게 정성들



≡ 혼인성사의 해' 부부축하 파티를 준비하는 '무수리 팀

여 준비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과 한껏 모양낸 finger food로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면 부부님들이 서로서로의 손을 맞잡고 서로의 눈을 들여다봐 주면... 서로의 잊고 있던 마음들이

Slow slow quick quick 흘러나오는 음악에 슬며시 맡겨져 버립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그냥 저냥 초대에 응했던 부부님들의 마음이 그날만큼은 하느님 나라에 초대된 듯한 아주 작은 체험을 나누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조민현 신부님의 배려는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신 분들의 껴여진 마음도 잊지 않고 초대하셨습니다. 저희 모두 혼인성사의 영원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요리하기를 좋아하는 저희를 아름답게 봐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그 귀한 시간을 함께 했었음이 다시금 기억나며 감사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 함께 나눈 눈물 중에 값진 시간은 또 있었습니다.

본당의 환우 가정을 초대해 특별 미사를 준비해 주셨고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만찬을 계획하신 조민현 신부님, 그 일들을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신 모세 수녀님은 항상 저희 마음을 밑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 기쁜 얼굴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축복이고 은총이며 감사였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혼인성사의 해에 받은 은총과 사랑

최영옥 모니카



가족이 ME 피정을 다녀온 후 남편이 한 말은 “여보 다음 주부터 성당 나갑시다”였습니다. 많은 부탁과 애걸에도 거절했던 남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ME주말을 통해 우리 온 가족을 당신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으셨습니다. 개신교에서 천주교로… 1984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었고 세상은 아름답고 이웃은 따뜻했으며, 아이들이 더 사랑스러

워졌습니다.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봉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당 일이라면 말없이 힘과 용기를 주었고, 저는 의사들의 모임인 루카회에 참석해서 부인과와 암 검사, 일반 진료와 상담, 감기 예방 접종 등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저는 수녀님의 지도 아래 성모회에서 4년 동안 기쁨으로, 사랑과 화목을 중요시하면서, 각종 행사의 음식 준비, 상차림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혼인성사의 해의 일은 잊지 못합니다. 은총과 사랑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조민현 본당신부님과 성당 교우 여러분이 모여서 뜻있는 혼인성사의 해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매달 그달에 결혼기념일이 있는 부부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하얗게 씌운 의자 커버, 곱게 차려 입은 신랑 신부의 입장으로 시작하여 혼인 갱신 예식도 했습니다. 부부 기념사진도 찍고, 부부들의 결혼사진, 약혼사진, 아이들 사진들을 벽에 붙이고 혹은 슬라이드로 보여 주며, 옛날 그때의 기뻐던 시간을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른 한 부부와 테이블 장식을 맡았는데, 한 달 동안 다음 달에는 무슨 장식을 할까? 들뜬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그 자료를 구하러 며칠씩 돌아다녔습니다. 계절마다 바

꾸는 아름다운 꽃 장식, 풍선. 가을에는 고운 낙엽 등으로 장식하고, 파티 장소를 보고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부부들을 보는 것이 무척 즐거웠습니다. 온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한 파티.... 모두 자기가 결혼한 달을 기다리면서 은총과 축복의 시간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혼인성사의 해에 봉사 하면서, 저희는 기쁨을 그대로 맛보며 봉사를 통해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욱 감사드리는 해 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 2011년 혼인성사의 해 파티 장면

연령회 -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

조영종 율리오



아침 일찍 따르릉 전화소리에 전화를 받으니 “단장님이 세요?” 하는 수녀님의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 직감적으로 ‘아~ 누가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아침 새벽에 아무개 자매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의 직감은 적중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전화를 수십 건 이상 받아 생긴 직감일 것이다.

유가족들에게 위로 인사를 시작으로 장례예식 준비, 연도, 장례미사, 장지 예절 등이 끝날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 속에서 고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값진 시간을 통하여 사랑의 묘법은 나눔에 있음을 체험했다. 슬픔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는 진리 속의 진정한 나눔은, 사랑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시작될 때만이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도….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떠나는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 좋을까? 좋은 관, 아름다운 꽃, 좋은 묘지, 화려한 장례식일까? 큰 일을 당한 유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고인에 대한 못다 한 아쉬움을 물질적으로 채워 드리고 싶은 열망은 당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례미사 끝에 고별식으로 연결되어, 먼저 고인의 약력 소개, 그 다음 고인과 가장 가까웠던 분들의 고별사로 이어진다.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은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기에 약력 소개와 고별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데, 약력 소개는 언제 영세, 견진성사를 받고, 교회의 어떤 단체에서 얼마 동안 어떻게 봉사했는지 등등이 주안점이 되어야 하며, 사회적인 명성이나, 명예가 크게 대두되는 약력 소개는 결코 고인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못함을 깨달았다. 하느님께서는 낮추인 자를 어여뵈 보시기 때문이다.

고별사는 고인 생전에 하느님 사업에 어떻게 헌신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생생한 체험담을 들려줌으로써 남은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삶의 교훈이 되고, 믿지 않는 친지들과 조문객들에게는 신앙의 불씨를 안겨주게 된다. 이로 인하여, 쉬고 있던 가족들이 열심히 성당에 나오고, 신앙의 불씨를 받은 친지들과 조문객들이 예비반에 입교한다면, 고인에게 대한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

지난 36년 동안 연령회 봉사를 통해 통감한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을 잘 준비하기 위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해 본다.



≡ 2022년 9월 토빈 추기경님이 제2추모관 축성

성소후원회 - 사제 10명의 못자리

‘성소후원회’의 역할

정근호 크리스토퍼



저는 성소후원회가 사제나 수도자가 되기 위한, 이미 수련 중에 있는 성소자들을 영적, 물질적으로 돕기 위한 단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보통 성당에서 책임을 맡아 줄게 맡게 되듯 저도 2000년에 성소후원회 회장을 맡아 줄게 맡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이라 자세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행히 주님의 도우심과 총무, 그리고 재무팀 등 임원들이 열심히 봉사하신 덕분에 나중에는 회원이 55명이나 되는 단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 성소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고,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월례회의는 없었지만, 필요할 때마다 임원 회의에서 항상 ‘성소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모임을 하였습니다. 성소 주간에는 전 신자와 함께 주일미사 전후에 ‘성소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치며, 항상 성소에 대한 신자들의 관심을 상기시키고자 애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전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소를 위한 피정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성소후원회에서라도 기도회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도 듭니다.

그 당시 양윤성 님의 보좌신부님이 이끈 양업회(최양업 신부님을 기리고자 지은 이름)가 있었는데, 양업회에는 서품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민현 신부님과 사제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몇 분의 신학생이 계셨습니다. 양업회 음식을 준비하곤 했는데, 특히 포코노에서 피정과 스키 여행을 할 때 저녁과 와인을 준비해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비의 회원들의 회비가 주된 재원이었지만, 가끔 두부 판매(이 막달레나 씨 무료 제공)를 하기도 하고,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위에서 열거한 성소를 위한 영적 물질, 지원들보다 박 몬시

놀을 모시고 갔던 이탈리아, 로마 성지순례입니다. 로마에서 공부하던 박홍식 돈보스코 신학생이 부제품을 받게 되어, 박 몬시놀을 모시고 부제 서품식에도 참여하고 이탈리아, 로마 성지 순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허 마리안나 씨가 각고의 노력으로 여행 일정을 짜고 준비하면서 이탈리아, 로마 성지순례단은 신청자가 16명으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막상 성소후원회 회장이었던 저는 하고 있던 상점을 점원에게 맡기고 2주일이나 가게를 비울 수 없어 무척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그렇잖아도 2000년은 대희년이니 성지순례를 가서 전대사도 받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매일 함께 가자고 조르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가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장사하던 분이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저희에게 가게를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 분들은 지난 2~3년 동안 저희 가게를 눈여겨보며, 비슷한 가게를 찾고 있었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다며, 무턱대고 저희에게 매매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기에 무척 당황했지만, 아내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회라며, 반 협박, 반 설득으로 무조건 가게를 정리하고 성지순례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2주 만에 전격적으로 가게를 그분께 넘긴 후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로마에서 부제 서품식에 참석하고, 성소후원회 회원들과 함께 여행할 기회가 생겨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잘 되는 가게를 정리하고, 앞으로 어찌 살아갈지 막막하고, 많이 불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로마 순례단은 박 몬시놀을 모시고 베드로 성당에서 거행된 박 돈보스코 부제님의 서품미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경험이었는지… 부제 서품은 사제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하나의 단계로 생각했는데, 이 서품식에서 “부제는 자기 신앙을 위하여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 서약을 하여 자기의 삶을 오로지 주님에게 바치기로 하는 원의를 서약”하는 엄숙한 의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이 소중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제는 신품성사, 고해성사나 성체성사만 빼고는 다른 성사를 거행할 수 있는 고유의 품계로서, 대표적인 분이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코 성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품식 미사가 끝난 후 박 부제님의 특별한 배려로 일반에게 잘 공개하지 않는 베드로 성당 지하 무덤과 유해들도 볼 수 있었는데, 성인들이 순교하실 때의 고통이 마치 가슴에 닿는 듯 생생하였습니다.

미리 알고 갔던 것도 아닌데, 마침 ‘세계 주교의 날’ 행사가 바티칸 광장에서 열리는 기간이

라 거리 곳곳에서 시내버스 안에서도 신부님은 물론 주교님들도 쉽게 마주칠 수 있어 로마가 가톨릭교회의 중심이란걸 알고, 새삼 친근하고,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파티마 성모님 성상이 미사 중에 바티칸 광장에 거동하시는 행렬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더 잘 보려고 발돋움을 하기도 하고… 마치 성모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걸어 오시는 듯하여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박 몬시뇰을 모시고 매일 이탈리아, 로마 내의 유명한 성당과 성지를 순례하며 드린 미사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들었던 성인, 성녀, 순교자들의 신앙생활을 피부로 느끼며 2천 년 이상 지탱되어 온 가톨릭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고맙고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순례 안내자 김혜경 세레나 씨는 신학 박사 과정 유학생인데, 각 성지의 역사와 거기에 얹힌 에피소드, 성화에 어찌나 해박한지 감탄만 나왔습니다. 나중에 박사 학위 논문이 바티칸 도서관에 전시될 정도로 영예를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순례 중 매일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늦게까지 앉아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대해 몬시뇰께 질문하고 토론도 하면서 가톨릭 유산의 찬란함과 그 위대함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신부님과 함께 저녁 마다 가톨릭에 대해 더 공부하는 기회를 가지고 부제 서품미사에도 참여해서인지 그 후에도 다른 곳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하였으나, 이 성지순례가 가장 의미 있는 여행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 모두 하느님의 은총이었다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 개인은 성소후원회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우치는 우를 범했지만, 성소후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기꺼이 봉헌하셨던 회장님들과 임원들에게 새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소를 위하여 늘 뒷받침이 되어



≡ 김영민 신부님과 조홍래 신부님의 사제 서품식 (2011)

조용히 권하고, 이끌어 주셨던 박 몬시뇰 덕에 우리 성당은 미주에서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은 성소의 못자리였습니다. 그간 열 분의 사제, 두 분의 부제, 그리고 세 분의 수녀님들이 태어나셨습니다. (본당의 역사 참조)

우리 모두는 교회에 더 많은 사제, 수도자가 꼭 필요하다고 믿기에 하느님께 성소자를 더 많이 보내 주십사, 늘 기도 드립니다. 다만, 요즘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교회에 관한 긍정적인 기사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전파를 타다 보니 젊은 세대들의 신앙 이탈도 심하고 성소자와 신자수가 줄어 들면 교회가 문을 닫거나, 통합되는 경우들도 있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염수정 추기경님이 2019년 1월 5일 성소자들을 위한 신년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팎의 여러 사건들로 인하여 사제직과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소후원회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훌륭한 사제가 많이 배출되고, 또 이미 사제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 처럼 목숨을 바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느님 뜻을 세상에 펼쳐 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은 지난 2천 년 동안 많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교회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거룩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회상하기도 싫은 문제가 많았던 중세 말기에도 결국에는 종교개혁이라는 홍역을 치루기는 하였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찰과 쇄신을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하여 성소위원회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제가 성소후원회를 맡았을 때 하지 못했던 많은 예를 들어 혹시나 앞으로 성소후원회에서 참고로 하신다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예들을 모두 실행할 수는 없겠지만 본당 사정에 따라 몇몇의 예를 취사선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성소를 위한 미사나 기도회를 정기적으로 본당에서 성소를 위한 미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내고 그 후 기도회를 가짐.
- 성소를 위한 성체조배를 매월 정기적으로 드리기로 함. 정기적으로 미사 후 드릴 수도 있음.
- 성소 주간이나 성소의 달을 적극 홍보하여 전 신자가 함께 기도하고 다과를 준비하여 회원 가입을 청함. 또한 성소를 위한 팸플렛이나 카드를 만들어 배포함.
- 신학생이나 서품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부님이나 수도자를 주일학교나 youth group



에 초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

-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되었지만 많은 본당의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 대회’에 적극 참여하도록 후원회에서 권장하고 경제적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
- 교황청에서 주관하는 ‘성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을 홍보하고 전 교구가 기도하도록 권장함.
- ‘안티옥’ 같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피정에 참여시키도록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기도, 지원 및 숙소 제공에 적극 참여.
- 중·고 학생들이 신학교나 수도회를 방문하여 신학생들이나 예비 수도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
- 교구의 부제 서품식이나 사제 서품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은총을 받고 새로운 성소자나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함.
-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하므로 본당 차원에서 전 신자가 성소후원회에 가입하도록 권장함. 또한 정기적인 바자회 등 모금활동을 통하여 경비에 보조함. (한국의 어느 교구는 각 본당의 성소후원회에서 내는 재원으로 신학교 재정 일부를 충당하기도 합니다.)
- 위에 열거한 많은 활동들은 본당신부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며, 위에 열거한 활동들은 이미 많은 교구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권장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항상 교구와 이웃 본당과의 대화를 트고 협력을 통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교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성소를 위한 단체인 Serra Club을 참조하여 협조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rra Club은 1934년 시애틀에서 평신도 네 쌍의 부부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교황청, 교구 및 주교님 등과의 관계를 통해 성소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기구로서 각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본당 근처의 Serra Club과 연계하면 교황청, 교구에서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도록 성소후원회가 도움을 준다는 자긍심으로 임하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부름은 우리 자유에 대한 간섭이 아닙니다. 우리 자유를 속박하거나 짐을 지우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를 그의 위대한 계획에 초대하시는 거룩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바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56차 성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에서)

루가회 - 모두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삽시다

강창홍 바오로

우리 본당 의사 교우들의 모임인 ‘루가회’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새삼 세월의 빠름을 통감한다. 1982년 어느 날, 박창득 본당신부님이 당시 총회장이자 의사인 이회영 교우에게 본당 형제자매를 위해 건강 진료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해 7월 본당 바자회에서 간단한 건강 상담과 혈압 측정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의사 신자들의 모임인 ‘루가회’가 시작되었다.

1983년 9월에 공식적으로 루가회 모임을 시작하며, 감사 미사를 드렸고 11월에 김건 교우택에 모여 이회영 교우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루가회라는 이름은 의사로 알려진 복음사가 성 루가(St. Luke)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1985년 루가회 정관이 통과되고, 본당 사목 단체의 하나로 사목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우리 본당 성전을 오렌지 Central Avenue로 옮긴 1986년부터 매주 주일미사 후에 성당 친교실에서 혈압 측정과 건강 상담을 실시하였고, 일 년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정기적으로 건



≡ 루가회 회원 단체사진

강 진료 행사를 했다. 가을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 1993년에는 한인들에게 맞는 골수가 부족하다는 보도를 보고, 솔선해서 골수 기증 운동을 벌여 골수 등록 운동에 참여했고, 혈액 기증 운동도 했다. 그러나 안

타깝게도 헌혈한 교우 중에 간염에 걸렸던 사람이 많아, 헌혈한 혈액의 낭비가 심해 혈액 기증 운동은 중단되었다.

1985년 부터 연례 건강검진 행사에서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압측정과 치과진료, 건강 상담 등을 실시했다. 혈액검사 등의 랩 테스트가 가능했던 건 이대우 교우와 홍성만 교우의 주선



≡ 2012년 연례 건강 검진 - Dr. 홍성만과 손님의사 Dr. 다니엘 이

으로 검사비를 실비만 내고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0~1990년대만 해도, 갓 이민 온 한인들이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진료가 절실했다. 검사 결과는 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 주었는데,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고, 본인도 몰랐는데 검진 결과, 혈압이 높거나 간 기능이 나쁜 사례와 전립선암과 부인과암이 발견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루가회 초기 회원 중 본당 공소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던 분들은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며 새 본당으로 이적했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루가회와 함께 활동하면서 새 본당의 의료 행사에서 본당 루가회원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1996년에는 강창홍 회원의 주선으로 브루클린 성당에서 혈액검사와 건강상담을 했다. 그 후에 필라델피아 한혜원 박사(토마스 제퍼슨 대학 의과대학 교수)를 초청 강의를 듣고, 간염에 걸린 교우들을 위한 장기적 진료와 치료를 그분께 의뢰하기도 했다. 루가회는 매달 본당신부와 회의를 하면서 본당 신자들을 위한 의료봉사에 관해 보고하며 의논했고, 1992년에는 박재만 신부를 모시고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피정을 했다.

초기 회원은 이철(정신과), 이회영(소아과), 김건(마취과), 김완주(외과), 조은숙(병리과), 한광수(마취과), 조성준(산부인과), 최승웅(외과), 맹성열(내과), 이대우(내과), 박세창(내과), 강창홍(마취과) 교우 등이었다. 1985년에는 박민용, 최준혁(산부인과), 정주렴 교우가, 그 후에 유지진(정신과), 최태열(치과), 원암우(재활의학과), 홍성만(내과), 박인현(Chiropractor), 김남기(Steve Kim, 내과) 교우가 가입했다. 고마운 건 본당에 소속된 간호사들의 자발적 협력이다. 간호사들의 동참은 매년 건강검진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분들의 성함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외에도 진료를 도와준 외부 의사들이 있었는데, 한근수(안과), 한기현(이비인후과), Daniel Lee(내과) 의사 등이 있었다. 2005년 이후에는 본당 교우의 자제 의사들인 Edward Choi, Raymond Chong, Richard Kang, Bryant Lee 등이 진료와 접종 행사에 동참했다.

이후 루가회원들의 노령화와 은퇴, 타 주로 이사, 소속 본당의 변경 등의 사유로 2015년 이후에는 정기 검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루가회 활동의 재활성화를 논의하기도 했으나 본당 신자인 현역 의사가 몇 명 없고, 검진이나 독감 예방 접종을 필요로 하는 신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루가회 활동은 정지된 상태다. 2021년 루가회는 남아 있던 활동비 잔액과 기부금을 추가해서 \$1,000을 본당 50주년 기념 사업비로 봉헌하고, 40년 동안 지속되었던 활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NOTE: 그후 신경내과 의사인 박자영 자매가 2021년 10월 31일에 입교하고 견진성사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이경 본당신부의 권고에 따라 루가회의 역할을 되살리기로 했다. 박자영 교우를 중심으로 박종한, 조가은 의사 부부와 Dr. John Kauh, 그리고 몇몇 관심 있는 교우가 협조를 약속하면서 신자들을 위한 의료상담을 재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인다.



크리스토퍼회 - 성당 출입 안전 지키다

지영덕 어거스틴

우리 본당 ‘크리스토퍼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매 주일 주차 안내와 Jersey City에 살고 계시던 ‘아쌔모’ 회원들에게 미사 참례를 위한 차편 제공을 하던 봉사 친교 단체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 Χριστός(크리스토스)와 φέρειν(페레인)이 합쳐진 것으로 ‘그리스도를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라는 뜻이다. 주차 안내와 차편 제공을 통해 신자들을 주님 모시듯이 잘 모실 목적으로 이 단체의 이름에 적합하여 채택했다고 한다.

1986년 12월 7일, 뉴저지한인천주교회가 본당으로 승격되고 오렌지시의 Central Avenue에 소재한 성당으로 이전하면서 교우들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성당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졌다. 또한 성당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당시 박창득 어거스틴 주임 신부께서 하상구 바오로 회장과 의논해서 크리스토퍼회를 만들게 되었다.



≡ 성당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크리스토퍼회원들

성성당 주변에 길거리 주차까지 해야 할 정도로 교우들이 많아지면서 이들 봉사자만으로는 본당 교우들이 안전하게 미사에 참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박 신부님께서서는 주위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통제하고 교우들이 성당으로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청원경찰까지 채용해야만 했던 적이 있었다.

메이플우드로 이사 온 후에도 넓은 성당 구내 주차장 뿐만 아니라 성

당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의 수용 공간마저 부족해졌다. 점차 길거리 주차를 해야 하는 차량이 적지 않았고, 성당 밖에서 길을 건너오는 신자들이 많아지면서 신자들 안전을 위해 크리스토퍼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주일미사 시작 훨씬 전부터 성당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안내하고, 신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주행하는 차들을 통제하며, 신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네는 성당의 얼굴이 되었다.

성당에 오시는 신자들에게 추운 날씨에도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인사를 하는 회원들을 보고 신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행동하는 신앙인의 참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회원들도 인사하는 신자들을 반기며 성당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

평상시에는 노란색의 재킷을 입고, 한겨울에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스키장에서나 볼 수 있는 병어리장갑을 끼었지만, 날씨가 매우 추울 때는 귀덮개에 털모자로 중 무장을 하고 봉사하였다. 회원들이 극한의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조민숙 헬레나 자매님과 정양자 마리아 자매님등 교우들의 후원을 받거나 회원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방한복, 털모자, 장갑과 밀짚모자 등을 마련하였으며 야간에 사용할 손전등과 배터리가 방전된 차량을 충전시키기 위한 부스터, 교신용 무전기 등도 마련해 두었다.

주일 아침마다 봉사자들이 교대로 Jersey City에 사시던 ‘아삼모’ 회원을 성당으로 모셔오고 미사 후에는 다시 모셔다드렸다. 그분들의 연세가 높아지면서 세상을 떠나시거나 양로원 등으로 주거를 옮기면서 차량 이용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마지막 남은 김봉영 바오로 형제님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저지 시티에서 신자들을 모셔오는 차량 봉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러더포드 노인 아파트와 그 근방에 사는 여러 교우, 특히 연로해서 운전을 할 수 없어 미사 참례가 힘든 교우들을 위해 매 주일 전문업체(School Bus 회사)를 통해 교통편을 제공해 드리고 있다.

그동안 하상구 바오로 형제를 시작으로, 김영수 토마스, 박재규 즈카리아, 조재웅 버나드, 배재용 라자로 그리고 채승규 베드로 형제 등이 회장직을 맡아서 수고해 주었다. 최근 여러 사정으로 크리스토퍼회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자, 베로니카 수녀는 젊은 신자들에게 주차관리 활동을 맡겨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했지만, 팬데믹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지나고 보니 2003년 한여름, Central Ave 성당에 있을 때, 크리스토퍼 회원 부부들이 모두 김영수 토마스 형제가 운영하는 농장에 모여 1박 2일 동안, 하상구 바오로 회장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피정을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평상시에는 주차관리요원이 없어도 교우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지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안전을 위해 주차 관리 요원이 꼭 필요하다. 크리스토퍼회가 다시 활성화되어 예수님을 어깨에 모시는 마음으로 봉사와 희생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인의 자세를 배우고 보여주게 되기를 기원한다.

아삶모 - 아름다운 삶의 모임

이춘리 다니엘 - 이정자 카타리나 부부

‘아삶모’는 누군가가 불러만 주어도 정겨운 단체이며, 아름다운 삶을 위한 모임입니다.

오렌지 성당에서 메이플우드 성당으로 이사를 한 후 모든 것이 안정되고, 본당신부님인 조민현 주임신부님이 유스그룹 청소년들 피정 주제를 어른 공경으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미사 후 모여 앉아 있는 많은 수의 연장자 신자들에게 관심이 끌리셨던가 봅니다. 조 신부님은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자연히 늘어나는 65세 이상의 연장자 신자들을 위하여 믿음생활에 도움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연장자들의 모임을 만드시고 ‘아삶모’라 명명하였습니다. 그 초기에 하상구 바오로, 안나 부부가 열심히 노인들을 도와 65세 이상의 신자들의 모임인 아삶모가 자리 잡는 데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 아삶모의 모임의 송년 파티

그렇게 해서 모인 아삶모는 2006년 8월 1일 첫 월간 소식지도 만들었습니다. 또 워크숍을 열고 신앙 체험의 나눔을 갖고, 아삶모가 해야 할 활동 등을 의논하였습니다. 건강강좌, 회원 생일 축하, 미사 봉헌(한 달에 한 번), 미사 전례 협조 등을 결의하였으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본당에서는 미사 후 연장자 신자들을 위한 자리를 지정해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봄, 가을 소풍과 성극 관람, West Point 견학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2017년에 부임하신 이경 신부님도 아삶모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김 미카엘 보좌신부님과 조마리 베로니카 수녀님과 함께 Enders Island에서 가졌던 두 번의 2박 3일 피정은 특별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스케줄은 노인들의 정서에 맞게 마련되었고,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여행을 주님께 위탁하여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 주일 미사 전후에 조양호 노엘 자매님 지도하에 가졌던 성가 연습과 라인댄스 시간은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매달 첫 주일에는 성가대를 대신하여 미사 성가를 합창하게 되어 ‘아삶모 성가대’로 이름 지었습니다.

아삶모는 회원이 120명까지 될 정도로 활성화가 되기도 했었는데 세월이 장사가 없다는 옛말처럼 회원들이 한 해 한 해 노쇠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가 집에서 기도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삶모 회원들의 사랑과 헌신은 주님을 함께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소중한 모임으로 남을 것입니다. 김덕근, 박광신, 박성도, 손무자(Mrs. 손영근), 손영근, 이정자(Mrs. 이춘리), 이춘리, 장상조, 정구흥, 채승규(이상 가나다 순)님께서 그간 회장으로 봉사하시며 애써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노령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이와 관계없는 노장의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아삶모는 더욱 필요한 단체이고 따라서 그 공헌이 더욱 기대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신자들이 함께하시어 젊은 신자들에게 삶의 희망과 활기를 불어 넣어주며, 나이가 드는 것은 ‘삶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임으로 크게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정은 숙성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은 달콤하지만, 정은 구수하고 은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1티모 6,7-8>

지아모 - 지구를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

이승자 글라라



≡ EM 을 만드는 글쓴이 (왼쪽)

✦ 기후 위기는 인류의 위기

얼마 전 TV에서 방영된 ‘기후 위기’에 관한 영상 내용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자주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구는 이미 뜨거워져서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가 전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섭씨 1도의 기후 변화는 기후 위기가 되고, 기후 전쟁까지

일어날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도는 이미 섭씨 1도가 오른 상태인데 0.5도가 더 오른다면 1억 명의 난민이 생겨날 수도 있으며, 2도 이상 상승 시에는 7억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억 단위의 난민이 국경을 넘게 된다고 합니다.(현재 시리아 난민 400만 명)

이것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며 기후 위기는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은 자연의 변화보다 100배나 빠르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속도는 지구의 온도를 1만 년 동안 섭씨 4도 상승시켰지만, 인간은 단 100년 만에 1도를 상승시켰다고 합니다. 이 속도라면 극단적인 기후 변화로 농업은 붕괴하고 식량 위기를 맞게 되며,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도시들이 침수되고, 늘어난 이산화탄소 성분으로 해양이 산성화가 되어 생태계가 붕괴하고 결국에는 모든 생명체가 멸종위기를 맞는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후 기후 변화로 인해 지난 100년간 생물종의 20%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이내 100만 종이 줄 수도 있다고 하며, 그 예로 벵골호랑이, 치타, 판다, 산호초 등이 멸종 위기에



≡ EM 비누를 만드는 '지아모' 회원들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40%씩 사라지는 벌,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벌의 멸종은 인간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약 벌이 멸종한다면 해마다 142만 명의 인간도 같이 사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한다면 4년 이내에 인류도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섭씨 2도 이내로 지구 온도의 상승 폭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합의했었으나, 2018년 인천에서 열린 전 세계 기후과학자 회의에서는 지구 온도상승 폭이 2도도 위험하다며, 1.5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화석연료를 태워 가며 자동차 타고, 여행 가고, 공장 세우며 풍요로움을 누렸으나 다음 세대들은 없어지지 않는 온실가스를 그대로 감당하며, 기후 위기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중립 추진을 결의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미래가 아닌 우리에게 닥친 현존하는 위기입니다. 현재 1도 올랐으니 남은 0.5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2019년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중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고 연설해 큰 화제가 되었으며, 한 소녀의 외침에 전 세계 청소년들 150만 명이 응답하며 기후 위기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구를 위해서,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 우리부터 지구를 지키자

우리 본당의 ‘지구를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약칭, 지아모) 2013년 1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교우들을 위한 점심 식사 마련에서 버려지는 찌꺼기의 영양분들이 하수구의 나쁜 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어 이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찌꺼기에 EM (Effective Microorganism, 유용한 미생물=유인균)을 넣어 발효시키면 생활에 필요한 EM 찌꺼기 발효액이 되며, 특히 EM은 항산화 효과와 탈취 효과가 뛰어나 주변을(물과 흙과 공기) 정화하는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교우들에게 EM 비누와 EM 발효액 등을 교육, 홍보, 판매하게 되었으며, 이익금은 ‘본당 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금’ 목적으로 봉헌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아모 행사로는 매해 봄, 가을로 교우들과 함께 비누 만들기, 보카시 만들기 행사를 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해마다 성령대회에 참석하여 이음을 널리 알리고, 2018년에는 본당 텃밭에 유기농 텃밭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가능한 화학 세제 사용하지 않기 등 환경교육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EM’은 상품명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단체명을 ‘EM 팀’에서 ‘지구를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지아모)’으로 2016년 조후연 본당신부님의 허락하에 바꾸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팀원은 오래전 성당에서 환경교육과 성경공부를 하던 중,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창세 1,31)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자연을 돌보는 것이 우리 몫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EM으로 찌꺼기 발효액을 만들고, 그것으로 EM 비누를 만들고,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들어 유기농 텃밭을 가꾸어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구를 편안하게 해 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실행해 보으면 좋겠습니다.

지아모는 처음 2명으로 시작하였으며 해마다 점차 늘어났으며, 함께 활동하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긴 두 자매님(이숙희 베로니카, 김공주 모니카)을 포함하여 12명의 팀원을 소개합니다.

지아모팀

회장: 이승자 글라라

회계: 김혜인 베로니카

서기: 조미영 데레사

홍보: 문상일 마태오

회원: 김영자 안나, 박동화 베드로, 정정자 아녜스, 배재용 라자로, 이지원 아가다, 박두선 요셉

(고) 이숙희 베로니카, (고) 김공주 모니카

2000년부터 코로나19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2022년 2월부터 조금씩 활동을 재게하고 있습니다. 2월에 팀원 대상으로 김수완 세실리아 KCLC 생태팀 팀장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비대면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온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사용을 줄이는 등의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을 다 같이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창세 1,29~31)

보니파 - 단합된 아름다움

조옥경 데레사



≡ 2019년 점심 봉사 후 보니파 회원들

‘보니파’에 관해 어떻게 소개할 지를 고민하는 중에 떠오른 단어는 ‘단합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모세 수녀님이 지어주신 ‘보니파’라는 이름과도 상통되지요?

저희의 시작은 흥미롭게도 누가 먼저랄 것 없는 여럿의 공통된 바람이었습니다. 일과 후에 서로 만나 간단한 스트레칭과 율동을 함께 할 시간을 갖고 싶은 바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열정만 가득했던 우리는 곧,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적인 단체는 사실 조심스러울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향이 무엇인지 회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있는지 등을 사도회장님이 물어오셨고, 덕분에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봉사도 함께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조후연 야고보 본당신부님의 승인을 받고 2016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서툰 시작은 그저 만나서 행복한 것에 만족하면서도 조금씩 틀이 잡혀가고, 사적 단체로 허락받는 과정의 필요성을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고, 그것이 ‘보니파’의 존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한 노력의 열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여러 얼굴들이 바뀌면서도, 하나로 일치함을 배워가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린 매주 월요일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교우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임이 되겠다

는 우리의 약속대로 많은 교우와 함께 즐겼던 시간이 눈앞을 스칩니다.

본당의 날에 함께 추던 트 위스트,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했던 시간, 본당 야유회 때 카우보이 라인댄스, 망년 파티 등등... 사랑을 꿈꾸듯 부끄러운 저희의 몸짓으로 맘껏 행복했던 웃음. 그런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 찡긍, 성모님의 조용한 “킁킁” 소리를 분명 들은 듯했습니다.



≡ 2019년 야외 미사 후 여흥시간에 공연을 마치고

선생님 아닌 선생님과 함께, 나이도 들쭉날쭉한 저희의 완벽한 조합은 지금까지 저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 행복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은총과 축복은 주님의 귀한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공동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종숙 아그네스 화가

흙 능금 추억이 낳는 출산의 기쁨

Jong Sook Kang's Art Statement

나는 29년 전 가족과 함께 뉴욕에 왔다. 그 때 내눈에 비친 뉴욕은 복잡한 도시로 보여졌다. 그러나 질서와 많은 것이 응축된 거대한 도시를 피부로 느꼈다. 건축물 들과 맨해튼을 둘러싼 풍경들에서 호기심과 강한 인상을 받았다. 사과라는 뉴욕의 상징성 또한 매력으로 느껴졌다.

어린시절 내가 살던 집 뒷산이 능금농장이어서 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자주 놀러 갔었던 추억이 있다. 추억에 대한 향수가 내가 흙으로 작품표현을 할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충분한 것 같다.

에덴 동산에서 사과는 아담과 이브의 등장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형태면에서 에로틱한 아름다움은 작가의 마음을 사로잡을만 하다. 풍만한 여체를 연상케 하는 풍요와 사랑을 은유하며 형이상학적인 의미로는 희망과 생명이다.

내면에 흐르는 생의 갈등과 인간적인 공허가 카타르시스 되는 과정에서 흰색과 검은색의 대조를 이루었다

다변적인 인간의 심성을 무채색의 사과로 정렬한 미니멀 작업을 통한 것이다. 내 생애의 스토리가 있는 지역 코드처럼 이민해서 정착해나가는 나의 존재감과 정체성으로 연결된다.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여러 모양의 면과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또 여러 형태로 변형하는 것은 시간의 연속성을 말해 준다. 나는 뉴욕 출신의 미니멀 아티스트 도널드 저드에게서 좋은 영감을 받았다.

뉴욕이란 도시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복잡하게 얹혀 하루하루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나름의 질서를 찾아가며 융화해 가는 그들의 열심한 삶을 그림자로 표현했다.

반복과 군집의 효과를 최대화 할수 있는 석고틀을 사용한 slip casting 으로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가 자식을 출산하면서 고통보다는 희열을 느끼듯 한알 한알의 생명성을 불어넣으면서 반복작업하였다.

8





50년의 발자취 / 역사, 부록

본당 주보 성인 안내	편집위원회 / 442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St. Andrew Kim Church) 50년사	
제1부(1972년~2000년)	편집위원회 / 444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성당 (St. Andrew Kim Church) 50년사	
제2부(2000년~2022년)	편집위원회 / 465
A Brief History of St. Andrew Kim Korean Church	편집위원회 / 480
The Korean Migration: Bias and Prejudice, Japanese Occupation, War and Welcome	Msgr. Robert J. Wister / 485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연혁	편집위원회 / 501
역대 사제, 부제 및 수도자	편집위원회 / 514
본당 출신 사제, 부제 및 수도자	편집위원회 / 517
평신도 협의회 역대 회장 명단	편집위원회 / 518
역대 성모회장 명단	편집위원회 / 519
Church of Saint Andrew Kim Maplewood NJ	Msgr. Robert J. Wister / 520

본당 주보성인 안내



≡ 성 김대건 안드레아 홍상 (본당 정문 앞에 모시고 있다)

성인명: 김대건 안드레아(St. Andrew Kim)

축일: 7월 5일

신분: 신부, 순교자

활동연도: 1821~1846

같은이름: 안드레아, 안드레아스, 앙드레,
앤드루

성 김대건 안드레아는 19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피마을에서 아버지 김제준 이냐시오와 어머니 고 우

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대건의 아명은 재복이고 이름은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의 집안은 열심한 구교 집안이다. 김대건의 증조부 김진후 비오(Pius)와 아버지는 순교로써 신앙을 증명한 순교자다.

신앙 깊은 순교자의 집안에서 성장한 김대건은 굳센 기질과 열심한 신덕으로 충실히 생활하던 중, 16세 때인 1836년에 모방 신부에 의해 최양업 토마스와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 프란치스코는 병사하였으므로, 남은 두 신학생만이 훌륭히 학업과 성덕을 닦았으나 나이가 25세에 이르지 못하여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 무렵 파리 외방 선교회가 조선 교구를 담당하여 주교와 신부를 조선에 입국시켜 전교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조선이 외국과 수호조약을 맺지 않아 종교의 자유가 없었으므로 프랑스 루이 필립이 파견한 함대의 세실 제독이 그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나섰다. 김대건은 세실 제독의 통역관이 되어 조선에 들어갈 메스트르 이 신부와 함께 에리곤호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세실 제독이 갑자기 조선 항해를 중지하게 되



어 김대건은 혼자 육로로 본국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변문에 이르러 조선 사절단의 일원인 김 프란치스코를 만나 본국 소식을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 성직자를 비롯하여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국을 서둘러 그해 12월 29일 혼자 의주 변문을 거쳐 입국하였으나 중도에서 본색이 탄로날 위험이 생겨 다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김대건은 백가점과 소팔가자에 머물며 메스트르 이 신부로 부터 신학을 배우고, 1844년 12월 15일 페레올 고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고, 다시 입국을 시도하였고 페레올 주교와 함께 변문으로 왔으나, 결국 혼자만 1월 15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1845년 4월 주교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상해에 갔다가 그 해 8월 17일 상해로부터 20리 가량 떨어진 김가항에서 페레올 고 주교집전으로 신품을 받았고, 그곳의 만당 소신학교에서 첫 미사를 드림으로써 조선 교회의 첫 사제가 되었다. 같은 달 31일 고 주교와 다블뤼 안 신부를 모시고 라파엘 호라 명명한 작은 목선을 타고 상해를 출발하여 1845년 10월 12일에 충청도 나바위라는 조그마한 교우촌에 상륙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선교활동에 힘쓰는 한편 만주에서 기다리는 메스트르 이 신부를 입국시키려고 애썼으나, 의주 방면의 경비가 엄해서 고 주교는 바닷길을 알아보라고 지시함으로, 백령도 부근으로 갔다가 순위도에서 1846년 6월 5일 밤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김 신부가 황해도 감사 김정집의 심문에서 자신은 조선에서 출생하여 마카오에서 공부했음을 토로하자 황해도 감사는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중신회의를 열고 서울 포청으로 압송케 하였다.

일부 대신들은 김 신부의 박학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에 탄복하여 나라의 일꾼으로 쓰고자, 배교를 강요했으나, 김 신부는 도리어 관리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자 사학의 괴수라는 죄목을 붙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김신부는 사제 생활 1년 1개월만인 1846년 9월 16일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이때 김 신부의 나이는 26세였다.

김 신부가 순교하기 전 어둡고 차디찬 감옥에서 살점이 떨어지고 으스스한 몸으로 신자들에게 쓴 옥중서한이 있다. 구구절절 신자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사제의 열정이 배어있어 젊은 김 신부의 깊은 영성을 볼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를 성인으로 시성하였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50년사

제1부(1972년~2000년)

편집위원회

우리들의 ‘삶 자체’이자 ‘사랑’인,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가 2022년으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의 첫 명칭은 ‘뉴저지한인천주교회’이다. 그 후 본당이 자리 잡은 지명에 따라 ‘뉴저지한인천주교 몽클레어 성당’,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 오렌지 성당’을 거쳐 현재는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 메이플우드 성당’으로 불린다.

뉴저지 한인사회 첫 성당인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1972년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놀과 다섯 가정의 한인 신자들에 의해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출범했다. ‘뉴저지한인천주교회’ 창립자이자 초대 주임신부인 박창득 몬시놀의 40여 년간의 미국 내 사목활동을 알고 있는 신자들 중에는 그를 미주 한인 가톨릭공동체의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박 몬시놀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의 깊이에 따라 미주 한인 가톨릭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베드로(반석)’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교와 공동체의 확장, 신심운동에 주력했다는 의미에서 ‘바

오로’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 50년간의 역사는 박창득 몬시놀을 서술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 나아가 미 동북부 지역의 초창기 한인 가톨릭 역사는 바로 박창득 몬시놀의 역사이자 생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의 역사를 알려면 박창득 몬시놀의 일생을 살펴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박창득 몬시놀은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후에 오렌지 성당, 현 메이플우드 성당으로 불림)를 시작으로 현재 뉴저지 뉴악대교구 소속 모든 한인 성당들을 뉴저지한인천주교회 ‘공소’ 형식으로 직접 창립했고, 뉴저지 중부와 남부 곳곳의 한인 성당 창립에 관여하고, 초기 미사를 집전했다. 그러면서 성령운동, ME, 청소년 안티옥 프로그램 등 신심운동을 처음으로 한인 가톨릭에 도입, 정착시키고 성장을 이끌었다.

박창득 몬시놀은 조민현 요셉, 박홍식 돈보스코, 김정수 디다고, 이 경 바오로, 조후연 야고보 신부의 ‘아버지 신부’로서 한인 성당을 뉴저지 뉴악대교구 성소 못자리로 만든



‘씨 뿌리는 새벽의 농부’였다. 북미주한인사 목사제협의회를 조직하여 12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며, 미주 한인 가톨릭의 텃밭을 다졌고, <한-영 매일미사>,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 <미주 평화신문> 등을 창간하고, 가톨릭 서적을 공급하여 신자들의 영성 향상을 이끈 신앙의 아버지이다. 또 중국은 물론 북한을 30여 차례나 방문하며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이다.

이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그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 먼저 박창득 몬시뇰의 생애를 알아본다. 박 몬시뇰의 행적이 곧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역사의 본체이기 때문이다.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6·25 고난 겪으며 성소 다져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은 1935년 2월 15일 충북 청주에서 부모님 박희남·전 모니카의 2남 2녀 중 셋째로 출생하여 충남 서산에서 소년기를 지냈다. 소신학교를 마치고, 가톨릭대학 신학부로 진학, 1960년 노기남 대주교로부터 부제 서품을 받았다. 1961년 3월 19일 가톨릭대학 신학부 졸업. 3월 20일 대전교구에서 원형덕 라리보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고, 대전교구 주교좌 성당인 대흥동 본당 보좌신부로 부임했다.

박몬시뇰은 15세 때 서산중학교 3학년생으로 6·25 전쟁을 맞았는데,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같은 학교 좌파 학생들에게 죽기 직전

까지 집단 폭행을 당했다. 당시 동네 전체가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곳곳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져 공개리에 총살, 타살이 집행되고는 했다. 당시 인민군과 가까운 한 지인이 학생 박창득이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처형 대상에 올라있는 서류를 보고 박창득 학생에게 몰래 귀뜸해 주어, 그 즉시 동네를 탈출, 1시간 거리에 있는 서산 시내 누님댁으로 피신했다. 공교롭게도 누님댁은 서산에서 큰 집에 속해 인민군의 근거지로 차용 당하고 있었다. 박창득 학생은 골방에 숨어 피신할 때 자신도 모르게 품고 온 ‘준주성범’을 읽고는 했는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과 “세상일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에 사로 잡혔다. 학생 박창득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하느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니 내 남은 생명은 하느님께 봉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쟁 전에 어머님께서는 박창득에게 ‘너는 신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다. 전쟁이 끝나자 학생 박창득은 어머님의 기도 속에 서울대교구 소신학교에 들어갔다. 당시 신학교 교장 선생님은 1973년 뉴욕 퀸즈에 한인 성당을 세워 박창득 신부와 함께 미동북부 한인 가톨릭의 양대 기둥 역할을 한 정옥진 토마스 신부였다.

✚ 1972년 뉴저지 한인 성당 설립

박창득 신부는 1961년 사제 수품 후 대

전 대흥동 성당의 보좌신부로 사목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대흥동 성당의 주임은 오기선 신부였고, 박 신부와 함께 보좌신부로 사목 하던 신부는 두봉 신부였다. 두봉 신부는 후에 주교로 서임되어 안동교구장을 역임하다 은퇴한 한국 가톨릭계의 '신화적' 인물이다. 박창득 신부는 1962년 군종신부로 육군사관 학교에서 2년, 일선에서 1년을 근무하고 제대한 후 1965년 대전 대흥동 본당 보좌신부로 복귀했다.

당시 CBS 대전방송국은 개신교 목사를 초빙해 '5분 명상'이라는 교양·선교 방송을 내보냈다. 박 신부는 개신교 목사들의 '5분 명상' 방송을 듣고 내용이 좋아, 가톨릭도 저런 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방송국을 찾아가 '저도 방송하게 해 달라'고 제의했으나 '가톨릭 신부'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박 신부는 "그러면 그 시간을 나에게 팔아라"고 제안하여 받아들여지자, 먼 길 방문 때 타고 다니라며 신자들이 모금하여 사 준 BMW 오토바이를 팔아 그 돈으로 방송 시간을 사서 '5분 명상'을 방송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5분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2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박창득 신부는 1966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 67년 교황청 직영 이탈리아 안젤리쿰 대학에서 종교사회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로마 유학을 마친 후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스쿨에서 사회학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도미, 1970년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노에 있는 St. Mary 성당 보좌, 1971년 뉴저지 저지시티의 Our Lady of Victories 성당 보

좌신부로 사목하면서 학업을 계속했다. 뉴스쿨은 2차대전 당시 유럽에서 나치의 폭정을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유대인과 학자들이 설립한 자유·진보적인 학풍의 대학이다.

당시 미 동북부에는 베네딕도 수도회 소속 장흔 코르넬리오 신부(콜롬비아 대학교 동양미술사 교수, 한국 제2공화국 장면 총리의 조카)가 1967년부터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있는 미국 성당의 시간을 빌려 미사를 봉헌했는데, 이 '뉴욕 한인공동체'가 유일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사였다. 1964년 도미한 정옥진 토마스 신부도 미국 성당의 보좌신부로 있으면서 이 한인 공동체를 돕고 있었다. 박창득 신부는 여기서 소신학교 은사인 정옥진 교장신부와 반가운 해후를 한다. 이후 박창득 신부와 정옥진 신부는 뉴저지와 뉴욕의 한인 가톨릭계 두 '반석'이자 거목이 된다.

1970년대 초반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 개신교 교회가 70여 곳, 뉴저지에 30여 곳 등 100여 곳 있었으나 한인 성당은 맨해튼 한인공동체 하나뿐이라 가톨릭 신자들은 편의를 쫓아 개신교회에 나가거나 아예 교회 출석을 못하기가 일쑤였다. 당시 한국어 미사를 못말라 하던 한인 신자들은 한인 신부가 유학 와서 저지시티 성당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박창득 신부를 수 차례 찾아와 한국어 미사 봉헌을 요청하곤 했다. 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 박창득 신부는 1972년 여름부터 한인 다섯 가정이 모인 가운데 한국어 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다. 이 중 한 가정인 지영덕 어거스틴, 지정혜 글라라 부부의 자택에



서 첫 미사를 드렸다.

“한국 신부가 한국어로 미사를 봉헌한다”는 ‘복음’이 퍼져나가자 미사 참례자들이 늘었다. 드디어 1972년 대림 첫 주일인 12월 3일 뉴저지 저지시티에 있는 Our Lady of Victories 성당 부속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30여 명의 한인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이것이 뉴저지 한인 가톨릭 성당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 뉴저지 일원 한인 천주교 신자들이 얼마나 한인 공동체 설립을 목말라하고 있었는지는, 공동체 설립 1년 만에 맞은 그 다음 해 성탄 대축일미사에 150여 명의 신자들이 참례한 것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당시 한인 교회들은 신앙 공동체임과 동시에 이민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생활 공동체이기도 했다. 박창득 신부는 이민 신자들의 공방 픽업부터 아파트 찾아주기, 자녀들 입학, 직업 알선, 병원 안내, 이사 돕기, 아파트 수리, 인생 상담은 물론 직접적으로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는 초기 이민자들의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다. 박 신부는 “어느 날 한 신자가, 우리 집에 사고가 생겼으니 급히 와서 도와주셔야겠다고 연락이 와서 달려가 보니, 변기가 막혔으니 뚫어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신부와 신자 사이가 매우 가까운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 김수환 추기경도 놀란 초고속 성장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가 1973년, 74년

신자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박창득 신부는 74년 12월 5일 성전을 저지시티에서 뉴저지 몽클레어에 있는 St. Peter Claver Church로 옮겼다. 그 후 ‘세든’ 몽클레어 성당에서도 신자수가 계속 늘고 ‘집주인 격인’ St. Peter Claver Church와의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 교우들과 함께 자체성전 마련의 꿈을 품기 시작했다. 한번은 St. Peter Claver Church의 성작이 없어졌는데, 우리 한인 성당 어린이들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이는 데 박창득 신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를 통해 박창득 신부와 신자들은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자체성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1977년 자체성전 건립 기성위원회(위원장 김도영)를 발족시키고,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성당 설립 5년 만이었지만 신자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모금운동 3년 만인 80년 당시 부동산을 하던 본당 신자 원복순 크리스티나 교우의 제의로 오렌지시티 18 Cleveland Street에 있는 Christian Scientist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매입하고 수리공사를 거쳐, 11월 16일 성전 이전 감사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자체성전 마련을 이루었다. 성당 명칭을 Blessed Andrew Kim Mission(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라고 명명했다. 81년에는 주차장에 있던 목사관을 구입하여 사제관으로 사용했다.

자체성전을 갖게 된 뉴저지한인성당은 1982년 설립 10주년을 맞아 큰 기념행사를 갖기로 하고,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을 초청했다.



10주년 기념미사와 행사에 참석한 김수환 추기경은 신자들의 열성을 직접 보고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칭찬하고, 자체성전 마련을 위해 전 교우의 80%인 134명이

100일 동안 매일 고리 묵주기도를 바쳤다는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역시 다르다”고도 말했다. 자체성전 이전 당시 새 성전이 재적 교우 수에 비해 너무 넓어 “아-휴, 언제 이 넓은 성전을 신자들로 가득 채울꼬” 하며 걱정들을 했다. 이렇게 신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박창득 신부는 “하느님께서 이 성전을 비워두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득 채우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라며 걱정 말라고 했다.

박창득 신부의 말씀대로 새 성전 마련 3년 만에 뉴저지성당은 신자 수의 증가와 각 신심단체의 활성화, 연령별 친목단체의 확대로 성전이 비좁아지기 시작했다. 오렌지 클리브랜드 성당은 회합 장소가 부족하여 신심단체 등 각 단체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없음에 따라 성전 주차장에 있는 사제관을 헐고 그 자리에 부속건물을 짓기 위해 다시 기성회를 구성하여 모금운동을 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뉴악대교구장 McCarrick 대주교는 1986년 12월 2일 뉴저지 한인 성당과 오렌지시티 센트럴 애브뉴에

있는 St.Venantius 성당을 합병, 클리브랜드 성전을 St.Venantius 성당으로 이전, 새 통합 성당의 명칭을 St. Andrew Kim Church라고 명명하고 ‘본당(Church)’으로 승격시켜 박창득 신부를 ‘주임신부(Pastor)’로 발령했다. 이에 따라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는 오렌지시티 클리브랜드 스트리트에서 센트럴 애브뉴에 있는 새 성전으로 옮기고 1986년 12월 7일 입당미사를 봉헌했다. 박창득 신부의 주임신부 취임미사는 87년 3월 29일 McCarrick 대주교의 집전으로 봉헌했다. 이날 McCarrick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성 앤드류 김 본당은 뉴악대교구의 좋은 모범을 보이는 본당이다”라고 칭찬한 후 “아울러 하느님께서 한인 신자들을 이곳에 보내시어 미국 신자들에게 신앙의 불꽃을 피어 주도록 하셨다고 믿는다”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창득 신부는 St.Venantius 성당에 남아 있는 미국 신자들(주로 독일계)을 고려하여 성당 명칭을 'St. Venantius- St. Andrew Kim 성당'이라고 했다. 이날 오렌지 시티는 박창득 본당신부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3월 29일을 “박 어거스틴 신부의 날”로 선포했다. 이렇게 한인공동체인 뉴저지한인천주교회→오렌지 클리브랜드 성당이 오렌지 센트럴 애브뉴에 큰 새 성전을 마련하고 본당으로 승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박창득 신부가 1986년 대전교구 소속에서 뉴악대교구로 전입한 것이 한 요소가 됐다.



✚ 신자 나누어 공소 세우기-5개 본당으로 발전

‘뉴저지한인성당’이 자체성전을 마련하고 급성장해 나가는 사이 박창득 신부는 뉴욕, 뉴저지 일대는 물론 올랜도 등 미 남동부와 미주 곳곳의 한인 공동체 창립에 직접 관여하거나 도움을 주었다. 박창득 신부는 한인 신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한인 성당이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곳곳에 한인 성당 설립의 기초를 닦았다.

1978년 뉴욕대교구 소속의 스탠포드 아일랜드 한인공동체의 설립에도 밑거름 역할을 했다. 스탠포드 아일랜드 거주 한인들이 그곳에 한인공동체 설립을 원하자 처음에는 뉴욕, 뉴저지의 한인 사제들이 번갈아 가며 스탠포드 아일랜드에 가서 주일미사를 집전하다가 곧 박창득 신부가 전담 신부가 되어 사목했다.

1983년 애틀랜틱시티, 1984년 5월 1일 이튼타운과 포트덕스에 공소를 설립하여 뉴저지 중부와 남부의 신자들에게도 목자의 손길을 뻗었다. 이튼타운 공소는 1988년 9월 25일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의 보좌신부인 김덕신 요셉 신부가 주임신부로 부임함으로써 발전을 거듭, 본당으로 승격했고 현재 뉴저지 중부의 대표 성당으로 발전했다. 김덕신 신부는 1960, 1970년대 한국 프로권투 헤비급 챔피언 김덕팔의 친형으로 인기가 대단했다.

박창득 신부는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의 등록 신자수가 500가구가 넘으면 300가정을

유지하고 200가구는 나누어 공소를 설립하곤 했다. 1986년 포트리에 공소(현재 새들브룩 103위 성당), 1989년 데마레스트(현재 데마레스트 성당), 1991년 6월 뉴브런스윅에 공소를 세웠다. 뉴브런스윅 공소는 현재 에디슨 성당. 메타천교구 한인 성모성당으로 발전했다.

박 신부는 “그렇게 신자를 자꾸 나누면 우리 본당은 언제 성장하느냐?”는 일부 신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편하게 성당에 오갈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원 거리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성당 출석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느냐, 한인 신자가 있는 곳에는 한인 성당이 있어야 한다. 또 거리 관계로 성당에 나가지 않는 가톨릭 신자들도 근처에 성당이 생기면 다시 성당으로 돌아올 것이고, 새로 입교하는 한인들도 있을 것이다”며 반대 신자들을 설득했다. 또 “본당 신자수가 500가구가 넘으면 본당신부가 본당 가정 모두와 참사랑을 나누는 제대로 된 사목활동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 300가정이 가장 적합한 성당 규모이다. 공소 설립은 win-win의 길이다”며 공소 설립을 강행했다. 그렇게 공소를 설립하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본당이나 공소가 모두 다시 500가구에 육박, 한국에서 사제를 모셔와 독립된 한인공동체로 발전시키고는 했다.

▲ 포트리 공소(현 103위 성당)

포트리 일대에는 예나 지금이나 주재원 등 한인 유동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일대 신자들의 편의와 성당에 다니지 않는

주변 신자들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 공소 설립을 추진, 1986년 5월 31일 포트리 인근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Madonna Church에서 한국어로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포트리 공소가 시작됐다. 공소가 커지자 박창득 신부는 1989년 11월 광주교구와 협의하여 송종의 신부를 모셔와 본당으로 독립시켰다. 포트리 성당은 그 후 티넥으로 옮겼다가 다시 새들브룩으로 이전, '성 103위 성당'으로 명명했다.

성 103위 성당은 그 후 박창득 신부의 '아들 신부'인 박홍식 돈보스코 신부가 주임신부로 사목하며 크게 발전했다. 당시 모 교회이던 뉴저지 성당(현 메이플우드 성당)보다 더 많은 2,500명의 신자를 포용했다. 현재는 뉴악대교구 소속 박준용 안드레아 주임신부, 오렌지 성당 신자이던 노의열 프란치스코 부제가 사목을 하고 있다.

▲ 데마레스트 공소

1980년대 후반 뉴저지 한인 인구가 늘어나고 오렌지 본당 신자가 다시 500가구 정도가 되자 버겐카운티 북부 일대에 살던 뉴저지 한인 성당 신자들과 당시 데마레스트 인근에 살면서 뉴욕 퀸즈 성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신자들을 중심으로 공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소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했다. 그 직후 1989년 3월 26일 부활 대축일을 맞아 이 지역 신자들이 St. Joseph Church에서 박창득 신부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데마레스트 공소가 시작됐다.

데마레스트 공소는 1990년 5월 31일 인

천교구에서 최기산 신부(귀국 후 인천교구장 서임. 선종)가 부임함으로써 본당 형식의 한인 공동체로 발전했다. 그후 1998년에 본당으로 승격되었고, 2,300명을 포용하는 큰 성당으로 발전했다. 2008년에는 St. Joseph Church의 한·미 두 공동체를 통합하고 박창득 신부의 아들 신부인 김정수 신부가 주임신부로 임명되어 성전을 개축했다. 현재는 역시 박창득 몬시뇰의 '아들 신부'인 박홍식 돈보스코 신부가 주임 신부를, 조후연 야고보 신부가 보좌 신부를 맡고 있다.

▲ 뉴브런스윅 공소

1991년 6월 30일 뉴저지 중부 에디슨, 뉴브런스윅 일대 거주 신자들을 위해 메타천교구에 뉴브런스윅 공소를 개설했다. 뉴저지 성당은, 뉴브런스윅 공소 설립 기금은 물론 초기 운영기금으로 3만 달러를 제공했다. 뉴브런스윅 공소는 1992년 부산교구 소속 최경용 베드로 신부의 부임으로 본당 형식의 한인 공동체로 승격하고 메타천교구에 속하게 됐다. 뉴브런스윅 성당은 한때 신자들이 양분되어 우드브리지 성당 등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 우드브리지에 자리 잡은 '메타천교구 한인 성모성당'으로 발전했다. 현재 메타천교구 한인 성모성당은 South Bound Brook에 자리 잡고 있다. "에디슨 한인성당"으로 불린다.

▲ 마돈나성당

포트리 공소가 마돈나 성당에서 나와 티



텍, 새들브룩으로 옮기는 사이 포트리 일대 한인 신자들은 성당을 오가는 데 시간상 불편이 문제로 제기됐다. 박창득 신부는 이 일대 신자들의 편의와 선교를 위해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시에 한인 성당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2006년 뉴욕대교구 교구청과 미국 성당인 마돈나 성당과 교섭, 한인공동체를 다시 발족시켰다. 박 몬시뇰의 아들 신부인 이경 바오로 신부가 한인공동체를 담당하면서 신자 증가 등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후 2017년 2월 뉴욕대교구는 포트리 마돈나 성당 한인공동체 담당이던 이경 바오로 신부를 메이플우드 한인 본당 주임신부로 발령하고, 포트리 마돈나 성당과 한인공동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성당으로 만들고, 주임신부로 김정수 디다고 신부를 임명했다.

▲ 성미카엘 성당

박창득 신부는 이어 뉴욕대교구청에 뉴저지 최대의 한인 밀집 타운(시 전체 인구 중 52%가 한인)인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에 있는 성 미카엘 성당에도 한인공동체 신설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았다. 초기에는 박 몬시뇰 등 뉴욕대교구 소속의 한인 사제들이 김성규 부제의 도움을 받아 돌아가며 한국어 미사를 집전하다가, 2012년 박 몬시뇰의 '말아들 사제'인 조민현 요셉 사제가 주임신부로 임명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있다.

무척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조민현 신부는 주민들 중 히스패닉계가 많음에 따라 직접 스페니시어를 배워 이들에게 스페니시 미

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과 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 등을 간구하는 묵주기도 100만 단 봉헌운동을 전개하는 등 살아있는 사목 활동을 펴고 있다.

✦ 성령운동 · ME 등 신심운동 접화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성당'은 신자수의 증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신심과 영성도 괄목하게 성장했다. 박창득 신부는 본당 신자들은 물론 미주 한인 가톨릭 신자들의 영성 향상에 온 힘을 기울였다. 당시 신자들은 열성적 신자들도 많았지만 일부는 이민자로서 미국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융화되기가 어려워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성당을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달래는 친교의 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있었는데, 박창득 신부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신심운동을 강화했다.

박창득 신부는 1979년 가톨릭 성령쇄신운동을 '뉴저지한인천주교회'와 미주 한인 사목에 최초로 도입하여 착근시켰고 '미주한인 가톨릭성령봉사회'를 조직하여 1992~95년 초대 회장으로 일했다. 본당 사제 은퇴 후에도 2008년에 다시 미 전국 성령봉사회 회장을 맡아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앞장서 이끌었다.

1983년 2월 ME주말운동(Worldwide Marriage Encounter)을 뉴저지 오렌지 성당과 미 동북부 한인 사목에 최초로 도입했고 1983~1992년·1998~2007년 지도신부와 대표신부를 역임했다.

1987년 학생 피정 Antioch Program을 실시하여 오렌지 본당의 학생 신자들은 물론 이웃 형제 한인 성당들의 청소년 신심 향상을 도왔는데, 이것은 후일 성소 못자리로 연결됐다.

그런 가운데 미 동부를 방문하는 한국 신부가 있으면 본당으로 모셔와 끊임없이 신심세미나를 갖는 한편 '방문 신부' '손님 신부' '거주 신부' 등을 강사로 신앙강좌를 연이어 열며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밑거름을 주었다.

▲성령쇄신 불붙이다

1970~80년대 당시 성령쇄신운동은 일부 신자들의 회의로 일종의 모험이었지만, 신자들의 영성을 개발하고 성숙을 돕는 데 그 기능과 역할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박 신부는 1979년 미국 성령세미나에 직접 참석하여 성령을 체험, 알게 모르게 개인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힘을 자각하고 성령운동에 혼신을 다했다.

1970년대 말 함께 생활하던 OLV의 미국 신부들이 성령 모임에 참석해 보지도 않고 비판적이었다. 박창득 신부는 '그건 아니다' 싶어 직접 체험하기 위해 1979년 사제들을 위한 성령세미나에 참석했다. 거기서 크게 성령 체험을 하고, '이것만큼은 꼭 신자들에게 전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시 한국 세미나에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1979년 본당 성서 공부반에

서 몇 명의 신자들과 첫 성령세미나를 시도했다. 성과가 컸다. 그 결과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한인공동체를 위한 나의 미션"이라고 판단, 본당 신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성령쇄신운동을 전개했다. 뉴저지 성당은 1979년 4월 8일 미 동북부 한인 가톨릭 사상 처음으로 성령기도회를 시작했다. 성서반을 대상으로 성령세미나를 가진 후 성령기도회로 계속 발전시켰다. 몇 차례 성령의 힘을 직접 체험한 박 신부는 이후 이 실증을 기초로 미 전국 한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성령쇄신운동을 확대했다. 1979년 7월 14일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마리안슈라인 피정의 집에서 1차 성령세미나를 가짐으로써 미주 한인 가톨릭에 성령의 불을 지폈다.

일부 사제와 신자들의 강한 반대와 거부속에서도 성령은 놀랍게 작용. 실제로 개인과 공동체가 변모함으로써 이를 확인한 사제와 신자들의 거부도 줄어들면서 성령쇄신운동은 빠른 속도로 한인 가톨릭에 자리 잡아 나갔다. 박창득 신부는 1992년 미 전국적으로 '성령쇄신미주한인봉사자협의회'(KSC)를 조직,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평신도 봉사자 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미주 한인 성령운동을 체계화했다. 박 신부는 미국 주교회의 산하 미국 가톨릭 성령쇄신봉사위원회 위원으로도 봉사했다. 그 후 2008년 다시 회장직을 맡았다. KSC 회장인 박창득 신부는 성령운동 확산을 위해 1995년부터 미 동북부 성령대회를 개최했다. 성령대회는 신자들의 성령 갈구 열기를 타고 1회부터 그 열기가 대단했다.



1회 대회는 한국 꽃동네 창설자 오웅진 신부를 강사로 초청하여 미 동북부 한인 가톨릭계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했다. 그 후 (타 본당신부가 지도신부를 맡았던 경우 건너뛰어도 있었지만) 해마다 대회를 개최하며, 현재까지 그 열기를 유지하고 있다. 김웅렬, 황창연 신부 등 한국의 저명한 성령 지도신부들을 강사로 모셔와 가톨릭 학교 대강당 등을 빌려 실시한 대회는 언제나 만장을 이루었고, 참석 신자들은 성령을 체험했다.

그 후 2020년 부터 몰아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령대회를 열지 못하다가, 2022년 10월 1일 뉴저지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제26차 미 동부 성령대회를 다시 개최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11)’라는 주제로 열린 26차 대회는 미 동북부 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를 역임한 박홍식, 김정경 신부 등을 강사로 청빙했는데, 폐암 투병 중인 전 지도신부 백운택 신부가 호스피스실에서의 성령체험 후 호전되고 있는 상태를 전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 ME운동으로 가정성화

뉴저지 한인 성당은 1983년 처음으로 참가한 ME(Worldwide Marriage Encounter) 역시 성령쇄신운동과 같은 큰 성장의 길을 달려나갔다. 박창득 신부 자신이 먼저 ME주말세미나에 참석하여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확인한 후 Deeper 주말까지 체험해 보니 그 효과를 확신할 수 있었다.

박 신부는 뉴저지 한인 신자들에게 ME를 심기 시작했고, 변화하는 신자들을 보고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 한인 가톨릭에 ME를 심기로 결정하고 봉사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출발은 순조롭지가 않았다. LA에서 처음 실시되는 1982년 ME주말(교육 프로그램)에 본당에서 3쌍의 부부를 보내려 했으나 호응이 좋지 않아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1983년 LA에서 김광남 신부와 팀 부부를 초청하여 뉴저지에서 ‘ME주말 피정’을 미 동부 한인 사목 최초로 실시했다. 그 후 참가 부부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본 부부들이 늘어나고, 호응이 좋아 본당 부부들을 주축으로 미 동부 지역에서 ME운동을 펼쳐나갔다.

점차 자리 잡아간 ME는 초창기에는 미국 동부와 서부가 별도로 운영되다가 2000년 LA 쪽에서 자체 운영이 어려워 동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함으로써 하나로 통합하고, 미국 Board의 정식 멤버가 되는 길을 모색하여 미국 WWME의 Section19로 인준을 받았다.

박창득 몬시뇰은 2005년까지 미주 한인 ME 대표신부로, 미주 한인 WWME의 통합기틀을 마련했다. 미 동부 한인 ME는 원래 미국 ME section3에 속했었으나 현재는 미국 가톨릭에서도 인정을 받아 지역에 관계없이 한인들만으로 Section19를 구성, WWME의 한몫을 담당했다.

▲ 각 신심단체, 2세 교육 활성화

박창득 신부는 이어 성령운동과 함께 레지오마리에, 꾸르실료, 크리스찬공동체

(MBI), 에니오그램, 바뇌성모기도회 등 각종 신심운동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구역회를 통한 성서묵상운동은 신자들의 신심 향상에 큰 효과를 주었다.

1982년 시작한 레지오마리에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180명의 단원들이 활동하기도 했었다. 1987년 '하늘의 문' 꾸리아, 2012년 한인 꼬미시움으로 승격했다. 특히 조영종 울리오 단장은 2009년 12월 미국 가톨릭 레지오마리에 뉴욕 세나투스 단장으로 선임됐고, 2012년 재선됨으로써 한인 레지오마리에의 내적 힘을 미국에 알리기도 했다. 박창득 신부는 뉴저지 본당은 물론 미국의 한인 레지오마리에 성장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레지오마리에 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전국적인 조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천주교회는 2세, 3세 신자 양성에 진력했다. 1981년 1월 주일학교(초대교장 조은숙 루시아, 2대 교장 김세바스찬 수녀), 1986년 3월 김대건 한국학교(초대교장 조용주 엠마누엘 수녀)를 시작했다. 1987년 9월 학생회(디렉터 조은숙 루시아)를 조직했다. 김대건 한국학교는 당시 포트리 공소에 두었던 분교가 성향을 이루자 포트리 분교를 키우고 본교는 1년 후에 폐교했다. 김대건 한국학교는 그 후 마돈나 성당에서 수업을 하다가 2017년에 폐교했다.

한국학교가 없어진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1996년 3월부터 새로운 한국학교인 대철한국학교를 개설, 메이플우드로

이전하고도 계속해서 정체성을 지키는 한국인, 투철한 가톨릭 신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본당신부인 이경 주임신부는 대철한국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 학생수가 늘어나고, "잘 가르치는 좋은 학교"라는 호평에 따라 비신자 가정의 신규 입학생이 늘어 선교의 장이 되고 있다.

▲ 청소년 안티옥 피정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1987년 5월 제1차 청소년 안티옥 피정을 시작했다. 청소년 안티옥 피정은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가 낳은 옥동자이다. 4월이나 5월 미 동북부의 각 한인 성당들의 고등학생들을 모아 2박 3일 일정으로 신심, 영성 향상 운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는데 효과는 엄청났다.

이 피정에 고백성사를 담당하러 참석했던 미국 신부들도 한인 신자들과 안티옥 피정의 역동성과 효능에 깜작 놀랐다. 당시 뉴악대성당의 보좌 Manuel Cruz 신부는 안티옥 피정 등 사목활동을 보고는 "I hope that I will have a pastor like Fr. Park"라고 했는데 몇 년 참석 후 주임신부가 될 즈음에는 "I hope that I would be a pastor like Fr. Park"이라고 했다. Manuel Cruz 신부는 2009년 9월 8일 뉴악대교구의 보좌주교로 서품됐다.

안티옥 학생 피정은 훗날 한인 사제 배출의 못자리가 됐다. Antioch 학생 피정은 1.5세대 한인 신부들에 의해 계속 확대되다가 2017년부터는 적은 수의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다른 형태의 학생 피정으로 대체되었다.



✦ 1983년 북미주 한인사제협의회 창립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북미주 한인 사목 사제 양성의 요람, ‘친정집’ 역할을 했다. 박창득 신부는 미국 전역에서 외롭고 힘들게 이민 사목을 하는 한인 사제들의 교류와 친목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1983년 8월 미주 한인사목사제협의회를 창립하여 회장으로 12년간 봉사했다. 1984년 미국 주교회의의 이주 및 관광 사목위원회 자문위원, 1991~1996년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이주사목위원회 북미주 동포사목부 총대리를 맡아 미주 한인가톨릭의 발전에 앞장서면서 미국 주교회의와 한국 주교회의의 다리 역할을 했다.

박창득 신부는 ‘총대리’ 자격으로 1985년 바티칸에서 열린 이주 사목 담당자 국제회의에 참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알현했다. 한인 사목에 연계된 미국 사제와 수녀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박 신부는 미국 주교회의의 도움과 관심 있는 신자들의 후원으로 1995년 12명이 한국 순교자 성지를 돌아보도록 주선하였다.

박 신부는 1995년 이창재 요셉 부제와 함께 ‘북미한인부제협의회’를 창설했다.

✦ 신용조합 설립, 그 외의 봉사활동들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박창득 신부의 뜻에 따라 1984년 1월 성당 신용조합을 설립하여 한인 이민자 신자들의 경제생활을 도왔다. 신용조합은 이민 초기 시절인 본

당 신자들에게 쉼 이자로 사업자금을 대부해 주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신용조합은 한때 소규모 은행 수준으로 발전했으나, 현재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신자가 줄어 그 규모가 축소됐다.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1983년 9월 의사 신자들로 루가회를 구성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정례화하고, 본당 신자들의 이민 정착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루가회는 1980년대 한인사회에 의사들이 드물었고 한인 이민자들이 아직 미국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시절 본당 신자들의 건강 유지와 증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최근 들어 한인 신자들의 의료보험 가입이 늘어나 무료 진료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본당 소속 의사 신자들의 감소로 무료 진료를 쉬고 있다.

박창득 신부는 바뇌성모 발현지를 순례한 후 1994년 6월 6일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 오렌지 센트럴 애브뉴 성당에 한국 및 북미주 바뇌 국제기도회 본부를 결성하고 지도신부를 맡았고, 성당에 바뇌성모님 성상을 건립했다. 2001년 낙태종식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 단 운동을 벌였다.

✦ 사제 수도자 10여 명 배출… 성소 꽃피우다.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와 박창득 신부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현재까지 15명의 성직자와 수도자를 배출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한인 가톨릭 성당에서 15명의

성소자가 나온 곳은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 뿐이다.

박창득 신부는 오랜 한인 사목과 12년간의 미주한인사제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인교회는 미국 현지에서 서품을 받은 한인 1.5세와 2세들이 사목을 담당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뉴저지 성당을 중심으로 ‘성소후원회’를 조직하여 성소를 위해 기도해 왔다.

박창득 신부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성경 말씀(루카 10,2)을 묵상하며 "많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왔다.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1970년 초반에 대전교구 신학생을 돕기 위해 '안드레아회'를 조직하여 활동해 왔는데, 이 안드레아회도 차츰 성소후원회 활동에 동참했다.

그 결과 △1983년 김마리 소피아 수녀 [Parish Visitors of Mary Immaculate 수녀회 소속] △1998년 이승운 데이비드 신부를 시작으로 △1998년 이윤나 데레사 수녀 [미살레시안 수녀회] △1999년 조민현 요셉 신부 [현 팰리세이즈파크 성 미카엘 성당 본당 신부] △2001년 박홍식 돈 보스코 신부 [현 데마레스트 본당신부] △2002년 김성규 요셉 종신부제 △2003년 김정수 디다고 신부 [현 포트리 마돈나성당 본당신부] △2006년 이경 바오로 신부 [현 메이플우드 성당 본당 신부] △2006년 조후연 야고보 신부 [현 데마레스트 성당 보좌신부] △2008년 박정민 (젼마) 사도 요한 수녀 [성령강림 사도 수녀회] △2011년 조흥래 베드로 신부 [뉴악대교구 소신학교 St. Andrew College Seminary 학장]

△이충우 마이클 신부 [뉴저지 Netcong에 있는 St. Michael Church의 본당신부]를 배출했다. 또 △2014년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 [현 로즈랜드 성당 보좌신부] △정가람 안드레아 신부 △2020년 김영호 요한 부제 [현 메이플우드 성당 부제]를 배출했다.

박창득 몬시뇰 (2000년 4월에 몬시뇰로 서임)의 아들 신부 중 현재 5명이 뉴악대교구 내 전 한인 성당의 주임신부와 보좌신부로 사목하고 있어 뉴악대교구의 한인 성당들은 모두 미국에서 공부하고, 서품받은 한인 사제들로 '완전한 현지 사제화'를 이루었다. 박창득 신부와 함께 '양업회'를 조직, 사제성소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폈다.

박창득 몬시뇰은 신학교 동기생인 김택구 루도비코 신부와 뜻과 힘을 합해 선종 때까지, 성소가 부족하지 않은 한국의 신학교 지망자들이 모두 사제가 되어 사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에 파견되어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기도하며 노력했다. 선종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성소 지망자들이 파나마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계속 후원했다.

✦ 한영 매일미사 평화신문 등 문서 선교에 앞장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미주 한인사회와 가톨릭의 문서선교의 보고가 됐다. 박창득 신부는 미주 한인사회가 급팽창



하던 1980년대 한글로 된 가톨릭 신앙서적을 구하기 어려운 이민 사회, 특히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지 않은 곳의 신자들에게 가톨릭 서적을 전해 주기 위해 1981년 가톨릭 서적 보급소를 시작했다. 당시 박창득 신부를 도우며 뉴저지 성당 초대, 2대 부녀회 회장을 역임했던 신영남 에디다 자매의 도움을 받아 가톨릭 서적 보급소를 운영했다. 신영남 자매는 한국의 친정이 당시 대구에서 가장 큰 본영당 서점을 운영하고 있어 서적 보급소에 큰 도움이 됐다.

박창득 신부는 1986년 본당 신자들과 미주 한인 가톨릭 신자들에게 '성서묵상을 통한 성서의 생활화운동'을 도입하면서, 성서를 매일 읽도록 장려하기 위해 '매일미사'책을 한글과 영문으로 자체 편집하여 발간하기 시작했다. 신자들이 미국 성당에서 미사를 보게 되는 경우와 영어권 청소년 신자들을 감안해서 한·영문으로 편집했다. 그 후 1991년 한국 천주교회 중앙협의회와의 계약하에 2007년까지 '매일미사' 발간을 계속했다. 지금은 미주한인사제협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다.

박창득 신부는 1986년 사제 수품 25주년 은경축을 맞아 그때 받은 축의금을 종잣돈으로 월간 신앙지 「미주가톨릭 다이제스트」를 창간하여 한인교회와 신자들의 신앙 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 1980년대 후반 당시 미국과 캐나다에는 한인 성당이 없는 지역이 많았다. 그런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가톨릭 신자들은 그나마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개신교회에 나가는 사례가 많았는데, 한 신자는 미

주 가톨릭다이제스트에 "한인 성당이 없는 이곳 가톨릭 신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미주 가톨릭다이제스트를 돌려보며 묵상하고 서로 대화함으로써 가톨릭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감사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미주 가톨릭다이제스트는 박창득 신부의 아들 신부인 이경 바오로 신부가 맡아(발행인 동북부 한인사제협의회) 통권 300호를 넘기며 해외 한인사회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월간지로서 자리 매김 했었으나 2012년 4월호(통권 304호)를 끝으로 현재는 발행되지 않고 있다.

박창득 신부는 1988년 11월 평화신문 미주지사를 맡아 「미주 평화신문」을 발행함으로써 문서 선교의 새 장을 열었다. 「미주 평화신문」은 선교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미주 평화신문」은 1995년부터 서울대교구 소속 신부들이 맡아 발행되고 있다.

1996년 당시 인터넷이 아직 생소할 때 박창득 신부는 젊은 층과 비신자들에게 선교하는 방법으로 Internet을 이용해야 된다면 koreancatholic.org 라는 웹사이트를 시작, 2000년에는 amorte.org 라는 이름으로 확장했다. 또 한인 성당이 없는 외곽지역에 거주하여 가톨릭 교리를 배우기 어려운 한인들을 위하여 통신교리를 운영했다.

✦ 북한 선교·주민돕기의 본산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의 박창득 신부는 중국과 북한 선교에 헌신했다. 1980

년과 1984년 두 차례 당시로서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중국을 방문, 백두산을 등정하며 북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를 찾아보았다. 당시 중국 방문은 매우 어려운 일로 박창득 신부는 유서를 쓰고 중국에 갔다. 중국 방문 중 84년 8월에 찍은 백두산 천지 사진은 그 당시에 아주 귀한 사진이라 크게 확대하여 신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박창득 신부는 1980년대 초반 한국의 건설 근로자들이 중동에 진출할 때, 이슬람교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근무하는 한인 가톨릭 신자 근로자들이 고백성사를 보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건설기술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입국, 미사와 성사를 집전하기도 했다.

박창득 신부는 1989년 2월 뉴저지 오렌지 성당 신자들, 미주 한인 신자들 15명과 함께 분단 이후 한인 신부로서 두 번째로(첫 번째는 장익 주교) 평양을 방문, 장충성당에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미주 한인 방문단과 북한 신자들이 남북 신자 합동미사를 봉헌했다. 박창득 신부는 그 후 4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며 장충성당에 성모자상과 성모상을 모셨고 성령쇄신세미나를 열었다.

평양 장충성당 첫 성령세미나를 한 후 박창득 신부는 “북한에 가톨릭이 진짜 있느냐?”는 측근의 질문에 “아직 살아있다. 대화에서 한 노 신자가 ‘저는 죄인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 평생 하느님을 섬기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저는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다. 그는 천주교 신자였다”고 말했다.

박창득 신부는 1995년 10월 27일 북한 교우들을 미국에 초청하여 뉴저지에서 ‘한국-북한-재미동포 신자 합동세미나’를 가졌다. 또 1996년과 1998년 부활대축일을 맞아 평양을 방문, 서울 명동성당 - 평양 장충성당 - 미국 오렌지 성당을 잇는 ‘남-북-미 동시 부활미사’를 봉헌하는 ‘일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 신부는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성모님의 기적의 패’를 모시고 가 몰래 북한 곳곳의 방문지에 살포했다.

특히 1996년부터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돕기 위해 평양에 국수공장을 세워 2002년까지 매월 밀가루(3달에 밀가루 2,000톤씩, 화물차 한 칸 분량)를 제공했다. 밀가루를 제공할 때는 꼭 박 신부 당신이 밀가루와 함께 북한에 가서 평양 국수공장에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북한 당국과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박 신부는 1년에 네 차례씩 북한에 갈 수 있었다. 2007년에는 평양에 라면식당 5곳을 개설했다. 이 ‘북한동포돕기운동’은 서울대교구에서 “북한 동포에게 국수를 보냅니다”라는 캐치플레이스로 ‘북한동포돕기운동’을 벌이는 계기가 됐다.

그 후 박창득 몬시뇰은 북한 자수 전문가에게 성화 자수 제작을 의뢰,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알렸다. 박 몬시뇰은 당시 성화를 처음 본 북한 자수 전문가들이 “이것이 무슨 그림입니까?”라고 물으면 몰래 예수님과 성모님에 대해 설명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경청 했었다고 전했다.

박 몬시뇰은 2011년 금경축을 앞두고, 2010년 북한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지하 1층·지상 3층, 400명을 수용하는 유치원 건설을 추진했다. 이 유치원은 2010년 10월에 착공, 2011년 10월께 완공돼 북한 어린이들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비는 건축비 22만 달러, 내장공사와 장비 구입비 8만 달러 정도로 모두 30만 달러가 들어갔다. 그 후 200명을 수용하는 탁아소도 건립했는데, 건축비 16만 2,500달러, 내장공사와 장비 구입비 4만여 달러도 자연히 뒤따랐다. 유치원에 어린이 400명을 수용하기 위해 교사 60여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급료는 현금 대신 곡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박 몬시뇰의 건강 악화로 2002년 11월 30일부터 아들 신부인 조후연 야고보 신부가 계속하다 박 몬시뇰 선종 후 조후연 신부가 전담하고 있다. 유치원과 탁아소 운영에는 연간(코로나19 팬데믹 전) 5~8만 달러가 들어간다.

박창득 신부의 오랜 북한 돕기 운동은 일부 신자들의 반대와 험담도 심했다. 그래도 묵묵하게 북한을 방문하며 주민돕기, 장충성당에서 미사 봉헌, 가톨릭 불씨 살리기를 선종 때까지 20여 년간 계속했다. 반대 신자들의 항의성 질문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북한이 땅끝이라고 생각한다” 라거나 “통일 준비”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뒤엔 알려지지 않은 필연적 순종이 있었다. 박창득 신부는 당시 북한 평양대교구 주교 서리인 김수환 추기경으로

부터 “미국 신부의 자격으로 북한에 가서 선교의 길을 열어 보라”는 ‘밀명’을 받았었다. 북한 방문은 그 ‘밀명’의 순종이었다.

한편, 박창득 신부에 앞서 교황청 특사 자격으로 장익 주교가 평양을 방문했고, 프랑스에서 서품받은 고종옥 마태오 신부가 교황청의 당부로 몇 차례 북한을 방문 했었으나, 고 신부는 농담이 화근이 되어 북한 방문의 길이 막혔다. 호쾌한 성격의 고 신부는 평양 방문 때 안내원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농담을 자주 했는데, 한번은 “북한에 똥똥한 사람은 두 명뿐이다. 김일성 주석과 나뿐이다”고 했는데, 위대한 수령을 농담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불경죄(?)로 북한 입국이 금지됐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에는 박창득 신부가 유일한 북한 방문 신부였다.

박 신부의 북한 방문과 북한 주민 돕기 운동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부 신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를 받은 교구장 맥카릭 대주교는 이 사안을 검토한 후 오히려 박창득 신부의 수고를 격려했다. 뉴욕대교구 소속 시튼홀 대학교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 전문 고위층 학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여는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했었다.

✚ '어려운 시기' 기도와 인내로 이겨냈다.

1997년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에 어려운 시간이 닥쳐왔다. 일부 신자들, 특히 당시 학생회 디렉터를 새로 맡은 젊은 신

자와 그 주위 일부 신자들이 박창득 주임신부에게 학생회에 대한 더 큰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더니, 박 신부의 사목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사목 전반, 본당 재정운영, 북한방문 등을 거론하면서 이의 제기에 참여하는 신자도 몇몇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주일학교, 유스그룹에는 성당에서 고정적인 예산 지원이 없으면서 북한 선교에는 많은 돈을 쓴다. △많은 손님신부들을 모시는 비용도 성당 예산인데 그렇게 예산을 쓰면서, 왜 우리에게서 필요한 예산 지원을 못하나. △본당신부가 외부 일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 너무 많다. △본당 회계 처리가 주먹구구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말은 말을 놓고 확인할 수 없는 말들이 튀어나오는 가운데 “배후” 소리까지 나돌았다.

이의 제기 측 ‘신자’들이 박 신부에게 면담을 요구하자, 박 신부는 이에 응했다. 그들의 요구에 따라 박 신부와 함께 있던 사목회장이 면담실을 나온 후 그들은 위의 요구사항과 예산 집행 등 이것저것 따졌다. 차츰 성당에서는 해서는 안 될 험한 말도 마다 않았다. 박 신부는 해명이나 변명 없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세를 낮추었다. 이 자리에서 박 신부의 말 중에 “내가 잘못했다”는 표현은 없었다. 신자들은 박 신부가 ‘잘못했다’는 직설적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답한 것은 사목행정을 확고한 신념으로 집행했고, 잘못이 아니라는 내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한 일은 없다. 단지 더 잘

할 수 없었으니, 내가 부족했다’는 뜻이라고 여겨지는 “부족해서”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일이 차츰 신자들 사이에 알려지자 박 신부는 미사 말미에 신자들에게 “본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나의 덕이 부족해서이다. 본당의 일치가 깨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의 제기 측의 투서가 교구청에 들어갔다. 이 말이 나돌자 박 신부는 교구청에 ‘감사’를 자청했다. 교구청에 소환된 박 신부는 본당 재정, 사목 행정과 외부 일정, 북한 방문 문제까지 다 설명했다.

당시 여러 신자들은 박 신부를 찾아가 “문제를 제기하는 신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맞서 강경하게 대처하자. 우리가 나서겠다”는 의견을 내는 신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박 신부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본당이 갈라집니다. 이 문제는 본당신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 래야 본당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며 “교구 감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신자들을 설득했다. 박 신부는 이의를 제기한 신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재정서류와 cancelled check까지 보고 싶은 것을 볼수 있게 몇 박스를 내다 주었다. 그 후에도 이의 제기 신자들이 재정적인 사안을 거론하며 신자들에게 팸플릿을 살포하면, 박 신부는 말로는 해명하지 않고 그 주장을 해명하는 서류나 canceled check를 복사해서 성당 입구에 놓아두었다. 관심 있는 신자들은 모두가 가져가서 검토해보라는 의도였다. 신자들은



“왜 말로 해명하지 않느냐”고 답답해 했지만 박 신부는 “말로 하다 보면 공방전이 되고 사실이 와전 되어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때 이종원 글라라 사무장과 남편 이태성 미카엘 교우가 꼼꼼히 옛 서류를 챙겨 응답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당시 오렌지 본당과 가까이 지내던 Manuel Cruz 신부가 몬시뇰을 자주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하곤 했다

많은 신자들은 이 상황 대처 방식을 사회적 방법으로 대항하기 보다 박 신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박 신부와 본당의 일치를 위하여 고리 묵주기도를 더 열심히 드렸다.

교구청은 거의 2년에 걸친 감사 후 ‘박 신부의 사목, 재정, 행정에 잘못이 없다. 북한 방문과 돕기 운동도 오히려 사제로서 해야 할 일이다’고 결론 내렸다. 교구장 맥카릭 대주교는 ‘미국 가톨릭에도 교황청과 협력해서 비밀스럽게 세계 곳곳의 선교 대상 지역을 방문하며 선교의 길을 모색하는 일을 하는 사제도 있다’며 박창득 신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교구청 감사가 끝난 후에 사적 감정들은 있었지만, 공적인 반대는 점차 잠잠해졌다. 신자들은 본당의 일치를 위해 더 뜨겁게 기도했다. 차츰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람이 자고 안정을 되찾도록 인내한 박 신부는 내적으로 지쳤던 것일까... 그 후 뉴악대교구 맥카릭 교구장을 찾아가 본당 신부직을 박용일 신부에게 맡기고 안식년을 갖도록 허락을 요청했다. 가끔은 “내가 너무 오래 있었어”라는 말도 했다.

훗날 신자들이 박 신부에게 “그때 그 사람들을 본당에서 만나면 분심이 안드세요?”라고 물으면 박 신부는 “미운 사람 딱 하나 더 준다고 마음 속으로 십자가를 그으면서 축복이나 더 먹어라고 한다”고 답해 함께들 웃었다. 박 신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필자주- 이 당시 성 김대건 뉴저지천주교회와 비슷한 신자들의 움직임으로 뉴욕·뉴저지 뿐 아니라 미국 전국적으로 여러 한인공동체가 갈라졌다.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박창득 본당신부의 인내와 기도, 신자들의 기도로 하나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지켰다. 이 사례는 훗날 한인 성당들에게서 일어날 수도 있는 분규를 해결하는데 한 사례가 될 것이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00년 4월 30일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천주교회와 뉴악대교구 소속 한인 본당들은 큰 경사를 맞았다. 뉴악대교구 McCarrick 대주교는 '밀레니엄'을 맞은 2000년 박창득 신부의 사목적 노력과 성과, 교구 내 여러 민족의 성당 중 한인교회들만이 성장하는 현실, 박창득 신부의 사제로서의 삶을 기리기 위해, 당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게 박창득 신부의 몬시뇰 서임을 청했는데, 교황의 승인으로 2000년 4월 30일 'Prelate of Honor, Monsignor'로 서임됐다.

박창득 신부는 1987년 본당신부 착좌 미사 때, "재미한국천주교회가 나갈 길은, 우리 본당의 성장뿐이 아니라, 미국교회에 새 불꽃을 옮겨주며 활기를 넣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론했다. 당시 미사를 집전했던 McCarrick 대주교(후에 워싱턴의 대주교가 됐고 추기경으로 서임됐다)는 박 신부의 그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미국 내 한국교회의 역할이 바로 미국교회에 자극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기회에 반복했다. 그해 12월, McCarrick 대주교는 박 몬시뇰을 뉴악대교구의 한인 사목 대표신부(Coordinator of Korea apostolate in Newark Archdiocese)로 임명했다. 박 몬시뇰은 2001~2006년 대표 신부직을 수행했다.

박창득 몬시뇰은 2001년 9월 17일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의 주임신부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2003년 11월 새로 부임한 John Myer 대주교는 박창득 몬시뇰을 뉴악대교구의 한인 사목 대표신부로 재임명했다.

✚ 박창득 몬시뇰 이후의 본당신부

박창득 몬시뇰이 2001년 9월 17일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의 본당신부직을 사임함에 따라, 당시 '거주 신부'였던 박용일 신부가 주임신부 역할을 했다. 박용일 신부는 뉴악대교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본당 주임신부로 정식 임명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뉴악대교구청은

박용일 신부를 주임신부로 발령한 적이 없다. 그러나 본당 신자들 일부는 박용일 신부를 2대 주임신부로 간주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주임신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후 뉴악대교구 McCarrick 대주교가 워싱턴 대교구장으로 임명된 후 2001년 7월 뉴악대교구장으로 부임한 John J. Myers 대주교는 박 몬시뇰의 아들 신부인 조민현 요셉 신부를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의 3대 주임신부로 임명함으로써 박 몬시뇰의 아들 사제들이 본당 사목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초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은퇴 후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는 △2대(?) 박용일 타태오 신부(2001~2003)에 이어 △3대 조민현 요셉 신부(2004.01 부임) △4대 조후연 야고보 신부(2012.10.21부임)를 거쳐 △현재 5대 이경 바오로 신부(2017.02.15 부임)가 주임신부로 사목하고 있다. 특히 3대 조민현 요셉 주임신부 때는, 조후연 야고보 보좌신부도 본당 출신 현지(미국)사제로 미주한인가톨릭계에서 최초로 본당신부 '현지화'를 이룬 한인 성당이 됐다. 이후 조후연 보좌신부가 4대 주임신부, 현재 이경 바오로 신부가 5대 주임신부가 됐다. 이들 3, 4, 5대 주임신부는 모두가 박창득 몬시뇰의 '아들 신부'이다.

✚ 박창득 몬시뇰의 선교와 이웃사랑 실천

박창득 몬시뇰은 2001년 본당신부 은퇴



후에도 가톨릭 선교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실천에 진력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평화의 마을'이 미국에 정착하는 데 밑거름이 됐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꽃동네'가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며, 뉴저지 꽃동네 원장신부로 활동했다.

2002년 서울신학교 동기인 김택구 루도비꼬 신부(선종)와 함께 '가톨릭봉사센터'를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도왔다. 2002년 김택구 신부와 남미 선교회를 설립하고 서울 국제선교회로 등록했다.

또 2003년 이민 생활 속에서 언어와 사회적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미주가톨릭재단법인'을 창설했다. 창설 이사진은 김택구 루도비꼬 신부, 황 자 어거스틴 부제였다. 박창득 몬시뇰은 2004년 김택구 신부와 함께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에 있는 건물을 인수하여 '미주가톨릭회관'으로 개조, 운영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천주교 서울대교구 국제선교회(김택구 루도비꼬 신부 창설, 정진석 추기경과 서울대교구 주교단 인준) 공동대표 및 지도신부로 활동했다.

박창득 몬시뇰은 선종 때까지 가톨릭봉사센터(현재는 '박몬시뇰 가톨릭센터'로 개칭)의 여러 가지 활동을 체계화했다. 지속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신부들과 함께 사재를 전부 털어 '미주가톨릭재단'을 창설하고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이웃돕기 활동에 힘썼다.

박창득 몬시뇰은 2005년 12월 31일 뉴욕

대교구 현직 사목에서 은퇴했다. 2005년 은퇴 발표 때 신자들은 온 마음을 모아 본당 제대 오른편에 “박 몬시뇰님은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대형 배너를 걸어 그 은공을 기렸다. 박 몬시뇰은 2006년 9월 17일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 메이플우드 본당에서 은퇴미사를 봉헌했다.

박 몬시뇰의 '맡아들 신부'인 당시 메이플우드 성당 주임 조민현 주임신부는 2010년 8월 29일 주일미사 강론을 통해, 마침 영명 축일을 맞은 박 몬시뇰의 일생에 대해 “첫째,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가능성을 믿었고, 둘째, 그 희망에 따라 시도(실천)했고, 셋째, 주님의 은총으로 그 열매를 맺으신 분”이라고 말했다.

박창득 몬시뇰은 2011년 3월 19일 금경축을 맞았다. 뉴욕대교구 내 5개 한인 성당 전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경축 잔치를 갖기 위해 1년 전부터 사목회장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를 준비했었다. 감사미사와 축하 잔치는 3월 20일(주일) 오후 5시 뉴저지 메이플우드 한인 성당(당시 조민현 주임신부)에서 봉헌됐다.

박 몬시뇰은 은퇴 후 2008년 발병한 간암과 투병하면서도 1년에 몇 차례씩 미국-서울-중국-북한-남미를 왕래하며 북한과 중국, 남미 선교사업, 미주 한인 가톨릭 역사 정리사업, 성소개발사업 등에 헌신하다 2015년 9월 18일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메이플우드 성당 사제관에서 향년

80세로 선종했다. 신자들은 오늘도 박창득
몬시놀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 저희 이민자 신자들에게 오늘날의
아브라함, 베드로와 바오로 같은 박창득 몬
시놀을 보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기록은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편집
위원회가 작성 했으며, 누락된 기록과 부족한 내
용이 있으면 편집위원회에 제보해 주실 것을 희
망합니다. (송의용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정리)

성 김대건 뉴저지 천주교회의 현재 모습을 담은 홍보영상 :

https://m.youtube.com/watch?v=_CsMWKOi-AU&feature=youtu.be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50년사

제2부(2000년~2022년)

편집위원회

✦ 오렌지 성당까지의 역사 요약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은 한국에서 취업 이민자들이 오기 시작한 직후인 1972년에 간호사 가족들이 모여있던 뉴저지 Jersey City에서 박창득 어거스틴 신부의 한국어 미사로 시작되었다. 몽클레어를 거쳐 1980년 Orange 시의 Cleveland St.에 있는 Christian Sciences Church 건물을 구입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 시기는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오던 때였다.

뉴저지에 있던 유일한 한인 가톨릭교회인 ‘오렌지 성당’으로 신자들이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이 그리워서 또는 외롭고 힘든 이민 삶의 위로를 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비신자들도 많았다. Cleveland St.에 있던 1980~1986년 사이에 본당의 운영체제가 확립되고 전례력에 따른 각종 행사, 여러 신심운동, 봉사단체, 동회와 문서

선교 등이 시작되었다. 특히 성령운동과 WWME(Worldwide Marriage Encounter)는 박창득 신부가 도입하여 동북부뿐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늘어나는 신자들,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관의 필요가 대두되게 되었다. 교구에서는 같은 Orange City에 있는 St.Venantius 성당으로 이사하도록 조치를 하고 뉴악교구로 입적을 마친 박 신부를 주임신부로 임명하면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라는 이름의 정식 본당(parish)으로 승격됐다. 주임신부 착좌 미사의 강론을 통하여 뉴악대교구의 McCarrick 대주교는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좋은 모범을 보이는 본당”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하느님께서 한인 신자들을 이곳에 보내시어 미국 신자들에게 신앙의 불꽃을 피워 주도록 하셨다고 믿는다”면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당부했다.

Central Avenue로 이전한 후에도 신자수가 계속 늘어나서 주일미사 참여 신자가 1,000명을 넘게 되었다. 특히 학생 피정 Antioch의 도입으로 계속 늘어나는 학생들

의 미사 참여를 위해 3층 교실 3개를 합쳐도 자리가 부족해 미사를 서서 봐야 할 만큼 번성하였고, 주일학교에도 2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참석하였다. 자체성전과 사제관을 갖게 되면서 본당을 방문하는 손님 신부들이 많아졌다. 그중의 많은 신부가 로마에서 공부 중인 신부들이라(부록: 역대 사제 참조)좋은 강론과 특강, 피정 등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이 시기에 특기할 일은 박창득 신부가 뉴저지에 여러 공소를 세우고, 그 공소가 커지고 자리가 잡히면 새로운 신부를 초대해서 자체성당으로 자립시켜 준 것(역사 제 1부 참조)과 미국에서 사목하는 한인사목 사제들을 위한 ‘한인사목사제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장으로 그 모임의 자리를 잡아간 것, 그리고 북한 선교를 목표로 북한 주민을 위한 선교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신자가 늘고 본당 내 수많은 단체가 생겨 그 활동도 다양해진 상황에, 주임신부가 본당 외의 사목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신자들이 1997년 교구에 탄원서를 내는 일이 생겼다. 그로 인해 신자 간의 일치가 깨어질 위기에 처하자 박 신부는 바로 교구에 감사를 청하고 ‘모든 것이 내가 못나서 그렇습니다’라는 겸손의 자세로 용서를 빌며 교회의 일치를 호소하였다. 그즈음 미국 내 여러 한인교회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일치가 깨어지고 교회가 갈라졌던 것과는 달리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는 그 고

비를 기도로 함께 넘기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2000년 당시 뉴악대교구 교구장이었던 McCarrick 대주교의 추천으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박창득 어거스틴 신부에게 Prelate of Honor로 Monsignor의 칭호를 수여했다. 박 몬시놀의 주임신부 은퇴에 이어 교구장은 박 몬시놀을 Coordinator of Korean Apostolate로 임명했다. 2005년 박 몬시놀의 사목 현장에서 은퇴하면서 그 직무를 조민현 신부가 이어 맡았다.

조민현 요셉 신부가 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로 2004년에 부임한 무렵에, 뉴악대교구에서는 교구 내 성당들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New Energies Parish Transition Project를 진행했다. 성 김대건 한인천주교회는 뉴악대교구에서 제안한 Our Lady of Mt. Camel 성당과의 통합을 진행하기 위하여 성전이 전통합위원회를 조직하고, 두 본당의 통합 논의에 나섰다. 그러나 양쪽 본당 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교구에서 다른 본당과 합하지 않고 성 김대건 한인 성당만 사용할 수 있는 Immaculate Heart of Mary Church로 이사하도록 제안했다. 그것이 지금의 메이플우드 성당이다.

메이플우드 성당은 고속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멀리서 오는 신자들에게는 접근이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1,000석의 커다란 성전에, 체육관, 충분한 교실,



2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교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성당을 오렌지시에서 메이플우드로 이전하기로 하고 2005년 8월 28일 오렌지 성당에서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고 네 번째의 성전 이사를 완료했다.

(필자주: 조민현 신부에 이어 2012년에 조후연 신부, 2017년에 이경 신부가 주임신부로 부임해서 현재에 이른다. 전례력에 따른 여러 행사, 신심활동과 본당행사가 전통적으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아래의 역사는 분야별로 역사를 정리하면서 필요한 곳에 연대와 관계자 이름을 넣었다.)

✚ Maplewood 성전

2005년 9월 4일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면서 Cleveland St.에서부터 모셨던 성 김대건 성상을 성전 정문 옆에 모시고 그 뒤에 기념 식수도 했다. 이 성전 건물은 1958년에 건축된 것으로 1959년에 the Catholic Property Administration Award for Catholic Institutional Design을 받은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다.

뉴약대교구에서는 성당 이전에 필요한 대출금을 10년 동안 갚도록 제안했지만, 본당 신자들의 열성으로 3년 반 만에 큰 금액의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보수하지 않고 사용했던 건물이라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조민현 주임신부

가 앞장서서 모금을 당부했고 300여 가정이 참여하여 25만 달러의 보수 기금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다. 그때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당 로비 벽에 새겨져 있다.

성당에 들어서면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우뚝 솟은 거대한 백의의 예수님상이다. Central Ave의 성당에서보다 넓은 곳에 모시니 제자리를 찾으신 듯 예수님의 팔 벌리신 환영의 모습이 성당에 들어서는 신자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준다. Cleveland St 성당에 모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상은 새로 단장한 소성당에 모셨다. Orange 시의 Central Avenue 성당에 ‘신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조성된 Plaza에 있던 바느성모님도 소성당에 모셨다. Maplewood 성당 입구에는 이미 크고 아름다운 성모상이 다소곳이 팔을 벌려 환영하고 계셨다. 그 후 2009년에 한복을 입은 고우신 성모님을 학교 건물 복도에 모셨다.

메이플우드 성전에 들어서면 제대 뒤에 모셔진 대형 묵각 십자가상이 마음을 사로 잡는다. 고개를 떨구신 예수님에게서 그분의 심한 고통과 더불어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말기시는 고요함이 전해지는 걸작이다. 이 십자가상은 2007년 조민현 주임신부가 캐나다에서 피정 중에 만난 한인 조각가에게 의뢰해서 만들어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것이다. 이호순 도미니코 형제(Canada Calgary 한인 성당 신자)는 4개월에 걸쳐 기도 중에 작업을 마치고는 직접 노력으로 성상을 모시고 와서 이틀에 걸쳐 손

수 설치작업을 했다. 그리고도 재료비 이상은 사양했다. 이 탁월한 결작인 십자고상은 자신의 재능과 노력, 시간을 온전히 봉헌한 그 조각가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의 결실이다.

조민현 신부는 제의실 아래층에 소성당을 만들고, 교실 몇 개를 둘로 나누어 주일 학교와 모임을 위한 장소를 확보하고 학교 건물의 한 끝을 수녀원으로 개조하는 등 큰 건물 전체가 유용하게 쓰이도록 많은 보수 공사를 해 나갔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고 신자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피크닉장도 만들었다. 성당 주위에 꽃밭을 가꿔 공원 같은 분위기가 나게 조성했다. 겨울철 넓은 차도와 주차장에 눈이 쌓이면 신부를 위시해서 직원과 수녀들까지 힘을 합쳐 눈을 치웠다.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신자들이 드린 100만 단 묵주기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성전 뒷면 벽에 환희의 신비 벽화가 만들어지고 이경 신부가 주임신부로 부임한 후부터 봉헌자의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다.

이경 주임신부가 부임한 후 2018년 메이플우드 성당의 성전 앞쪽에 있는 양쪽 보조 제단에 추모관이 마련됐다. 박창득 몬시뇰을 비롯하여 50년 동안 본당을 거쳐 떠난 교우와 가족들의 본명이 모셔져 있어 매주 미사 때 고인들을 기억하게 되고, 또 가족과 친지들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되어주고 있다. 추모관에는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주보성인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 미사와 성사

처음 메이플우드 성전으로 이사 왔을 때는 주일미사 참례 신자수가 900명 정도여서 200여 개의 주차장이 부족했다. 그래서 많은 신자가 거리에 차를 세웠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크리스토퍼 회원들의 도움이 매우 필요했었다. 하지만 그 후 신자들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초기 신자들의 노령화로 가까운 한인 성당으로 옮기기도 했고 또 선종 교우도 많았다. 사회적으로는 1990년 후반기부터 한국에서 이민 오는 한인이 많이 줄어든 데다 메이플우드 성당의 위치가 한인 밀집지대가 아닌 것도 이유라고 여겨진다.

메이플우드로 이전 후, 미사 시간은 전과 같이 유지하면서 영어권의 젊은 부모들을 위하여 12시에 영어 미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미사 참례자 수가 별로 늘지 않아 곧 폐지되었다. 그 대신 10시 주일학교 미사가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영어 미사가 되면서 그 미사에 오는 두 연령층의 차이로 인한 의견 차이가 대두 되곤 했다.

이경 주임신부가 본당신부로 부임한 2017년에는 미사 참여 신자가 30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 있었다. 1,000석 성당 교중미사에 200명 정도가 앉아 있어서 행하니 빈 느낌이 있었고, 10시 영어 미사가 어린이들을 위한 미사도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미사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었다. 그



리고 미사의 시간적 차이로 신자들이 함께 만나지 못해서 한 성당이면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이경 신부는 반대하는 신자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 교중미사와 같은 시간에 주일학교미사를 드리도록 시간을 변경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정미사로 전 교우가 함께 미사를 드리도록 결정하였다. 그를 위해 소성당을 다시 설계하여 고치고, 학교 건물에 어거스틴 성당을 만들어 주일학교 미사를 봉헌 하도록 했다. 동시에 본 성전은 제대를 앞으로 옮기고 새로 단장하면서 600석 성당으로 개조했다.

새 신자 영입을 위한 여러 노력의 결과로 다시 안정세에 들기 시작한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맞게 되었다. 미사를 비대면으로 보는 시기가 길어지면서 대면 미사가 다시 시작된 후에도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가 팬데믹 전의 80% 선에 머물러 있다. 그것은 뉴약대교구의 다른 성당들의 동향과 비슷하다. 이런 와중에도 매년 여러 명의 영세자가 나오고 또 새로운 가정들의 신자들이 계속 늘고 있으며, 성당의 주축이 젊은 세대로 바뀌면서 성당의 분위기가 훨씬 활기차게 변화되고 있다.

✦ 본당의 조직과 운영체제

오렌지 성당에서부터 Trustee를 두고,

평신도협의회(사도회)의 체제하에 본당의 여러 단체를 연결 짓고, 재정위원회를 두어 재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구역회를 조직해서 전 신자가 연결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면서 구역회원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도 기존의 구역회에 계속 참석하는 경향이 생기고, 새로운 신자들은 아예 구역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므로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어갔다. 이경 주임 신부 부임 후,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지역회를 만들어 새로운 신자들을 함께 엮어주는 길을 모색하여 많은 신자가 소공동체에 소속하게 되었다.

메이플우드로 이전 후 영어권 젊은 세대가 늘기 시작하면서 조민현 신부는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본당 생활에 동참하는 길을 열기 위해 성인 영어 미사도 시도해보고 또 그들을 평협 임원으로 초대해보기도 했지만, 언어적 장애로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권을 위한 평협을 따로 만들어 보기도 했으나 기대했던 호응을 받지 못해 무산됐다.

조민현 신부는 사목 계획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자들을 초대해서 직원회에 동참하게 하고 필요한 일들을 진행하도록 lay minister 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는 조후연 신부 때도 이어져 2016년까지 지속되었다.

이경 주임신부가 부임하면서 평협회의 구조를 개선하고 좀 더 실질적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시행 착오를 거쳐 지금은 회장 부회장을 중심으로 12명의 협의회 회원이 운영하고 있다. 중년 내지 청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싸이몬회, 마리아회 등 여러 개의 봉사그룹으로 엮어 본당 주역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그간 여러 신심단체들의 주역도 자연스럽게 젊은 층으로 넘겨졌다.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미사에 뉴악교구 교구장 Joseph W. Tobin 추기경을 모시는 것 외에도, 자주 지역 주교인 Bishop Cruz를 모셔서 신자들이 뉴악교구의 일원임을 피부로 느끼게 도왔고, '2021-2023 Synod on Synodality'에도 성의껏 동참하여 한국 신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자체성당을 갖게 되면서 한국에서 방문하고 거주하는 신부들이 늘 있었지만, 정식으로 보좌신부가 있었던 것은 1989년 신상욱 신부 때 부터다. 2009년에는 조후연 신부가 첫 뉴악대교구 출신 보좌신부로 부임했고, 현재는 김영민 신부, 김정경 신부가 함께 보좌신부로 있다.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에서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이어서 평화의 마을 수녀회(지금엔 오순절 성령강림 사도 수녀회)에서 수녀를 파견하다가 2022년 초에 철수했다.

본당의 첫 부제는 조민현 신부의 초대로 2004년부터 2015년에 선종할 때까지 우리 본당에서 봉직한 Deacon Tom Bulgia다. 2020년 본당 출신 김영호 요한 부제가 서품된 후 본당에서 봉직 중이다.

Cleveland St.에 자체 성당을 갖기 전에도 사무를 돕는 직원이 있었지만 1981년 사제관을 구입한 후 부터 정식 사무장이 있었다. 초기에 전 도나다가 1년을 근무한 후 이종원 글라라가 2004년까지 중간에 잠깐씩 쉬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20여 년간을 사무장으로 봉사했다. 이종원 글라라는 박 문시놀의 은퇴 후에는 박 문시놀의 비서역을 자임하며, 선종하실 때까지 모셨다. Maplewood 성당으로 옮긴 후 초기에는 몇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주영조, 장흥수가 사무장으로 일했고, 이경 신부의 부임 후로는 고승욱 교우 부부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 분과

1981년 주일학교 창립 당시에는 수녀가 없었지만, 수녀가 부임한 후로는 수녀들이 교장을 맡고 관심있는 신자들을 교사로 활용하여 충실하게 발전해갔다. 신자 가정 숫자의 변동에 따라 학생수의 변화도 있었지만, 교재 채택과 교사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학교로 기반을 다졌다.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필수로 하고, 학생들의 교육과 과외 행사를 후원하기 위한 학부모회를 활성화했다. 특히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년을 '어린이의 해'로 지내면서 학생들의 성지순례, 박물관 관람 등의 과외활동을 활발히 하고, 놀이터 확장



등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뒷바라지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또 어린이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어른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시간으로 보냈다. 2017년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주일학교에 소속되었던 7학년, 8학년 학생들을 학생회에 속하도록 했다.

학생회는 주기적 신앙교육과 견진성사 준비, 그리고 전례력에 따른 신심행사 외에도 전통적으로 해오던 스키trip, 여름 캠프를 계속하고 있고, 1987년에 시작한 Antioch 피정을 2017년까지 계속해 왔다. World Youth Day에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메이플우드로 이전 후 학생들의 분당 내 봉사활동도(tea party, 점심 설치 봉사 등)활발했지만, giving tree(성탄절 모금), midnight run(노숙자 돕기)도 연례행사로 했고, 여름방학 동안 중미 여러 나라에 선교, 봉사를 나가기도 하고, 성지 순례도 여러 번 했다. 2021년, 학생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Leo Hwang와 Dayna Rosa Park가 뉴욕교구에서 봉사상을 받았다. 1996년 당시 11학년이었던 Jonathan Chong이 교구에서 시행한 유산반대 essay로 일등상을 받은 일도 있었다.

대철학교: 1996년에 개교했던 한글학교는 곧 Fort Lee 공소 본교(현재의 103위 성당. 2017년에 폐교)에 넘겨주었다. 그 후 Central Ave 성당 교실을 쓰던 세종학교가 폐교하면서 1996년에 대철학교를 시작했다. 메이플우드로 이사한 후 잠시 휴교했던

때도 있었지만 2009년에 다시 개교한 후에 활발히 운영되어 가고 있다.

성인 교리교육 : 오랫동안 신부와 수녀들이 예비자 교리를 가르쳤다. 2000년대에는 교리 교사 교육을 받은 신자들이 예비자 교육을 맡게 되고, 지광오 교우는 15년간 예비자 반을 맡았다. 지광오 교우가 타 주로 이사가면서, 당시 새로 부임한 이경 주임 신부가 RCIA(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system을 도입하여 지금은 교구의 방침에 따른 예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영성교육

메이플우드 성전으로 이전 후, 신자 재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특기할 만하다. 전과 마찬가지로 계절에 따른 피정, 특강 등을 이어가면서, 2002년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전 교우가 릴레이식으로 성경을 쓰는 성서필사를 구역별로 진행하게 되어 성경필사본 17권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그 한 권은 본당에, 다른 한 권은 뉴욕대교구 주교관에 그리고 한 권은 2008년 교황님께 전했다.

이를 계기로 본당에서는 성서모임, 성서읽기운동이 일어났으며, 80여 명이 참여한 성경통독 365일 프로그램은 세 번이나 진행됐다. 또 성경강좌를 위해 여러 명의 성서학자 신부와 수녀들을 초대했으며 성경퀴즈, 교리 경연대회 등을 시행했다. 또

매년 신부님의 인솔로 파티마, 이탈리아, 루르드, 이스라엘, 캐나다 등지의 성지순례를 해오고 있다

부부들이 혼인성사의 의미를 깨닫고 즐겁게 사랑을 실천하여 성 가정을 이루면 교회와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ME의 비전에 대한 확신으로 조민현 신부는 2010년 11월부터 1년간을 ‘혼인성사의 해’로 선포했다. 매월 그달에 결혼 기념일이 있는 부부들을 초대해서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 폭소가 터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즐거운 파티를 마련했다. 매월 70~80명이 참석했는데 그 파티 음식을 10여 명의 전직 성모회 임원들이 자진해서 아름답고 맛있게 만들어냈다. 혼인성사의 해를 위해 40여 명이 합심하여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진행을 맡아 함께 봉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신앙의 해(2012.11~2013.10)를 제정하여 신앙인의 자세를 돌아보며 신앙인으로 서 알아야 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고무했다. 자비의 해(2017년)에는 신자들에게 자비의 의미를 더 잘 알고 자비를 실행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 신심운동

성령운동은 박창득 몬시뇰이 1979년에 도입했고,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집

년대의 본당 신자들 대부분이 성령세미나를 통해 하느님을 체험함으로써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본당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치하의 말을 들었다. 동북부 성령봉사회가 형성되면서 본당 신자들의 동북부 성령대회 등 대외적 활동도 가시화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꾸르실료도 1981년 동북부 제1차 때부터 꾸준히 본당 신자들이 참여하여 하느님을 만나고, 새로운 열정으로 봉사하고 있다. 본당 울프레야가 지속적인 만남을 갖지는 못하지만, 매년 동북부 울프레야에 참여하면서 그 열정을 지켜가고 있다.

1982년에 시작한 본당 레지오마리에는 그 후 꾸준히 성장하고 2000년대에 이르러 더욱 단원 숫자가 늘며, 본당 내에서 가장 활발한 신심운동이 되었다. 본당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면서 본당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본당 신자들이 전국 봉사회의 주역을 맡아 신자 교육에 열성을 기울이면서 뉴저지의 레지오마리에 많은 공헌을 하는 본당으로 자리매김했다. 뉴욕 꼬미시움에서 뿐만 아니라 조영종 울리오 교우가 뉴욕 세나투스 단장으로 선출되어 봉사했다.

WWME(Worldwide Marriage Encounter) 역시 꾸준히 본당 내에서 봉사하면서 신자들이 혼인성사와 신품성사의 뜻을 되새기도록 활동하고 있다. 박창득 몬



시놀이가 1983년 동북부에 ME를 도입하던 초기부터 본당 봉사팀들이 동북부만 아니라 미주 여러 지역에 ME 주말을 전파하는 주역의 역할을 해왔다. 2000년 한인 ME가 미주 ME의 Section19으로 인정받으면서 박창득 몬시뇰을 비롯한 본당의 ME 발표팀 부부들이 전국 대표 등으로 봉사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계속 봉사하고 있다. 2011년에는 조민현 신부가 “혼인성사의 해”를 선포하고 혼인성사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것을 맡아 진행한 봉사자들이 대부분 ME 부부들이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도회가 운영하는 신심단체에 본당 신자들이 참여하거나 종신 회원이 되어 영성을 키우며 봉사하고 있다. 예수회의 Christian Life Community, 프란시스코회, 갈멜회, 꽃동네 등에 속한 본당 신자들이 다수이다.

✦ 각종 봉사활동

본당의 전례, 각종 행사와 그 외에도 필요한 봉사를 하기 위한 봉사 단체가 여럿이다.

일 년 중 매주 봉사하는 단체로는 전례부와 성가대가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미사 인터넷 방영을 위하여 한 주일도 빠짐없이 봉사한 단체다. 전례부는 미사 준비와 복사단, 성체분배, 제대봉사 등 여러 분야의 일을 조용히 감당하며 성장해 왔다.

성모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부녀회 봉사 단체는 교회의 엄마로서 온갖 뒷일을 도맡아 해왔다. 특히 잔치 때마다 먼저 나서서 당연하다는 듯이 전 신자를 위해 음식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성인 여성은 으레 성모회원으로 여겼었는데 성당이 커지면서 성모회 임원들만이 성모회 회원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생겼다. 부역일만을 하는 모임이라는 인상을 벗고 새로운 이미지 형성을 위해 이름을 '우슬라회'라 하기도 했고, 전 성모회장들의 모임에서 요리 강좌를 열기도 했다. 지금은 '마리아회'라 불리고 있다.

2008년부터 전 신자를 위한 주일미사 후 점심을 구역회에서 돌아가며 봉사했지만, 역시 주관은 성모회 몫이었다. 2022년부터는 젊은 엄마들로 구성된 5개 팀이 돌아가며 점심을 준비했다. 2011년 ‘혼인성사의 해’에 있었던, 매월의 파티도 성모회에서 임원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파티 음식을 담당해서 가능 했던 행사였다.

그 외에도 신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 개의 단체가 있다.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노인 신자들을 위해 무료 차편 봉사를 해 주는 크리스토퍼회, 30여 년 동안 매주 의료 상담과 연례 건강검진, 독감접종을 해 왔던 루가회, 심리 상담을 공부한 조민현 신부는 신자들을 위한 정기 상담실을 열고 전문적 상담자를 초대

하기도 했다.

누구에게든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가장 힘든 시기일 것이다. 그럴 때 유가족을 위로하고 연도와 장례 절차를 함께 준비하며 돕는 역할을 맡아서 해온 것이 연령회다. 초기에는 돕는 신자들이 좀 있었지만, 햇수가 지날수록 회원 숫자가 줄었다. 하지만 30여 년간 유가족을 돕는 일을 계속해온 신자가 있다. 신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으레 조영종 율리오 교우에게 연락하였고, 그는 그 일을 감당해 오고 있다. 이경 신부의 제안에 따라 추모관을 만든 것도 조영종 율리오 교우의 몫이었다.

2010년에 SMC(Service Mission Committee)를 창설하여 모금된 기금으로 뉴욕과 맨해튼의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그 활동을 2년여 동안 지속하다가 재정적 뒷받침이 어려워 중단됐다.

1.5세와 2세들의 성소를 권장하고 후원하기 위하여 성소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지만 성소를 위한 첫 모임은 안드레아회이다. 안드레아회는 초기 대전교구의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전교구 신학생을 후원하기 위해 시작했었다. 성소회에서는 여러 해 동안 성소자들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지속했었다.

갓 이민 온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1984년에 만들어진 신용조합은 거의

40년간 신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신자 구성원도 변화되어서 지금은 신용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사를 위한 미디어 활용이 중요해져 2014년에 미디어 봉사팀이 조직되어 봉사에 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 대면 미사를 드리고, youtube를 통해 생방송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미디어 봉사팀이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구를 지키자는 취지로 2014년에 결성된 '지아모'그룹은 super bacteria EM을 만들어 신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재활용을 몸소 실천하며 강사를 모셔와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면서 계몽과 봉사를 겸하고 있다.

우리 본당에는 세탁업에 종사하는 신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봉사도 괄목할만하다. 제의실의 각종 세탁물 처리를 정성스레 맡아 하고, 또 찾아가지 않는 옷들을 모아 가난한 이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해왔다.

✚연령과 취미로 모인 소그룹 동호회:

신심과 봉사모임 외에도 여러 가지 동호회와 연령대 모임들이 있어 가능한 많은 신자가 소공동체에 속하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1980년대 부터 있었던 연장자 신자들의 모임인 송죽회를 2006년에 '아썰모'로 이름



을 바꾸면서 하상구 바오로, 안나 부부가 회장을 맡아 어르신들의 모임을 도왔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하루 나들이 프로그램 등으로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면서 아쌔모 회원이 40여 명으로 늘어 본당에서 가장 막강한 단체라고 인정받기도 했다. 현재는 선종한 교우들도 많고 또 먼 거리를 오는 것이 어려워 가까운 한인 성당으로 교적을 옮긴 회원들이 많아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지금도 주일이면 모여 담소하고 봄, 가을 2차례씩 본당 지원을 받으면서 하루 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청년회는 몽클레어 성당 때 이미 결성되어 운동팀도 만들고 여름 캠프도 했다. 1980년 초반, 아직 학생회가 없었을 때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 활동을 주관하기도 했었다. 그 후 청년회의 구성원들이 변하면서 활동이 미미한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다. 그 외에도 대건회, 요셉회 등의 연령대 모임이 있었고, 메이플우드로 이전한 후 도서관이 생기면서 책사모(책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 책을 읽고 함께 얘기를 나누는 book club을 운영했다.

스포츠로 엮인 동호회도 여럿 있다. 골프동호회는 매년 모금을 위한 대회를 주최하여 Youth Group의 선교 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덕분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여름 방학 동안 파나마,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선교 지역에 가서 봉사하며 신앙

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1년에는 본당 창립 50주년 행사를 위한 모금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성당이 내 집같이 편하고 신자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목 지침으로 삼았던 조후연 신부 때 여러 가지 운동 동호회가 있었다. 6에이커나 되는 넓은 터가 있어서 한때는 족구장을 만들어 젊은이들이 족구를 즐기고 4개 성당 친선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하였다. 또 넓은 체육관이 있어서 주중 저녁에는 배드민턴, 탁구, 농구, 검도, 라인댄스 등 여러 동호회원이 모여 즐겼다. 최근에는 두 젊은 보좌신부가 저녁에 젊은이들과 농구를 하면서 만남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국악팀이 매주 모여 장구를 배우고 농악 의상을 준비해 입고 본당의 행사 때 흥겨운 분위기를 올려주곤 한다. 50주년 미사 때 한국의 국악 미사곡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국악팀의 덕이다. 또 2012년에는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 향기’라는 노래 동아리를 만들어 본당의 피정이나 행사 때 기타와 북을 치며 복음성가를 불러 더욱 열기를 불어주기도 한다.

✦ 일치/친교행사 (주님 안에 일치)

몇 가정의 이민자들이 모여 함께 미사를 드리는 데서 시작된 본당 공동체는 서로

돕고 친교하는 것은 당연했다. 자체 성당을 갖게 되면서 본당의 날과 여러 교회 축제나 한국 명절을 함께 즐겼다. 신자 수가 늘어나고 구역회가 형성되어 활성화되면서 본당 식구 간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여러 해 계속된 구역 대항 성가대회는 여러 가지 즐거운 에피소드를 만들어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Central Avenue 성전 시대를 지나 Maplewood 성전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가정들이 늘기도 하고, 많은 신자가 이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인 성당이 여러 개 생기면서 가까운 성당으로 옮겨 가는 신자들도 많아졌다. 그러면서 구역회가 지역적인 의미가 약화되어 본당의 모든 신자를 관할 하는 원래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경 신부는 부임 후 지역회를 만들어 전 신자를 연결해 보려 노력하고, 또 구역회에 속하지 않는 신자들을 연령, 언어권, 관심사, 사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새로 소그룹을 만들어 연대감을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민현 신부는 신자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친교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신으로 성모회 임원들을 설득해서 2008년부터 전 신자를 위한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구역회에서 돌아가며 준비했는데, 때로는 특정 단체에서 자진해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감사나 자축할 일이 있는 신자가 실비만 받는 점심 비용 전액을 지불하기도 해서 신자 화합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경 신부는 연로한 신자들이 많은 구역회에서 점심을 준비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젊은이들로 구성된 다섯 개 팀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도록 했다. 점심은 무료로 제공하고, 학생회의 선교여행을 돕기 위한 donation만 받고 있다.

본당 초기부터 연례행사로 야외에 나가 미사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프로그램을 갖곤 했다. 그러다가 Central Avenue 성전으로 이사 온 직후 성당 내에 Plaza가 만들어 지자 야외 행사 대신 Plaza에서 본당의 날을 즐겼다. Maplewood 성당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 굳이 야외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

조후연 신부는 2014년 1박 2일의 가족 캠핑을 개최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200여 명이 참여해 즐겁고, 뜻깊은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여러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었고, 흥겹고 단결된 모습은 좋은 추억을 남겼다. 조후연 신부는 자상한 성격으로 신자 개인에게 맞춤형 사목을 하여 신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미사나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 마지막 신자가 떠날 때까지 문 앞에서 배웅하던 조후연 신부의 모습을 많은 신자가 기억하고 있다.

조후연 신부는 박 문시놀의 평생 숙원이던 북한선교와 북한주민돕기 사업을 이



어갔고, 박 몬시뇰의 투병과 떠나가는 마지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 이경 주임신부 부임 이후

2017년 2월 이경 바오로 주임신부가 부임 하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한 신자 수를 다시 늘리고 재정적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한다는 문제를 절감했다.

이경 신부는 본당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고 즉시 그 계획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미사 시간 조정이었다. 성인 영어미사를 없애고 같은 시간에 미사 3대를 드리도록 개편하였다. 참례 신자 수에 맞게 성당을 개조하고, 교실 등을 재 정리하면서 신자들이 편하게 만날 장소를 마련했다. 여러 단체와 그룹들을 초대해 삼겹살 파티를 열어 만남을 꾀하였다.

이경 주임신부는 성당 재정 정상화를 위해 여러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신자의 불평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중에도 꾸준히 노력하면서 예비 신자를 늘리기 위해 무척 애를 썼으며, 젊은 층의 교회 운영 참여를 끌어냈고, 무리없이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례자 영입을 위해 RCIA(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를 조직하고, 재정운영의 변화를 우선으로 삼았다.

이경 주임신부의 사목적 특징 중의 하

나가 만남과 먹거리를 중요시 하는 것이다. 부임 직후 교실들을 재 단장하면서 만남의 방을 만들어 도서관의 책들을 그곳으로 옮기고, 도서관 자리는 café로 꾸몄다. 밖에 있던 등나무 그늘을 학교 건물에 연결되는 enclosed patio로 개조하여 많은 신자가 편하게 애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여러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점심을 함께 할 수 없었을 때,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직접 고구마를 구워 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신자들에게 나눠 준 것도 이경 신부의 ‘먹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좋은 예다. 50주년 기념미사를 앞두고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미사에 나오지 않는 신자들을 독려하고, 구역회가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네 주일에 걸쳐 본당 피크닉 area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 매 주 점심 준비와 파티 등 성당의 여러 가지 행사를 기쁜 표정으로 하는 젊은 그룹들을 이룬 이경 신부의 노력이 성당의 분위기를 젊은 활기로 채워가고 있다.

성당 분위기가 젊어지는 다른 중요한 이유는 두 분의 젊은 보좌신부가 있는 것이다. 2018년에 김영민 미카엘 신부에 이어 2019년에는 김정경 실바노 신부가 부임했다. 좋은 강론, 피정, 특강 등이 신자들에게 크게 다가온 이유도 컸지만, 젊은이들과 매주 운동을 함께하고 독서모임을 하는 등 지속적인 만남이 크게 공헌하고 있다.

오순절성령강림사도수녀회(평화의 마을)에서 본당에 파견 보냈던 수녀들이 2022년 봄에 철수하면서 신부님들의 수고가 더욱 많아졌다. 특히 5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주차장 보수공사를 주임신부와 보좌신부들이 직접 작업복을 입고서 해냈다. 3명의 신부는 최근 그 넓은 주차장의 갈라진 곳에 난 잡초를 뽑고, 허물어진 아스팔트를 메꾸고, 다시 덮는 일을 몇 달에 걸쳐서 해냈다.

주차장 보수공사에 13만 달러의 견적이 나왔는데 경비를 아끼기 위해 코로나19 팬데믹 관계로 신자들과의 만남이 뜸한 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작업한 것이다. 신부님들의 노고를 미안해하는 신자들에게는 세 신부는 “기도의 시간이었다”라고 대답을 한다.

뉴악대교구 교구장 Joseph W. Tobin 추기경이 집전하신 창립 50주년 기념미사에 한인 사제와 미국인 사제 20여 명이 공동 집전했고, 10명의 부제가 동참했다. 그 준비를 위해 3년간 기도하고 피정하면서 준비한 노력만큼, 거룩하고 성대한 미사와 축하연을 진행했다. 지역 미국 신문은 국악 미사의 아름다움을 소개했고, 대거 참여했던 옛 신자들은 변화된 성당의 모습에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제는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가 1.5세, 2세 뿐 아니라 그 후에도 순교로 신앙을 지킨 선조의 얼을 이어가며, 한국의 문화를 지키는 성지가 되도록 기원하며, 새로운 50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부록 : 박창득 몬시놀의 마지막 몇 년

역사 제1부에 기록 되었듯,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놀이 2000년에 본당 주임신부를 사임한 후 뉴악대교구 Korean Apostolate의 coordinator로 일하다가 2005년 교구의 현역 사제직을 은퇴하면서 조민현 요셉 신부가 그 책임을 이어받았다.

조민현 요셉 주임신부가 부임하며, 박 몬시놀은 Cleveland St.에 있던 옛 사제관으로 거처를 옮기고, 매일미사 발간(2007년 북미주 사제 협의회에 넘길 때까지)과 Mee-Joo Catholic Inc의 여러 가지 일을 계속했다. 북한선교, 가톨릭회관 운영, 한인 가톨릭 미주 이민 역사자료 수집 등 많은 일을 했는데, 2008년 간암이 발견된 후에도 여러 가지 사목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한인 가톨릭 신심운동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확신으로 김택구 신부와 사재를 들여 마련한 가톨릭센터(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소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애를 썼다. 자신을 위해선 엄격하고, 검소하셨던 그는 유산 전액을 가톨릭센터(현 박 몬시놀 가톨릭회관)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봉헌했다.

박창득 몬시놀의 금경축인 2011년 3월 20일, 박 몬시놀의 사목활동으로 뿌리를 내



린 뉴악대교구의 5개 한인 성당이 한마음으로 감사미사를 봉헌했다. 다섯 아들 신부를 비롯한 20명이 넘는 사제들, 그리고 부제들과 수녀들이 참석한 금경축에는 예상보다 많은 신자가 참석해, 일을 담당했던 평협 임원들과 성모회에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겹고 풍성했던 그 잔치가 투병 중인 박 몬시뇰에게도 흐뭇한 시간이 되었다. 특히 아들 신부들과 함께 그분의 18번 'Oh, Danny Boy'를 부를 때는 신자들도 목소리를 합쳐 크게 부르면서 눈물을 짓기도 했다.

박창득 몬시뇰은 2015년 9월 18일, 메이플우드 성전 사제관에서 아들 신부들과 신자들의 기도와 성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향년 80세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곁을 떠났다. 당시 메이플우드성당 조후연 요셉 주임신부는 박 몬시뇰의 투병과 그분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였다.

장례미사는 조후연 요셉 주임신부가 중심이 되어 뉴악교구 다섯 개 한인 성당의 주임신부인 다섯 명의 아들 신부가 함께 준비하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에서 봉헌됐다. 장례미사 주례는 몬시뇰과 오랜 사귀를 통해 그분을 당신 사제직의 role model로 삼는다는 뉴악대교구의 A. 마뉴엘 크루즈 주교가 집전했다. 수십 명의 사제와 1,000석이 넘는 성당을 넘치게 참례한 조객들의 슬픔 속에 장엄하게 봉헌한 미사를 끝

으로 박 몬시뇰은 뉴저지 Franklin Lakes의 Christ the King Cemetery에 안장됐다. 하관 예절에서 박홍식 돈보스코 '아들 신부'는 박 몬시뇰님을 저희 가슴 가슴마다에 묻으며 박 몬시뇰의 정신 계승을 약속했다.

아들 신부들은 약속대로 박 몬시뇰의 정신을 기리며 그가 시작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 선교사업은 조후연 신부가 맡아 나진-선봉 지구의 유치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북미 간의 외교 문제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현재는 방문이 어려워 주춤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을 찾고 있다.

가톨릭 회관은 아들 신부들이 임기제로 맡고 있는데 2022년 현재는 조민현 신부가 맡아 이사회를 공고히 하고, 교구와의 관계도 더 단단해지도록 진행 중이다. 지영덕 어거스틴 형제가 주축이 되어 가톨릭 회관에 박 몬시뇰 기념관을 만들고 있으며, 박 몬시뇰의 선종 10주기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작은 그룹들이 만나 몬시뇰의 인간적 면모를 모아보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경신부는 몬시뇰의 강론 초록을 정리하여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주보에 매주 게재 중인데 훗날 이를 책으로 엮을 계획이다.

이 기록은 성 김대건 뉴저지한인천주교회 편집위원회가 작성했으며, 누락된 기록과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편집위원회에 제보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조은숙 루시아, 이태성 미카엘 정리)

Brief History of St. Andrew Kim Korean Church

Maplewood, NJ

편집위원회

Sain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SAK) began in the winter of 1972 with a small gathering in the library of our Lady of Victory School in Jersey City.

Msgr. Chang-Deuk Augustin Park's (then Fr. Park) arrival to America to continue his studies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coincided with the immigration of Korean nurses to work at American hospitals including those in Jersey City. Residing at the rectory of Our Lady of Victory Church, Msgr. Park was able to utilize the church library to hold Korean mass for the recent Korean immigrants. Soon, the group needed a larger place and moved their community to St. Peter Claver Church in Montclair where Sunday masses were celebrated in the afternoon from 1973 to 1980.

While in Montclair, the congregation grew in number and became more fervent in faith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charismatic renewal program. The desire of the people to have their own church building blossomed. Supported by an enthusiastic fundraising campaign in 1980, Saint Andrew Kim (then Blessed Andrew Kim) Church was established at 18 Cleveland St. in Orange, NJ in a building previously housing a Christian Science Church.

With its own building, SAK quickly grew in the number of parishioners, and in the scope of its parish organizations and ministries. The Parish Council was formed along with the women's auxiliary group. Small regional groups were formed to cover the catchment area of parishioners, which was virtually the entire state of New Jersey



since SAK was then the only Korean Catholic Church in the state. Bible meditation and study was instituted in every meeting of all small groups.

In 1979, Msgr. Park began the Korean charismatic renewal movement in NJ and brought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WWME) to the Northeast in 1983. SAK remained as the main core workforce for these two ministries for decades for the entir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Another major ministry established during this period was Catholic publications. *Korean American Catholic Digest*, a monthly journal, started in 1986. It was continuously published for 28 years until the digital age. The monthly publication of a daily Missalette in both Korean and English also was started in 1986. It is still published, but now by the Korean American Priests Association. This association was established by Msgr. Park in the early 1980s to assist priests in supporting each other in their ministries for Korean Catholics in America.

As the number of children in the

SAK parish grew, the need for a large space to accommodate Sunday School became apparent. The parish considered building an educational building on the site of the rectory, but then the archdiocese of Newark came forth with an opportunity for SAK to relocate to the building previously housing St. Venantius on Central Avenue in Orange. Msgr. Park was appointed as the pastor and at the installation mass in March 1986, Archbishop McCarrick told the congregation “Your being here is not an accident but is in God’s plan for you to spread the sparks of faith of Korean martyrs to the church of America.”

With the spacious building, the Sunday School and the Youth Group quickly grew in number. New curricula were developed, and catechists were trained. The annual ‘New Antioch’ retreat for high school students began at SAK and continued for more than 30 years. Students from the smaller Korean Catholic churches in the tristate area were invited to the Antioch retreat, so that they too could experience the special gift of the retreat.

Soon after moving to the Central Avenue church Msgr. Park began to establish missions in areas where large numbers of Koreans settle, such as in Fort Lee, New Brunswick, Demarest, Eatontown, Fort Dix, etc.

Soon each mission grew large enough to merit their own priest, and eventually became independent parishes. There are now five Korean Catholic Churches in the Newark archdiocese alone.

This expansion was possible because Msgr. Park welcomed many Korean priests to visit during their sabbaticals and vacations.

In 1989 a group of parishioners visited North Korea with Msgr. Park. Since then, Msgr. Park spent a great deal of his efforts to serve the poor and the children of North Korea, through providing food and establishing kindergartens. Even though religious activities were prohibited in North Korea, he was permitted to celebrate Mass in Pyongyang during his more than 30 trips to North Korea in his lifetime.

In the late 1990s, there was a group of parishioners who were displeased with

Msgr. Park's extensive work beyond the parish, but with the assistance of the Archdiocese, the conflicts were resolved, and the parish was able to heal. Soon thereafter the Archbishop appointed Msgr. Park as the coordinator of the Korean Apostolate of Newark Archdiocese in 2000. At the same time, he was named a Prelate of Honor in 2000 and received the title of Monsignor from Pope John Paul II.

Msgr. Park, resigned from the pastorate in 2001 and Fr. Yong-il Park, a resident priest at the time was named administrator. In 2004, Fr. Minhyun Joseph Cho, a Korean priest who was ordained for the archdiocese of Newark, was assigned to St. Andrew Kim. Soon after his appointment, the archdiocese began the "New Energies Project," and SAK relocated in 2005 to the buildings previously housing the Church of Immaculate Heart of Mary in Maplewood.

The new church was large and had a spacious school building but needed much repair work. Fr. Cho concentrated on restoration of the building, establishing a new and friendly



environment, and new programs suitable for the younger generation. A large playground was established along with a picnic area for families. Also, Bible reading was encouraged, and several different programs were provided. Along with the various Jubilee years that the church observed, Fr. Cho set 2011 as ‘the Year of the Sacrament of Marriage’, celebrating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happy marriage for God.

In 2012, Father, Minhyun Cho was appointed to Saint Michael’s Church in Palisades Park, and Fr. James Cho, previously a vicar at SAK became the pastor. He oversaw the “Year of Children” that focused on giving children happy memories of church life. Throughout the year, various programs combining fun and prayer were provided including many outings, near and far. Fr. James Cho emphasized the relational ministry and encouraged young people to spend their leisure time at the church. He opened the gym for playing badminton, basketball, table tennis, line dancing etc. He hoped that the younger generation would feel more comfortable being at church, and

deepen their connection to the church in their faith journey.

After the move to Maplewood, Mass attendance began to dwindle. Transportation for aging parishioners became an issue for those requiring long distance commutes. Many began to attend other nearby Korean churches as there were now five Korean churches in the Newark Archdiocese.

In 2017 Fr. James Cho moved to the Madonna Church in Fort Lee and Fr. Paul Lee was appointed as the pastor at SAK. By this time, the number of attending Mass dropped to around 300 compared to 900 when the parish first moved to Maplewood. As a result of the decline in parishioners, the financial health of the parish was paramount among many of the issues facing the new pastor. Fr. Lee made many bold decisions that were not initially popular. Most of his decisions have proved to be beneficial, not only for maintaining the parish but for its renewal and regrowth. He dramatically reduced the number of employees and renovated the main church, the Youth Group facilities, and the school building

to be more attractive for various meetings and for Sunday School students.

Fr. Lee also actively sought to engage the younger generation. Unfortunately, just when his sincere energetic engagement began to blossom, the COVID pandemic hit. It was a great setback for the SAK parish as it was for all churches in the Archdiocese. The pastoral team along with the parish council did an amazing job of keeping the parishioners connected via SMS and by providing well-coordinated streaming of Sunday m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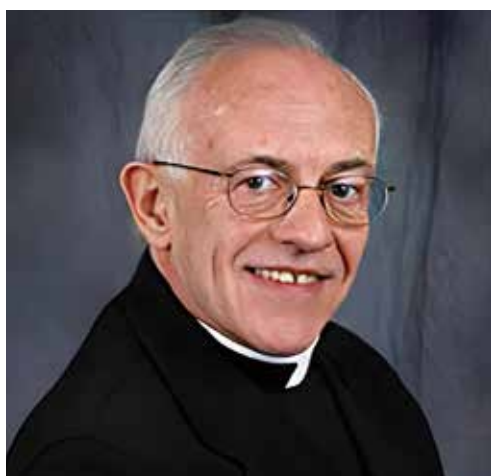
Despite the chaos of the pandemic, Fr. Lee was able to lead three-year preparations, that included many faith-deepening events and publishing an

over 500 page-anniversary book called “Walking with Jesus”. These efforts culminated in the wonderful celeb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Saint Andrew Kim Church on September 24, 2022. The church overflowed with attendees during the Mass celebrated by Cardinal Tobin. This event reunited many older parishioners, who were happy to see each other and glad to witness the various developments in their old church in the backdrop of a joyous occasion.

The most amazing accomplishment of SAK is its many vocations. Including three recent pastors of SAK, there have been 10 priests, 3 religious sisters, and 2 permanent deacons.

The Korean Migration; Bias and Prejudice, Japanese Occupation, War and Welcome

Msgr. Robert J. Wister, Hist.Eccl.D.
Professor Emeritus of Church History
Immaculate Conception
Seminary School of Theology
Seton Hall University



“A few Koreans came to the United States in the late 1800s, but it wasn’t until 1903 that Korean immigration began in earnest.”¹ This is a bit of an exaggeration but, by 1905, about 7,000 migrants had left Korea, almost all settling in the sugar plantations in Hawaii. Japan occupied Korea in 1910, and the United States implemented a series of very restrictive

immigration laws over the next 15 years. These laws further strengthened the legal prejudices against all Asians. As a consequence of these events, very few Koreans came to Americ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pparently, hardly any came to New Jersey. In its 1920 report,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reported that there was only one Korean living in New Jersey. Even though this probably is a statistical error, the actual number was small.

The Immigration Act of 1924 established the National Origins Quota System. It severely curtailed immigration from Eastern and Southern European countries, thereby excluding most Catholics and Jews. Building on the Chinese Exclusion Act of 1882 and other biased anti-Asian legislation, it completely abolished immigration from 39 Asian countries. Because of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from 1910 until 1945, Korea as a nation “disappeared” from many statistical categories. Because of this situation, most natives of Korea in the United States probably were counted as “Japanese.” No specific United States census category existed for Koreans until the 1970 census. However, the 1930 and 1940 census reported twelve Koreans living in New Jersey, an inconsistent assertion.

In 1960, various sources estimated that there were about 11,000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Most of these were “war brides,” children of American soldiers of the Korean War (1950-1953), and others admitted as refugees. On the heel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of the 1950s and 1960s, immigration policy changed drastically. With the passage of the Immigration Reform Act of 1965, bigoted national and ethnic restrictions were abolished, and Koreans began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in significant numbers. By 2008, there were over one million Korean-born residents in the United States.² In 2017, 1.7 million Americans identified themselves as Korean.³

The Korean population in New Jersey went from negligible in 1965 to almost 40,000 twenty-five years later. It more than doubled by 2010, and, in 2017, was estimated at over 114,000. Most are naturalized citizens (63%). Many of the recent Korean immigrants are different in character from their predecessors. Often, they come to the U.S. already highly educated, with significant resources and the possibility of one day returning to Korea.⁴ In 2015, less than half of Korean immigrants reported having limited English proficiency.⁵

Locally, as the Korean immigration continued into the late 20th and early 21st centuries, most Koreans settled in Bergen County, particularly in southern Bergen County, and others scattered throughout northern New Jersey. Only Los Angeles and Orange Counties in California, and Queens County in New York, have a larger Korean population than Bergen County. However, in the 2010 census, Bergen County had the highest Korean percentage of the population (6.43 percent) than any other county in the United States.⁶

The United States Census Bureau figures below are for all Korean-heritage residents. “Korean heritage” indicates residents born in Korea and others

born in the United States who self-identify as Korean American.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also includes first-, second-, and third-generation Korean Americans. Also, some mixed-race Koreans may report themselves as Korean on census forms. The following statistics illustrate the high concentration of Koreans in Bergen County. They also show that the great majority of Korean-heritage New Jersey residents, more 60 percent, live in the four counties of the archdiocese of Newark. These numbers do not represent the number of Catholics.

Total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7 Approximation of Persons of Korean
Heritage in New Jersey

New Jersey - 114,899
Bergen - 59,018
Essex - 3,133
Hudson - 5,755
Union - 1,887
Archdiocese of Newark - 69,793

It is difficult to state the exact number of Korean Catholics, or any group of Catholics for that matter. In 1993, sources estimated that 13.6 percent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were Catholics.⁷ However, a Pew Survey in 2014 estimated the number at 10.2 percent.⁸ Some estimate that the Catholic proportion of Korean immigrants is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the Catholic population in Korea, so it may actually be about 15 percent or more. When we compare percentages of the United States census numbers of all Koreans and the parish reports, we get a reasonable idea of the number of Korean Catholics. Why do these discrepancies exist? The Columban Fathers, who minister to the Korean population in southern California, note that many Korean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Catholics joined Protestant churches due to the lack of Korean language services in Catholic churches.⁹ This was not unusual.

Throughout American history, many immigrant Catholics that did not receive adequate pastoral services in their native language left the Church. It is no different for the Korean community in New Jersey. Korean Protestant churches are ubiquitous. There are dozens of Korean Protestant communities in Bergen County. Many American Protestant churches, whose numbers are dwindling, allow their Korean counterparts to use their facilities.

Even more troubling, the 2014 Pew Survey reports that more than one-quarter of Korean Americans brought up as Catholic became Protestant or Evangelical, and another quarter indicated that they had no religion, only 47 percent remaining Catholic.¹⁰ This may reflect intensifying secular trends in both American and Korean societies. Clearly, this is a challenge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owever, there is an outlier, an exception to the norm, among the statistics. R. Stephen Warner, in *Korean Americans and Their Religions: Pilgrims and Missionaries from a Different Shore*, claims that 70 percent of Korean Americans are Christians.

The pastors of the Korean parishes in the archdiocese of Newark estimate 8,248 parishioners.¹¹ If the various national surveys approximate the number of Korean Americans who are Catholic at about 13 percent, we come to a similar number. Thirteen percent of the total 69,793 Koreans the United States Census estimates for the four counties of the archdiocese census records in New Jersey is 9,073. This is as close as such estimates can get. Of course, Korean American Catholics who attend non-Korean parishes and undocumented immigrants are not included in the numbers reported by the Korean parishes and must be considered as well.

Estimates of the number of undocumented Korean 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extend from 180,000 to 230,000, which is ten to twelve percent of the approximately 1.7 to 1.8 million Korean Americans. An estimated 10,000 Koreans are eligible for DACA status.¹²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undocumented are included in official census totals or in parish reports.

Pastoral care for the Korean immigrants followed traditional patterns that the archdiocese of Newark had adopted for earlier immigrants, but with specific



differences adapted to the needs of the Korean Catholics. Unlike the European immigration experience in the early 1900s, native clergy did not accompany the Korean immigrants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Korean bishops did not initiate a pastoral plan for the care of their people in the diaspora because of their own growing pains back home. Many dioceses in Korea focused on nurturing Korean vocations in the hopes of replacing foreign missionaries to meet the needs of the growing Catholic population in Korea.

The beginnings of Korean immigrant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70s and 1980s possessed several common traits. They first gathered into small groups, then lay leaders emerged, and finally they invited priestly leadership. This lay initiative among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mirrors the origins of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 the 18th century. The first Catholic communities in Korea in the late 18th century derived from lay leaders who had encountered Catholicism in China and brought the faith home to Korea. This established a familiarity and a level of comfort with lay leadership. This endured as priest missionaries from Europe came to Korea in the early 19th century to establish a clergy and hierarchy in the country. The European missionaries endured persecutions with their Korean converts, leaving a heritage of great respect for the clergy in the Korean Catholic character. Persecutions of Catholics under the Joseon dynasty in the 19th century and during the 1910-1945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of Korea helped to create a strong and resilient faith that persists today.

Saint Andrew Kim Parish

In the archdiocese of Newark, giving the Korean community the status of a “personal” or “national” parish was different from the pattern of addressing the pastoral needs of the Korean community in California. In San Francisco, Los Angeles, and Orange, the norm was to encourage Korean groups to form community centers that often were separate from parish structures. In

New Jersey, the Korean immigrant community followed the path of previous immigrant groups and, after several years as a small mission, became a “national” or ethnic parish within the archdiocesan structure. The Korean immigrants rapidly spread to other parts of the archdiocese forming a variety of parochial configurations.

In New Jersey, the pattern of the pastoral care of the Korean community is largely the result of the long ministry of Monsignor Chang-Deuk Augustine Park. Ordained in 1961, Father Park had studied at Seoul Catholic University, the Mission Étranger in Paris, and the Collegio San Pietro in Rome.

While some small groups of Koreans may have gathered earlier for Mass, Father Park celebrated the first formal Mass in Korean in the library of the parochial school of Our Lady of Victories Parish in Jersey City on December 3, 1972. This milestone date is considered the beginning of Sain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In 1974, to have a place suitable for liturgy, the congregation moved and began to celebrate Mass in Saint Peter Claver Church, an African American parish, in Montclair. A committee raised funds for a building of their own and, in 1980, the congregation purchased a former Christian Science Church in Orange. When it moved there, it was officially named the Saint Andrew Kim Korean Catholic Mission of New Jersey. In the early years, Saint Andrew Kim Community averaged 350 parishioners at Sunday Mass.¹³ In the 1980s, the Korean community continued to expand beyond Saint Andrew Kim, and soon Mass was celebrated in New Brunswick, Teaneck, Demarest, Fort Lee, Eatontown, Fort Dix, and elsewhere.

The community was growing and needed more facilities. Saint Venantius Parish in Orange, originally a German-language parish, had few remaining parishioners. In 1986, Father Park was incardinated into the Archdiocese of Newark. The same year, the archdiocese merged Saint Andrew Kim with Saint Venantius Parish, and appointed Father Park as pastor. Father Park was installed as Pastor of Saint Venantius – Saint Andrew Kim Parish on March 29, 1987. The Korean community of Saint Andrew Kim shared facilities with the dwindling English-speaking congregation of Saint Venantius Parish.¹⁴

This was a peaceful transition as Monsignor Park and the Korean community were sensitive to the needs and feelings of the English-speaking community. The Korean parishioners insisted that the parish retain the name of Saint Venantius and so it became Saint Venantius - Saint Andrew Kim Parish. This blending is clear in the centennial booklet of the parish in which the names of the various groups and committees show members from both communities.¹⁵ This sensitivity was a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community that recognized its own small size and sought to blend in rather than to overcome its environment. The former Saint Venantius Parish complex in Orange was quite old and rather modest. In 2005, the archdiocese relocated Sain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rish to the newer and more spacious site of the former Immaculate Heart of Mary Parish in Maplewood.

Self-sufficiency of the Korean Community and Contributions to the Archdiocese of Newark

While the archdiocese of Newark assisted the Korean community in various ways, the self-sufficiency of the Korean Catholics was quite evident from the early years. Even with a great deal of work, Korean is a difficult language for Euro-American priests to master. There clearly was a need for Korean priests. Most Korean diaspora communities were not able to receive pastoral care by a native Korean-speaking priest until Korean vocations flourished and reached unprecedented heights in the 1990s and 2000s. Father Park provided this aspect of ministry and sought out priests from Korea to serve in New Jersey for three to four years with the permission of their bishops.

At the same time, Father Park recruited Korean seminarians from the immigrant community and from Korea. They enrolled in Immaculate Conception Seminary and were ordained for the archdiocese of Newark. During their seminary years, these young men had the opportunity to sharpen their English language skills and to grow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the Church in America,

the culture in which all Korean America Catholics now participated. Upon ordination, these priests ministered to the growing Korean community and in non-Korean parishes as well. Where and when needed, the practice of bringing Korean priests for three- to four-year terms continued.

The ministry of priests of Korean ethnicity allowed the community to preserve its culture and also to strengthen its faith by providing worship and catechesis in the familiar language of home. This followed the pattern of all previous immigrant groups who made clear to the American bishops the necessity of maintaining their language at least for a few generations, in order to preserve the faith. The basic principle is that language and culture are an aspect of passing on the faith and that there must be a transition period of varying lengths.

As did many immigrants of the late 20th and early 21st century, Koreans also entered existing parishes. In some cases, they rather quickly became almost half of the parish. Here again, in the parishes where they grew in numbers, the Korean experience is a bit different from other immigrant groups. Most likely because of significant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the Korean community is more autonomous than immigrant groups in other parishes. Because of this and because of their tradition of self-sufficiency and higher levels of education, few required assistance or aid from the parish. On the contrary, they provided such aid to others in need.

The growing number of Korean American priests, some born in Korea, some born in the United States, was a great gift to the archdiocese of Newark. These priests serve both in Korean ethnic parishes and in other parishes as well. In addition, they have served for quite a few years in the Archdiocesan Pastoral Center, as professor in the archdiocesan major seminary, as rector of the minor seminary, and on numerous archdiocesan commissions and committees. Korean lay men and women also have taken leadership roles on various archdiocesan boards and commissions.

These bi-lingual priests made it possible to minister to the growing numbers of Koreans coming to New Jersey, many of whom joined established English-



speaking parishes. The younger Korean priests celebrated Mass in Korean and English and ministered to these growing communities that included both Korean- and English -speaking Catholics. Their work also led to the establishment of explicitly Korean parishes in Bergen County, today the center of the Korean population in New Jersey.

The presence of Korean American priests is an example of the self-sufficiency of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that asks for assistance in some areas but always is ready to do more than their own share of pastoral and spiritual development.

Korean women religious also traveled overseas on assignments of several years to address the spiritual needs of Korean immigrants.¹⁶ Over the years, several congregations of Korean Sisters minister in the archdiocese of Newark. They are the Sisters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of Mirenae, the Sisters Apostles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formerly known as the sisters of Peace Pentecost, the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the Congregation of Kkottongnae Sisters of Jesus, and the Caritas Sisters of Miyazaki.

In addition to the presence of Korean American priests in high levels of the archdiocese of Newark and as pastors of very large, often multi-ethnic parishes, Korean lay men and lay women serve on various corporate boards of Catholic universities and other institutions as well as within the archdiocesan structure. Their clear and obvious presence is very significant since Korean Catholics, numbering from about 8,000 to 10,000, form less than one percent of the 1.2 million Catholics in the archdiocese of Newark.

Very difficult to measure is the spiritual impact of any specific group, and the spiritual impact of the Korean Catholic population is no exception. However, we can find evidence, in a general way, of the contribution of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to the spiritual life of the archdiocese.

Korean Catholics participated in numerous lay ecclesial movements in Korea. They did not leave them behind. Often, they discovered that their zealous participation in these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strengthened their faith and linked them with the same movements in the United States. As they were

strengthened by their local counterparts, their new and enthusiastic presence intensified the faith of American Catholics who participated in these movements. Some of the strongest and most active groups and movements are Legion of Mary,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and Cursillo, all of which have a vibrant presence in Korean parishes.

Religious education is taken very seriously by the parish leadership and by the parishioners, a large number of whom volunteer and serve on a regular basis. Religious education, which includes Sunday liturgy, particularly focuses on the Sunday School (Pre-School to 5th Grade) and Youth Group (6th grade through High School).

The close family spirit among the members of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combined with a very strong faith has assisted in the flourishing 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 (R.C.I.A.) in Saint Andrew Kim and the other Korean parishes. The numbers who have been gently led to the faith or whose faith was strengthened and deepened by the loving work of those who guided them is a cause of great pride in the entire community. It is a clear sign that evangelization is taken quite seriously in this community.

Today's Joys and Challenges, Customs and Devotions

Just as the heritage of persecution produced a strong and resilient faith, Korean Catholics developed a deep and abiding respect for and devotion to their clergy, who had shared suffering and persecution with them.

The European clergy, especially the French missionaries, introduced a strong devotion to the Blessed Virgin Mary to Korea. Mother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life of the Korean people, and since the arrival of Catholicism, Korean Christians have shown great devotion to Mary, the Mother of Jesus. For the Christians of Korea, it is natural to connect filial love towards one's mother to love for Mary. It is not surprising that she is always referred to as "Mother Mary" with special and sincere devotion.

Marian devotion in the archdiocese of Newark was declining in the years after the Second Vatican Council (1962-1965). It has experienced a renewal thanks to the new Korean community and the new Latino communities. The focus on the Rosary is evident in Saint Andrew Kim Parish where a part of the 50th anniversary celebration is a pledge to offer one million decades of the Rosary in thanksgiving. The very strong and active Legion of Mary in Saint Andrew Kim and other Korean parishes also testifies to the depth of Marian devotion and also to a concern for the corporal works of mercy.

During the 19th century, the Catholic Church was targeted by Joseon Dynasty chiefly for the religion's opposition to "ancestor worship." This Confucian custom of placing food out for ancestors and reverencing their names on tablets with a bow and incense, had been the subject of a long dispute in China between Jesuit and Dominican missionaries.

In Rome, the Jesuits tried to argue that these so-called "Chinese Rites" or rituals were social, not religious, ceremonies, and that converts should be allowed to continue to participate. The Jesuits argued that Chinese folk religion and offerings to the emperor and departed ancestors were civil in nature and therefore not incompatible with Catholicism. The Dominicans contended these rituals were a form of worship of the emperor and ancestors. In 1715, Pope Clement XI officially and formally forbade Christians from participating in these practices. His command was reiterated by Pope Benedict XIV in 1742.

In China, the prohibition enraged the emperor who regarded it as an insult to Chinese Confucian culture. He issued an imperial decree expelling all Catholic missionaries and initiated a severe persecution of Chinese Catholics.

Similarly, in the early 19th century, following the Vatican decree, Catholic missionaries in Korea prohibited Catholics from participating in the customary veneration of ancestors. Various factions within Korea used the prohibition to incite violence against Catholics. They said this prohibition was insulting to

Korean culture and severe persecution ensued. This century-long persecution produced an estimated 8,000 to 10,000 martyrs - 103 of whom were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in May 1984. Among them was the heroic first Korean priest, Saint Andrew Taegon Kim, who was ordained in 1845 and martyred in 1846. In addition, Paul Yun Ji-Chung and 123 companions were beatified by Pope Francis during the Asian Youth Day in Seoul, South Korea.¹⁷

Finally, in 1939, Pope Pius XII repealed these prohibitions of “Chinese Rites” when he stated that “it is licit and unobjectionable for head inclinations and other manifestations of civil observance before the deceased or their images.” It was unfortunate that these misguided bans persisted for two centuries and not only hampered evangelization but caused dreadful persecutions.¹⁸

Even beyond the Jesuit argument regarding the civil origin of these customs, many always have seen these customs as very similar to the respect for the dead that the Catholic Church shows in its devotions on All Saints and All Souls Days. Korean American Catholics continue the laudable custom of showing love and respect for ancestors on major traditional Korean holidays such as Chuseok, Korean Thanksgiving, and Seollal, the celebration of the beginning of the Korean lunar New Year.

This focused respect for Korean heritage works to strengthen the spirit and faith of Korean Catholics. Korean culture also is reinforced by Korean language schools in many Korean parishes. The retention of language and customs from Korea is similar to the experience of earlier European Catholic immigrants to the United States who maintained their language and customs in schools and in many religious devotions. Today, we see this in the various ethnic festivals and parades in what are still or formerly were ethnic neighborhoods, particularly Italian and Polish. More recent immigrant groups from the various nations of Latin America and from the Philippines also celebrate their national heritage together with their Catholic faith.



The degree to which language and customs of immigrants' homelands should be encouraged was a long-term issue among the Europ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19th and 20th centuries. Many claimed that it was necessary to pass on the faith, at least to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through the embrace of the language and customs of the "home country." Others took an opposite view and encouraged "assimilation" into the American society and culture as quickly as possible. This question remains for all recent immigrant groups and Koreans are no exception.

If there ever was a linear process by which immigrants assimilated to American culture, it no longer exists. If, in the past, immigrants (or more likely their children) first became ethnics and later plain Americans, today the picture is more complex... (T)here is no longer just one "America" that newcomers enter not only one "American identity" that they may adopt.¹⁹

The immigration of the last fifty year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a century ago. A century ago, although the migrants came from different nations of Europe with different Catholic cultures, they possessed similarities to one another. All were Caucasian. All spoke languages of the various European linguistic families. All shared various aspects of a common European heritage. Korean and other current immigrants come from every continent, from Latin America, Asia, and Africa. They possess diverse ra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While structures may appear similar to the past, the pastoral strategies of the past will not always be effective. "Assimilation" will not take place in the same way or at the same pace as it did with European immigrants a century or more ago.

Another difference is that contemporary American culture contains many concepts, behaviors, and attitudes that are contrary to Catholic belief and practice. Among the challenges to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t is not

surprising that some, especially young, Korean Americans, are drawn from the Church by the increasingly secular trends in American culture. This phenomenon is faced by all Catholics in today's United States.

Although some find it difficult and painful to discuss, Korean Americans also face the strange contradictory bias of being the “perfect immigrant,” a bias they share with many other Asian groups. Many Caucasian Americans see Koreans and other Asians as “good” immigrants who do not strain the social welfare fabric and, on the other hand, contribute to society from their arrival. The young are seen as uniformly brilliant students, placing a great burden on those youngsters who do not excel in school. This is not a compliment, but a bias that stereotypes all Asians.

In recent years, anti-Asian feeling, which first arose in the late 19th century, has re-appeared among those who place the blame for the covid pandemic on China and all thereby on all Asians. However, persecution has been endured before by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Their ancestors kept the faith during the persecution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ist occupiers, and their contemporaries suffer daily under the Communist regime in North Korea.

As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n Saint Andrew Kim Parish celebrates a half-century of praising God, it continues to receive God's grace and blessings through the intercession of Mother Mary and the parish's martyr-patron, Saint Andrew Kim. From a beginning with a handful of persons attending Mass in a library in Jersey City, it has grown to a thriving parish in Maplewood drawing parishioners from great distances. Together with its daughter parishes in Bergen County, about 9,000 Korean American Catholics in the archdiocese of Newark are dedicated to the Gospel of Jesus.



This community will thrive as long as it follows the direction of its patron:

“We have received baptism, entrance into the Church, and the honor of being called Christians. Yet what good will this do us if we are Christians in name only and not in fact?”

- St. Andrew Kim Taegon

BIBLIOGRAPHY

1. Sheila Smith Noonan. Korean Immigration. Broomall PA, 2004, 48.
2. Migration Policy Institute. August 24, 2010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korean-immigrants-united-states-0>
<https://www.migrationpolicy.org/article/korean-immigrants-united-states-2017>
3. This includes many born in the United States of Korean parents.
4. Simon C. Kim. Memory and Honor. Collegeville 2013:44.
5. Pew Research Center. English Proficiency of Korean Population in the U.S. - 2015.
<https://www.pewresearch.org/social-trends/chart/english-proficiency-of-korean-population-in-the-u-s/>
6. The Daily Viz. Mapping the United States Korean Population.
<http://thedailyviz.com/2018/01/23/mapping-the-united-states-korean-population->
7. Susan B. Gail and Kwang Chung Kim, eds. Statistical Record of Asian Americans. Detroit, Gale Research, 1993, 848.
8. Chaeyoon Lim. “Korean American Catholics” in the “Changing American Religious Landscape: A Statistical Portrait,” in Simon C. Kim and Francis Daeshin Kim, Embracing our Inheritance, Eugene, Oregon: 2016, 49.
9. Angelyn Dries. “Korean Catholics in the United States” in U. S. Catholic

- Historian, v. 18, n. 1, Asian-American Catholics (Winter, 2000), 102-103.
10. Lim, 5.
 11. Archdiocese of Newark. Office of Research and Planning. 2017 statistics.
 12. <http://www.browndailyherald.com/2018/02/02/20-kim-18-support-undocumented-asian-immigrants/>
 13. Archdiocese of Newark, Office of Research and Planning, Mass Attendance '83 to '17.
 14. Summary of Parish History in commemorative booklet and program entitled 100 – Centennial Celebration 1887-1987 Saint Venantius – Saint Andrew Kim Church Orange New Jersey.
 15. Ibid.
 16. Simon C. Kim. Memory and Honor. 65-70 passim.
 17. Alex Jensen. Korea and the Church of Martyrs, 9/1/2016, in <http://www.kofc.org/en/columbia/detail/korea-church-martyrs.html>
 18. Chinese Rites Controversy, in https://www.cs.mcgill.ca/~rwest/wikispeedia/wpcd/wp/c/Chinese_Rites_controversy.htm
 19. R. Stephen Warner, "Introduction: Immigration and Religious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in *Gathering in Diaspora: Religious Communities and the New Immigration*, ed. R. Stephen Warner and Judith G. Wittmer. Philadelphia, 1998, 25.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연혁

편집위원회

- 1972년 12월 3일 - Jersey City 소재 Our Lady of Victories Church에서 첫 미사
 - 1973년 3월 - 첫 세례성사
 - 1973년 9월 6일 - 사목위원회 발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 1973년 9월 23일 - 주보 제1호 발행
 - 1973년 10월 14일 - 야외미사
 - 1973년 12월 5일 - Montclair 소재 St. Peter Claver Church로 이전 미사. 부녀회 설립. 주보 제2호 발행
 - 1973년 - 초대 회장으로 이병무 형제, 부녀회장으로 이에디다 자매가 선임됨
-
- 1974년 11월 24일 - 김수환 추기경 환영 만찬
 - 1975년 1월 3일 - 5개 구역회를 설립하고 구역장을 선임
 - 1975년 1월 30일 - Nursery 시작(민청미 데레사 자매님의 자원 봉사)
 - 1975년 4월 16일 - 본당 주소록 발행
 - 1975년 7월 13일 - 청년회 발족
 - 1975년 12월 7일 - 전례위원회 구성
-
- 1976년 8월 8일 - 필라델피아 만국 성체대회 참가자 출발
 - 1976년 10월 1일 - 성당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바자
 - 1977년 6월 12일 - 김수환 추기경 내방
 - 1977년 9월 25일 - 골프 클럽 창설
 - 1977년 10월 10일 - 성전건립 기성회 구성
-
- 1978년 2월 10일 - 뉴욕, 뉴저지 한인천주교회 친목 파티에 200명 참석
 - 1978년 4월 15일 - 본당 주최 골프대회
 - 1978년 6월 4일 - 뉴욕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합동미사(약 1,000명 참석)
 - 1979년 3월 18일 - 교리기도회 시작

- 1979년 4월 8일 - 첫 성령세미나를 마침- 성령기도회의 시작
 1979년 8월 5일 - Grace Ecumenical Singer 합창단 방문 음악회

- 1980년 8월 - 박창득 신부 중국방문 (북한 선교의 길을 찾아)
 1980년 11월 16일 - 첫 성전 18 Cleveland St. Orange 의 Christian Scientist 교회에서 첫미사 (공식명칭: Blessed Andrew Kim Catholic Korean Mission)

- 1981년 1월 - 주일학교 개교 (교장 조은숙 루시아)
 1981년 6월 30일 - 사제관 구입, 업무 시작
 1981년 7월 5일 - 박정일 미카엘 주교 내방
 1981년 7월 19일 - 청년회 캠프(65명 참가)
 1981년 10월 18일 - 송죽회 창립. 초대 회장 김종인 박사 선임
 1981년 12월 17일 - 황민성 베드로 주교 내방

- 1982년 3월 27일 - 대건회 창립총회
 1982년 6월 26일 - 레지오 마리아에 창단 사랑하올 어머니 브레시디움 첫 주회
 1982년 9월 - 루가회 첫 건강 검진 (연례 행사로 2010년대 까지 계속)
 1982년 12월 4일 - 김수환 추기경 환영 만찬
 1982년 12월 5일 - 본당 설립 10주년 기념 미사 및 잔치

- 1983년 2월 18일 - 제1차 미 동북부 첫 ME 피정
 1983년 3월 27일 - 김대중 토마스 (후에 대통령) 형제 강연
 1983년 4월 10일 - 청년 레지오 브레시디움 설립 (상지의 좌 브레시디움)

- 1984년 1월 8일 - 신용조합 창립 총회
 1984년 5월 1일 - Eatontown과 Fort Dix 공소 설립
 1984년 7월 1일 - Blessed Andrew Kim Korean Catholic Mission 에서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Mission 으로 명칭변경

- 1985년 9월 - 김 소피아 마리아 수녀 'Parish Visitors of Mary Immaculate(원죄없으신 성모 본당 방문 수녀회)' 입회



- 1985년 9월 22일 - St. Patrick 성당에서 성 안드레아 김대건과 바오로 정하상과 동료 순교자 대축일 합동미사
-
- 1986년 3월 9일 - 성 김대건 한국 학교 개교
 1986년 봄 -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수녀님들 부임
 1986년 5월 1일 - Fort Lee 공소 설립
 1986년 6월 - 김 세바스찬 수녀 주일학교 교장 임명
 1986년 9월 - 학생회 발족 (director 에 조은숙 루시아)
 1986년 10월 26일 - 박창득 신부 은경축 축하 행사
 1986년 11월 1일 - 월간 신앙지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 창간
 1986년 - 북미주 한인 사제협의회 설립 초대 회장으로 박창득 신부 선임
 1986년 - 박창득 신부 대전교구에서 Newark교구로 전임
 1986년 12월 2일 - 뉴왁교구장 맥카릭 대주교님이 박창득 신부를 St. Venantius -St. Andrew Kim 성당 주임신부로 임명
 1986년 12월 7일 - St. Venantius 성당 첫 미사 봉헌 (법적으로 St. Venantius 성당은 말소됨)
-
- 1987년 3월 6일 -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총 원장 수녀 방문
 1987년 봄 - 참부모가 되는 길 (본당 주최 1차)
 1987년 5월 - 제 1회 Antioch 학생피정 (1990년에 2차, 그후 2017년까지 매년)
 1987년 3월 29일 - 박창득 주임신부 착좌 미사. 뉴왁교구장 맥카릭 대주교 집전. Francis 주교외 다수의 미국, 한국 신부들 공동집전.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총 원장 이 글로리아 수녀 참석. Orange시 3월 29일 '박어거스틴 신부의 날' 선포
 1987년 8월 13일 - 박정일 주교 방문
 1987년 9월 13일 - St. Venantius 본당 건립 100 주년 기념 행사(McCarrick 대주교 집전, 김수환 추기경 참석)
 1987년 9월 20일 - St. Patrick 성당에서 동부지역 한인성당 합동 미사
 1988년 6월 5일 - 한국 입양아와 양부모 초청 잔치 (그 후 2000년대 초반까지 여러번 초청 행사)
 1988년 9월 2일 - 아일린 조지 여사 초청 강연

1988년 9월 25일 - 이튼타운 공소 본당으로 승격
1988년 11월 - 평화신문 미주판 창간호 발행

1989년 3월 26일 - 데마레스트 지역 신자들 St. Joseph Church에서 박창득 신부 집전 첫
미사
1989년 5월 20일 - 윤공희 대주교 강연회
1989년 6월 4일 - 한국 입양아 가족 잔치
1989년 7월 19일 - 경갑룡 주교 내방
1989년 11월 29일 - 송종익 신부 부임으로 포트리 공소 독립, 송종익 신부 부임.

1990년 - 김수환추기경 Seton Hall University 에서 명예박사 학위 받음
(준비에 동참)
1990년 2월 25일 - 토요 특전미사 시작
1990년 9월 16일 - 한국 순교성인대축일 기념으로 뉴왁 주교좌성당에서 한인사제단 공동
집전 합동미사 봉헌
1990년 9월 22일 - 아일린 조지 여사 초청 치유의 밤 행사

1991년 3월 20일 - 박창득 신부 사제수품 30주년 축하연
1991년 6월 30일 - 메타천교구 New Brunswick 공소 설립 미사
1991년 9월 - 교구소속 신학대학 (Immaculate Heart Seminary) 이사로 조은숙 루시
아 임명(2008년까지)

1992년 2월 16일 - 성가대 소수민족음악제 참가(저지시티 소재, 성 브리짓 성당)
1992년 3월 1일 - 본당 창립 20주년 기념 성체 신심 세미나(8주간)
1992년 4월 26일 - 루가회 프랑스, 벨기에 성지 순례 출발
1992년 6월 6일 - 반뇌 국제기도회(한국 및 북미주) 본부 설립. 지도신부: 박창득 신부
1992년 6월 14일 - 한국 입양아 가족 초청 잔치
1992년 9월 7일 - 본당 창립 20주년 기념 미동부지구 본당 대항 친선 골프대회
1992년 9월 13일 - '본당은 우리' 피정 시작(4주간)
1992년 11월 29일 - 본당 창립 20주년 기념 대미사(맥카릭 대주교 집전), 한국 회관에서
기념 파티



- 1993년 3월 13일 - 기우회 결성
- 1993년 4월 15일 - 이탈리아 성지순례 (27일까지)
- 1993년 5월 16일 - 박창득 신부 이주사목위원회 미주 총대리 취임미사
- 1993년 5월 - 교구 소속 Seton Hall University 에서 조은숙 루시아에게 명예박사 수여
- 1993년 7월 22일 - 성모 신심 세미나(7일 피정)
- 1993년 9월 26일 - 본당 시노드 토론회 시작(한달간 진행)
- 1993년 12월 5일 - 바뇌 성모 성상 건립 및 축성식

- 1994년 9월 25일 - 도서관 개관
- 1994년 12월 18일 - 성가대 제1회 성가 발표회
- 1994년 12월 - 바오로회, 대건회에서 분리 설립

- 1995년 2월 10일 - 박창득 신부 회갑연
- 1995년 10월 27일 - 북한 교우 방미단 도착(1개월 체류) 북한-재미동포 합동 세미나 개최
- 1995년 11월 - Christ the King cemetery 묘지 공동 구입

- 1996년 3월 - 대철 한국학교 개교
- 1996년 4월 7일 - 평양 장충성당에서 서울, 뉴저지와 동시 부활미사 (박창득 신부 집전)

- 1997년 11월 - 본당 설립 25주년 기념 성가 발표 대회
- 1997년 -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철수
- 1997년 - 평화의 마을 수녀님들 부임 (성령강림 사도 수녀회로 개칭)
- 1998년 5월 30일 - 이승윤 데이빗 신부 사제 수품
- 1998년 - 이윤나 데레사 수녀 미 살레시안 수녀회 입회

- 1999년 5월 29일 - 조민현 요셉 신부 사제 수품
- 2000년 2월 - Saddle Brook 성당(현 103위성당)과 함께 한마당 잔치
- 2000년 4월 20일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서임식
- 2001년 1월 - 박용일 타데오 주임
- 2001년 5월 19일 - 김성규 요셉 종신 부제 수품
- 2001년 5월 26일 - 박홍식 돈 보스코 신부 사제 수품

2001년 7월 - 낙태 종식을 위한 묵주기도 100만단 바치기 운동
 2001년 7월 - 예수 성심상 건립

2003년 5월 24일 - 김정수 디다코 신부 사제 수품
 2003년 10월 - 구역별 성경 필사(창립 30주년 기념)
 2003년 12월 -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사진전

2004년 1월 - 조민현 요셉 주임신부 부임
 2004년 2월 - 박창득 몬시뇰 교회연
 2004년 - Thomas Bulgia 종신 부제 부임

2005년 8월 - 오렌지 성당에서 마지막 미사
 2005년 9월 - 메이플우드 성당에서 첫미사 및 기념 식수
 2005년 11월 - 본당 헌당식
 2005년 12월 31일 - 박창득 몬시뇰 은퇴

2006년 2월 - 성체 분배권자 4명 임명
 2006년 5월 27일 - 이 경 바오로 신부 사제 수품
 2006년 5월 27일 - 조후연 야고보 신부 사제 수품
 2006년 6월 - 어린이 놀이터 완공
 2006년 7월 - 아삼모 발족 (송죽회에서 발전)
 2006년 9월 - 박창득 몬시뇰 은퇴미사

2007년 4월 - 영상 시스템 완공
 2007년 6월 24일 - 제대에 대형 십자고상 모심 (이호순 도미니코 작품)

2008년 1월 19일 - 친교실에서 영화 상영 개시
 2008년 2월 - 소성당 14처 설치
 2008년 3월 12일 - 성경 필사본 교황님 강복
 2008년 5월 25일 - 성경읽기 52주간 제1차
 2008년 - 박정민 사도요한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령강림 사도 수녀회로 개칭) 입회



2008년 9월 21일 - 주일 점심 식사 제공 개시
 2008년 9월 - 수녀원, 성당 구내로 이전
 2008년 11월 - 루가회 새 진료실 마련

2009년 1월 1일 - 한국 성모자상 축성식 (학교 복도)
 2009년 5월 17일 - 성경읽기 52주간 완독자 축하행사
 2009년 5월 31일 - 조민현 주임신부 사제 수품 10주년 기념행사
 2009년 6월 - 본당 웹 사이트 전면 개편
 2009년 9월 13일 - 대건실 축성
 2009년 12월 6일 - 조영종 율리오 형제, 뉴욕 세나투스 단장에 선출됨

2010년 4월 18일 - '참부모가 되는 길' 피정
 2010년 5월 16일 - 성경읽기 제 2차 완독자 시상
 2010년 5월 27일 - Michael Lee 부제 수품
 2010년 8월 2일~14일 - 학생회 Mission Trip to Ecuador
 2010년 10월 4일~9일 - 조홍래 부제 수품(10월 7일) 축하단 파견(to Rome)

2010년 10월 31일 - 상담실 운영 개시
 2010년 11월 (3회) - 영어 신약성경 통독
 2010년 11월 - SMC(Service Mission Committee) 발족
 2010년 12월 - 불우 이웃 돕기 Giving Tree Program 시작 (주일학교에서 시작 후에 학생회 행사로 자리매김)
 2010년 11~2011년 10월 - "혼인성사의 해"로 지냄 (매달 그 달에 결혼기념일이 있는 부부들을 위한 미사와 파티)

2011년 3월 20일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금경축 축하행사
 2011년 3월 27일 - 책사모(책을 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발족
 2011년 5월 15일 - 제3차 성경읽기 52주간 완독 축하행사
 2011년 5월 28일 - 이충우 마이클 신부 사제 수품 (Paterson 교구소속)
 2011년 5월 28일 - 조홍래 베드로 신부 사제 수품
 2011년 7월 1일 - 교구소속 대학교 (Seton Hall University) 의 이사로 조은숙루시아 임명

(2020년 6월까지)

2011년 11월 9일~20일 - 성경 공부반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

2011년 11월~2012년 10월 - “어린이의 해”로 지냄 (매달 주일학교 학생들의 성지 순례와 체험 견학)

2012년 1월 29일 - Newark Korean Comitium 설립 (하늘의 문 꾸리아가 승격되어 산하에 6개의 꾸리아가 소속됨)

2012년 6월 24일 -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

2012년 6월 24일 - 조민현 요셉 신부 송별회

2012년 7월 1일 - 본당 설립 40주년 기념행사

2012년 7월 28일~8월 5일 - YG 과테말라 봉사

2012년 10월 21일 - 조후연 야고보 신부 취임식

2012년 11월 - ‘그리스도의 향기’ 찬양단 창립

2012년 11월 4~16일 - 터키, 그리스 순례여행

2012년 12월 2일 - 조영종 율리오 형제, 뉴욕 세나투스 단장 재선

2012년 11월~2013년 10월 - ‘신앙의 해’로 지냄

2013년 2월 2일 - 본당 출신 박정민 (젼마), 마리 세레자 요한 수녀 종신 서원

2013년 3월 1~3일 -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 성지순례

2013년 4월 19~21일 - 주일학교 캐나다 몬트리올 성지순례

2013년 4월 30일~5월 11일 - 요르단, 이스라엘 성지순례

2013년 6월 8~9일 - 1박 2일 여름 피정, 강사: 이창항 신부

2013년 6월 21~23일 - 성령대회, 주제: ‘성령을 받아라.’ 강사: 정희욱 신부

2013년 7월 5~7일 - 거룩한 독서 피정, 강사: 정태현 신부

2013년 9월 7~8일 - 본당 ‘사랑으로 하나 되자!’ 가족 캠프

2013년 9월 15일 - 거룩한 독서 모임 시작

2013년 9월 22일 - Picnic Area와 Playground 공사 완료 축성식

2013년 10월 13일 - Shrine of Our Lady of Martyrs (Upstate NY)로 1일 성지순례

2013년 11월 17일 - ‘신앙의 해’ 교리 경연대회

2013년 12월 13~14일 - 대림피정

2013년 12월 15일 - 김영춘 베드로 신부 (미주 평화 신문사 사장) 대림 일일 피정



- 2014년 1월 5일 - 김마리 미셀 수녀 부임
- 2014년 2월 - 미디어팀 발족
- 2014년 3월 16일 - 희망의 모후 아치에스 행사
- 2014년 3월 30일 - 김기수 신부님 사순특강
- 2014년 4월 27일 - 영적 대화를 위한 피정 이탈리아, 로마 성지순례 출발
- 2014년 4월 6일 - EM 활성액 사용을 통한 환경 개선을 위한 EM Team 결성(후에 “지아모”로 개칭)
- 2014년 5월 16~18일 - 안티옥 학생 주말 피정(1987, 1989-2017년 매년)
- 2014년 5월 22일 - 북미주 사제 협의회 사제단(55명) 본당 방문 및 미사 거행
- 2014년 5월 24일 -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 사제 수품
- 2014년 6월 28일 - 뉴욕, 뉴저지 한인 성당, 청년 농구대회 우승
- 2014년 7월 13일 - 본당의 날 야외 미사(분도 수도원)
- 2014년 7월 21일 - 본당 학교 건물 화재발생
- 2014년 7월 28~31일 - 아쌈모 성지순례, 캐나다 퀘벡 Our lady of the Cape Shrine & Basilica of St. Anne
- 2014년 9월 26~28일 - 김성봉 프레드릭 신부 초청 피정
- 2014년 10월~12월 - 신자재 교육을 위한 '마중물' 강의(7회)
- 2014년 12월 7일 - 이수철 프란치스 신부 초청 특별 강론
-
- 2015년 3월 14~15일 - 이해인 수녀 초청 강연회
- 2015년 5월 3일 - 은퇴 교실 개설
- 2015년 7월 19일 - 현철수 신부 초청 강의
- 2015년 8월 9일 - Thomas Bulgia 부제 선종
- 2015년 9월 18일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선종(Viewing:9/23, 장례미사:24일, 뉴왁교구 내 5개 한인성당이 공동관장)
- 2015년 10월 11일 - 성당 이전 10주년 기념과 친교를 위한 알뜰시장
- 2015년 10월 18일 - 김영희 카타리나 자매 초청 말씀과 치유의 시간
- 2015년 11/29, 12/6, 12/17 - 지용식 마태오 신부 대림 특강
-
- 2016년 1월 31일 - 라우뎜 수녀 이임
- 2016년 2월 21일 - 자비의 특별 희년 피정

2016년 2월 29일~3월 8일 - 이탈리아 성지순례
 2016년 3월 12~13일 - 류해욱 신부 특강
 2016년 3월 19일~20일 - 김영익 신부 특강
 2016년 3월 20일 - 한국학교 동화 구연대회
 2016년 5월 8일 - 정희욱 신부 특강
 2016년 5월 15일 - 조후연 주임신부 사제 서품 10주년 기념행사
 2016년 5월 28일 - 정가람 안드레아 신부 사제 수품
 2016년 6월 24일 - 목주기도 백만단 봉헌식, 성경 필사본 봉헌식
 2016년 6월 14일 - 본당 주관 한인 성당 대항 족구대회
 2016년 9월 - 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놀 제1주기 추모미사
 2016년 9월 18일 - 구역대항 교리 경시대회
 2016년 10월 9일 - 알뜰시장

2017년 1월 31일 - 조후연 신부 이임
 2017년 1월 30일 - 김마리 미셀 수녀 이임
 2017년 2월 5일 - 이경 바오로 주임신부 부임미사, 박 세례자 요한 수녀 부임
 2017년 2월 26일~3월 4일 - 이스라엘 성지순례
 2017년 5월 - RCIA(Rite of Christian Initiation of Adults)팀 구성 (디렉터로 조은숙 루시아)
 2017년 10월 29일 - 한가위 알뜰시장
 2017년 11월 19일 - 희망의 모후 2017년 총 친목회
 2017년 12월 24일 - 김상균 다니엘 보좌신부 송별미사
 2017년 4월 22일 - 평신도 사도회 임원/간부 피정
 2017년 4월 27일 - 주임신부의 신자 재교육 20주간 시작
 2017년 5월 - 제5대 이경 주임신부 착좌미사 및 축하연
 2017년 6월 4일 - 주일학교 기금 마련 본당 골프 대회
 2017년 7월 7일 - 청년 피정
 2017년 7월 9일 - 본당의 날 BBQ 파티
 2017년 7월 27~30일 - Youth Group Summer Camp
 2017년 8월 13일 - 미 동북부 한인 성당 족구 대회 참가 (2등 수상)
 2017년 9월 16일 - 고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놀 제 2주기 추모 미사



- 2017년 10월 29일 - 한가위 알뜰시장
- 2017년 11월 19일 - 희망의 모후 2017년 총친목회
- 2017년 12월 13일 - 본당 평신도 사도회 총회
- 2017년 12월 13일 - 아삼모 송년 파티
- 2017년 12월 31일 - 송년 잔치

-
- 2018년 1월 20일 - Stay Awake 2018
 - 2018년 1월 28일 - 김영민 미카엘 보좌신부 부임
 - 2018년 3월 22일 - 희망의 모후 2018년 아치에스 행사
 - 2018년 4월 29일 - 행복한 요리 교실 시작
 - 2018년 5월 6일 - 포트리 등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시작
 - 2018년 6월 10일 - 유스그룹 기금 마련 골프 대회
 - 2018년 6월 23~29일 - 유스그룹 성지 피정 및 대학 방문
 - 2018년 8월 5일 - 추모관 설립
 - 2018년 9월 7일 - 김웅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초청 피정
 - 2018년 12월 4일 - 4명 신부들 동행 찬양 대림피정
 - 2018년 12월 8일~9일 - 이창현 비오 신부 대림피정

-
- 2019년 1월 - 교구장 토빈 추기경 교구 평협회 조은숙 루시아 임명
 - 2019년 1월 11일 - 세인트 검도부 창단
 - 2019년 2월 25일 -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획팀 결성 (위원장 지영덕 어거스틴)
 - 2019년 4월 14일 - 사순절 음악피정
 - 2019년 6월 2일 - 유스그룹 기금 마련 골프 잔치
 - 2019년 6월 27일~30일 - 마진우 신부 피정 (영성적 성숙)
 - 2019년 7월~8월 4일 - 유스그룹 파티마 성지순례
 - 2019년 8월 2일~10일 - 유스그룹 예과도르 미션
 - 2019년 8월 18일 -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 로고 당선자 발표
 - 2019년 9월 17일~25일 -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루르드 및 스페인 성지순례
 - 2019년 12월 6일~8일 - 대림피정 (김혜윤 수녀)
 -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19 때문에 노인이나, 감기, 발열이 있으면 집에서 본당 미사를 You Tube으로 지키도록 통보, 모든 행사를 취소 (6월 28일까지 미사를 스트리밍 했음)

2020년 5월 24일 - 본당 골프 동호회 결성 at 포코노 매너
 2020년 7월 11일 - 김요한 부제 종신 부제 수품
 2020년 7월 19일 - 본당 출신 조홍래 베드로 신부, 뉴악대교구 St. Andrew's College Seminary 학장 취임
 2020년 7월 26일 - 유튜브를 통해 성경공부 시작
 2020년 8월 7일 - 현재까지 새영세자를 위한 비대면 영어 성서묵상(조은숙 루시아)
 2020년 9월 1일 - 김정경 실바노 보좌신부 부임

2021년 1월 3일 - 뉴악 교구 Youth Group 사목에 헌신하는
 Archdiocesan Adult of world Award to Leo Hwang,
 Youth Discipleship Award to Dayna Rosa Park
 2021년 1월 14일 ~ 3월 31일 - 신부님들의 '성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특강,
 강사: 이경 주임신부, 김영민, 김정경 보좌신부
 2021년 1월 24일 - 유스그룹 초청 Zoom 강의 by Sr, Christina Chong
 2021년 2월 17일 - 국악 미사 시작
 2021년 2월 18일 - 사순피정 황창연 베네딕토 신부 (비대면)
 2021년 2월 25일 - 윤원지 비안네 신부 사순 피정 특강
 2021년 3월 4일 - 김인호 루카 신부 사순 피정 특강
 2021년 3월 11일 - 김대우 모세 신부 사순 피정 특강
 2021년 6월 23일 - 거룩한 독서, 김영민 신부
 2021년 6월 30일 - 북클럽 모임 시작; 김정경 실바노 신부
 2021년 9월 12일 -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기금 모음 골프
 2021년 10월 3일 - 본당 설립 50주년 개막식
 2021년 10월 21일 - 2차 거룩한 독서; 김영민 미카엘 신부
 2021년 10월 29일 ~ 30일 - 2021년 제 25차 성령대회 본당 Host
 2021년 11월 27일 - 레지오 마리아에 주회 재개
 2021년 11월 27일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폐막 미사
 2021년 12월 16일 - 제3차 거룩한 독서; 김영민 미카엘 신부
 2021년 12월 25일 - 묵주기도 100만 봉헌 기념, 성당 뒷면 성화 축성

2022년 - Synod 2021-2023 on synodality 동참



- 2022년 1월 15일 - 2022년 율뜨레야 신년 교례회
- 2022년 2월 27일 - Rite of Election (영세자 선발예식)
- 2022년 2월 27일 - 수녀님 환송회 (성령강림 28일 사도직 철수)
- 2022년 3월 13일 - YG 피정
- 2022년 3월 15일 - 본당 아버지 신앙 모임 시작
- 2022년 3월 27일 - 2022년 시즌 골프 동호회
- 2022년 4월 2일 - ‘고해성사를 통한 진정한 회개와 참 자유’ 성령기도회
- 2022년 4월 3일 - 2022년 아치에스 행사
- 2022년 4월 24일 - 본당 50주년 특집 성경 퀴즈 골든벨
- 2022년 5월 22일 - ‘도담도담’ 모임 시작 (소아 의료 면담: Dr. 박자영 카타리나)
- 2022년 5월 28~30일 - 동북부 ME부부 주말
- 2022년 6월 19일 - RCIA 예비자 입교식
- 2022년 6월 26일 - ME 가족 연례 모임 78차 주말 참석자 환영
- 2022년 7월 4일 - 제39차 지구 율뜨레야 (데마레스트)
- 2022년 7월 8-10일 - YG 여름캠프
- 2022년 8월 4~7일 - 50주년 기념 도보 순례
- 2022년 8월 14, 21, 28일 - 구역별 바베큐 모임
- 2022년 8월 22~26일 - SS Summer Bible Camp
- 2022년 9월 4일부터 - 고 박창득 몬시뇰 강론 후보 게재 시작
- 2022년 9월 24일 - 본당 창립 50주년 감사미사와 잔치 뉴웁대교구 교구장 토빈 추기경 집전, 쿠루즈 주교 외 20여 사제 공동집전
- 2022년 9월 24일 - 제2추모관 건립 축성식
- 2022년 10월 1일 - 제26차 미동북부 성령대회 (본당에서)

자료수집과 정리: 지영덕 어거스틴

역대 사제, 부제 및 수도자

연 도	주임 신부	보좌 신부	거주신부	Sunday Priest *	종신 부제	수도자
1972년	박창득 어거스틴					
1975년	박창득 어거스틴	오경동 요셉				
1981년	박창득 어거스틴	변갑철 바오로				
1982년	박창득 어거스틴	조병기 바오로	윤주병 베드로			
1983년	박창득 어거스틴	조병기 바오로	윤주병 베드로			
			구자륜 바오로			
			박재만 다데오			
1984년	박창득 어거스틴	조병기 바오로				
1985년	박창득 어거스틴	김동억 바오로				조용주 엠마누엘
						김경희 세바스티안
1986년	박창득 어거스틴	김동억 바오로				조용주 엠마누엘
						김경희 세바스티안
1987년	박창득 어거스틴	김덕신 요셉	방윤성 데빗			조용주 엠마누엘
						김경희 세바스티안
1988년	박창득 어거스틴	김덕신 요셉				조용주 엠마누엘
						홍 데오필라
1989년	박창득 어거스틴	신상욱 토마스	유호식 아오스티노			조용주 엠마누엘
						김 파스칼
						이 아녜
1990년	박창득 어거스틴	이설 미카엘		Robert Fuhrman		김 파스칼
						이 아녜
1991년	박창득 어거스틴	정준섭 요셉		Robert Fuhrman		김 파스칼
						이 아녜
1992년	박창득 어거스틴	정준섭 요셉		Robert Fuhrman		이 아녜
						최 콘세크라타
1993년	박창득 어거스틴		편용범 안드레아	Robert Fuhrman		이 아녜
			김정웅 베드로			최 콘세크라타
1994년	박창득 어거스틴		편용범 안드레아	Robert Fuhrman		방 말가리다
						이 수잔나



연 도	주임 신부	보좌 신부	거주신부	Sunday Priest *	종신 부제	수도자
1995년	박창득 어거스틴	임정진 미카엘	김택구 루도비코	Robert Fuhrman		방 말가리다
			강진영 바오로			이 수잔나
1996년	박창득 어거스틴	양윤성 다윗	김학무 세례자 요한	Robert Fuhrman		방 말가리다
			김택구 루도비코			이 수잔나
1997년	박창득 어거스틴	양윤성 다윗	김택구 루도비코	Robert Fuhrman		김종희 예로니모
			강진영 바오로			강성민 예레미아
			서상봉 다니엘			
			김학무 세례자 요한			
1998년	박창득 어거스틴	양윤성 다윗				김종희 예로니모
						강성민 예레미아
1999년	박창득 어거스틴	양윤성 다윗				김종희 예로니모
						이정희 모세
2000년	박창득 어거스틴	이원순 사도요한	김택구 루도비코			김종희 예로니모
		오세완 바오로	박용일 타데오			이정희 모세
2001년	박용일 타데오	이원순 사도요한	김택구 루도비코			김종희 예로니모
		오세완 바오로				이정희 모세
2002년	박용일 타데오	오세완 바오로	김택구 루도비코			이인옥 잼마
						조혜진 필립보
2003년	박용일 타데오	오세완 바오로	김택구 루도비코			이인옥 잼마
						조혜진 필립보
2004년	조민현 요셉	오세완 바오로	김택구 루도비코		Thomas Bulgaria	임인분 베드로
						조혜진 필립보
2005년	조민현 요셉	오세완 바오로			Thomas Bulgaria	임인분 베드로
						하명숙 마리 꼴베
2006년	조민현 요셉	유승원 세례자 요한		Anthony Ziccardi Lawrence Porter	Thomas Bulgaria	임인분 베드로 하명숙 마리 꼴베
2007년	조민현 요셉	유승원 세례자 요한		Lawrence Porter	Thomas Bulgaria	이정희 마리 모세 하명숙 마리 꼴베
2008년	조민현 요셉	유승원 세례자 요한	민광호 요셉	Lawrence Porter	Thomas Bulgaria	이정희 마리 모세

연 도	주임 신부	보좌 신부	거주신부	Sunday Priest *	종신 부제	수도자
						김미옥 스콜라스티카
2009년	조민현 요셉	조후연 야고보		Lawrence Porter	Thomas Bulgia	이정희 마리 모세
						김미옥 스콜라스티카
2010년	조민현 요셉	조후연 야고보		Robert Fuhrman	Thomas Bulgia	이정희 마리 모세
				Lawrence Porter		김미옥 스콜라스티카
2011년	조민현 요셉	조후연 야고보	민광호 요셉	Robert Fuhrman	Thomas Bulgia	이정희 마리 모세
				Lawrence Porter		김미옥 스콜라스티카
2012년	조민현 요셉	조후연 야고보		Robert Fuhrman	Thomas Bulgia	이정희 마리 모세
	조후연 야고보			Lawrence Porter		김미옥 스콜라스티카
2013년	조후연 야고보	유정현 대건 안드레아		Robert Fuhrman	Thomas Bulgia	김미옥 스콜라스티카
				Lawrence Porter		김현정 라우렘
2014년	조후연 야고보	유정현 대건 안드레아		Robert Fuhrman	Thomas Bulgia	김아네스 미셸
				Lawrence Porter		김현정 라우렘
2015년	조후연 야고보	유정현 대건 안드레아		Lawrence Porter	Thomas Bulgia	김아네스 미셸
						김현정 라우렘
2016년	조후연 야고보	김상균 다니엘		Lawrence Porter		김아네스 미셸
						김주옥 글라라
2017년	조후연 야고보	김상균 다니엘		Robert Wister		김아네스 미셸
	이경 바오로					박마리 세례자 요한
						이정희 마리 모세
2018년	이경 바오로	김영민 미카엘		Robert Wister		이정희 마리 모세
						조마리 베로니카
						박마리 세례자 요한
2019년	이경 바오로	김영민 미카엘		Robert Wister		조마리 베로니카
						박마리세례자 요한
2020년	이경 바오로	김영민 미카엘		Robert Wister		조마리 베로니카
		김정경 실바노				박마리 세례자 요한



연도	주임 신부	보좌 신부	거주신부	Sunday Priest *	종신 부제	수도자
2021년	이경 바오로	김영민 미카엘		Robert Wister	김영호 세례자 요한	조마리 베로니카
		김정경 실바노				박마리 세례자 요한
						기마리 사무엘
2022년	이경 바오로	김영민 미카엘		Robert Wister	김영호 세례자 요한	
		김정경 실바노				

**** Sunday Priests의 경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년도와 이름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Msgr. Fuhrman이 못 오시는 주말에 유스그룹 미사를 드려 주신 신부님들: Bishop John W. Flesey, Fr. John Denehy,

본당 출신 사제, 부제 및 수도자

연도	사제 수품	종신부제 수품	수도회 입회
1985년			김 소피아 마리아수녀 (Immaculate Heart of Mary Parish Visitors)
1998년	이승윤 데이빗 신부		이윤나 데레사 수녀 (미 Salesian 수녀회)
1999년	조민현 요셉 신부		
2001년	박홍식 돈보스코 신부		
2002년		김성규 요셉 부제	
2003년	김정수 디다고 신부		
2004년			박마리 세례자 요한 수녀 (성령강림사도수녀회)
2006년	조후연 야고보 신부 이경 바오로 신부		
2011년	조홍래 베드로 신부 이충우 마이클 신부 (패터슨 교구)		
2014년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		
2016년	정가람 안드레아 신부		
2021년		김영호 세례자 요한 부제	

평신도 협의회 역대 회장 명단

순 서	년 도	성 명
초대	1972 ~ 1974	이병무 베드로
2대	1975	이항백 요한
3대	1975	김도영 프란시스
4대	1976	최기복 어거스틴
5대	1978 ~ 1979	임병선 어거스틴
6대	1980 ~ 1981	염수호 시몬
7대	1982	이회영 베드로
8대	1983	홍익섭 아길로
9대	1984	김건 요한
10대	1985	조성준 다미안
11대	1986	원민희 빈센트
12대	1987	강덕보 스테파노
13대	1988	지영덕 어거스틴
14대	1989	송영익 히지노
15대	1990	신영식 라우렌시오
16대	1991	김 폴 바오로
17대	1992	임종학 어거스틴
18대	1993	한덕정 버나드
19대	1994	장상조 스테파노
20대	1995	강창홍 바오로
21대	1996	홍종욱 토마스
22대	1997	정근호 크리스토퍼
23대	1998	채덕규 미카엘
24대	1999	하상구 바오로
25대	2000	김경승 어거스틴
26대	2001	정구홍 안드레아
27대	2002 ~ 2003	이인덕 안드레아
28대	2004	김스티븐 요셉
29대	2005	이용재 프란치스코
30대	2006	이승한 발렌티노
31대	2007	전종관 베드로
32대	2008	손영근 마티아
33대	2009	최준혁 베드로
34대	2010	오인호 요한
35대	2011	이재천 미카엘
36대	2012	손철웅 요셉
37대	2013	문상일 마태오
38대	2014	조중진 알베르토
39대	2015	박성주 요셉
40대	2016	박인현 금구 요한
41대	2017	조광재 세바스티안
42대	2018 ~ 현재	이승한 발렌티노



역대 성모회장 명단

년도	성명	년도	성명	년도	성명
1972 ~ 1973	신영남 에디다	1988	지정해 글라라	2004	오만경 미셸
1974 ~ 1975	이진심 데레사	1989	복 안나	2005	이정옥 소피아
1976	이 카타리나	1990	임 히야신다	2006	이정옥 소피아
1977	염동례 데레사	1991	최영옥 모니카	2007	유경옥 비비나
1978	김종순 안젤리카	1992	박한성 엘리사벳	2008	조옥경 데레사
1979	이진심 데레사	1993	박경옥 헤레나	2009	박영미 헬레나
1979	이 카타리나	1994	조제니 세실리아	2010	김정신 루시아
1980	박 애니	1995	권인자 요안나	2011	손순희 벨라뎃다
1981	김형자 마리아	1996	이정자 카타리나	2012	이승자 글라라
1982	김 요안나	1997	이순자 막달레나	2013	이승자 글라라
1983	조민숙 헤레나	1998	김재영 헬렌	2014	백용숙 카타리나
1984	현 율리안나	1999	김영자 시몬나	2015	장은주 마리아
1985	홍규철 오딜라	2000	하영순 안나	2016	문정숙 데레사
1985	홍규철 오딜라	2001	윤명훈 마리아	2017	정소영 요안나
1986	정양자 마리아	2002	염지영 호노리타	2018	이해영 스테파니아
1987	강영표 루시아	2003	염지영 호노리타	2019	이해영 스테파니아
				2020 ~ 현재	박 데보라

Church of Saint Andrew Kim, Maplewood NJ

Formerly Church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Msgr. Robert J. Wister

Opened in 1958, the church was designed by architect Arthur Rigolo (1909-1997). Rigolo received many awards as an architect. He was named a Notable Architect in *Marquis Who's Who*.



The church building of Saint Andrew Kim Church (Immaculate Heart of Mary) received the Catholic Property Administration Award for Catholic Institutional Design in 1959. The certificate of the award reads: "Rev. Edward P. Looney is pastor of Immaculate Heart of Mary parish, and Arthur Rigolo is the architect.

The jury for the architectural awards program declared that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building group shows 'a clean, straight function, resulting in ample, honest expression in the elevations without losing spiritual qualities. It shows skillful handling of surfaces in both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with a strong statement of architectural expression.'"

Msgr. Looney who built the church died on September 28, 1982. He is buried in front of the church near the main entrance. You can see the marker of his grave. In the United States, in past decades, many pastors who built a church asked to be buried on the grounds. This requires the permission of the local municipality as well as of the archbishop.

For several decades, L. Craig Schoonmaker, a devoted Newarker,



has maintained a blog dedicated to his beloved city. We are grateful to him for some of the pictures in this article.

One day, he wrote:

“I made a wrong turn on my way from the opening of the Investors Savings Bank to the Ivy Hill Walgreens on Saturday, off Irvington Avenue onto Parker Avenue (the right road bends at a different point), and saw a magnificent modernist church, just inside Maplewood. So, this "Church Sunday" we go a few hundred feet outside Newark, into the recent and distant past, and the Korean community of Greater Newark.

“I saw a Korean gentleman walking near the entrance on what I call collar crutches (elbow crutches) and asked if he knew when the church was built. He turned out to be Steve Kim, who works in the church's office, so knew to point me to a cornerstone: 1957. He then showed me to a grave near the front corner of the church, where the man responsible for the church's construction lies under this marker.

I gave Steve Kim my card and asked

him to send me the URL to the church's website. He did. Unfortunately, the bulk of the information on it is in Korean, which I do not read. There is a forum in English, and I saw one post about whether at least one mass should be in English, for the sake of kids whose Korean is bad, and for non-Koreans.”

This picture shows the exquisite balance of the church with its soaring roof and the rectory with a much lower and less pretentious profile. A unit, they are connected by an arcade that protects parishioners from the elements and continues across the access road to provide shelter as far as the entry to the auditorium and school.

Rigolo cleverly fills three-quarters of the



façade with colored glass. He sets the glass and brickwork off-center lest the viewer be bored by too much symmetry. From the inside the cross in red is clear to all. At night when the interior of the church is illuminated, it can be seen by passersby.

Rather than fill the interior with color by using stained glass with figures, Rigolo opted to allow natural light to flood the interior through opaque natural clear glass and red and green colored glass in alternating patterns. As the sun passes through these windows it creates fascinating shapes on the walls depending on the time of day.

Upon entering the church, a colossal portrayal of Christ the King, vested in royal scarlet and topped with a golden crown, fashioned out of a combination of fresco and mosaic, draws our attention to the far wall.

The architect created a thoroughly modern edifice while taking inspiration from the great Gothic cathedrals whose soaring ceilings drew the eyes and the attention of worshippers toward the heavens and remind us of our eternal destiny. The laminated wooden beams



are like giant arms reaching up in prayer. The ceiling itself is a gentle blend of gray and light blue that subtly reminds us of the sky.

The church is not filled with many statues and pictures. However, the immense and magnificent portrayal of Christ the King on the sanctuary wall behind the tabernacle and altar is spectacular. Crowned with gold and shining gems, robed in royal scarlet, Christ extends his arms to embrace the congregation and the world. The portrait is a unique combination of mosaic placed in a setting of painted designs in blue, gray, tan, taupe and beige that accent the colors that make the mosaic figure of Christ



even more breathtaking. The lighting highlights scattered gold leafed mosaic tesserae that shimmer throughout the background. The simple brick walls on both sides form a modest frame for the majestic Christ.

Christ in majesty is juxtaposed with a life-size naturalistic wood crucifix. This reminds us of the great mystery of our Redemption through the blood and suffering of the Son of God, the King of Heaven.

“We have received baptism, entrance into the Church, and the honor of being called Christians. Yet what good will this do us if we are Christians in name only and not in fact?”

—St. Andrew Kim

“The Korean Church is unique because it was founded entirely by laypeople.

This fledgling Church, so young and yet so strong in faith, withstood wave after wave of fierce persecution. Thus, in less than a century, it could boast of 10,000 martyrs. The death of these many martyrs became the leaven of the Church and led to today's splendid flowering of the Church in Korea. Even today their undying spirit sustains the Christians of the Church of Silence in the north of this tragically divided land.”

— Pope Saint John Paul II

<http://www.newyorkilbo.com/33317>

(*The Catholic Advocate*, Volume 8, Number 21, 22 May 1959)

<http://newarkusablogspotcom/2010/05/st-andrew-kim-maplewood.html>

9

본당 50주년 기념 목주기도 백만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사진으로 보는 50년

사진으로 보는 50년

편집위원회 / 526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보고

지영덕 어거스틴 / 568

가족사진 기도문

편집위원회 / 577

첫 영성체 가족들 기도문

편집위원회 / 580

편집후기

편집위원회 / 581

본당 창립 50주년을 맞아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기념 벽화 (성전 뒷면 벽)

제1대 주임신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 1961년 사제 수품 기념



▲ 1970년대 중반 몽클레어 성당에서



▲ 1981년 앞치마를 두르고 케이크를 자르는 박 몬시뇰. 박정일 주교님과 변갑철 신부님



▲ 1984년 북한 선교를 꿈꾸며 백두산 천지를 방문. 1991년 이후 30여 차례 북한을 방문



▲ 1985년 이주사목위원회 북미주 동포사목부 총대리로 바티칸에서 열린 이주사목 담당자 국제회의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알현



▲ 1979년 미 동북부에 성령운동을 도입. 성령봉사회를 창립하고 1995년부터 동북부 성령대회. 몬시뇰이 제작한 성령대회 로고



▲ 1983년에 WWME를 동북부에 도입. 미주 한인 ME를 미국 ME의 region으로 승격시키는 등 일생동안 봉사



▲ 1986년, 은경축에 들어온 축의금으로 미주 가톨릭 다이스테를 창간. (통권 300호를 넘기고 2012년에 폐간). 같은 해 성서읽기를 권장하기 위해 '한영 매일미사'를 발간 (2007년 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에게 넘기다)

아낌없이 주고 가신 우리의 큰 나무



▲ 1987년 3월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의 주임신부 착좌 미사



▲ 2000년 박창득 신부님의 몬시뇰 서임식



▲ 2011년 금경축에서 사랑의 표시로 인사하는 몬시뇰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 2015년 몬시뇰의 영명축일 미사를 마치고, 아들 손자 신부님들과 함께



▲ 2014년 꽃동네로 병문안 온 Bishop Cruz, 30년간 몬시뇰을 아버지 신부님으로 모셨던 분이다.



▲ Msgr Park과 Korean Catholic Community를 기념하여 Seton Hall University 교정에 2011년 식수된 은행나무 : 박 몬시뇰, 정상섭 신부님, 조홍래 신부님



▲ 2013년 Kessler Rehabilitation Center에서 조후연 신부님과 미사 집전 후 방문 온 신자들과 함께



▲ 2015년 9월 18일에 영면하시고 Franklin Lakes에 있는 Christ the King 묘지에 묻히셨다.

Jersey City와 Montclair 성전 시절



▲ 셋방살이 하던 St. Peter Claver Catholic Church, Montclair, NJ (1973~1980)



▲ 성 김대건 뉴저지 성당의 시초; 박 몬시뇰이 보좌 신부로 봉직하던 Jersey City에 있는 Our Lady of Victory 성당. 한국어 미사를 보던 부속 학교 도서관 전경과 초창기의 신자들



▲ 1979년 유아 영세



▲ 1977년 김수환 추기경님 내방 - 첫영성체



▲ 1975년 세례 성사



▲ 1976 견진 성사 기념



▲ 1977년 김수환 추기경님 방문 기념



▲ 1976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세계 만국 성체 대회 참여



▲ 1979년 Ringwood Park에서 야유회



▲ 1978년 뉴욕 교구 설립 1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



▲ Montclair성당에서 미사 동안 어린이를 돌봐준 Ms. Meyer에게 감사장 수여.



▲ Montclair 성당 미사 장면 - 어린이 복사, 왼편에 Day Yi



▲ 제1대 이병무 평협 회장



▲ 1975년 청년회 창립 총회 기념



▲ 1979년 제1차 성령목상회 소그룹 사진, 박 문시놀, 조 병기 신부님과 함께



▲ 1979년 성전 건립 모금 파티

우리의 첫 자체 성전 마련(1980년 11월)

Orange 시 Cleveland St. 성당



▲ Orange 시 Cleveland St.에 마련한 첫 자체 성전의 모습



▲ Cleveland 성전에서 첫 미사 광경 - 박 문시놀은 “주님께서 이 큰 성전을 주신 것은 이 곳을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십니다” 라고 감사와 격려의 강론



▲ 성당 앞에 세운 현판



▲ 산악인 신자들이 자일을 타고 성당 벽면을 페인트하는 장면



▲ 개신교의 높은 강단 제거 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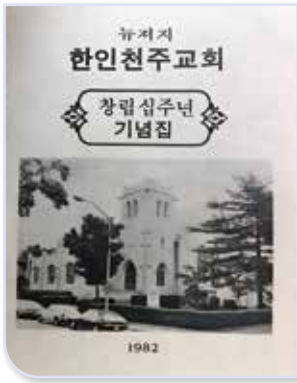


▲ 개신교의 높은 강단을 제거하는 신자들



▲ 1980년 성탄 미사 - 성전이 가득히 찼다.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성당 창립 10주년 행사



▲ 창립 10주년 기념집-미주에서는 처음 발간된 본당 기념집 (한덕정 씨 편집)



▲ 1982년 12월 김수환 추기경님이 집전하시는 본당 창립 10주년 미사 광경



▲ 파티에서 케이크를 자르시는 김수환 추기경님
- 박수 치는 정육진 신부님과 조병기 신부님이 보인다



▲ 1982년 12월 본당 창립 10주년에 오신 김수환 추기경님 환영 파티



▲ 1982년 12월 본당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 광경 (소리통의 애칭을 가진 신자가 진행 중인 모습이 보인다)



▲ 1982년 12월 본당 창립 10주년 행사 후 봉사자들이 김수환 추기경님을 모시고 베타 모임 (이 때는 이런 베타 모임들이 자주 있었다)

주일학교 창설



▲ 1982년 주일학교 미사 -미사가 끝나면 바로 의자를 치우고 어른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신자들의 친교실이 된다.



▲ 1983년 주일학교 아이들의 설날 세배 모습



▲ 1983년 주일학교 설날 기념

활발한 신심 활동



◀ 1982년 첫 성모의 밤



▲ 1981년 첫 세족례 장면



▲ Cleveland St. 성당 당시의 성가대 - 성탄 기념



▲ 1986년 아치에스 행사



▲ 1986년 미 동부지역 올드레아에서 공연하는 본당 꾸르실리스마



▲ 1982년 MBW 후



▲ 1983년 2월 미 동부 첫 ME 주말 광경



▲ 미 동부 첫 ME 발표부부들(한덕정 · 이회영 · 이한건 부부)



▲ 미 동부 첫 ME 주말 참석 부부들 - 이 때 참석했던 본당 부부들이 박 문시늬와 함께 동북부에 ME를 전파하는 기초가 되었다.

즐거운 만남의 시간들



▲ 교우 모임을 흥겹게 해주는 ‘소리 통’ (애칭)과 야유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박 몬시뇰



▲ 1982년 첫 구역모임 - 매달 가정 미사로 시작했었다.



◀ 1986년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 수녀들 파견 박창득 몬시뇰 옆에 조 엠마누엘 수녀님, 이 아네스 수녀님, 김 세바스찬 수녀님, 홍 데오필라 수녀님



▲ 1982년 골프 동호회가 생기고 매년 친목과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 1982년 대건회 창립총회 - 그 후 해가 지나면서 연령대에 따라 바오로회, 요셉회 등이 생기고 친목과 활동을 겸한 단체들이 발전했다.



▲ 임원 친목 모임 - 성당에 회의실이 없어서 단체회의나 신심모임이 개인 집에서 만났고 회의 끝에는 흥겨운 친목의 시간을 갖곤 했다.



▲ 1985년에 시작된 구역별 성가경연 대회. 어려해 계속되면서 수 많은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구역원 간에 깊은 결속을 이루었다.



박 몬시뇰의 은경축 본당의 특별 활동



▲ 박 몬시뇰의 은경축 미사 (1986년 3월 미 전국에서 30여 명의 사제들이 참석) - 박 몬시뇰은 한인 사제들간 교류의 필요성을 보고 애쓰던 터라 이 만남이 북미주 사제 협의회의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박 몬시뇰의 은경축 미사 - 모든 성인의 호칭 기도



◀ 1986년, 박 몬시뇰 은경축 축의금으로 미주 가톨릭 다이스포를 창간. (통권 300호를 넘기고 2012년에 폐간)



▲ 수년 동안 주님 승천일 새벽에 Tammany 산에 올라 해맞이를 하고 미사를 드리곤 했다.



▲ 1982년 뉴저지 뉴욕 한인천주 교회 합동미사



▲ 1985년 송죽회 (후에 반석회로 개칭, 지금은 아살모라는 이름으로 지속되는 교회 어른들의 모임)



▲ 교실이 없어 수업을 제대로 하기 힘든 주일학교와 단체들의 모임 장소를 위해 사제관을 헐고 부속건물을 짓기로 결정. 모금 운동을 펼치던 중 Newark 교구에서 Orange 시 Central Avenue 에 있는 St. Venantius 로 이전하기를 권고하고 박창득 몬시뇰을 본당 신부로 발령.

Central Avenue 성전으로 이전(1986년 11월)

넒직한 성당 뜰



▲ Orange시 Central Ave에 있는 성전의 전경



▲ 1987년 성지 주일 미사 전 예절 - 박 몬시뇰 옆에 마이크를 들고 계신 김동익 신부님



▲ 부활하신 예수님 상



▲ 바뇌 성모님 상이 보인다.



▲ 우람한 나무가 있는 성전 마당에 조성한 만남의 장소에서 가진 본당의 날 잔치 (유럽의 성당 앞 plaza의 역할을 담당)



▲ 1984년 바뇌 성모상 건립기념 (바뇌 성지에서 오신 신부님, 젤마 수녀님과 함께)



▲ 1999년 조민현 신부님 사제 수품 축하 잔치



넋직한 친구들



▲ 1991년 성가 경연대회



▲ 제10회 구역대항 성가 경연대회



▲ 1996년 창립 24주년 본당의 날



▲ 파티 끝에 마침 성가를 부르는 젊은 가족들



▲ 2003년 경 부모와 함께 하는 유스그룹 피정 중 오락 시간 - 이종우 미카엘 (2011년에 사제로 수품) 카운셀러가 진행하는 모습이 보인다.



▲ 1990년대 후반 '본당의 날' 바자에서 bar를 맡은 ME부부들



▲ 1992년 은혼을 맞은 부부들을 위한 축하연

주일학교와 학생회



▲ 1990년대 초반 첫 영성체 기념 - 박 몬시뇰, Fr. Joseph Rice (미국 신자와 주일학교 미사를 여러 해 도우셨다.)



▲ 2000년 경 주일학교 학생들의 한국 음식 만들기



▲ 1990년 경 주일학교 교사들 신 에밀리, 오 수산나, Sr. Francis, 김 파스칼 수녀님, 강 데레사, 한 시몬나, 정 젤마, 조 루시아 등



▲ 2000년대 초반 주일학교 학생들의 설날 행사 (차레 예식)



▲ 주일학교 성탄 예술제 (년도 미상)



▲ 1987년 학생회 counselor 모임



▲ 1990년 경 여러 해 유스그룹을 도왔던 Rose-Marie Franklin 수녀님의 송별 감사 회식 - 유스그룹 lead counselor 이 세실리아가 선물을 전하고 있다. 그 옆은 김정민, 그리고 조용주 엠마누엘 수녀님, 박창득 신부님 옆에 최승웅이 보인다.



▲ 1987년 5월 제1차 Antioch 학생 피정 기념 (2017년까지 30년 동안 계속됨), 후에 사제가 된 김정수, 이충우, 그리고 종신부제가 된 최승웅이 보인다. 박 문시놀 앞에 안티옥 director 조은숙 루시아 부부



▲ 1989년 안티옥 학생피정 그룹별 skit발표 장면



▲ 1991년 안티옥 학생피정 파견 미사 중 강론하는 Fr. Cruz (후에 Bishop 수품)



▲ 1987년 안티옥 피정의 점심 시간 - 모든 식사를 참석 학생들의 부모들이 만든다.



▲ 1990년 경 학생 캠프



▲ 1993년 경 안티옥 학생피정 기념

다양한 신심 활동



▲ 1995년 성령세미나의 안수 장면 (왼쪽부터 김택구 신부님, 박창득 몬시뇰, 강진영 신부님, 임정진 신부님)



▲ 1990년 초반 경 이범주 신부님 팀 초청 성체신심 세미나 - 소그룹 기념 사진



▲ 1988년 아일린 조지 여사 초청 치유예절 후 박 신부님과 아일린 여사 (성당에 여러 마리의 개가 있었고, 두 분 다 개를 특별히 사랑)



▲ 1995년(?) 성령 세미나를 마치고



▲ 1995년 수련 제1차 영성 기념



▲ 본당 CLC 그룹



▲ 1990년 '참 부모가 되는 길' 발표 기념 (박창득 문시놀 옆에 신상옥 신부님 · 채덕규 · 이회영 · 정근호 부부)



▲ 1989년 경 여성 꾸르실료를 마치고



▲ 1996년 경 양윤성 신부님이 보인다. (Pr. 단원 생일 축하 기념)



▲ 1994년 경 편용범 신부님과 연수를 마치고



◀ 1987년 경 '하늘의 문' 꾸리아의 연총 준비 모습 - 김광한 씨가 보인다.



▲ 2000년 초반 오세완 신부님과 함께, 조후연 학사 (후에 사제 수품), 임 미카엘라, 김 미카엘라 등이 보인다.



▲ 제9차 동부 올뜨레아 참석 본당 꾸르실리스파의 열연

우리는 한 가족



▲ 1995년 박 몬시뇰 회갑 잔치



▲ 1995년 회갑연에서 축하의 절을 받는 박 몬시뇰



▲ 1992년 본당 창립 20주년 파티 - 정옥진 신부님, 김옥용 신부님이 보인다.



▲ 1990년 경 다이제스트 후원회의 신년 율놀이 파티



▲ 1991년 이스라엘 순례 중 지금은 모스크가 서 있는 옛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 1990년 초반 파리 순례 중 노트담성당을 배경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 1990년 경 평양 장충성당 미사 장면



▲ 1989년 평양 장충성당 방문 미사 후 기념촬영



▲ 박 문시놀 나진선봉의 동명유치원 방문



▲ 1989년 입양아 가족 초청 파티 - 그 후 여러 번 초청 행사를 가짐



▲ 2004년 6월 장충성당 미사 후 박 문시놀



▲ 1992년 저지 시티 소재 성 브리짓 성당에서 있었던 소수민족 음악제에 참가한 성가대



▲ 1988년 평화신문 미주판 출판 기념회 (몇 해 후 평화신문사가 직영하기로 결정)

제2대 박용일 타대오 신부(2001년 1월~2003년 12월)



▲ 박용일 타대오 신부와 조민현 요셉 신부 - Central Ave 성당

제3대 조민현 요셉 주임신부(2004년 1월~2012년 6월)



▲ 제3대 조민현 주임신부님 인사말



▲ 2004년 1월 조민현 신부 착좌 미사 da Cuhna 주교님 집전

박 몬시뇰 고회(2004년 2월 15일)

▶ 이충우 마이클 신부님이 축하주를 드리고 있다.



▲ 1970년대에 대전교구 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생겼던 안드레아 회원 여럿이 보인다.



▲ 박 몬시뇰을 모시고 조민현 당시 주임신부와 함께 고회상을 준비한 성모회장 염지영·염동호 부부와 임원들



▲ 2005년 박 몬시뇰의 70세 잔치 - 평신도 사도회 역대 회장님들의 인사 (앞줄 왼쪽부터 채덕규, 정근호, 정구홍, 강창홍, 김경승, 장상조, 신영식, 원민희, 이회영)



▲ 2005년 영세 기념 조민현 신부님, 오세완 신부님, 임인분 수녀님, 조혜진 필립보 수녀님



▲ 2004~05년 성서 필사본 완필 축하



▲ 2004년 경 주일학교 어린 반의 성탄 공연 축하



▲ 2004년 성탄 미사의 성가대 - 어린이 악단도 함께



▲ 2005년 본당의 날 - 홍종욱, 이용재 씨와 본당에서 2004년부터 2015년 선종할 때까지 봉사한 Tom Bulgia 부제님

우리과 함께 했던 신부



▲ 자랑스러운 현지 출신 한인 사제들이 한 자리에



◀ 성당을 방문한 두봉 주교님과 정준섭 요셉 신부님(박 몬시뇰과 대전교구에서 함께 지냄)



▲ 본당에 오래 거주하면서 성령운동을 도우셨던 김택구 신부님

메이플우드 성전으로 이전(2005년 9월)



▲ 사순절의 성당 내부 - 김 로자리오 씨가 교회력에 따라 만들었던 배너가 보인다.

박창득 몬시뇰 은퇴 미사



▲ 2006년 9월 박창득 몬시뇰 은퇴 미사



▲ Cleveland St 성당 구입을 축하하면서 조성세 씨가 기증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흉상, 성상복구 작업을 하는 조재웅 버나드 형제, 그리고 메이플우드 성전 이전이 가능하도록 헌금한 신자들을 기리는 명단



▲ 2006년 9월 은퇴 미사 후에 기념 촬영



▲ 2006년 경 첫 영성체 기념



▲ 2008년 동북부에서 처음 시도한 ME의 첫 '주중 주말 교육' - 소 성당의 모습



각종 예술제



▲ 2005년 대철한국학교 학예회



▲ 2005년 대철한국학교 학예회



▲ 2005년 본당 순교자 성극

만남의 시간들



▲ 2005년 아살모 모임 파티

▶ 2006년 경 하마리꼴배 수녀님, 김요한 씨 (지금은 부제), 주일학교 성가대를 위해 오래 봉사한 지용철 씨가 보인다.



▲ 2005~6년 경 West Essex 구역회 - 하 마리꼴배 수녀님이 보인다.



▲ 형제님 봉사자들의 잠시 휴식



▲ 2008년 경 성모회



▲ 2010년 경 주일학교 복사단 - Fr. Potter와 조민현 신부님



▲ 2010년 경 견진성사 후 Bishop da Cunha



설날 잔치



송년 잔치



▲ 2006년 송년 잔치



▲ 조민현 신부님, 유승원 신부님과 하 마리꼴배수녀님, 임인분 수녀님이 보인다.



Bishop Cruz 성모자상 축성



▲ 2009년 1월 1일
한국 성모자 상
축복: Bishop Cruz



▲ 2009년 1월 1일
한국성모상 축성 후
Cruz 주교님, 박창
득 몬시뇰과 조민
현 주임신부님

▲ 2009년 설날 잔치 새해 축하를 부르는 성가대

본당 단체들



▲ 2010년 회장단, 단체장, 구역장 축복식



▲ 2011년 주일학교 성가대 -조후연 신부님 옆에 지휘자 지용철 씨



▲ 2005년 전후 Somerset 구역회



▲ 메이플우드 소성당에서 레지오 마리아 주 회를 마치고 (년대 미상)

혼인 성사의 해(2010년 11월~2011년 10월)



▲ 혼인성사의 해 준비 봉사자 피정기념 - Bishop Cruz와 조민현 신부님, 이모세 수녀님이 보인다.



▲ 매달 혼인 기념일이 있는 부부들을 위해 기념미사 중에 혼인 갱신식



◀ 기념 미사 후 부부가 flower arch를 통해 연회장으로 입장 - 이남무 빈센트, 율리아나 부부의 활짝 웃는 행복한 모습



▲ 다양한 음식을 직접 만든 '우리 성당 무수리' - 매달 혼인 기념 축하연 외에도 혼자되신 분들을 위한 위로모임까지 13 회의 연회 음식을 준비하였다.



▲ 8월 혼인 anniversary 축하 미사 후 단체 사진



박 몬시뇰 금경축



▲ 2011년 3월 20일 금경축에서 투병 중인 박 몬시뇰이 '아 목동아'를 부르시는데 모두들 따라 부르며 눈시울을 적셨다. 왼쪽에 있는 신자들: 이태성, 김경승, 조영중, 사제들 왼쪽부터 정준선 신부님, 이경 신부님, 민광호 신부님, 조후연 신부님, 박 몬시뇰과 조민현 신부님, 박홍식 신부님, 오세완 신부님 등



▲ 케이크를 자르는 박 몬시뇰과 도와드리는 맏아들 조민현 주임 신부님, 김성규부제님, 홍성계 신부님, 박홍식 신부님, 김영민 신부님, 오세완 신부님



▲ 박 몬시뇰과 조후연 신부님, 오세완 신부님



▲ 금경축 축하차 멀리서 온 ME 부부들과 박 몬시뇰, 오세완 신부님

학생회



▲ youth group의 불링 outing (년 미상)



▲ 2005년 전후 - Youth Group - youth group director 로 봉사했던 Paul Park 이 보인다.

사제 수품 이충우 마이클 신부, 조홍래 베드로 신부



▲ 이충우 신부님의 첫 미사



▲ 2010년 조홍래 부제님 서품식 광경 -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



▲ 어머니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이충우 신부님



▲ 박 몬시뇰을 강복하는 새 신부 조홍래 (수품일 오후)



▲ Bishop da Cunha가 조홍래 신부님에게 안수하는 장면 (Sacred Heart Basilica Cathedral)



▲ 갓 태어난 두 명의 손자 신부와 아들 신부님들과 함께 몬시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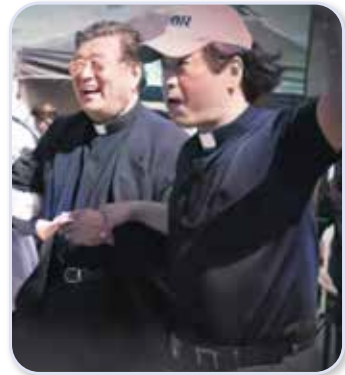
▲ 두 아들 신부님을 포옹하는 조민현 요셉 신부님



본당의 날



▲ 국악 팀



▲ 박창득 몬시뇰과 조민현 신부님



▲ Immaculate Conception Seminary 의 신학생들이 (홍성계 신부님, 당시에는 신학생) 와서 함께 즐긴 후 기념 촬영



▲ 2012년 루가회의 상담 장면 - Drs. 최준혁, 최승웅, Bryant Lee 가 보인다.



▲ 2012년 년례 건강 상담/검진 봉사 후 루가회 (의사들의 모임) 가족 기념 촬영

사랑의 나눔



▲ 부활 준비 성당 대 청소 중 - 구역별로 나누어 청소를 했다. (Short Hills 구역 - 2010년 전후)

제4대 조후연 야고보 주임신부(2012년 7월~2016년 12월)



▲ 제4대 조후연 야고보 본당신부(2012년 6월 21일 ~2016년 12월 31일)

어린이의 해(2011년 11월~2012년 10월)



▲ '어린이의 해' 포스터



▲ '어린이의 해' 개막 미사 후 (Cruz 주교님과 함께)



▲ Basilica Of The National Shrine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순례



▲ Closter 박물관 관람 기념



▲ 2019년 대철한국학교 우리 음식 만들기



▲ 매달 생일파티

대철한국학교



▲ 2011년 대철학교 수업 광경



본당의 날



▲ 2012년 40주년 본당의 날: 지영덕 어거스 틴-글라라부부께 공로패 증정 장면



▲ 국악단의 흥겨운 행진

2013년 SAK 가족 캠핑 '사랑으로 하나되자'



▲ 본당 가족 캠핑 폐막 미사 장면



▲ 2013년 9월 7~8일 본당 가족 캠핑, 신나게 춤추는 아삼모 어르신들



◀ face painting 장면



▲ 2014년 뉴튼 수도원에서 야외 미사 후 놀이 시간



▲ 어른들의 경기 준비

신앙의 해(2012년 11월~2013년 10월)



▲ 2013년 6월 본당 여름 피정



▲ 2013년 10월 Shrine of Lady of Martyrs 순례.



▲ 2013년 6월 본당 여름 피정을 마치고



▲ 2013년 7월 거룩한 독서 피정을 마치고 정태현 신부님과 함께

박 문시놀 선종 (2015년 9월 18일)



◀ 박 문시놀 동명유치원 방문 - 선종 3개월 전



▲ 2013년 성탄절 투병 중인 박 문시놀을 재활원으로 찾아간 성가대. 조후연 신부님과 공동집전하신 박 문시놀이 축복의 팔을 돌도록 돕는 김종환 바오로



▲ 2015년 9월 박 문시놀의 하관 예식



부활절 영세 기념



▲ 2014년 부활주일 유아 영세 기념: 김 미셀 수녀님, 조후연 신부님, 유정현 신부님, 그리고 지광오 바오로 (15년간 예비자 교리담당), 왼쪽 끝뒤에 서있는 Leo Hwang (오랜 동안 학생회 director)



▲ 2014년 부활절 세례 기념: 왼쪽부터 김 라우렘 수녀님, 김미셀 수녀님, 조후연 신부님, Tom Bulgia 부제님, 유정현 신부님

즐거운 행사들



▲ 2014년 5월 북미주 사제 협의회 사제단(박 문시놀이 1986년 설립 후 자리가 잡힐 때까지 회장 역임)



▲ 야외 미사 후의 흥겨운 만남의 시간(년도 미상)



▲ 2014년 설날 행사



▲ 2016년 10월 알뜰시장



▲ 2016년 성모회 임원



▲ 2016년 10월 알뜰시장 Youth Group

피정과 특강



▲ 2015년 7월 한정수 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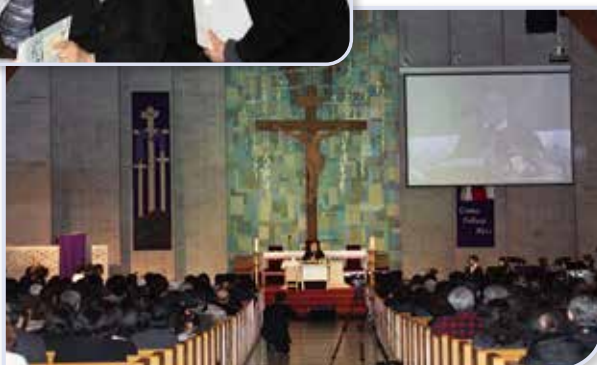
▲ 2015년 7월 한정수 신부님



◀ 2015년 3월 이해인 수녀님



▲ 2015년 12월 지용식 마태오 신부님, 조후연 신부님과 부부 cantor로 봉사했던 원성호 가족



▲ 2015년 3월 이해인 수녀님의 특별 강연



▲ 2016년 5월 8일 정희옥 신부님 특강 후



▲ 2015년 10월 김영희 카타리나



조후연 신부 사제 수품 10주년 행사



▲ 2016년 조후연 신부님 사제 수품 10주년



▲ 2016년 조후연 신부님 사제 수품 10주년

미래의 역군들



▲ 2012년 본당 족구팀의 우승으로 기뻐하는 응원단



▲ 조후연 신부님 수품 10주년 축하연



▲ 2016년 12월 대철한국학교



▲ 2016년 12월 주일학교



▲ 2016년 12월 학생회

제5대 이경 바오로 주임신부(2017년 1월 ~ 현재)



▲ 이경 바오로 신부님

개조된 성당 내부 모습



▲ 2017년 개조된 제대: 제대를 넓히고 좌석을 1000석에서 600석으로 줄였다.



▲ 개조된 성당의 좌석 모습



▲ 개조된 제대 뒷편에 있는 기도실
- 2017년 12월 대림 피정 중 성시간 장면

신앙의 새 출발



▲ 2019년 첫 영성체 기념 - 김영민 신부님



▲ 2018년 첫 영성체 기념 - 조홍래 신부님, 박 세레자 요한 수녀님과 함께



▲ 2018년 영세 준비 예비자 피정기념 - 김영민 신부님과 봉사자, 대부모와 함께.



▲ 2022년 견진성사 기념 - Msgr. Robert Emory (Essex County 주교 대리)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회



▲ 2017년 레지오 마리아 연차총회 수상 기념



▲ 2017년 레지오 마리아 연차총회 장기 자랑

주일학교 Summer Bible Camp



주일학교 복사단



▲ 2019년 어린이 복사단



▲ 2019년 어린이 복사단 가족 나들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 2019년 추석 미사



▲ 2019년 추석 미사



▲ 2019년 견진성사 기념 - 이경 신부님, 대부모와 함께



▲ 가족 공원의 어린이 놀이터



▲ 가족 공원의 전경 - 왼쪽에 보이는 곳은 picnic area, 족구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 2019년 성모의 밤 봉사자



▲ 2019년 성모의 밤 - 성모상에 화관을 씌우는 이경 신부님



▲ 2019년 주일학교 미사를 위해서 교실을 개조해서 새로 만든 박 어거스틴 성당 축성 미사



▲ 어거스틴 성당의 축성 미사 - Youth Group director 황 Leo, 그리고 John Kim이 보인다.



▲ 2019년 주일학교 졸업 기념 - 김영민 신부님, 교무 조경숙 로자, 오래 봉사한 박미리, 박 세례자 요한 수녀님, 조 베로니카 수녀님



▲ 2019년 어거스틴 성당 축성 미사 후



▲ 2019년 이경 신부님과 박경자 마리 리디아, 윤복선 아나스타시아 어르신들



▲ 2018년 대림환을 만들어 전 신자 가정에 나누어 주었다.



▲ 2019년 '아살모' 야유회

본당의 여러 모습



▲ 2019년 본당의 날 미사 -Msgr. Wister (오랜 동안 주일 학교 미사를 집전해 주신 분) 김영민 신부님, 이경 신부님의 입장 광경



▲ 2019년 본당의 날 - 어린이들을 위한 balloon art, face painting



▲ 2019년 주일학교 여름 캠프 -포스터를 들고 있는 윤성진 요셉.



▲ 2019년 학생 캠프



▲ 2019년 치유 피정 찬양 팀



▲ 2019년 Line dance 동호 그룹 'Bonita' - 야외미사 후 공연 기념



▲ 2019년 ME 볼링 대회 기념



▲ 2019년 야외 미사 후 여흥 시간



▲ 2019년 마진우 요셉 신부님의 치유 피정



▲ 2019년 김혜윤 수녀님의 대림 피정



▲ 2019년 김혜윤 수녀님의 대림 피정



▲ 2019 동북부 ME 성탄 파티에서 공연하는 본당 국악팀



▲ 2016년 동북부 ME 성탄 파티 후에 본당 ME 식구



▲ 2019년 연말 파티



▲ 2019년 연말 파티



▲ 2019년 연말 파티 - 아샴모 테이블

내일의 주역들



▲ 대철한국학교 수업 광경



▲ 유스 그룹 피정 중



▲ 유스 그룹 회의 - 유스 그룹 방



▲ 유스 그룹 피정



▲ 유스 그룹 캠핑 중 미사 - 김정경 신부님



▲ 유스 그룹 ski trip



▲ 유스 그룹 캠핑 - 김정경 신부님



▲ 유스 그룹의 점심 봉사



▲ 2020년 설날 미사 중 차례 예식



▲ 2020년 설날 아삼모 어른들께 세배하는 꼬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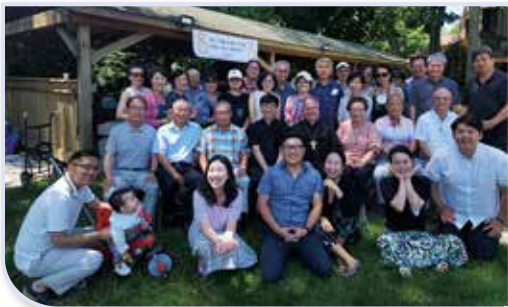
▲ 2020년 견진성사 기념 - 이경 신부님, Msgr. Wister와 함께



▲ 2022년 점심 봉사 그룹 5개 중 하나



▲ 2021년 유스 그룹 졸업기념 - 이경 신부님과 박 세례자 요한 수녀님



▲ 2022년 ME 주말 참석부부 환영 picnic (견진 성사 집전차 오신 Bishop Cruz도 함께)



▲ 2022년 본당 창립 50주년 행사 준비 중인 성가대 - 본당 loft에 있는 성가대석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보고

지영덕 어거스틴

1. 2019년 2월 15일 :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 기획 팀 결성

기획팀 명단 : 지영덕 어거스틴, 이승한 발렌티노, 문상일 마테오, 김기용 요셉, 김재훈 루카, 김유화 베로니카, 한유숙 유스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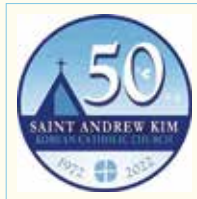
2. 2019년 (?) 창립 50주년 기도문 결정 : 매 주일 미사 전에 전 신자가 함께 봉헌 (참조: 뒷 표지 앞 면지)

3. 2019년 8월 18일 : 50주년 기념 '로고' 결정

전 신자 대상으로 창립 50주년 기념 '로고' 를 공모하고, 응모한 작품 중 전 신자가 투표해서 결정



1등: 박연경 엘리사벳



2등: 송화임 크리스티나



3등: 이재숙 카타리나

4. 2019년 9월 17일 ~ 25일 : 50주년 기념 성지순례

이승한 발렌티노 회장 인솔, 김영민 미카엘 신부님 지도, 바르셀로나 도착 시내 관광을 시작, 카타리나의 성지 모네 수도원, 루르드, 사라고사, 마드리드 아빌라 톨레도 등 순례





5. 2019년 9월 29일 :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발단식 겸 본당의 날 행사



6. 2021년 4월 10일 : 50주년 기념집 준비팀 발족

준비 위원 명단 : 김영민 마이클 신부님 팀장, 지역덕 어거스틴, 송의용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김기용 요셉, 조광재 세바스찬, 채수호 알베르토, 김종환 바오로, 이태성 마이클, 이종원 글라라, 김용식 요셉 그리고 송희선 알로이시아, 조은숙 루시아

목표 : 500 page. 500권, E-Book 뉴약대교구 교구장 Tobin 추기경을 포함 150명의 기고자의 원고, 역사의 기록 및 사진 등 많은 자료를 실을 예정이다.

7. 2021년 9월 12일 :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사업 기금 모음 Golf

• 장소 : Berkshire Valley Golf Course • 참가 인원 : 130명 • 모금 목표액 : \$150,000.00
130명이 참여한 가장 성공적인 캠페인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시상식에 처음으로 도시락으로 대접한 게 유감.



8. 기념집 제호 공모와 선정

50주년 기념집 제목은 전신자들을 대상으로 상금을 내걸고 공모했다. 많은 교우들이 50주년에 큰 관심을 갖고 응모했다. 그러나 적절한 작품이 없어 시상은 하되 제목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본당 신부들과 편집위원회는 제목을 ‘예수님과 함께’로 정했다.

9. 50년간의 우리모습 사진전

이전 성당들의 사진은 학교 복도에, 성당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은 친교실 벽에 전시했다.
전시된 사진 모두 화보에 실렸고 Cleveland St 성당이 빠져 있어 대신 실내 전시 사진을 올렸음.



10. 2021년 12월 25일

창립 50주년 감사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을 기념하는 성화와 봉헌자 명단 비치 (성당 뒷 벽)





11. 2022년 4월 24일 :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성경 퀴즈 골든 벨

교우 150명이 13개 조로 나눠 사순절과 부활절 복음을 중심으로 낸 문제들을 가지고 경경합했다.



12. 2022년 6월 30일 : 창립 50주년 기념집 운영위와 편집위 구성

운영위: 지영덕 어거스틴 (위원장), 조광재 세바스찬

편집위: 조은숙 루시아 (편집장), 송의용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김용식 요셉

13. 2022년 8월 :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 도보순례(Walking Pilgrimage)

- 일 정: 2022년 8월 4일 ~7일, 3박 4일 (총 거리 57.5 miles)
- 참가 인원: 김영민 미카엘 신부 인솔, 총 40명이 참가
- 출발 일시: 8월 4일 오전 7시 Great Meadows 에서
- 파견 미사: 8월 7일 Our Lady of Czestochowa Shrine



14. 창립 50주년 기념 '박 몬시놀기념관' 개관 준비



장소 : Msgr. Park Catholic Center, 110 W. Palisade Blvd., NJ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놀께서 마련하여 남겨 주신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에 있는 가톨릭회관 내에 박창득 몬시놀의 역사적인 유물들을 모아 전시하고 크신 사목자의 삶을 후세에 알리기로



결정하였다. 박 몬시뇰 선종 7주기(2015년 9월 18일 선종)를 맞아 뉴왁대교구 보좌의 Cruz 주교님의 주례로 그분의 아들 신부님들과 그분을 믿고 따르던 많은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미사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기념관'을 봉헌하려고 계획했었다. 그런데 8월 8일에 가톨릭회관 이층에 있는 수도관이 파열되어 전 건물이 물사태로 훼손되어 그 계획이 취소되고 2024년 9주기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

15. 2022년 9월 24일(토요일) :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대미사

뉴왁대교구 교구장이신 Joseph W. Tobin 추기경님께서 집전하신 기념미사는 본당의 오랜 친구이신 A. Manuel Cruz 주교님을 포함한 30명의 사제들과 부제들이 공동 집전했다. 본당을 거쳐간 옛 교우들과 많은 이웃성당 교우들을 포함 약 600명이 함께 미사에 참례 했다.



꽃다발을 증정하는 어린이와
얘기를 나누는 추기경님



미사 후 성모님께 기도하는 추기경님



기념미사 입장 행렬

미사 후 제2추모관을 축성하는 추기경님



미사 후 단체 사진을 위해 돌아선 사제단과 미사 참례신자들

16. Tobin 추기경은 본당 창립 50주년 역사에 크게 기여한 신자 12가정에 기념미사 중 감사패 전달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헌신적인 봉사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모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당신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과 전 교우들의 귀감이 되어 주신 모습을 존경합니다.”



◎ 감사패 수여 (가나다 순)



김도영 프란치스코



손영근 마티아



윤성진 요셉



이승한 발렌티노



이인덕 안드레아



이정자 카타리나



이항백 요한



이희영 베드로, 조은숙 루시아



조영종 율리오



지영덕 어거스틴



하상구 바오로



황 레오

17. 축하연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Tobin 추기경님, Cruz 주교님, 이경 주임신부님, Sr. Ciangio 교구 chancellor, 이승한 평협 회장님



뒷 마무리를 마치고 모여 앉은 임원들의 흐뭇한 표정, 3년 동안 정성껏 봉사해 오신 임원과 모든 분들의 사랑과 열정에 감사합니다.

**우리 본당,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는
이제 반백년의 역사를 딛고 우뚝 솟아
주님의 뜻을 따르려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어 댑니다.**

가족사진과 기도문

강창홍 바오로 김귀순 데레사 가족



사랑의 주님!

St. Andrew Kim Church를 통해 내려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사랑에 가득찬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강경승 아오스디, 미셀 가족



저희 가족을 돌보아 주시어 힘들고 낮은 이민생활을 이겨 내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신 사랑의 하느님! 주님의 크신 은총에 오로지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강영준 베드로 가족



주님의 은총이 항상 저희 가정에 머물게 하소서.

김정경 실바노 신부 가족



“하느님께서서 우리의 함께 계시다.” (마태오 1:23)

김종진 요아강- 김영자 안나 가족



주님! 저희 자녀들이 항상 주님과 성모님의 품안에 머물게 하소서.

서재훈 세례자 요한, 조남령 비비아나 가족



저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로 가득찬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손영근 마티아, 손문자 헬레나 가족



사랑이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 드리며 저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참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이승환 방켄티노 이데레사 가족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말이 너희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 15.7)

이재영 토마스, 이은희 소피아 가족



저희 가정에 굳건한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이종명 안토니오, 이홍자 카타리나 가족



주님의 은총이 항상 저희 가정에 머물게 하소서.

이회영 베드로-조은숙 루시아 가족



"항상 주님의 뜻을 찾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임태완 알베르토 & 강옥주 안젤라 가족



항상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느님이시여!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간청하오니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 아멘



장상조 스테파노 가족



전능하신 주님.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랑충만한 공동체를 위해 봉사와 사명을 다하도록 도와주소서!

장홍수 노아 가족



저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은 영원히 찬미와 영광받으소서.

지영덕 어거스틴 가족



‘당신이 지난 5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영원히 우리를 지켜 주소서.’

지영식 예로니모 & 지요경 안젤라 가족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희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채석규 미카엘, 김채연 라파엘라 가족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5)

한영국 올리아나 가족



미카와 이탄. 그리고 모든 아기들의 행복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며...

홍종욱 토마스, 이정희 스콜라스티카 가족



저희 가정에 굳건한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첫영성체 가정기도

Kenny Chan 가족



저희 가정을 당신께 봉헌 드리옵니다.

Paul & Diana Gallagher 가족



저희가 본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눔으로서
진리와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권경민 요한 & 권지은 모니카 가족



저희 가정에 굳건한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장용서 대견안드레아, 유지영 아네스 & 장윤우 제롬 가족



저희 가정에 굳건한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소서.

김남기 스티븐 & 김유경 아이리안 가족



저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로 가득찬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황레오 & 노엘 가족



저희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고 감사와 기쁨의 생활로
가득찬 성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 ● 편집 후기

우리 본당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기념집 출판 작업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본당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그때그때 찾아 주셨고, 차질이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셨다. 특히 원로 Dr. 조 루시아 자매님을 꼭 필요할 때 기념집 편집에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기념집 첫 뼈대를 세워준 송의용, 너무 열심히 기초작업을 맡아 준 김기용, 꾸준하고 믿음직스러운 조광재, 그 많은 원고들을 입력해준 이태성, 원고를 교정하고 문장을 다듬어 준 채수호 등, 25주년 기념집 발간 경험을 토대로 마지막까지 편집 작업을 맡아준 김용식 형제 등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합당한 상급을 내려 주시기를 빈다.

[지영덕 어거스틴, 50주년 기념 행사 준비 위원장]

5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신부님과 신자들의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에 몸 담고 살아온 날들이 새삼 감사하다. 첫 30년은 박 몬시뇰의 선구자적 사목을 따라 청장년으로 성장하는 시기였고, 그 후의 20년은 어른답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 모든 순간 순간에 함께하신 하느님께 찬미드리며, 내게 주신 선물을 조금이나마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기념집 편집에 관계하면서 참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축복이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 정성을 기울이신 송의용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김용식 요셉 형제님들을 포함한 편집위원들 외에도, 원고를 보완하고 교정을 봐 주신 분들, 사진을 모으고 정리하신 분들, 50명이 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누구보다도, 말없이 기다려주고 후원해 주신 이경 주임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대원컴퍼니의 문영환 사도요한 사장이 우리 기념집 출판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준 것이 펍 고맙다.

특별히 뿌듯했던 일은 박 몬시뇰이나 본당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신자들이 원고 교정 작업을 통해 많은 것을 새로 알았다는 말들을 보내온 것이다. 기념집 발간의 중요한 바람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기쁨으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린다. 덕분에 편집팀이 넘어온 여러 고비들을 어려움이 아닌 하느님의 선물로 기억할 거다.

[조은숙 루시아, 편집 위원장]



50주년 기념집은 나에게 실수와 죄의 집합이다. 편집 책임을 맡아놓고 건강 악화, 수술을 핑계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주님과 본당, 교우들에게 용서를 빈다. 다행히 거의 초창기부터 본당의 여정에 깊이 관여 한 조은숙 루시아 원로 교우를 보내주시어 뒤늦은 난산이나마 ‘우랑아’를 출산했다. 처음 구상이 어긋나고 부족함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다시 한번 당위와 의지와 능력의 괴리에 가슴을 친다. 그러나 주님과 모두에게 감사, 또 감사한다.

[송의용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25주년 기념집에 편집 후기를 썼던 기억이 난다. 또 한 번의 25년이 지났다. 편집하느라 고생하신 지역 영덕 회장, 닥터 조 루시아, 송의용 국장 같은 선배들의 열정에 감탄할 뿐이다. 조 세바스티안 형제, 채수호 형제, 이 마이클 형제를 비롯한 편집위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HGK 형 감사했습니다. 100주년 편집 후기는 힘들겠고 75주년에 편집 후기 한 번 더 쓸까요?

[김용식 요셉]

1980년 7월 낯설고 물 설었던 미국에 유학 와서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는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를 찾았고 박 몬시뇰을 만나 우리 집처럼 오랜 세월을 지내다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미국의 삶이 타국이 아닌 내 나라로 느끼며 살게 된 것은 완전히 우리 성당의 공이라 여겨진다. 2022년은 우리 본당이 창립 50주년의 해이면서 우리 부부가 결혼 50주년이 되는 금혼식의 해이다. 그래서 더 기쁜 마음과 정성으로 맡은 일을 했다. 우리 생명은 유한하지만 우리 성당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앞으로 75년, 100년...을 계속 발전하기를 빈다.

[이태성 마이클]

50주년 기념집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탬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다. 여러 형제자매님께서 쓰신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한 분 한 분의 글들은 모두 다른 상황, 다른 환경 속에서 쓰인 것이지만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열심히, 용감하게 살아가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의 약한 신심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저의 신앙도 많이 성장했으리라 믿는다.

[채수호 알베르토]

이 책이 출판되는 과정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0주년 기념집이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는지 보았습니다. 원고를 청탁하는 일부터 들어온 원고들을 타이핑하고 교정하고 글쓰기와 더불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일, 필요한 사진들을 수집하여 스캔한 후 손질하는 일, 그리고 이 모든 원고와 서화들을 분류하고 책 꼴로 만드는 작업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보았습니다.

Msgr. Robert Wister, Andre Chi, Leo Hwang, John Kauh, Marianne Kauh, H. Kim, JY Catalina Pak, 김영민 신부, 조민현 신부, 조홍래 신부, 조후연 신부, 고승욱, 고영봉, 권연진, 김경태, 김기용, 김보영, 김선린, 김용식, 김종환, 김유화, 김혜인, 문상일, 박동화, 박수미, 박종한, 백형완, 백정복, 송의용, 송희선, 송화임, 신영미, 이기명, 이영순, 이승한, 이영주, 이웅건, 이재숙, 이재영, 이종원, 이종확, 이태성, 이혜영, 이회영, 임금옥, 장홍수, 정순옥, 조가은, 조광재, 조남근, 조성원, 조재웅, 조은숙, 지영덕, 차미영, 채수호, 한유숙, 허영희, 황민경 이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제각기 기꺼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글을 써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50년 역사와 그 속에서 숨쉬어 온 우리들의 모습이 잘 엮여진 기념집을 자랑스럽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P.S. 전자책 마무리를 도와주신 김영준 베드로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면서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이경 바오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집 예수님과 함께 / Walking with Jesus

발행인 | 이경 바오로 신부

발행처 |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 280 Parker Ave. Maplewood, NJ 07040
| 973-763-1170, catholicmaplewood@yahoo.com, www.ilovesak.org

인쇄 | 2023년 10월 30일

발행일 | 2023년 11월 06일

운영위원회 | 지영덕(50주년 기념 행사 위원장), 조광재, 김기용, 이태성, 채수호

편집위원회 | 조은숙(편집장), 송의용, 김용식

표지 디자인 | 이재숙

인쇄 · 제작 | 대원컴퍼니 : 문영환 (010-3719-0895)
(우) 04556 서울시 중구 마른대로4가길 16-11, 2층

ISBN | 979-8-218-11417-6

*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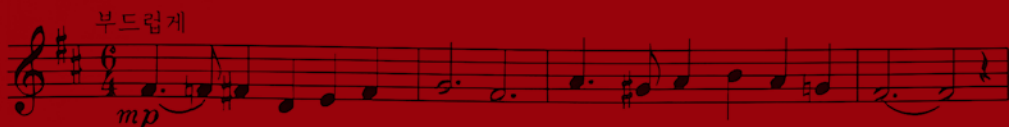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출판물이므로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습니다.

* 동반 전자책 (e-book) 의 고유 번호는 979-8-218-23408-9 이며 다음의 link 에서 download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lovesak.org/v2/50anniversary/>

뉴저지성당노래

박 어거스틴 몬시뇰 작사

현 요 왕 작곡



1. 하 느 님 을 아 버 지 로 새 로 난 우 리 들 은—
2. 한 — 제 단 에 모 여 와 주 님 의 몸 모 시 며—
3. 성 — 령 이 여 오 시 어 우 리 마 음 채 우 사
4. 예 수 님 을 길 러 주 신 사 랑 하 을 성 모 여—
5. 안 드 레 아 김 신 부 님 우 리 본 당 주 보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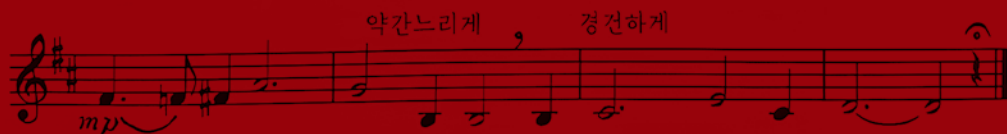


1. 서 로 서 로 사 랑 하 는 한 울 안 형 제 들—
2. 주 — 그 리 스 도 머 — 리 로 한 몸 이 룬 우 리—
3. 믿 음 회 망 주 — 시 고 사 랑 케 하 소 서—
4. 우 리 들 도 당 신 품 에 자 라 게 하 소 서—
5. 앞 장 서 신 믿 — 음 길 뒤 따 라 가 리 다—



(후렴)

한 아 버 지 섬 기 는 한 집 안 식 구 들—



우 — 리 는 한 마 음, 주 님 품 안 에—

성 김대건 뉴저지 한인 천주교회 창립 50 주년 기도문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본당 공동체와 함께 하시어 한결 간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 나눔과
선교, 일치의 공동체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저의 본당 공동체가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참된 복음화를 위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 안에 하나 되고 주님의 뜻을 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주님께 봉헌하는 미사전례와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임을 깨닫게 하소서.

본당 설립 50 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간이 저희에게 은총과 축복의
기간이 되어 영적으로 더욱 굳건해지고 서로 화목하여 하나 되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is a metaphor
of following his example,
living his teachings,
and becoming his friend for life.*

*If we walk with Jesus,
we will never be alone.
He always will be with us,
guiding and protecting us.*

*Walking with Jesus leads us
to true peace with joy and genuine love
to serve those in need and
to forgive others who wronged us.*

*We hope this book, Walking with Jesus,
is a ray of light
on the path to friendship with Jesus.*

the editing team of ‘ Walking with Jesus’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8)

